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제 1 호 (42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김 일 성

신 년 사

(1978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승리의 한해를 보내고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는 희망찬 새해 1978년을 맞이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지름길우에 또하나의 빛나는 리정표를 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진군을 시작하는 오늘 온 나라는 끝없는 환희와 혁명적정열로 들끓고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용감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멀리 이국땅에서 사회주의조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높은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적열정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6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축복을 보냅니다.

1977년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6개년계획수행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일시적으로 조성되였던 긴장성을 완전히 풀었으며 새로운 더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한 기초우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자신만만하게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 들어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용감한 수송전사들은 《수송혁명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수송사업에

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수송전사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 방침이 적극 관철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도 일을 잘하였습니다. 채취공업부문의 충직한 로동계급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받들고 탄광,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기술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과 광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였습니다. 특히 덕천, 개천, 구장 지구의 탄광련합기업소들과 득장탄광, 안주종합탄광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충성의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최근에 석탄생산량을 지난해에 비하여 2배로 높이는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에 기계공업, 전력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다른 공업부문의 로동계급도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때전선의 영향으로 이른봄부터 매우 불리한 날씨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전당, 전민, 전군이 떨쳐나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850만톤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커다란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됩니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은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20만정보의 밭관개를 완성하고 수리화체계를 더욱 완비함으로써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지난해에 과학, 교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 사회안전원들은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온 나라가 드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서 공화국의 새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정권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며 앞으로 보다 큰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됩니다.

참으로 지난해는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지난해를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

니다.

지난해에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인민의 정의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친선적인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인민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제2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입니다.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현대적과학기술에 토대하여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새해 1978년은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첫해이며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의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잘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 법입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올해의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주타격방향은 채취공업입니다.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연료, 동력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고 가공공업에 원료도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외화원천도 적극 늘일수 있습니다. 결국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열쇠는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채취공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탄광, 광산들을 더욱 개건확장하고 그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채취공업의 선차성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송사업에서도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운수부문에서는 우리 당이 내세운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길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차량을 대대적으로 늘여 철도에 의한 대량수송, 먼거리수송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과 배수송을 강화하며 철도와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물자와 설비들을 제때에 날라주어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은 공업의 심장이며 기술적진보의 기초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일을 잘하여야 채취공업과 운수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있습니다. 올해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로 건설되는 공장, 기업소의 대상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대형공작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작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채취공업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대형자동차,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 압축기들 비롯한 기계설비들과 수송사업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여러가지 차량들과 큰 짐배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새해에 기계공업부문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의 높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올해에 다른 공업부문에서도 다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공업부문에서 이미 건설하여놓은 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높임으로써 올해에 자기앞에 맡겨진 과제를 반드시 넘쳐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농업전선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공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인민생활도 더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다른 문제들도 다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이 날로 긴장해지는 조건에서 농사를 잘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 농업부문에서는 미리부터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또다시 대풍작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한방울의 물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다 잡아 저축하며 우물을 대대적으로 파고 더 많은 물원천을 확보하여 밭관개면적을 계속 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바로 3대혁명을 잘하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제2차7개년계획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며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을 자체의 힘과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있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할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으며 나라의 정세도 대단히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조직동원하며 지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당,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조직하고 집행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지도일군들은 관료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사업하여야 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있는것만큼 절대로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명백하며 전망은 휘황찬란합니다.

모두다 공산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김 일 성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2월 15일)

대의원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대의원선거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며 전체 인민이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들끓는 환경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모든 공민들은 인민정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모두다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투표함으로써 공화국정부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를 뚜렷이 표시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불패의 통일과 단결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습니다.

나는 전체 인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공화국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표시하였으며 새로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동지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우리에게 공화국의 새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갈데 대한 영예롭고 무거운 책임을 맡겨준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인민의 신임을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 조직된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과 높은 기대에 맞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에 충실할것이며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선거가 있은 다음 지난 5년동안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내여 투쟁한 결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한층 심화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지졌으며 공화국의 위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훨씬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휘황한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전진운동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우리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1.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다

동지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됩니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는 력사가 발전할수 없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력사의 주체로서 모든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을 쥐였는가 못쥐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였습니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 착취사회에서는 국가주권을 쥔 착취계급만이 지배권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주권을 쥐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못가지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위력이 남김없이 발양되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합니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에서 주권에 관한 문제가 기본문제로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위하여, 자기의 주권을 위하여 간고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렸으며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오랜 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이 창립된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이지만 그 력사적뿌리는 훨씬 오래전에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마련되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우리 인민이 벌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인 동시에 근로인민의 주권을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로선에 따라 유격근거지들에서 독창적인 정권형태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영함으로써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이 해방된 다음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짧은 기간에 주권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해방후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창립된 인민정권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놓은 인민정권건설로선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유격근거지들에 조직되였던 인민혁명정부의 직접적인 계승이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조선혁명의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자신이 선택하고 우리자신이 만들고 우리자신이 운영하는 주체적인 혁명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쥔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창립된 첫날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앞에 선차적으로 나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진적인 새 사회제도를 세우는것이였습니다. 인민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식민지반봉건적인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데 뒤이어 곧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전후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공화국북반부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

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백방으로 옹호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경제건설은 인민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주체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경제적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 강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자주성과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습니다.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처음부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도발 책동이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우리 당의 혁명적자위로선을 관철하여 제때에 혁명무력을 창건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그에 의거하여 조국보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소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가 되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전후 적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왔습니다.

창립후 오늘까지 우리의 인민정권은 줄기찬 투쟁과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인민정권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 전투력있고 생활력있는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정권의 정치경제적기초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민정권은 가장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사회주의정권으로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로인민대중은 인민정권이 있음으로 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인민정권아래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있으며 그들의 창발성이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국의 륭성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인민정권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이 있으며 우

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인민정권의 창건과 함께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찾았으며 인민정권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온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이 얼마나 우월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인민정권을 진심으로 깊이 신뢰하고 인민정권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인민정권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아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2.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동지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으며 그들은 인민정권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모두 인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거되며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인민정권기관은 결코 인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으로 될수 없으며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영예로운 사명입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아야 하며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할뿐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 소수특권계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로 될수 없습니다. 세상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입니다.

착취계급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좌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을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민주주의》,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그것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절대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있을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말로는 《만민의 평등》이요, 《개성의 자유》요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실지에 있어서는 전혀 실현될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과 생산수단이 소수자본가들의 손안에 들어있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억만장자들과 가난한 근로인민들사이에 어떻게 평등이 있을수 있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조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시되고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이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누구나 다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며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로동생활에서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물질적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으며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

치료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전체 인민들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교육에 대한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모든 사회정치적권리와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고있을뿐아니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평등한 사회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며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더욱 원만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인민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국가정치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의 주인인것만큼 인민정권사업에 참가할 떳떳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또한 인민정권사업에 참가하는것은 그들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우수한 대표들로 각급 주권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광범한 인민들이 인민정권사업에 널리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인민대중을 끊임없이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이 모두다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열의를 가지고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정권의 모든 정책과 활동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인민정권의 정치가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로,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정치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투쟁으로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며 자기의 요구와 리상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잘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기 위한 담보입니다.

우리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높이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보다 넉넉하게 하며 근로자들사이의 생활수준과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쳐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여러가지 새로운 인민적인 문화시책들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원만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나라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지도와 보장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적대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그것은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합니다. 세상에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생겨난 때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 전복된 계급적원쑤들은 언제나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고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대한 비방중상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공격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이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행위입니다.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괴뢰국가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리치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전혀 못가지며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 《인권》이 있다면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권리가 있을따름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이른바 《인권탄압》에 대하여 말한다면 사회주의국가가 민주주의적질서를 유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것은 민주주의의 원쑤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인권》은 인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인민의 원쑤들의 인권이며 그들이 바라는 《자유》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괴활동의 자유입

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는것처럼 민주주의의 계급성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고 소수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제재를 가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모략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고수하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할 때 우리의 인민정권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은 보다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3. 관료주의를 반대하자

동지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관료주의를 반대하여야 합니다.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관리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입니다.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인민의 충복인 인민정권의 사업에서는 관료주의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인민들의 리익을 적극 옹호할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사업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문제는 정권기관이 권력기관이라는 사정과 관련하여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인민정권기관은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이며 정권기관일군들은 국가권력을 가지고 사업합니다. 이런데로부터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권력을 람용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며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창립한 첫날부터 관료주의를 주요한 투쟁대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반대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지도와 정권기관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관료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나 아직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있는 조건에서 관료주의가 나올 위험성은 의연

히 남아있습니다. 만일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여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어느때든지 관료주의가 나올수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어긋나는것을 내리먹이며 인민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데서 표현됩니다. 일군들의 주관적의도는 어떻든지 또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지 않는것을 내리먹이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것은 다 관료주의입니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는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저애하며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칩니다.

관료주의의 해독성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킨다는데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한것을 망탕 내리먹임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관료주의는 인민정권과 근로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해독적작용을 합니다. 관료주의자들은 대중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호령하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인민정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는데 지장을 줍니다.

모든 사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비록 개별적일군이 관료주의를 부려도 여러 부문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엄중한 후과를 가지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인민정권기관사업에서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이 투쟁에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주관주의적으로 사업하는것은 언제나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됩니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고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잘 알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최고원칙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어떤 결정을 채택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 반드시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군중과 충분히 의논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리익에 맞게 사업하려면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청산리방법은 주체적인 군중관점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절대로 인민우에 올라앉아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가 되여도 안되며 군중과 동떨어져사는 특수한 존재가 되여도 안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주며 인민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쳐주며 인민들을 교양하여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한마음한뜻으로 살며 일할 때 인민들의 요구를 더 잘 알고 그들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지도하고 관리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데서 광범한 군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사회화된 대규모경제이며 사회주의경제의 주인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에서 집체적지도원칙을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켜야 사회주의경제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습니다.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적지도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에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키며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열의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민들자신이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법을 잘 지킬 때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관료주의가 없어지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더욱 원만히 보장될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법규범과 규정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법을 존중히 여기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이 권력을 람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것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널리 해설하여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의 준법의식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모든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이 국가의 법질서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것을 일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법규를 어기고 관료주의를 부리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군에 대하여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관료주의를 제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는 다음해부터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말에 가서 한해에 560억~6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7,000만~8,000만톤의 석탄, 740만~800만톤의 강철, 100만톤의 유색금속, 500만톤의 기계가공품, 500만톤의 화학비료, 1,200만~1,300만톤의 세멘트, 350만톤의 수산물, 1,0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고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지금보다 생산을 두배이상 높이게 될것입니다.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입니다.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며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온 나라와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하며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이며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각급 정권기관들과 전체 인민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더욱 완비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공화국정권은 우리 인민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혁명적기치입니다. 인민정권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더욱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될것이며 우리 조국은 끝없이 륭성발전할것입니다.

전체 인민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신이 선거한 인민정권을 더욱 신뢰하고 인민정권의 제반 시책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공산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을 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지금 온 나라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변함없이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끓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할 불같은 열정을 안고 전당, 전민, 전군이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변함없이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게 된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더없는 기쁨이며 공동의 혁명적대경사이다.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싸우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전체 해내외인민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최대의 영예를 드리고있으며 온 세계는 주체조선을 향하여 충심으로부터의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열화같은 흠모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끝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 량심과 의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충성심의 숭고한 발현이며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의 뚜렷한 과시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갈 철석같은 결의에 더욱 충만되여있다.

1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와 민족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민족과 인민의 력사에서 탁월한 수령을 모시는가 모시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인민의 운명, 그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인민대중이 명실공히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가기 위해서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 비범한 예지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옳바로 이끌어주는 혁명의 수령을 모셔야 한다.

매개 나라 인민은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꽃피우고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융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비로소 그 민족은 자주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끝없는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과정에서 이룩된 모든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어느것이나 다 그 시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준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직접 련결되여있다.

력사는 광범한 대중이 력사적운동에 참가하였어도 그들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각성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조직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반동세력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는 쓰라린 교훈을 남기고있다.

민족수난의 풍랑을 헤치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오늘의 광명한 새시대를 맞이한 우리 인민의 지난 혁명투쟁력사가 바로 이 진리를 엄연한 현실로 확증해주고있다.

지난날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헤아릴수 없는 수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은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수천년의 민족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수령, 민족의 태양을 맞이하게 되였으며 자기의 참다운 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주체조선의 빛나는 력사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혁명업적들로 수놓아진 영광의 력사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영예와 긍지, 그것은 반세기의 오랜 기간 험준한 투쟁의 길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불멸의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업적으로 조선혁명과 현대력사를 빛내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다.

온 민족의 피타는 갈망을 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벌써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명철하게 통찰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과 모든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 위업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틀어쥐고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은 력사발전의 조종간을 튼튼히 틀어잡고 자주성의 시대를 힘있게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의 창시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인류해방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일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옳은 투쟁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추동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보고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이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오래동안 민족자주의식과 창조적지혜를 좀먹고있던 사대주의사상의 멍에로부터 우리 인민의 완전한 정신적해방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게 되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11페지)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혁명적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20여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이 제가끔 《애국자》, 《혁명가》로 자처하면서 갈라진 나라의 정세를 더욱 혼란시키고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판을 치던 그 복잡한 환경에서도 주체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지체없이 건당, 건국, 건군 사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령군술과 주체전법으로 세계의 면전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였으며 미제의 침략력사에서 최초의 항복서를 받아내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인민을 자주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지난날 락후와 빈궁의 대명사로 되여오던 우리 나라를 모든것이 파괴되고 국토가 갈라진 어려운 조건에서도 튼튼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무적의 방위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인류의 리상을 확신성있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력사의 지름길을 개척하시였다.

조선의 현대력사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고 2대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기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이 땅우에 천지개벽을 이룩하고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위대한 사변들로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였기에 지난날 력사의 후진대렬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나라는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서 그 위용을 자랑높이 떨치게 되였으며 력사의 가장 비극적인 수난자였던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숙볼수 없는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자기의 슬기와 용맹과 기개를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오늘 사회주의조국의 떳떳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인간의 참다운 존엄을 빛내이며 끝없는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된것도, 자주성의 시대의 선두대렬에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높은 영예를 지니게 된것도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행복에 대하여, 백전백승하는 주체형의 당과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과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생활에서 귀중하고 의의있는 그 모든것은 어느것을 막론하고 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직접 잇닿아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게 된 바로 거기에 영광스러운 시원을 두고있다.

우리 인민의 영예와 행복, 긍지와 자부심은 또한 가장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신 영예이며 자랑이다.

우리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반세기의 혁명투쟁로정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복무, 혁명전사에 대한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수놓아진 영광의 로정이며 자애로운 인민적수령의 고결한 풍모로 빛나는 력사이다.

인민을 위하여 탄생하시고 인민대중

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신다.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믿음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힘의 원천으로, 생명수로 되고있다. 그 위대한 사랑속에서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공고한 정치적결정체가 되여 공산주의미래에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으로서의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 그리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후의 공적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민족해방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는 장구한 혁명로정을 령도하여오시면서 쌓으신 탁월한 사상리론적업적과 빛나는 실천적경험들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세계혁명운동 발전에서 인류공동의 고귀한 재부로,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으신 반세기의 성상, 그것은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가장 폭넓고 심오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사상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주체의 기치밑에 안팎의 원쑤들을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투쟁과 승리의 로정, 창조와 건설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가장 치렬한 결전장으로 전변된 조선에서 주체의 기치가 높이 휘날리고 세기에 빛날 혁명업적이 이룩될수 있었으며 조선의 이름이 오늘과 같이 크게 울릴수 있게 된것이다.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영예와 자랑은 끝없다.

2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끝없는 영광과 혁명적자부심을 지니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류의 최고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다. 로동계급과 그 당은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될 때에만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참다운 앞길이 밝혀져있다.

로동계급의 최고뇌수인 수령은 선행한 모든 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일반화하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창시하며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그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것을 끝까지 구현해나가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그것을 드팀없이 철저히 구현하여나갈 때만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현대혁명투쟁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험난한 길을 헤치며 오직 보람찬 투쟁과 승리의 한길을 개척하여온 빛나는 로정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온 영광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히시였으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자기의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였으며 승리하며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새기원이 시작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수행하는 주체의 혁명위업, 그것은 그 어느 세대도 체험해본적 없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고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이 그처럼 위대하고 성스러운것은 무엇보다도 그 지도사상의 위대성과 숭고성에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으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8페지)

불멸의 주체사상은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이 온갖 예속과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자주성의 시대를 열어놓았으며 혁명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빛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리론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모든 단계의 혁명과 건설의 리론과 전략전술 그리고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심오하게 밝혀지고 전일적으로 집대성되여 있는 혁명의 위대한 교과서이다.

우리 시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확고한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이처럼 우리 시대의 향도적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위업인것으로 하여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진다.

특히 주체의 혁명위업은 력사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철

저히 옹호실현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며 자주성을 떠나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사회생활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킬수 없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존재인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상이며 그들을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존재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숭고한 혁명사상이다. 이 사상은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하며 그들의 지위와 가치를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울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은 바로 주체사상의 이러한 근본 원리와 요구들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철저히 보장하고 실현한다.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 다시말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실현하며 그들을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되게 하는 과정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또한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승승장구하여온 영광스러운 위업이며 그 과정을 통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진로를 밝혀주고 고귀한 실천적경험을 창조하여온 위대한 사업이다.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그 특수한 안팎의 환경으로 하여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조선혁명은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건에서 출발하여 겹쌓인 난관을 박차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주체의 영광스러운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왔다. 우리 당과 인민이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험난한 길을 헤치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위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들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에게 참다운 본보기로 되며 고무적힘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위업인 동시에 지구상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 예속과 사회적불평등을 청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새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전세계사적위업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혁명위업은 그 본질로부터 철저히 로동계급적이며 국제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자기 조국과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존중할뿐아니라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위업, 인류의 공동위업에 적극 기여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여러 단계의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과제들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20세기의 기적의 나라》, 부강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주체시대를 빛내여온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창조의 력사, 이 땅우에 이룩된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세기적인 변혁, 전체 인민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민족의 대번영,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불패의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참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이고 이 땅우에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위업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함으로써만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지닌 최대의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감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이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인류해방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것이다.

로동계급과 그 당이 자기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상정신적특질이며 숭고한 풍모이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녀야 수령의 사상의 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확고한 정치적신념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정치적신념은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열화와 같은 흠모,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신봉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고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온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인민은 어떤 사나운 ·광풍이 휘몰아치고 모진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수령이 개척한 혁명의 한길로 굴함없이 걸어나가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산 현실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와 민족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혁명적 신념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우리 인민에게 모든 행복, 모든 영예를 다 안겨주시고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무궁토록 높이 모시고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려는 한없이 뜨겁고 순결한 충성심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충성심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조선혁명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그때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더욱 공고화되고 력사의 시련을 이겨낸 변치 않는 충성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영예,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혁명전사된 높은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혁명의 한길에서 어버이수령님께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하여야 한다.

우리가 생의 한순간, 매 시각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고스란히 바쳐 싸워나가는 여기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영예를 안고 언제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며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에 기초한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기원을 열어놓고 주체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번영할 우리 혁명의 새 력사를 펼쳐놓은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다.

전당, 전민, 전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확고히 고수할 때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지켜나갈수 있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당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당의 생명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8～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순결한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곧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주체의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이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근본핵으로 하고 주체의 사상체계로 일관된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하나로 련결시키는 유일한 혈맥으로 되며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쌓아지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집대성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위업의 튼튼한 터전으로, 억년 드놀지 않는 초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우리 당과 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튼튼히 보위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주체의 혈통을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의 만년초석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따라 충성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온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력사적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반세기의 기나긴 세월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앞에는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페지)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주체시대에 태여나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며 이 땅우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인류의 리상사회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연설과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혁명주권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으로,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빠른 기간안에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령마루에 올라서며 공산주의에로 곧바로 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추켜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며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찬연한 빛발로 혁명적인 정권건설의 길을 휘황히 밝힌 강령적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영광속에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를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충성의 한길로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인 연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진운동에 떨쳐나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 해내외 전체 인민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있으며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연설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와 조선혁명의 반세기에 걸치는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인민정권의 혁명적본분과 국가정권기관활동의 기본방식인 민주주의에 대하여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한없이 심오하고 풍부한 혁명정권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담은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것은 우리 인민의 국가정치생활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또하나의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적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몸소 새형의 혁명정권인 우리 인민정권을 창건하시고 공고발전시켜오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과 경험의 총화이며 주체적인 혁명정권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의 집대성이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행정에서 로동계급의 국가건설, 정권건설 앞에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정연하게 밝혀준 경애하는 수령님의 연설은 과학적공산주의의 탁월한 저서로,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혁명정권건설의 위대한 정치강령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긍지와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싸우는 인민들에게 주권문제해결의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동시에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민주주의를 헐뜯고 사회주의를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선전의 허위성을 전면적으로 폭로분쇄하고 그들에게 사상적철추를 안기는 위력한 혁명적문헌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을 명시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우리 인민을 더욱 큰 승리와 위훈에로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보다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될 사회주의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준 위대한 고무적기치이며 전투적강령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연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찬연한 빛발로 혁명정권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주체의 정권건설대강이

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적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고 우리 시대의 성숙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불멸의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찬연히 빛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문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를 일관하고있는 기본사상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국가건설에서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을 주체로 삼고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며 그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할데 대한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정권건설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국가주권의 본질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서 국가주권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3 페지)

력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사회발전의 동력도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의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그 어느 사회에서나 다 한결같이 보장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그들이 국가주권을 쥐였는가 못쥐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을 쥐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국가주권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의 주인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규정하시고 사람들의 자주권이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바로 국가주권이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 더없이 귀중한 진리를 밝히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정권건설과 사회주의정치리론의 확고한 초석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에 관한 과학적인 학설과 리론을 창시하신것은 종래의 낡은 국가관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에 관한 리론,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반전시킨 불멸의 력사적공헌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국가주권에 관한 주체적인 리론은 우리의 혁명주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게 구현되고 그 진리성과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과 전략전술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으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몸소 유격근거지들에 독창적인 정권형태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고귀한 력사적뿌리에 기초하시여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시고 주권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선진적인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의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인민자신이 선택하고 인민자신

이 만들고 인민자신이 운영하는 주체적인 진정한 혁명정권을 가지게 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쥔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주체적인 혁명정권을 세우시였을뿐아니라 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적인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수립된 혁명정권의 본분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인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창조적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심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 전투력있고 생활력있는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고 자주적인 사회주의정권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오늘 우리의 전체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의 륭성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인민정권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정권이 쌓아올린 업적과 인민정권아래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은 주체적인 혁명정권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의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정권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온 나라가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정권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참다운 풍모이며 여기에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고 오늘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과 보다 휘황한 미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 일관되여있는 기본사상의 다른 하나는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며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인민정권의 영예로운 사명과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로동계급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영예로운 사명입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아야 하며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10페지)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인민정권기관은 결코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으로 될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영예로운 사명으로, 혁명적본분으로 삼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은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철학의 빛나는 구현이며 우리

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혁명적진리이다.

인민정권의 사명과 본분에 관한 이 독창적인 사상은 근로인민대중자신이 주권의 주인이 되여 국가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며 자체로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 인민정권의 계급적특질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며 인민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정권의 혁명적본능을 명시해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다.

민주주의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곧 민주주의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계급적성격, 사회주의적민주주의와 부르죠아민주주의의 근본차이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그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제반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며 오직 사회주의적민주주의만이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소수착취계급의 의사와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 결코 량립될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소수특권계층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무권리와 불평등을 가져다주는 가짜민주주의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지들이 말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요, 《평등》이요, 《자유》요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식화가 주어졌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에게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가 보장하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는 새로운 진리가 명확하게 밝혀졌다.

위선적이고 반인민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명철하게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방도로서 근로인민대중을 인민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고 국가정치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잘하는것과 함께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적대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그것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는것처럼 민주주의의 계급성도 숨기지 않는다는것을 천명하시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민주주의가 아니라는것을 밝히시였으며 이른바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반공모략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참답게 발양시키기 위한 길을 명시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방침은 주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인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계급성을 부인하거나 계급적립장을 떠나 무원칙한 자유를 내세우는 그릇된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독재를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계급적본성을 순결하게 지키고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심오하게 밝히신 민주주의에 대한 주체적인 리론은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와 역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근로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사명을 다하기 위한 혁명적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은 인민정권의 정치적기초를 끊임없이 공고히 해나가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며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관점과 립장,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관리들이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이다.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인민의 충복인 인민정권의 사업에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며 인민정권과 근로대중을 리탈시킴으로써 인민정권기관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하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사업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며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해야 인민정권기관이 인민의 리익을 적극 옹호할수 있고 근로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문제는 정권기관이 권력기관이며 정권기관일군들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로부터 인민정권기관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언제나 관료주의를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관료주의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과 그 해독성,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심과 함께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의 의사를 충분

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업을 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인민정권기관들이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지도하고 관리하며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정권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 명확한 준칙과 규범을 가지게 되였으며 인민정권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관료주의를 반대할데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국가활동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장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연설은 인민정권사업을 좀먹는 위험한 사상요소인 관료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정권을 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혁명적문헌이며 우리 인민정권기관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2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히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이며 주체적인 경제건설방침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전략적인 투쟁로선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로선을 따라 확고히 나아감으로써만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백방으로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그 어떤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여도 끄떡없이 자기가 택한 길로 전진해나갈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생산력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의 전망목표는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또하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이 웅대한 전망목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빨리 달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담고있으며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전망계획을 받아안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적인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사회주의국가건설에 관한 독

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로동계급의 정권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과 그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영광과 자랑, 행복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문헌을 국가건설과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깊이 학습하여 그 심오한 내용에 완전히 정통하며 그것을 산 지식으로, 혁명의 량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연설을 높이 받들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조국의 끝없는 륭성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당원들과 일군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며 관료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하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진군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참으로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이며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새로운 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우리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밑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킴으로써 새로운 전망계획의 모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그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뭉쳐 공산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주권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혁명정권건설의 근본문제

심 상 국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과 그 강화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를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의 본질과 정권기관활동의 기본방식을 밝히시였으며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빛나는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국가건설에 관한 사상, 리론, 방법을 집대성한 주체의 국가건설학설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국가에 관한 학설과 리론에서 중요한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주권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주권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사상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국가주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혁명정권을 강화하고 그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푸는데서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원칙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주권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정권건설과 그 강화발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주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주권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심오히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참다운 혁명정권, 인민정권의 우월성과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시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심오히 밝히시고 주체의 사회력사관에 기초한 국가주권의 사회계급적본질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사회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다시금 명백히 밝히시

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됩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3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와 사람과의 호상관계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줌으로써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근본초석, 근본원리를 밝혀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력사와 사회 발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다시금 새롭게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력사와 사회 발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밝히는것이다. 이 문제가 옳게 밝혀져야만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을 정확히 해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권문제와 국가건설리론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해명하심으로써 력사와 사회 발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명제는 인민대중과 사회와의 호상관계를 두가지 측면에서 심오하게 명시해주고있다.

그 하나는 인류력사에서 인민대중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 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이 어떠한가 하는 측면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것은 인민대중과 력사와의 호상관계를 밝힌다는것을 말한다.

인민대중과 인류력사와의 호상관계를 해명한다는것은 그것들이 각각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서로 련결되여있는가를 밝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인류력사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며 완성된 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고 하는것은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에 의하여 지배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 인민대중만이 가장 발전된 사회적존재로서 력사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된다.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보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사람을 떠나서 인류력사를 고찰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인류력사를 밝혀주심으로써 력사에서 사람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정확히 해결될수 있게 되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밝히는것과 함께 사회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인민대중과 사회발전과의 호상관계를 해명하는데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인민대중과 사회발전과의 호상관계를 밝히자면 인민대중이 사회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노는가 하는것이 옳게 해명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이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사회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가장 정확히 해명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로동을 통하여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하면서 세계를 자기를 위한것으로 만들어나간다.

그러므로 세계를 변혁하는데서 나서는 모든것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좌우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의 운명은 인민대중의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요인이며 기본동력으로 된다.

인류력사발전은 인민대중의 역할을 떠나서 있을수도 없으며 생각할수도 없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고 하신 새로운 과학적해명은 사회력사관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력사에서 사람의 지위와 사회발전에서 사람의 역할 문제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결됨으로써 비로소 로동계급의 참다운 사회력사관, 주체의 사회발전관이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 혁명투쟁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된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는 력사가 발전할수 없다.

사회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지배와 통제, 결정적역할은 그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는가 못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쥘 때 사회의 모든것을 자기를 위한것으로 철저히 전환시킬수 있으며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원리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주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흘러나온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관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력사발전과 국가주권건설리론의 근본초석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시여 국가주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주권의 본질을 경제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시였으며 국가주권이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 새로운 진리를 밝혀주시였다.

국가주권의 본질을 무엇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정권건설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지지 못하였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력사의 당당한 주체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자연과 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국가주권의 본질을 새롭게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이 중대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와 그 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가장 완벽하게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이다. 사람은 사회관계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의 성원으로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와 사람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 고전적인 정식화를 내놓으시였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명제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인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주권의 본질을 규정하신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주권이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규정된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력사의 주체로서 모든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지 않는것은 국가주권의 성격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주권은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면서 생겨난 계급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합법칙적이며 필연적인 산물이다.

착취사회에서의 모든 국가주권은 언제나 피지배계급인 광범한 근로대중을 예속시키고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극소수 지배계급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지배권이다. 또한 이 사회에서는 국가주권을 쥔 착취계급만이 지배권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주권을 쥐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러한 자유와 권리도 못가지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된다.

착취사회의 국가주권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를 말살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이 오직 착취계급의 리윤추구에 바쳐질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정치적지배권이다.

그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국가주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의 창조적활동을 남김없이 발양하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국가주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는 정치적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사회정치적관계의 지배자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확고히 보장받으며 사회의 경제관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성해나가는 실제적담당자로,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또한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 사회관계의 주인으로 되기때문에 모든 사회관계들이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정권과 정치의 본질을 주체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근본 특징과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 숙망과 념원에 맞게 주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정권건설리론의 근본초석을 마련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하에서의 국가건설, 정권건설의 가장 옳바른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주권의 본질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에 기초하시여 주권에 관한 문제가 혁명에서 기본문제로 되는 리유를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우와 같은 문헌, 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밝혀

시고 혁명투쟁에서 주권문제가 기본문제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혁명투쟁의 결정적요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과학적인 사회력사관을 확립하며 국가주권의 지위를 규정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은 본질상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은 남에게 예속되여 사는것을 원하지 않으며 남의 노예가 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혁명투쟁은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벌리는것으로 하여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서 사람과 경제적조건의 호상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명하시고 그것을 국가주권문제와 관련시키시여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새롭게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생활수단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한것이지 사람을 떠나서는 무의미한것이다. 또 생활수단을 창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의 종국적이며 결정적요인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이다. 혁명투쟁은 사람,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인 본성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이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인 해명을 주시고 그것을 국가주권과 관련시키시여 혁명에서 기본문제로 되는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이라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어떠한 계급이든지 자기의 계급적의사와 요구는 국가주권에 의해서만이 실현할수 있다.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으로부터 해방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도 결코 례외로 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목적은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있으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진리를 밝혀주심으로써 국가주권이 차지하는 지위를 새롭게 해명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장악하고 자기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기본내용을 이루며 그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근로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은 혁명투쟁에서 기본문제로 된다.

력사적사실은 해당 사회의 사회제도와 사회생활의 성격은 수립된 정권의 계급적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착취계급이 국가주권을 쥐고있고 따라서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집중적으로 대변하고있는 반동적인 정권하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유린되고 자주성이 말살된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자주성은 반드시 국가주권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존재할수 있으며 사회성원들의 자주적인 권리와 생산수단과 문화적재부에 대한 소유권도, 정신적재부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정권의 보호밑에서만 보장될수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도 국가주권의 통제밑에서만 진행될수 있다.

혁명에서 주권에 관한 문제가 기본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특성과 관련된다.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 다시말하여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되여야 한다.

참다운 국가주권은 사람들에게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되게 한다. 자주성이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은 계급적 및 민족적 원쑤들과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치렬한 투쟁이다.

반동지배계급은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그것을 리용하여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낡은 지배계급의 정권을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만 전복된 반동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있으며 나라의 방위력도 강화할수 있고 국제적지위도 높일수 있다. 뿐만아니라 인민대중은 자기 손에 쥐여진 국가주권의 보장밑에서만이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유물과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이처럼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는가 못쥐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의 승패와 전도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국가주권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동통치계급의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가기 위한 무기를 마련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은 반동통치계급으로부터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을 빼앗아내는 투쟁으로서 처음부터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인민대중이 자신의 힘으로 국가주권을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과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짓부시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며 국가주권의 공고발전도 역시 인민대중의 끊임없는 투쟁을 요구한다.

국가주권을 전취하고 그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참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심오한 원리로 주권문제를 고찰하고 구현해나갈데 대한 더없이 고귀한 진리가 밝혀짐으로써 국가정권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해결될수 있는 확고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가주권이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 탁월한 사상에 기초하시여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기본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과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투쟁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로작은 또한 로동계급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주권을 전취하고 주체적인 정권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혁명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의 빛나는 구현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정권의 자랑찬 투쟁로정을 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위하여, 자기의 주권을 위하여 간고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렸으며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주권문제를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일찌기 그 어떤 기존리론이나 기성경험에 구애되심이 없이 독창적인 정권건설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의 길에 가로놓인 온갖 중첩된 난관과 시련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그를 빛나게 실현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로정은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자랑찬 업적들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 공화국정권의 강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비범한 예지로 인민정권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정권문제해결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인민정권건설로선은 선행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 정권건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독창적인 혁명정권건설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주신 인민정권건설로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정권건설에 가장 널리 참가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할수 있는 정권형태를 옳게 규정한것이다.

정권형태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근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권형태를 옳게 규정하여야만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철저히 대표하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정권진취를 위한 투쟁과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에 인민대중을 광범히 발동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정권건설로선과 그를 구현한 주체적인 정권형태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한것으로서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정권건설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여주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에 맞는 혁명정권형태가 옳게 규정되게 되였으며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울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피로써 사수한 유격근거지들에 혁명정권건설의 근본원칙을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정권—인민혁명정부를 조직하시고 그를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리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정권활동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으로 이 정부를 운영하도록 한것은 인민정권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얻은 경험가운데서 가장 귀중한것이였다.

혁명정권건설의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당은 해방직후 정권건설에서 나타났던 온갖 기회주의적 경향과 책동을 짓부시고 그처럼 빠른 시일

안에 인민정권을 세우고 급속히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인민정권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정권, 자신이 운영하는 혁명정권을 가지게 되였으며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인민정권을 세우시였을뿐아니라 이 정권의 근본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드시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혁명정권건설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정권으로 되였다. 근로자들의 리익과 요구를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근로자들에게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굳게 단결되여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정권의 참다운 모습이며 비할바없는 우월성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밝히신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주권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혁명정권건설의 근본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국가에 관한 학설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킨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권건설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않고 오직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시대적요구, 혁명의 근본원리에 맞게 주권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이 위대한 강령적문헌이 제시됨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며 자기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개척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밝혀진 혁명정권건설의 근본원칙에 관한 리론은 실로 인민정권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지도적지침이며 우리모두의 사업과 생활에서 관철하여야 할 주체의 철학적방법론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인민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높임으로써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을 완수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로작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정권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로작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정권건설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혁명정권으로 튼튼히 다져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

김　창　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지난 반세기동안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쌓으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국가주권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인 문제들에 심오한 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연설에서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본질과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기 위한 근본방도들을 뚜렷이 제시하심으로써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에서 밝히신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본질과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국가가 정권건설과 사회주의정치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연설에 담겨져있는 전반사상과 함께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학습하여 그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의 방법론을 국가활동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1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을 새롭게 천명한 탁월한 고전적정식화이다.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은 정권의 성격과 사명에 의하여 규정된다. 정권이 소수특권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정권일 때에는 인민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이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 된다. 이와는 달리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인민정권에서는 민주주의가 그 활동의 기본방식으로 된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

권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기관은 인민들에 의하여 선거되고 그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인민정권기관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인민정권기관의 인민적성격으로부터 그의 사명이 흘러나온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영예로운 사명이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아야 하며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인민정권은 이러한 인민적성격과 숭고한 사명으로 하여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방법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에게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여주며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여주는 민주주의를 자기 활동의 기본방식으로 삼게 된다.

인민정권은 자기 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바와 같이 국가주권은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며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얼마나 높이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어떻게 발양되는가 하는것은 결국 국가주권이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철저히 실시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민정권이 세워졌다고 하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저절로 높아지는것은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그들이 국가관리에 널리 참가하며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의 투쟁으로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의 요구와 리상을 실현해나갈 때에만 참답게 보장된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것은 국가주권이 자기 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할 때에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민주주의를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 새롭게 정식화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사람중심의 주체적방법론에 기초하여 국가와 정치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탁월한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정권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옳바른 길을 밝힌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주의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라고 밝히심으로써 인민정권은 자기의 계급적사명의 요구대로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는 강유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라는것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과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심오한 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새롭게 밝힌 주체적인 고전적정식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이며 그들자신의 정치이다.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일정한 계급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지휘하는 활동, 다시말하여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사람들을 조절하고 움직이는 국가의 활동방식이다. 어느 계급의 리해관계를 대표하며 옹호하는가 하는데 따라 정치의 성격이 규정된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본질적특성은 그것이 바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근로인민대중자신이 담당수행하는 정치라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소수특권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 근로인민대중을 한갖 정치의 대상으로만 삼고 그들의 힘을 저들의 의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착취계급의 반인민적정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인민적정치로서의 민주주의의 근본특징이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로서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정책을 세우는데서 표현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이며 인민대중은 국가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권한, 자주적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주권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정책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국가가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지위, 자주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정책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정책만이 그들에게 자주적권리,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줄수 있으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민주주의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표현된다.

국가가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게 정책을 세우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필수적전제이기는 하지만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세우는것만으로서는 국가정권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볼수 없다. 비록 정책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맞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관철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정치로 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로서의 민주주의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데서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것으로 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민주주의는 빈말에 지나지 않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인 해명이 주어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참다운 모습이 뚜렷해지게 되였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와 역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국가활동의 원칙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로서의 민주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라고 가르치시

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로서의 민주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참다운 민주주의로 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이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의 투쟁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된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할뿐아니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의 의사가 아니라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 소수특권계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

착취계급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좌우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주의식의 발전과 함께 소수의 전횡을 부정하고 다수의 권력을 주장하여 력사에 출현한 정치리념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소수부르죠아지의 정치적지배를 유지공고화하며 그들의 무제한한 착취와 치부를 위한 가장 반동적인 통치형태로서의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본래의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말로는 《만민의 평등》이요, 《개성의 자유》요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실지에 있어서는 전혀 실현될수 없는 거짓말이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는 결코 말로는 보장될수 없다. 어떤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그것은 실제적인 조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도 없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질 때에만 실재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이 국가의 권력기구와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인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을 쥐지 못하고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아무런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소수자본가의 손안에 들어있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억만장자들과 근로인민들사이에 평등이란 있을수 없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란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자유》니 하는것은 모두다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수중에 장악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

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인민은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사회와 집단의 리익,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며 나라의 모든 물질문화적재부는 전적으로 근로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생활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된다. 당과 국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리익과 지향의 진정한 옹호자, 대표자로서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는 그 어떤 요소와 경향도 용납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도록 모든 조건을 완전히 보장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진정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룽성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모든 근로자들을 국가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진정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최고형태의 민주주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3폐지)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은 우선 그것이 사회정치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는 한편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주권을 실제로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하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직접 참가하며 또 자신이 직접 선거받을수 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은 또한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적복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게 하며 국가가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상적인 배려를 돌리게 한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누구나 다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며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로동생활에서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들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 교육에 대한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이와 같은 모든 사회정치적권리와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고있으며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게 한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평등한 사회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참다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의 본질과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세계의 모든 인민, 모든 계층들의 깊은 관심사로 되여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명으로 되며 민주주의에 대한 부르죠아적 및 기회주의적인 허위와 외곡을 발가놓는 론고장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옳은 견해를 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를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회정치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인민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국가정치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5페지)

근로인민대중을 인민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국가정치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인민정권사업에 근로인민대중을 적극 참가시키며 국가정치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국가정책에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일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정치이다.

인민대중이 인민정권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자신의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다. 근로인민대중이 인민정권사업에 참가하는것은 그들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것이며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의무를 실행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열성을 가지고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잘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잘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담보이다.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은 정치적으로뿐아니라 튼튼한 물질적토대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에라야만 확고히 보장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이 높아지게 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과 로동조건에서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완전하고 평등한 자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문화건설을 힘있게 벌리며 새로운 인민적인 문화시책들을 실시하여야 전체 인민들이 보다 원만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새로운 인민적인 문화시책을 널리 실시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적대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7폐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국가가 실시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에 의하여 보장되는 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며 그것을 통해서만 더욱 원만히 실현된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떠나서는 인민들이 그 어떤 진정한 자유와 권리도 행복한 생활도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려면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계급적원쑤들의 적대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을 벌려야 하는것은 특히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고 외곡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미제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대한 비방중상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열을 올리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를 들고나오는것은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서방제국주의나라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괴뢰국가이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리치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전혀 못가지며 지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 《인권》이 있다면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들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권리가 있을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우두머리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공격하며 비방중상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사회주의제도를 공격하며 비방중상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약화시키려고 꾀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모략책동에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원만히 실시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민주주의를 실시하는데서 계급적원칙을 견결히 지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는것처럼 민주주의의 계급성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민주주의가 아닙니다.》(우와 같은 문헌, 19페지)

원래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국가의 존재와 운명을 같이하며 그것은 국가가 계급적인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적성격을 띤다. 인류력사에서 계급을 떠난 국가가 없었던것처럼 계급적성격을 띠지 않은 《순수한 민주주의》란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고 소수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제재를 가하는 민주주의이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는것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고 원만히 실시하기 위한 제반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의 계급적 본성과 사명에 맞게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도들을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활동원칙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반대하여 벌리고있는 중상비방소동의 반동적본질을 여지없이 발가놓으시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시도를 짓부셔버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더욱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수호할수 있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밝혀주신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의 방법론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구현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국가건설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인민정권이 세워지고 그 정책이 수립되며 관철될 때에만 오랜 세월 인류가 그처럼 념원한 착취없고 압박없는 근로인민의 국가, 모든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사회주의제도가 마련되고 근로인민대중은 참다운 인민적정치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정권의 사명과 민주주의의 본질, 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것은 참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에서 거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질뿐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력사적기여로 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날로 꽃피여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인민정권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리 춘 식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의 모든 문제들을 천재적으로 밝히시면서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관료주의를 반대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관료주의의 본질과 그 표현, 관료주의의 해독성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들이 명백히 제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관료주의투쟁방침은 인민정권사업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존중히 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정권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고 참다운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전투적무기로 된다.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인민정권의 숭고한 사명과 정권기관일군들의 혁명적본분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정권을 건설하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참다운 투쟁의 무기로 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관료주의를 반대하는것을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현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관료주의와의 투쟁은 단순히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서만이 아니라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며 정권기관일군들이 혁명적본분을 다하자면 정권기관사업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인민대중속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사업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인민정권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으며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관료주의와의 투쟁은 인민정권사업에서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력사적사업이다.

그것은 관료주의가 낡은 사회의 유물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관리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

통치방법입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0페지)

관료주의는 봉건사회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기 위한 지배계급들의 반인민적통치방법이다. 반인민적통치방법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착취사회의 지배계급에게 고유한것이다. 소수특권계급이 정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의 사회적지위가 서로 다르며 그들간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되여있다. 소수특권계급은 사회의 지배계급으로서 절대다수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반면에 력사의 주체인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정치적권리와 자유도 가지지 못하고 살며 일해나간다. 지배계급인 착취계급과 피지배계급인 근로인민대중은 추구하는 목적과 리해관계가 서로 상치되는것으로 하여 언제나 적대적이다. 이로부터 지배계급은 강제적방법, 강압과 몽둥이규률로써 인민대중을 다스린다.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지배계급의 반인민적통치방법, 바로 이것이 관료주의이다. 관료주의적방법을 떠나서 착취사회의 지배계급은 사회를 유지해나갈수 없으며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해나갈수 없다. 따라서 착취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반인민적통치방법은 더욱더 강화된다.

관료주의가 사회주의사회에도 계속 남아있게 되는것은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잔재의 영향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청산함으로써 관료주의가 나올수 있는 사회경제적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린다. 그러나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과 생활습성은 사회경제적기초가 없어진 다음에도 사람들의 활동방식에 영향을 주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하에서도 일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낡은 사상잔재는 집요한것만큼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만일 이 투쟁을 소홀히 한다면 어느때든지 관료주의가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잔재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관료주의와의 투쟁은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인민의 충복인 인민정권의 사업에서는 관료주의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인민들의 리익을 적극 옹호할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0페지)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인민정권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영예로운 사명이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위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삼는다. 인민정권의 사명으로부터 우리 인민정권기관들의 모든 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위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여야 한다. 인민정권의 이러한 사업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배반하고 군중과 리탈하여 소수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인 관료주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을 지배하는 기관도 아니며 인민을 다스리는 통치기관도 아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삼는 인민정권은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관료주의적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할것을 요구한다.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인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주의국가가 광범한 근로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면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활동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모든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다.

그런데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과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는것을 억제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사회주의국가의 참다운 정치인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해나가는 숭고한 사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의 특성으로부터 인민정권사업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은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이며 정권기관일군들은 국가권력을 가지고 사업합니다. 이런데로부터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권력을 람용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며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올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0폐지)

인민정권기관은 사회안전, 사법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구들을 가지고있는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이며 여기에서 일하는 일군들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사업한다.

사회주의국가의 모든 권력수단들은 계급적원쑤들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이 권력수단을 리용하여 적대계급에게 강한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며 정권기관일군들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이런데로부터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세도를 쓰며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올수 있다. 만일 낡은 사상잔재의 영향이 계속 남아있는 조건에서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일부 일군들은 권력을 람용하여 마치 착취사회의 관료배들처럼 장관냄새, 벼슬냄새를 피울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사업에서 언제나 경계하여야 할것은 관료주의이며 그것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는것은 모든 정권기관들과 그 일군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관료주의의 본질과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성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반관료주의투쟁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이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며 그들모두가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며 인민정권의 숭고한 사명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관료주의가 혁명과 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그 후과를 깊이 통찰하시고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의 표현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어긋나는것을 내리먹이며 인민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데서 표현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적행동을 가려내는 확고한 기준으로 된다. 이 가르치심은 인민정권기관과 일군들의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일군들의 주관적의도는 어떻든지 또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지 않는것을 내리먹이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다 관료주의이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여러 분야에 미치는 것만큼 관료주의적행동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일군들속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관료주의적행동은 모두가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지 않는것이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범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일군들의 사업을 평가해야 그가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 참답게 일하는가 못하는가를 정확히 가려낼수 있으며 일군들속에서 발로되는 사소한 관료주의적표현도 제때에 극복할수 있다.

관료주의의 표현을 정확히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인민정권과 그 일군들의 사업에서 관료주의의 조그마한 표현도 제때에 알아내며 모든 사업을 철저히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관료주의는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데서 커다란 후과를 미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 해독성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의 해독성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킨다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1페지)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사회적전진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진행된다. 인민정권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그런데 관료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억제하고 창조적열성을 마비시키는 기본장애물의 하나로 되고 있다.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지 않는것을 강요하기때문에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할뿐아니라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떨어뜨린다. 일부 일군들은 높은 자리에 등용되면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직권을 람용하여 관료주의적으로 부당한것을 아래에 망탕 내려먹임으로써 결국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없게 한다.

또한 관료주의적행동은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연구도 하지 않다가 아래에서 창발적의견을 제기하면 그것을 존중히 여겨 실지사업에서 살리는것이 아니라 좋은 의견들을 묵살해버린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마비시킴으로써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게 한다.

결국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은 혁명임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질수 없게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적전진에 지장을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또한 관료주의는 인민정권과 근로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해독적작용을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인민정권과 광범한 근로대중과의 통일단결은 인민정권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정권의 불패의 힘은 바로 광범한 대중을 자기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있다. 인민정권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

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광범한 근로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하며 그들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사업에서 막대한 해독적후과를 미치는것의 하나는 인민정권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 관료주의적행동이다.

관료주의적행동은 대중에게 함부로 호령하고 명령하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기때문에 인민정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뿐아니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울수 없게 한다.

관료주의자들은 아래실정을 조사해보고 문제를 옳게 해결할 대책을 세우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면서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곤난을 조성하며 따라서 인민정권사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또한 그들은 군중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자기만 우에 잘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명을 위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감행하기때문에 인민정권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방해한다. 이리하여 관료주의는 인민정권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저애하며 혁명과 건설에 해독적후과를 미치게 된다.

특히 관료주의는 모든 사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후과가 더욱 엄중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경제를 개별적자본가들이 운영하기때문에 우에서 무엇을 하라고 아무리 내려먹여도 리익이 없으면 자본가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고 인민경제가 밀접히 련결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는 조건에서 잘못 내려먹이면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바로 여기에 관료주의의 커다란 엄중성의 하나가 있다.

관료주의의 표현과 그 해독성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관료주의의 사소한 표현과도 강하게 투쟁하며 인민정권이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밀접히 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료주의를 중요한 투쟁대상으로 내세우고 일군들속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정권기관일군들을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일군들속에서 인민적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고 정권기관사업에서 관료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며 민주주의가 높이 발양되고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일군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

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문헌에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있는 정확한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3페지)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알고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것은 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이 선출한 일군들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군들이다. 정권기관일군들이 참다운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면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만일 우리 일군들이 군중을 떠나 현실과 떨어져 책상머리에만 앉아가지고서는 군중의 요구를 알수 없고 현실에서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알수 없다.

군중과 떠나서 하는 사업은 거필코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면할수 없다.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 최고원칙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이다.

인민정권이 이 원칙에 맞게 자기의 사업을 해나가자면 정권기관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야 하며 군중의 의사와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리익에 맞게 사업하려면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령도리론과 몸소 보여주신 혁명적령도방법의 모범은 청산리방법에 집대성되여있다.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 있는 청산리방법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이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따라서 지도일군들이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가는것은 주체적인 군중관점에 기초하여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인민정권기관의 일군으로 된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인민정권사업에서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선행하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대중과 함께 토론하여 풀어나가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정권기관일군들은 언제나 생산현장에 직접 내려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대중속에 해설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생산자대중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쳐주며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적지도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지도하고 관리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이 경제 지도와 관리를 옳게 하자면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고도로 사회화된 대규모경제인 사회주의경제는 그 주인인 광범한 근로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킬것을 요구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옳게 구현한 사업체계이다. 이 사업체계는 생산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인입시키며 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는 사업체계이다. 따라서 인민정권기관들이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 때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관리에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키며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을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5페지)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그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새로운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정권기관일군들이 사회주의법을 잘 지킬 때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더욱 원만히 보장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법규범과 규정인것만큼 정권기관들은 여러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이 권력을 람용하지 못하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또한 지도일군들속에서 준법교양을 잘하여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동시에 그것을 위반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관료주의를 없앨데 대한 이 모든 방도들은 관료주의와의 투쟁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가르쳐줌으로써 일군들속에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이 언제나 사업과 생활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살며 일해나가야 할 투쟁의 무기이다.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은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의 참다운 심부름군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새로운 투쟁강령

손 몽 린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을 제시하시고 제2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새로운 투쟁과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들을 앞당겨점령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은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 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7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전례없이 웅대하고 거창한 경제건설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계획이며 현대화의 계획이며 과학화의 계획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히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며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투쟁로선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전진이 이룩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리정표를 밝혀주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방도를 명시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쌓아지게 되며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단계의 투쟁을 거쳐 튼튼히 다지지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면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전례없이 강화되지만 그것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사업이 끝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이 백방으로 강화될 때,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기계화, 자동화하며 과학기술발전의 최신성과에 기초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릴 때 더욱 굳건히 쌓아질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견지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과 높은 발전속도는 자본주의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계속 강화하고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는것이다.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계속 강화하여야 그 어떤 외부적조건에도 구애되지 않고 자체의 결심에 따라 경제건설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장성시켜 생산과 건설의 빠른 발전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로선을 따라 경제건설을 추진시킬 때 끊임없는 경제적앙양을 이룩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령마루에 올라설수 있으며 공산주의에로 곧바로 나아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면서도 그 내용에서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기본을 이룬다.

주체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주체화를 힘있게 추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과 최신과학의 토대우에 빨리 올려세울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정치, 경제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된 사회, 주체화된 사회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가야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확고히 지킬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계속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철칙이며 우리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위대한 진리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나가기 위한 과업이라면 현대화, 과학화는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과업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기술혁명을 심화발전시켜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으며 과학화는 주로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인민경제를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에서 중요한것이 기술수단을 자동화, 현대화, 고속도화하여나가는것이라면 과학화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하여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관철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칠수 없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효과있게 리용하고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필수적과업인 현대화, 과학화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현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현대화하여나가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이며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의 《현대화》는 근로자들에게 고된 로동을 강요하며 그들의 피땀을 더 많이 짜내기 위한 착취와 략탈의 현대화이지만 사회주의하에서의 현대화는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빨리 추진시키면 그만큼 근로자들의 로동이 더욱더 흥겹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되며 모두가 한결같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현명적인 경제건설방침이며 인민의 리익을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주체의 관점, 공산주의적관점에서 출발하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내놓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웅대한 6개년계획이 빛나게 완수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보다 튼튼히 다져졌으며 인민경제를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으며 힘든 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인민경제부문들사이, 기술장비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과업도 남아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고있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구경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달려있다.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을 관철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현대적인 기계기술과 최신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우리의 경제를 보다 안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그래야 모든 근로자들에게 더욱 훌륭한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쳐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더욱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쳐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

서 공업의 모든 부문을 고도로 현대화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쳐 공업생산도 과학적으로 하고 농사도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모든 부문의 생산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의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인민생활은 한계단 더 높아지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을 제시하신것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이 제시됨으로써 한해에 560억～6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7,000만～8,000만톤의 석탄, 740만～800만톤의 강철, 100만톤의 유색금속, 500만톤의 기계가공품, 500만톤의 화학비료, 1,200만～1,300만톤의 세멘트, 350만톤의 수산물, 1,0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고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며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지금보다 생산을 두배이상 높일데 대한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근본방도가 뚜렷이 밝혀졌다. 이리하여 우리는 보다 휘황한 앞날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방침을 관철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면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살기 좋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전변될것이다.

또한 사회주의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한계단 더 높아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것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할것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의 제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으로 되며 새로운 투쟁과 혁신, 승리와 영광에로의 힘찬 고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다음의 사회주의건설단계와 투쟁목표를 밝히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고 공산주의에로 곧바로 나아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밝혀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앞길을 더욱 똑똑히 알고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순차적인 단계를 따라 곧바로 전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기 위한 새로운 투쟁단계가 밝혀졌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고 공산주의에로 곧바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인 경제건설로선이 명시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새로운 발전으로 되며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으로 된다.

참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은 그 독창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만사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

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횃불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투쟁로선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8페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바로 여기에 경제건설분야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을 관철하여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온 나라에 혁명적기상과 창조적열정이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전략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때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되며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성과적으로 뚫고나가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게 된다.

오늘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우리 혁명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일대 전진운동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혁신운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한층 더 세차게 지펴올리며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장엄한 총진군속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9페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를 더욱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

켜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한층 강화하고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를 널리 실현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전면적으로 올려세우기 위한 전례없이 어렵고도 복잡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지 않고서는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고있는 과업을 그 어느 하나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는 난관과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의 전로정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고수하고 빛내여온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며 우리 인민에게 언제나 백절불굴의 투지와 무궁무진한 힘을 안겨주고 조선인민의 슬기와 영웅적기개를 떨치게 한 영광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전후 빈터우에서 재더미를 헤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은것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하였기때문이며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4년 8개월에 완수할수 있은것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들을 뚫고나갔기때문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천리마의 정신, 속도전의 기세로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주타격방향인 채취공업을 더욱 앞세우고 전력공업과 수송사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 생산방법을 창안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진격로를 힘있게 열어제껴야 하며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리용하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있는 생산토대를 더욱 완비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옳게 결합시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의 앞길은 실로 휘황찬란하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해나가자.

근 로 자 1978년 제1호 (루계 429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8년 1월 1일　　발 행 • 1978년 1월 5일

ㄱ-75308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호(루계 230호)

차 례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과 올해 신년사에서 펼쳐주신 휘황한 설계도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온 나라는 새로운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보람차고 성스러운 투쟁과업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영예로운 의무이며 혁명적본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충실한 사람이라는것은 당의 정책을 견결히 수호하고 당의 정책을 옳게 집행할줄 알며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옳지 못한것과는 언제나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당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언제나 강하게 투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당에 충실한 전사이며 당에 충실한 당원이며 당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148~14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여 우리 조국의 끝없는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바로 이러한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생활해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사람들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진정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려면 말은 적게 하면서도 당에서 주는 혁명과업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벌리고있는 실천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끝없이 신봉하고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조선혁명을 완성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올바른 전략과 전술이다. 여기에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임무와 구체적과업들이 뚜렷

이 밝혀져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안아오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이 구현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떠나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생각할수 없으며 당원의 그 어떤 혁명활동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수령님을 진심으로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며 당원의 숭고한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내놓으시는 투쟁강령과 투쟁과업을 보다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남김없이 발현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첫째로, 당정책을 옹호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0페지)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진행하며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억세게 투쟁하여 끝장을 내는 강의한 의지는 혁명가의 고유한 투쟁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홍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는 의무만이 있을뿐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오래 끄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혁명가적 기풍이 없는 표현이다. 혁명가는 잠을 줄 못자고 휴식을 적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억세게 투쟁하여 끝장을 보는 그런 기풍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혁명적인 일본새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정확히 관철해나가는데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참된 삶의 보람이 있고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빛나는 승리를 앞당기는 기본열쇠가 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드팀없이 관철할 때 참말로 놀라운 기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은 혹한과 굶주림이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옹호관철하는것을 자신의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피어린 항일의 나날 부닥치는 모든 곤난을 이겨내고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땅을 한치도 내주지 말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조국의 영예와 혁명의 진취물을 끝까지 사수하였다.

우리 인민이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의 페허속에서 드높은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랑만에 넘쳐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고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나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은것도,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책동과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불과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였으며 그리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점령하여 또다시 주체조선의 용맹과 슬기를 온 누리에 떨칠수 있은것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고동치고있었기때문이다.

실로 사나운 폭풍과 시련을 이겨내며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혁명의 력사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 하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비약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오랜 투쟁을 통하여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는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군들은 준엄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심장으로 체득한 고귀한 혁명적신념인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전당, 전군, 전민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는 거창하고 아름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수령님의 교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에만 이 벅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나갈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당원들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되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설 때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어버이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영예와 긍지,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맡겨주시는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보람찬 투쟁과정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인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접수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더 잘 관철해나가겠는가에 대하여 늘 깊이 연구하여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야 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당적임무는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해내야 한다는 각오와 불타는 열정을 안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당이 준 혁명임무를 다 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이 끝장을 내고야마는 혁명적기풍으로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난관을 극복하는 불굴의 투지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간직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것이 아니라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창조와 변혁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은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 길우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을수 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조건타발도 없이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잘 건설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을 일으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 당이 준 혁명임무에 대하여서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조건이 좋은것과 나쁜것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담벽을 밀고나가라면 밀고나가고 돌과구를 뚫고 나가라면 뚫고나가며 천길물속이라도 뛰여들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지도일군들은 당과 국가의 중요한 혁명초소를 맡고있다는 높은 자각과 무거운 책임성을 깊이 간직하고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맞물려줄것은 맞물려주고 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모든 일을 창발적으로 조직전개하며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똑똑히 알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더 빨리 수행하겠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제때에 집행대책을 세우며 일을 패기있게 정열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지난날 부대관리와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간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제기된 혁명과업이 어렵고 방대하면 할수록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더욱 세밀히 짜고들어 일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언제나 사업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경제지도와 조직사업을 더욱 치밀하고 깐지게 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집행해내고야말겠다는 확고한 혁명적립장과 각오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

에 온갖 정력을 다 쏟아부어야 하며 인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말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성과로 나타나게 할수 있으며 당과 혁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일군들과 당원들속에 남아있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고 새로운것을 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정이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모든 혁신적인 성과들은 오직 낡고 침체한것과의 투쟁속에서만 이룩될수 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어물어물 지내보내는 현상, 당정책을 말로만 접수하고 신속있게 집행하지 않는 현상, 조건과 구실을 앞세우면서 일을 혁명적으로 패기있게 밀고나가지 않는 현상 등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현상과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신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림으로써 일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작전하며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모가 나게 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주관주의적으로 일하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의 일본새가 아니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알려주며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실천의 유일한 지침이며 기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뚜렷한 목표와 방향, 가장 정확한 방법론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하기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벌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것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에 빛날 기적적성과를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높은 혁명적기풍과 창조적열의를 발휘할 때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그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이 견지하고 있는 전투적인 혁명정신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과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력사적인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은 우리 조국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륭성과 번영의 휘황한 설계도이며 위대한 진보와 비약의 새로운 리정표이다.

우리앞에 나선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9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 그것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백두의 밀림에서 창조되고 천리마와 속도전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빛나게 이어진 우리 당과 인민의 전통적인 구호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며 우리 인민에게 불타는 애국적열정과 혁명적투지, 필승의 신념과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안겨주고 끊임없는 변혁과 기적을 이룩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는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있으며 우리앞에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는 오늘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할 백전백승의 전투적기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더욱 높이 들데 대한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웅대한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사수하여야 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나가야 한다.

1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립장이며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37페지)

자력갱생이란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이다. 그것은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여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나가는 높은 창조적정신이며 그 어떤 곤난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그것을 맞받아나가 이겨내고야마는 불굴의 혁명정신이며 달성한 성과에 자만하거나 안일해이함이 없이 계속투쟁, 계속전진하는 완강한 전투적정신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투쟁정신이며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혁명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다.

낡은 사회의 폭압통치를 때려부시고 인민대중을 온갖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더 말할것도 없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 사회 건설 역시 헤아릴수 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한다. 인민대중의 피어린 투쟁에 의해서만 혁명은 승리할수 있으며 사회의 근본적변혁이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의 모든 력사적인 승리와 고귀한 전취물들은 다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일떠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자기 힘을 믿고 모든것을 자기의 힘으로 창조해나가는 자력갱생의 높은 창조적정신과 불요불굴의 전투적정신은 간고한 혁명투쟁자체의 필수적요구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높은 혁명정신, 맨주먹으로 빈터우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강의한 전투적정신을 가질 때에만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으며 새생활창조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도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자력갱생하는 정신이 없으면 아무런 창발성과 적극성도 낼수 없고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게 되며 나중에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해서도 신심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는 투철한 자주정신과 높은 창조적정신,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그대로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되며 그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한 숭고한 혁명정신일뿐아니라 자신의 간고한 투쟁으로 계급적형제들을 도와주고 세계혁명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진정한 국제주의적정신이다. 자력갱생하여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잘 건설하는것은 곧 민족적의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것으로 되는 동시에 그것은 국제적의무에도 충실한것으로 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휘하여야 할 전투적정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며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

이 긴장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을 자체의 힘과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신년사》, 1978년 1월 1일, 12페지)

제2차7개년계획은 자력갱생의 계획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이는 새 전망계획의 어느 한 목표도 점령할수 없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힘있게 다그쳐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더 창설하여 우리 나라 경제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하며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생산력의 높은 발전을 이룩하여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을 적극 개척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을 세계적수준에 빨리 올려세워야 한다.

더우기 새 전망계획은 비상히 높은 속도와 생산규모 그리고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에서 매우 높은 목표를 예견하고있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을 2.2배로 늘이며 공업생산을 해마다 12.1%의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 중요공업제품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훨씬 앞서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방대한 과업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남달리 첨예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도발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모하고 악랄한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있다. 또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달가와하지 않는자들의 방해책동도 의연히 계속되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으며 우리의 투쟁은 간고하다. 적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응당한 힘을 돌려야 하며 무거운 군사경제적부담을 감당하면서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한다.

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적위기와 한랭전선으로 인한 혹심한 이상기후현상도 우리의 경제건설투쟁에 장애를 조성할수 있다.

우리앞에 나선 비상히 방대한 혁명과업과 복잡한 정세는 우리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온갖 난관을 맞받아 억세게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때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 새로운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남을 믿고 사회주의 건설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생각해본적도 없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다 하더라도 자력갱생의 불타는 열정을 안고 굴함없이 싸워나간다면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창조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며 력사적총화이다.

실로 자력갱생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튼튼히 틀어쥔 필승불패의 위력한 혁명적

무기이며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2

자력갱생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혁명적립장이며 전통적인 구호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의 근본요인의 하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고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45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로정은 곧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구현하여 그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구현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남달리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출발한 우리 혁명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구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조선혁명은 우리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출발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어떤 외부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우리 인민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시여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혈전의 준엄한 나날 혁명전사들을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난관을 뚫고 승리해나가는 자력갱생의 고귀한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전투와 생활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광복의 불타는 일념과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식량과 피복, 무기와 탄약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이르는곳마다에서 적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력갱생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시였다.

이 빛나는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아름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그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과 혁명정신은 빈터우에서 모든것을 새로 일떠세워야 하였던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에 더욱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이 할 일이 많고 난관이 중첩되였던 전후의 그 엄혹한 시기 우리 인민은 당과 정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이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혁명적확신과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일어나 낡은 기준과 공칭능력을 대담하게 마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준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남보다 몇배, 몇십배 더 빨리 달려나가 하루속히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려는 불같은 열망이 결합되여 위대한 천리마정신이 나오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 창조와 변혁의 자랑찬 력사를 안아온 천리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여나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오물을 쓸어버리고 우리자신의 힘으로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락후성을 가시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남들이 100여년 지어 수백년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그 어떤 기성의 경험도 없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갔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시기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은 주로는 자기의 머리로 생각해내고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20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앞에는 새롭게 풀어야 할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제기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모든것을 자주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나가야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밝혀주시였으며 그 성과적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특히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구현하여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전투에서 혁명적열풍을 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더욱 떨치게 되였다.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을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서 풀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변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경제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된 결과 지난날 뒤떨어지고 가난하였던 우리 나라는 현대적인 주체공업과 공업화, 현대

화되여가는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커다란 부담을 걸머지면서도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한 결과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과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락후한 처지로부터 현대적인 문명과 진보에로의 비약을 이룩할수 있게 한 위대한 힘의 원천이였으며 겹쌓인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게 한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경험은 오직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할 때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부닥치게 되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주체적력량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끊임없는 전진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온 우리 인민앞에는 오늘 더욱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혁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며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굴함없이 싸워나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우리앞에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웅대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최대의 예비는 사람들의 사상에 있다. 사상이 발동되고 심장이 불타면 지혜도 힘도 샘솟는다.

무엇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충실성교양과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가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8년 1월 1일, 12페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주체의 혁명적신념을 지녀야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립장을 튼튼히 가질수 있으며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주체사상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반제, 반수정주의 교양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자력갱생 그자체가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반제, 반수정주의 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자체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우리는 반제, 반수정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성과 교활성, 수정주의의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자체의 힘으로 더 훌륭히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게 할수 있다.

우리는 또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기풍과 자력갱생의 열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주저도 모르는 완강한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정신과 사업기풍은 제2차7개년계획의 주타격방향인 채취공업을 추켜세우며 전력공업과 수송을 앞세우고 적극적인 균형에 기초한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새 전망계획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경제는 강장한 위력과 생산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 현존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는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보다 생산을 더 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결심하고 달라붙어 온갖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력갱생을 하자면 모두가 검박하게 생활하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랑비를 결정적으로 반대하며 적은 지출로써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축적하여 더 빨리 건설해나가야만 자력갱생할수 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증산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키로와트시의 전력, 한키로그람의 석탄, 한방울의 기름도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더없이 귀중하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사소한 랑비도 철저히 없애며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여도 알뜰하고 쓸모있게 만들며 자기것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것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자면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과학기술발전에 결정적으로 낯을 돌리고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것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훌륭히 풀어나가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선진적인 기술공정들과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새로운 현대과학기술

분야를 적극 개척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끝없는 융성과 번영을 위한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진하기 위한 긴장한 투쟁은 전투를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할 우리 지도일군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무거운 임무를 부과하고있다.

일군들은 혁명앞에 큰 과업이 나서고 어려운 투쟁이 벌어질 때일수록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하며 만만한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제기된 과제를 본때있게 해제껴야 한다.

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하며 긴장한 전투에서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서서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대중과 더불어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사업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당사업을 혁명과업, 경제과업 수행과 밀착시켜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그에 대한 지도를 보장하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은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하려는 비상한 각오와 주인다운 일본새를 지니도록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고 경제과업수행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경제사업을 기운차게 떠밀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대로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학습기풍,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일떠서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모두가 다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도록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력갱생하려는 혁명정신과 기풍이 우리 사회에 맥맥히 흐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의것으로 사회주의를 더잘 건설하려는 각오와 열정을 안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진두에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앞에는 오직 승리가 있을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피끓는 200만 당원들과 영웅적인 우리 인민이 있으며 간고한 투쟁으로 높이 쌓아올린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한 우리에게 두려울것이 없으며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천리마의 기세, 속도전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아가자.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 것은 당활동의 근본요구

현 순 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로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기본요구와 실현방도에 대하여 심오한 과학리론적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사명,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의 호상관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심오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이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며 그것은 특히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과 건설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 *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사상의 혁명적본질과 그것이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로 로동계급의 당활동의 혁명적본질을 밝히신 독창적인 당사업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9～20페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킨다는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히 통일속에서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사업을 경제사업의 성과적수행에 철저히 복종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이다.

당을 튼튼히 꾸리고 공고히 하며 당조직들을 옳게 발동시켜 로동계급의 전위대로서의 전투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사업이 당사업이라면 경제사업은 나라의 경제를 관리운영하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경제사업을 말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킨다는것은 바로 이 두가지 측면을 밀접히 결합시켜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사업이 순수한 당사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도록 하며 당사업의 성과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게 하는것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나가

는데서 나서는 이 근본요구는 본질에 있어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사상과 리론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힌 탁월한 사상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사명, 그의 목적으로부터 나서는 근본요구라는데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은 그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무기인 당은 수령이 내놓은 모든 문제를 푸는데 당사업을 철저히 복종시킬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수령이 심려하고 의도하는것을 푸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수령이 의도하고 바라시는 문제를 푸는것이 바로 당사업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우며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이 의도하고 바라는 혁명위업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켜나가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것은 당의 사명뿐아니라 그 근본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근본목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전체 인민이 다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이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자면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당조직들을 옳게 발동시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전투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나서는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활동의 최고원칙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훌륭히 개조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나서며 따라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사상과 리론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힌 탁월한 사상으로 되는것은 당사업의 본질적요구와도 관련된다.

당사업이란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이다.

당내부사업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움직이기 위한 조직사상사업이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행정경제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당적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조직정치사업이다.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는 당사업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분리할수 없는 당사업의 기본구성부분이다.

당내부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그 확고한 담보를 이룬다. 당내부사업을 잘하여야 당자체를 강화할수 있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당내부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당자체를 강화할수 없는것은 물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도 옳게 보장할수 없게 된다.

행정경제사업의 성과는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이 높아야만 원만히 보장될수 있으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의 성과여부는 당내부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이처럼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은 서로 분리할수 없는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행정경제사업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떠난 당내부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활동에서 언제나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통일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라야만 당사업도 행정경제사업도 다 잘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이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당사업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이 제시되고 당앞에 무겁고도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는 현실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것이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페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할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당조직들로 하여금 당사업을 철저히 경제사업과 밀착시키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을 밀착시켜 힘있게 밀고나갈 때에만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할뿐아니라 그들의 높은 정치적자각을 적극 불러일으켜 부닥친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온갖 창의창발성과 혁명적열의를 내여 당앞에 나선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그런데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내부사업을 틀어쥔다고 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외면하거나 반대로 행정경제사업을 틀어쥔다고 하면서 해당부문일군들을 제쳐놓고 그것을 대행한다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의 균형적발전에 제동기적역할을 놀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것은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며 특히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전투적과업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기본열쇠로 된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킴에 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길을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로 밝혀주는 당사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사업을 철저히 혁명과업수행과 결부시키고 그에 복종시키며 혁명과업수행결과를 가지고 당사업을 평가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오내에서는 총을 잘 쏘고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사람을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하였으며 모든 대원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경제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당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되고 오늘 우리 당 사업에서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구체적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당위원회, 군당위원회 그밖에 다른 모든 당위원회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07페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그를 담당수행하는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립장, 태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방침도 역시 그를 직접 담당수행하는 당일군들의 사상관점, 그들의 립장과 태도여하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정치적지도기관이다. 경제사업에서의 성과여부도 전적으로 각급 당조직들이 책임지는 립장을 가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서야 경제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적극성과 창발성을 내게 되며 생산과 건설을 적극 밀고나가게 된다.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정통하여야 하며 그것을 근로자들속에 적극 해설침투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 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이 사업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과정이 곧 다름아닌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 구체적과정으로 된다.

당생활이란 당원들이 조직에서 주는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그것은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이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원들이 당조직으로부터 혁명과업을 분공받고 그것

을 실천하는 부단한 반복과정이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이다.

이로부터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생활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당생활지도를 철저히 제기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데서 무엇보다도 당원들에 대한 당적분공을 그들이 맡은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당적분공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조직이 당원들에게 주는 구체적과업이다.

모든 당원들은 당조직에서 주는 당적분공을 통하여 당생활을 진행하게 되며 또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사업에 참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에게 주는 당적분공은 그들이 맡은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조직하여야 한다.

동시에 당원들의 당생활총화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사상생활총화로 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생활총화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사상생활총화로 될 때 당원들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나설수 있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학습은 당원들의 당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당원들이 학습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는것은 모두가 다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데 있다.

혁명과업수행과 동떨어진 학습, 실천활동과 결부되지 못한 학습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한갖 글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학습은 마땅히 혁명실천과 결부되여야 하며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 철저히 복종되여야 한다.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우리 당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다. 따라서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킬수 없고 그들이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철두철미 정치적지도로 되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경제과업수행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하여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2페지)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이다.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향도적력량인것만큼 당조직들은 행정경제기관들이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자기 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가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주며 이끌어주는 정치적령도자로 되여야 한다.

경제건설이 중요하다고 하여 당조직들이 자기의 사업범위를 초월하여 직접 경제실무적문제에 매달리게 된다면 정치적령도자로서의 당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행정대행의 편향을 엄격히 경계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철저히 정치적지도로 일관시켜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사업은 행정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대책을 세우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조직들은 이 사업을 잘하여야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떠밀어주는 사업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들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경제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다.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옳게 떠밀어주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제기된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작전적구상을 바로한데 기초하여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지도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정치사업은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혁명투쟁에 남김없이 조직동원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대중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각적으로 떨쳐나설 때 생산과 건설에서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의 과녁을 정확히 정하고 그를 점령하는데로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집중공세를 세차게 들이대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하에서 당사업과 경제사업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밝힌 독창적인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과학리론적으로 일반화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명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당 사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들에 의하여 여실히 증명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추동력

석 경 모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다섯해가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짐으로써 지난 기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는 낡은 사회의 잔재를 뿌리뽑고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진군길우에 펼쳐지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3대혁명로선과 그 관철을 위한 3대혁명소조운동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3대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보다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 력사적운동이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 기치밑에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나가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1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과학적인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위대한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세련된 정치적참모부, 당의 혁명적인 령도를 받아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어떠한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으며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끊임없이 심화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도방법과 지도형태를 옳게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가장 정확히 실현될수 있다.

심오한 혁명리론과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혁명승리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여 일찌기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이끄

심으로써 3대혁명에 대한 당의 가장 과학적인 지도방법, 혁명적인 지도형태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하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한 지도방법, 지도형태인것으로 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가장 친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것입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13페지)

혁명적군중로선과 그에 기초하고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하에서 당 및 국가, 경제사업지도, 대중지도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공산주의적 령도원칙, 령도방법이다. 여기에는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대중지도의 근본요구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3대혁명수행에서 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역할을 높이고 이 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게 한다. 이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3대혁명과업을 수행할데 대한 당적령도의 기본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심으로써 우리 당은 3대혁명에 대한 령도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주동적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을 힘있게 미민어주는 위대한 추동력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치게 하는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이 운동이 3대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와 당의 혁명적지도를 가장 정확히 실현하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혁명적지도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고 대중의 의사가 신속정확히 반영되며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3대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의 영예로운 친위대, 근위대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의도대로만 살고 일해나가며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철칙으로 삼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직접 생산단위에 들어가 생산자대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려주고 그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게 한다. 따라서 3대혁명소조가 활동하는 모든곳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제때에 신속정확히 쭉쭉 내려가게 되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3대혁명

수행에 떨쳐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3대혁명소조는 생산자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건설적이며 혁명적인 의견을 당에 제기하며 모든 부문의 실태를 정확히 보고하게 된다. 이리하여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매 시기 당의 정확한 방침이 제시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통일적이며 혁명적인 령도가 옳게 실현될수 있게 하여준다.

대중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숨쉬고 행동하게 하며 3대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당의 령도가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는 바로 여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추동력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기운차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의 주인된 자각과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킨다는데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일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일군들의 정치사상적 및 과학기술적 자질을 높이는것은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이다. 더우기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고서는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거창한 혁명적변혁과정인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일군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게 하며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3대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게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소조원들을 통하여 일군들에게 현대적과학기술을 배워주고 실천을 통하여 선진과학기술의 위력을 보여주며 새로운 기술혁신의 성과를 대담하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들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3대혁명을 적극 벌리는것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 성과여부는 결국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실천과 결부된 산 정치사업을 벌려나갈 때 더욱 높이 발양될수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큰 규모의 위력한 지도력량이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에 내려가 직접 현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매개 직장과 작업반, 생산자대중에게 침투하여 그들의 정치적자각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한다.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은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생산현장의 구체적환경에 맞게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3대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한다.

실로 3대혁명소조운동에는 언제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모두를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내세워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바로 여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해당단위의 실정에 맞게 지도의 과학성과 구체성

을 보장하며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는 가장 적극적인 대중지도방법이라는데 있다.

지도의 과학성과 구체성을 보장하며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속도전의 요구를 훌륭히 관철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3대혁명소조를 통한 지도방법은 큰 규모의 지도력량이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 생산자대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아래단위의 실정을 깊이 료해장악하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며 지도의 구체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게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모든 문제를 한쪽 측면만 보는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다 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하면서 긍정과 부정을 정반비례적으로 잘 련관시켜봄으로써 옳은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처방을 뗄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또한 당핵심들과 함께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청년인테리들로 구성되여있는것만큼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 농민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할수 있게 하며 이 협조의 위력한 힘에 의거하여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게 한다.

이처럼 3대혁명소조를 통한 지도방법은 한두사람이 아래에 내려가 결함보따리만 싸가지고 올라오던 지난날의 수공업적방법과는 달리 아래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뿐아니라 걸린 고리들을 풀어줌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속도전의 원칙대로 밀고나가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업방법이다.

참으로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정확히 실현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3대혁명수행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게 하는것으로 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기운차게 떠밀어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2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오늘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독창적인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몸소 그 실현을 위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옳바르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것은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분석, 몸소 시험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당핵심들과 대학생들로 3대혁명소조를 구성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력한 지도력량으로 3대혁명소조를 무어주신것은 해당단위의 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어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가장 현명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를 옳게 구성하여주신것과 함께 3대혁명소조의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 시, 군 그리고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들이 유일적인 지도체계에 의하여 움직이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포치하는것으로부터 총화하는데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을 철저하게 해당단위의 당위원회와 협의하고 합심하여 조직집행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각급

단위의 3대혁명소조들이 자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끊임없이 심화시키도록 내부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주시고 혁명적규률과 엄격한 사업질서를 확립하게 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의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짐으로써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지도가 철저히 실현될수 있게 되였으며 해당단위의 당위원회와 3대혁명소조들이 서로 합심하여 걸린 고리를 풀고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활동방법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목적에 맞게 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일깨워주는것을 기본활동방법으로 제시하여주시였으며 3대혁명소조운동의 혁명적본질에 맞게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사업하도록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활동을 세심하게 보살펴주시였으며 그들의 사업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에게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라는 높은 정치적신임까지 안겨주시였다.

3대혁명소조들이 자기 사업을 개시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현지에서 그들의 활동정형을 하나하나 료해하시면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여시여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정형을 보고받으시고 그들이 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과 해마다 소집된 전국의 공업부문과 농업부문 일군들의 회의들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중간총화하여주시였고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셨을 때마다 해당단위에서 활동하고있는 개별적소조원들까지 친히 만나시여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였으며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치하하시면서 크나큰 고무를 주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지도,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가 있었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은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지도밑에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중앙에서 파견된 친위대, 근위대라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이 내놓은 3대혁명방침이 정당하다는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전체 로동계급이 당의 방침을 받들고 적극 투쟁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3대혁명소조들이 당조직과 합심하여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그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일본새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아무런 조건타발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는 이것이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적풍모이며 혁명적일본새이다.

3대혁명소조들이 당조직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과정이 더욱 촉진되여 많은 사람들이 교양개조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또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리는 실천투쟁속에서 청년인테리들자신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로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기술혁명이 빨리 추진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기술적진보가 이룩되고있다.

은률에 건설된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가 다그쳐지고 황철에서 타오른 봉화따라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산업텔레비죤과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또한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이 합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농법과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한랭전선의 혹심한 영향에도 끄떡없이 농업생산은 해마다 비약적으로 장성할수 있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선진과학문화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린 결과 그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가 확립되여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 도시와 농촌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여가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3대혁명소조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한층 공고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할수 있는 경제적기초도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　　　*

지금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8페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이며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며 새 전망계획의 진군길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앞장서 관철해나가는 혁명의 기수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답게 혁명과 건설에서 전위적역할을 더 잘 수행할 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 제2차7개년계획은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될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으로 끝까지 옹호관철하도록 하며 그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오직 충성의 한길에서 억세게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밑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높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더 많이 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또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힘있게 밀고나가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지식을 급속히 높이며 그들이 높은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여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우리 경제를 보다 능숙하게 움직여나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는것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환히 꿰뚫고있어야 하며 다방면적인 경제문화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틀을 차리지 말고 겸손하고 소박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혁명의 전위, 인민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다운 《우리 소조원》으로 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성과여부는 3대혁명소조들이 당조직과 합심하여 제기된 문제를 훌륭히 풀어나가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중앙에서 직접 파견한 3대혁명소조들과 해당단위의 당조직들이 힘을 합칠 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는 참말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모든 3대혁명소조들은 해당단위의 당조직들과 합심하여 걸린 고리들을 풀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3대혁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이 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쥐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과 당조직들, 일군들은 정확한 투쟁목표와 구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이 운동을 능숙하고 패기있게 지휘해나가며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이며 독창적인 3대혁명의 기치높이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할것이다.

속도전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틀어쥔 위력한 무기

차 주 상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조직들과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세기에 불멸할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자랑찬 업적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경제문화건설의 전반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온것이다.

속도전에 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혁명적사업진개원칙을 밝힌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우리 당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시되였다.

우리 당이 밝혀준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천리마의 속도로 힘차게 달려온 지난날처럼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며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해나가야 한다.

*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정확히 평가하며 여기에서 견지하여야 할 사업 형식과 원칙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커다란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전진운동의 높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아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10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과 같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인것이 아니라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외래침략세력의 준동,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이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것을 청산하고 로동계급적이며 혁명적인것을 창조해나가는 거창한 변혁과정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인 립장에서 이 문제를 보며 그에 알맞는 새로운 사업형식과 사업원칙을 창조하고 옳게 구현하여야 자연과 사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새롭게 개조해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높은 속도로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지 못할 때에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에서 혁명적으로 벗어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혁명적변혁과정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없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하나의 전투과정으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과 혁명적사업전개원칙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과 혁명적사업전개원칙이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지고 완벽하게 해명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이 위력한 투쟁의 무기를 받아안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높은 속도로 힘있게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그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하여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것이다.

빨리 한다고 하여 질을 소홀히 하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늦추는것은 다 속도전과 인연이 없다. 속도전에서는 최대한의 량적장성이 최상의 질과 떨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속도전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물질적생산물과 정신적창조물을 질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을 높일것을 요구한다.

이렇듯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는것을 속도전의 기본요구로 규정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과 모든 사업에서 속도와 질의 밀접한 련관관계를 명철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시한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본질적특징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데 있다. 속도전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력량을 집중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불이 번쩍나게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겹쌓여도 불굴의 혁명정신과 완강한 투지, 불타는 열정과 명철한 지략으로 그것을 뚫고나가면서 모든 사업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질적으로 완성하는것이다.

속도전은 또한 섬멸전을 통하여 표현된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해제끼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모든 힘과 지혜, 물질기술적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며 섬멸전을 벌려나갈 때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으며 끊임없는 앙양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전개하여나가는 여기에 속도전의 불패의 위력이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에서 중요한것은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근본조건을 전면적으로 밝힌것이다.

우리 당은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할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는것이다.

사상, 기술, 지도의 세가지 조건가운데서 사상혁명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당의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확고

히 구현한것으로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한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속도전을 벌리는 과정은 곧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발양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높은 창발성과 책임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특히 속도전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과 참다운 사회주의적인 일본새를 체득케 함으로써 대담하고 통이 크게 그리고 판을 크게 벌려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격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 잘 키워나갈수 있다.

속도전은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한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높은 혁명적자각과 계급의식을 요구하는 속도전에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이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립장,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속도전을 벌려야 새것, 혁명적인것, 적극적인것의 승리적전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으며 낡은것, 보수적인것, 소극적인것의 극복과정을 다그칠수 있다. 그러므로 속도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 때 온갖 침체와 보수, 로쇠현상을 극복하고 모두가 다 패기와 열정에 넘쳐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적극적인 혁명투사로 키워나갈수 있다.

또한 속도전을 벌리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고리들과 부문, 단위들에서 높은 집단주의적정신에 기초하여 련대적혁신을 일으켜나가야 속도전의 요구를 더 잘 실현할수 있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게 된다.

속도전은 근로자들속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해 몸과 마음,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될수 있게 한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인 분위기가 차넘치며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고 전진하기를 좋아하는 생기발랄한 혁명정신을 더 잘 체득해나갈수 있게 된다.

참으로 속도전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혁명적랑만, 휘황찬란한 앞날에 대한 확신에 차넘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며 오직 전진과 투쟁, 혁신만을 아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 잘 키워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천리마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다그치게 하는 속도전의 거대한 생활력과 위력은 바로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한데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은 속도전의 사상적기초를 이루고있으며 그 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근본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준다. 계속혁명사상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위대한 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데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며 모두가 다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할 때 모든 사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속도전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는 혁명적관점,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또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며 하나의 과업을 수행한 다음 계속 새로운 과업,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전투형식이며 사업전개원칙이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한 여기에 속도전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속도전이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 근거가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의 심화발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 천리마운동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다.

속도전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심화발전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은 무엇보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데 대한 천리마운동의 목적과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심화시키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속도전은 또한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람들을 교양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한다.

이렇듯 속도전은 위대한 공산주의적 대진군운동인 천리마운동에 새롭게 박차를 가하여 이 땅우에 천리마의 기상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하며 천리마의 기세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방침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은 속도전의 본질과 요구, 그 기본원칙과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근본조건, 속도전의 사상적기초 등 속도전과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는 과학적인 방침으로서 완성된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는 독창적인 리론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력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천리마의 기세로,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달려온 자랑찬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남이 열걸음 걸을 때에는 백걸음을 걸으며 남이 십리를 달릴 때에는 백리를 달리는 기세로 투쟁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71~57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비상히 높은 속도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창조와 변혁의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 락후하고 기형적인 식민지경제를 물려받았으며 그나마 미제

가 도발한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위업수행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력사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발전된 현대적인 주체공업과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농촌경리, 개화만발하는 주체적인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한때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하던 페허우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온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5개년계획기간에 그리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생산을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시켰으며 1970년에는 그것을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높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남들이 100년 지어 수백년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한 다음 6개년계획기간에도 공업생산의 년평균증가속도는 16.3%에 이르렀으며 공업생산은 2.5배로 늘어났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이룩한 《기적적인 속도》라고 자랑하던 때의 몇배에 달하는 높은 속도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1974년 70일전투기간에는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투쟁한 결과 그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공업생산액을 1.7배로 높였으며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계기를 열어놓았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의 공업은 전쟁으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고 복구건설에 많은 기간을 허비하였으며 세계적으로는 원료, 연료 위기가 휩쓸고 경제파동이 극심하였으나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그 어떤 파동이나 곡절을 모르면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 경제건설분야에서뿐아니라 과학, 문학예술 분야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또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 몇해 혹은 몇십년에 걸려서 완성한다는 가극, 그것도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을 완벽하게 갖추고있으며 사상예술성에서 최상의 경지에 이른 《피바다》식혁명가극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5편을 창조한 이 기적적인 성과는 속도전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된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를 통하여 속도전의 위력과 생활력은 남김없이 검증되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천리마의 기세로 힘있게 달려옴으로써 혁명의 준엄한 시련과 겹쌓인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세월을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나아갈수 있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히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으며 사람들의 사고와 실천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 잘 키워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2차7개년계획말에 가서 한해에 560억~6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7,000만~8,000만톤의 석탄, 740만~800만톤의 강철, 100만톤의 유색금속, 500만톤의 기계가공품, 500만톤의 화학비료, 1,200만~1,300만톤의 세멘트, 350만톤의 수산물, 1,0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고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지금보다 생산을 2배이상 높일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인 균형에 기초하여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웅대한 계획이다.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담보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속도전은 실생활을 통하여 그 위력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된 우리 당의 수중에 장악된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수 있으며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사상혁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할 때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속도전은 곧 사상전이다.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속도전을 적극 진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상전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당정책과 어긋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그 사소한 표현일지라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것이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당적책임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며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무책임성 등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감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기술혁명은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릴 때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우리는 전군중적운동으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선진기술공정을 적극 받아들여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현하여야 한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 것은 경제조직사업과 보장사업을 더욱 짜고드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예비는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경제조직사업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커진다.

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 때 속도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경제조작사업이란 계획을 잘 맞물려주고 자재를 잘 보장해주는것과 같은 사업이다.

우리는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도 구경은 경제조직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지니며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듦으로써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채취공업,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공정들에 힘을 넣어 이 부문들을 확고히 앞세움으로써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전기, 석탄을 비롯한 원료, 연료, 동력과 여러가지 자재를 극력 절약하는 여기에 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제품단위당 물자소비기준을 끊임없이 낮추며 새 기술과 새로운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그것을 선진적인것으로 부단히 갱신함으로써 물자자원을 더 많이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들을 언제나 깨끗이 정비보수하여 만부하로 돌려야 하며 물자보관관리를 개선하여 사소한 랑비현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자자원을 절약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속도전을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들끓는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적극 떠밀어주며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모든 사업을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또한 혁명적학풍을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를 확고한 신념으로,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맡은 부문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넓은 정책적 안목과 높은 기술실무수준을 가지고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당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고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모두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아가자.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주체의 교육전통

전 창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여있다.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이 주체교육의 휘황한 빛발아래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사회주의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빛발아래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가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은 날을 따라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교육사업에서 일어나고있는 커다란 전변과 혁명의 후비대육성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혁명적인 교육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력사적뿌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였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구현하여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혁명인재육성의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이 이루어졌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3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교육사업을 혁명의 승리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적교육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심으로써 주체교육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우리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교육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혁명적교육 업적과 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교육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적교육제도의 원형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교육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적교육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오늘 우리자신이 혁명을 위하여 잘 싸울뿐만아니라 혁명의 장래가 달려있는 저 아이들을 잘 길러내여야 혁명가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로동계급의 교육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새 세대들을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훌륭한 혁명투사로, 새 조국 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우는 혁명사업이며 동시에 이 사업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지워진 가장 중요한 임무이라는 심원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이고 복잡한 투쟁

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로동계급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혁명하는 사람들자신이 혁명에 충실할뿐만아니라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비대들을 튼튼히 키워야 한다. 혁명의 장래운명은 바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는가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도 후대교육문제를 혁명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내세우시고 교육사업의 본질을 천명하심으로써 교육에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혁명적교육학의 기본원리를 밝히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진명학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소년탐험대원들은 우선 공부를 잘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글뒤주가 되여서는 안된다.

공부를 잘하여야 하지만 체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며 군중들앞에서 연설도 할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훌륭한 혁명가가 될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새세대들을 혁명투쟁에 주인답게 참가시킬수 있는 사상과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울데 대한 혁명적교육의 기본원리가 명철하게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적교육의 기본원리는 교육의 목적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의 필수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교육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인재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후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자기 나라 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줄 아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게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대들속에서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일제와 지주, 자본가계급을 미워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원쑤와 싸워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대교육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새세대들을 항일혁명투쟁과 새 조국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건장한 체력을 가진 쓸모있는 역군으로 키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후대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건전한 사상의식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기술,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당면한 요구와 혁명적교육의 기본사명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쓸모있는 산 지식과 군사 및 체육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후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힘있는 존재로,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후대들을 조선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게 하며 영원히 변심을 모르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수행을 위한 계급투쟁의 철저한 기수로 되게 하며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작성제시하신 교육강령은 교육문제해결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밝힌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주체적인 교육사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강제적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김일성군사선집》 제1권, 39페지)

혁명적교육강령을 제시하는것은 당시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었다. 그것은 우선 교육문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기 위한 정확한 길을 밝혀주며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옳바르게 이끌어야 할 절박한 요구와 관련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첫날부터 전대미문의 정치적폭압과 혹독한 경제적략탈을 감행하면서·야만적인 우민화정책과 악독한 식민지노예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수세기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인민의 처지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와서 최악의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그러므로 교육문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투쟁목표를 제시해주며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는 투쟁을 반일민족해방운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옳바르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적인 교육강령을 작성제시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일제식민지하에서 우리 인민의 비참한 교육형편과 항일무장투쟁의 요구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을 철폐하고 우리 말과 글로써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강령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정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강령은 우리 인민이 쟁취해야 할 진정한 인민적인 교육제도의 수립을 명시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간절한 의사와 세기적숙망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교육문제해결의 근본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담고있는 투쟁강령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주체적인 교육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혁명의 후비대를 튼튼히 준비하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영광스러운 주체교육의 빛나는 앞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교육의 독창적인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을 실시하심으로써 새형의 주체적인 교육제도의 빛나는 원형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새로운 교육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원형으로 되였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3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반제반봉건적인 제반 민주주의적 시책과 개혁들을 실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에 수립된 새로운 민주주의적사회경제제도에 토대하여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제도를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카룬과 고유수, 오가자일대에 혁명적인 학교를 세우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면비의무교육을 실시하신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시여 근거지안의 여러곳에 아동단학교를 세우시고 전체 학령아동들을 철저히 조사장악하여 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왕청유격구의 마촌, 대북구아동단학교, 연길유격구의 장재촌, 왕우구, 북동아동단학교, 화룡유격구의 어랑촌아동단학교, 안도현 처창즈유격구의 아동단학교를 비롯하여 유격근거지의 거의 모든 부락에 4년제학교들이 세워졌으며 8살이상의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또거

운 배려에 의하여 아동단학교들에서는 《월사금》과 각종 잡부금이 완전히 폐지되고 철저하게 면비교육이 실시되였으며 학생들의 교복과 신발 그리고 교과서와 학용품은 물론 일상 생활필수품까지 무상으로 보장되였다. 특히 혁명렬사유자녀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의 자녀들, 적통치구역에서 일제놈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어린이들에 대하여서는 집단적으로 합숙생활을 시키면서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주는 등 특별한 배려가 돌려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참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서 조국의 앞날을 보시고 그들을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 안으시여 조선혁명의 기둥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의 학교건설장을 찾으시여 조국의 미래를 키워낼 배움터를 훌륭히 꾸리도록 가르쳐주시기도 하시고 학교개교식에 친히 참석하시여 첫 수업도 참관하시였으며 처음 글을 쓰는 소년의 손목을 잡으시고 글쓰는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은 귀틀집에서 엄동설한에 홑옷을 입으시고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아동단원들에게만은 제일 크고 좋은 집에서 배고픈줄 모르고 따뜻이 지낼수 있도록 두툼한 솜옷과 이불, 털모자까지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전투에서 로획한 단 한알의 사과마저 조국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조국의 사과를 맛보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삼천리 우리 조국강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갖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격근거지에서는 학령아동들에 대한 교육뿐아니라 전반적인 성인교육도 실시되였다.

일제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학교문앞에조차 가볼수 없었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인민들을 계몽각성시키는것은 그들이 혁명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의 모든 부락들에 야학을 세워 인민들이 생산과 근거지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리탈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수 있는 전반적인 성인교육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야학들에서는 문맹퇴치에 기본을 두면서 아동단학교 교재를 가지고 초등교육과정의 일반지식을 주었으며 정치교육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유격구역의 마을마다에는 야학이 세워지고 거기에서는 지난날 배움의 길에서 버림받았던 우리 인민이 난생처음으로 우리 나라 글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게 되였고 혁명의 진리를 배우게 되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독창적인 교육사상에 의하여 유격근거지들에는 우리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전반적면비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일정한 교육망에 망라되여 배우게 됨으로써 참다운 주체교육의 빛나는 원형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이룩하신 이 불멸의 혁명업적의 깊고도 억센 뿌리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우월한 주체의 교육제도가 마련될수 있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후대교육교양에서 튼튼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불멸의 혁명업적과 경험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교육전통은 조국의 장래발전과 혁명적교육건설에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하고도 풍부한 업적과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고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조선혁명에 필요한 산 지식과 군사, 체육 및 문학예술에 관한 교육교양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교육은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구현하여나가는 교육실천이였다. 특히 로동계급이 아직 주권을 쥐지 못한 조건에서 그것도 민족해방투쟁을 진행하는 간고한 불길속에서 후대교육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그자체부터가 벌써 혁명적이고 독창적이였으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교육사업을 몸소 조직지도하시면서 언제나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교육사업은 철저히 조선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진행되였다. 특히 후대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조선혁명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배워줌으로써 교육내용에서 철저히 주체를 세웠다.

또한 정치사상교양을 선차적으로 하는것은 혁명적교육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였으며 혁명인재육성의 근본조건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정치교양사업에서 중심을 이룬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에 대한 교육교양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교양한것이다.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의 혁명적학교들과 혁명조직들에서는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우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진행되였으며 1930년대 후반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혁명적출판물 《김대장략》과 《백두산장수》를 출판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군정학습과 야학에서 기본교재로 리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 교육이 위대한 주체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혁명적교육으로 되였을뿐만아니라 이 시기에 벌써 로동계급의 혁명적교육의 력사에서 자기 수령을 내세우고 수령의 혁명력사를 통해서 후대들을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가로 교육하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혁명적학교들에서는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당면한 요구와 혁명적교육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쓸모있는 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일반지식교육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 아동단학교들에서는 국어, 산수, 조선력사, 조선지리, 생리, 자연, 음악, 습자 등이 취급되였으며 고등과에서는 대수, 기하, 천문학, 인류진화사 과목도 취급함으로써 혁명적세계관형성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산 교육이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체육 및 군사 교육을 이 시기 학교들의 중요한 강령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치사상교양과 일반지식교육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신 혁명적조치들에 의하여 혁명적학교들에서는 지덕체를 겸비하고 군사적으로도 훌륭히 준비된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교육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학교교육을 혁명적조직생활과 생산로동을 포함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진행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을 산 사람으로 만들려면 학교에만 붙들어두지 말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정치활동을 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329페지)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학교들에는 례외없이 아동단, 소년탐험대, 소년선봉대를 비롯한 혁명적청소년단체들이 조직되여 모든 학생청소년들을 조직생활에 참가시켰다. 학교교육과 밀접히 결합된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조직과 집단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정신과 혁명적규률에 복종하고 조직의 위임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품격을 갖추게 되였다.

혁명적학교들에서는 또한 사회정치활동과 생산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사상과 지식, 체력을 단련시키나갔다. 이 시기 혁명적학교들에서 학생청소년들은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생산로동과 함께 농사일을 돕고 식용 및 약용식물을 채취하며 학교를 짓고 혁명렬사와 유격대의 가족들을 원호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유익한 사회적로동에 일상적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유희대, 가창대, 연예대 등 사회정치활동과 유격근거지의 경계근무, 통신련락, 정치활동, 주구탐색과 청산, 반간첩투쟁, 근거지방어전투 등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러한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그들은 사상과 의지를 단련하고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웠으며 투쟁하기를 좋아하고 혁명하기 좋아하는 산 정치활동가, 참된 혁명가로 자라났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학교교육을 혁명적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한 교양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나가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직성과 규률에 습관되고 혁명투쟁의 진리와 방법을 체득하였으며 용감성과 대담성, 희생성을 지닌 혁명투사로,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한몸바쳐 싸워나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났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혁명적교육경험과 업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인것이다.

후대들에 대한 혁명적교육의 성과여부는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교원들에게 중요하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후비대를 키워내는 영예로운 교육사업을 맡아할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시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간부들이 심히 부족한 조건하에서도 혁명적학교들에 가장 우수한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공청원들을 교원으로 파견하시였으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일찌기 진명학교, 삼광학교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교양육성하신 조선혁명군 대원들이 파견되였으며 유격근거지학교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이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자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우수한 공청원들이 교원으로 파견되여 활동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학교들에서의 교원도 례외없이 직업적인 혁명가들이였으며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였다. 그들은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조직생활과 사회생활을 직접 돌보는 교원으로서, 아동단지도원으로서, 학부형으로서 후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육교양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성과 있는 열성을 다하였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 교원대렬을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공산주의자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나갈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키워주고 깨우쳐주

는 교수방법을 비롯하여 혁명인재육성과 교육교양에서 새로운 교수교양방법들이 창조되였으며 성인교육경험과 전문군사정치간부양성경험 등 실로 헤아릴수 없이 풍부하고 귀중한 혁명적교육경험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중첩되는 곤난과 애로를 뚫고 후대교육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교육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시하신 주체교육의 빛나는 전통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현대문명과 기술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인민교육제도를 세워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인민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며 자기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꽃피우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우리의 교육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공산주의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더욱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공산주의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훌륭히 키워내고있다.

오늘 당원들과 교육일군들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빛내이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킴으로써 위대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후대교육의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이 영예로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대를 이어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

김 철 식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 새 전망계획의 기본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우리 인민이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목표와 그것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과업과 과학적방도들을 명철하게 규정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나가는데 있어서 뚜렷한 리정표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을 새 전망계획 기간의 투쟁목표로 제시하시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도로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기본방도들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화는 경제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은 본질에 있어서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필요한 새로운 경제부문들을 더 창설하여 우리의 경제를 더욱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경제를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주로 자기의 자원, 자기의 힘에 의거하며 자기 나라의 물질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제발로 튼튼히 서서 움직이는 위력한 경제를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만이 그 어떤 외부적인 경제적파동이나 자연기후적조건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할데 대한 방침에는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책임지고 수행하며 자체의 힘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현대화, 과학화와 서로 유기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공업의 모든 부문을 고도로 현대화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나라의 과학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추동하게 된다.

또한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새로운 생산부문의 창설을 가능하게 하여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며 자연부원의 개발과 원료, 가공공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현대화, 과학화와 서로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발전하면서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더 잘 건설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할 필수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38페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쌓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민족적차이가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단위는 민족국가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며 사회주의경제법칙들도 개별적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매개 나라마다 그에 고유한 사회경제적특성이 있고 생산력발전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과업도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매개 민족국가의 범위를 벗어난 그 어떤 초국가적인것으로는 될수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쌓아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가 인민경제를 철저히 주체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장 빨리, 가장 훌륭하게 쌓을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보장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한나라안에서 원료채취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순환의 모든 환절들을 유기적으로 련결시켜 완비된 경제체계를 이룩할수 있게 하며 생산수단과 소비재를 자체로 생산하여 주로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킬수 있게 한다.

이것은 매개 나라의 실정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과 자재, 자금, 로력 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속도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과 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를 철저히 주체화할 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안받침하고 그들의 생활적요구를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륭성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만일 민족이 필요한 물질적수단을 자체로 창조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거나 남을 쳐다보기만 한다면 경제생활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고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튼튼히 지킬수 없게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빨리 강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을 정복하는 근로대중의 힘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그들이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서 자기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개척하는 과정을 확신성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할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가장 빨리, 가장 훌륭하게 실현할수 있게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또한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요한것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가 다 건전하게 발전하여 자기의 자립적역할을 충분히 하는 기초우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호상 경제적협조를 강화하여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가 총체적으로 원만히 움직이며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민족적리익과 국제적리익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제2판, 182페지)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것은 결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배제하고 경제를 《폐쇄화》하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련계를 맺고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교류를 진행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나라마다 자연경제적조건이 다르고 해당시기의 생산력발전수준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 다르며 따라서 생산되는 제품의 량과 품종이 같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가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거나 자기나라에서 생산할수 없는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나라들의 경제가 다 건전하게 발전하여 자립적역할을 충분히 노는 기초우에서 다른 나라들과 서로 경제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하여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튼튼한 토대우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으로 유무상통할수 있고 경제적협조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민족적리익과 국제적리익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특히 경제를 주체화하는것은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대치된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만큼 경제를 주체화하여야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주동적으로 우리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계속 전진시킬수 있으며 그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그 어떠한 외부적영향도 받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굽임없이 전진하고 굽임

없이 혁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불과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완성하였으며 뒤따라 그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6개년인민경제계획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충분히 마련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새 전망계획의 중심과업으로 제시된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매개 나라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적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기 나라의 원료와 연료, 동력, 자재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할수 있는 정도의 높은 생산력의 발전수준에 도달하여야 튼튼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놓았다고 말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로 하여 인민경제의 부문구조가 잘 조화되고 기본적으로 자체의 원료자원에 토대하여 발전하는 자립적인 경제로 되였다. 그리고 농업까지 포함하여 인민경제가 전반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우리앞에는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더 창설하고 우리 나라 경제를 더욱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며 경제의 규모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크게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것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주체화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이러한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이다.

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는것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더욱 혁명적영향을 주고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실현은 자주, 자립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간다면 나라의 크기와 발전 정도에는 관계없이 자력갱생하여 번영하는 강유력한 경제를 건설할수 있다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자주, 자립을 지향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에게 자기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주게 될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이다.

＊　　　　＊

현시기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채취공업과 전력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원료, 연료,동력 기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5페지)

공업의 식량인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 그리고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인 전력생산은 공업의 주체성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로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위한 선차적과업으로 나선다. 자체의 원료, 연료,동력 생산기지를 떠나서 공업의 주체성, 인민경제의 주체화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특히 세계적범위에서 심각한 원료난, 연료난을 겪고있는 조건에서 채취 및 전력 공업을 앞세워 원료, 연료,동력 생산을 늘이는것은 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근본문제로 나선다.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탐사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탄량과 광량을 넉넉히 확보하며 고속도굴진을 널리 받아들여 갱건설을 다그치고 갱도의 현대화, 영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는것은 채취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혁명이며 다량채굴, 다량운반, 다량처리에로 넘어가야 할 우리 나라 채취공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기계공업과 채취공업 부문 일군들은 기계생산 및 수리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달라붙어 고속도착암기와 대형착정기, 대형마광기와 대형적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성능높은 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며 운반계통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우리 나라 탄광, 광산들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기계설비들을 창안,도입하고 지금 있는 설비들을 개조하여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다그치며 우리 나라 지질조건과 광물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탐사방법과 채굴방법, 선광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더 많은 유용광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내에 무진장한 석탄을 리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도록 화력발전능력을 조성하며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자체의 동력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 나라의 원료, 연료에 기초한 야금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새 전망계획기간에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콕스생산에서 국내연료의 배합비률을 더욱 높이고 선철 톤당 콕스소비를 훨씬 낮추며 조강로들을 증설하여 조강생산능력을 훨씬 늘여야 한다.

립철은 그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무연탄과 분광에 기초하는 제강원료로서 선철보다 값이 눅고 제강공정에서 일련의 우점을 가지고있다. 립철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해서는 회전로의 운영과 관리에서 기술수준을 높여 1회 조업일수를 지금보다 훨씬 늘이며 보수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원구단광에 의한 강철생산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나라 연료를 가지고 질좋은 제철용 알탄을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의 원료에 기초한 고무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국내자원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관리사업을 잘하여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일떠세운 자립적민족경제는 커다란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며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있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막대한 내부예비를 동원할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 기간에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금 있는 생산토대를 더 완비하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함으로써 경제의 주체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위한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모든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0페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위한 투쟁은 나라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여 새로운 생산부문들을 더 창설하고 경제의 규모를 더욱 늘이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우리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승리적으로 극복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필요한 온갖 조건을 자체로 마련해나가며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경제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여 우리의 경제적밑천과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조건과 능력, 난관을 탓하지 말고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집행하고야마는 전투적기백으로 경제의 주체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참으로 멀리 앞으로 전진해왔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갈길은 멀고 험난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며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완수하여야 한다.

생산지도를 잘하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리 근 환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과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새 전망계획 수행의 첫시작부터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전진과 투쟁만을 아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파시하고있다.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이 장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것은 우리의 일군들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로운 과업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생산지도를 더욱 과학적으로, 기동적으로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공업부문에서는 생산지도와 기업관리 사업을 잘하는 바로 여기에 생산장성의 무진장한 예비가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26페지)

생산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생산지휘를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회주의경제는 발전된 현대적기계기술에 토대하여 밀접히 련관된 수많은 생산단위들과 공정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서로 다른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생산자집단의 공동로동에 의하여 움직여나간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산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복잡하게 작용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옳게 타산하고 변동되는 정황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생산지도사업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경제를 관리하고 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로동력과 생산수단을 잘 보장하고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이러한 보장사업들이 제대로 된다 하여 생산이 저절로 장성하는것이 아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전투기술기재와 후방물자에 대한 보장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작전계획을 잘 세우고 전투지휘를 기동적으로 해야 하는것과 같이 경제건설에서도 생산계획을 잘 세우고 기술준비를 앞세우며 생산지휘를 옳게 하는 등 생산에 대한 지도사업을 과학적으로, 실속있게 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래야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생산에 대한 지휘는 공동로동이 진행되는곳에서는 언제나 경제관리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나서지만 사회제도에 따라 그 성격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에 대한 지휘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곧 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사이의 적대적관계를 반영하며 생산지휘의 전과정이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로동자들을 부리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

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자대중자신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생산에 대한 지휘자와 생산자와의 관계는 동일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적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관계를 반영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에 대한 지휘자와 생산자는 서로 맡은 초소가 다를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맡은 사업을 적극 도와주며 자기가 맡은 과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하는것을 통하여 전반적 생산공정을 추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또한 생산에 대한 지휘과정도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한 지도과정으로 되며 생산자들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인민경제계획을 더욱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지휘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에 대한 지휘과정의 이러한 특성은 생산지휘성원들의 역할을 약화시켜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별적생산자들이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들이 마음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지어주지 못하며 생산전투지휘에서 통일성과 기동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계속 불러일으킬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그들의 힘과 지혜를 국가계획수행을 위한 목적달성에로 추동하여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나타내게 할수도 없게 된다.

생산을 지도하는 지휘성원들이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켜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전투계획을 세우고 생산에 필요한 경제기술적인 조건들을 제때에 보장하며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고 전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줄 때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경제관리를 정규화, 정상화하고 생산에서 높은 조직성을 보장할수 있다.

생산지휘성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앞당겨점령하여야 할 현실적요구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며 경제의 자립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전례없이 거창한 사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의 새로운 투쟁방침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려면 생산자대중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생산에 대한 지도를 과학적으로, 기동적으로 하는것이 필요하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높은 요구가 나서고있는 오늘 단순히 지난날의 경험만으로써는 생산지도를 제대로 할수 없으며 제기된 방대한 과업들을 수행할수 없다. 오직 생산지도일군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여 모든 생산활동을 면밀히 계획화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야만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하고 기술공정상 요구들을 원만히 충족시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경영활동을 과학화하는 사업도 다그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생산지도를 과학적으로, 기동적으로 할 때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한결같이 새로운 대고조로 들끓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생산적련계를 옳게 보장할수 있으며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신로 생산지도를 보다 능숙하게, 기동적으로 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조건에서도 끊임

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커다란 예비가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기세를 더욱 앙양시켜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생산지도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생산지휘를 잘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몸소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정연한 생산지도체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성, 관리국으로부터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참모부와 같이 계획사업과 기술준비사업을 비롯하여 생산지도와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하는 생산지도체계를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진 현실에 맞게 생산지도에서 과학성과 기동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생산지도체계이다.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생산지도체계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오시면서 공장, 기업소들에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고 계획부서, 생산지도부서, 기술부서, 공무동력부서들로 생산참모부를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민경제부문들사이, 재생산의 고리들사이의 협동생산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 빨리 추진시켜나가야 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현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위원회, 부단위에도 생산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참모체계를 내올데 대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원회, 부로부터 공장, 기업소들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가 세워짐으로써 계획화사업과 기술지도사업, 생산지휘가 분리된데로부터 오던 종전의 온갖 불합리성이 없어지고 생산지도와 기술지도가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실속있게 진행되게 되였으며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생산과정자체가 기술공정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경제의 특성에 맞게 기업관리를 진행할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과정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생산지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었으며 경제건설에서 계획성과 조직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생산참모부를 통하여 생산과정전반을 틀어쥐고 과학적이며 기동적인 생산지휘를 보장할 때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생산지휘를 보다 과학적으로, 기동적으로 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생산에 대한 참모지휘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참모부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에서도 참모장이 전투를 준비하고 조직합니다. 작전계획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투준비, 전투지휘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참모장이 환하게 꿰들고있는것과 같이 기사장은 생산에 대하여 다 알고있어야 하며 생산의 모든 과정을 통일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29페지)

생산참모부는 참모장인 기사장의 지도밑에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생산참모부가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생산전투의 승패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생산에 대한 참모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생산참모부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참모회의를 실속있게 운영하는것이다.

공장참모회의는 기업소생산을 책임지고있는 참모성원들의 모임인것만큼 어디까지나 충분한 사전준비밑에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품종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문제, 원료, 연료, 동력을 절약하고 원가를 낮추는 문제,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등 생산지도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들을 취급하여야 하며 제기된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론하고 구체적인 해결방도를 세워야 한다.

참모체계를 옳게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산현장에서 이동참모회의를 기동적으로 조직하며 직장담당참모소조들의 협의회를 정상적으로 하고 공장참모부와 직장담당참모소조와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직장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장악하고 생산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생산지도부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발양시켜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하며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하여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산지도부는 군대에서의 작전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참모부서이다.

그러므로 생산지도부는 전투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에 따라 생산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도록 생산준비정형을 제때에 검토하여야 하며 생산공정을 늘 구체적으로 파악한 기초우에서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생산지령을 내려야 한다.

전투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동원적으로 세우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중심지표들을 확정하며 긴급한 지표들과 협동생산품들을 먼저 생산하도록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매개 생산고리들에서 미성품보유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장적으로 완제품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방향에서 계획을 세우고 로력, 설비, 자재, 기술력량과 같은 모든 요인들을 다 맞물려 생산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생산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정계획을 자주 변동시키지 않고 세워진 일정계획대로 생산을 직극 밀고나갈수 있으며 생산지령서를 통하여 전투명령으로 하달된 생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행정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생산지도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는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기술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고도로 발전된 기술에 기초하고있는 우리의 인민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휘성원들이 생산의 전반행정을 기술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기술준비를 앞세우며 기계설비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수하고 불비한 기술공정들을 개선하며 선진기술을 직극 받아들이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여기에

서 중요한것은 선진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을 선행시키며 기술발전계획과 기술혁신안들을 광범히 토론하고 작성된 기술문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것이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기술준비단계에서 충분히 토의된 기술도안이나 기술공정지도도 생산에 들어가는 단계에 와서는 현실과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생산에 받아들이게 된 기술문건들은 재검토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기술문건들을 구체적인 생산공정, 기대, 설비와 련관시켜 깊이 연구하고 기술문건에 밝혀진 기술적요구와 정밀도를 보장하도록 생산현장에서의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일군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서 기술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기술공정을 개선하는데서는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로동조건을 좋게 하며 원자재소비기준을 낮추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하며 공장적으로 해결할것과 직장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할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 사업에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널리 망라시켜야 한다.

현장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는것은 생산지휘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생산지휘성원들앞에 나서는 필수적인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성, 관리국들에서는 생산계획의 실행정형에 대하여 마치 군대지휘관들이 전투정황을 늘 환히 꿰들고있듯이 매일, 매시각 똑똑히 알고있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9페지)

현대적생산의 진행정은 늘 변동하는 정황을 제때에 장악하고 능숙하게 처리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지휘관들자신이 생산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설비의 가동상태와 자재의 보장정형 등 생산현장의 구체적실정을 세밀하게 알고있어야 계획수행과정에 나타날수 있는 애로와 난관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으며 생산지휘와 통제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여야 한다. 또한 제정된 보고체계를 거쳐 통보되는 계산 및 총화 자료들을 깊이 분석하고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료해한 자료와 보고자료들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태실태를 해부학적으로 장악하여야 하며 전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고 생산정형에 대한 총화사업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지휘를 잘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생산지도를 기동적으로 하여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질서를 철저히 세울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자신들의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경제관리사상과 당의 경제정책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해야 하며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일할수 있는 관리운영방법을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자기 부문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오늘 생산지도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생산지휘를 더욱 과학적으로, 기동적으로 하여나감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연료, 원료, 동력 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기본열쇠

김 춘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과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금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웅대한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될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며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위력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연료, 원료, 동력 생산을 앞세우는것이다.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연료, 원료, 동력 생산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연료, 원료, 동력 문제를 풀데 대한 방침의 요구와 그 수행방도를 잘 알고 그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 *

연료, 원료, 동력 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연료, 원료의 기본을 이루는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은 공업의 식량이며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다.

연료, 원료, 동력을 생산보장하는 채취 및 전력 공업부문은 다음단계인 가공공업의 생산조건을 마련하여준다. 그러므로 연료, 원료, 동력 생산에 의하여 전사회적규모에서 확대재생산의 속도와 규모가 중요하게 좌우된다.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은 공업의 주체성, 경제의 자립성을 규정하는 기본징표의 하나이다.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을 떠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발전에서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이 노는 역할과 사회적생산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깊이 통찰하시고 채취공업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그것을 성과적으로 풀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주타격방향은 채취공업입니다.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연료, 동력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고 가공공업에 원료도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외화원천도 적극 늘일수 있습니다. 결국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열쇠는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있습니다.》 (《신년사》, 1978년 1월 1일, 8페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채취공업에서 석탄과 쇠돌을 비롯한 여러가지 광물을 대주어야 금속, 화학, 건재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을 중단함이 없이 생산보장하여 공장, 기업소들을 돌리고 관리운영할수 있다.

원료, 연료, 동력은 기계설비들처럼 생산과정에 머물러있으면서 오래동안 리용되는것이 아니라 한번만 리용되고 완전히 소비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소비되는 원료, 연료, 동력을 끊임없이 보충할뿐아니라 충분한 예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무리 현대적인 가공공장들과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가공능력을 늘인다하여도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지 못하면 그것들이 제대로 은을 낼수 없으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의 첫공정, 공업생산순환의 첫단계를 이루는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중심과업의 하나로, 생산의 정상적발전을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채취공업은 그 생산기술적특성으로부터 가공공업에 앞세워발전시키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원료,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은 곧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이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현대적기술수단들이 리용되는 경우에도 다른 부문에 비하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며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또한 채취공업부문에서 원료, 연료를 생산하는데는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과 시간이 든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단순재생산을 위하여서도 굴진이나 갱건설과 같은 기본건설을 해야 하며 많은 박토를 처리해야 한다. 생산된 원료와 연료를 소비지에까지 운반하는데도 많은 수송수단들과 기계설비들이 있어야 한다.

채취공업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옳은 균형을 이룩하며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워발전시키야 한다.

특히 세계를 휩쓸고있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미리 막고 공업생산을 안정된 기초우에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을 앞세우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오늘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과 큰물피해는 농업뿐아니라 공업부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큰물로 탄광, 광산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되여 생산을 중단하기나 원료, 연료를 실어나르지 못하며 심한 갈수로 전기를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우리의 공업생산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다.

있을수 있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미리 막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할수 있도록 예견성있게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더우기 전력공업부문에서 가물로 수력발전소들이 자기 능력대로 조업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도 전력을 충분히 대줄수 있도록 화력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며 연료를 넉넉히 대주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이것은 채취공업부문에서 언제나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전반적인민경제적범위에서 힘을 집중하며 이 부문을 앞세워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취공업이 노는 거대한 역할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을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성과적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추진시키는 세가지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방침,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고 채굴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 할데 대한 방침, 대규모탄광과 중소규모탄광 건설을 다같이 다그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채취공업을 앞세우는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독창적인 방침들과 그 수행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들은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생산기지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채취공업발전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들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고있으며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그 떡함이 없이 주체적인 립장에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채취공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원료, 연료, 동력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새로운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달성하여야 할 투쟁목표와 그 수행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새로운 7개년계획수행에서 주타격방향은 채취공업이다. 이 부문에서 원료, 연료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진행할수 있으며 대안체계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요구도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채취공업을 앞세워야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현대화, 과학화도 더 잘 실현할수 있다.

실로 인민경제의 선행공정인 채취공업의 발전은 새로운 전망계획인 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관건적고리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채취공업을 앞세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원료, 연료, 동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다.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으며 채취공업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기계공업기지도 튼튼히 꾸려져있다.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현대적인 채취공업을 일떠세웠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높은 경제발전속도를 이룩할수 있도록 원료, 연료, 동력을 충분히 생산보장하여온 풍부한 투쟁경험과 유능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대부대가 있다.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생활력있는 방침들이 제시되여있으며 전당과 전국가적인 힘있는 지원이 있다.

채취공업을 앞세워나가는 문제는 결국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채취공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는데 달려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채취공업을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의 정상화와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로동자들에게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는 생산조건을 보장하

며 로동자들을 지도하는 지휘관들의 능력과 조직사업에 달려있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35~236페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채취공업을 앞세워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부문, 모든 고리들이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순조롭게 발전할수 있다. 특히 원료,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이라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조직사업에서 기본은 옳바른 계획을 세우고 력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며 기술경제적보장사업을 잘하고 모든 사업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생산지휘를 잘하는것이다.

채취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탄광, 광산들의 실태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잘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부문 일군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며 약한 고리를 보충하면서 섬멸전의 방법으로 걸린 고리들을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도일군들은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자재를 탄광, 광산의 지하막장의 생산현장에까지 제때에 책임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탄광, 광산들에 필요한 착암기와 전차, 레루, 동선, 전동기, 동발, 세멘트와 같은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충분히 대주어야 하며 큰 기계설비뿐아니라 톱, 도끼와 같은 작은 공구들을 보장하는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지도일군들은 생산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세우며 모든 생산공정을 치밀하게 맞물리고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생산조직을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지질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며 운반을 다양화하는것은 채취공업을 앞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려면 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하고 예비탐사뿐만아니라 세부탐사, 작업탐사를 다 앞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59페지)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발전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법칙이며 석탄과 쇠돌을 비롯한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탐사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전망이 크고 조건이 좋은 큰 규모의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여 새로운 채굴후보지들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규모탄광들의 탐사도 실속있게 하여 더 많은 탄밭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광물탐사에 계속 힘을 넣으며 규모가 크고 전망성있는 대규모광산들을 더욱 확장하고 새로운 광물매장지를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탐사부문에서는 시추기를 비롯한 탐사설비들을 부단히 개선하며 선진적인 탐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지질탐사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와 함께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민들이 씨를 뿌리기전에 발갈이하는것처럼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발전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법칙이다.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기 위하여서는 당면한 생산에만 치우치는 현상이 없도록 하며 굴진과 채탄, 굴진과 채광의 설비, 로력, 자재, 자금의 투하비례를

5대5로 할데 대한 당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선진기술과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굴진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야 석탄과 광물을 다량채굴, 다량운반, 다량처리하여 그 생산을 급속히 늘일수 있으며 이 부문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채취공업부문일군들은 자체의 기계생산 및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탄광, 광산들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기계설비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야 한다.

채취공업을 앞세우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이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며 과학연구성과를 생산실천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채취공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탄광, 광산들을 더욱 개건확장하고 그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채취공업의 선차성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1978년 1월 1일, 8페지)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생산을 급속히 늘이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그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이미 건설된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그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투자를 적게 들이고도 짧은 기간에 석탄과 광물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특히 규모가 크고 전망성있는 탄광, 광산들에 힘을 집중하여 그 생산능력을 빨리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설비들의 점검보수를 규정대로 철저히 하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켜 채취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이 부문을 앞세워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기계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탄광, 광산들에 기계설비들과 강재, 세멘트, 동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들과 자재를 책임적으로 대주어야 채취공업이 앞서나갈수 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형자동차,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 대형권양기, 대형마광기를 비롯한 대형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책임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막장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삭도수송, 콘베아수송, 관수송의 3화수송방침을 관철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전문편차수송과 집중수송을 짜고들며 채취공업부문에 보내는 물동들을 책임적으로 날라다주어야 한다.

원료, 연료, 동력을 절약하는것은 현시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두가 원료, 연료, 동력을 절약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물자소비기준을 선진적인것으로 더욱 갱신하며 선진작업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있는 자재와 설비,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는 원료와 연료의 보관관리를 개

선하고 취급을 잘하여 한그람이라도 허실하지 말아야 한다.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점검보수하고 만부하로 돌림으로써 원료, 연료, 동력의 랑비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원료, 연료, 동력의 소비에 대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통제를 잘하여야 하며 랑비를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직장과 가두, 인민반에서 한키로그람의 석탄, 한키로와트시의 전력이라도 더 많이 절약하여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자기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건과 수단을 자체의 투쟁으로 마련해나가며 그 어떤 곤난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맞받아나가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그러한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질 때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언제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현시기 채취공업을 앞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맡겨진 과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채취공업부문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료, 연료 생산과 관련하여 주신 교시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 자각성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인공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여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는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뿐 아니라 채취공업의 발전을 저애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우리의 전진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채취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더욱더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하고 학습하고 또 학습하자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모두다 채취공업을 앞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첫해전투부터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유신》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정의의 애국투쟁

독고원식

오늘 남조선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야수적탄압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 조건에서도 놈들의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각계층인민들의 투쟁이 계속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등 각계층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초보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마저 말살하고 안팎으로 온갖 매국배족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극악한 사대매국노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파쑈독재에 대한 더이상 참을수 없는 항거의 표시로서 그것은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앙양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투쟁과 민주화운동을 더욱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으나 그것으로써 결코 인민대중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고 헤여날수 없는 곤경에 빠진 저들의 운명을 구원할수도 없다.

포악한 《유신》독재의 필연적산물

남조선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파쑈폭압과 분렬책동, 전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폭정의 필연적산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른바 〈10월유신〉이라는것을 날조한 다음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21페지)

《10월유신》을 통하여 모든 권력을 거머쥔 박정희괴뢰도당은 극도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통치를 악랄하게 감행하여나섰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체제는 현대제국주의의 악랄한 식민지테로통치의 전형으로서 부르죠아독재에 군사깡패들의 독재가 첨가된 포악하고 야수적인 군사파쑈독재이다. 그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추세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절절한 념원에 역행해나서면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에서 무너져가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1인장기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흉악한 파쑈체제이며 민족반역의 체제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이 더욱 높아가는데 당황망조하여 악명높은 《유신》체제를 꾸며놓은 이후 남조선전역을 완전한 중세기적암흑지대로, 제국주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철저히 전변시켜놓았다. 놈들은 테로와 인간살륙을 본업으로 하는 방대한 폭압기구를 꾸려놓고 력사상 류례없는 파쑈독재를 강화하는데로 나갔으며 온 남조선땅을 말 그대로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어놓았다.

수십만에 달하는 《요원》과 특무들을 망라한 악명높은 《중앙정보부》와 《륙군보안대사령부》, 헌병대, 경찰, 보조경찰 등 수많은 정보특무기관을 꾸며놓은 박정희괴뢰도당은 그것을 발동하여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살인폭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파쑈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대한 폭압기구를 늘이는것과 함께 전대미문의 살인악법들을 날조하여 인민대중의 손발을 얽어매놓고있다.

놈들은 총검의 위협밑에 범죄적인

《유신헌법》을 조작하여 《국회》도 정당도 《대통령》의 《시녀》로 만들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열망하는 애국적인민들을 질식시키는 극악무도한 폭압질서를 세워놓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집권이래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비롯한 5천여건의 파쑈악법을 꾸며내고 《유신》이후에만도 3,500여건에 달하는 악법들을 개악 또는 조작하여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는 가장 참혹한 인권유린지대로 전변되고말았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해도 령장없이 체포되고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감옥과 교수대로 가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깡그리 말살하고도 부족하여 나라의 영구분렬을 위한 천하에 용서할수 없는 범죄적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원래 박정희괴뢰도당이 《유신》체제를 꾸며낸 목적자체가 《실력》을 《배양》하여 우리와 《대결》하자는것이였으며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렬을 위한것이였다. 이것을 위해서 박정희괴뢰도당은 한편으로는 방대한 파쑈폭압기구와 각종 살인악법들을 휘둘러 광범한 근로대중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준비에 발광적으로 동원하고있는것이다.

《유신》체제의 분렬주의적진면모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파탄시키고 《두개조선》을 조작하려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남조선반동들은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란폭하게 짓밟고 대화를 파탄에로 몰아넣었으며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6.23특별성명》이라는것을 선포하고 영구분렬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해나섰다.

놈들은 그 무슨 《교차승인》이니, 《4자회담》이니, 《불가침조약》이니 하는 수다한 분렬타령을 하면서 범죄적인 《두개 조선》책동을 성사시켜보려고 발악하고있으며 지어 《통일보다 분렬이 낫다》고 하면서 《통일불가능론》과 《분렬유익설》까지 들고나오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분렬주의적책동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우리 인민의 통일념원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총력안보》와 《립전태세확립》의 구호밑에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거듭 개악되고 《민방위법》과 《학도호국단설치령》, 《방위세법》을 비롯한 각종 전시악법들이 조작되여 남조선의 모든것을 전쟁준비에 복종시키고있다.

《유신》파쑈독재하에서 보강되는것은 군사력이고 확장되는것은 군사련병장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헤여날수 없는 각종 군사비에 짓눌리여있으며 각종 군사, 반군사 조직에 얽매여 전쟁준비훈련에 들볶이우고있다. 오늘 남조선각처에서는 나어린 청소년들과 늙은이 지어 불구자들까지 군사훈련에 강제로 내몰리고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털끝만한 인간량심도 없는 박정희악당만이 감행할수 있는 범죄적책동인것이다.

실로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포악한 《유신》파쑈독재하에서 남조선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의 소굴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인권의 질식지대로 전변되고말았다.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모든 범죄행위는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감행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말로는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인권을 가장 혹독하게 말살하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을 각 방면으로 적극 부추겨주고

있는것이다.

오늘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곳은 바로 남조선이다. 민주주의란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는 남조선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남조선사회에서 근로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가지지 못하는것은 물론이고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다. 남조선에 《인권》이 있다면 박정희괴뢰도당을 비롯한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이 근로대중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여 저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리가 있을뿐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력사는 파쑈탄압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놈들이 파쑈독재를 강화할수록 더욱더 인민들의 항거에 부닥치게 되며 나중에는 멸망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에 군사파쑈독재가 세워진 첫날부터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왔으며 《유신》체제가 조작된 이후 그 엄혹한 조건에서도 중단함이 없이 놈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왔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인민들의 투쟁은 이러한 투쟁의 계속이며 그것이 더욱 심화발전되는 과정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당국자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0페지)

《유신》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1973년 10월 서울에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도화선으로 하여 벌어진 반《유신》투쟁은 그후 《100만명개헌서명운동》과 1974년의 4.3투쟁, 1975년의 언론인투쟁, 1976년 3월의 《민주구국선언문》발표 등을 거쳐 지난해에 와서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독재투쟁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초보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적자유도 바랄수 없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된데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인것이다.

최근년간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는 일련의 주목되는 특징들을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이 《유신》파쑈독재를 정면으로 반대배격하고 《유신》독재의 원흉 박정희괴뢰악당놈을 타도하기 위한 예리한 정치적구호를 제기하고 투쟁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생활을 통하여 《유신헌법》의 반동적본질을 더욱 깊이 체험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은 그것을 철폐하기 위한데 투쟁의 예봉을 집중시키고있다.

지난해 10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은 《박정희는 물러가라》, 《독재정권을 쓸어버리자》, 《유신체제를 철폐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파쑈무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또한 연마진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층인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포악한 《유신》체제를 철폐할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반《정부》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에서 박정희파쑈독재를 타도하는것은 현시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박정희피뢰악당놈을·타도하지 않고서는 《긴급조치》의 해제와 체포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의 즉시석방, 파쑈적인 《학도호국단》의 해체와 학원사찰의 중지 등 《유신》파쑈독재의 이여의 산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문제들이 해결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박정희피뢰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첨예한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시키고있는것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또한 원쑤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투쟁에서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점차 반독재련합전선을 형성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박정희피뢰도당의 《유신》파쑈독재를 타도하는데 다같이 절실한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뿐아니라 민주인사들과 지식인, 종교인, 민족자본가 등 어느 한 계급, 계층도 파쑈적인 《유신》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이로부터 반《유신》투쟁이 각계각층을 망라 하면서 더욱 대중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합법칙적인것이다.

그리하여 최근년간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각계층인민들사이의 련대적투쟁으로 발전하는 추세로 나가고있다.

1974년 9월 고려대학교 청년학생들이 구속자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에 일떠서자 이에 합세하여 다른 대학들에서는 물론 《민주회복국민회의》, 《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 등 30여개의 투쟁단체들과 언론기관, 교수들 그리고 도시빈민들과 지어 가정부인들까지 투쟁의 대렬에 합세하였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서울대학교 청년학생들이 벌린 대규모적인 반《정부》시위투쟁은 삽시에 각 대학 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그들은 《유신헌법, 긴급조치의 즉시철폐》를 요구하는 삐라를 뿌리면서 서울대학교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투쟁에 합세하였으며 박정희피뢰도당의 악랄한 파쑈폭압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근로대중의 투쟁에 대한 련대적운동도 강화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투쟁에 호응하여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근로자의 로동 3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지 말라》, 《농민들의 피땀을 정당하게 보상하며 농협을 민주화하라》, 《유신독재를 철폐하고 로동자, 농민 등 서민대중을 위한 정권을 수립하라》고 웨치면서 적극적인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한편 량심적인 종교인들과 민주인사들도 《로동자, 농어민 등 모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로동운동에 대한 모든 법적, 현실적 제약을 페지하라》 등의 구호를 제기하고 견결히 투쟁하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은 또한 전남조선지역적인 반독재련합전선을 형성하는데로 나가고있다.

1974년에 남조선인민들의 각계층대표들은 반독재공동투쟁조직으로서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고 그 활동을 넓혀나갔으며 청년학생들은 서울과 지방들에서 대학 호상간의 조직적련계를 강화한데 기초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을 결성하였으며 언론인들과 종교인들은 《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을 묶고 대중적인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 모든것은 박정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보다 조직화되고있으며 그 력량이 장성강화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반동들의 야수적탄압이 극도에 이른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투쟁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는것은 반동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반동들의 탄압이 심할수록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은 더욱 완강하여지기 마련이며 투쟁의 불길속에서 그들은 더욱 각성단련되고 혁명력량은 보다 강화되는 법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이 강화될 때마다 언제나 완강한 투쟁으로 맞섰으며 특히 그들의 투쟁은 《유신》파쑈독재의 가혹한 형벌의 위협속에서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몇해전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더욱 혹독하게 탄압하기 위하여 류례없는 폭압령인 《긴급조치》 9호까지 공포하고 모든 파쑈폭압수단들을 발동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여 남조선인민들과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들 속에서 새로운 항거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과 각계층인민들은 놈들이 파쑈탄압에 날뛰는 바로 그때에 《유신헌법철페》, 《박정희독재정권타도》를 높이 웨치면서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파쑈폭압의 광풍을 뚫고 벌린 이 과감한 투쟁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이 결코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있으며 포악한 《유신》독재를 불사르려는 그들의 결의가 더욱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한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의 추세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의로운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투쟁은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10페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민족의 사활적요구인 나라의 통일과 직접 련관되는 정의의 투쟁이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민족적념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유신》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남조선에서 유린된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되찾을수 있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간섭과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이다. 전체 조선인민의 사활적리익과 관련된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각계각층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그래야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정치적바탕이 마련될수 있다.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된다. 지금과 같이 남조선에서 《유신》파쑈독재가 실시되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조건에서는 인민들사이의 자유로운 의사가 교환될수 없고 각계각층 인민들이 통일운동에 마음놓고 참여할수도 없다.

남조선에서의 모든 사태발전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대화도, 민족의 대단결도, 나라의 통일을 위한 어느 한 문제도 결코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포악한 《유신》독재가 타도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야만 북과 남의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

들이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파쑈독재를 때려엎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곧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중요한 전제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오늘 광범한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국제적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파쑈독재가 조작된 첫날부터 그것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여온 해외동포들은 최근에 이르러 투쟁을 세계 여러 지역의 보다 광범한 해외동포들을 망라하는 조직적인 공동투쟁으로 확대해나가고있다.

얼마전에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있는 해외동포대표들은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해외동포추진위원회》와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을 결성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파쑈독재를 폭로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원할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해외동포들의 투쟁이 하나로 굳게 집결되고 통일성과 목적지향성을 띠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한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세계인민들로부터도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과 수많은 국제조직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이 모든 투쟁은 박정희괴뢰도당을 안팎으로 더욱더 고립시키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항상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깊은 관심속에 있으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 북반부인민들은 같은 혈육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폭압과 전쟁정책,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싸워야 하며 멸망의 위기에서 최후발악하고있는 놈들에게 련속 단호한 징벌을 안겨야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이 파쑈독재를 강화하여 인민들을 억누르고 제놈들의 추악한 잔명을 조금이라도 더 부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으나 그것으로써는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울분의 폭발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의로운 투쟁을 말살할수도 없는것이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길같이 일떠서서 계속 견결히 투쟁한다면 그 어떠한 파쑈독재의 아성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리고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조국통일을 위한 밑천을 튼튼히 마련해나갈 때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우리 인민의 력사적인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78년 제2호(루계430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8년 2월 1일 발 행 • 1978년 2월 5일

ㄱ—853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3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431)

차　례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다섯해가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3대혁명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3대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또다시 새롭게 가르쳐주시였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완수되고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던 시기에 발표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고전적로작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다그치는데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해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우리 당이 창건되여 새 사회 건설에 착수한 시기부터 견지하여온 일관한 혁명로선이며 공산주의혁명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방침이다.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로정은 3대혁명로선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로선이며 전략적방침이라는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힘차게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3대혁명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은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의 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혁명리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투적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하시여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하게 옳은 혁명로선이며 전략적방침이다.

그것은 3대혁명로선이 혁명의 어느 한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혁명발전의 전과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로선으로, 전략적방침으로 된다는데 있다.

3대혁명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로동계급의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국가정권을 무기로 하여 과거 사회의 반동적인 정치, 경제 제도를 철저히 청산하는 동시에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혁명을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경제, 문화 분야에서 온갖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만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특히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3대혁명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고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었기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이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보다 오래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64페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청산함으로써 사회발전에 넓은 길을 열어놓는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혁명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쌓는데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기초를 쌓은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당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는것을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되는것과 관련된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계급투쟁이 계속된다. 내부에서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이 계속되며 외부로부터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된다. 또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의연히 남아있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도 남아있으며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분야에서도 아직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없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해나가야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시작되지만 사회주의제도가 서기전에는 3대혁명과업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그것은 이 시기에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업이 전면에 나서기때문이다.

그러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는 혁명의 내용이 다르게 제기된다. 사회주의하에서 혁명의 기본과업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속하던 사회경제적근원은 영원히 청산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도 착취사회의 유물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 계속 남아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자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할뿐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실현하게 하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해나가는 성스러운 혁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8페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총적목표이며 총적과업이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이 완수되게 된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종국적으로 숨어버리고 공산주의적인것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는 과정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며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발전시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그리하여 인류가 한결같이 념원하는 공산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게 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3대혁명로선이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로동계급의 당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로선이며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방침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은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혁명적인민들에게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과거사회가 남기놓은 온갖 낡은 유물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참답게 건설할수 있는 고귀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3대혁명로선은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의 혁명의 길,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 있다.

3대혁명로선이 제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들은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는 리론실천적지침을 가지게 되었으며 명확한 전망과 투쟁목표를 가지고 공산주의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이 계속혁명의 과정이며 따라서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혁명의 기치, 투쟁의 기치를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위대한 혁명적진리를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에 관한 전혀 새로운 리론이 개척되게 되였다. 3대혁명리론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이후시기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발전풍부화시켰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완성하는데서 거대한 세계사적공헌으로 된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를 빛나게 구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힘있게 투쟁하여왔습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8페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매우 락후한 처지에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온갖 착취와 억압, 몽매만을 강요당하여왔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아무런 경제기술적기초도 없었으며 우리 인민은 현대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져있었다.

더우기 조국의 남쪽땅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민주주의제도를 전복하고 옛제도를 복귀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있었으며 우리의 경제문화건설을 백방으로 저해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하루빨리 부강하고 문명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애국적열성과 정치적각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경제와 문화를 빨리 발전시켜야 하였으며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걸어나가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나날에 무르익히시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정식화하신 독창적인 사상을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구현하시여 해방후에 벌써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에 의하여 부식된 낡은 사상잔재와 모든 타락적이고 퇴페적인 유습과 생활태도를 극복하고 근로자들속에서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민주조선의 정신과 풍모와 태도를 배양하는것을 사상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발기하시고 이끄신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사상의식개조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개조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 위대한 운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개조를 앞세우시면서 이와 함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지적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민족기술간부를 키우고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경제를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교육과 문학예술분야에서 일제사상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족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전체 인민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민족

간부를 많이 준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과업이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되고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은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사회주의혁명수행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심화발전시켜야만 사회주의적개조를 빨리 다그치고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면서 사회주의적인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적개조에 경리형태의 개조를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방침은 지난날 자본주의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였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시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가장 옳바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을 명시한 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은 사회주의혁명시기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변혁을 위하여 끊임없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사상리론활동과 그 행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전면에 제기하시고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렸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페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짐으로써 우리의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온갖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였다.

그러나 우리 근로자들이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자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전면적으로 밀고나가 그들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까지도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의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에 있어서 순차와 단계를 옳게 설정하시고 그에 상응하게 방향과 수행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에 몸소 천리마운동을 발기하시고 온 나라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으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그 총심과업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사상개조와 집단적혁신을 결합시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해나가도록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현실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며 3대혁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제기된 우리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몸소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더욱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전인민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높이에서 전진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영광찬란한 로정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시여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튼튼히 쌓아오신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심화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멀리 앞으로 달려왔다.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끝없이 높아졌으며 그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유일사상으로만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가 가장 순결하고 높은 수준의 사상의지의 결정체로 굳게 단합되였다.

바로 이 충성의 대오, 강철의 대오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승리의 길로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지난날 뒤떨어지고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업, 위력한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끝없이 륭성발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부강하고 문명한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그 어떤 세계적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나라의 방방곡곡에 수풀처럼 일떠선 공장과 시원스럽게 펼쳐진 사회주의협동벌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우리 근로자들은 참말로 흥겹고 보람차게 일하고있다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그 어디서나 사회주의적인 생활문화와 생산문화가 철저히 확립되여가고있으며 우리의 주체교육과 혁명적문학예술은 사회주의 교육과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과 오늘의 빛나는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의 길만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앞으

로 전진시키고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인류의 리상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기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 있다.

3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임무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8페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인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사람의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하는것만큼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커다란 예비도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확고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실천행동에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그들이 자기 혁명초소의 참다운 주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맡겨진 과업을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끝까지 완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사상교양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며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이는 새 전망계획의 어느 한 목표도 점령할수 없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맨주먹으로 《연길폭탄》과 무기를 만들어내던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지를 본받아 생산과 건설에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반제, 반수정주의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교활성, 수정주의의 해독성을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도록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있는것만큼 생활에서 사소한 안일과 해이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

들은 안일과 해이, 사치와 허례허식을 반대하고 모든 일을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해나가며 온 나라에 항일유격대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기술혁명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특히 새 7개년계획은 기술혁명의 계획이며 과학혁명의 계획이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깊이 자각하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이에서 벌려나가야 한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고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여 3대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 기준, 새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고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대담하게 창안제작하며 새로운 과학연구성과와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요구, 구체적실정과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기술발전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법적과제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가야 한다.

기술혁명수행에서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이 앞장서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3대기술혁명과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문화혁명은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감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고중졸업정도 나아가서 대학졸업정도의 일반지식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인민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오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요구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실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운동이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힘있게 밀고나가는 대중적진군운동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3대혁명소조들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공산주의자의 완강한 기백으로 끝까지 해제끼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참가하고있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새 전망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상, 기술, 문화의 세목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보다 큰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주체의 홰불로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준 력사적인 회의

—왕재산회의 45돐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4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 11일, 몸소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고 조국땅, 온성지구에로 진출하시여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소집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전반적조선혁명을 가일층 앙양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재산회의에서 높이 지펴올리신 혁명의 홰불은 일제의 파쑈적폭압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찬연한 서광을 안겨주고 조선혁명의 주인된 립장과 높은 책임감,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주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조선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그 불패의 생활력은 오늘도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숭고한 임무로부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만주일대의 광활한 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점차 력량을 축적하면서 앞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국경지대와 나아가서는 조선국내에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수 있는것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은 일제를 때려부시고 우리 조국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함으로써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이러한 목적은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적극 확대강화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야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을수 있고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적과업도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조직령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당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이후 한해동

안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전반적 조선혁명발전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조선인민의 첫 상비적혁명무력으로 창건된 항일유격대는 이 기간에 대오를 급속히 늘이고 무장적토대를 강화하였을뿐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력사적인 남만 및 북만에로의 진출과 유격근거지창설을 위한 간고하고도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단련되고 장성강화되였다.

또한 두만강연안일대의 넓은 지역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가 창설되고 무장투쟁의 불길이 넓은 지대에로 급속히 확대되여갔으며 국내인민들의 혁명적기세가 전례없이 높아졌다.

항일무장투쟁과 그 영향밑에 각성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급속히 강화된것은 조선을 대륙침략의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려고 미쳐날뛰던 일제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제침략자들은 1933년에 들어서면서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인 항일유격대와 유격근거지를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더욱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일제놈들은 보병, 기병, 포병, 공병들로써 《간도토벌대》를 조직하여 군사적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유격근거지를 고립봉쇄하고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또한 놈들은 항일유격대의 국내진출과 국내인민들속에 미치는 그의 혁명적영향을 막아보려고 국경경비진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의 반동공세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앞에 시련이 닥쳐왔던 이 시기에 혁명대렬에 끼여들었던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저마다 머리를 쳐들고 조선혁명을 말아먹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안팎의 원쑤들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적극 확대하며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것을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특히 조성된 정세로 하여금 국내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직접 받을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암담한 조국땅에 광복의 새봄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몸소 국내진출의 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헤치시고 온성지구에로 진출하시여 왕재산마루에서 이 일대의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과 국내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정치공작원들을 친히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형편과 혁명조직들의 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성된 정세와 항일무장투쟁개시후 한해동안에 이룩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원쑤들의 책동이 악랄하고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일무장투쟁을 반드시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며 항일무장투쟁의 근본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더 많이 창설하고 공고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국내에 반유격구를 많이 창설하고 공고화하는것은 결국 항일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할수 있는 튼튼한 정치군사적거점과 후방기지를 마련하는것으로 되며 국내에서 항일유격대오를 급속히 확대강화할수 있는 대중적지반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일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하여야 하며 무장투쟁과 함께 이에 광범한 대중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려면 혁명의 참모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당창건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확대발전시킴에 있어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행동강령이며 투쟁의 지침이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고 온 나라와 전체 인민을 항일혁명전쟁승리에로 힘있게 동원할수 있게 하는 투쟁의 기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는 무엇보다먼저 조선혁명수행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당시 우리 혁명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는 일제의 반혁명적공세와 더불어 종파사대주의자들,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우심해진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조선혁명에 대하여 그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이시기에 와서는 그 구호마저 내던지고 조선혁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나앉았을뿐아니라 다른 나라 혁명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면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의 실현을 각방으로 방해하여나섰다. 특히 이자들은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을 외곡하면서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만을 절대화하고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확대하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을 악랄하게 반대하였다.

한편 편협한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신성한 민족적임무인 조선혁명을 수행하는것을 반대하여나섰다. 이러한 사태에서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혁명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조선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매우 날카로운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에로의 진출과 왕재산회의는 실로 조선혁명을 주체의 기치밑에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온갖 원쑤들이 혁명을 압살하려고 그처럼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던 시기에 사선을 헤치시고 몸소 조국땅에 진출하시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오직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에게 맡겨진 가장 숭고한 임무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수행해나가는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응당한 권리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조선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또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적권위를 더욱 높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러받들면서 일제의 갖은 천대와 멸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조국광복의 그날을 손꼽아기다리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만 들어도 새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필승의 신념으로 가슴들먹이였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고있던 국내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는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땅에서 모시게 된 국내혁명가들의 감격은 비할데없이 컸으며 혁명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왕재산회의 이후 국내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이 제때에 침투되고 관철되였으며 정치공작원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을 해설선전함으로써 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따라 조국광복의 한길에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는 또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고 전반적조선혁명을 가일층 앙양시킴으로써 조국광복의 위업을 앞당기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유격대가 국내에로 진출함으로써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을 강요하고있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정치군사적타격을 줄수 있으며 국내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을 강하게 주고 그들이 반일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며 나아가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페지)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제시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은 주체의 기치밑에 가일층 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파견하신 국내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성원들은 주민들의 계급적구성이 좋고 혁명적각오정도가 높은 지역들에 점차 혁명조직들을 내오고 조직이 확대되는데 따라 유격대와의 직접적인 련계밑에 두만강연안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밀영과 비밀련락장소들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온성, 회령, 종성, 경원, 경흥, 부령 등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의 여러 지역에 혁명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졌고 왕재산과 무산군 가라지봉, 회령군 쪽새골을 비롯한 여러곳에 밀영과 비밀련락장소가 설치되였다.

북부조선일대에 수많이 조직된 지하혁명조직들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과 그와의 조직적련계밑에 국내인민들을 파업과 태업, 소작쟁의 등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또한

지하혁명조직들은 대중적인 반일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한편 항일유격대와 완진유격구에 군수품과 식량을 비롯한 물자들을 계통적으로 보내주며 적들의 정치군사적동태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유격대에 제공하는 사업을 힘차게 벌리였다.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지하혁명조직들과 각종 형태의 대중단체들이 나오고 항일무장투쟁의 기치밑에 대중운동이 앙양됨에 따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왕재산회의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설치된 반유격구들은 항일유격대와 유격근거지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 후방기지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유격활동을 보장하는 군사적거점으로, 혁명력량을 키워내며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는 보이지 않는 혁명의 보루로 되였다.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그후 전반적조선혁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다. 바로 이 귀중한 밑천이 있었음으로 하여 1930년대 후반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백두산혁명근거지의 창설과 보천보전투, 무산지구전투 등 대규모적인 국내진공작전이 이루어질수 있었고 당창건준비사업과 조국광복회운동을 전국적인 판도에서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으며 항일무장투쟁에 배합하는 전인민적항쟁이 세차게 일어날수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따라 가일층 발전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에서 천명된 전략전술적방침들에 관통하고있는 철저한 주체적립장과 탁월한 전략사상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하여 일떠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는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주견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혁명적립장과 태도를 실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는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피압박국가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투쟁에도 커다란 지지와 고무를 주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는 일제의 파쑈적폭압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찬연한 서광을 안겨주고 조선혁명을 주체의 기치밑에 더욱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 획기적계기였으며 일제의 멸망을 예고하는 력사의 준엄한 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국진출의 길에 오르시여 왕재산에서 광휘로운 주체의 빛발, 조국광복의 서광을 환히 비쳐주심으로써 조선혁명발전에서 길이 전할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재산에 성스러운 자욱을 남기시며 비쳐주신 혁명의 해불은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앞당겨수행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에게 오늘도 투쟁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오늘 혁명의 성지—왕재산혁명사적지를 찾고있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에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간고한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했던 혁명선렬들처럼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

리 수 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문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사회와 그 력사, 사회생활과 력사발전을 해명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원리적문제들에 새로운 주체적해답을 주고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참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과학적으로 천명하신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주체사상의 원리를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 주체의 사회력사관에 확고한 초석을 마련해준 탁월한 사상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시고 과학적으로 심오히 전개하심으로써 사회력사를 원리적으로 해명하는데서 튼튼히 의거해야 할 근본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사회력사령역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력사의 주체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력사발전의 근본요인, 사회발전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확립할수 있게 하시였다.

사회발전을 규정하는 근본요인, 력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운동이 벌어지게 하며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궁극적요인에 관한 문제는 사회력사를 과학적으로 리해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근본원리적문제이다. 사회력사관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원리적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주체에 관한 새로운 리론체계를 확립하심으로써 비로소 완벽한 과학적해명을 보게 되였다.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의 자주성과 창조성,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력사발전의 근본요인, 사회발전의 궁극적요인을 새롭게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됩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신바와 같이 력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다.

인류력사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창조적활동으로 자연을 정복하여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적재부를 축적하여온 력사이며 낡은 사회적관계를 뒤집어엎고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이룩해온 력사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의 력사이며 혁명투쟁의 력사이다.

인류력사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과정에

서 끊임없이 발전한다.

자연을 개조하며 사회를 변혁하는것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회성원들이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나뉘여지고 그들사이에 착취와 억압,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얽혀져있는 적대계급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력사를 발전시키는데서 꼭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것은 아니다.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 반동적인 착취계급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처지로 하여 사회의 발전을 요구하지 않을뿐아니라 남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며 사회의 혁명적변혁을 극력 반대한다. 따라서 반동적인 착취계급, 지배계급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될수 없으며 결코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다.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은 다름아닌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착취계급과는 반대로 자주성을 위한 사회혁명과 력사발전에 깊은 리해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력사의 주체로서 자주성을 위한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주인이다. 력사의 앞길을 개척하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모든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있는것은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력사발전을 추진하는 모든 사회적운동,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그들자신의 사업이라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되여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와 지향으로부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게 된다.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은 사회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가지게 되는 근본요구이며 지향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억눌리지 않고 존엄있게 살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여 행복한 물질생활을 누릴것을 념원한다. 그들은 또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갖추고 보람차고 문명하게 살것을 바란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생활에서 가지게 되는 이러한 요구와 지향은 그들의 자주성에서 흘러나오는것으로서 그것은 결국 자기 운명의 주인,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으로 살것을 바랄뿐아니라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창조적활동을 벌려나간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신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으로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해나간다. 력사는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였고 인류문명의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는 력사가 발전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페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교체하며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를 부단히 늘여나가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언제나 사회혁명의 기본동력으로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투쟁은 그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일떠서야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을 하자고 결심하고 영웅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서 승리하지 못한 혁명이란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여 투쟁에 일떠서기만 하면 그 어떤 반동들의 아성도 짓부실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제도와 질서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또한 자연을 개조하는 직접적담당자이며 경제문화발전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로동으로써 자연을 정복하여 생활수단을 창조하며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해나간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며 그에 기초하여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문학과 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떠나서는 사회적변혁과 물질문화적재부의 창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이 모든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것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이 력사의 참다운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는 휘황한 길을 명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것은 결코 그들이 저절로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그가 혁명의식으로 무장하고 낡은 사회의 상층부를 폭파하는 피어린 투쟁에 몸바쳐나설 때에만 참다운 혁명의 주력군이 될수 있고 사회발전의 힘있는 동력이 될수 있으며 새력사의 보람찬 창조자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31페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직적으로 굳게 뭉치는것은 그들이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고 사회발전의 힘있는 동력으로 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언제나 사회발전을 절실히 요구하며 력사를 발전시킬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지만 그들이 혁명투쟁에 자연발생적으로 인입되는것은 아니며 또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투쟁하게 되는것도 아니다. 혁명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깨닫지 못한 군중은 사실상 혁명과 건설에서 큰 역할을 할수 없으며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질 때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며 이 투쟁에서 창조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동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계급적으로 자각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계급적자각을 가질수 있고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류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대중이 조직되고 단결되는것은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은 무엇보다도먼저 정치투쟁입니다. 혁명의 승패는 먼저 정치적력량을 잘 꾸리는가 못꾸리는가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8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적력량을 얼마나 튼튼히 꾸리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힘은 그들이 어떤 조직에 결속되여있으며 그 정치적통일과 단결이 어느 정도 공고한가에 달려있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적인 조직에 튼튼히 결속되지 못하고 단결되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나서는 반동세력을 타승할수 없으며 력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조직적으로 굳게 단결된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결속되여야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사회적변혁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발전의 힘있는 동력으로 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된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혁명적조직을 창건하고 광범한 대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움으로써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조직적단결을 높은 수준에서 이룩한다.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두리에 굳게 뭉친 근로인민대중이라야 시대와 력사의 앞길을 줄기차게 개척해나가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됨으로써 주체시대의 앞장에 서서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영예로운 인민으로 되였으며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는것은 그들이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고 자기의 창조적위력을 가장 높이 발휘할수 있는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4페지)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력사적운동의 중심을 이루어왔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은 아니다.

착취사회에서 사회의 압도적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은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놀지 못한다.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지배계급의 종복의 역할을 하게 된것은 국가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신바와 같이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국가는 일정한 계급이 사회성원들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권력기관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국가주권을 틀어쥔 계급이 사회성원들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권한, 다시말하여 사회성원들을 지배하며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인것으로 하

여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게 된다. 국가주권을 틀어쥔 계급이라야 사회생활에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그 권력에 의거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장악하고 경제생활에서도 주인의 지위를 확보할수 있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게 될 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낡은 사회의 상층부를 폭파하는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 와서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주권을 틀어쥠으로써 그에 의거하여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남김없이 발양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밝히신 력사의 주체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력사관의 완성에 불멸의 공헌을 한 창조적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력사의 주체에 관한 독창적인 해명이 주어짐으로써 무엇보다도 사회발전의 기초와 그 본질적내용에 대한 새로운 주체적리해가 이루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할뿐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페지)

사회발전에서 근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더욱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그들이 더욱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는 조건에서만 력사의 전진이 이루어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져 자주적의식을 가지게 되고 창조적능력을 갖추게 되여야 그들은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발전되게 되며 력사적운동에서 그들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이 높아지고 력사를 발전시키는 사회적운동에서 그들의 역할이 높아지는것은 사회발전의 기초로 된다. 사회의 발전은 언제나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의 강화발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자연과 사회의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려는 사상의식이 발전하고 그 실현을 담보하는 창조적능력이 강화되여야 낡은 사회질서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질수 있으며 자연개조사업이 심화발전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는것은 사회발전의 기초로 되는 동시에 그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자주적인 지위와 역할을 떠나서 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얼마나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고 자주성에 대한 요구와 지향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된다. 력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는 사회의 면모와 그 발

전수준은 당대사회에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높이와 창조적능력의 크기에 상응하게 이루어지며 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가 높아지고 창조적역할이 더 잘 발양되는 사회일수록 발전된 사회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주체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또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발전의 합법칙적방향과 상승적과정을 새롭게 리해할수 있는 과학리론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뜻대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력사를 창조하는 주인인 인민들이 념원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12페지)

인류사회가 전진하는 합법칙적방향은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념원, 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가 발전해온 력사적과정은 총체적으로 볼 때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와 창조적역할이 높아져온 과정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제도의 교체과정에서 새로 출현한 착취제도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그대로 구현하여 생겨났다거나 또 일정한 력사적단계에서 제기한 인민대중의 요구가 제대로 해결되면서 사회가 발전해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력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매우 복잡한 로정을 걸어왔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와 창조적역할이 점차 높아지면서도 사회주의사회에 이르기전까지에는 자주성에 대한 그들의 지향과는 어긋나게 착취제도가 생겨났다. 사회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진하게 되는것은 각이한 리해관계와 지향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호상작용, 인민대중과 반동계급의 투쟁속에서 력사가 발전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이 념원하고 행동하는 방향은 력사의 전과정을 관통하고있는 합법칙적방향이다. 사회는 일관하게 인민대중의 념원,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가 실현되여 그들의 자주적지위와 창조적역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여왔다.

사회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인류력사의 발전과정은 사회제도가 교체되는 과정이였으며 인류사회가 거쳐온 매 력사적단계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이루어진것이였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과제를 력사의 일정에 제기하며 자주적권리를 위한 당면한 요구를 내세우고 투쟁한다. 따라서 사회발전의 력사적단계는 당대 인민대중의 자주적의식의 높이와 창조적힘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 한계를 결코 벗어날수 없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높이 체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착취사회의 마지막아성인 자본주의제도가 뒤집어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짐으로써 마침내 온갖 형태의 사회적예속, 착취와 압박이 종식되고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력사, 인류의 참다운 력사가 시작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가 일색화되여가는 방향으로 상승발전한다.

착취사회, 적대적계급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같은 목적과 지향을 가지게 된다. 자주성을 위한 이 공통된 목적과 지향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일반화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집중적으로 체현

되고 최고의 높이에서 집대성된다. 다시말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은 수령의 혁명사상에서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완벽하게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아무런 편향도 없이 공산주의에로 나갈수 있으며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자기들의 념원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되여가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력사의 주체와 사회발전의 동력에 관한 리론이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와 력사를 과학적으로 리해할수 있는 열쇠를 마련해준 참으로 탁월한 사상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력사의 주체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해명은 사회력사관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와 사회발전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해명해주심으로써 사회력사관의 근본원리들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리론이 새롭게 밝혀지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사회에 대해서뿐아니라 인류사회가 지나온 전력사적과정에 대해서도 가장 과학적인 리해를 가질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필승불패의 힘있는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력사의 주체와 사회발전의 동력에 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전략전술을 옳게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력사의 주체와 사회발전의 동력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의 모든 로선과 전략전술작성에서 출발점으로 되는 원칙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사회력사관의 근본원리들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심으로써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고찰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력사의 주체에 관한 심오한 원리를 더욱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정권기관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야 한다

최 창 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과 올해 신년사에서 정권기관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듣고 모든 사업을 그들의 리익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인민정권의 영예로운 사명과 정권기관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언제나 명심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주체적인 군중관점에 기초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며 대중지도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준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발전한다. 인민대중의 역할을 떠나서 사회적운동이 진행될수 없으며 인류력사가 발전할수 없다.

모든 혁명투쟁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알고 인민대중의 힘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사업방법이며 그들이 언제나 견지해야 할 활동방식이다.

정권기관일군들이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일하는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가지는것은 우리 인민정권의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영예로운 사명입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아야 하며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10~11페지)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인민정권기관은 결코 인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하는 로동계급의 진정한 인민정권이다. 이것은 주체형의 혁명정권으로서의 우리 인민정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된다.

인민정권의 이러한 사명과 특성으로부터 우리 인민정권기관들의 모든 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난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인민정권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옳게 수행하자면 정권기관일군들이 반드시 군중속에 들어가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된 인민의 대표인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절대로 인민우에 올라앉아 명령하고 호

령하는 관료가 될수 없으며 군중과 동떨어져사는 특수한 존재가 될수 없다.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주관주의적으로 사업하는것은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사업태도가 아니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끓는 생산현장에 들어가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고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잘 알수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일군들이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한덩어리가 되여 일하여야만 대중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원래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귀담아듣고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것은 인민정권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최고원칙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3페지)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최고원칙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이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인민정권의 모든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데서 근본문제이다. 따라서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알고 그를 실현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여야 한다. 인민의 참된 충복인 인민정권의 모든 정책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떠나서 옳게 세워질수 없으며 정확히 관철될수 없다.

인민정권이 가장 정확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인민정권의 활동원칙은 모든 정권기관 일군들에게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일할것을 요구한다.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것은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이며 활동방식이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반드시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군중과 충분히 의논한 기초우에서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려야만 모든 사업을 인민의 리익에 맞게 조직하고 집행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은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일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페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전례없이 높은 목표와 빠른 속도를 예견하는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이룩하여야 할 보람찬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높일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제2차7개년계획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생산을 지금보다 배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진행되는 웅대한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은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

러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온갖 내부예비를 찾아내고 증산, 절약 투쟁의 불길을 높여 있는 로력과 있는 밑천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으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 바로 여기에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기본열쇠가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　　　　　*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의 충복,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는것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으며 나라의 정세는 대단히 좋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정권기관일군들은 새로운 현실이 요구하는대로 언제나 군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혁명적일본새를 가짐으로써 인민들의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살며 일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3~24페지)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는것은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며 자신을 인민을 위한 참된 일군으로 준비하는데서 첫째가는 조건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관점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올바로 설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사람에 대한 옳은 관점을 확립하고 그들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은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절대적인 신념으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주체사상을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일해나감으로써 언제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주며 인민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쳐주며 인민들을 교양하여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모든 사업을 그들의 리익에 맞게 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은 주체적인 군중관점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3페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는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인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따라서 일군들이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사업하는것은 주체적인 군중관점에 기초하여 사업 방법과 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일군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 군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여주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일군들의 근본사업방법이다.

일군들은 언제나 생산현장에 내려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대중속에 꾸준히 해설하고 설복함으로써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써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실천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강조해가지고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지난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이 항상 대오의 앞장에 서서 돌격로를 열어제낀 그 모범을 본받아 새벽공기도 남먼저 마시며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어깨를 들이미는 이신작칙의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작풍에서 편협하거나 융졸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으로 대중을 따뜻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된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인민정권기관사업에서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인민정권기관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다.

인민정권기관사업에서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야만 정권기관들이 인민들의 리익을 적극 옹호할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관료주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으로서 인민의 충복인 인민정권기관사업에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더우기 국가권력을 가지고 사업하는 우리 정권기관일군들에게 있어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사업과 생활에서 관료주의의 조그마한 표현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그들이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일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자기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앨수 없으며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지

니 무거운 책임을 다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4페지)

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수준을 소유하여야만 현실속에 들어가 대중을 옳게 교양하고 조직동원할수 있다.

일군들이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당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수준이 어리면 군중속에 들어가 지도를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세울수 없으며 낡은 사업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다.

지도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은 많은 경우에 일군들의 수준이 높지 못한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오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는 일군들의 수준을 한계단 높일것을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경험주의와 주먹구구식 사업태도로는 현대적과학기술에 토대하여 발전하는 인민경제를 옳게 운영할수 없다.

일군들이 경제지식이 없고 기술을 모르면 경제문제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질수 없으며 생산자대중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없다. 일군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있어야 아래의 구체적조건과 생산의 특성에 맞게 산 지도를 할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실속있게 풀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아득바득 공부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경제관리운영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더욱 폭넓게 소유하여야 하며 자기 사업에 더욱 정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는 오늘 정권기관일군들앞에 지워진 책임과 임무는 매우 크고 무겁다.

우리는 사소한 안일과 해이, 사치와 허례허식을 반대하고 언제나 긴장하게 살며 일해야 하며 혁명적정열을 가지고 모든 일을 전투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인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열밤을 새우더라도 해내고야마는 강의한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참다운 삶의 보람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 있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살며 일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우월한 교육방법

류 금 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의 합법칙적과정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문제에 전면적이고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방법론을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하시고 완성하시였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사상은 후대교육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새세대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드팀없이 키워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의 교육방법론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비할바없이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야 할것이다.

1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양은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있는 모든 단위에서 진행된다.

사람들은 사회적관계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관계를 맺고있는 모든 령역,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영향을 받는다. 이로부터 학교교육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온 사회에 훌륭한 교육적환경을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미칠수 있는 모든 교육교양적영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은 교육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을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교육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교육적영향을 주는 모든곳에서 학생들을 옳바로 교육교양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31페지)

후대들이 교육을 받아 사회적인간으로 준비되는 시기에 그들은 교원과의 관계뿐아니라 부모형제들, 사회성원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며 이로부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호상관계문제, 그 결합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한다는것은 후대교육에서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교육을 통일적으로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학교와 사회, 가정이 다같이 후대교육의 주인으로 되여 교육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립

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워나간다는것을 말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는것은 인간개조의 본질과 특성에 맞는 우월한 교육방법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 인간개조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공산주의적 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변화발전은 수많은 복잡한 요인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꾸준한 교육교양과 실천투쟁을 통한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공고발전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어떤 영향과 교육교양을 받는가 하는데 따라 좋게 변할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수도 있다.

물론 사람들은 사회의 주인으로서 생활환경을 지배하고 개조하지만 생활환경은 일정한 사회적조건에서 살며 활동하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변화발전에 영향을 준다. 특히 세계관형성의 기초가 닦아지는 시기에 사람들은 생활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돈과 권세가 판을 치며 생활이 극도로 부패타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런 환경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의 사상의식발전, 세계관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 된다.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 그 공고발전에 긍정적영향을 주는 사회적환경, 건전하고 혁명적인 교육환경은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충분히 마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모든 사회적환경은 교육적이며 사람들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꾸려지며 건전하고 혁명적인것으로 일관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긍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충분한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개조사업, 사람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기관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주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세계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환경을 옳게 조성하여 그들에게 끊임없는 혁명적영향을 주는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더욱 보충해주며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 잘 준비시키고 다방면적인 지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후대들의 교육교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단위, 모든 고리들에서 교육교양을 통일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여러가지 사회교양시설들과 선전교양수단들을 잘 리용하고 사회성원들을 후대교육사업에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사상은 이처럼 인간개조의 특성과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 세계관형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명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서 인간개조의 수단들과 사회주의교육의 모든 공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후대들을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내는 참다운 길을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우월한 교육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우와 같은 문헌, 31~32페지)

후대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진보,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책임

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전문적인 학교교육기관이나 아들딸을 가진 부모들뿐아니라 온 사회가 관심을 돌려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전사회적, 전인민적 사업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나 교육사업이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옳게 결합되여 통일적과정으로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밀접한 결합은 후대교육에서 가정, 학교, 사회가 공통된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통일적인 보조를 취할수 있는 사회계급적기초와 현실적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착취계급과 피착취근로대중사이의 계급적대립과 적대적모순이 있고 개인리기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학교와 사회, 가정이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질수 없으며 따라서 후대교육에서도 학교와 사회가 통일적인 보조와 련계를 취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식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은 자본가계급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과 모순되며 지배계급이 실시하는 반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여지없이 유린말살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옳은 결합을 실현할수 있는 사회계급적기초와 현실적가능성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확고히 담보된다.

근로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고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후대교육에 대하여 학교와 사회가 공통된 지향과 리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목적은 다같이 후대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려는데 있다.

후대교육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목적과 리해관계에서의 공통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과 사회계급적기초로, 현실적가능성으로, 교육사업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이러한 객관적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로동계급의 현명한 수령에 의하여 그 결합을 잘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그 실현을 보장할수 있는 교육제도와 준비된 교육력량과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과학적학설인 사회주의교육학을 창시하시여 후대교육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할수 있는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누구나 다 공부할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가 마련되고 후대교육을 위한 제반 인민적시책이 실시되고있으며 후대교육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강력한 력량과 튼튼한 토대가 닦아졌고 훌륭한 교육환경과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밀접히 결합되여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으며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성스러운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은 참으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 특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한것으로서 사회주의교육의 특성과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위대한 교육사상이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는것을 후대교육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회주의교육방법으로 제시하시면서 그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옳게 결합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의 결정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32페지)

학교교육의 결정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옳게 결합하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데서 기본은 학교교육이다.

학교교육은 다른 형태의 교육에 비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성을 띤 목적의식적인 교육이다. 학교교육은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워낼수 있는 교육강령과 교육학적과정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일군에 의하여 교육사업이 진행된다.

이것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데서 학교교육이 기본으로 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직접 맡고있는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학교가 후대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자기의 교육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학교교육만으로는 후대교육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

사회교육은 사회조직과 사회교양기관들을 통한 교육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은 전체 사회성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현대적인 사회교양시설들과 힘있는 선전교양수단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속에 과학기술지식과 문학예술지식, 체육기술을 보급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그리하여 학교교육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여주며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충하여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학교교육의 결정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학교교육본위》로 나가거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분리시키는 온갖 그릇된 편향을 미리 막고 학교와 사회가 잘 짜고들어 모든 학생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교양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여러가지 사회교양시설들과 선전교양수단들을 잘 리용하는것을 학생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교양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회교양시설들과 선전교양수단들을 잘 리용하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3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로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선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교양

시설들은 학생교양의 믿음직한 기지이며 과외생활의 튼튼한 거점이다.

학교교육의 질적수준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과외생활에 대한 청소년학생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사회교양시설들을 더 많이, 더 잘 꾸리고 사회교양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세대들에게 보다 훌륭한 교육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지방마다에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교양시설들을 더 많이 꾸리고 잘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사회교양기관일군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믿음직한 방조자, 학생과외생활의 직접적인 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정치시사강연, 과학토론회, 발표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여러가지 소조활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정서와 취미, 희망과 소질에 따라 여러가지 과외활동에 활발히 참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일떠선 사회교양시설들이 모두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훌륭한 배움터로, 신심단련의 활무대로, 혁명적 기상과 랑만이 나래치는 행복의 요람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교와 사회교양기관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며 교원들과 사회교양일군들이 긴밀히 협조하는것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옳게 결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학교와 사회교양기관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고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일군들이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학생교육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고 교육교양사업의 효과를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은 모두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학교와 사회교양기관들사이의 공동보조가 옳게 취해지지 못하고 긴밀한 련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교육에서 빈틈이 생기고 청소년들의 수준과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육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수 없게 된다.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일군들은 학생교육문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토론하며 청소년교육교양에서 얻은 훌륭한 경험들을 진지하게 나누어야 한다.

교원들은 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여러 사회교양기관일군들과 일상적인 련계를 강화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과외교양과 과외생활지도에서 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회교양기관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이 목적의식적인 교양과정이 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되도록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교양기관일군들은 학생들에 대한 모든 교육교양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조직함으로써 그것이 학교교육사업에 힘을 주고 보탬을 줄뿐아니라 교실에서는 얻을수 없는 보다 생동하고 다방면적인 풍부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키워주는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33페지)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가정교육은 사회교육의 한 형태이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육친적 보호자일뿐아니라 그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담당자이다.

부모들자신이 교육교양자로서의 풍모

와 자질을 갖추고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며 가정안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학생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근로자들과 학부형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사상도덕적풍모를 갖추며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정치생활과 사회주의건설에 모범적으로 참가하며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고 례절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한마디한마디의 말과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아들딸들에게 교양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환경을 혁명적으로 꾸리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조건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것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것만큼 사회적환경을 혁명적으로 꾸리고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은 후대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교양부문일군들은 학생들에게 교육교양적가치가 있는 훌륭한 선전교양자료들과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며 우리의 방송, 출판물, 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것으로 일관시키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듣는 모든것이 다 교육이 되고 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후대교육사업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영예롭고 책임적인 사업이며 학교와 사회가 짜고들며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일군들, 학부형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협조하여야만 성과를 거둘수 있는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방침을 널리 해설침투하여 근로자들속에서 후대교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학교와 사회교양기관들이 학생교육에서 배합작전을 짜고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교육사업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후대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모든 새세대들을 참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낼수 있는 길이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른바 《사회로부터 학교의 독립》과 《학교교육본위》를 떠들면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분리시키고 학생들을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쓸모없는 《글뒤주》로, 기형적인 인간으로 만들려는 온갖 부르죠아적, 기회주의적 리론과 시도들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주체의 혁명적교육리론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사상을 후대교육의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무기로 힘있게 틀어쥐게 됨으로써 학교와 사회, 교육일군들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이 주인이 되여 후대교육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히신 탁월한 사상과 리론, 혁명적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내는 중대하고도 영예로운 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실현을 더욱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정치성과 인간성을 옳게 결합하여 그리는 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

김 하 명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며 혁명적교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미학적과제의 하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모범으로 되는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인간학의 기본이 성격을 창조하여 사람들의 본보기를 내세우는데 있다는것을 밝히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을 공산주의적인간학의 기본요구로 내세우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있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참된 전형을 창조하여야 그 생동한 모범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줄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자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그의 성격적특성으로 되는 정치성과 인간성을 생활적형상으로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에서 정치성과 인간성을 옳게 결합하여 그리는것은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로 되며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여 그의 교양적기능을 강화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 *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에서 정치성과 인간성을 결합하여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은 그들의 성격적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는 정치성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인간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혁명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하여 주인공들의 정치성만 강조하여서는 안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461페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누구나 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는 전위투사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인간의 본보기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혁명가는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여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에 선차적관심을 가지게 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생활을 개척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억세게 싸우는것이다.

정치성은 바로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규정하는 가장 주요한 징표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혁명가는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위하고 목숨으로 사수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불굴의 투사들이다. 그들은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않으며 정치적생명을 위하여서는 육체적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높은 정치성을 지니고있을뿐아니라 풍부한 인간성을 가지고있다.

인간성은 공산주의혁명가에게 있어서 또하나의 중요한 품성이다.

인간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일반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과 같이 아파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애쓰는 공산주의자에게 고유한 성격적특성이다. 그것은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인간성은 이와 같은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인간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계급적본성으로 하고있는 지주, 자본가계급에게는 있을수 없다. 그들이 떠벌이는 《박애》나 몇푼의 돈부스레기를 던져 펼쳐놓는 《자선》사업이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흉악한 착취자, 략탈자로서의 제놈들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가면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정치성과 인간성은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공산주의자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투사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혁명의 앞길을 막아나서는 모든 낡고 뒤떨어진것,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할뿐아니라 공산주의미래와 잇닿아있는 모든 새롭고 진보적인것,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은 높은 정치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모범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그 길에서 해방된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굴함없이 싸웠으며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기초하여 혁명동지들과 인민대중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높이 발양하였다.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에서 정치성과 함께 인간성을 뚜렷이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은 또한 철두철미 혁명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며 그의 인간학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미학적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인공들의 정치성만 강조하면 작품의 예술성이 낮아질수 있으며 반대로 주인공들의 인간성을 너무 강조하면 작품의 사상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의 정치성과 인간성을 옳게 결합하여 잘 그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좋은 영화가 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461페지)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준바와 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이다.

인류의 모든 진보적문학예술은 그 본성에 있어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인간과 인간생활을 형상적으로 묘사하면서 해당 력사적시대에 절실하게 나서고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해답을

줄것을 지향하였다. 그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제기된 문제의 사회적의의가 얼마나 크며 그 해답이 얼마나 옳은가에 의하여 그리고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진실성의 깊이에 의하여 규정되였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그 어떠한 사조나 류파의 문학예술도 그 작가들의 세계관과 시대의 력사적제한성으로 하여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아름다움을 옳게 밝힐수 없었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없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창작에서 우리 시대의 인간문제를 옳게 제기하고 옳바른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새시대의 인간전형,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력사의 참다운 창조자로 등장한 주체시대에 와서 문학예술은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가 선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성격창조를 통하여 이에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실로 오늘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작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중심에 내세우고 그의 성격적특성을 뚜렷이 그려내는것은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으로 되며 그의 성격적특성으로 되는 정치성과 인간성을 옳게 결합하여 그리는것은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작품의 교양적기능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자의 고유한 성격적특성으로 되는 정치성과 인간성을 옳게 결합하여 진실하게 그려야만 사람의 정치적생명에 관한 문제를 내세우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지키고 빛내여나가는가 하는 참다운 본보기를 보여줄수 있기때문이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위대성은 곧 사람이 지니고있는 사상의 위대성이다. 사람은 바로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 까닭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며 세계의 모든것을 결정하는 주인의 역할을 할수 있는것이다.

참된 인간의 전형으로 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상을 지니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투사들인것만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의 위대성이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최상의 높이에서 발양된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에서 김형권동지를 비롯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 성원들의 형상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양육성하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첫세대가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의 전형들이다. 이 형상들의 성격적특성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 불굴의 혁명적의지, 조국의 광복과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다. 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기에 백전불굴의 혁명정신과 함께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목숨바쳐 끝까지 싸우는것이다.

영화는 일제침략자들의 총검도 두려움없이 맞받아나가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가혹한 고문도 굿굿이 이겨내면서 일제침략자들과 변절자들을 준렬히 단죄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토로하는데서, 혁명동지를

그의 애인과 만나게 해주려고 그처럼 세심한 관심을 돌리는데서 투사들의 끝없이 높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펼쳐보여주고있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생동한 모범을 보여준다.

공산주의자를 화폭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의 정치성과 인간성을 옳게 결합하여 그리는것이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작품에서 생활을 다면적으로 풍부하게 묘사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산 인간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생활적으로 안겨오도록 그리는것은 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산 인간의 형상을 볼수 없다면 그것은 문예작품이라고 말할수 없다.

문학예술창작에서는 인간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며 생활을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주제사상적과제도 예술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혁명적인 영화를 창작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생활을 옳게 형상하는것입니다. 생활을 풍부하게, 깊이있게 형상한 영화라야 실감이 있으며 교양적가치도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57페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구체적인 사상감정을 가지고 행동과 생활에서 고유한 개성적특성을 나타낸다. 그들의 생활과 투쟁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사상의식은 더욱 공고발전한다. 특히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공산주의자의 활동은 더욱더 다방면적이며 그들의 정신세계는 비할데 없이 고상하고 깊다.

사실주의예술에서 인물들을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그렇게 구체적이며 생동하게 그려내자면 그들의 정치적신념이나 강의한 의지만이 아니라 인간성이 발현되는 생활과 정신세계를 여러모로 깊이있게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라야 작품이 진실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예술적감흥을 자아낼수 있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이 그처럼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동시키는것은 주인공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불굴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것과 함께 다정다감한 인간적풍모를 생활적으로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려낸것과 관련되여있다. 이 작품은 첫 장면에서부터 마지막장면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인간학적요구를 빛나게 실현한 모범이다.

우리가 영화의 첫 장면에서 보게 되는 안도집에서 강반석어머님과 김형권동지사이에 진행되는 대화는 참으로 인간적정서가 뜨겁게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고상한 투사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의 하나이다.

영예롭고도 어려운 혁명임무를 맡고 국내로 떠나게 된 시동생을 위하여 밤깊도록 바느질을 재우쳐가시는 강반석어머님, 어린 시절부터 아주머님의 따뜻한 손으로 지어주신 옷을 입으시며 투사로 자라나신 김형권동지, 이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리별을 앞둔 시각에 두분께서는 시련에 찬 지난날을 회고하시며 가슴에 사무치는 뜨거운 정이 담긴 이야기를 나누시는것이다.

그 이야기들은 참으로 생활적이면서 깊은 뜻을 가지고있으며 이야기임자들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성격을 부각시키며 예술적으로 뒤에 전개되는 사건들과 내적련계를 지어주고있다. 우리는 길지 않은 대화에서도 위대한 어머님의 웅심깊은 혁명가적풍모를 보며 대를 이어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워오시는 위대한 혁명가정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생활적으로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성과 인간성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인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그 생동한 모범으로써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할것인가를 가르쳐줄수 있으며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 *

오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나라의 벅찬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며 혁명적교양의 기능을 더한층 강화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시대와 혁명실천이 문학예술앞에 제기하고있는 이러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창작에서 인간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중심에 내세우고 새시대의 주인공인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정치성과 인간성을 옳게 결합하여 그릴데 대한 인간학적요구를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불멸의 주체적문예리론은 형상창조에서 정치성과 인간성을 옳게 결합하여 그리기 위한 미학적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정치성과 인간성이 결합된 공산주의혁명가의 성격적특성을 뚜렷이 드러내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하며 그 생활과정에 드러나는 사상감정을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는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되고 혁명투쟁에 나서게 되는가, 어떻게 난관을 뚫고 싸워나가는가 하는 혁명가의 내면세계와 고결한 풍모를 보여주어야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할수 있지 그저 고난의 행군이나 전투장면 같은것만 지루하게 늘어놓아서는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82~383페지)

주인공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서 그가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혁명가로 자라나는 사상의식의 발전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생활의 우여곡절을 따라가면서 그 과정에 착취사회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며 낡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를 뒤집어엎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되는 혁명적세계관의 형성발전모습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사람들에 대한 혁명적교양의 참다운 교과서로 될수 있다.

오늘 사회계급적처지와 생활경력이 서로 다른 각계각층 사람들이 혁명적교양과 실천을 통하여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워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백절불굴의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있지만 결국 정치성과 인간성이 결합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인간의 내면세계, 바로 그가 지니고 있는 리상과 지향, 주위세계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현실에서 보는 투사들의 사상정신적풍모 그대로의 산 인간을 형상하며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주인공들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

에서 나타내는 사상감정세계를 구체적으로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리야 사람들에게 본받을수 있는 생활의 진리를 안겨줄수 있으며 그의 비반복적인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살려 기름진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사람들이 주위세계에서 벌어지는 사회정치적사건들과 다양한 사물현상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개성과 인간적풍모를 뚜렷이 드러내며 사상정신적으로 성장하여가듯이 문학예술작품에서도 현실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그려내야 독자, 관중들로 하여금 후더운 예술적감흥을 가지고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하게 할수 있다. 창작에서 산 인간의 사상감정세계를 생동하게 그리지 못하고 생경한 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나가게 되면 문예작품으로서는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며 그의 성격적특성을 뚜렷이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의 생활을 여러모로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성격창조와 생활묘사는 서로 밀접하게 련관되여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생활을 깊이 파야만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다. 생활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생활과 밀착되지 않은 심리나 감정은 그자체로서는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하여도 진실감을 주지 못하며 예술적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문예작품에서는 인간성에 대하여서는 말한것도 없고 정치성도 어디까지나 주인공들의 생활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종자의 요구에 맞게 시대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인 생활을 탐구하여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려야 한다. 전투행동이나 생산활동을 그리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세계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가의 생활은 투쟁으로 시작되여 투쟁으로 끝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는 법이다. 혁명가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과 투쟁 속에서 백절불굴의 강의한 의지를 키우며 고상하고 아름다운 공산주의적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나가는것이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한 기초우에서 현실속에 들어가 좋은 종자를 골라쥐고 종자의 요구에 맞게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야 하며, 화폭의 중심에 생활과 투쟁의 모범으로 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굳건히 세워놓고 풍부하고 생동한 생활묘사를 통하여 정치성과 인간성이 옳게 결합된 그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내보여주어야 한다.

⁂ ⁂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활짝 꽃피여난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한길우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들은 그 장엄한 투쟁과 보람찬 생활과정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높은 정치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자라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형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적교양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올해에 또다시 만풍년을 안아오자

서 관 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1월에 진행된 전국농업대회에서 지난해 농업전선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주체농법의 자랑찬 승리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올해에 또다시 농업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는 우리 농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빨리 실현하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더 큰 비약을 이룩하며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며 우리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투쟁의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받아안은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지금 승리자의 커다란 자부심과 앞날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올해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 알곡 880만톤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며 하루빨리 1,000만톤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 우리 나라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이른봄부터 매우 불리한 날씨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전당, 전민, 전군이 떨쳐나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850만톤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습니다.》 (《신년사》, 1978년 1월 1일, 4페지)

지난해 우리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달성한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나라에서 지난해에 보기 드문 력사적인 대풍작을 이룩하여 85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미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련이어 해마다 농업생산의 높은 장성을 가져오고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전에 없었던 이상기후현상이 혹심하게 나타나 농사짓는데 극히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덕스러운 기후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또다시 우리 나라 농업발전력사에서 가장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벼 정당수확고는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높은 수준을 릉가하였으며 강냉이농사도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거의 따라서게 되였다.

알곡생산뿐아니라 남새와 공예작물, 축산과 과수, 잠업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전에 비할바없이 큰 진진이 이룩되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과 지하수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영웅적로동계급과 농민, 군인, 사무원, 학생들은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7만 5,000여개의 우물과 9,900여개의 굴포를 파고 6,200여개의 졸짱을 박아 무려 20여만정보의 발관개를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수리화체계는 더욱 완비되였으며 그 어떤 혹심한 한랭전선의 영향도 이겨내고 해마다 대풍을 이룩할수 있는 공고한 농업생산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지난해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였으며 그들의 전반적인 기술, 문화 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뒤떨어진 영농방법과 경험주의, 교조주의를 타파하고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켰으며 벼랭상모와 강냉이영양단지에 의한 튼튼한 모기르기와 포기농사방법, 과학적인 비료치기 등 모든 농사일을 철저히 과학기술적으로 알뜰하고 실속있게 하였다.

로동계급과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에 현대적농기계들과 화학화수단들이 더 많이 공급되여 농업의 기계화, 화학화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와 논밭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이 훨씬 늘어났으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수준이 한계단 더 높아졌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더 큰 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 물질적 토대로 되며 특히 농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수 있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지난해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귀중한 열매인것이다.

우리 나라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된 이와 같은 기적적인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알곡문제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여 일찌기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제시하시고 주체농법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난해에도 농업전선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농업발전에 큰 힘을 넣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여름까지의 기간에만도 두차례에 걸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여러차례의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및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련합회의와 농업일군협의회, 중앙및 도, 시, 군 책임일군협의회들을 소집하시고 주체농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

기 위한 방향과 방도, 특히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예견성있게 세워주시였으며 쉬임 없는 현지지도로 지난해를 빛나게 수놓아가시면서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세상 부러움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시기 위하여 엄동의 추위도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않으시고 남쪽의 벌방지대로부터 북변의 고산지대, 동서해안의 작은 농촌마을에까지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농사차비로부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이르는 농사의 모든 공정을 친히 틀어쥐시고 진두에서 지휘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농사일과 관련하여 무려 1,130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특히 모내기, 김매기철과 가물이 심하던 나날에는 하루에도 여러차례씩이나 농촌경리지도일군들을 찾으시여 농사일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과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기울이신 심려와 로고는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으며 우리 인민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다 전할수 없다.

탁월한 농촌지원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농촌을 정치사상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돕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지난해에는 이 땅이 생겨나서 처음 보는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게 하시였다.

지난해 전체 인민들, 전체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총동원되여 도시가 농촌을 돕고 공업이 농업을 지원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영웅적투쟁을 벌리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지난해에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관개설비들, 여러가지 비료와 살초제 그리고 갖가지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다.

우리의 영웅적인민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힘있는 지원이 있음으로 하여 자연개조 5대방침을 더 잘 관철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농업생산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풍만한 열매를 안아올수 있었다.

지난해 농업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농업정책, 특히 사회주의농촌테제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이다.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농촌테제를 높이 받들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실로 많은 일을 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농법과 나라의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정책과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의 불타는 충성심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그처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해 농업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 끌어올릴수 있게 되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테제와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준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주체농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야 할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농업전선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공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인민생활도 더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다른 문제들도 다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이 날로 긴장해지는 조건에서 농사를 잘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우와 같은 문헌, 10～11페지)

올해 알곡 880만톤의 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며 나아가서 1,000만톤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는것, 이것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서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가장 영예로운 전투과업이다.

농업전선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서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이룩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힘차게 달려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언제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높은 기대를 표시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이 넓고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농업전선을 지켜선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필수적요구와 농업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한 현실적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타산한것으로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알곡 1,000만톤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이미 제기된 40만정보의 밭관개면적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15만정보의 밭관개를 금년중에 마저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중간, 산간 지대들에서 물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그 어떤 한랭전선의 영향에도 끄떡함이 없이 밭농사에서도 영원히 흉년을 모르며 밭곡식의 정당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는것과 함께 토지정리사업과 간석지개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뙈기논과 뙈기밭을 없애고 돌각담을 들어내야 하며 철길과 도로 량옆, 수로옆을 잘 정리하고 필요없는 웅뎅이를 메우며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당면한 영농차비와 관련하여 저수지들에 물을 가득 채워 물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우물과 굴포를 대대적으로 파고 졸짱을 박아 더 많은 물원천을 확보하며 한방울의 물도 헛되이 내려보내지 말고 다 잡아 저축하여야 한다.

급수사령체계를 옳게 세우고 물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물을 랑비하는 현상이 없도록 지도통제사업을 일층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시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완

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는것은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람찬 로동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벼종합수확기, 강냉이수확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 그리고 여러가지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는것이다.

농업전선을 지원하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뜨락또르생산을 맡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 전망계획 기간에 논밭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8～10대씩 돌아가게 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여러가지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와 모내는 기계를 비롯한 농기계를 말끔히 수리정비하고 여러가지 소농기구들을 잘 준비하여 농사철에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린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살초제, 성장촉진제, 성장억제제 등 갖가지 화학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줌으로써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농업생산물이 전에 비할바없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조건에서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의 보관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모든 농촌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포장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주신 간곡한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현대적인 쌀창고와 건조장을 지으며 여러가지 집합과 포장재를 더 많이 만들어 한알의 낟알이라도 허실없이 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뿐아니라 가마니짜는것과 같은 사소한 손로동에서까지 다 해방시키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의 커다란 예비는 2모작지대를 창설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우리 농업생산의 실천적경험과 농업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2모작지대를 창설하고 2모작체계를 널리 받아들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2모작을 많이 하면 간석지를 개간하는것보다 더 쉽게 많은 땅을 얻어낼수 있으며 땅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다양하고 풍족하게 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과 함흥 이남지대에 2모작지대를 만들며 우선 황해남도 장연, 옹진, 강령, 태탄지구의 밭을 조사등록하고 완전히 기계화하여 2모작체계를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농업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떠나서 높은 알곡소출을 기대할수 없다.

농업생산을 계속 늘이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지역적특성에 맞는 선진적인 작물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는 같은 고장에서도 북쪽과 남쪽이 다르고 골짜기마다 자연기후조건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작물재배방법을 연구하는데 힘을 넣어 한계단 더 높은 수확을 내도록 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농업과학자들은 농작물의 재배기술을 완성하여 그것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며 고산지대에서의 농작물재배방법도 깊이 연구하고 공예작물재배에 대한 과학

연구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특히 풍원산지인 우리 나라에서 풍재배방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약초, 아마 기타 기름작물 재배학과 기술공정도 더욱 완성하여야 한다.

작물재배기술을 완성하는것과 함께 종자혁명을 계속 강화하여 랭해와 태풍에 견디고 수확이 많이 나는 새로운 품종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를 다그치자면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풍부한 과학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과 농업생산을 다그치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누구나 다 뜨락또르, 자동차를 몰줄 알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잘 운영하여 기계화, 화학화에 필요한 지식, 영농과학기술지식선전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농장원들과 청년들이 토양에 대한 지식, 종자소독, 살초제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한 기술일군들을 많이 양성하여 농촌에 보내주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고 농촌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각 도 농업대학을 잘 꾸리고 교수의 질을 높임으로써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농촌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훌륭한 기술일군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투쟁은 혹심한 한랭전선의 영향을 비롯한 겹쌓이는 난관들을 용감히 뚫고나가야 할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오늘 당면하여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올해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도록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올해 농사차비에서 중요한것은 모를 튼튼히 키우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지금 진행하고있는 벼랭상모판과 강냉이영양단지모판자리를 잘 설정하고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낼수 있도록 질좋은 부식토를 충분히 넣으며 매 모판의 평당 종자알수를 정확히 보장하여 모가 튼튼히 자라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를 튼튼히 키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도록 농사차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문제는 결국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일하며 어떤 기풍으로 투쟁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지)

농업생산에서 또다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열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만 일하는 혁명적기풍과 주인다운 태도를 철저히 세워나가는것이

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깊이 연구하여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높은 뜻을 가슴속깊이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하여 떨쳐나서야 한다.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언제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 모든 농사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며 제기되는 일을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농업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한포기의 모를 내고 한이랑의 김을 매여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진심으로 일을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농업부문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그 어떤 불리한 이상기후현상도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맞받아뚫고나갈 때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농업생산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

오늘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커다란 예비는 농촌경리부문의 지도일군들로부터 협동농장의 초급지도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사업기풍을 본받아 언제나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당의 의도를 잘 알려주고 직접 사업을 포치하며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농업생산의 전공정에 걸쳐 주체농법의 요구가 정확히 관철되도록 세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농촌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지난해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여러 단위들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여기에 농업생산과 모든 농촌사업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또다시 일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 높은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와 전국농업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밑에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

오 형 일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한 독창적인 리론이며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전일적인 경제관리리론체계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이 확증된 경제관리에서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길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본주의적경제관리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이 가리키는 길이 곧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을 철저히 관철할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적인 경제관리리론이며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에 관한 문제는 경제관리리론과 실천에서 핵을 이루는 중심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칙과 내용, 방법과 체계가 규정되게 되며 생산과 건설의 전반적인 발전속도가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해명하심으로써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가장 정확히 관리운영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경영이 자본주의공업경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본주의공업경영과는 달리 사회주의공업경영이 사람들의 의식을 발동시켜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공업경영의 기본은 사람들과의 사업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149페지)

사회주의경제관리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산활동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업이며 그 기본목적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적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며 그 실제적담당자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그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할 때 높이 발양된다.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면 경제건설에서 부닥치는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기본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으로 된다.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제적인 사업도 필요하다. 또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에서 기계설비와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도 커진다. 그러므로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기술경제적인 사업을 짜고드는것은 경영활동을 과학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실한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오직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경제조직사업을 옳게 안받침하여야만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키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합리화하여나가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관리의 기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기술실무적인 사업으로, 공동로동에 대한 일반적지휘로만 막연하게 생각하여오던 기성관념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것을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창조적이며 혁명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 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을 명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칙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워주시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은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리론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전력사적행정에 적용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학설로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한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의 수립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킨 혁명적사변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대한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모범으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는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이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여온 력사적로정은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심으로써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의 깊고 억센 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원리를 밝혀주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며 혁명적군중로선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근로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중령도의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시여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다음 사람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경제관리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시고 체계화하시였다.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부대관리경험과 유격근거지들에서의 경세사업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들과 빛나는 혁명전통에 기초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였기에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은 깊고 억센 뿌리를 가진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리론으로 되고있으며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관리문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 갓 창설된 국영공업을 빨리 추켜세워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야 했던 사정과 관련하여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어떠한 길을 따라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어떤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할것인가, 실로 이것은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형편에서 인민의 소유로 된 국영공업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발악을 짓부시고 새 사회 건설의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이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제때에 민족경제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새로운 인민적기업관리체계를 세워주시고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1948년 1월 25일, 국영기업소 지배인, 기술자들과 하신 담화 《국영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기업소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공장의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교양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구보다도 로동자들이 창발성을 발휘하고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있는 예비를 다 동원하여야만 생산물의 원가를 낮출수 있으며 생산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그들자신이 국가와 기업소의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182～183페지)

우리 나라에 갓 창설된 사회주의국영공업은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된 새로운 경제형태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돈과 채찍으로 움직이는 낡은 자본주의적방법으로는 사회주의국영공업을 제대로 움직일수 없었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갈수도 없었다.

사회주의국영공업을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유일한 길은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양하도록 하는것이였다.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국가와 기업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낡은 자본주의적잔재를 없애고 공업관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나갈수 있었으며 인민의 소유로 된 사회주의국영공업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그들자신이 국가와 기업소의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교양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이리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국영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새로운 길이 밝혀졌으며 주체적인 경제관리의 위대한 시초가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생산자들의 힘을 발동시켜 계획화와 생산조직, 로력조직과 재정관리를 잘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사회주의적 질서와 제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여 경제를 관리해본 경험도 부족하고 관리기술간부도 얼마 없는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도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도록 하심으로써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들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사회주의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관료주의적인 사무실적사업방법을 없애고 지도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며 계획화사업과 통계사업을 개선하고 경제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관심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여 온갖 편향을 미리 막고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방법으로 관리운영사업을 정확히 진행하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믿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에서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완수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몸소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시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양하도록 그들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근로자들속에서 주인된 자각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철저히 서감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관리는 더욱 개선되였으며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일찌기 그 류례가 없는 비상히 높은 속도가 창조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역찬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새로운 길을 따라 나아갈수 있었으며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으로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의 고조기에 들어설수 있었다.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이 발전풍부화되여온 자랑찬 로정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께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세우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나라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이 촉진된 새 환경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새롭게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을 개편하여야만 근로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주체적인 경제관리를 철저히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다그치고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새 환경의 요구를 제때에 통찰하시고 력사적인 청산리지도를 통하여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구현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으며 그것을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더 잘 관철할수 있도록 공산주의적공업관리체계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우시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근로자로 된 협동농민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고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관리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시였으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시고 나라의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별 관리체계도 전면적으로 세우시였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전면적확립, 이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낡은 전통과 질서에 깊은 뿌리를 박고있는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주체적인 경제관리를 완전히 실시할수 있게 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무엇보다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제사업을 진행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체계가 나옴으로써 자본주의적기업관리방법인 지배인유일관리제가 없어지고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체계가 확립되여 공장당위원회가 기업활동의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며 그 집행을 감독통제하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6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세워주시면서 종전의 지배인유일관리제대신에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체계를 새롭게 내오시였다.

이리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의 힘과 지혜를 합쳐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그것은 개인의 《총명》에 의거하는 수공업적인 방법을 버리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 경제관리를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게 한다. 또한 행정경제사업을 떠밀어주는 방법으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모든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며 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적지도와 민주주의를 가장 정확히 결합시킬수 있게 한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체계를 세워주신것은 경제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다같이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조치였다. 바로 여기에 주체의 경제관리체계

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으며 거대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의 확립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의 혁명적전환으로 되는것은 또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가 새로 서게 된것과 관련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는 웃기관일군들과 기업소관리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생산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설비와 자재, 후방물자들을 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생산현장까지 내리 공급하여주는 독창적인 사업체계이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가 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명령하고 호령하며 내리먹이는 낡은 관료주의적 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고 지도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더욱 굳게 단결되게 되였다. 또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에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이 안받침되여 그들의 창조적능력은 몇곱절 높아지게 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높은 속도가 창조되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야말로 생산자대중을 중심에 놓고 경제를 관리운영할데 대한 요구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풍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는 또한 생산을 통일적이며 집중적으로 지도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생산련계가 복잡해진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이렇듯 독창적이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을 창시하고 그것을 구현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불멸의 업적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빛나게 이룩될수 있었다.

이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는 력사적 나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실로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몸소 하나하나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언제나 잊으신적이 없는 고향 만경대에도 돌리시기전에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새조국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신 해방직후의 그때로부터 몸소 온 나라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농촌, 국가경제기관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혁명적방도를 가르쳐주시고 새로운 경제관리의 길을 탐구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집필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리론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루다 헤아릴수 없는 크나큰 정력과 로고를 바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경제관리분야에서 자본주의적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었으며 가장 정확한 길을 따라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세워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심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하고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4년 8개월에 수행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농사를 망치고있는 때에도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우리의 근로자들속에서는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활짝 꽃피여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그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이 집대성되여있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례없이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내다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서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 우리의 경제토대를 리용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영활동을 더욱 과학적으로 해나가는것이 필요하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의 불길을 높일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거대한 위력과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리용하여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오늘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요구이며 오늘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모든 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인입시켜야 하며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인민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새 전망계획의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을 과학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계획을 바로세우며 경제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

철하여 인민경제의 균형을 옳게 잡고 공장, 기업소들의 모든 경영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맞물려야 하며 엄격한 계획규률을 세워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험주의와 주먹구구식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늘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걸린 고리들을 직접 풀어주어야 하며 원료, 연료, 자재를 현장까지 내리 공급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제기된 과업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업관리를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영활동을 과학화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한다.

오늘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일군들의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일군들의 지휘능력을 높여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과학성과 기동성을 보장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지휘능력을 높이는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주체의 경제관리원칙과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개선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하며 관료주의를 철저히 뿌리빼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배워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오늘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

박 남 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제2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동시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지금있는 경제토대를 적극 리용하는 여기에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위력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더 빨리 다그치며 제2차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 *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9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기본건설을 다그쳐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는것과 함께 있는 경제적밑천을 잘 리용하는것이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리용은 무엇보다 새로운 설비들을 설치하는것과는 달리 추가적투자없이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 자금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게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많은 자금과 로력,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력을 급속히 늘일수 있으며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증대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자금과 자재를 새로운 생산건설에 돌릴수 있게 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과 경제발전의 전망적요구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당면과업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확대재생산의 규모와 속도를 계획화하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경제건설의 중요한 원칙이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특히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해나아가는 길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휘황한 설계도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지금보다 생산을 2배이상 높이며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2.1%라는 높은 속도로 장성하게 된다. 새 전망계획은 또한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이와 함께 제2차7개년계획은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공업의 모든 부문을 고도로 현대화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들을 새로운 과학의 토대우에 올려세울 아름찬 과업을 내세우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은 우리 나라의 위력한 경제토대와 그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와 휘황한 전망, 높은 발전속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된다. 또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관철하여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할수 있으며 기술혁명을 심화발전시켜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전반적인민경제를 새로운 과학의 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적은 자금으로 생산을 급속히 늘일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여나가는데 필요한 자금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새 전망계획의 기본목표와 투쟁과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거대한 예비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방침에는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며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천리마정신을 떠나서 새 전망계획의 어느 한 목표도 점령할수 없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는 문제가 새 전망계획 수행의 경제실무적방도로서뿐아니라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 정책적과업으로,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중요한 전략적방도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사회주의적농촌경리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경제토대를 더욱 정비보강하여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58~359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굉장한 위력과 생산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살림살이는 그 어느때보다도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

수많은 현대적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여놓았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다져놓았다.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공업은 자체의 위력한 연료동력기지와 원료기지에 확고히 발을 붙이고 모든 면에서 더욱 완비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현대적인 주체공업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또한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추진은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서 획기적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농업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전례없이 강화되였으며 계속되는 한랭전선의 혹심한 영향속에서도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대풍을 이룩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주체농법의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참으로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하고있는 현대적이며 위력한 주체공업과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발전된 농촌경리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장성하는 수요를 자체로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조성한 생산능력을 남김없이 리용하여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게 한다면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반적인민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훨씬 높일수 있는 예비가 대단히 많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여기에 생산과 건설의 커다란 예비가 있다.

이와 같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방침은 세계를 휩쓰는 연료동력난, 원료난, 식량난에도 끄떡하지 않고 천리마의 속도로 달려온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적극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대한 생활력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효과적리용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기초축성의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현존경제토대의 효과적리용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이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적앙양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실현된 다음 6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이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도록 우리 인민을 이그시여 참으로 위대하고 자랑찬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해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리용하는것이 새로운 국가투자와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 생산을 높이는 경제건설의 효과적인 방도이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내부원천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새 전망계획을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수행하려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8년 1월 1일, 12페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선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제2차7개년계획의 벅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철저히 반대하고 어디까지나 자기 힘을 믿고 용기와 신심에 넘쳐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적인 신념을 확고히 가지는것과 함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몸바쳐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강령인 새 전망계획을 수행해나가는데서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어떠한 어려운 전투과업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백절불굴의 투지와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열정과 높은 창의창발성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새 전망계획자체의 과업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며 있는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것을 자체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기풍을 세우며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 잘, 더 빨리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곤난 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는 비혁명적인 요소들과 있는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무관심한 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 여기에 새 전망계획 수행의 중요한 열쇠가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설비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 있는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는것이다.

현시기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있는 생산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잘하여 설비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계설비들에 대한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예비부속품을 제때에 대주어 한대의 설비도 놀리지 말

고 다 돌리며 설비의 고속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는 사업에 힘을 넣어 공정간, 기종간 균형을 바로잡고 원료, 자재를 정상적으로 대주어 모든 설비가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는 형단조화, 프레스화를 적극 도입하며 주물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리용하여 생산을 다그치는데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있는 설비와 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혁명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을 낮추는것은 자재와 원료 절약의 중요한 방도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력, 석탄, 기름을 비롯한 원료, 자재에 대한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소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정하여진 소비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온갖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공장, 기업소들에 파묻혀있는 물자들을 모조리 회수동원하며 대용자재를 적극 리용하고 원료, 자재의 보관관리를 잘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자원이 조금도 허실됨이 없이 생산과 건설에 더 효과있게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절약의 중요한 예비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 있다.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로동규률을 강화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새 전망계획은 생산과 건설을 높은 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것을 예견한 기술혁명의 계획, 과학혁명의 계획이다.

기술혁명, 과학혁명을 심화발전시켜야 같은 기계설비, 같은 원료자재를 가지고도 제품의 실수율과 질을 높일수 있고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능력을 최대한 늘이고 원료자재의 소비기준을 낮추며 생산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등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구경은 기술혁명과 과학혁명의 성과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높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공고히 다지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는 한편 생산과정, 생산방법, 경영활동 전반의 과학화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일군들속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모두가 생산의 주인, 기술의 주인으로서 기술혁신운동에 한사람같이 일떠서게 하여야 한다.

이미 있는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우리가 세부계획화를 실현하여 경영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려놓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있는 경제적밑천들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을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51~55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당과 국가의 요구와 객관적현실에 맞게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적계획화의 체계이며 방법이다.

경제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종합적균형으로부터 세부균형에 이르는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을 바로잡으며 계획작성의 모든 요소들을 세밀히 타산하여 공장, 기업소 경영활동의 모든 고리들을 빈틈없이 맞물림으로써 있는 경제적밀천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실행을 위한 조직사업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듦으로써 경영활동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며 생산의 정상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 부문, 자기 초소에서 국가계획을 지표별, 분기별, 월별, 일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계획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알뜰하고 깐진 일본새를 가지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국가사회재산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있는 경제적밀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우리는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더 큰 경제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은 계획기간에 모든 제품과 건설물의 질을 한계단 높이는데 힘을 넣어 이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한다.

기계설비를 비롯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수록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더 큰 은을 나타내게 되며 계획수행을 촉진하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만들든지 더 알뜰하고 깐지게, 탄탄하게 만들며 한채의 집을 지어도 아담하고 쓸모있게 지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우리의 원료자재, 우리의 기계설비를 가지고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더 좋게,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고 건설하는 투쟁을 벌려야 한다.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원가를 낮추며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독립채산제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며 원가, 가격, 리윤,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적경제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검열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새 전망계획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아가자.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하며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여야 한다

최 창 덕

온 민족이 통일된 강토에서 함께 사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지속되는 분렬로 하여 우리 인민의 절절한 통일념원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놈들은 이른바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론과 《교차승인》론 따위를 운운하면서 어떻게 하나 조선의 현분렬상태를 고착시키고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내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횡포한 도전행위로서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엄중한 장애로 된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 *

현시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로부터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하며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를 통하여 한조상의 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우에서 단란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적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대대로 내려오면서 물려받은 3천리강토가 인위적으로 갈라질수 없다.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에 와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주고있다.

하나의 강토에서 남북으로 자유로이 오가며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남북으로 갈라진지 어언 30여년, 이 기간에 남북으로 헤여진 부모처자가 상봉은 고사하고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하고있으며 오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언어와 생활풍습, 생활양식의 공통성마저 점차 사라져가고있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북과 남의 차이는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풍부한 자연부원을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라의 분렬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과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에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받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오직 노예적굴종만을 강요당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광범한 근로대중은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이 막혀 정든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낯설은 이국에 종신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적참상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심해지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길은 오직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

나라가 통일될 때 우리 민족은 흥하고 분렬이 지속되면 우리 민족은 지금 당하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우리 민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일되여야 하며 반드시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고 자주독립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회적인간으로서 죽은 몸이나 다름없듯이 민족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민족의 존엄을 고수할수 없고 예속과 망국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남조선을 강점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만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이 통일된 강토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은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우리 민족이 반드시 통일되여야 하며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여야 하는것은 조선문제의 력사적견지로 보나,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로 보나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본래 우리 나라는 둘로 분렬되여야 할 그 어떤 리유와 조건도 없습니다.》

조선문제,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통일문제는 그 발생경위와 그후 사태발전으로 보아 분렬되여야 할 그 어떤 리유와 조건도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은 지난날 남의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으며 오래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해방된 조선은 응당 통일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패망한 일제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적공약을 배반하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함으로써 조선을 인위적으로 둘로 갈라놓았다. 그 이후에도 미제는 저들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하여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을 일삼아왔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둘로 갈라지야 할 리유와 조건이 없는 조선을 절대로 인위적으로 갈라놓을수 없다.

우리 나라는 력사적견지에서뿐아니라 현정세의 요구로 보아도 역시 분렬을 막고 통일되여야 하며 반드시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되여있다. 이것은 나라의 긴장성을 조성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항시적인 요인으로 된다. 특히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전쟁정책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전쟁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남조선반동들은 《총력안보》와 《실력배양》의 구호밑에 괴뢰군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군수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현대적살륙무기들과 각종 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

놈들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일으키고있으며 전연과 후방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리면서 우리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대세의 흐름과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미지상군철수》를 운운하면서도 사실은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각 방면에 걸쳐 더욱 강화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태발전은 나라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더욱 강화되며 결국에는 놈들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전쟁까지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북과 남사이의 충돌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세계전쟁으로까지 확대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위태롭게 될것이다.

조선에서 분렬을 막고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과 침략의 발판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의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드는것은 침략과 략탈을 업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놈들은 식민지를 발판으로 하여 해외팽창과 침략야망을 실현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식민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기지로 리용된다. 남조선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미제는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식민지 군사기지로 틀어쥐고있으려고 책동하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에 대한 저들의 흉악한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또한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반동들도 여기에 끼여들어 한몫 보려 하고있다.

이처럼 남조선이 외래침략세력의 해외팽창을 위한 발판으로 리용되고있는 조건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는 물론 아세아와 세계의 안전에 대하여 담보할수 없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물러가고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평화통일이 실현되여야만 이 지역에서 분쟁의 근원을 종식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체 조선인민은 한결같이 나라의 통일을 요구하고있으며 세계진보적인민들도 우리 민족이 통일되여 하나의 국가로 발전할것을 바라고있다.

조선이 통일되면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으며 앞으로 조선이 통일되여도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것이다.

우리 나라의 력사적경위를 보아도 그렇고 현실을 보아도 역시 그렇다.

우리는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관계를 맺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갈것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함께 새 사회를 빨리 건설해나갈것이다.

우리 민족은 분렬이 아니라 통일되여야 하며 반드시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갈라진 첫시기부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통일, 이것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민족자결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 해결에 그 어떤 외부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통일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을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으로 제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세의 변화에 맞는 통일방안들을 주동적으로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대방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정당한 구국방안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모든 조국통일방안은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민족자결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방침이며 제국주의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여 나가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방침이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였더라면 우리는 오래동안 지속되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실현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가 내놓은 합리적인 통일방안들과 제의들을 모조리 거부하고 오직 현분렬상태를 영구화하기 위한 책동만을 일삼고있다.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북과 남사이에 마련된 대화를 파탄시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무슨 《유엔동시가입》이니, 《교차승인》이니 뭐니 하는 허황한 나발을 불어대면서 조선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안팎으로 된타격을 받고 궁지에 빠진 놈들의 단말마적발악으로서 절대로 실현할수 없는 망상이다.

조선에서의 모든 사태발전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우리 나라의 분렬과 세계평화를 교란하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정체를 더욱 명백히 하였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하여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조선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업이다. 때문에 온 민족은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통일문제해결의 당사자도 바로 조선인민이다.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인 우리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이 없이 그 누가 통일된 조

선을 우리에게 가져다줄수 없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이 엄숙한 시기에 민족의 피가 끓고 민족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위업이며 튼튼한 밑천을 마련함이 없이는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없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공화국북반부는 우리 혁명의 발원지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할수 있고 파쑈의 광풍을 맞받아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올해 우리앞에 나선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할수 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등 각계층 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원흉이며 민족의 원쑤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응당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데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야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수 있고 조국통일위업도 앞당길수 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언제나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조선인민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78년 제3호(루계 431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8년 3월 1일　　발 행 • 1978년 3월 5일

ㄱ—8535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4호(432)

차 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혁명적의지이다

오늘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밝히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인류해방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장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충성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옴으로써 우리 인민은 보람찬 투쟁과 승리의 길을 개척해올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르며 따르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성심은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선혁명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그때로부터 심장깊이 간직되고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더욱 굳세여진 드팀없는 신념이며 변치 않는 철석같은 혁명적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적령도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고결한 품성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에게 충직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자기의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며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가장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자기의 수령을 끝없이 경모하며 수령에게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영원히 충성다하는것은 그들의 계급적본성과 력사적사명에 대한 높은 정치적자각에 기초하고있는 숭고한 혁명적풍모이며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오는 가장 순결한 생활감정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가져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닌 숭고한 사명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제2판, 170페지)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낡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속에서 해방하고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야만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력사상 그 어느 시기에도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고 인류의 새기원을 가져오게 하는 창조적사업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이 력사적위업은 오직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을 지닌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과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창시하고 옳바른 투쟁 강령과 임무를 제시하며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간다. 수령이 없이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옳은 투쟁의 길에 들어설수도 없고 자기의 위업을 실현할수도 없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수천만 인민대중을 조직령도하여 험난한 혁명의 길을 능숙하게 헤쳐나간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은 탄탄한 길을 따라가듯이 순조롭게만 될수는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을 해방하고 그들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반동들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과학적인 지도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그 정확한 방향이 밝혀진 다음에도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탁월한 수령의 세련된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만 우여곡절이 없이 승리의 한길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반드시 하나의 중심, 탁월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되고 수령이 내놓은 옳바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투쟁을 벌려나가야 승리할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에게 영원히 충성다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계급적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또한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는 혁명적변혁으로 일관된 계속혁명의 과정이다. 로동계급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기성을 떤 혁명투쟁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반드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자기 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수령에게 영원히 대를 이어 충성다하게 하여야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끝까지 실현해나가야 한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에 변함없이 충직할 때 그들은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혁명의 명맥, 당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이어가면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나선 때로부터 수많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혁명의 진리이다.

한세기가 넘는 장구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은 바로 로

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사상을 순결하게 고수하며 수령의 령도를 따라 확고하게 나아갈 때에는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도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책동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혁명의 명맥이 끊기우고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시대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승리의 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또한 이 엄연한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지난날 자기의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함으로 하여 망국의 비운속에서 헤아릴수 없는 민족적수난을 겪어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민족의 재생과 승승장구하는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가는 력사의 지름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떠나서는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을수 없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보다 휘황찬 래일을 생각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해가는것을 철석같은 혁명적신념으로 삼고있으며 그것을 가장 높은 영예,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있는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력사의 주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영생하는 참된 길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 다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본분이며 의리이다

반세기의 오랜 세월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새 력사를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충성다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얻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3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은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주체위업을 빛나게 실현해오는 장기간의 투쟁과정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억세여진 드놀지 않는 사상감정이다.

우리 인민의 이 숭고한 충성의 신념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며 현대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 찬연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우러나오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민족의 념원과 인민의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였기

에 지난날 남에게 짓눌리고 천대와 멸시만을 받던 우리 인민은 민족재생의 새봄을 맞이하고 주권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가장 슬기롭고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는 세기적락후에서 벗어나 그 누구도 숙볼수 없고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자주, 자립, 자위의 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주체의 조국으로 그 영예와 자랑을 떨치게 되였다.

일찌기 민족수난의 엄혹한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 기치밑에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여 혁명의 끊임없는 앙양과 승리적전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쓰라린 실패만을 거듭하던 조선혁명은 자주의 기치따라 승리하며 전진하는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진로를 새롭게 밝혀준 새시대의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던 인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은 현실로 전변되게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심원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인 완성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을 확고한 승리에로 고무하는 필승불패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가장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민족적독립과 새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와 민족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였으며 혁명발전과 세계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시였다.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의 특수한 조건에서 출발한 조선혁명은 첫걸음부터 남달리 간고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인민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맞서싸워야 했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생소한 길을 개척하여야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령도로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밀어제끼시고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시여 조국청사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 찬연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조건에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세계《최강》을 자

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시였다. 그리하여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언제나 모든것을 주체의 예지와 혁신적안목으로 대하시고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것이 재더미로 된 빈터우에 매우 짧은 기간안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대계인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으시고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시여 우리 나라를 위력하고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공업화가 실현된 새로운 조건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의 3대혁명로선을 더욱 힘있게 관철하도록 하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전진운동을 끊임없는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이 땅우에 빛을 뿌리는 모든것, 가장 권위있는 주체형의 당과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도, 우리의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와 힘있는 자립적민족경제, 찬란히 꽃피는 민족문화도 그리고 강력한 자위적국방력도 그 어느것이나 다 불멸의 주체사상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 세기적인 변혁과 위대한 진보를 이룩한 현대조선의 빛나는 력사가 창조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에서 살며 혁명하는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반세기의 기나긴 세월 간고한 시련과 엄혹한 투쟁의 가시덤불을 헤치시며 몸소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전당, 전국, 전군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이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조국》,《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 그 위용을 떨치게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실로 천대를 두고 만대를 두고 전하여도 다 전하지 못할 위대한 업적이며 세계사적공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세계혁명발전과 피압박인민들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류해방위업과 세계혁명발전에 이바지하신 거대한 공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류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며 그들속에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신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크나큰 민족적 존엄과 긍지, 더없는 영예와 행복, 그것은 조선혁명과 인류해방 위업을 위하여 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사는 존엄과 긍지이며 영예와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의 오늘과 더욱 찬란할 조국의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조국과 민족이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길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험하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것을 자기들의 철석같은 신념으로, 드틸수 없는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또한 천만대를 두고 갚아도 다 갚을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리이다.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자기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깊이 간직하며 그것은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특질로 된다.

사람들이 자기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깊이 간직하는것은 그들이 수령의 보살핌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혁명가로 성장하며 보람찬 혁명의 길을 걷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사람에게 있어서 그처럼 귀중한 정치적생명은 수령에 의하여 주어지며 수령의 따사로운 보살핌속에서만 빛을 낼수 있다.

이로부터 혁명가들은 자기들을 혁명가로 키워주고 삶의 참다운 보람과 영예를 준 수령을 다함없이 경모하며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을 자기들의 신성한 혁명적의리로 여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세상에 다시 태여날수 있었으며 존엄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우리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 가장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고계시며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더욱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그 어떤 로고도 마다하지않으시고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그 길우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게 한량없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며 인민들의 념원과 희망을 풀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과 크나큰 은덕으로 하여 삶의 참다운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고 흠모하며 수령님께 영원히 대를 이어 충성다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혁명적의리로 여기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뭉쳐있으며 우리 사회는 불패의 사상의지적통일체를 이루고있다. 바로 이 필승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무적의 힘, 만능의 힘을 가지며 그 어떤 폭풍도 시련도 과감히 뚫고 혁명을 승리에로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생활체험과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할 때만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영예와 번영이 있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영광을 더욱 빛내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당과 인민은 오늘 새로운 신심과 희망에 넘쳐 주체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을 완성하고 이 땅우에 인류의 최고 리상사회를 실현하는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숭고한 력사적과제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이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혁명적본분과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영광을 안고 자기의 혁명적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만들어야 경애하는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적립장을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신념화된 충실성을 지닐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만듦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 모시며 수령님께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져야 할 유일하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이며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고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튼튼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다져나가는것은 수령님을 대를 이어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께 충직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그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끝없는 충실성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표현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그러므로 수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떠나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말할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그것을 드팀없이 철저히 관철하는 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서 나타난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은 바로 당원들과 인민들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 진심으로 충성다하기 위하여서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적극 투쟁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인민을 위하시는 수령님의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한 투사가 되고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참된 충복이 되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는 대중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제2차7개년계획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은 주체의 위업,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임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웅대한 투쟁강령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새 전망계획의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하며 주체조선, 천리마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자랑높이 떨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그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충성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

강　석　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밝혀주심으로써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5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적인민들은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참다운 세계관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대륙과 대양을 건너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강력한 사상정신적 힘으로 퍼져나가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마련하시였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위대한 시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온 지구를 휩쓸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인류력사는 더욱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나가고있다. 오늘처럼 력사적운동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이 커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사람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을 사람에게서 찾는 근본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문제는 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람은 세계를 구성하는데서 가장 주되는 요소이다. 사람을 떠나서는 사회자체가 있을수 없고 세계가 무의미하며 사람의 역할이 없이는 자연과 사회를 변혁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세

계와 사람과의 호상관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밝히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의 근본문제로 된다.

이 중대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페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는 가장 발전된 존재이다.

물론 자연과 사회를 떠나서는 사람이 존재할수도 없고 살아갈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과 사회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고 지배한다.

사람은 또한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노는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데서 객관적요인, 물질경제적수단이 커다란 작용을 하지만 세계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가 결코 객관적조건이나 물질경제적수단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은 아니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떠나서 물질경제적수단이 창조될수도 없고 작용할수도 없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의 기초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가 노는 역할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근본특성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명에 기초하고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자연의 생활환경에 본능적으로 순응하는 동물과는 달리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사람의 모든 활동의 위력은 바로 자주성과 창조성에 원천을 두고있다.

사람은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행동하기에 앞서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고 그 결과를 예상하며 객관세계의 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간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는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우와 같은 문헌, 7페지)

세계관이 참말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자면 우선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어야 한다. 사람은 주위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를 가져야만 사물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일적인 면모와 그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주며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히 밝혀주고있다.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인 사람을 위주로 하고 모든것이 사람의 지배밑에 놓여있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의 전일적인 면모이다.

또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인것만큼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은 마땅히 사람에게 복종되여야 하며 이렇게 될 때만이 참다운 존재가치를 가진다고 보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를 대하는 관점이며 태도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인 근로인민대중을 위주로, 그들의 리익을 척도로 하여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을 보고 평가하는 관점이며 태도이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변화발전에 대한 가장 심화된 리해를 준다.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질수록 현실세계의 발전은 더욱더 사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 새로운 견해이다.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세계를 변혁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은 로동을 통하여 자연을 개조하고 혁명투쟁을 통하여 사회를 개조해나간다.

인류력사는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개조되고 변혁되는 세계의 령역이 더욱더 확대되고 보다 많은 대상들이 사람의 통제밑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과 태도가 새롭게 밝혀지고 사람의 역할에 기초한 새로운 리해가 주어짐으로써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현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견해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줄뿐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혁명적세계관의 기본사명의 하나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개조의 무기를 주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 대한 옳은 견해를 주는것으로 하여 그자체가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를 정확히 인식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것을 사람을 위주로 보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요구함으로써 사물현상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수 있게 하며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방도를 옳게 찾을수 있게 한다. 이것은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사상은 특히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정확히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활동과 개조활동에서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근본방법이다.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어떤 립장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세계의 인식과 개조의 성과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해나가자면 반드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사람들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을 다할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서게 된다. 바로 여기에 자주적립장이 사람

들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과 인식활동에로 힘있게 추동하며 그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 근거가 있다.

사람들이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가자면 옳바른 립장을 가지는 동시에 인식과 개조의 힘있는 방법을 가져야 한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의 인식과 개조의 방법은 창조적립장이다. 창조적립장은 사람들이 인식활동과 실천투쟁을 벌리는데서 확고히 의거해야 할 근본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주동적으로 인식하고 변혁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사람들은 모든 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할수 있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이 창조적과정인것만큼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인식과 개조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창조적립장은 사람들의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의하여 사람들은 인식활동과 실천투쟁에서 확고히 의거해야 할 정확한 립장과 방법을 가지게 되였으며 세계의 인식과 개조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고무추동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7페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사람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이 풀어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시고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사회발전에서 사람,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에 대한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한다. 따라서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 력사가 발전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에서 주체적요인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는 사람에 의하여 발전하며 사회발전에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논다는 새로운 합법칙성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이며 모든 혁명투쟁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가르친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임으로 하여 남에게 예속되고 얽매여사는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계급투쟁, 사회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요인이 보다 심오하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인류사회의 력사는 생산방식의 교체의 력사, 계급투쟁의 력사인 동시에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라는것이 새롭게 론증되게 되였다.

사회발전의 근본동인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계급사회뿐아

니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시기도 포함하여 인류력사발전의 전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가 주어지게 되였으며 오늘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혁명투쟁이 앙양되고 사회주의에로 나가고있는 력사적현실도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심오하게 밝혀줄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혁명적세계관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사회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줄뿐아니라 낡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세계를 변혁하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다름아닌 자기자신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기자신의 사업이라는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게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질 때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오직 자기자신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수 있게 된다.

주체사상은 또한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할수 있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며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한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혁명적세계관이 풀어야 할 원칙적문제에 심오한 과학적 해명을 주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으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 마련된것은 인류사상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밝힘으로써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독창적인 체계가 확립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는 오래전부터 철학이 깊은 관심을 돌려온 문제였다. 일련의 사상가들은 사람이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계에서 사람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며 어떤 역할을 노는가, 사람의 본질과 그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사색하였으며 이러저러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종래에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람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세우지 못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힘으로써 세계관의 출발적원리와 내용, 사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켰으며 사람에 대한 관점과 립장 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대하는 전혀 새로운 관점과 태도, 립장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세계관이 담아야 할 사상리론적내용을 집

대성한 세계관으로, 주체시대의 혁명적 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발전완성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과 우리 인민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 위대한 전변을 가져오게 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91페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들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여나간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대중의 념원과 지향, 리익이 철저히 반영되여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로정은 바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의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시여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혼란되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인민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빠른 시일내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하나로 묶어세우시여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그 어떤 무기나 기술의 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에 있다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뚜렷이 실증하였다.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수행된것은 인민대중의 절절한 리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시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그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시여 농촌에서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대담하게 밀고나가시였으며 개인상공업자들의 일치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 기치밑에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우리의 자랑찬 현실은 바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과 사고방식에서도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위대한 비약이 이루어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6페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우리 인민이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한 정신적해방을 이룩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의 심각한 혁명적전환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삼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긍지가 전례없이 높아졌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히 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기 힘을 굳게 믿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고있다. 또한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통채로 삼키는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대하며 모든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창조적태도를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문제라면 어떤것이라도 자체로 풀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불살라버리면서 모든것을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실천해나가는 혁명적기풍으로 사업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미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른다는 철저한 립장을 가지고 주체사상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강철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고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은 그 순결성과 공고성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불패의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된 결과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으며 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적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체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전진시켜나가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내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찬란히 꽃피우고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정치와 경제, 사상

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굽임없는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확신성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남조선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철석같은 신조로, 그들의 혁명투쟁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할 때만이 남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널리 파급되여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주체사상이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널리 파악됨에 따라 그들속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지향이 높아가고있으며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단결과 협조관계가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큰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킬것이다.

*　　　*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민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백두의 밀림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아갈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은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기 위한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진군길을 더욱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언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제2차7개년계획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며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

김 환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영광에 찬 투쟁의 반세기동안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인민들의 해방위업수행에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개조에 관한 정연하고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 이것은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들을 인간개조분야에 구현한것이다. 주체사상은 인간개조사상의 독창성과 심오성,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이며 확고한 리론적기초이다.

지난 30년동안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이룩된 심각한 혁명적변혁,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무비의 영웅적위훈, 우리 혁명의 높은 발전속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힘있는 증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인간개조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학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1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인간개조사업을 어떤 지위에 놓고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비록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인간개조사업을 홀시할 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인간개조사업이 차지하는 지위를 새롭게 밝히시였으며 이 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7페지)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은 외부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그 주인이며 담당자인 사람을 얼마나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옳게 풀어나갈수 없으며 더구나 그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인간개조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사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으로,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로 규정하시였다.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내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낡은 사상이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기초는 없어지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진다. 그러나 착취제도가 없어지고 물질문화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사람들의 공산주의적개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그 부식작용도 계속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상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부르죠아적영향이 사회생활에 널리 퍼지는것을 막을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다.

오직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야만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을 막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또한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며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일뿐아니라 모든 사회성원들이 높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이다.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자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아무리 물질적부가 풍부하여도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양개조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사회는 실현될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사는 공산주의사회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위업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만들자면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이 사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며 오랜 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는 사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은 사회제도를 개조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1페지)

사람의 의식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물질적인 생활의 변화보다 뒤떨어진다. 수천년동안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박힌 낡은 사상은 매우 집요하고 보수적이다.

사상의식의 개변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들의 변화와는 달리 잘 나타나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사람의 의식은 눈으로 볼수도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개조되였는지 계산해낼수도 없다. 그리고 사상의식의 발전정도도 사람에 따라 다르며 매개인들이 가지고있는 사상의 내용도 매우 복잡하다.

인간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만

이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에 따라세울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업의 지위에 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불멸의 창조적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으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선차적힘을 넣어야 할 과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야 할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제시되게 되였으며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인간개조사업의 지위와 함께 그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공산주의적 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9폐지)

사람은 여러가지 복잡한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개조과정과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형성에는 그들의 사상의식수준, 경제생활, 문화기술수준, 생활양식과 풍습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로부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며 무엇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개조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에 빛나는 해답을 주시였다.

인간개조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로 되는것은 바로 사상의식이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조절하기때문이다. 사상개조가 성과적으로 실현되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가 원만히 풀릴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상개조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중심과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사업은 마땅히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혁명과정으로 되여야 하며 인간개조의 원칙과 방도도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로 된다는 사상은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또 하나의 독창적인 발전으로 되며 인간개조에 관한 학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전개해나갈수 있는 과학적기초를 마련해준 획기적인 기여로 된다.

인간개조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는것은 인간개조의 본질을 옳게 리해하며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사업을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전개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인간개조사업의 목적과 사명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데 있다는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사람들을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야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를 갖추도록 할수 있다.

인간개조사업의 총적목표, 이것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한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풍모, 방법을 몽땅 그대로 받아안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충성다해나가는 견결한 공산주의자이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 참된 혁명가이다.

실로 주체형의 혁명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존엄있고 숭고한 사상과 풍모를 지닌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자의 최고귀감으로, 본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간개조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이라는것을 밝혀주심으로써 비로소 인간개조사업에서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2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일관한 원칙과 과학적인 방도를 제시하심으로써 이 사업을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원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고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0페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은 인간개조에서 확고히 관철하여야 할 로동계급적요구를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다.

로동계급은 사회의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하고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다.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농민과 인테리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개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주체적인 방침이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로동계급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으며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농민과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어려운 사업에서 귀중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원칙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22페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다.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새것, 공산주의적인것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통일적과정으로 수행되여야 한다.

이가운데서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만일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만 치우칠 때에는 인간개조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다.

인간개조사업에서 사상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것은 결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여도 좋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과 문화의 높은 발전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그들의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전제로 한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사상혁명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오직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에만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조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는것을 인간개조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사상혁명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원칙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3페지)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결국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업은 사상교양사업 하나만으로는 실현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기초하여 개변되는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근본적인 담보로 된다.

바로 우리 당은 이 원칙을 지침으로 삼아 사회주의혁명시기에는 인간개조를 경리형태의 개조와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는 사상혁명과 사회주의경제건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이가운데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편향을 극복하고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인간개조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에 의거하여 진행할 때에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와 자질, 인간개조의 본질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확고히 의거해야 할 가장 옳바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개조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라는데로부터 근

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사상교양의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시였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교양에서는 주체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가 밝혀지게 되였으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과 집단주의교양, 로동을 사랑하는 교양 등 사상교양의 내용과 지위, 그 구체적인 과업들이 과학적으로 규정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적조직성은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이며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고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조직과 대중의 통제속에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으며 집단주의정신을 체득할수 있다.

혁명적조직생활은 그자체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과정이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사람들은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에서 주는 분공을 성실히 수행하며 특히 비판을 통하여 자기에게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 결함을 고쳐나가게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는것을 인간개조에서 의거하여야 할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혁명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하고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며 집단주의정신,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같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중요한 풍모를 갖추게 되고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는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우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개조사업에서 혁명실천이 노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통찰하시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집단적인 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시고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적인 특징과 우월성의 하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국방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할데 대한 요구를 전면에 제기하고있는 높은 형태의 운동이라는데 있다.

교육사업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육기관은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한개 기관으로서 사상교양의 중요한 무기이다. 경험은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간개조사업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간개조사업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교육사상의 현명성과 과학성, 불패의 위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개

조사업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바른 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심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지름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인간개조사상은 참으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3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끝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며 그 위대성과 정당성은 우리 나라 혁명실천에서 빛나게 확증되고 날을 따라 더욱더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인간개조사업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며 이 과업을 어떤 원칙과 방도로 풀어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의 미해명문제로 남아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인간개조사상을 내놓으시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중요한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보물고를 새로운 재부로써 풍부히 하시였다.

주체적인 인간개조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여곡절과 편향이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곧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구현해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한다는것은 조선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확증된 위대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42페지)

인간개조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된것이다.

주체사상교양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세기를 두고 우리 인민의 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좀먹었으며 나라의 발전과 혁명과 건설에 큰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가 없어지고 근로자들속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적관점이 확립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은 오늘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기 힘을 굳게 믿고있으며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의 멍에로부터의 사상적해방, 사상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인간개조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 이룩된 심각한 혁명적전환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개조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온 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룩되였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미풍이 꽃피고있으며 온 사회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철통같이 단합되였으며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대렬이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지고 그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계급적각성이 높아졌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인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집단주의정신과 조직성이 배양되였으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생활기풍이 확립되였다. 우리 당의 꾸준한 사상교양과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테리들을 교양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특히 오랜 인테리들이 오직 당과 로동계급을 위하여 훌륭히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인테리로 개조되였다.

인간개조사업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의 다른 하나는 후대들을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인간개조사상이 교육사업에 훌륭히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낡은 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의 새세대가 자라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초소를 맡아나서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만 하여도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어둠속에서 헤매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었으며 력사에 전례없는 높은 속도로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나가는 영웅적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세기적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일수 있은것도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간개조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근로자들의 두뇌와 심장 속에 드높은 자주의식과 계급의식, 공산주의적기풍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고 키워주시였기때문에 가능한것이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인간개조에 관한 사상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 점령을 위한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며 인간해방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개조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귀중한 성과를 튼튼히 다지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심화시켜 그들속에서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혁명적열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 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으며 해결하지 못할 과업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적인 인간개조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건된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필승불패의 혁명적무장력

김 철 만

오늘 우리 인민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군창건 기념일을 커다란 민족적긍지로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면서 우리 혁명무력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인민군대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일편단심 최고사령관동지께 끝까지 충성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건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은 시련에 찬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전진해오는 과정에 강철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다져졌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단매에 물리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46년,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사상과 자위적군사로선을 빛나게 실현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주체의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전반적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 다함없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1

영웅적조선인민군은 항일혁명투쟁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무력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도 역시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군대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후신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해방후 조선인민군으로 발전하였습니다.》(《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15페지)

우리 인민이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그때부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던 첫시기에 벌써 혁명무력건설문제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조선인민군의 전신인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을 위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참다운 혁명무력을 가지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제국주의는 야만적인 폭력에 의거하여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유지공고화하려고 날뛰는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다.

무장한 적은 무장으로 맞서야 하며 반혁명적폭력을 혁명적폭력으로 격파하여야 한다.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반제민족해방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려야 하며 그 실현을 군사적으로 담보할 진정한 로동계급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로동계급의 혁명무력을 건설하는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나 해결되는것은 아니며 그것은 오직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무력건설의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하며 반혁명무력을 혁명무력으로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선진분자들로 혁명무력을 조직한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혁명무력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의 실현을 군사적으로 담보할 사명을 지닌 수령의 군대이며 로동계급의 혁명무력건설력사는 수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무장대오가 창건된 그때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로동계급의 혁명무력건설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첫 주체형의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지난 반세기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랑찬 령도의 빛나는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상비적인 비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무장투쟁형식과 무장조직형태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로 다른 혁명발전단계에서 나서는 무장투쟁의 기본형식과 무장조직형태를 과학적으로 밝히시면서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시기의 무장조직형태는 상비적인 인민유격대로 되여야 하며 주권전취후에는 그것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주권전취를 위한 반제민족해방혁명단계에서 무장조직형태는 유격대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적의 반혁명무력을 격파할수 있는 자체의 혁명무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강도 일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면 장기전에서 능히 자체의 력량을 보존확대해나갈수 있고 적의 력량을 부단히 소멸약화시킬수 있는 혁명무력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혁명무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5~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상비적혁명무력의 기본형태는 유격대로 되여야 하였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이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되여야 하였던만큼 혁명무력의 조직형태도 이에 적응하게 유격대로 되여야 하였다.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시기의 혁명무력건설방침을 독창적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면서 혁명무력창건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사람과 무기는 무장력의 필수적구성요소로서 무장대오를 준비하며 무기를 갖추는 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야만 상비적혁명무력으로서의 반일인민유격대를 성과적으로 창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종파적오물에도 물젖지 않는 로동자, 농민 출신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을 골라내고 그 대오를 튼튼히 하는것이 혁명무력건

설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확신하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시였으며 그 실천투쟁의 불길속에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심으로써 혁명무력건설의 골간을 준비하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획득을 비롯하여 혁명무력창건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은 준비에 기초하시여 마침내 1932년 4월 25일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대오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첫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적인민무력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싸우는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려던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무력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민족해방혁명시기의 혁명무력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건설방침의 빛나는 실현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혁명무력건설방침의 정당성에 대한 과시였다.

일제를 때려부시고 새 조국 건설에 들어선 우리 인민앞에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할 절박한 요구가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인민무력건설방침은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무장된 혁명적정규군대를 창건하는것입니다.》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나라의 주인으로 된 다음에는 정규무력을 가져야 한다.

자위적인 혁명무력을 가지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강력한 정규무력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승리한 혁명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보위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도 없다.

그러므로 반제민족해방혁명단계에서 창건된 혁명무력을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다음 새롭게 나서는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군사적으로 담보할 현대적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혁명무력건설의 순차적로정이며 합법칙적과정이다.

로동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면 수령과 당의 령도밑에 자체의 혁명무력을 강력한 정규군으로 건설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게 된다.

주권을 쥔 로동계급에게는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간부양성과 대렬보충을 계통적으로 실현할수 있고 군대에 현대적인 조직장비와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제때에 혁명적정규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무력건설전통에 토

대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이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의 나날 백두밀림에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무르익혀오신 자위적군사강령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우리나라의 첫 주체형의 혁명무력이였던 조선인민혁명군이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정규무력으로의 강화발전이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은 더욱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빠른 시일안에 강유력한 현대적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였으며 그를 령도하시여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심으로써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시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게 하시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을 광복하시기 위하여 원쑤와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그 창건의 사상리론적 및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화발전되여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대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무력이 참다운 수령의 군대로 되자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수령에 의하여 직접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야 하며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위하고 실현해나가는 혁명대오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건되고 오늘의 위력한 현대적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 유일한 신념으로 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을 군사정치활동과 군무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혁명무력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전통을 직접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민주조선의 정규군대로서 비록 오늘 창건되기는 하지마는 실지로는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경험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19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혁명무력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혁명무력건설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하시여 독창적인 자위적군사사상과 혁명무력건설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무력건설의 사상리론적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대오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무력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계급적원칙에서 대오를 꾸리고 확대하도록 하심으로써 무력건설의 핵심골간을 수많이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우고 이에 군사기술을 결합하며 혁명적동지애와 그에 기초한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략전술적기초와 무장장비의 기초를 마련하시였

으며 고귀한 투쟁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바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이와 같은 혁명무력건설전통을 직접 계승한 군대이다.

이처럼 조선인민군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튼튼한 력사적뿌리가 마련되고 그에 토대하여 강화발전된 반세기의 자랑찬 혁명력사와 투쟁 업적과 경험을 가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무장력이다.

실로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강화발전시키시며 승리에로 이끄신 자랑찬 력사이다.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지닌 최대의 민족적긍지이며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이며 자랑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군은 간고하고 험난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고 치렬한 계급투쟁과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런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왔으며 오늘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군대도 타승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지난 반세기의 영광스러운 로정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자위적군사사상과 독창적인 혁명무력건설로선이 승리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지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되고 현대적군사과학기술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굳건히 장비된 정규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페지)

우리의 혁명무력은 창건 첫날부터 인류전쟁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의 혁명무력이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여 진행한 두차례의 혁명전쟁은 그 수와 군사기술에 있어서뿐아니라 그 포악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그 어느 제국주의침략군대와도 대비할수 없는 가장 간악한 적을 상대로 하여 싸운 전례없이 간고한 전쟁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아무런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무적황군》을 자랑하던 일제의 백만대군을 격멸소탕하고 항일혁명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해방후 정규무력으로 발전한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사상전술적우월성과 주체전법의 위력으로 100여년의 침략전쟁력사를 가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고수하였다.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단련된 조선인민군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왔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였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민족해방전쟁도 해보았고 주권전취이후시기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혁명전쟁도 해보았다. 또한 제국주의침략자들과도 싸워보았고 국내반동세력과도 싸워보았으며 유격전쟁도 해보고 현대전쟁도 해보았다.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는 거창한 혁명의 폭풍

우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강유력한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불패의 대오, 충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오늘 인민군대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이 세상 끝까지 따르고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흐르고있으며 모든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은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불과 물 속에라도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확고한 혁명적신념에 가득차있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오늘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뿌리박힌 철석같은 신념이며 드팀없는 혁명적의지이다.

오늘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단결되여있으며 온 대오안에는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인민군대안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이 강화되고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군인들속에서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혁명군대, 당의 군대라는 자각이 또한 비상히 높아졌다.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세계사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싸울 혁명적각오를 굳게 다지고있다.

또한 우리 군인들모두가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에 차있으며 고상한 공산주의적전투도덕적품성을 지니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의 온 대오안에는 고상한 자각적규률,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차넘치고있다. 오늘 인민군대는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많이 자라나그 대오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대렬의 질적구성도 한층 더 강화되였다.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적령역에서와 대렬구성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화들과 무력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가장 귀중한 밑천이며 확고한 군사적 담보이다.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된 강철의 전투대오로 강화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벌려 현대적군사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전법을 깊이 체득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최신군사과학과 현대적인 군사기술기재로 튼튼히 무장되였으며 모든 장병들이 현대전의 작전과 전투들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며 모두가 한등급이상의 군사적직무를 수행할수 있는 풍부한 전투경험과 지휘능력을 가진 간부군대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자위적인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핵심력량으로서 땅과 바다, 하늘의 그 어데서 기여드는 적이라도 단매에 쓸어눕힐수 있는 일당백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혁명의 시련을 이겨내고 힘차게 전진해오는 과정에서,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빛나게 관철하는 과정에서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

사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확립되여 우리의 온 강토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철벽의 방위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무력건설문제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자위적군사로선과 주체적인 전군방침을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결과에 이룩된 가장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한 영웅적군대이며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한 용감한 혁명무력이며 전후에 계속되는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한 슬기로운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나날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는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하며 주체위업의 완전한 실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한줌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분렬이 영구화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정세는 더욱 긴장되여가고있다.

미제는 《철군》의 간판밑에 도리여 남조선에서 무력을 증강하며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계속 늘이면서 놈들을 새로운 군사적모험에로 부추기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엔동시가입》이니 《교차승인》이니 뭐니 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고 미쳐날뛰고있으며 미지상군의 《계단식철수》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총력안보》와 《림전태세》의 구호를 내걸고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최근에는 조선정전이래 가장 큰 규모의 《한미련합작전훈련》을 비롯한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서 나라의 정세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앞에 원쑤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파탄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 전민, 전군이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모든 군인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과 군사과업수행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을 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군사기술적으로 더 잘 단련된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페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계급적사명과 임무

를 자각한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제국주의침략군대의 수적기술적우세를 타승하고 전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온몸에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은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참을성있는 노력을 결코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산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만약 원쑤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원쑤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것이다.

모든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침략자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본때있게 싸워 원쑤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소탕하고야말 혁명적각오를 더욱 굳게 가져야 한다.

군대안에서 상하간, 동지호상간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고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높이 발양하며 군사규률을 더욱 강화하고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우리 인민들은 일단유사시에 인민군대와 한전호속에서 생사를 같이할 혁명전우들이다. 인민군군인들은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여 인민들을 존경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한다.

혁명군대의 높은 사상의식이 현대적인 군사과학기술과 결합될 때 그것은 그 어떤 적도 타승할수 있는 불패의 힘으로 될수 있다.

모든 군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전투훈련을 정력적으로 벌려 백전백승하는 주체전법을 더욱 깊이 체득하며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에 정통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 군사과학과 기술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은 인민군대의 전반적인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 질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지휘성원들은 어떤 복잡한 전투정황속에서도 자립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높은 지휘관리능력과 령군술을 가지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모든 군인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어떤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높은 사격술과 무쇠같은 체력을 가지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전인민적방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전군이 달라붙어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더 잘 도와줌으로써 민간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군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백두의 밀림에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을 벌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강화하며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혁명의 요구이며 수령님께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전사의 사상정신적풍모이며 혁명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난관도 시련도 두려움없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 방법은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

리 근 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실뿐아니라 세련된 령도로 우리 혁명과 인류해방 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달리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대중령도의 더없이 귀중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을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나라는 세상사람들이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경탄하여마지않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조선혁명의 년대기우에 길이 아로새겨지고 만대에 찬연히 빛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은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걷고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와 직접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직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한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시였으며 그 길우에서 대중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있는 력사적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인 현지지도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빛나는 전형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현지지도방법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지도에서 구현하여야 할 령도방법과 령도풍모를 전면적으로 담고있는 탁월한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군중과 같이 살고 그들과 같이 싸워야 하며 군중과 같이 숨쉬면서 현실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군중의 힘을 찾아낼수 있고 현실을 깊이 료해할수 있으며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는 자신심도 가질수 있습니다. 군중속에 들어가고 현실에 접근하여야만 모든 문제를 제때에 알수 있으며 또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6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현지지도방법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

를 무한히 신뢰하고 인민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지에, 혁명과 건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대중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무엇보다도 지도를 인민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지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킴으로써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가장 높은 형태에서 빛나게 구현하게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작성에서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훌륭히 반영할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나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이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지도를 대중과 밀접히 결합시키지 못하며 대중과 동떨어진다면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면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을 옳게 지도할수 없다.

인민대중과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있는 당만이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고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과정은 바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생동한 현실속에서 혁명의 요구와 아래실정 그리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시여 새로운 로선과 방침들을 구상하시고 작성하시는 과정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혁명의 매 단계의 로선과 방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작성하심에 있어서 항상 생동한 현실속에서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반영하시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으시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가장 정당하며 거대한 생활력을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은 또한 당의 지도를 현실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킴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자신의것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고 인민대중의 창조력과 자각적열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인민대중이 결정하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11페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사업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따라서 혁명의 승패는 결국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만일 당이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대중을 옳게 동원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바로 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방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리심으로써 난관을 주동적으로 밀어제끼시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신다.

바로 지도를 대중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당의 정책을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전환시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세차게 일어났으며 오늘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례없는 심도와 폭을 가지고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빛나는 령도예술은 수령님께서 걸고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우에 찬연히 빛나고있으며 그것은 오늘 우리 인민의 대진군을 힘있게 떠미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과정을 통하여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산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아래실정을 정확히 료해분석하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는 방법,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생동한 혁명적사업방법, 한점을 뚫고 거기에서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는 사업방법 그리고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전략전술의 원칙과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비롯하여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령도예술의 산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그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현지지도과정에서 창조된 위대한 수령님의 이 모든 빛나는 실천적모범, 령도예술의 전형들은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따라배우고 혁명실천에서 구현하여야 할 산 본보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가장 세련되고 탁월한 공산주의적령도방법으로,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대중령도의 산 전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 모든것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보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과 함께 모든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 사업방법으로서 그자체에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주체사상은 이 세상에서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고 가르치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사상의 이와 같은 원리와 요구로부터 인민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지에서 현실을 깊이 료해하고 대중의 경험과 지혜에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나온다.

혁명적군중로선은 혁명적령도방법과 령도예술, 현지지도방법을 관통하고있는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에 의거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할데 대한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높은 혁명성과

과학성, 인민성으로 일관되여있다.

현지지도방법의 혁명성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또한 혁명적군중로선과 인민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인민적인 사업방법의 전형으로 된다.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대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끝없는 배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의 근저에 흐르고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현실을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여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모아 걸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철저히 과학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지도방법으로 된다.

대중에 대한 지도를 가장 높은 형태에서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현지지도방법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었으며 빛나게 구현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태여나시고 인민대중속에서 나오시여 한평생을 인민과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시며 조국의 무궁한 륭성과 번영, 인민의 참다운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만경대의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인민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통절히 체험하시였고 짓밟힌 인민대중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시려는 숭엄한 결의를 가슴깊이 새기시였다.

나라와 민족,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근로인민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헤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 있어서 인민과 떨어진 사색과 실천, 인민을 떠난 생활과 투쟁이란 단 하루도 없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혁명투쟁행정에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더불어 혁명의 가시덤불을 헤치시며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며 력사의 전진을 추동하는데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새로운 높이에서 확립하시였다.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모든 훌륭하고 귀중한것을 창조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 사상, 바로 이러한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계시였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사회와 력사의 중심에 놓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위대한 대중령도예술, 독창적인 현지지도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현지지도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대중지도에서 확고히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가장 혁명적인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이며 모든 일군들이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혁명적사업방법의 산 모범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 그것은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전통적인 령도방법

이며 우리의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검증되고 백전백승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혁명군대가 인민을 떠나서 승리할수 없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깊이 간직하신 혁명적신념이시였으며 의지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멀고 험한 길을 걸으시며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각성시키시고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의 나날 무장투쟁과 조선혁명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산하 부대들과 혁명조직에 내려가시여 혁명전사들과 함께 침식을 같이하시면서 그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아래 단위에 내려가시여 회의와 학습회에도 참가하시고 대원들과 담화도 하시면서 대원들과 혁명군중의 사상동향을 깊이 료해하시였으며 몸소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회의를 하는 방법, 부대를 관리하는 방법, 대중정치사업방법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하고 대중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현지지도방법은 준엄한 항일의 불길속에서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을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었으며 사람의 상상을 뛰여넘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끈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이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우리 당과 혁명정권을 창건하시고 공고히 하시며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오시였으며 전통적인 현지지도방법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주 공장과 농촌에 나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의논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02페지)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풍파사나운 간고한 세월 꿈길에도 잊으신적 없는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신채 강선을 찾으시여 그곳 로동계급에게 혁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심어주시였으며 얼마후에는 김책제철소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을 새 조국 건설의 기세찬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로동계급의 심장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은 황해제철소와 흥남비료공장, 수풍발전소와 남포제련소에로 이어졌으며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그 모든곳에서 새 조국 건설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수천년동안 뿌리깊이 박힌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토지혁명을 정확히 수행하시기 위하여 몸소 대동군과 숙천군을 비롯한 평남도일대의 여러 농촌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달이상이나 빈농민들과 침식을 같이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주시고 치열한 계급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실태와 농민들의 념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무르익히시였으며 그후 토지개혁이 한창 벌어지던 어느날에는 또다시 대동군의 한 농촌마을을 찾으시여 그 진행정형을 세세히 료해하시고 모든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은 미제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엄혹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불비쏟아지는 최전선의 고지들에도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쟁승리를 조직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타는 고지를 찾으시여 몸소 전투를 지휘하시였으며 싸우는 병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필승의 힘을 안겨주시였다.

미제를 꺼꾸러뜨리는 엄혹한 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전선길에만이 아니라 후방의 여러 공장과 농촌들에도 끊임없이 미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의 나날 후방의 많은 공장들을 찾으시여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전시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순안군 원화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농촌에 나가시여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시면서 그들을 전시식량증산에로 고무하시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여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련되고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준엄한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으며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타승한 슬기로운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전쟁으로 모든것이 불타버리고 재더미만이 남은 페허속에서 우리 인민이 불사조와 같이 일어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인민이 있는이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의지를 지니시고 전국의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끝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그들속에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신 그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이 로골화되고 혁명앞에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였던 시기 또다시 강선땅을 찾으시여 우리 로동계급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원쑤들의 준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리시고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새로운 기적과 비약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은 더욱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중령도방법을 완성함에 있어서 획기적전환으로 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시로 당 및 국가기관들의 지도에서 낡은 사업방법이 극복되고 새로운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하는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사업방법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현지지도과정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시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경제관리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실로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 인민들이 살고 일하는 그 어디에도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가 미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그 모든곳에서는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력사가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의 로정, 그것은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을 비롯한 모든 인민들의 심장속

에 혁명적열정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돋쳐주었으며 이 땅우에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펼쳐놓은 불멸의 자랑찬 로정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전국의 수천수만리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며 몸소 잡아주신 그 터전우에 현대적공장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 우리 나라는 강력한 자립적공업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공업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훌륭히 보장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의 농촌은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지난날 가난과 고역 속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 흥겹고 헐하게 일하면서 부러움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며 우리 농촌이 해마다 만풍년을 노래하는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으로 된 그 위대한 전변의 력사는 공산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을 밝히시고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헤아릴수 없는 로고와 심혈로 아로새겨진 숭고한 위업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나라 농촌은 관개수로망이 그물처럼 뒤덮여 생명수 흘러넘치고 기계가 사람들의 일손을 대신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으로 변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년간 한랭전선의 영향과 이상기후현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것을 막고 농업에서 끊임없는 높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거창한 대자연개조방침을 제시하시고 전당, 전민, 전군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장원들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해마다 대풍을 안아오시였다.

참으로 튼튼히 꾸려진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히 꽃피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 일당백의 자위적인 현대적무장력과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 등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불굴의 투쟁을 벌려 이 땅우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0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강력한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나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 방위력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의 로정은 이 땅우에 일대 민족적 번영과 륭성뿐아니라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로 수놓아져있다.

근로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공산주의적덕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이나 농촌을 현지에서 지도하실 때면 언제나 그곳 인민들의 살림집과 로동자들의 합숙과 식당에 먼저 들리시여 그들이 먹고 쓰고 사는 형편에 대하여 알아보시며 인민들의 생활에 조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신다. 오직 인민을 위한 위업에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

도의 길에서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도 무심히 보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인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고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데 더 리용할수 있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시며 인민들에게 보다 풍만한 생활을 안겨주실 구상을 무르익히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그 헤아릴수 없는 로고로 하여 우리 인민은 아무런 걱정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복받은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은 또한 우리 근로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한량없이 뜨거운 어버이사랑으로 수놓아진 빛나는 로정이다.

정치적생명, 그것은 육체적생명에 비할바없이 값높고 귀중하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지난날 천대받고 버림받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게 계급의 눈을 띄워주시고 혁명의 진리를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였으며 그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이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유능한 일군으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났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력적으로 걸고걸으신 현지지도의 년대기, 그것은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조선의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인민을 끝없는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준 숭고한 력사의 기록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삶의 참다운 보람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은 오직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며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사는 다함없는 영예와 혁명적자부심에 휩싸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겨주시고 오늘의 륭성번영하는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위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로 올려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적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와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영예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다하여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 독창적인 현지지도방법을 따라배워 그대로 구현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본분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로 철저히 무장하며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방법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자신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더욱 높이 들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점령못할 요새란 없으며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사상은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홍 성 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최대의 민족적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반세기의 자랑찬 투쟁로정을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오시였으며 조국과 인민, 력사와 인류 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 특히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생산장성속도의 본질과 요구 그 실현조건들을 처음으로 명시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사상은 우리 나라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여 자랑찬 열매를 맺고있으며 거대한 견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새생활창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

*　　　*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속도에 관한 문제, 경제의 규모와 생산장성속도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인 립장에서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만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발전속도는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야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주체적인 립장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발전속도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력사발전의 필

연적과정을 어떻게 앞당기는가 하는것과 직접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이 중대한 문제에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속도의 본질적특징과 경제의 규모와 생산장성속도의 호상관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0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비상히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장성하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항구적으로 견지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경제발전속도는 해당 사회경제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중요하게 반영하며 사회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높이로 나타난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주기적인 공황으로 재생산과정이 중단되고 생산력이 파괴되며 경제가 심각한 위기와 혼란 속에서 끊임없는 진통을 겪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경제적모순은 격화되고 생산은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자본주의경제발전에서는 생산의 장성과 감퇴가 엇바뀌고 전진과 후퇴, 상승과 하강의 끊임없는 우여곡절을 겪는것이 특징적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근로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가 그 어떤 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하게 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제도의 본성과 생산의 목적으로부터 사회의 모든것이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경제가 겪는것과 같은 파국적인 위기와 혼란을 모르며 오직 상승선을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은 더욱더 많아진다. 물론 유휴자재, 유휴로력과 같은 비교적 손쉽게 동원할수 있는 예비는 복구기나 개건기에 비하여 적지만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의 개선, 기술의 빠른 발전과 같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비와 가능성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더 커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를 항구적으로 견지할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본질적특징에 관한 사상에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하여 이 제도를 끝까지 고수발전시키며 근로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하루빨리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반영되여 있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본질적특징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견인력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명확한 길이 밝혀

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속도의 본질적특징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시여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계획적으로 동원리용하며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함으로써 경제의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기때문에 생산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보다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에 있다는 탁월한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모든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리용하며 재생산의 균형들을 가장 정확히 보장함으로써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특히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계획적으로 실현하며 축적을 계통적으로 빨리 늘여 큰 규모에서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진행하여나갈수 있게 한다. 축적을 직접 실현하는 수단인 기본건설도 전망성있게 진행하고 전사회적범위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경제구조가 더욱 개선되고 생산잠재력이 끊임없이 증대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전망계획에 따라 생산력이 합리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밀접히 련결시키고 전반적지역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나라의 자연부원과 로력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한다.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하여 마련되는 이러한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더욱더 증대되며 현실화된다.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부문들사이의 보다 적극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 잘 째이게 되며 끊임없이 높이 발양되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생산잠재력과 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또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열어주는 넓은 길을 따라 기술이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사회적근원이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기술발전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기술발전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가 강화된다. 그리고 기술발전에 복무하는 중공업토대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며 새 기술을 연구하고 도입하는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끊임없이 바뀌여지고 완성되면서 기술이 빨리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의 빠른 발전은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높이게 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을 위한 축적과 로력원천을 끊임없이 늘이고 주어진 원료와 자재, 로력으로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라의 자연부원이 더욱 넓은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효과있게 개발리용되고 보다 경제적이며 능률적인 기계설비와 생산기술공정들이 끊임없이 도입됨으로써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확대재생산의 규모를 훨씬 늘이게 된다.

이 모든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더욱 더 많아진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산력발전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가 생산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대중이 생산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동원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를 내여 자각적으로 일한다.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려는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제도가 공고발전되고 사상혁명이 심화될수록 더욱 높이 발양된다. 이에 따라 경제관리와 생산조직, 로동조직,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혁명적열의가 높아질수록 생산자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되며 맡겨진 경제과업 수행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문화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로동능력이 끊임없이 반전완성되며 대중적 혁신운동으로 온갖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생산능력과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또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가며 모자라는 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가게 함으로써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계획적인 발전과 기술의 빠른 발전 그리고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 등 여러 요인들은 호상 밀접한 련관속에서 작용하면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발전속도의 본질적특징을 밝히시고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요인들과 그 역할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된다는것이 과학리론적으로 완벽하게 해명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장성속도의 호상관계에 관한 리론을 창시하시고 경제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합법칙성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옳바르게 해명되고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특징이 남김없이 확증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조건에서도 무제한한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거부하는 부르조아반동《리론》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발전수준이 높아지면 경제발전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기회주의적《리론》을 철저히 짓부시고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

운 높이에로 발전시키였으며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탁월한 사상으로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정확한 령도이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할뿐아니라 이 제도가 가지고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키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인식리용하여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도록 인민대중을 곧바로 이끌어나간다.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문제도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동원리용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당면한 현실과 혁명발전의 먼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고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며 그 실현에로 당과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과 방침을 제때에 제시하는것은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시여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강의한 혁명적원칙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우리 인민을 그 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공업화로선,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의 병진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그리고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할데 대한 방침 등 모든 로선과 방침들, 그것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들은 모두가 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방침들에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응당한 힘을 넣으면서도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하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특히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여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고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할수 있는 명확한 방도들이 제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들과 방침들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 정당성으로 하여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

이 파악되고 그들의 사활적인 요구로 접수되였으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였다.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성과적실현에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8페지)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사상, 기술, 조직지도의 세가지 과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물질적자극만으로 생산장성을 이룩하려는 경향을 배격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움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과 열의를 발동하여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사상혁명이 끊임없이 심화됨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우리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짓부시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험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주인다운 태도, 혁명임무에 대한 책임성과 자각을 높여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으며 반대로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하고 물질적자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중을 부단히 투쟁과 혁신에로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을뿐아니라 경제건설에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우시는 한편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심으로써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이후시기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그 방향과 수행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비주의를 분쇄하며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현하여 생산을 급속히 늘이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훨씬 줄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천리마운동에는 우리 나라에서 끊임없이 고조되여온 경제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가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15페지)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훌륭히 구현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높은 속도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천리마운동이 심화발전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려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운동이 더욱 조직화되고 심화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발전함으로써 그 거대한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구호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확고히 구현되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새롭게 발기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하시였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문화생활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이룩되고 경제는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가져온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으며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이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확립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를 옳게 배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급속히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속도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비상히 높은 속도가 확고히 견지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모든것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질풍같이 내달려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남먼저 올라서려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정신을 빛나게 구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혁명적사업전개원칙인 속도전이 제시되고 그것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투쟁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업태도, 사업 기풍과 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혁명과업을 제때에 불이 번쩍나게 철저히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되였다.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격전, 섬멸전, 집중공세의 방법으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정과적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경제가 비상히 높은 속도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왔으며 또 전진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92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가 도발한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축성하던 시기에 벌써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두해반에, 중요공업제품의 현물지표별 계획

온 전반적으로 4년동안에 끝내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에 의하여 나라의 공업화가 촉진됨으로써 우리는 빈터우에서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튼튼한 중공업기지를 축성할수 있게 되였다. 1970년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급속히 늘어났으며 1971년 우리의 기계공업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무려 569배로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다.

우리 나라 공업은 세계적으로 원료, 연료 위기가 휩쓸고 경제파동이 극심하였던 최근년간에도 그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1974년 《70일전투》기간에는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여 그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공업생산이 1.7배로 장성하였다.

공업부문에서 6개년계획은 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 앞당겨 1975년 8월에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1976년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1970년에 비하여 2.5배로 늘어났으며 6개년계획기간에 해마다 평균 16.3%라는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업이 지난 7개년계획기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을뿐아니라 원래 6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년평균 증가속도를 훨씬 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다는것을 의미한다.

농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700만톤 알곡고지를 2년 앞당겨 점령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그처럼 불순한 기후조건을 이겨내고 우리 나라 력사에 있어본 일이 없는 최고수확인 85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이룩됨으로써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위력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튼튼히 다져지고 우리 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제가 빨리 발전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우리 인민이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세기적인 진보와 변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 새 전망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아가자.

온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자

김 중 린

오늘 우리 인민은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파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 나라의 안팎에서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30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미제의 범죄적인 《단독선거》 음모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민족분렬의 위험이 닥쳐왔던 1948년 4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발기하신 남북련석회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구국투쟁사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적사변이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민족적대단결과 구국통일의 숭고한 리념에 따라 해방후 처음으로 마련된 전민족적인 정치협상회의였다.

당파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떠나 온 민족이 단결하여 국난을 타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호응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상기업가, 종교인 등 온 나라의 각 당, 각파,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평양에 모여왔으며 지어는 오래동안 《반공》을 일삼아온 완고한 민족주의거두들까지도 38선을 넘어왔다. 그리하여 회의에는 북과 남의 민전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남조선의 중간정당들, 일부 우익정당들까지 망라한 실로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단선》음모를 파탄시키며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인 구국대책을 제시하시였다.

비록 사상과 정견이 다르고 신앙과 소속은 각이하였으나 회의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현명한 구국방침을 열렬히 지지찬동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설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회의는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된 위력과 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전체 조선인민을 거족적인 구국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단선》음모를 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특히 회의에 참가한 북과 남의 애국적인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은 모든 차이와 계선을 넘어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하려는 일념을 안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공동의 구국대책을 협의함으로써 민족의 재난을 앞에 두고 서로 힘을 합칠줄 아는 조선인민의 슬기를 과시하였으며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다면 각당, 각파의 애국력량이 구국의 한길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고 함께 싸워나갈수 있다는것을 사실로써 확증하였다.

참으로 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탁월한 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민족적대단결과 구국통일의 리념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민족의 분렬을 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내려진 준엄한 철추였다.

그때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회의에 일관되였던 숭고한 민족적대단결의 리념은 하나로 잇닿은 우리 겨레의 심장속에 아직도 힘차게 고동치고있으며 영구분렬의 위험이 짙게 드리운 오늘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소중한것으로 간직되여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의 리념, 민족적대단결과 구국통일의 리념을 되살려 하루빨리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과의 대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1

30여년전에 시작된 민족분렬의 력사가 아직도 지속되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에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렬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있으며 조선의 영구분렬을 추구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미쳐날뛰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23~124페지)

남조선에서 단독괴뢰정부를 꾸며내여 마침내 민족의 혈맥까지 끊어놓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발악적으로 벌리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미 1972년에 꾸며낸 이른바 《유신개혁》은 그들이 본격적으로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 범죄적인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들은 《유신개혁》의 간판밑에 《유신헌법》을 조작하고 《유신》독재체제를 세움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사실상 분렬체제를 고착시켰다. 《유신》파쑈독재는 《두개 국가》를 전제로 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영구집권체제이며 영구분렬체제이다.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파쑈독재를 휘둘러 남조선에서 영구분렬체제를 각방으로 강화하고있으며 모든것을 남북의 대결과 영구분렬에 복종시켜나가고있다.

그들은 《국민총화》라는 구실밑에 영구분렬의 사회정치적지반을 꾸리기에 미쳐날뛰고 《힘의 균형》과 《실력배양》을 부르짖으면서 공화국북반부를 적대시하는 군사, 경제적 대결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반공》의 구호밑에 남조선인민들속에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대대적으로 불어넣고있다.

남조선을 외세에 《동화》시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공통성을 말살하는것은 《두개 조선》조작을 위한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책동가운데서도 특히 범죄적인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 대결체제를 꾸려놓는 한편 외래침략세력을 더욱 깊이 끌어들여 남조선을 문자 그대로 《이방화》,《이민족화》하는 민족반역행위도 서슴지않고 감행하고있다.

놈들이 떠드는 이른바 《미일한운명공동체》론이란 동족사이의 민족적뉴대를 부정하고 남조선을 영원히 미일상전의 예속밑에 두겠다는 《동화론》이며 매국과 영구분렬의 혼합론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이와 같은 민족반역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은 사실상 미국, 일본의 변강이나 다름없이 되고 남조선의 군사, 경제는 미국은 물론 일본의 세력권안에까지 들어갔으며 민족문화마저 외국화되여가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두개 조선》을 위한 대결체제, 예속체제를 꾸밀뿐아니라 《불가침조약》이니 《유엔동시가입》이니 하는 따위의 온갖 분렬방안을 고안해내여 어떻게 하나 《두개 조선》을 합법화해보려 하고있다.

《불가침조약의 체결》이란 《평화》의 너울로 분칠한 분렬책동의 한 고리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와 같은 교활한 수법으로 우리 인민이 바라지 않는 나라의 분렬을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분렬로, 외세가 강요한 분렬을 우리 인민이 《자초한》 분렬로 만들어놓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두개 조선》의 함정에 빠져들어가게 하려 하고있다.

《유엔동시가입》이나 《교차승인》도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렬로 합법화하여 《두개 조선》으로의 영구분렬을 고착시키려는 음흉한 책동이다.

《두개 조선》조작음모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조선을 종국적으로 분렬시키고 한나라, 한민족으로서의 통일된 조선의 존재를 영영 말살하는것이며 민족내부문제로서의 조국통일문제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거세하여버리는것이다.

오랜 력사를 두고 한강토에서 한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민족분렬의 비운을 끝없이 지속시키려는 분렬주의자들의 흉악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민족적견지에서는 물론 인도적인 견지에서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일이다.

《두개 조선》으로의 영구분렬이 우리 인민들에게 지난 30여년동안 겪어온 분렬의 고통보다 헤아릴수 없이 더 큰 재난을 가져다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자원을 민족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없는것은 물론 동족사이의 무의미한 대결로 하여 막대한 민족적 재부와 힘이 헛되이 소모되고 인민들은 계속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이다. 남북의 래왕은 고사하고 생리별한 혈육의 안부조차 알수 없는 오늘의 이 상태가 더 계속된다면 한가족의 피줄마저 영영 끊어지고 민족적공통성은 더욱 사라져 단일민족의 영상마저 잃게 될것이며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될것이다.

더우기 분렬이 고정화되면 남조선은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될뿐아니라 일본침략자들에게까지 먹히우게 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노예로 되고 그들의 해외팽창의 희생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1894년 일본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기여들어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했던 지난날의 침략의 력사가 이것을 말해주고있으며 변함없는 침략야욕을 품고 또다시 재침의 마수를 뻗쳐 남조선을 예속시키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또한 남조선의 불행한 래일을 뚜뚜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키는것이 마치도 《평화》의 담보나 되는듯이 떠들고있으나 이것은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선전에 불과하다.

《반공》의 구호밑에 민족적 반목과 대결이 고취되고있는 가운데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하고있는 조건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불안과 긴장상태가 가셔질수 없으며 전쟁의 위험이 사라질수 없다. 분렬이 지속된다면 증대되는 오해와 불신, 끊임없는 군비경쟁으로 긴장상태는 격화되기 마련이며 그것은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참화까지 빚어낼수 있다. 수십년동안 민족분렬의 비운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어온 우리 인민은 민족의 영구분렬이 초래할수 있는 엄중한 재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나라의 영구분렬로 리득을 볼것은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뿐이며 그것으로 하여 재난을 입을것은 오직 조선사람들뿐이다.

우리 인민은 남조선을 영원히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기며 헤아릴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올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하루빨리 나라와 민족을 다가오는 영구분렬의 위험에서 구원하고 본래의 통일조선을 되찾아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민족분렬의 엄중한 사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제도와 신앙에서 차이가 있는것은 결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단결하지 못할 조건으로 될수 없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33페지)

오늘 민족분렬의 엄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민족적단결의 길에 나서야 한다.

오직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극소수의 매국세력을 배제하고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대련합을 실현하는것만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사상과 리념,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민족통일전선리론에 일관한 사상으로서 그 위대한 생활력은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조직에서 뚜렷이 실증되였으며 그 거대한 견인력은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서도 명백히 확증되였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각이한 세력들이 공동의 민족적지향에 기초하여 단결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된다.

어떤 사상과 리념도 그것은 계급적립장과 리해관계의 반영이며 각이한 계급들사이의 사상과 리념의 차이는 본질적으로는 계급적립장과 리해관계의 차이에서 오는것이다.

따라서 각이한 계급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리념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없다.

더우기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서로 다른 제도가 서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서 어느 한쪽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제도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민족적대단결도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반목과 대결, 분렬만을 조장시킬뿐이다.

오직 공통된 민족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야만 공산주의자나 민족주의자나 할것없이 모두가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단결하여나갈수 있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는 것은 민족적대단결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족지상의 요구이다.

북의 공산주의자들이 신봉하는 리념과 남의 민족주의자들이 가지고있는 리념은 물론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은 다 같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것이며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 바탕을 두고있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떠난 사상과 리념이란 한갖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나라와 민족이 없이는 도대체 사상이나 그에 기초한 제도와 정당에 대해서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정당이나 정파의 리해관계는 나라의 전반적리익에 앞설수 없으며 그것은 우선 민족적임무에 복종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오늘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자기의 리해관계, 자기의 사상과 리념을 먼저 생각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야 하며 우선 전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적통일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 및 개별적인사들과 굳게 단결하며 힘을 합쳐나아갈것을 언제나 주장하고있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13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언제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이 련합할데 대한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으며 우리의 사상과 리념, 제도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남조선에 강요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거듭 천명하였다.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도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이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북의 공산주의자들과의 련합을 실현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련공합작을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조국통일문제는 현실적으로 둘로 갈라져있는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쳐야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거족적인 위업이다.

지금 나라의 북반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확고한 지도력량으로 되고있으며 북반부인민들이 모두 주체사상, 공산주의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그 기치밑에 행복한 새생활을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면서 나라를 통일하겠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고 분렬을 영구화하려는것이다.

《반공》은 곧 영구분렬의 길이며 련공합작만이 민족의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다.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나라의 절반땅에서 민족적번영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여놓은 북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련공합작의 길에 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련공합작하는것은 남조선의 민주주의세력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애국애족의 길이기도 하다.

오늘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련공과 《반공》의 갈림길에 서있으며 그중 어느 길로 나가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는 물론 그들자신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반공》은 민족을 영구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외세에 내맡겨 영원한 식민지로 만드는 민족반역의 길이며 파쑈로 통하는 길이다.

이것은 바로 《반공》을 《국시제일주의》로 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이 걷는 길이며 현실적으로는 박정희파쑈독재를 돕고 스스로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노복으로 굴러떨어지는 길이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동족인 북의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할수 없으며 더우기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으로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앞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북의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할수 없다.

《반공》은 매국이며 련공은 애국이다.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참다운 애국의 길로 나가자면 《반공》을 반대하고 련공의 길에 나서야 한다.

열렬한 애국자들이며 위력한 민족주체적력량으로 되고있는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련합하여야 민족을 영구분렬의 위험에서 구원할수 있고 남조선에서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회복하고 파쑈를 종국적으로 매장할수 있으며 민족주의자들자신의 출로도 열릴수 있다.

4월남북련석회의의 력사적경험은 지난날 《반공》을 일삼던 완고한 민족주의자들도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고 민족적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었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야 할뿐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 얼마든지 손을 잡고 함께 싸워나갈수 있다.

조국통일문제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사이에 모순과 대립이 있을수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어디까지나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이고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사이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민족내부의 문제로서 결코 민족을 서로 갈라놓는 장벽으로 될수 없으며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한나라안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수 있으며 서로 다른 제도가 있을수 있다.

한민족안에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과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있을수 있고 한나라안에 서로 다른 제도가 있을수 있는것만큼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의것을 강요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얼마든지 련합하고 합작할수 있다.

주체사상, 공산주의사상은 가장 애국적인 사상이며 그를 신봉하고 구현해나가는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밖에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언제나 민족과 더불어 자기 운명을 같이하여왔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한것도, 해방후 나라의 북반부에 온 세계가 경탄하는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놓은것도 그것은 모두가 오직 우리 인민을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한것이였으며 결코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위한것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이끄시며 헤쳐오신 험난하고도 영광스러운 반세기의 로정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항상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여왔으며 나라와 민족앞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참다운 애국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이러한 공산주의자들과 련합하지 못할 리유는 아무것도 없다.

련공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며 후대들앞에도 떳떳한 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련공합작이 실현되면 우리의 민족주체적인 력량은 비상히 강화되고 그 단결된 힘은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것이며 민족의 앞길에는 참으로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사이의 련합을 실현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성과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나라의 통일을 담보하는 훌륭한 원칙이 있으며 통일에로 접근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기초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일관하게 주장하고 견지하여왔으며 지금도 이와 같은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이 다같이 이 3대원

칙의 정신에 확고히 선다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서로 해결못할 문제란 없으며 모든것은 협상을 통하여 훌륭히 풀려나가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로정에서 우리 인민앞에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제도상의 통일, 사상의 통일에 앞서 우선 민족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민족적통일을 먼저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순차이며 먼저 다달아야 할 첫 목표이다. 서로 다른 사회정치제도와 사상에 기초하고있는 북과 남이 당장 제도상의 통일, 사상의 통일을 이룩하기는 물론 어려운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북과 남이 언제까지나 이 차이에 구애되여 갈라져있을수는 없는것이며 이와 반대로 자기의 제도와 사상을 상대방에 강요하는 방법으로 통일할수도 없는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제도와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은 바로 제도와 사상을 초월하여 먼저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제도와 사상의 차이를 내세우면서 나라의 통일을 거부하거나 남의것을 부정하고 자기의것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면 누구도 이 유일한 민족의 진로를 외면할수 없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은 민족적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프랑스신문〈몽드〉주필과 한 담화》, 3페지)

련방제는 당장 나라의 완전한 통일이 어려운 현조건에서도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뉴대를 회복하고 단일국가를 형성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것은 또한 민족의 영구분렬과 외세의 침략을 막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확고히 보장하는 참다운 구국통일의 길이며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민족적통일의 형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독창적이고도 탁월한 련방제방안에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서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통일을 이룩해야 할 우리 민족사발전의 객관적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서로 다른 리해관계와 그들의 공동의 민족적념원이 훌륭히 결합되여있으며 조국통일 3대원칙의 숭고한 리념이 뚜렷이 구현되여있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있는다 하여도 경제, 문화적 련계와 합작을 실현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자립적민족경제체계로 일체화하고 민족문화를 그 본래의 모습대로 단일화하게 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게 될것이다. 련방제가 실시되면 또한 대외적으로도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진출하여 외교의 일치성을 보장하게 될것이며 군사분야에서도 군비경쟁과 그로 인한 모든 부담을 없애고 외세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하며 나아가서 국방의 통일성도 기하게 될것이다.

뿐만아니라 련방제하에서 인민들은 북과 남의 제도와 사상을 더 잘 알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것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게 될것이며 자기가 택한 사상을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북과 남의 호상리해를 촉진하고 민족적대단결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되며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실제적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된다.

남북련방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민족회의는 남북총선거를 당장 실시할수 없는 조건에서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할수 있는 유일한 거족적협상기구이며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체력량의 총집결체이다.

이와 같은 대민족회의에 기초할 때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진정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공동의 민족적념원과 리익에 맞게 풀려나갈수 있으며 련방국가를 성과적으로 형성하고 수립된 련방제도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가 잔인하게 짓밟히고있고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봉쇄되고있는 조건에서는 대민족회의도 실현할수 없으며 북과 남의 민족적련계조차 가질수 없다.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는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날로 확대되고있으며 해내외에서 급속히 장성하고있는 민주주의력량은 박정희파쑈도당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그들자신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일뿐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숭고한 애국투쟁이다.

이 투쟁에 의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통치제도가 청산되고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이 민주주의정권을 세우게 되면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민주주의력량사이의 련합은 성과적으로 실현될것이며 북과 남은 민족적대단결에 기초하여 통일의 길을 훌륭히 개척하여나갈수 있을것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구분렬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으나 놈들의 어떠한 술책도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 안팎의 정세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제멋대로 남조선에 단독괴뢰정부를 조작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분렬의 재난을 들씌웠던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조선인민은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며 거듭되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온 용감한 인민이며 오늘은 나라의 절반땅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주체조선을 일떠세우고 인류의 리상사회를 앞장서 실현해나가고있는 가장 긍지높은 인민이다.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이 힘을 합쳐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다.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인민은 일찌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서 천명하신 위대한 민족적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통일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적 인민들을 승리에로 고무하고있다

리 종 목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세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혁명과 인류해방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공헌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진보적인류앞에 쌓아올리신 탁월한 업적가운데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시고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시대의 숨결인양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신봉하는것은 하나의 세계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류사상발전과 세계혁명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시였으며 모든 인민들에게 온갖 착취와 억압, 민족적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에게 자기 운명의 높은 자각과 투쟁의 진로를 안겨주고 새 사회건설의 광활한 길을 열어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그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보며 그들의 지위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 올려세울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페지)

주체사상의 이 철학적원리는 력사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전혀 새로운 태도와 립장을 천명하여주며 그들을 력사의 중심에 내세우고있다.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부의 창조자이며 력사발전의 동력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해서만 사회가 유지될수 있으며 인류력사발전도 이룩될수 있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주인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된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세계와 력사발전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의 역할을 새롭게 천명하여줌으로써 모든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적 자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또한 그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불멸의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가장 옳바른 길을 가르쳐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이 혁명적진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모든 피압박인민들과 혁명적인민들이 낡은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와 사대주의적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오직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만이 자기 나라 현실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야말로 모든 압박받고 착취받는 인민들과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존엄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그들이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투쟁의 진로를 밝혀주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는 필승의 사상리론적재부로 높이 칭송하며 따라배우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철저히 옹호실현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불멸의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따라서 자주성을 떠나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사회생활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킬수 없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사회정치적생명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할수 있게 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며 모든 민족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자주성을 튼튼히 담보하며 그것을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민족적 예속과 불평등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참다운 평등과 민족적자주권

의 존중을 그자체에 구현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다른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지배주의의 압력과 지배를 견결히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륭성의 길을 담보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이처럼 오늘 세계 피압박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념원과 시대의 지향을 그대로 반영하고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주체의 리념은 세계진보적인류의 투쟁의 리념으로 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또한 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 모든 피압박인민들이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백전백승의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준다.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백과전서적혁명리론이다.

인민대중은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지침으로 삼고 활동할 때에만 혁명의 발전전망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높은 자각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특히 각이한 사회력사발전조건을 가진 지구상의 모든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우리 시대는 옳바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혁명의 합법칙성과 그 수행방도를 새롭게 밝히시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모든 민족들과 인민들이 온갖 형태의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밝힘으로써 세계의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길을 환히 열어주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특히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전혀 새로운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이 옳바른 길을 따라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여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적원칙들은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 승리에로 고무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승리적로정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력과 필승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새생활창조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13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찬란한 성과들, 이 땅우에 창조된 천지개벽의 력사는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져온 빛나는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우리 인민은 자기나라 혁명은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결과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주체의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신념과 의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대가정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늘과 같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이리하여 지난날 세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오늘 세계인민들이 감탄하여 마지않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으며 모진 가난과 천대 속에서 시달리던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실천적경험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나갈 때만이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박차고 민족적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과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할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리상사회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해주고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고귀한 경험을 가르쳐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오직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만이 우리의 본보기로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성과와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혁명의 전략전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것으로 하여 혁명적인민들에게 투쟁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 *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25 페지)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에서 자기의 앞길과 투쟁의 무기를 찾고있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자립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모든 대륙과 모든 지역의 인민들속에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그들을 민족적억압과 예속을 불사르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의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투쟁의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지도사상이며 세계혁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불멸의 주체사상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오늘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 모든 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은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주체철학국제연구소》 등 여러가지 연구조직들을 뭇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며 열심히 따라배우고있다.

최근년간에 이르러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은 소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대륙적인 또는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되고 더욱더 조직화되고있다. 1971년 레바논에서 국제적규모의 첫 연구토론회로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있은후 지역적, 대륙적 혹은 국제적인 주체사상토론회가 해마다 성대히 진행되고있으며 여기에는 더욱더 많은 나라들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가하고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얼마나 신봉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을 연구하며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들과 경험들이 광범히 교환되였으며 주체사상을 연구하며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세계적범위에서 널리 벌어지고있는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숭고한 념원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보급하는 사업이 전례없는 규모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이 각이한 민족어로 수많이 번역출판되고있으며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수백종에 달하는 출판물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문헌들이 련속 게재되고있다. 지금 세계진보적출판계의 일군들은 《김일성주석님의 귀중한 로작들을 출판하는 사업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할 첫째가는 임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관한 로작들이 혁명적인 문헌으로서 위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널리 보급되고있다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실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오늘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량식으로 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세계혁명적인민들

속에 널리 파급됨에 따라 그것은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사상의 기치밑에 새 사회, 새생활을 건설하며 특히 정치적자주성,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많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책동을 반대배격하고 자기 나라에 기여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간첩무리들을 추방하는 단호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나가고있다.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확고한 자주의 길로 나갈데 대한 립장을 천명하고 대내외정책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민족들과 인민들이 자기 힘을 자각하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체의 신념에 기초하여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은 정치적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많은 신흥세력나라들은 《자체의 로력과 자원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 《먹고 입고 쓰고사는 세가지 문제를 자급자족하자!》라는 구호밑에 민족경제의 토대를 쌓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있다. 새로 독립한 적지 않은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여 국유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제부문을 창설해나가고있으며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등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수많은 신흥세력나라들에서 그 전날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중공업, 경공업부문들이 생겨나고있으며 민족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남겨놓은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민족경제의 믿음직한 토대를 성과적으로 마련해나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문화분야에서도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자체의 민족문화를 건설해나가고있다.

일련의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하고있던 방송국, 극장, 영화관 등 문화기관들을 국유화하고 서방출판물들과 영화들이 들어오는것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아내고 민족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있다. 또한 민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자체의 민족간부를 훌륭히 키워나가고있으며 지난날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헤매던 인민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이 더욱 높아가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국제무대에서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자주독립국가로 당당히 국제무대에 진출한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국제관계와 국제문제해결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자주성의 원칙에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은 지난날의 식민주의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독점과 략탈, 통제와 억압의 도구로 리용되여온 낡은 국제관계질서를 허물어버리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공동투쟁은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에 심대

한 타격을 주고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를 더한층 심화시키고있으며 인류력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자주, 자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줄기찬 혁명투쟁에 의하여 세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그 변혁과정은 급속히 촉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 그리고 불멸의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오늘 세계의 이목은 《주체의 조국》, 《천리마 조선》으로 쏠리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우리 인민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동지들과 벗들, 지지자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광범히 조직되고있으며 이와 같은 지지와 련대성운동은 민족국가단위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규모에서 조직화되여나가고있다.

오늘 세계의 모든 대륙과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거대한 변혁과 사변들은 주체사상, 자주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으며 인민대중은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 반제자주의 길을 따라 싸워나갈 때만이 착취없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고 세계혁명에도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투쟁의 진리와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조선혁명과 인류해방 위업에 찬연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를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더없는 민족적 긍지이며 영예이며 행복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안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하여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주체조선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야 하며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변할수 없다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의 모든 선량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엄중히 도전해나서고있다.

얼마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팀 스피리트 78》이라고 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모험적인 《한미련합작전훈련》을 벌리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불장난이 마치 그 어떤 《방어》를 위한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을 위한것이기나 한듯이 거짓을 꾸며대였다.

이번 군사연습소동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무력공갈책동이며 괴뢰도당을 부추겨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흉악한 책동이다.

군사분계선가까이에서 진행된 미제의 도발적인 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도전하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 선량한 인민들의 념원을 유린하는 극히 모험적인 전쟁연습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 조선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한미련합작전훈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미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또 변할수 없다는것을 산증거로써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미제가 조선에 대한 흉악한 침략야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며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도사리고있는 한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수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참화에서 벗어날수 없고 분렬로 말미암아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적 고통과 불행은 가셔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다.

지난 시기 인류에게 류현적인 참화를 거듭 들씌워온 미제는 끊임없이 침략과 전쟁의 피비린내나는 력사를 엮어나가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은 특히 조선에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조선정전이래 최대규모의 《한미련합작전훈련》은 날로 더욱 강화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의 뚜렷한 표현이다.

미제는 이 군사연습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일본본토와 오끼나와, 필리핀을 비롯한 태평양지역에 있는 미륙해공군, 해병대와 남조선괴뢰군주력부대 도합 10만명이상의 대병력을 동원하고 핵로케트, 핵공격용 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 등 여러가지 핵공격무력을 비롯한 많은 현대적인 살인무기들을 투입하였다.

미군과 괴뢰군의 모든 군종, 병종들이 다 동원되고 《지상작전》, 《상륙작전》, 《폭격훈련》, 《락하산, 중장비투하 훈련》등 모든 작전을 포괄한 《한미련합작전훈련》은 하늘과 땅과 바다로부터 공화국북반부를 공격하기 위한 광란적인 전쟁소동이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본격적인 《예비전쟁》, 《시험전쟁》이였다.

특히 이 전쟁연습에서 핵탄두를 발사할수 있는 《랜스》미싸일발사훈련을 진행한것은 조선에서 핵전쟁까지도 일으키려는 미제의 검은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이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이 조선에

서 핵전쟁을 유발할수 있고 세계적인 핵참화를 가져올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 군사연습과 관련하여 미제의 군사우두머리들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계속하며 남조선을 무력으로 《수호》할데 대하여 폭언을 늘어놓은것은 이 군사연습의 도발적성격을 더욱 명백히 하였다.

《한미련합작전훈련》은 《평화》의 탈을 쓰고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제의 《량면전술》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평화》에 대하여 많이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군사연습은 미제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그의 침략적야망은 변함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침략과 전쟁 준비를 다그치면서 《평화》의 연막을 두텁게 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 때 그 소음속에서 전쟁의 흉악한 계획이 빚어진다는것을 력사적사실들은 보여주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수호자》의 탈을 쓰고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며 《친선》의 미소를 지으면서 칼부림을 한 범죄의 행적을 한두번만 남기지 않았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결코 평화를 바랄수 없다.

제국주의는 자신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평화》의 구호를 웨치는것이다.

미제가 떠드는 《평화전략》은 곧 위장된 전쟁전략이며 《평화》의 론리는 곧 전쟁의 론리이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리이며 체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을 본업으로, 자기의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고있습니다.》

제국주의정책은 독점의 정책이며 독점의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이다.

제국주의정부는 독점의 리익을 대변하며 독점의 팽창주의적요구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린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는 있을수 없다.

가장 야수적이고 횡포한 제국주의인 미제국주의가 걸어온 력사는 다른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과 략탈의 력사이며 피비린 살륙과 강탈의 력사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야수적 본성은 그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보다 교활하고 악랄한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침략전쟁들은 례외없이 그들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발악적책동의 산물이였다.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있는 미제국주의는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고있다.

미제의 이른바 세계전략은 그들의 이와 같은 처지와 야망을 반영하고있다.

오늘 미제는 의연히 온 세계를 자기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변함없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만하게도 세계를 《지도》할 미국의 《책임》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힘의 배양》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맹자》들과의 《제휴》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력량을 반대하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와해하는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있다. 미제의 세계전략이야말로 오만한 《힘》의 전략이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침략전략이다.

미제는 아세아에서도 《힘》으로 저들의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그들은 아세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존재》를 유지하고 미국의 《국가적리익》을 지키겠다고 하고있다.

실제로 미제국주의자들은 항공모함들을 비롯한 7함대함선들, 잠수함들, 전술비행대들, 상륙대기부대들, 해병 사단과 려단 등 수많은 침략무력을 태평양지역에 무기한으로 유지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동북아세아지역에만 14만 5천명의 무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있다. 이것은 아세아에서 《힘》으로 식민주의지배를 유지하려는 미제의 계획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세계전략과 아세아전략에서 조선은 가장 중요한 대상의 하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파산몰락되고있는 자기의 식민지지배체계를 수습하기 위한 중요한 지탱점으로서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틀어쥐려 하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 패배를 거듭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군사적거점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고 아세아의 혁명력량을 견제하며 이 지역에서 식민주의지배를 유지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침략적목적밑에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하고 이곳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영원히 틀어쥐며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조선에 대한 분렬과 전쟁 로선을 실현하는데 《철군》의 간판을 리용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라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못이겨 《철군》문제를 들고나오게 되였다.

현 미국대통령 카터는 이전에 남조선으로부터 짧은 시일안에 핵무기와 미군을 철거시키겠다는것을 거듭 말하였다. 이것은 환영받을만한 일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카터의 행동은 말과는 다르게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당초의 공약대로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와 모든 미군무력을 철수시키는것이 아니라 해군, 공군을 비롯한 많은 무력을 계속 남겨두고 지상군만 4~5년내에 《조심스럽게 서서히 정세를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되 그것마저 주력부대는 마지막까지 남겨둘것이라고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불충분한 《철군계획》마저 제대로 실제행동에 옮기려 하지 않고있다.

도리여 지금 《철군》의 막뒤에서는 무력증강책동이 추진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무력을 보강하고 그 공격력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보완조치》라는 이름밑에 남조선괴뢰도당에게 거액의 군사원조를 퍼부으며 수많은 현대적무기들을 넘겨주고 그 전쟁잠재력을 늘여주고있다.

미국은 앞으로 수년동안에 수십억딸라의 군사원조를 들이밀어 각종 미싸일과 전투기, 함선과 땅크 등 살인수단들과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또한 조선주변의 미군기지들에 륙해공군의 대부대들을 대기시켜놓고 유사시 《기동타격력》으로서 조선에 즉시 출동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군》이란 결국 배비변경과 증강을 내용으로 하는 미군무력의 전략적재포치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강점정책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도 없다.

미제가 《철군》을 떠들면서 일본반동들을 새로운 전쟁 도발음모에 끌어들이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조선침략에서 한몫 보려는 야심밑에 일본반동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범죄적흉계를 실현하는데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다.

미제는 미일《한》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을 조선침략을 위한 발진기지, 병참기지, 후방기지로 리용하며 일본 《자위대》무력까지 조선전선에 동원하려 하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일대에서 남조선괴뢰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군사연습

이 빈번히 벌어지고있으며 이번 《한미련합작전훈련》에서 일본본토와 오끼나와가 직접 그 기지로 리용된것은 우연하지 않다.

모든 사실은 미제가 떠드는 《철군》이란 결국 그들의 《힘》의 정책의 변종이며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음모를 가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전쟁도발준비책동을 그 무슨 《남침위협》에 《대처》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공약리행》을 위한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허위와 기만으로써는 사실을 감출수 없다.

이미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조선에서 《남침위협》이란 존재한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오직 북침위협만이 커가고있다.

이른바 《힘의 균형》이란 침략전쟁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공약리행》이란 조선에서 침략과 간섭의 손을 떼지 않고 지난 조선전쟁과 같은 범죄행위를 또다시 감행하겠다는것을 말하여줄뿐이다.

《철군》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준비책동은 그들이 평화유지에 관심이 없으며 오직 《힘》의 립장에 서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긴장완화》,《군비통제》에 대한 요란한 부르짖음속에서 미국력사상 류례없는 대대적인 군비증강책동이 벌어지고있다.

미국의 현 집권자들은 미국의 군사비를 50억~70억딸라 삭감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어제의 공약은 오늘 휴지로 변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예산은 1977회계년도에 1천 60억딸라였다면 1978회계년도에는 1천 180억딸라로, 1979회계년도에는 1천 284억딸라로 급격히 늘어나 《미국력사상 최대규모》의것으로 되였다.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미제는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퍼부어 순항미싸일, 중성자폭탄, 《트라이덴트》잠수함, 《엠 엑스》대륙간탄도미싸일 등 최신식 대량살륙무기들을 개발하고있다. 이것은 입으로는 군비축소를 부르짖으면서 행동으로는 군비증강을 다그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 책동의 일단이다.

미제의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군비경쟁과 무기개발은 《힘》에 의한 세계정책수행에 복무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구라파에서 나토무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아세아에서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일층 강화하며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막대한 무기를 대주어 이 지역들에 전쟁의 온상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조선과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미제야말로 평화의 파괴자이며 침략의 원흉이며 전쟁광신자이며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려 《평화의 수호자》로 가장하여도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2

미제국주의는 남의 나라의 재부를 긁어가고 인민의 피땀을 빨아먹는 가장 큰 착취자, 략탈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략탈할것이다.》

착취와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며 타고난 본성이다.

미제국주의는 원래 침략과 략탈의 피거름속에서 태여나고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살쪄왔다.

미제가 자랑하는 거대한 재부는 허공에서 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

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의 산물이다.

남의 나라를 략탈하고 착취하는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오늘 카터정권은 자기를 세계인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인조자》로, 《은인》으로 광고해나서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략탈적본성을 가리우고 세계인민들을 더 많이 착취하고 략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미국경제는 생산의 침체와 실업의 증대, 통화팽창에 원료난, 연료난까지 겹쳐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있다. 안정된 원료 및 연료 원천지와 시장을 확보하며 경제적난국에서 헤여나는것은 더욱더 어렵게 되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명줄을 걸고있는 미국경제는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서방제국주의경제체계에서 차지하는 미제의 지배적지위는 점차 약화되고있으며 《동맹국》들과의 경쟁에서도 미제는 계속 밀려나고있다.

이런 처지에서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세계를 예속시키며 남을 착취하고 략탈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더욱더 악랄하고 교활해지고있다.

카터정권의 대외경제정책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낡은 착취체계에 계속 얽매여놓고 가혹하게 략탈하며 서방세계에서 자기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통제와 예속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해외략탈정책은 남조선에서도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실시되고있다.

남조선은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군사전략적기지일뿐아니라 아세아에서 경제적 팽창과 략탈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값눅은 로동력을 탐내고있으며 대륙붕지역에 매장되여있는 석유자원에 눈독을 돌이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략탈정책의 본질은 남조선경제를 튼튼히 틀어쥐고 저들의 전쟁정책수행에 철저히 종속시키며 나아가서는 괴뢰정권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일층 강화하자는데 있다.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고 략탈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원조》와 《협력》의 간판밑에 진행되고있다.

미국의 독점체들은 《원조》와 《협력》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전횡을 부리며 엄청난 독점적고률리윤을 짜가고있다.

미국의 독점체들은 국가자본과 함께 남조선에서 직접투자를 늘여 값눅은 로동력을 착취하고있다.

미제의 독점회사들은 남조선로동자들에게 하루 12~16시간의 고된 로동을 강요하면서도 자기 나라 로동자들에게 지불하는것보다 5분의 1~10분의 1도 못되는 기아임금을 주며 그것마저 제대로 치르지 않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직접투자의 리윤률은 미국본토나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보다 몇곱절 더 높으며 여기에서만도 미제는 해마다 수많은 리윤을 짜가고있다.

그들은 또한 저들의 독점적지위를 리용하여 잉여공업상품과 농산물 같은것을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있다.

미제의 가혹한 략탈과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한심한 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경제는 외래독점체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여있으며 그들의 원료와 연료, 부속품과 설비에 의거하지 않고는 단 한시도 움직일수 없다.

중소산업은 자금난, 원료난으로 대대적으로 파산몰락하고있다.

농촌경리는 미제의 가혹한 수탈과 잉여농산물의 범람으로 여지없이 황페화되고있다.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진 남조선이 오늘은 해마다 300만~350만톤의 식

량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막힌 형편에 놓여있다.

남조선은 100여억딸라라는 무거운 외국의 빚더미에 짓눌려있으며 지금도 해마다 20여억딸라의 빚을 지지 않고는 살수 없다.

남조선은 세계적인 《부채의 왕국》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빈부의 차이는 더욱더 심해지고있으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헤매고있다.

바로 이것이 미제가 많은 《원조》를 쏟아부었다는 남조선의 실태이다.

오늘의 남조선현실은 미제의 《원조》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원조》는 결코 남을 위한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들자신을 위한것이다.

그것은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이며 침략과 략탈의 도구이다. 미제는 《원조》를 식민지통치를 유지공고히 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으로, 팽창과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남을 예속시키며 략탈하고있다.

딸라를 미끼로 남을 나꾸어 저들의 지배와 예속의 쇠사슬에 얽매여놓고 최대한의 착취와 략탈로 치부하는것, 이것이 미제가 추구하는 《원조》와 《협력》의 진짜목적이다.

남조선은 지금까지 미제로부터 근 140억딸라의 《원조》와 여러가지 《협력》을 받았다고 하지만 빼앗긴것이 받은것보다 더 많다.

미제의 《원조》로 덕을 보았다면 그것은 극소수 매판자본가들과 친미반동관료배들뿐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빌붙어 계속 《원조》를 구걸하며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외세에 송두리채 내맡기는 매국배족행위이다.

《원조자》의 탈을 쓴 미제의 착취와 략탈 행위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미제는 이 지역에 자기의 명줄을 걸고있다. 3대륙에서 미제는 해마다 중요한 전략자원을 비롯한 수많은 자원을 략탈해가며 막대한 리윤을 얻고있다.

이 생명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미제는 기만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써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계속 유지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자기의 독점적 리권과 지위를 보존하며 이 지역 나라들을 안정된 원료원천지로 묶어쥐고 계속 략탈하기 위한 흉악한 책동이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사이의 경제적리해관계문제인 《남북문제》해결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취하고있는 립장도 다른것이 아니다. 미제는 《시장개방》,《개발자금의 증대》,《공동기금설정》, 《특혜조건의 제공》 등 허울좋은 명목으로 마치도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척하면서 종전과 같이 이 나라들의 자원을 략탈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최근년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엄중한 식량난을 겪고있는것을 기화로 하여 식량을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목적에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식량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척하면서 막대한 초과리윤을 짜내고있으며 그것을 내정간섭과 압력의 도구로 삼아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롱락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식량과 함께 무기수출로 굉장한 돈벌이를 하고있다. 한때 카터는 무기수출을 《너절한 영업》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에 와서 《미국은 무기조달을 대외정책의 특수수단으로 간주하고 요긴하게 써먹을것》이라고 하면서 무기장사를 조장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세계경제의 《경기회복》과 《번영》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른바 《3대기관차론》을 들고나오고있다.

미국, 서독, 일본이 함께 《협력》하여

자본주의세계경제를 이끌고나가야 한다는 《3대기관차론》도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략탈하기 위해 꾸며낸 미제의 《고안품》이다.

이것은 미국의 지휘봉밑에 자본주의나라들을 묶어세워 련합된 세력으로 현대자본주의경제의 총파산을 막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려는 반동적인 책략이다.

미제는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이 발전하여 미국을 뛰여넘어서지 못하게 하며 서방 《동맹국》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기 위하여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여기에서 미국은 이 나라들에 인위적으로 경제적 혼란과 위기를 조성해놓고 도와주는척 하면서 끌어당기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교활한 수법까지 쓰고있다.

실로 미제의 착취적, 략탈적 야욕에는 한계가 없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피와 땀을 그처럼 악착스럽게 빨아내여 딸라주머니를 불구면서도 오히려 《원조자》로, 《은인》으로 자처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가.

그 무엇으로써도 미제야말로 가장 큰 국제적착취자이며 략탈자라는 엄연한 사실을 가리울수 없다.

3

미제국주의는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교살하며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흉악한 국제헌병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모든 국제문제들을 좌지우지하려는것은 미제국주의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이후 수많은 나라들을 예속시키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온갖 전횡을 부려왔다.

미제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은 오늘도 의연히 계속되고있다.

미국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카터는 미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고도,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려고도 하지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면서 온갖 전횡을 부리던 미제가 세계제패의 야망을 버리고 국제헌병의 역할을 더는 놀지 않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자기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변함없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을 예속시키고 통제하려는것은 미제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의 발현이다.

미제가 제국주의로 남아있는 한 국제헌병으로서의 책동도 없어질수 없다.

미제는 오늘도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는데서 폭력을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다.

무력으로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누르며 그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것은 미제국주의가 의거하고있는 기본전략의 하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의연히 총칼로 인민들을 다스리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그들의 진출을 억누르려 하고있다.

오늘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벌려놓은 미제의 군사기지는 침략과 전쟁의 거점인 동시에 현지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기세를 막기 위한 국제헌병대의 전초기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그 어디에서보다 더 로골적인 강점정책을 실시하면서 남조선의 온 강토를 군사기지로, 병영으로 뒤덮고있다.

미제의 군사기지로 전변된 남조선은 조선에서 새 전쟁의 발원지로 되고있을뿐아니라 동북아세아지역에서 낡은 세력을 유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신생력량의 진출을 가로막기 위한 지탱점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정책은 미제가 남의 나라 령토를 빼앗고 인민들을 탄압하며 제멋대로 날치던 지난 시기의 강도적수법을 오늘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는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할뿐아니라 더욱더 간교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파괴암해활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파괴암해활동을 강화하면서 인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독립을 위협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말살하려 하고있다.

특히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경제적생명선을 쥐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을 이루고있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그 기본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친선》이니 《민족자결권의 존중》이니 하는 간판을 들고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릴 때에는 경제적압력을 가하고 지어 로골적인 군사적위협공갈도 서슴지않고있다.

미제는 또한 반동들을 매수하고 부추기면서 정부요원암살, 정부전복음모, 내부교란, 정당, 사회단체들에 대한 습격, 개별적정치사회활동가들에 대한 테로 등 각종 파괴암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전복활동으로 인련의 나라들에서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것을 좌지우지하고있다.

미제는 괴뢰들을 틀어쥐고 저들의 하수인으로 부려먹다가도 그들이 쓸모없게 될 때에는 주저없이 전복음모를 꾸며 새로운 괴뢰로 갈아대고있다.

미제의 내정간섭행위와 파괴암해활동으로 사실상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어느 하루도 소요와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주권을 유린당하거나 침해당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쁠럭불가담나라들,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벗》으로 자처하고있는 미제가 말하는 《자주권》과 《독립》에 대한 《존중》이며 《친선》과 《협조》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간섭과 통제와 파괴책동에서 정보모략활동은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은 미제의 파괴암해활동과 정보모략활동의 총본영이며 집행자이다.

미중앙정보국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감행한 범죄행위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로부터 오늘 미제는 이른바 《비밀이 없는 정치》라는 구호를 들고 정보모략기구의 《개편》놀음을 벌리면서 마치도 정보모략책동을 줄일듯이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미제의 비밀활동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되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의 검은 촉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곳곳으로 계속 뻗쳐나가고있다. 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수를 통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간섭, 정탐, 살인, 파괴, 소요, 와해, 전복음모와 같은 온갖 범죄적인 모략행위를 쉬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지어 국제기구들까지 손아귀에 넣어 리용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국제기구들을 자기의 통제밑에 두려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내놓고 위협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동을 서슴지않고있다.

미제는 또한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불화와 알륵, 분렬과 리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분할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은 로골적인 무력침공과 함께 언제나 분렬리간책동을 침략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삼아왔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분렬리간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특히 미제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반제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분렬와해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들을 분렬리간시키기 위하여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령토문제, 신앙과 제도의 차이, 경제적 조건과 발전수준의 차이, 인종관계 등을 교묘하게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교활한 수법으로 나라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서로 반목질시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정치, 군사적 대결에까지 이르게 하고있다.

인민들사이의 단결을 파괴하는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사실상 국부적인 분쟁이 그칠 사이가 없다. 이것은 자주, 독립,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적지 않은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미제의 분렬책동은 조선에서 가장 엄중하게 감행되고있다.

미제는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상투적 수법에 아메리카식 파렴치성과 강도성을 결합하여 우리 나라에서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범죄적인 음모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리간시키는 분렬정책도 아니며 그 어떤 다민족국가를 갈라놓는 분렬정책도 아니다. 그것은 력사적으로 한강토우에서 단일한 국가를 가지고 같은 문화와 력사를 창조하면서 함께 살아온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억지로 갈라놓는 날강도적인 분렬정책이다.

이것은 력사상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이 실시해온 분할통치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한 분렬정책이다.

조선인민과 같은 단일한 민족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으려 하는것은 침략의 원흉이며 흉악한 분렬주의자인 미제가 아니고서는 감히 할수 없는 행위이다.

미제는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모략을 꾸미고있다.

그들은 이른바 큰 나라들에 의한 《국제적조정》이 조선문제해결의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 황당한 론거를 내들고 이른바 《교차승인》이니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이니 남조선의 《유엔단독가입》이니 하면서 우리 나라를 영구히 둘로 갈라놓으려 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영원히 자기 손에 틀어쥐며 조선의 통일을 막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앞에 저지르고있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며 조선의 통일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이다.

4

미제국주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흉악한 교살자이다.

카터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후 미제의 우두머리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는 반공모략소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궁지에 빠진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지배층의 새로운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일떠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있다. 동남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과 《푸에블로》호사건, 《워터게이트》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적책동들을 통하여 침략자로서의 미제의 흉악한 정체와 취약성, 미국지배층의 추악한 몰골이 남김없이 드러났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국내적으로 극도로 고립되였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으로서 들고나온것이 카터의 《인권옹호》, 《인권외교》의 간판이다.

미국지배층은 《인권옹호》라는 간판을 들고 침략자, 략탈자, 인권유린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감싸며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세계인민

틀속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체면을 추세우고 반미감정과 반미투쟁을 무마시키며 다른편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고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결국 미제의 《인권외교》란 무력으로 이룩할수 없는 침략적목적을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이다. 그것은 미제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힘의 정책》의 장식물인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기만술책으로써도 인권유린자로서의 저들의 진면모를 숨길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괴뢰국가들입니다.》

제국주의와 인권, 이것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극악한 인권유린자이다.

미국은 원래 수천만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 무덤우에 세워진 나라이며 그 지배계급은 흑인들을 노예화하고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빨아먹으면서 살쪄왔다.

오늘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유린에서 노예상인의 후예로서의 악명을 떨치고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사회적불평등과 빈부의 차가 제일 심한 나라이다.

한줌도 못되는 억만장자들이 모든 권리를 독차지하고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인간의 존엄은 짓밟히고있다.

미국의 수천만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란 한갖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맥카시법》을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과 미련방수사국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이 진보적인사들과 근로자들의 인권을 짓누르고있다.

특히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일상적현상으로 되고있다. 피부색이 다른것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공직과 거주, 교육을 비롯한 여러가지 면에서 차별과 제한을 받고있을뿐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도 백인들의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있다.

남녀불평등은 물론 녀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가장 파렴치한 행위가 감행되고있다.

미국에서 돈많은 소수특권계층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수천만 근로자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기아와 빈궁,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허매이고있다. 7백만의 실업자와 2천 7백만의 극빈자가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으며 7백만세대가 쓰지 못할 집아닌 집에서 살고있다.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이 배움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소수착취계급들은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데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향유하지 못하고있는 사회, 피부색이 다르다는 한가지 리유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회, 억만장자들은 호의호식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사회,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마구 탄압하는 사회,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미국사회의 통치자들이 감히 인권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인권에 대하여 말할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뿐아니라 남조선, 칠레, 브라질을 비롯한 저들의 괴뢰국가들과 예속국가들에서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인권을 여지없이 유린하고있다.

미제의 지배밑에 있는 남조선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심한 인권유린지대로, 민주주의의 페허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악독한 파쑈통치제도인

《유신체제》가 벌써 여러해째 계속되고 있다.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권이 완전히 짓밟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말살되고있다. 《긴급조치》의 련이은 발동과 매일과 같이 일으키는 검거선풍, 거듭되는 정치재판으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 무고한 주민들이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고있다. 인간이 있어도 인권이 없는 남조선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되고있다.

중세기의 암흑시대도 아닌 20세기에 민주주의가 횡포한 관권의 제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과 같은 혹독한 인권유린지대가 지구우에 있다는것은 인류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세계의 선량한 사람들과 공정한 사회여론은 한결같이 남조선에서의 암흑통치,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를 규탄하고있으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런데 유독 인권에 대하여 그처럼 요란하게 광고하는 미제의 우두머리들만이 이에 대하여 아닌보살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미제국주의자들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참말로 관심이 있다면 카터가 말하는것처럼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보편성을 가지고있는것이 사실이라면 그 보편성이 증명되여야 할 첫째가는 대상은 바로 남조선일것이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묵과하여왔을뿐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부인해보려고까지 하고있다.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 그들은 《정치범들로부터 고문에 의한 피해의 보고가 있지만 미국정부로서는 한국에서 고문이 실행되고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있다.

고문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언제나 적용하는 수단이다.

그들은 불고문,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하여 사람에게 육체적고통과 심리적고통을 주기 위한 수십가지의 야만적인 고문방법을 적용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고문뿐아니라 테로, 암살, 랍치 행위도 서슴지않고 감행하고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처럼 애국적인민들과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탄압으로 명줄을 이어가는 포악무도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 지배층이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이를 비호하는것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다.

미국지배층은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인권유린행위를 비호하고있는 저들의 모순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리저러한 구실을 꾸며대고있다.

그들은 《안보》와 인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있다.

《안보》는 미제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틀어쥐기 위하여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쥐어준 침략의 구호이다. 남조선에서 파쑈테로통치와 악독한 인권유린행위는 《안보》의 구실밑에 합법화되고있다.

압제자의 하정밑에 억눌려있는 남조선과 같은 사회에는 적용될수 없는 《인권》이라면 그것이 무슨 인권인가. 그런것을 가지고서 《인권외교》요 뭐요 하는것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것이다.

미국지배층은 미국의 《인권운동》이 《정치적소동》이 일어나고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처럼 인권문제가 심각하고도 첨예한 정치적문제로 나서고 있는곳은 없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인권소동이 없는것처럼 꾸며보이려고 애쓰고있으며 내외여론이 떠들고있는 《김대중사건》에 대해서조차 모르는체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의 인권구호의 기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이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일은

미국지배층이 모르게 박정희괴뢰도당이 혼자서 하는것이 아니다.

남조선《정권》은 미국이 만들어내고 미국의 군사력에 의하여 지탱되고있으며 미국의 경제력에 의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미국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식민지괴뢰정권이다.

만약 미국지배층이 진실로 인권유린행위를 막을 생각이 있다면 남조선에서 정치적반대파와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인권침해행위를 능히 저지시킬수 있다는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인권외교》의 《보편성》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대는 미국의 현지배층이 괴뢰들의 인권유린행위를 감싸주는것은 그들이 표방하는 《인권외교》가 가짜이며 휴지장만도 못하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행위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자체의 산물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

8. 15후 광범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진출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파쑈테로통치제도를 조작해낸 장본인이 바로 미제이다.

오늘 가장 횡포한 인권유린자로서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증오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길러낸것도 미제국주의자들이며 군사정변을 조작하여 그를 괴뢰정권에 들여앉힌것도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당시의 미중앙정보국장 덜레스는 회고록에서 자기의 재임기간에 해외에서 《가장 성공》한 군사정변이 남조선의 《5.16군사정변》이였다고 실토하였다.

박정희괴뢰정권을 뒤받침하고있는 무장장비도, 괴뢰들이 인민탄압에 쓰고있는 땅크와 장갑차, 최루탄, 현대적인 고문도구도 그것은 미제가 제공한것이다.

카터는 《인권외교》의 간판을 들고 세계에서 인권의 《재판관》처럼 행세하면서도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문제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떼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보호》니, 《공약》이니 하면서 괴뢰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대폭 늘이고있다.

원래 미제는 력사적으로 조선사람을 천대멸시하면서 온갖 침략책동과 만행을 일삼아온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선교사, 자선가의 탈을 쓰고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어린이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는 글을 새기며 조선사람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마구 죽이는 등 흉악한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들은 8.15후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북반부의 도시와 농촌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일시적강점지역에서 온갖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400어머니와 102어린이의 무덤을 비롯한 신천에 있는 가지가지의 증거물들은 침략자 미제의 야수적본성을 온 세상에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오늘도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살인, 강도, 방화, 폭행, 상점습격, 부녀자릉욕 등 온갖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세균무기까지 실험하고있다.

과연 카터의 정책과 그 선행자들의 정책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미제가 인권문제를 가지고 여론을 기만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5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최대의 착취자, 략탈자이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교살자, 국제헌병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극악한 유린자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검은 손길이 뻗치고있는곳마다에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강도적략탈이 감행되며 그들의 발길이 닿는곳마다에 인민들의 원한이 사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이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항시적근원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3년간의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분렬로 인하여 우리 인민은 국경이 아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친혈육들사이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있다. 오늘도 우리 나라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커가고있으며 통일이 아니라 분렬의 비극이 지속되고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빼앗기고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겪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에서 벗어날수 없고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검은 구름은 가셔질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통일은 이룩될수 없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하나의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살기 위하여 벌써 30년이상이나 투쟁하여왔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도 현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제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요구를 거역하면서 남조선에서 물러갈 대신 오히려 핵무기를 비롯한 살인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더욱더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기사건, 《판문점사건》을 일으켜 우리 나라에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미제는 남조선을 영구히 틀어쥐기 위하여 새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켜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범죄적인 책동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은 카터가 대통령으로 된 다음에도 의연히 계속되고있으며 그것은 날로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바뀌여도 정책은 달라질수 없다. 거기에서 실제로 정치를 하는것은 독점재벌이며 행정부는 독점자본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카터는 선행자들보다 더 교활하며 그의 행정부는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가장 음흉하고 악랄하게 추진시키고있다.

《철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새 전쟁 준비책동이 이것을 실증하여주며 이번에 진행된 《한미련합작전훈련》이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현 지배층도 력대집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바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전쟁소동을 벌려도 결코 우리 인민을 놀래울수 없으며 거기에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민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위협과 공갈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원쑤들의 침략과 도발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한다는 것을 여러번 보여주었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무모한 불장난을 그만두어야 하며 유엔의 결의와 자기의 공약대로 미군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미제침략군은 부분적으로 철수할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완전히 철거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철수할것이 아니라 무조건 당장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제가 물러가지 않는다면 남조선은 전쟁의 화약고로 계속 남아있게 될것이다.

미제가 끌어들인 수많은 핵무기가 남조선전역에 전개됨으로써 조선은 사실상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을 유발할수

있는 극히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미제가 누구의 독점물도 아닌 핵무기를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인다면 핵전쟁의 위험은 더욱 커질것이며 우리 나라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더욱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될것이다.

오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조선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절실히 배격하고있으며 미국안의 선량한 인민들도 이것을 반대하고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도 리로울것이 없다.

미제는 지난날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얻은것이란 수치스러운 참패와 죽음뿐이였으며 세계의 면전에서 침략자의 더러운 몰골을 드러내고 극도로 고립된것뿐이다.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쉽사리 세계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민도 무서운 참변을 겪게 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더 큰 파멸을 당하게 될것이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였다면 앞으로의 새 전쟁에서는 종국적멸망을 피할수 없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할 때 다른 나라들만 희생을 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전쟁책동을 그만두고 물러가는것은 미국자체를 위해서도 상책이며 그들에게는 이밖에 다른 출로가 없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조선침략에 추종하여 같이 춤추지 말아야 하며 조일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게 일본령토를 미군의 군사작전기지로 내여맡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와 전쟁의 위험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준비와 민족분렬 책동으로 하여 더욱 커가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세계인민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지금에도 미군이 계속 남아있어야 하며 핵무기를 내가서는 안된다고 애걸하고있으며 새 전쟁 도발에서 살구멍을 찾으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을 핵전쟁에 몰아넣으려는 흉악한 호전광이며 외세와 한작이 되여 통일을 가로막고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극악한 분렬주의자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민족분렬과 군사적모험의 길에서 목숨을 이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선은 절대로 갈라서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여야 한다.

지나온 분렬의 력사가 가져다준 재난과 고통도 헤아릴수 없이 크지만 분렬의 지속이 앞으로 가져다줄 후과는 더욱더 엄중한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켜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그 어떤 책동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인민들은 더욱 더 각성될것이며 반미반파쑈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이다.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 인민들의 반항이 있고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으로 미제를 몰아내고 투쟁으로 나라를 통일할것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원칙적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반미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싸워나갈것이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음모를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에서 평화를 수호할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위협하려 하지 않

으며 그 누구도 침략하려 하지 않는다.

《남침위협》이란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며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인민들이 고통을 겪고 국토가 파괴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위협과 침략은 우리 당의 정책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우리 나라는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 나라이며 우리 인민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이다.

우리는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평화를 주장하며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평화를 고수하려는 우리의 지향과 념원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누구를 먼저 다치려 하지 않지만 그 누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철저히 소멸할것이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커다란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를 매우 귀중히 여기며 모든 반제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조국통일위업성취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미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 인민들을 침략하고 예속하며 략탈하고 탄압하며 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인류공동의 원쑤이다.

미제국주의는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자기들의 처지를 되돌려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바로 미제의 침략과 략탈로 말미암아 세계인민들은 한시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새생활을 위한 그들의 정당한 투쟁은 커다란 지애를 받고있다.

세계인민들은 민족적독립과 번영,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미제국주의는 전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국가사회정치제도나 정견과 신앙의 차이, 오늘의 처지나 형편에 관계없이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의 공통적인 과업이다.

미제에 대하여 어떤 립장을 취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진정으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가 안지키는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는가 안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그 누구도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외면하거나 회피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이나 기대도 가져서는 안되며 언제나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오직 미제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야만 미제의 침략과 략탈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평화와 민족적독립을 지킬수 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날뛰면서 인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앙양되는 해방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멸망하는자들의 마지막발악

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며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기본추세이다.

＊ ＊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첨예하고 긴장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

승냥이는 결코 양으로 변할수 없으며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달라질수 없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침략자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북반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반제반미교양, 반수정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다 제국주의를 끝없이 미워하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신성한 민족적권리이며 의무이다.

자주의 혁명적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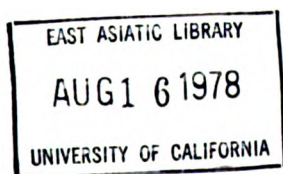
(《로동신문》에서 전재)

근로자 1978년 제4호 (루계 432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8년 4월 1일 발 행 • 1978년 4월 5일

ㄱ-8578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5 호(433)

차 례

김 일 성

상업부문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도인민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 하신 연설 1962년 4월 8일

이번 도인민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는 평양시 인민위원회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상업부문사업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높이는 좋은 강습으로 됩니다.

최근 몇해사이에 상업부문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업류통부문사업에서는 아직도 고쳐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상업류통부문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을 하루빨리 고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상업류통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인민위원회 일군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도 상품이 모자라서 상업이 잘 안되는것 같이 생각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전과는 비할바없이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있습니다. 지난날보다 농산물은 몇배 더 생산하고있으며 경공업제품은 몇십배나 더 생산하고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점들에는 아직 일용품이 많지 못하며 때로는 고기와 남새 같은것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많이 생산되는데 왜 상점에는 물건이 적은가 하는 의문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리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는 해방전의 사회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해방전에는 상품을 돈많은 소수의 특권계층들이나 많이 샀지 절대다수의 가난한 근로자들은 살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점에는 늘 상품이 쌓여있었으며 마치 물건이 흔한것 같이 보였습니다. 고기를 하나 놓고보아도 해방전에 지주, 자본가 놈들은 매일같이 불고기도 해먹고 료리집에 가서 무슨 고기든지 마음대로 사먹었지만 근로자들은 1년내내 고기붙이 한점 먹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

기를 병원, 료양소, 휴양소들과 중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적은 량이나마 모든 근로자들에게 물고루 공급하고있습니다. 탄광, 광산 로동자들이 지난날에는 지하에서 말할수 없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고기는 말할것도 없고 밥도 배불리 먹을수 없었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로동보호물자로 고기를 무상으로 공급받고있습니다. 그러니 상점들에 고기를 내놓고 파는것이 좀 적을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점들에 내놓고 파는 상품이 비록 풍족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근로자들은 지난날보다 몇배나 더 많은 생활필수품을 공급받고있습니다. 물론 빨리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수요에 비하여 볼 때 상품공급이 뒤떨어지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인민들의 상품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리만큼 생산력을 발전시키면 원만히 해결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업부문사업에 부족점이 있다고 하는것은 상점들에서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팔지 않는다고 하여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상점에 쌓아놓고 파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생산한 상품을 사회주의적원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잘 공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상업부문에서 나타나고있는 주요한 부족점은 있는 상품을 근로자들에게 잘 공급하지 못하는것입니다.

상업부문일군들의 열성과 책임성이 높지 못한데로부터 인민들에게 상품을 더 잘 공급할수 있는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것이 적지 않습니다.

해방전에는 물고기를 한해에 30만톤밖에 잡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60만~70만톤이나 잡고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량이 아닙니다. 상업부문일군들이 공급조직을 잘한다면 이것을 가지고도 인민들에게 사철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에는 미처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공급하고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에는 거의 공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밭면적은 일제때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상점에는 과일이 자주 떨어지군합니다. 지금 과일을 좀 수출하고있지만 상업부문에서 사과, 배, 딸기, 추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일들을 제때에 수매하여 잘 보관하고 계획적으로 공급한다면 상점들에 과일을 떨구지 않을수 있습니다.

해방전에 장사군들은 광목이나 몇가지 보잘것없는 천을 가지고도 샤쯔같은것을 곱게 만들어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군들은 질좋은 여러가지 천을 많이 생산해주어도 옷을 곱게 만들어팔지 못하고있습니다.

일군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다보니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비하여 상점들에 물건이 적고 또 상품의 질도 낮습니다.

상업부문일군들은 상품보관도 되는대로 하고있습니다. 해방전에 개인상인들은 미역같은것도 잘 펴서 먹음직하게 해놓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점들에 가보면 미역을 잘 거두지 않아 볼품이 없이 된것을 팔고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고기같은것도 인민들에게 더잘 공급할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있습니다.

려관과 식당도 많이 지어놓았으나 잘 관리하지 않고있으며 음식의 질도 낮고

손님들에 대한 봉사성도 높지 못합니다. 평양국수맛도 그전만 못합니다. 국가에서 큰 집을 지어주고 재료도 넉넉히 공급해주고있지만 국수를 그전과 같이 맛있게 만들지 못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인들은 조금이라도 리익을 더내기 위하여 궁리를 많이 하고 손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상업을 국가가 경영하기때문에 물건이 팔리고 안팔리는것이 상업일군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리해관계가 없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상업일군들은 물건이 잘 팔리건 안팔리건 국가에서 일정한 로임을 받습니다. 상업이 잘 안되면 손해는 국가와 인민들이 봅니다. 이런데로부터 각성되지 못한 일부 상업일군들은 손님들에게 더잘 봉사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 않으며 지어 어떤 상업일군들은 세도까지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업일군들이 아직 국가와 인민의 립장에 서지 못하고 고용살이식으로 일하는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입니다.

상업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한다면 많은 상품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으며 상점을 더 알뜰히 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성도 더 높일수 있습니다. 상업일군들이 옳은 관점을 가지고 애써 노력한다면 자본가들보다 상업을 훨씬 더 잘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상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봉사성이 높은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인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생각이란 티끌만큼도 없으며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속여서 더 많이 착취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을뿐입니다. 그들의 친절성이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많이 긁어내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의 상업기관은 오직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봉사기관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상업기관들과 상업일군들의 기본임무는 인민들의 생활을 잘 돌보는것입니다. 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상업기관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되며 인민들이 잘살고 못사는것은 상업일군들의 역할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상업에 대한 지도는 인민위원회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공업과 농업을 지도하는 전문적인 기관들이 있는 조건에서 인민위원회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첫째가는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위원회가 상업기관들을 틀어쥐고 상품공급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근로자들의 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습니다.

상업이 잘되여야 생산도 잘될수 있습니다. 상업은 생산과 소비를 련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상업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생산된 제품을 근로자들에게 원만히 공급할수 있을뿐아니라 생산에 큰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상업기관들은 생산자들에게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더 많이 만들며 상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도록 일상적으로 자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생활이 높아지는데 따라 여러가지 질좋은 상품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상업기관의 임무와 역할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생산된 물건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고 공급

하는 기관은 계속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없을수 있어도 공급부문일군들은 계속 필요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상업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감과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일부 당, 정권기관 일군들도 상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다보니 상업기관들의 사업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상업부문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상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아야 하며 상업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상업부문사업을 쉬운 일로 생각하면서 이 부문에 좋은 간부를 잘 배치하려 하지 않으며 지어는 다른데서 일을 잘하지 못하여 밀려난 사람들을 상업기관에 보내고있습니다. 이것은 다 상업을 소홀히 여기는 그릇된 사상의 표현입니다. 상업에 대한 지도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부문사업을 개선할수 없습니다.

상업기관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상업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상업일군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봉사일군인것만큼 누구보다도 리기주의가 없어야 하며 국가와 인민에게 복무하려는 각오가 높아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상업일군들을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고상한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서 높은 창발성과 봉사성을 기대할수 없으며 상업기관들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러저러한 부정행위도 막을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상업을 잘 운영하려면 상업일군들이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리기주의사상을 가지고는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없습니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일제와 싸워 조국의 해방을 이룩한것도 그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혁명정신이 강하였기때문입니다. 그들이라고 하여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사는것이 좋은줄을 모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개인의 안락을 버리고 투쟁의 길에 나섰던것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어떤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모든 사업이 다 잘됩니다. 우리 당이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하여 그처럼 강조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권기관일군들과 상업부문지도일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상업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업일군들은 일상적으로 돈과 물품을 다루고있으며 집단적으로 한데 모여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몇사람씩 흩어져 일합니다. 그리고 상업일군대렬에는 사회주의개조시기에 개인상인들이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업기관들에서는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금 상업일군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잘된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에서 행정기관일군이나 공장관리일군들을 위한 강습은 자주 조직하지만 상업일군들을 위한 강습은 거의나 조직하지 않고있습니다. 상업부문일군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여야 하겠는데 당조직들에서도 그렇고 정권기관들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수만명이나 되는 상업일군들을 다 공산주의자로 만든다는것은 물론 간단한 일이 아니며 또 짧은 시일안에 할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능히 할수 있습니다. 상업일군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에서 단단히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업부문에도 유급정치일군들을 배치하든가 다른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치사업을 유급정치일군들만이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당원은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지배인도 정치사업을 하고 집장도 정치사업을 하며 상업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당원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상업기관에서도 모든 일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하며 사람들을 교양하여 그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합니다.

상업부문일군들을 잘 교양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대우를 개선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상업부문일군들은 자기 개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상업일군들의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영예로운것이며 또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건을 만드는 일보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이 더 힘들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상업부문일군들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대우를 더 높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회적으로 상업부문일군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사업을 천시한다면 누구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지난날에는 밥벌이 할곳이 없어서 천하다고 하는 일도 할수없이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일할수 있고 배울수 있는데 무엇때문에 천하다고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봉사일군들을 천시하는 낡은 관점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리발하는 사람, 구두수리하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큰 사회적문제입니다.

로동은 다 신성합니다. 천한 로동이 있을수 없습니다. 로동을 천하게 여기며 로동하는 사람들을 깔보는것은 착취계급의 사상입니다.

상업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며 인민의 복무자들입니다. 우리 제도하에서 상업일군들을 천시할 조건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려운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더욱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속에서 봉사부문일군들을 천시하는 그릇된 관점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상업일군들을 존중하는 사회적기풍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업일군들의 영예감을 높여주는 하나의 정치사업으로 될것입니다.

상업부문일군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대우를 개선하는것이 물론 중

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상업일군들의 물질적대우를 높인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것이며 또 그들의 대우를 개선한다고 하여 상업이 저절로 잘될수는 없는것입니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상업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더잘 봉사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도록 하여야 상업부문사업이 잘될수 있습니다.

상업류통부문에서는 교양사업과 함께 검열제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교양사업만 하여가지고는 모든 상업일군들을 다 훌륭한 일군으로 키울수 없습니다. 정치사업을 강화한다고 하여 상업일군들이 하루아침에 다 공산주의자로 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양사업을 잘하는 동시에 검열제도를 엄격히 세우고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흔히 상업기관들의 사업을 인민들의 신소에 따라 평가하고있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다 정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신소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을수도 있고 또 의견이 있어도 신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수 있는것입니다. 인민들의 신소를 귀담아듣는것은 좋지만 신소 하나만 가지고 봉사성이 있다 없다 하고 상업일군들의 사업을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일군들의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인민들에게 어떻게 복무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체계적으로 검열하여야 합니다.

상업류통부문에서 지금은 검열사업이 아주 약합니다. 검열사업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기때문에 상업일군들의 사업에서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고 과오를 미리 방지할수 있는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열제도를 강화하여 상업기관들이 상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공급하며 인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는가 하는것을 일상적으로 검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상업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급양부문만 보더라도 지금 봉사일군들의 기술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때때로 혁명학원에 나가보면 부식물공급기준도 상당히 높고 부식물보장조건도 좋은데 식사의 질은 높지 못합니다. 김치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여 선것이 아니면 신것을 주고있으며 물고기도 되는대로 가공해주기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도시의 일반식당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들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 못하는것은 재료가 없거나 나빠서 그런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식료품을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급양부문에서 그것을 잘 가공할줄 모르면 인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급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급양부문에서 료리기술을 높이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식료품가공을 공업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식료품가공이 공업화된다 하여도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기술은 계속 필요하며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설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기관일군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상업류통부문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에서 상업기관들에 필요한 시설들을 잘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우선 랭동기를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상점들에 랭동시설이 제대로 되여있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고기같은것도 오래 저장할수 없기때문에 많이 잡힐 때에는 한꺼번에 많이 공급하고 잘 잡히지 않을 때에는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상점들에 랭동기를 놓아주면 근로자들에게 물고기, 두부를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정상적으로 더잘 공급할수 있을것입니다.

랭동기를 만드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매개 도에 큰 기계공장이 다 있고 랭동기설계도면도 있으므로 일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랭동기를 능히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명년에 다른 기계는 좀 적게 만들더라도 랭동기를 꼭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 공장을 하나 건설하여서라도 랭동기생산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들에는 큰 규모의 랭동창고를 하나씩 지으며 식료품을 보관하고 가공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업의 개별적부문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상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문은 식료상업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의식주문제가 기본인데 그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입는것을 먼저 꼽았지만 사실은 먹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옷이 변변하지 못한것은 좀 참을수 있으나 배고픈것은 참을수 없습니다. 사람이 배고픈것과는 타협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가까운 몇해안으로 전체 인민이 다 이밥에 고기국을 먹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이 과업을 능히 실현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있습니다. 어제 지방에서 일하는 한 일군을 만나 지금 우리 당이 전체 인민이 다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더니 모두가 다 자신이 있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이 하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이 만일 해방직후 보통강개수공사를 시작할 때나 정전직후 관개공사를 처음 할 때에 이밥에 고기국을 먹을데 대한 구호를 내세웠더라면 인민들이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였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전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를 가나 관개수가 넘쳐흐르고있으며 농사가 아주 잘됩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양덕, 맹산 같은 깊은 산골을 내놓고는 농민들이 벌써 거의 다 이밥을 먹고있습니다. 만경대를 놓고보더라도 그곳 사람들이 해방전에는 수수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였습니다. 칠골사람들도 그때에는 피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이밥을 먹고있습니다. 지난날 같으면 칠골사람들이 대동강물이 큰 고개를 넘어 칠골의 벌을 적시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을것입니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들의 집도 많이 지었습니다. 황해제철소에 가면 그전에 일제의 사장놈이 살던 집이 남아있는데 지금 농촌에 건설된 문화주택들은 그 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로동자들의 주택도 해방전 관리들의 집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이룩해놓은 업적이 크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당정책대로만 하면 앞으로 더 잘살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유족하게 하여야 하며 누구나 다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능히 실현할수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좋은 천도 많이 짤수 있고 현대적인 문화주택도 많이 지을수 있습니다. 몇해후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밥을 먹게 하는 문제도 능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게 된다고 하여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밥을 먹게 되면 다양하고 질좋은 부식물과 기호품들을 더 많이 요구할것입니다.

상업일군들은 인민들이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기와집을 쓰고사는데 맞게 식료상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량음료와 사탕, 과자, 군밤 같은것도 더 많이 공급하고 여러가지 과일을 넉넉히 공급하여 근로자들의 식생활에서 빠지는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 나라에서는 식료품가공공업이 발전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방전에는 식료품가공공업이 매우 뒤떨어진 형편에 있었으며 식료상업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때에 있었다고 하면 일본상인들이 차려놓은 과자방같은것이나 있었고 그밖에 알사탕이나 엿같은것을 좀 만들어파는 정도였습니다. 그때에는 식료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장, 기름, 두부를 비롯하여 필요한것을 거의 자체로 만들어먹었으며 상점에서는 식료품을 얼마 사다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식료품가공공업이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우리에게 식료가공에 대한 민족적유산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민은 벌써 오래전부터 장이나 두부 같은 가공식료품들을 많이 만들어먹었습니다. 이것은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들속에서 식료가공방법이 상당히 발전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선조들이 남겨놓은 훌륭한 식료가공방법들을 옳게 살리고 그것을 공업화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식료품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식료품가공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더욱 큰 관심을 돌렸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촉진되여 인민생활이 빨리 높아짐에 따라 식료상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양식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시에서는 다층주택에서 많은 세대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있으며 아침이면 남자나 녀자나 다 직장으로 나갑니다. 그러하여 장같은것을 집집마다 담그는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럴 시간도 없게 되였습니다.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게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려면 식료품가공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식료품을 제때에 잘 공급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식료공업부문일군들의 노력에 의하여 식료품생산에서 일정한 전진이 있으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식료공업은 뒤떨어진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식료품상점들에 가보면 식료상품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의 생활에 적지않은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와서 닭을 한마리 대접하려고 해도 살수 없으며 마늘이나 고추 같은 양념감도 사기 힘듭니다. 일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려고 과자나 사이다 같은것을 좀 사려고 해도 사기 힘듭니다.

우리는 이미 인민생활문제에서 많은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의식주에 대한 근심을 하지 않게 되였으며 누구나 다 일하고 배울수 있게 되였으며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들은 해결되였으나 사이다, 과자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조그마한것들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딱딱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사실 사이다나 과자 같은것은 만들기 힘든것도 아닌데 많이 만들어 상점에 내놓지 못하고있습니다. 사이다나 과자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것은 원료가 모자라거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권기관일군들과 경공업부문일군들이 인민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적게 돌리기때문입니다.

식료상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책임은 상업부문일군들에게도 있습니다. 상업기관들에서 식료품을 능히 자체로 가공하여 팔수 있는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료공장들에서 만드는 식료품만 가지고는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업기관들에서 여러가지 식료품을 자체로 많이 가공하여야 합니다. 상업기관들에서 자체로 남새와 장을 가공하고 두부를 만들고 기름을 짜는것이 나쁘지 않으며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가공하는 일을 모든 상점들에서 제각기 하지 말고 종합상점같은데서 가공하여 각 분점들에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시에서는 중요한 구역마다 식료품종합상점을 차려놓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주어 거기에서 식료품을 가공하도록 할수 있을것입니다.

상점들에서 식료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로력은 일부 받아쓸수도 있겠지만 될수 있는대로 가내작업반을 널리 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가내작업반들에 일감을 맞춤히 주고 검열제도를 강화하면 많은 식료품을 맛있게 가공할수 있으며 로력문제도 쉽게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식료품을 공장에서도 가공하고 상업기관들에서도 가공하여 근로자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에게 맛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넉넉히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순안, 중화 일대의 사람들이 평양에 와서 장을 사가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지방의 장맛이 평양장에 못지 않게 좋아졌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맛있는 여러가지 장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에게 기름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름생산을 늘여 식료품상점들에서 강냉이기름, 콩기름, 참기름, 락화생기름 같은 여러가지 기름을 떨구지 않고 늘 팔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평양시에서 기름을 떨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평양곡산공장에서 생산하는 기름을 평양시민들에게만 공급하면 충분하겠는데 그것을 더러 지방들에 보내기때문에 평양시에 기름이 좀 모자랍니다. 앞으로 지방들에서는 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평양에서 나는 기름은 평양시민들에게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에게 기름을 넉넉히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기름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이는 한편 상업기관들에서도 간단한 시설을 갖추어놓고 여러가지 기름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지금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기름가운데서 강냉이기름이 50%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강냉이기름은 콩기름보다 맛이 더 있고 사람의 몸에도 좋습니다. 콩기름은 오래 두면 전내가 나서 좋지 않지만 강냉이기름은 그렇지 않으며 아무때 음식에 쳐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강냉이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지금 참깨를 많이 심지 않기때문에 참기름은 흔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기름은 가격을 좀 높여 수요를 조절하는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참기름같은것은 맛으로 조금씩 먹는것이기때문에 값이 좀 비싸도 일없습니다.

두부를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부는 맛이 있고 단백질이 아주 많은 식료품으로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두부가 그전에 비하여 훨씬 많이 생산되고있으나 아직도 수요에 비하면 모자랍니다. 두부를 더 많이 생산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먹을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두부를 생산하는데는 큰 공장이 있어야 하는것도 아니며 복잡한 시설이 요구되는것도 아닙니다. 창성군과 삭주군에서는 전동기 1대로 매돌을 돌려 두부를 생산하는데 실수률도 높고 맛도 좋습니다. 지금 평양에 있는 두부공장은 너무 큰감이 있습니다. 공장이 크면 원료를 운반하기도 힘들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두부공장은 될수록 조그마하게 여러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다층주택아래층을 리용하든가, 다층주택들사이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거기에 매돌과 전동기를 차려놓으면 두부를 얼마든지 생산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력문제도 쉽게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원료운반이 좀 문제로 될수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로 공급해주는 제도를 세우면 됩니다.

두부생산에서 두부의 실수률과 질을 높이는데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콩이나 콩깨묵을 보드랍게 갈고 서슬대신에 석고를 쓰면 두부의 실수률도 높고 맛도 더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더 연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두부를 한가지밖에 만들지 않고있는데 앞으로는 마른두부, 장두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두부를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콩우유를 만들어 공급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젓갈품을 더 많이 만들어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고있기때문에 조직사업만 잘하면 여러가지 젓갈품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명태만 하여도 1년에 30만~40만톤씩 잡고있는데 이것을 잘 가공하면 명란젓과 창난젓을 많이 만들수 있습니다. 상업일군들은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다 리용하여 명란젓, 창난젓, 새우젓, 백하젓, 낙지젓, 조개젓, 굴젓과 같은 여러가지 젓갈품을 많이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사철 떨구지 않고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젓갈품과 함께 물고기말린제품도 맛있게 만들어팔아야 하겠습니다.

조미료생산에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조미료는 중요한 식료품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점들에서 마늘, 고추, 파, 생강을 비롯한 조미료를 떨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미료는 많이 먹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값을 좀 비싸게 받아도 일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남새를 사철 공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남새를 사철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인구 한사람당 남새를 하루에 600~700그람정도는 공급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새를 계단식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지금 비교적 많은 남새를 생산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는 남새를 계단식으로 생산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남새를 계단식으로 생산하려면 여러가지 남새종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종자를 가지고서는 한 보름쯤 간격을 두고 심어도 남새가 자라는데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7월에 심는 남새종자와 8월, 9월, 10월에 심는 남새종자가 각각 있어야 합니다.

남새종자를 얻어내는 문제를 농업위원회에만 맡기지 말고 도들에서도 자기 도 실정에 맞는 남새종자를 얻어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평양시에서 이 사업을 잘하여 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킬뿐아니라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의 서해안지대에 남새종자를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는 산간지대에 맞는 남새종자를 연구해내야 하겠습니다. 남새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양시와 함경남도나 함경북도에 남새연구소를 내오고 거기에 과학자들과 필요한 인원을 보장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에도 남새를 생산하여야 합니다. 남새저장방법을 연구하여 가을남새를 많이 저장해두고 겨울에 공급하는 한편 온실남새농사를 많이 하여 겨울에도 상점들에서 무우, 배추, 파, 홍당무 같은것을 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새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남새를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에 대한 남새공급을 골고루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평양시만 놓고 보아도 동대원구역에서는 남새를 한사람당 하루에 156그람씩밖에 공급하지 못하는데

중구역에서는 600그람씩 공급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남새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상점들에서도 남새를 주민들이 골고루 사먹을수 있도록 판매조직을 잘하여야 합니다. 지금 상점들에서 판매조직을 바로하지 못하기때문에 부부가 다 직장에 다니는 집에서는 남새를 사먹기가 힘듭니다. 상업부문일군들이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풀수 있습니다. 상점일군들이 아침저녁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세우고 남새를 아침에 파는 량과 저녁에 파는 량을 따로 정해놓고 팔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담당구역내에 가정부인들이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알아가지고 그만한 몫을 따로 내놓았다가 팔아주면 가정부인들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남새를 사먹을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원래 사회주의상업일군들의 태도이며 일본새입니다. 매대에 상품이 있으면 팔고 없으면 할수 없다는 식으로 일하는것은 사회주의상업일군의 일본새가 아닙니다. 상업일군들은 상품을 인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기 위하여 온갖 창발성을 다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새가공품을 많이 만들어팔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짠지를 많이 담그어야 하겠습니다. 오이짠지, 무우짠지, 파짠지, 마늘짠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짠지를 철따라 담그어야 합니다. 지금 짠지를 많이 담그지 않기때문에 남새가 나는 철에는 오이나 다른 남새들이 많지만 철이 지나가면 남새를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남새가 흔할 때 짠지를 많이 담그어두었다가 남새가 떨어질 때 그것을 내놓고 팔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입니다.

지금 식료공장들에서 짠지를 좀 담그고있으나 그 량이 많지 못하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며 더구나 맛이 없어서 인민들이 잘 사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이절임을 소금에 담그는 방법으로만 하는데 간장, 된장에 담그면 더 맛있게 할수 있습니다. 식료공업부문일군들은 여러가지 짠지를 맛있게 담그는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식료품가공공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여러가지 식료품을 담을 그릇들을 많이 만들어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정들에 고추장담는 그릇도 있고 짠지담는 그릇도 있고 여러가지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갖가지 식료품들을 담아두고 먹을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축산물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축산기지가 일정하게 꾸려졌습니다. 평양시만 하여도 근가금목장이 3개나 되며 닭알생산기지도 튼튼히 꾸려졌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평양시뿐아니라 다른 도시들에도 이러한 기지들이 다 꾸려졌습니다. 이제 사료만 제대로 대주면 고기와 닭알을 많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닭알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닭에게 알곡사료와 함께 단백질사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닭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므로 단백질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닭이 알을 많이 낳을수 없습니다. 지금 알낳이률이 높지 못한 원인은 바로 단백질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단백질사료를 많이 얻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고기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고기를 다양하게 가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고기가공공장들에서는 순대, 고기만두 같은것을 더 많이 만들어 공급하여야 합니다. 지금 토끼를 많이 기르고있는데 토끼고기를 가공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토끼고기가공을 위하여서는 큰 공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끼를 잡는 시설이나 간단하게 만들어놓고 다르게 가공하기 힘들면 풋고추나 넣고 장졸임같은것을 만들어도 좋을것입니다. 토끼고기만 잘 가공하여도 근로자들에게 적지않은 고기를 더 공급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과일과 과일가공품을 많이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과일을 철따라 잘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과일생산기지를 더잘 꾸려야 합니다.

평양시에서 시민들에게 하루에 사과를 한알씩 공급할것으로 보아도 100톤의 사과가 있어야 하며 1년에는 3만 6,000톤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가공품까지 만들어 공급하려면 평양시에서 적어도 1년에 4만톤의 사과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평양시에서 지금까지 조성해놓은 과일밭에서는 사과를 1만톤밖에 생산할수 없습니다. 평양시에 대한 과일공급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평양시에서 과일생산을 적극 높이는 한편 다른 도에서 과일을 좀 가져오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들에서는 자체의 과일생산기지를 잘 꾸려 도의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일생산기지를 높이는것과 함께 과일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금 과일보관사업을 잘하지 않기때문에 과일이 나는 철에는 상점들에 과일이 많지만 철이 지나가면 과일이 얼마 없습니다. 상업기관들에서는 과일저장사업과 판매조직을 개선하여 사철 과일을 떨구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가격을 실정에 따라 좀 조절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일가격이 철에 따라서도 별로 차이가 없고 품질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데 과일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가 흔한 가을과 사과가 바쁜 겨울이나 봄에는 가격에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가을보다 겨울이나 봄에 사과값이 비싸야 사과를 저장했다가 팔려는 의욕도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상점들에서 과일을 막 섞어놓고 팔지 말고 좋은것과 나쁜것을 갈라놓고 좋은것은 비싸게 팔고 나쁜것은 눅게 팔도록 하여야 합니다. 밤같은것은 값을 좀 비싸게 받아도 일없습니다. 밤은 매일 먹는것도 아니고 때때로 아이들에게나 사다주는것이기때문에 값이 좀 비싸도 근로자들의 생활에 지장될것이 없습니다.

과일가공에도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잼, 시롭, 말린과일과 같은 여러가지 과일가공품을 많이 생산하여 과일이 없을 때에 공급하면 좋을것입니다.

맥주, 사이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청량음료와 락화생, 고구마, 과자 같은것도 상점들에서 떨구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식료상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업망들에서 식료품을 자체로 수매하는 제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수매사업은 상품원천을 늘이는데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난날 상업기관에서 수매하던 일부 식료품까지 지금은 수매기관에서 수매하고있는데 이렇게 하여서는 상업일군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상품원천을 다 동원할수 없습니다. 수매일군들은 소소한 상품원천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매기관과 상업기관사이에 공문이 오고가는동안 남새나 닭알 같은것은 못쓰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새나 닭알은 물론, 고기와 과일 같은것도 상업기관에서 자체로 수매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상업부문에서 상점망과 사회급양망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수매기관에서 사다주는것만 기다리고있을수 없습니다.

농촌에는 아직도 상품원천이 적지않습니다. 농촌집들에는 집에서 기르는 닭도 있고 산에서 따온 산열매나 산나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밭에서 생산한것과 분배받은것 가운데서 찹쌀, 기장쌀, 녹두 같은것도 조금씩 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수매할수 있을것입니다.

식료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만들려면 식료품생산부문과 상업부문에서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준비사업을 잘하였다가 다음해부터 식료상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평양시를 비롯한 중요한 도시들과 로동자구들에서 이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빠른 시일안에 식료상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용품공급사업을 더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상점들에 가보면 일용품의 품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그 질도 높지 못합니다. 학습장이나 시계줄 같은것도 바르며 의복도 맵시있는것이 얼마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공업부문일군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상업일군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업기관들에서 좀 더 노력한다면 많은 일용품들을 능히 자체로 만들어 공급할수 있습니다. 염화비닐을 가지고 시계줄을 만들거나 종이로 학습장이나 일기장을 만드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옷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의복과 신깔개, 덧버선 같은 상품도 자체로 만들어 팔수 있습니다. 세타같은것도 공장에서 나오는것만 바라지 말고 실을 받아다 가내작업반에 맡기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상업기관에서 간단하게 손질하면 더 좋게 만들수 있는것이 많습니다. 례를 들어 공장에서 받은 천이 색갈이 날았거나 구겨진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팔것이 아니라 물감도 들이고 다림질도 하여 될수록 보기좋고 쓰기좋게 만들어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업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더잘 봉사하려는 열성과 노력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일을 잘하지 않고있습니다.

상업일군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상업기관들에서 할수 있는것은 다 자체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업부문일군들이 공업품을 가공하는데서 의복가공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상업부문에서 피복공장과 양복점들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옷을 자체로 맵시있

게 만들어 팔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녀성들이 다 직장에 나가는 조건에서 상점에서 천을 그냥 파는것보다 옷을 만들어 파는것이 더 좋을뿐아니라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옷을 많이 만들어 팔아야 합니다. 지금 상점들에 어른들의 옷은 많은데 어린이들의 옷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린이들의 옷차림이 어른들만 못합니다. 원래 일반상점에서 파는 상품가운데서 약 40%는 아동용품이 차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옷을 비롯한 아동용품을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아동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공장에 아동용품을 생산하는 직장을 두어 아동용 상품생산을 전문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산업공장들과 상업망에서도 어린이들의 옷, 신발, 양말, 모자, 허리띠, 가방 같은것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옷생산에서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양복집들에서 만드는 양복의 질이 높지 못한데 그것은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수준이 낮은데도 일정한 원인이 있지만 양복점이 많지 못하여 많은 양복을 몇곳에서 되는대로 만들어내는데 주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양복점을 여러곳에 많이 차려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 부문 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녀성들의 의복제도를 좀 고쳐야 하겠습니다.

지금 녀성들이 입는 긴치마는 너무 긴감이 있습니다. 치마를 길게 해입는다고 하여 민족적전통을 살리는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변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미감도 달라지고 생활풍습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전통을 바로 살리면서 현시대사람들의 미감에 맞게 의복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천리마시대 녀성들이 치마를 땅에 질질 끌고다니는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옛날 의복제도는 대부분 귀족들과 착취계급들의 취미와 생활양식에 따라 만들어진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의복제도는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활동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의복제도도 천리마시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일부 녀성들이 입고다니는 짧은 치마는 보기에도 좋고 활동에도 편리하며 천도 많이 절약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긴치마를 다 없애라는것은 아닙니다. 긴치마는 잔치를 할 때나 명절같은 때 그리고 외국손님들을 맞이할 때 례복으로 입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특히 로동생활에서는 치마를 짧게 해입는것이 편리합니다.

녀성들의 치마뿐아니라 다른 의복들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해입어야 합니다.

의복제도를 고친다고 하여 양풍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녀성들의 치마도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이 입는것처럼 무릎우에까지 올라가게 짧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의복제도를 고치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복고주의를 반대하고 다른 편으로는 양풍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에게는 점잖으면서도 로동생활에 편리하고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의복이 필요합니다.

상업부문과 경공업부문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맞게 의복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시설을 잘 꾸리고 옳게 관리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편의시설은 상업망과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러므로 편의시설망을 더 늘이고 잘 관리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평양시를 비롯하여 도소재지들과 로동자구들에서 주택문제는 많이 해결되였으나 편의시설은 결정적으로 모자랍니다.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문화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하려면 주택뿐아니라 목욕탕, 리발소를 비롯한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택만 지어서는 안됩니다.

명년부터는 도시주택건설에 배정된 자금가운데서 5%를 편의시설을 건설하는데 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국가에서 일정한 자금과 자재를 대주어야 합니다. 명년에 예견된 10만세대분의 도시주택건설자금가운데서 5,000세대분으로는 편의시설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도시뿐아니라 농촌에도 편의시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농촌에 상점, 리발소, 목욕탕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에서와 같이 주택건설자금의 일정한 량을 떼돌려야 하겠습니다.

국가계획위원회와 내각사무국에서는 명년부터 주택건설몫에서 자재, 자금, 로력을 편의시설용으로 따로 배당하여 편의시설을 계획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늘인다고 하여 한꺼번에 필요한것을 다 건설할수는 없습니다. 자금과 자재, 로력이 해결되는 차제로 긴요한것부터 먼저 건설하고 좀 덜 바쁜것은 다음에 건설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합니다. 편의시설에서 중요한것은 목욕탕, 리발소, 세탁소, 식당, 일용품수리소, 려관입니다. 이런 대상들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금 일용품수리소가 얼마 없는데 앞으로 구두, 시계, 가구를 수리하는 수리소들을 더 많이 차려놓아야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너무 크게 짓지 말고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아담하고 쓸모있게 지어야 합니다. 려관은 200명정도의 수용능력을 가지게 하면 좋을것입니다. 식당도 크게 만들지 말고 조그마한것을 여러곳에 차려놓고 대중의 수요가 많고 간단하게 만들수 있는 국밥이나 콩우유 같은것을 해서 팔게 하면 됩니다. 식당을 너무 크게 하면 자금과 로력이 랑비될뿐아니라 관리운영하기도 힘듭니다.

편의시설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국가에서 꾸려줄것만 기다리지 말고 편의부문일군들이 자체로도 꾸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금 편의부문일군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수 있는것이 적지않습니다. 목욕탕이나 리발소 같은것은 복잡한 시설이 없이도 간단하게 꾸릴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군들이 국가에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줄것만 기다리면서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아직도 편의부문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열의와 노력이 부족합니다.

국가에서는 해마다 편의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공업화의 토대를 닦은 우리 나라에서 모든것을 한꺼번에 그리고 처음부터 현대적인것만 차려놓을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장비가 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편의시설들을 많이 꾸려놓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하나씩 현대적인것으로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습니다. 봉사기관일군들은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편의시설을 잘 관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당이나 목욕탕을 아무리 많이 지어놓아도 그것을 잘 관리운영하지 않으면 인민들에게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여줄수 없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편의부문사업을 도시경영성에서 지도하였는데 편의시설과 상업망과의 련관성도 많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기때문에 편의부문에 대한 지도사업을 상업성에서 담당하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품을 파는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지만 편의시설을 관리운영하는것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편의부문의 관리체계를 잘 세우고 이 부문을 지도하는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편의부문에 대한 공급체계도 바로세워야 하겠습니다. 식당들에 식료품원료를 잘 공급하며 리발소, 세탁소, 목욕탕들에 리발기, 면도칼, 솔, 비누, 향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품들을 제대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상업부문에서는 포장용기를 수리하는 공장, 상업망과 편의시설망들에 필요한 기구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것을 자체로 만들어도 쓰고 수리할것은 제때에 수리해쓸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업류통부문에 수송기재를 더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상업류통부문에 수송기재가 모자라기때문에 상품을 많이 만들어놓고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직물이나 일용품 같은것은 수송이 좀 늦어져도 별일없지만 식료품은 제때에 날라다 공급하지 않으면 못쓰게 됩니다.

상업류통부문의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 자동차를 더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명년에 생산하는 자동차가운데서 300～400대를 상업류통부문에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한꺼번에 다 주기 힘들면 먼저 각 도소재지들에 10대씩만이라도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상업류통부문에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승리58》형 자동차가 적당합니다. 너무 큰 자동차를 주면 기동성있게 움직이는데도 불편하고 연료도 랑비되며 자동차의 리용률도 높일수 없습니다. 상업류통부문에는 3륜차도 있어야 하며 평양시 같은데는 배도 1～2척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운수관리국에서 수송수단들을 장악하고 량곡, 석탄, 목재, 건재 수송과 상품수송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있는데 남새나 두부 같은 식료품은 수송에서 시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특수한 수송기관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대의 자동차를 가진 식료품운반사업소를 따로 조직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렬케 하여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비롯하여 기술적지도는 교통운수부문에서 하고 자동차가동에 대한 지휘는 상업부문에서 하도록 하면 식료품을 제때에 날라다 공급할수 있을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업망배치에서 중요한것은 상점들을 주민지대에 접근시키는것입니다. 사회주의상업의 기본임무는 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상 편의를 위하여 복무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상업망은 응당 근로자들에게 편리하도록 주민지대에 가깝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평양이나 함흥 같은 큰 도시에서는 거리를 화려하게 한다고 하면서 주로 도시의 중심지대에 상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인민들에게는 화려한 거리보다도 생활에 편리하고 쓸모있는 도시가 더 요구됩니다. 평양시에서는 1958년에 상점들을 정리하고 다시 배치하는 사업을 하여 이런 폐단을 많이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양시에도 아직 개선하여야 할것들이 적지않습니다.

특히 식료품상점들을 주민지대에 가까이 배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수요의 특성으로 보아 공업품상점은 몇곳에 집중되여있어도 별일없습니다. 그러나 식료품상점은 그렇게 되여서는 안됩니다. 옷은 1년에 한두벌 사입으면 되지만 식료품은 매일 사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식료품상점은 주민지대의 곳곳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공업품상점은 여기저기 많은데 식료품상점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사실 공업품상점은 여기저기 많이 널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례를 들어 평양시 미산동에 있는 주민들은 그곳에 공업품상점이 있지만 거기에서 물건을 잘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골라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용품이나 식료품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성냥이나 담배, 잔지 같은것을 사기 위해서 먼 백화점에까지 가려고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상업망을 배치할 때에는 상품수요의 이러한 특성과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업부문에서는 지금 지나치게 널려있는 공업품상점들을 정리하고 그 대신 식료품상점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상점은 일정한 인구수를 단위로 하여 골고루 배치하여야 합니다. 례를 들어 인구 1만명에 종합상점을 1개 세운다고 하면 거기에 지역별로 2~3개의 분점을 내오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상점들이 한곳에 집중되여있으면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상점이 번잡해지고 교통도 복잡해질것입니다. 상점들을 주민지대에 골고루 배치하면 이러한 번잡성을 피하는데도 좋고 인민들에게 봉사성을 높이는데도 매우 좋습니다.

상점들의 배치에 대하여 건설부문에서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건설기관들에서는 건설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주택만 짓고 상점을 잘 짓지 않고있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주택과 함께 상점들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

들에게 상품을 제때에 공급할수 있습니다. 건설부문일군들이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주택을 지을 때 로력과 자재를 얼마 더 들이지 않고도 상점과 매대를 꾸려놓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층주택지구에 청량음료매대 하나 짓지 않고있습니다. 청량음료매대같은것은 다층주택 아래층에 만들어도 되고 뒤마당에 집을 자그마하게 짓고 차려놓아도 됩니다. 매대를 만들어놓고 여름에는 맥주나 사이다, 랭차 같은것을 팔고 겨울에는 밤이나 고구마도 구워 팔고 국같은것도 끓여 팔면 좋을것입니다.

고급상품을 파는 상점과 매대를 따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이 필요한 상품들을 어디서나 제때에 살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식당도 일반식당이 있고 고급식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다 평등하게 사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고 할수 있는데 그런것이 아닙니다. 고급식당이라고 해서 특수한 사람들만 가는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갈수 있습니다. 고급식당을 몇개씩 잘 꾸려 누구나 자기의 요구에 맞는 음식을 사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평균주의를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벌어서 잘 쓸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요구하는것을 다 마음대로 먹고 쓸수 있는 공산주의사회에 갈 때까지는 그러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이 관철되여야 하며 상점매대나 식당, 편의시설에도 높은급과 일반급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급의 식당과 편의시설에는 탄부들과 용해공들을 비롯하여 로임을 많이 받는 로동자들이 주로 갈수 있으며 로임을 적게 받는 사람들도 명절이나 혹은 손님이 왔을 때 갈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까지나 광범한 대중을 위한 일반급을 많이 두고 그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에서 주문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1958년에 주문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문제가 원만히 실시되지 않고있습니다.

주문제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상품을 공급하는 사회주의적상품공급방법입니다. 주문제를 실시하지 않고 아무 상품이나 밀어놓고 공급하는것은 관료주의입니다. 상업일군들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면 인민들의 수요를 잘 알아야 하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야 합니다. 상점들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들이 어떤 상품을 요구하는가를 잘 알고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지금 주문제를 잘 실시하지 않기때문에 이러저러한 편향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않고 상품을 관료주의적으로 평균분배하여 상점들에 내려보내기때문에 어떤데서는 상품이 너무 많이 쌓여 걱정하고있는가 하면 어떤데서는 상품이 모자라서 걱정하고있습니다. 몇해전에 보천보에 갔을 때 상점에 들려보니 그 지방에는 양복을 해입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데 평양시에서는 사기 힘든 고급양복천이 통구리채로 쌓여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에서는 양말이 적어서 사기 힘들어하는데 거기에서는 양말이 잔뜩 쌓인채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창성군 약수상점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에도 얼마 없는 고급녀자수영복이 수십벌 있었습니다. 평양이나 해안도시 같으면 여름에 그것을 사입을 사람이 있겠지만 창성군 간암리 같은 산골에서 녀자수영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민들의 수요를 모르고 상품을 되는대로 공급하면 쓸데없는 운반을 하게 되고 상품이 쌓여있게 하며 결국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주문제를 실시하는 과정에 편향이 일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없는 상품을 주문할수도 있고 나라의 생산력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은 상품을 요구할수도 있으며 상점들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데로부터 오는것이지 주문제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주문제를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주의적주문제와 같은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상품이나 망탕 주문하는것은 사회주의적주문제와 인연이 없습니다. 일부 상업일군들이 주문제를 실시하면 근로자들이 뉴똥, 시계, 자전거, 재봉기 같은것을 많이 요구할수 있고 그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수 없는 조건에서 주문제가 도리여 상품공급사업에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겠는가고 생각할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회주의상업에서의 주문제는 이미 도달된 나라의 생산력발전수준에서 상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만일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적게 생산되여 공급하기 곤난한 상품을 주문할 때에는 그들에게 나라의 형편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것만큼 공급해준다면 누구나 다 리해할것입니다.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도매기관과 소매기관들사이에 주문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이 부문 일군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매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상품공급체계에서 도매상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주문제가 잘 실시되지 않고있는것도 도매기관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습니다.

도매기관들에서는 소매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품주문자료에 기초하여 생산부문과 계약을 정확하게 맺어야 합니다. 생산부문과 계약을 똑똑히 맺는것이 주문제를 실시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계약을 잘 맺기 위하여서는 도매기관일군들이 늘 상점들에 나가 어떤 상품이 요구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도매기관일군들이 소매기관의 요구를 잘 모르고서는 똑똑한 계약을 맺을수 없습니다.

도매기관들에서는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상품이면 어떤것이든 무턱대고 받아다 공급할것이 아니라 소매기관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생산하도록 공장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생산부문들에서 반드시 인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상품주문을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상업일군들은 사무실에 앉아 문서장이나 뒤질것이 아니라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주문이 처음부터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해에 잘 안되였다면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그 다음해부터는 잘할수 있을것입니다. 소매기관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나 요구된다는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도매기관에 반영하고 도매기관이 그것을 장악해가지고 생산부문들과 계약을 맺는다면 상품주문제가 잘 안될리 없습니다. 문제는 상업일군들이 인민들의 수요타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주문제를 실시한다는것은 곧 상업을 계획화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문제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경제가 실시되고있으며 계획화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있습니다. 공업과 농업 부문에서 물질적부를 생산하는데서 계획화를 실시한다면 상업부문에서는 그것을 분배하는데서 계획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상업부문에서는 계획화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지난 기간 상업성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정확한 상품공급계획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상품을 계획대로 다 생산해주지 못하여도 일부 상품들은 팔리지 않고 쌓여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하여줍니다.

상품계획화문제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상업성에서 제기하는 상품계획을 똑똑히 따지보고 품종별, 규격별로 세부화된 계획을 생산성들에 넘겨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말생산계획만 보아도 품종별, 규격별 구분도 없이 그저 몇켤레를 생산하라는 식으로 과제를 주다보니 어른들의 양말은 너무 많이 생산되여 쌓여있는가 하면 어린이양말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로동복을 만드는데 쓸 천같은것도 똑똑히 정해주지 않아 좋은 천을 망탕 랑비하게 하였습니다.

주문제를 강화하면 상품의 품종을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도 자극을 주게 되며 아무 상품이나 망탕 생산하던 폐단도 없앨수 있게 될것입니다. 주문제는 또한 상업성과 경공업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도 큰 도움으로 될것입니다. 상품공급에서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면 지금의 경공업생산능력을 가지고도 인민들의 수요를 더잘 보장할수 있습니다.

상업일군들이 주문제를 잘 실시하려면 인민들의 요구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 대하여 잘 알고있어야 합니다. 상업일군들은 경공업공장들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며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가지고 상품을 얼마나 생산할수 있으며 그만한 상품을 가지면 주민 한사람당 얼마씩이나 차례질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상업일군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바늘이 몇개 생산되고 실이 몇토리 생산되는가 하는것까지 다 알고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소소한 품종은 통계적으로 장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업기관에서는 소소한 품종에 이르기까지 다 장악하고있어야 합니다. 상업기관들에서 좀 노력하면 어느 공장에서 무슨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는가 하는것을 다 장악할수 있습니다.

소매기관들에서 주문을 바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중앙기관들에서 상

품생산일람표 같은것을 만들어주고 소매기관일군들을 위한 강습도 조직하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어야 합니다.

상품주문계획은 년간으로도 세우고 분기별로도 세워야 합니다. 년간주문계획을 세울 때에는 상업일군들뿐아니라 관계부문일군들을 널리 참가시키고 련합회의 같은것을 조직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 상품원천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례를 들어 올해에 천은 얼마를 짜는데 그가운데서 스프직은 얼마이고 면직은 얼마이며 상품폰드로 나가는것은 각각 얼마나 된다는것을 해당부문일군들을 통하여 다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일군들을 통해서는 상품에 대한 의견과 수요를 알고 조절할것은 조절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주문을 정확히 할수 있으며 상품배정계획도 잘 세울수 있습니다.

상업에서 주문제를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상업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상업일군들은 주문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동자구들에 대한 공급체계를 바로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할데 대한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전국각지에 고르게 분포되여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들에 큰 로동자구들이 많이 형성되였습니다.

정전직후에 소집되였던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는 전후복구건설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면서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나라의 여러 지역에 고르게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우선 군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집니다. 공장, 기업소들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 분산되여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적들의 폭격이나 포사격에 의한 피해를 적게 입을수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을 나라의 여러 지역에 고르게 배치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도 맞습니다.

지난 기간 공업이 도시에 집중된것은 자본주의제도의 유물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공업을 도시에 집중시키기때문에 자연히 도시인구가 많아지며 교통이 복잡해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공업이 도시에 집중되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더욱더 커집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이 계속 심해지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유물을 그대로 둘수 없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모든 군에서 다 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군에 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면 거기에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이 많아지고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이 들어가게 되며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이 많이 건설되게 됩니다. 다시말하여 군에 공장들이 일떠서면 기술문명이 발달되고 인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군은 농촌에 커다란 사상적영향을 미치게 될뿐아니라 공장

의 기술문명과 도시의 선진문화를 농촌에 들여보내는 거점으로 되며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장, 기업소들을 분산배치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되여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로동자구들이 꾸려짐으로써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사업도 더 잘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이 도시에 집중되여있으면 근로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소비품과 식료품을 다른 지방들에서 날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이 긴장하게 되고 필요한 상품들을 제때에 나를수 없게 될뿐아니라 수송도중에 썩거나 감모가 생겨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조직에서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구들이 여러곳에 분포되여있기때문에 공급사업에서 이러한 페단이 없습니다.

로동자구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상업망체계를 바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로동자구에 대한 공급은 해당 공장, 기업소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상업일군들과 경공업부문일군들도 같이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로동자구들에서 주변협동농장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상업일군들과 경공업부문일군들이 로동자구들에 인민소비품을 더잘 공급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면 로동자구들에 대한 공급사업이 잘될수 있습니다. 로동자구들에서 수매조직과 공급조직을 잘하면 로동자들에게 우유 같은것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젖소를 많이 기르지 않고 우유를 잘 짜지 않는것은 그것을 사가는 사람이 없고 소득도 많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창성군에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우유를 제때에 수매하여가기때문에 농민들이 우유를 많이 생산하고있습니다. 조직사업을 하지 않고 그저 하라고만 해서는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수 없습니다. 로동자구들에서 창성군의 모범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동자구의 후방공급사업에 대하여 도인민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이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안전기공장에서 새로운 후방공급체계를 내오기전까지는 로동자구의 후방공급사업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안로동자구는 군소재지가 아니라고 하여 주변협동농장들에서 나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거의다 기양이나 남포에 가져가고 대안전기공장 로동자들에게 얼마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로동자구들도 대안로동자구의 사정보다 별로 나은것이 없었습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이 로동자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것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책임지고 조직하여야 합니다.

로동자구에 대한 공급사업을 개선하며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안에 로동자구경리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지금 일이 잘되고있습니다. 대안에서 공급사업이 잘되는것은 로동자구경리위원회를 조직한데도 원인이 있고 또 이 부문 일군들이 서로 도우면서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는데도 주요

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체계를 내와도 일군들이 관료주의적으로 일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이끄는것이 진정한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로동자구에 대한 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공급체계를 내오는것과 함께 이 부문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안로동자구경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좋은 경험과 방법들을 일반화하여 로동자구들에 대한 공급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자구에 대한 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특히 공급원천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이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업부문의 간부양성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업류통부문사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의 간부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부문간부들을 키우는 체계가 잘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업류통부문 간부들이 체계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상업이 응당한 수준에서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내각에서 상업부문간부양성체계를 다시 검토하여보고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상업류통부문의 간부들을 정규적인 교육체계에서 키우는것과 함께 실지 사업을 통하여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부를 학교에서만 키울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물론 간부양성에서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들에서는 주로 리론과 원칙을 가르쳐주고 구체적인 기업관리방법은 많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군들을 실지 사업에서 실천을 통하여 많이 키워내는것이 매우 우월합니다.

최근에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당일군들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많이 받아넣고 거기에서 교양훈련하여 새로운 초소에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일군들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서나 실무능력을 빨리 높이는데서 그리고 당정책과 당사업방법을 체득시키는데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실시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이런 방법으로 간부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7련대에 소대장, 정치지도원, 대원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적과 싸우는 방법, 정찰하는 방법, 독보회를 하는 방법, 글을 가르치는 방법, 정치사업을 하는 방법을 배워주고 지어는 숙영하는 방법과 밥을 짓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배워주어 7련대를 모범련대로 만들었습니다. 7련대는 전투에서나 정치사업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모든 면에서 다른 부대의 모범으로 되였으며 거기에서 단련육성된 대원들은 다른 부대에 정치지도원이나 중대장으로 배치되여가서 부대관리와 전투지휘, 대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다 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련대는 간부들을 키우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상업류통부문에서 간부가 모자라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지난 시기 이

부문에서 실지 사업을 통하여 간부를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간부를 키워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간부가 없다고 걱정만 하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업부문에서는 상점, 식당, 려관을 비롯한 봉사기관들을 좋은 사람들로 꾸리고 그들을 잘 도와주어 모범단위를 창조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 간부를 키워야 합니다. 최근에 당에서 인민경제학원졸업생들을 상업부문에 많이 배치하였는데 그들을 잘 키워 등용한다면 이 부문의 간부문제가 적지않게 해결될것입니다.

상업기관들을 좋은 사람들로 꾸린 다음에는 지도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서 당정책을 잘 해설해주고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상품공급사업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하여도 늘 교양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좋은 간부로 될수 없습니다.

점장으로부터 판매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좋은 사람들로 꾸리고 그들을 적극 도와주고 교양하여 점장이 조동되면 판매원이 점장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간부를 키워낸다면 상업부문에서 간부가 없어 일을 못할 조건은 없을것입니다. 실지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단련육성된 일군들은 큰 백화점의 지배인도 할수 있고 관리국장도 할수 있으며 그 어떤 임무를 맡겨도 일을 잘할수 있을것입니다.

상점과 편의시설들을 잘 꾸려 모범단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업도 하고 일군들을 배워주면 이 부문 사업을 빨리 추켜세울수 있습니다.

상업부문에서는 앞으로 모범상점, 모범식당을 만들며 상업류통사업에서의 모범시, 모범군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업류통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업류통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평양시, 청진시, 함흥시 당위원회들의 상업부를 강화하며 구역당들에 새로 상업부를 내오려고 합니다. 구역당에 상업부를 두어 상업에 대하여 연구도 하고 상업부문사업을 당적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업부문사업을 구역당에서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하여 구역인민위원회들에서 상업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자기 구역안에서 인민들에게 공급사업이 잘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을 일상적으로 알아보고 행정적으로 옳게 지도하여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이번 회의를 통하여 상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지혜와 창발성을 다 발휘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상업류통부문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것을 바랍니다.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비약을 일으키자

오늘 우리는 온 나라가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으로 들끓고있는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의 발표 1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대표자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고조가 일어나고있던 시기에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연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전투적기치이며 천리마운동의 영광스러운 년대기우에 찬연히 빛날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밝혀준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강령적연설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이 발생발전하여온 자랑찬 력사를 밝혀주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천리마대진군을 계속 다그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천리마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을 명시하여주시였으며 천리마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다그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실지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53페지)

돌이켜보면 천리마운동이 일어나던 때의 우리 나라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다.

전쟁의 후과로 하여 헐벗은 사람이 적지 않았고 쌀도 다른 나라에서 사다 먹어야 했으며 집도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토굴에서 살아야 했었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5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은 생산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재도 자금도 모든것이 다 모자랐다. 게다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도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그러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이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여주신 천리마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계속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당이 제시한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따라 천리마의 고삐를 튼튼히 틀어쥐고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였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빛나는 성과로 천리마운동의 자랑찬 력사를 계속 빛내이였다.

실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는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의 세찬 불길속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온 자랑찬 로정이다. 천리마의 고삐를 잡고 힘차게 전진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의 흔적들을 영원히 쓸어버리고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끝없이 붐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경험은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성과적으로 뚫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달리는 천리마에 계속 박차를 가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천리마운동에 관한 사상과 방침들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달리는 천리마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다. 우리는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여야 하며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야 한다.

1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힘있게 전진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근본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지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혁명의 길우에 있다.

우리는 순간의 지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말고 힘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여야 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온 나라와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하며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8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웅대하고 거창한 경제건설강령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의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휘황한 설계도이다.

새 전망계획이 수행될 때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바라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모두가 한결같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새 7개년계획의 수행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것이다.

생산장성의 매우 높은 속도와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예견하고있는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 인민의 힘과 지혜, 나라의 생산잠재력을 총동원할것을 요구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달리고 또 달려야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는 거창한 경제건설전투이다.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때까지 단련하고 축적하여온 사상정신적힘과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된 높은 긍지와 영예를 빛내이며 주체사상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떨쳐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새로운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더 빨리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복잡하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은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하고있는 일본반동지배층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주둔을 연장시키려고 발악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을 군사경제적으로 적극 뒤받침하고 그와의 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두 상전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전역에 파쑈적인 전시체제를 펴놓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기에 미쳐날뛰고있다.

정세는 우리앞에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로써 원쑤들의 책동을 단호히 꺾어버려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다는 것은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천리마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높이 추켜든 이 전투적구호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현실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전례없이 거창한 사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천리마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우리의 전진속도를 끊임없이 높일것을 요구한다.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힘차게 전진하여야 전례없이 방대한 규모로 늘어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으며 사람도 사회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할데 대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할데 대한 전투적구호에는 또한 백두밀림에서 이룩된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발전시키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사회주의건설의 력사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온 자랑찬 로정이다. 이 길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려진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한 혁명적신념이며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철저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할데 대한 확고한 의지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가졌기에 우리 인민은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모두가 떨쳐나서 력사적인 천리마

대진군을 힘차게 벌려올수 있었으며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었다.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할데 대한 구호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 빨리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을 틀어쥐고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참말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의 총화이며 우리 인민이 혁명실천을 통하여 심장으로 체득한 위대한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의 고삐를 튼튼히 틀어잡고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걷고 남이 10리를 달릴 때 100리를 내달림으로써 우리 인민은 5개년계획과 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단숨에 점령하고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아감으로써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완수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한계전선의 영향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는 때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고 지난해에는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850만톤의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은것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20만정보의 발판개를 완성하는 영웅적서사시를 창조할수 있은것도 바로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온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우람찬 대진군속에서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무산—청진사이의 대규모정광수송관과 같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자동화, 현대화된 공장, 기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며 우리의 도시와 마을들이 더욱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변모되였다.

천리마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비날론속도》, 《평양속도》, 《강선속도》와 같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경제건설속도가 창조되였으며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나아가는 장엄한 진군속에서 《70일전투속도》와 《안주속도》가 창조되였다.

온 나라에 천리마의 기상이 나래치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름에 따라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혁명하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벅찬 실천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최상의 사업성과로 보답하려는 고상한 혁명가적풍모를 지니게 되였으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불타는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투지와 전투적기백으로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생기발랄한 일본새를 지니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올수 있었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자랑찬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었다.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

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무궁무진한 힘을 과시하여주고있으며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을 틀어쥐고나갈때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참다운 길을 뚜렷이 가르쳐주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으며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속도를 계속 높이는 바로 여기에 보다 휘황한 래일이 약속되여있는것이다.

2

주체의 혁명적기치따라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전변과 비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길에서 멀리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우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하루빨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인 새 전망계획의 요구에 맞게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우리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8페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중심과업이며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방대한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큰 예비는 사상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려는 열렬한 애국심과 불타는 열정, 당이 준 혁명임무라면 모든것을 다 바쳐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려는 높은 정치적자각과 끝없는 충실성, 이것이 바로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는 힘있는 추동력이며 승리의 기본원천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사상혁명을 틀어쥐고 사람들의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발동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전투적임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이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과 주체사상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시위하는 책임적인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오늘의 벅찬 돌격전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 부문, 자기 초소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해제껴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 이것은 난관과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우리 인민에게 언제나 백절불굴의 투지와 무궁무진한 힘을 안겨주고 슬기와 용맹을 떨치게 한 영광의 기치이며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승리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들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힘차게 떨쳐나서야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뚫고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 우리의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이 애로와 난관 앞에서 동요하면서 우만 쳐다보거나 조건타발만 하여서는 새 전망계획의 어느 한 목표도 점령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항일혁전의 준엄한 나날에 창조되고 천리마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빛나게 이어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한다. 특히 공업의 원료,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하여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의 속도를 주동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새 7개년계획은 기술혁명의 계획, 과학혁명의 계획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의 높은 요구가 나서고있는 오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적진보가 없이 대중의 열성 하나만 가지고는 빨리 전진할수 없으며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킬수 없다. 대중의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은 과학기술과 결합되여야만 참다운 위력을 나타낼수 있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기술의 개조자, 창조자가 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여 종합적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를 다그쳐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치고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여러가지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을 계속 창안제작하여야 하며 최신과학의 성과들과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자기의 정치사상수준과 경제실무수준,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모두가 생산의 주인, 과학과 기술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은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더 힘차게 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의 정상화와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로동자들에게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는 생산조건을 보장하며 로동자들을 지도하는 지휘관들의 능력과 조직사업에 달려있는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35～236페지)

지도일군들이 경험주의와 주관주의적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 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된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생산적련계가 복잡해진 환경에 맞게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아래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사업과 기술관리, 생산조직과 자재보장을 비롯한 전반적경영활동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있는 로력,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당조직들앞에 나선 임무는 매우 무겁고도 중대하다.

매개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활발히 움직이며 능숙하게 사업할 때 걸린 문제들이 쭉쭉 풀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날수 있다.

당조직들은 경제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모든 선전선동 수단들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모두가 최대의 열의와 마력을 내여 맡겨진 전투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오늘 당조직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속도전의 혁명적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혁명운동이며 당조직들이 책임지고 조직지도하여나가는 대중적진군운동이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밑에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 새 전망계획의 높은 령마루에 더 빨리 올라설수 있으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다그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모든 근로자들의 심장을 충성의 열정으로 뜨겁게 불태울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 평양시 만경대협동농장과 대안시 청산협동농장, 재령군 북지협동농장과 신흥군 서곡협동농장을 비롯한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과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안주속도》를 창조한 안주종합탄광의 경험이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전투단위의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의 모범을 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속도전의 참된 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새로운 비약을 위한 대진군운동을 다그치고있는 우리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더 큰 비약을 이룩하고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점령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제2차7개년계획은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에서 위대한 진보와 비약의 새로운 리정표이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고 민족의 슬기와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칠 거창한 투쟁강령이다.

이 거창한 설계도가 빛나게 실현될 때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가까이 바라보는 새로운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우리의 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웅대한 과업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창조적힘과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높은 자각과 혁명적열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동원하는 여기에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끊임없는 변혁과 혁신을 이룩하며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앞당겨수행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당조직들은 혁명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조직들앞에 나서고있는 사상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은 그것이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일관한 원칙이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당사상사업을 벌려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는것은 주체사상의 본질적요구로부터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정에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증명되였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58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의 요구 그리고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창시된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불멸의 주체사상은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준엄한 실천투쟁속에서 발전풍부화되였으며 그 정당성과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지난날 사회의 밑바닥에서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오던 근로인민대중,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옹호실현하며 세계를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창조와 변혁의 참다운 무기로 출현한 불멸의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사상리론적총화로서 그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준다.

이로부터 주체사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 어떤 리론을 위한 리론과는 달리 혁명투쟁의 참다운 앞길을 밝혀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혁명적진리를 밝혀줌으로써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며 세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준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기성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리익,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진리와 요구들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실천투쟁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사상리론적무기로서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이 결코 단순한 지식이나 순수한 리론을 주기 위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실천활동과 철저히 결부되고 혁명실천을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이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천의 무기로 창시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 있는것만큼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은 마땅히 혁명실천과 결부되여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이 혁명위업수행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주체사상교양의 목적으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요구이다.

주체사상교양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

로 키우려는데 있다.

주체사상교양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힘있는 수단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신념과 사상관점을 가지고 주체적립장에서 모든것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조국과 인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교양사업은 실천투쟁을 떠나서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그것은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실천활동이 노는 커다란 역할과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개조된다.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일뿐아니라 진리의 기준이며 리론발전의 추동력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 다시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것과 낡은것, 진보적인것과 반동적인것, 혁신적인것과 보수적인것, 긍정적인것과 부정적인것 등을 정확히 갈라볼줄 알게 되며 이 과정에서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새롭고 진보적인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와 그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며 혁명적신념과 주체의 안목을 키워나가며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특질인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운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실천능력을 키워주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킨다. 사람들은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실천투쟁속에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며 어떠한 난관도 뚫고나가는 강의한 혁명가로 자라난다.

이것은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인간개조의 위력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교양의 목적은 또한 사람들을 주체의 원리로 무장시킬뿐아니라 그들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는데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은 결코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천투쟁과 동떨어진것으로 될수 없다. 실천과 떨어진 사상교양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러한 사상교양사업은 사실상 무의미한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문제는 특히 현시기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29페지)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휘황한 설계도이다.

새 전망계획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비상히 방대한 생산규모와 빠른 속도를 예견하고있다.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웅대한 계획을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무모한 침략책동으로 나라의 정세를 더욱더 긴장시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남달리 무거운 군사적부담을 감당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방대한 새 전망계획을 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과 안팎의 정세는 우리에게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완강하게 투쟁할 때에만 온갖 난관과 애로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방대한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힘의 원천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주체사상교양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만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주체사상교양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우리 혁명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더욱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들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7페지)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구현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업

을 전개해나가며 주체사상의 숭고한 리념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실현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언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사람의 사상은 실천에서 표현된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면서도 실천활동에서 주체사상의 숭고한 리념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며 혁명적 열정과 기풍을 높이 발휘하지 못한다면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다. 주체사상을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님께 진심으로 충성다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며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직한 사람이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혁명적립장이며 태도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런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이 물질적힘으로 전환되자면 그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우리는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일을 찾아서 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조건이 좋은것과 나쁜것을 가림이 없이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천길 물속이나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해제끼는 강의한 혁명적의지로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주체사상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말만 하고 일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으며 조건타발만 하면

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때에 수행하지 않는 현상, 일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걸치레만 하며 책임이 두려워 이리밀고 저리밀고 하는 현상 등은 다 주체사상의 요구와는 인연이 없는 주인답지 못한 표현들이다.

당조직들은 사업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함으로써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할수 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를 혁명과 건설에서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공산주의적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할줄 알아야 합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02페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그것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백두의 밀림에서 창조되고 천리마와 속도전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빛나게 이어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정신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승리의 길을 개척하며 이 땅우에 륭성과 번영을 이룩한 위대한 힘의 원천이다.

자력갱생은 주체사상의 본질적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다.

자력갱생은 혁명의 길이 아무리 간고하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는 자주적이며 전투적인 혁명정신이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며 남의 힘에 의존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을 할수 없으며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도 뚫고나갈수 없다. 자력갱생의 길만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밖에 다른 길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헌신분투할 때에만 자기가 맡은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자면 반드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며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일본새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긍정적모범을 적극 조장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를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며 주체사상교양과 실천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는 긍정적모범을 찾아내여 그것을 적극 조장하고 널리 일반화함으로써 온 사회에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이 높이 나래치게 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패기, 꺾일줄 모르는 투지와 용맹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데서 중요

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순간도 분리시킬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 때에만 그들이 주체사상의 본질과 요구, 그 생활력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혁명적지조를 굿굿이 지킬뿐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특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체득하여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혁명적량식으로 만들어야 언제나 주체의 안목으로 모든것을 보고 우리 당의 정신으로 살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것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는 길이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을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이끌어주는 불멸의 홰불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힘있게 관철하여야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온 나라에 창조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초소마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차게 벌려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불타고 온 나라에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더욱 높이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한층 세차게 지펴올려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장엄한 총진군속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인간개조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뿐아니라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는 옳바른 길을 열어주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 그 공고발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탁월한 사상이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하며 주체의 영광스러운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대 대한 독창적인 방침의 심오한 내용을 깊이 체득하며 그것을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불타는 창조적열정과 혁명적기백으로 우리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당일군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 기술을 알아야 한다

백 능 기

지금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첫해 전투에서 매일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은 모든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한다.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의 심장인 우리 당의 모든 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하여야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경제건설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보장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모든 당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적지도를 옳게 하여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이 전투장에 뛰여들어 대중을 로력적위훈에로 고무하고 앞장서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되며 조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신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높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 바로 여기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 특히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의 령도와 지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확고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오늘 우리 혁명수행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다 훌륭히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누구나 다 경제지식을 알아야 하며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며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기술을 배워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3페지)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배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고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당사업이 경제사업과 밀착되자면 모든 당일군들이 높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높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해야 당일군들이 우선 행정경제사업을 손금보듯이 장악하고 옳게 지도할수 있다.

행정경제사업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기본조건이다.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지도는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히 료해장악한 기초우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행정경제사업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철저히 료해장악하자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알아야 한다.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이 없이는 아무리 아래에 내려가도 경제정책집행에서 나타나는 편향과 결린 고리를 발견할수 없으며 또 풀어나갈 대책도 옳게 세울수 없다. 당일군들은 높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함으로써만 생산조직과 로력배치, 자재와 원료의 보장 등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 옳게 장악하고 구체적인 당적지도를 줄수 있다.

당일군들이 높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또한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떠밀어주어야 당사업이 순수 당사업이 아니라 혁명과업수행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당사업으로 될수 있으며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결합시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자면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주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풍부히 소유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이 높은 경제지식을 가지고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당정책에 근거하여 자신이 먼저 구체적인 작전을 세운 기초우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다.

어떤 새로운 경제과업이 제기되였을 때 당일군들이 아무런 방안도 없이 우에서 지시하는것을 계단식으로 되받아 넘기거나 전달하는것으로 조직사업을 대치하며 아래사람들을 보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만 해가지고서는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옳은 대책을 세울수 없다.

특히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여 투쟁할수 없으며 주관주의에 빠져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에 대하여 잘 아는 당일군만이 계획작성과 생산조직, 도급제의 실시, 경제절약 등 경제과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에 응당한 당적지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따라서 당이 새롭게 제기하는 경제과업을 정확히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잘 아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행정경제사업에서 제기된 중요한 과업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정확한 집행방향과 방도를 세운 다음에는 그 실현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줄수 있다.

바로 이 문제도 당일군들이 풍부한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함으로써만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잘 알아야

경제사업에서 걸린 고리를 제때에 찾아내여 그것을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수 있으며 사람들의 심정과 구체적환경에 맞게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도 된다.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당생활이란 당원들이 당조직에서 주는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그자체가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이다. 혁명과업과 동떨어진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생활은 언제나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당생활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결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그런데 당원들의 당생활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되도록 옳게 지도하려면 당일군들자신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알아야 한다.

당일군들이 풍부한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가져야 당원들이 자기의 본신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어떻게 아글타글 노력하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생활을 옳게 조직지도할수 있다.

이와 같이 당일군들이 높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은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가질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는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새 전망계획은 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주체화의 계획이며 우리의 경제를 고도로 현대화하고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기술혁명의 계획, 과학혁명의 계획이다.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 경제지식이 없이는 새 전망계획의 그 어느 목표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다. 새로운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당일군으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이 없고 기술을 모르면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질수 없으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할수 없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와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켜 새 전망계획 수행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속에서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류례없이 방대한 제2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은 당일군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오늘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경제기술실무수

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하며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총진군운동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경제지식을 높이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경영활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수한 조직자로, 건설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매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잘 알아야 하며 경제를 관리하고 운영할줄 알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170~171페지)

당일군들이 경제를 관리하고 운영할줄 아는 높은 지식을 가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사업을 옳게 지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할줄 아는 지식을 가져야 경세건설사업을 당적으로 옳게 지도통제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소유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경영활동에 대한 방법을 체득하는것이다.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경영활동방법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에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실현해나가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을 경제관리에 적극 인입시키며 모든 문제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체득해야 한다.

또한 경제관리에서 집체성을 보장하고 계획화사업에서 군중로선의 원칙을 관철하여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구현하며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여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우가 책임지고 아래에 자재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로동자들의 생활을 철저히 책임지고 후방공급사업을 진행하는것 등 대안의 사업체계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과 경제범주들을 잘 아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들과 경제범주들 그리고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 등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을 반영하는 경제범주들과 경제법칙들도 다 환하게 알아야 한다.

당일군들이 경영활동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일군들은 생산계획분석방법, 로동계획수행방법을 비롯한 자재리용, 생산물의 원가, 재정계획수행방법 등 경영활동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기업활동에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정규화, 규범화의 본질과 그 기본요구들을 알아야 하며 정규화, 규범화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소관리규범에 정통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정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의 농촌현실은 농촌경리부문당일군들로 하여금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지도할것을 요구한다.

농업부문당일군들은 우선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의 기본방향인 기업적방법의 본질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알아야 한다.

또한 농민들을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시켜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을 키워나가는 가장 훌륭한 생산조직형태이며 집단생활의 합리적인 세포인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의 실현 원칙과 방도들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높은 경제지식을 가지는것과 함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이 자기 부문에 정통하려면 새로운 과학지식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관하여》, 19페지)

새로운 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당일군들이 자기 부문 사업에 정통하며 경제사업을 실속있게 지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함께 과학과 기술을 잘 알아야만 오늘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현대화, 과학화 과정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적지도를 옳게 할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맡은 생산부문의 과학과 기술의 기초적인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기, 기계, 화학에 대한 기초기술지식을 체득하여야 하며 특히 새 전망계획 기간에 자기 부문에서 풀어야 할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며 최신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인민경제 매개 부문에서 자체의 기술, 자체의 연료와 원료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촉진하는것은 새 전망계획 실현을 위한 주되는 요구의 하나이다.

당일군들은 자체의 원료, 연료를 개발하고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는 원칙에서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깊이 연구하며 기계와 설비들을 주체성있게 개조하고 전반적생산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할수 있는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영농사업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당적으로 지도할줄 아는 유능한 일군들을 요구한다.

농업부문당일군들은 누구나 다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촌경리의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환하게 꿰뚫고있어야 하며 특히 현대적농업과학의 최신성과에 기초하고있으며 이미 그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주체농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농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경제지식과 과학기술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우리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당일군들의 경제지식과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의 경제지식과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사업은 기술실무적인 사업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매개 당조직들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할 때 옳게 수행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사업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 가지게 하며 그들모두가 높은 정치적열성을 가지고 자신의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수준은 저절로 높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일군들의 정력적이며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쓰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

되여야 하며 맡겨진 당면혁명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간부들이 학습을 통하여 주체의 세계관을 세우며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는 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당면한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자는데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학습을 당면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습의 성과가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학습체계에 망라되여 성실히 공부하도록 지도통제하는것은 그들의 정치사상수준과 함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한달강습과 토요학습, 기술학습, 수요강연회를 비롯한 당학습체계에 빠짐없이 망라되여 꾸준히 배우도록 옳게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경제기술지식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잘하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실무학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일군들이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며 강의와 토론, 경험발표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에게 새로운 경제지식과 선진과학기술을 배워주기 위하여서는 당간부양성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나라에는 중앙을 비롯하여 도와 군들에 간부양성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있다.

간부양성기관들은 일군들에게 일반적인 경제관리리론과 함께 생산실천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배워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간부양성기관들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현실에 맞게 더욱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다.

현직에서 일하는 당일군들을 재교육하는것은 간부양성기관들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은 현직일군들을 재교육하여 그들의 정치사상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한다.

간부양성기관들은 현직에서 일하는 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재교육함으로써 그들이 현실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일군들이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최 금 순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홰불로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이 나아갈 휘황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주체의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학설로서의 주체적교육사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체계정연하고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위대한 교육테제가 제시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에 관한 사상과 리론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교육테제에 의하여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는것이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된다는것이 심오히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참다운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그에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1～1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것이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이 사회주의교육사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된다는 사상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교육의 본성과 사명에 관한 독창적인 해명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실천에 복무하지 않는 교육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교육이 실천에 복무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실천과 결합되여야 한다. 실천과 결합된 교육만이 실천의 요구에 해답을 줄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의 교육과 다른 본질적특성을 가지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교육에서 더욱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게 된다.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압박과 착취에 기초하여 유지되는 부르죠아사회에서의 교육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말살하고 그들을 자연과 사회의 숙명적인 노예로, 자본가계급의 노복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반동적인 자본가계급은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교육의 《중립성》, 《독자성》의 기만적구호밑에 학생들을 정치와 분리되고 사회실천과 유리된 《글뒤주》로 키운다. 그들은 학생들의 혁명적진출에 겁을 먹고 《지식만능》의 미명밑에 학생들에게 실천과 유리된 쓸모없는 지식을 주입시키며 그들의 사회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의 교육에서는 교육과 실천의 분리가 중요한 특징을 이루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의 교육에서는 교육과 실천의 결합이란 생각조차도 할수 없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의 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하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우게 함으로써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워낸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교육은 마땅히 혁명실천과 결합되는것을 자기 사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를 확고히 견지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키는것이 사회주의교육사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된다는 사상은 다음으로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에서 혁명적실천이 노는 거대한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하나를 가르쳐도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가르칠수 있으며 사람들을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울수 있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산 지식과 창조적인 실천능력은 공산주의적혁명인재가 갖추어야 할 풍모이며 자질이다.

사람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있으며 그 지식을 실천에서 창조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소유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쓸모없는 잡다한 지식을 가진 사람, 필요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있더라도 실천에서 활용할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나 진정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되려면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다같이 겸비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혁명실천에 필요한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사업은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 때만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진리의 기준이며 리론발전의 추동력이다.

사람들은 실천활동을 통하여 현실과 접촉하는 과정에 자연과 사회의 본질을 보다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를 풀어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사람들은 또한 실생활, 생산실천과정에 책에서 배운 리론과 지식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배운 지식을 현실에 쉽게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리하여 학습에서의 교조주의, 형식주

의를 극복하고 교수를 실지로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되게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투쟁속에서만 사람들은 리론과 지식의 역할과 의의를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배운 리론과 지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풍부화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적실천은 또한 사람들에게 실천능력을 키워주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활용능력을 높이게 되며 자신의 사상의식과 풍모를 개조한다. 생산실천에서 유리되여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혁명실천에 참가시키는것은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에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체력을 증진시킨다. 창조적인 실천능력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는 혁명적실천속에서만 자라날수 있다.

이처럼 혁명적실천은 사람들, 새세대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논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은 응당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그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청소년교육사업에서 이룩된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청소년들을 우리 혁명실천에 실지로 이바지할줄 아는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나날에 카륜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 오가자의 삼성소학교 그리고 유격근거지의 아동단학교를 비롯하여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시고 청소년들을 리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는 한편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시킴으로써 그들을 조선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혁명의 골간부대로, 산 정치활동가,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이룩하신 고귀한 교육사업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천교육, 생산로동과 결합시켜 진행하도록 하시면서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들에 실험실습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주시고 강의와 실험실습을 옳게 결합하여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자기의것으로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학생들이 현실속에서 생동하고 폭넓은 지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사회문화교양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을 전망적으로 진행하도록 크나큰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전국의 방방곡곡에 근로자중학교,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망과 같은 교육체계를 세우시고 혁명실천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리론을 배우며 배운 지식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적극 활용하게 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혁명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내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을 실천교육, 생산로동과 결합시켜 진행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로 낭정

책선전대, 과학선전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대를 무어 대중속에서 당정책도 해설하고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위생지식도 널리 보급하게 하시였으며 학생들속에서 위생근위대, 록화근위대 활동과 소년단림, 사로청림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건설을 지원하는 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 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더우기 대학생들을 3대혁명소조운동에 계획적으로 참가시켜 그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와 인민을 위해 몸바쳐투쟁할줄 아는 참다운 사회의 주인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할줄 아는 능력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나가시였다.

실천적경험은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는것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육성하는데서 튼튼히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키는것을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여주심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람들을 혁명실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산 인간으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더욱 훌륭히 키워낼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제시하시면서 그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반 원리와 리론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가르치며 모든 리론과 지식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일반 원리와 리론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가르치는것은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첫째가는 요구이다.

일반 원리와 리론은 혁명실천의 중요한 무기이다. 일반 원리와 리론을 깊이 알아야만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는 실천투쟁의 방향과 방도를 옳게 세워나갈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그러나 일반 원리와 리론 학습이 혁명실천과 동떨어져 순수 리론을 위한 학습, 지식을 위한 학습으로 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원래 일반 원리와 리론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실천의 요구에 의하여 생겨났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실천에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또한 우리가 일반 원리와 리론을 배우는 목적도 실천활동을 원만히 진행하여나가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일반원리와 리론을 깊이 가르치되 그것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가르쳐야 하며 그 모든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푸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리론을 가르치는 교육이 실천과 밀접히 결부될수 있으며 사람들을 리론적으로뿐아니라 실천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산 사람으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테제에서 교육을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을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을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시켜야 한다. 교육사업에 우리 나라의 돌

끓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교육을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은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켜 사람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이 언제나 구체적현실속에서 진행되기때문이다.

사람들의 실천활동은 객관적현실을 개조하기 위한 실제적인 투쟁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속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활동이다. 현실을 떠난 실천이란 생각할수 없다.

현실은 혁명적실천의 대상이며 실천활동이 진행되는 무대이다. 그렇기때문에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현실에 접근시켜야 하며 교육사업에 우리 나라의 들끓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그러므로 교육을 현실에 접근시키기 위하여서는 현실의 요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교육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교육을 접근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요구를 훌륭히 관철할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히신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완성된 교육원칙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천명하신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비길데 없는 위대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과 우월성을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정식화하신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빛나게 구현한 주체의 인간교육, 인간개조 원칙이라는데 있다.

사람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은 교육원칙작성에서 근본 출발점으로, 초석으로 된다. 사람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교육교양사업을 진행할수 있으며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옳은 방도를 찾아낼수 있다.

테제에서 밝혀진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관점과 태도를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유일하게 정확한 원칙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이 원칙의 위력과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7페지)

테제에서 밝혀진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근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이 원칙은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는 관점에서 작성되여있다. 테제에 밝혀진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사람의 지위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교육교양적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그들을 보다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데서 찾고있다.

테제에 제시된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철두철미 사람들을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려는 숭고한 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테제에 밝혀진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근본요구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사람들의 자각성과 창조성을 조장발전시키는데로 지향되여있으며 또 거기에 철저히 복종되도록 정식화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테제에서 내놓으신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또한 전반적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완성하여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은 혁명적실천이 벌어지는 들끓는 현실에 부단히 접근되고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산 지식을 줄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완성할수 있게 되였다. 동시에 지식을 넣어주는 교수형태에 치우치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수형태를 소홀히 하는 편향을 극복하고 배운 지식을 실천에서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수형태와 방법이 창조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는 혁명적인 교육으로 그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할수 있게 되였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은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진적으로 맞는 과학적인 원칙이다. 또한 그것은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서의 사회주의교육의 특성을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본성에 맞는 교육원칙을 제시하여주심으로써 주체의 교육학설은 그의 과학적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더욱 완성풍부화되였으며 인류교육사상사는 완전무결한 과학적교육원칙의 무한히 귀중한 재부를 가지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교육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할데 대한 원칙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청소년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송혁명수행의 중요한 담보

박 용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과 올해 신년사 그리고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높이 받들고 지금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제2차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전체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정과 억센 투쟁에 의하여 인민경제의 선행공정인 채취 및 전력 공업이 빨리 발전하고 금속, 화학, 건재 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이룩됨으로써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첫전투부터 전례없이 흥성거리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천리마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수송사업을 발전시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운수부문에서는 우리 당이 내세운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8년 1월 1일, 8~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실정과 현시기 교통운수발전의 필수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수송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우리 당이 내세운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은 지금 있는 수송수단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빠른 시간에 많은 물동을 운반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수송방침이다.

3대수송방침은 새로운 운수수단과 기술장비를 받아들여 수송능력을 높이게 하는 일련의 수송방침과는 달리 이미 있는 운수수단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수송 조직과 방법을 혁신하여 막대한 수송예비를 얻어내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이 방침의 특징이 있으며 첫째가는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3대수송방침은 우선 철도에서 집중수송체계를 적극 받아들여 석탄과 세멘트, 광석, 통나무, 수산물과 같이 수송량이 많은 짐들을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렬차를 세우지 않고 직송함으로써 화차의 회귀일수를 줄이고 철도의 통과능력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한다.

집중수송체계를 철저히 세워 물동량이 많은 화물들을 모든 도중역들에 부리지 않고 집중화물역과 전용선을 가진 공장, 기업소의 상하차장들에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직송하면 중간역들에서의 화차머무름시간을 없애고 짐을 싣고 부리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량의 화차를 가지고도 더 많은 짐을 빨리 실어나를수 있다.

또한 기차와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을 강화함으로써 수송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를수 있다.

자동차로 생산지에서 집중화물역까지, 집중화물역에서 소비지까지 짐을 제때에 실어나르고 먼거리수송과 짧은 거리수송을 배합하며 배에 의한 화물수송을

늘여나감으로써 철도의 부담을 덜뿐아니라 륜전기재의 리용률과 화물수송속도를 훨씬 높일수 있다.

수송전선의 모든 부문에서 규격화된 수송용기인 집합을 리용하여 짐을 실어나르면 화물을 싣고부리는 일을 기계화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짐을 빨리 나를수 있다.

이와 같이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은 비록 그 구체적인 실현형식에서는 일련의 차이점이 있지만 다같이 있는 운수수단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를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송방법이다.

이것은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방침이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그대로 구현하고있는 정당한 방침으로서 큰 투자없이도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은 또한 교통운수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수송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여 수송전선의 전반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수송방침이다.

3대수송방침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철도수송과 자동차수송, 배수송, 삭도수송, 콘베아수송을 발전시켜 수송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고 그 련계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오늘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서 실어날라야 할 짐은 량적으로 방대할뿐아니라 그 가지수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또한 공업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치되여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수송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철도가 화물취급을 전국의 모든 지역에 벌려놓고 한두량씩 운반해서는 어느 물동 하나 제대로 실어나를수 없고 어느 공장에도 원료와 연료, 자재를 제대로 운반할수 없게 된다.

현실은 수송형태들의 특성에 맞게 철도는 주로 크고 중요한 물자들과 먼거리의 짐들을 맡아 방향별, 지역별로 계획에 맞물려 집중수송을 들이대고 작은 짐들과 가까운 거리의 짐들은 여러가지 수송형태들을 발전시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3대수송방침은 수송전선의 주력이며 먼거리수송을 담당한 철도가 일정한 집중화물역까지 다량화물들을 집중적으로 실어나르게 하고 생산지로부터 집중화물역까지, 집중화물역에서 소비지까지 각종 운수형태들로 짐을 나르게 함으로써 철도의 부담을 덜고 그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훨씬 높이며 교통운수의 모든 부문들을 다같이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수송방침은 교통운수부문에서 사회적로동을 절약하고 힘든 로동을 없애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을 옳게 조직하면 수송도중에서 짐을 허실하거나 랑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막아낼수 있고 많은 로력과 포장재도 절약할수 있으며 수송수단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막대한 수송기재들의 예비를 얻어낼수 있다. 또한 수송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하며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수송방침은 이미 마련된 물질기술적토대의 거대한 위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수송사업전반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는 가장 적극적인 수송혁명방침이다. 이 방침은 사회주의교통운수의 본성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전적으로 알맞는 주체적인 수송방침으로서 교통운수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교통운수의 기본 수송조직, 수송방법을 명시해준다.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는 교통운수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화를 다그쳐나아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일찌기 집합수송을 비롯한 독창적인 수송방침을 제시하시여 전후복구와 사회주의건설에로 수송전사들을 힘있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다시금 명확히 밝혀주시고 수송혁명을 힘있게 벌려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 《수송혁명200일전투》기간에만 하여도 서포집중화물역을 현대적으로 꾸리는것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집중화물역들을 완성하였으며 공장, 기업소의 전용선을 꾸리고 역구내선을 늘이며 철길을 보강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만능집함, 정광집함, 비료집함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집함을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통일적인 집함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움으로써 화물중계시간을 훨씬 줄이고 더 많은 짐을 빨리 실어나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올해에 《다시한번 수송혁명 200일전투에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 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첫전투부터 커다란 증송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교통운수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증송성과들은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지금 있는 수송수단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혁명을 더욱 힘있게 일으킴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3대수송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을 위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더욱 튼튼히 갖추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중화물역을 비롯한 철도화물역들을 잘 꾸리며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기계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7페지)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집중수송체계를 널리 받아들일수 있도록 집중화물역을 잘 꾸리고 현대화하며 여러가지 륜전기재들과 상하차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꾸리고있는 집중화물역들을 마저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문형기중기와 지게차, 자동차기중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을 널리 생산도입하여 모든 집중화물역들을 더욱 현대적으로 꾸려야 한다.

전용선을 가지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짧은 시간에 짐을 싣고부릴수 있도록 전용선에 기중기를 많이 만들어놓고 상하차시설을 개조하며 종합저장장들을 잘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역구내선을 더 늘이고 철길을 보강하며 기관차와 화차 수리기지를 강화하여 집중수송체계가 더 큰 은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집중수송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한편 철도의 수송능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하여서

는 전기기관차와 중량화차, 유조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특수화차의 생산을 빨리 늘여야 하며 지금 진행하고있는 철도건설을 마저 끝내는것과 함께 여러 구간들에 새 철도를 더 놓으며 협궤철도를 광궤로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철도전기화구간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많은 구간을 새로 전기화함으로써 철도화물수송총량에서 전기기관차에 의한 견인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중요구간들과 조차장들을 반자동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철도와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도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여러가지 자동차와 련결차 그리고 짐배들을 만들며 항구들을 확장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륜전기재, 부속품 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모든 수송수단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그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짐함수송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하여 짐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짐함과 그것을 제때에 싣고부릴수 있는 기중기를 많이 만들며 짐을 보관할수 있는 창고들을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철도에서 쓰는 짐함은 만능화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쓰는 짐함은 단능화하는 원칙에서 여러가지 짐함을 도처에서 만들어 씀으로써 짐함수송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짐함수송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적극 생산도입하며 세멘트, 화학비료, 량곡 중간창고와 짐함적재장을 건설하고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3대수송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교통운수부문에서 조직계획사업을 짜고들며 수송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집중수송, 련대수송, 짐함수송은 수송사업에서 높은 조직성과 계획성, 유일적인 수송지휘체계에 의한 통일적인 수송조직과 수송지휘를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한다. 아무리 집중화물역들이 꾸려지고 필요한 륜전기재들이 갖추어져있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고 수송지휘를 옳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제대로 은을 나타낼수 없다. 수송 조직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만 반복수송, 역수송 등 온갖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고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짐을 빨리 실어나를수 있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면밀히 짜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리며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특히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량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방향에서 순환집중수송방법과 전문집중수송방법을 널리 조직하고 그 비중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통신수단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수송지휘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와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조직을 짜고드는것은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련대수송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동차의 기동적인 운행, 먼거리수송과 가까운 거리수송을 옳게 배합하여 조직하며 자동차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배에 의한 화물수송량을 끊임없이 늘여 철도의 부담을 덜고 집중수송체계가 더 큰 위력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짐함수송이 늘어나는 구체적실정에 맞게 짐함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우리는 짐함을 알뜰히 관리하고 제때에 보수정비하며 계획적으로 순환시키고 회수리용하는 모든 대책을 철저히 세워 그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짐임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화물의 판매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함으로써 화물을 제때에 집중화물역들에 집결시키고 제때에 그곳으로

부터 실어나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수송전선에서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짐을 제때에 실어나를수 있을뿐아니라 여러가지 사전사고를 미리 막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수 있다.

우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다 제정된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과 함께 수송혁명수행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규정들을 잘 만들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수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수송전선에 대한 전인민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이다.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문이 빨리 발전하여야 전반적인민경제의 급속한 장성이 이룩되는것만큼 수송전선을 지원하는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송전선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여 철강재와 세멘트, 여러가지 기계설비와 목재를 비롯한 모든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자기가 맡은 집중화물역과 전용선을 꾸리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짐을 실고부리는 시설을 잘 꾸려 렬차가 닿는족족 제때에 상하차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화차회귀일수를 줄이고 미하차를 결정적으로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선로를 비롯한 철도시설물과 자동차, 배를 수리정비하는 사업을 주인답게 도와야 한다.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일이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일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사업에 몸바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1～122페지)

많은 집중화물역들이 꾸려지고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3대수송방침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동원되여 적극 투쟁하는데 달려있다.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와 3대수송방침을 관철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합수송의 요구와 구체적방도들을 잘 알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치나서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이미 마련된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송의 긴장성을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당적, 국가적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며 본위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한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다시한번 수송혁명 200일전투에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수송혁명의 불길을 높임으로써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해나아가자.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민족의 영구 분렬을 추구하는 범죄행위

손 진 팔

오늘 우리 나라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영구분렬의 엄중한 위험에 직면하고있다.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한강토를 둘로 분렬시켰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들씌운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에 와서는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으며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그에 발맞추어 민족분렬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더욱 큰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30년나마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의 비극은 영구화될 위험이 짙어가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유린행위이며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적책동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두고 한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공통성과 단일성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말살될수 없으며 결코 달리 변할수도 없는것이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인민은 분렬이 아니라 통일을 한결같이 지향하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하루빨리 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 *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전조선과 나아가서 아세아에 대한 침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있으며 조선의 영구분렬을 추구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미쳐날뛰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23～124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으로 전조선을 침략하려던 제놈들의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음흉한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꾸며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는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횡포한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나 이 지역에서 거듭되는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으며 그후 아세아의 도처에서 끊임없이 얻어맞고 헤여날수 없는 엄중한 군사정치적위기를 겪게 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과 그 영향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아세아의 전반적혁명력량이 급속히 장성함에 따라 미제는 아세아에서 더욱 수세에 빠지게 되였으며 놈들의 침략적지반은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의 《힘의 정책》과 침략전략이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더욱 높아가고있는 오늘에 와서는 통하지 않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제는 《힘》에 의한 침략전략이 전면적파산에 직면하게 된 조건에서 《평화》

의 탈을 쓰고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리면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해보려고 꾀하였다. 미제의 《량면전술》은 저들의 《힘의 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가장 음흉하고 악랄한 침략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위기에 빠져 허덕일 때마다 상투적으로 《평화전략》, 《량면전술》을 들고나오며 그 막뒤에서 전쟁정책을 추구한다.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바로 미제의 이러한 침략정책의 산물이며 그 한고리이다.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는 본질에 있어서 북과 남을 서로 다른 두개 나라, 두개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놓고 북과 남사이의 민족내부문제를 다른 국가, 다른 민족들사이의 문제로 변질시킴으로써 한나라, 한민족으로서의 통일된 조선의 존재를 영영 없애버리자는것이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손에 틀어쥐며 전조선과 아세아 침략을 위한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제의 흉악한 《두개 조선》조작음모에는 일본반동들과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이 추종하여 저들대로의 더러운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일본의 반동지배층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적극 가담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별동대》의 역할을 맡아나서고있다. 그들은 《두개 조선》을 조작함으로써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더욱 깊숙이 뻗치고 남조선의 값싼 로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하며 그곳을 저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자본투하지로 완전히 전변시키려는 속심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상전의 비호밑에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는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렬을 통하여 남조선을 미일침략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내맡기고 그 대가로 식민지파쑈정권을 유지하며 제놈들의 더러운 목숨을 이어나가려 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는 이처럼 하나인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우리 인민에게 더 큰 불행을 강요하는 방법으로써 제놈들의 흉악한 목적을 달성해보려는 극히 엄중한 책동이며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지금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음흉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현실인정》이라는 간판밑에 《교차승인론》이요, 《유엔가입론》이요 하는것을 내들고 어떻게하나 《두개 조선》을 합법화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어 영원히 북과 남으로 갈라놓으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이른바 〈교차승인론〉을 절대로 찬성할수 없습니다.》(《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과 한 담화》, 28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교차승인론》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조선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렬로 합법화하여 《두개 조선》으로의 영구분렬을 고착시키려는 음흉한 모략책동이다.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이 남조선괴뢰정권을 《승인》하면 제놈들도 우리를 《승인》할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이른바 《교차승인구상》을 그 누구에게 납득시켜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일본반동들은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 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최근에 분렬주의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남조선괴뢰집단을 자주권을 행사하는 그 어떤 《정권》처럼 꾸며대면서 우리와만 국가관계를 가지고있는 여러 나라들에 남조선괴뢰들과 관계를 맺을것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강요해나서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교차승인》이 조선에서 《평화》를 담보하며 조선문제 해결의 《합리적방도》로 될것이라고 떠들고있으나 그것은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교차승인론》은 조선에서 그 어떤 평화의 《담보》로도 되지 않으며 통일문제 해결의 그 어떤 방도로도 될수 없다.

《교차승인론》을 통하여 분렬주의자들이 노리는 진짜목적은 《교차승인》의 방법으로 남조선괴뢰정권을 인정시킴으로써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여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영원히 틀어쥐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한강토, 한민족안에 서로 적대되는 두개 국가를 만들어놓음으로써 민족적 분렬과 대립을 격화시켜 결국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켜 저들의 침략야욕을 이루어보려는것이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교차승인론》을 실현해보려고 아랑하게 책동하고있지만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실권도 없으며 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완전한 예속정권이며 식민지괴뢰정권인 남조선의 《정권》은 결코 독립국가들이 관계를 가져야 할 대상이 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괴뢰정권에 대하여 그 무슨 《승인》을 운운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우리 인민의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행위로 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떠드는 《유엔가입론》도 《교차승인론》과 다름없는 영구분렬론이다.

《유엔가입론》은 유엔의 성원국으로 되는 나라들이 독립국가로서의 존재와 지위를 인정받고있는 국제관계를 분렬된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시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을 우리 인민스스로가 택한 분렬로,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된 기정사실로 되게 하려는것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러한 음흉한 목적밑에 끊임없이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과 남조선의 《유엔단독가입》을 시도하고있다.

만일 남조선의 《유엔단독가입》이 허용되면 남조선의 괴뢰정권이 마치도 조선에서 합법적인 국가인것처럼 행사할것이며 조선의 북과 남이 분렬된채 유엔에 들어간다면 하나의 민족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국제적으로 두개 국가로 갈라져 조선의 분렬은 영원히 고착되고 말것이다.

두개 조선으로의 영구분렬은 북과 남의 모든 인민들을 참으로 엄중한 민족적비운속에 몰아넣게 될것이다.

분렬이 끝없이 지속된다면 우리 인민은 지난 30여년동안 겪어온 분렬의 고통보다 헤아릴수 없는 더 큰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될것이며 우리 세대뿐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분렬주의자들의 《유엔가입론》은 조선인민의 사활적인 리해관계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으로서 절대로 성립될수 없는 일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한편 이른바 《힘의 균형론》을 들고나옴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담보》를 마련해보려 하고있다.

《교차승인론》과 《유엔가입론》이 조선의 영구분렬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것이라면 《힘의 균형론》은 무력으로써 영구분렬을 뒤받침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다그치기 위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에서 그 무슨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저들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침략적지반을 강화하기에 미쳐날뛰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으로부터의 저들의 침략군의 실질적인 철수는 어떻게하나 회피하면서 《미지상군의 단계적철수》에 따르는 《보완조치》라는 간판밑에 남조선에 있는 해군, 공군 무력을 더 늘이고 많은 현대적살륙무기들을 끌어들이

고있으며 남조선괴뢰들에게 더 많은 딸라와 무기를 쥐여주고있다. 한편 미제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의 기지를 리용할뿐아니라 《자위대》무력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실무적조치를 취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힘의 균형론》이라는것이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패이고 우리와의 대결을 강화하기 위한 구호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힘의 균형론》의 간판밑에 벌리고있는 미제의 군사적침략책동은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민족적 반목과 대결이 고취되고있는 가운데 쌍방의 무력이 서로 대치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 불안과 긴장상태가 가셔질수 없으며 전쟁의 위험이 사라질수 없다. 《힘의 균형론》의 간판밑에 군사적책동이 계속된다면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기 마련이며 그것은 궁극에 가서 전쟁의 참화를 빚어낼수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조선의 영구분렬을 《현실성》이니 《공정성》이니 뭐니 하는 궤변으로 합리화해보려 하고있으나 우리 인민에게 영원한 불행을 가져오게 될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그 침략적본질은 결코 숨길수 없다.

조선의 영구분렬의 위험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에 기인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다.

조선에서 진정한 평화와 평화통일이 이룩되자면 미제가 남조선에서 물러나고 놈들의 모든 침략책동이 하루빨리 제거되여야 한다.

* *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더욱 참을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국내의 주되는 장애물은 남조선반동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87페지)

외세에 매여달려 명줄을 이어가는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음모에 적극 추종하면서 인위적인 분렬상태를 고착시켜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 하고있다.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우리 강토를 둘로 갈라놓고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을 《이민족화》하는것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있어서 하나의 생존방식으로 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민족분렬의 지속에서 살구멍을 찾으며 장기집권의 추악한 야욕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괴뢰도당은 이러한 목적밑에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등을 돌려대고 미일상전에게 적극 추종하면서 영구분렬책동을 발악적으로 벌리고있다.

안팎으로 고립되여 궁지에 빠진 남조선괴뢰들은 영구분렬에서 출로를 찾으려고 꾀하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제기하고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과 방안들을 덮어놓고 반대하여왔다. 놈들은 나중에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민족분렬을 《정책》으로 선포하는데로 나갔으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을 더욱 위험한 단계에로 끌어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통일이 실현되자면 최소한 《두세대,50년》은 걸려야 할것이라느니, 통일문제는 《100년 전쟁을 치르듯이 서서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느니, 저들의 당면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라느니 하는 따위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통일불가능론》과 《분렬유익설》을 퍼뜨리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분렬을 고착시키고 그것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북과 남사이에 정치적장벽을 쌓고 《유신정권》을 철저한 영구분렬체제로 꾸림으로써 한강토우에 적대적인 두개 국가가 영원히 남아있게 하려 하고있다.

총칼을 휘둘러 《유신》독재체제를 꾸며낸 박정희괴뢰도당은 그에 의거하여 남조선에서 영구분렬체제를 각방으로 강화하고있으며 모든것을 북과 남의 대결과 영구분렬에 복종시키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분렬을 일삼는 괴뢰들의 범죄적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의 사회구조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구조로 전변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의식이 고취되고있다. 남조선은 공화국북반부와 완전히 절연상태에 있는 《이역지대》로 화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남조선에서 철저한 대결체제, 영구분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옷자락에 더욱더 매달리면서 남조선을 미일반동들의 완전한 정치적예속물로 내맡기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집행할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오직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도구에 불과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서방출판물들까지도 남조선의 《유신정권》은 미일상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시녀정권》에 지나지 않으며 남조선땅은 미국의 한개 주나 일본의 한개 현으로 전락되였다고 폭로하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정치적으로뿐아니라 군사, 경제 분야에서도 영구분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날뛰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실력배양》이니 《총력안보》니 하는 구호밑에 괴뢰군병력을 늘이고 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군사적잠재력강화를 위하여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깡그리 동원하는 한편 군사파쑈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돌아치고있다.

민족의 분렬을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괴뢰도당은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미군을 《구세주》로, 《보호자》로 섬기고있으며 《미군은 우리와 공동운명속에 련결되여있기때문에 동질성을 가진 민족의 성원》이라고 황당무계한 망발까지 늘어놓고있다. 놈들은 또한 실천되지도 않고있는 《철군》을 구실삼아 더 많은 미제의 군사《원조》를 구걸해나서고있으며 비행기와 함선을 비롯한 현대적작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온 남조선땅은 새 전쟁 도발을 위한 군사기지로, 병영으로 뒤덮이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복무하는 하나의 군사적부속물로 더욱 철저히 전변되고있다.

민족의 영구분렬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매국배족행위도 서슴지않는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지상군의 《철군》설이 나돌자 일본반동들에게 더 바싹 빌붙어 그들의 《보호》를 애걸하는 추태를 부리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적극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일본반동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여 그들과의 예속적인 정치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은 놈들이 《한일운명공동체론》과 《한일안전일체론》까지 퍼뜨리고있는데서 잘 볼수 있다. 이것은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내선일체론》과 《동조동근론》을 그대로 되뇌이는 매국적넉두리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과 군사인원을 교류하고 군사정보를 교환하며 무기의 규격과 군사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군사적결탁을 다그쳐온 남조선괴뢰들은 오늘 일본반동들과 《한미일안보협력기구》를 꾸며내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하여 서두르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남조선에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무리로 쓸어들어 재침의 마수를 더욱 깊숙이 뻗치고있으며 남조선은 미일의 2중의 군사적식민지로 화할 위험에 직면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와 함께 남조선경제를 미국과 일본의 예속경제로 전락시키고 우리 인민의 경제생활의 공통성마저 여지없이 유린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인 외세의존정책으로 하여 남조선경제는 자립적인 민족경제와는 체질이 다른 미국과 일본의 지역경제로 전변되였으며 남조선은 외세가 지배하는 경제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이리하여 북과 남이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민족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경제적기초와 가능성들이 더욱더 말살되고있다.

남조선에 끌어들인 외자총액은 1977년 8월말 현재 무려 140여억딸라에 이르렀는데 이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민족경제는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지금 남조선경제는 철저히 외국자본에 얽매여 그 착취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남조선공업의 70%이상이 집중되여있는 남해안의 공업지구는 이미 일본의 관서경제권에 통합되여 일본의 지역경제로 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리권을 넘겨줌으로써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리권보호》라는 구실밑에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투입할수 있게 하려 하고있다. 놈들이 《외자의 투자는 군대의 주둔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느니 《일본독점자본을 끌어들이는것은 앞으로 그들로 하여금 리권보호를 위하여 무력을 투입할수 있게 하는것이다.》느니 하면서 떠벌이고있는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남조선괴뢰도당의 외세의존의 경제정책은 극도에 이르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남조선경제는 말그대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권에 철저히 매여있는 식민지경제로 화하고있다.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을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놓기 위한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에 의하여 오늘 영구분렬의 위험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민족자체를 부정하고 한민족을 두개의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놓는것은 민족의 혈맥을 끊어놓는 참을수 없는 매국배족행위이다.

《반공》을 《국시제일주의》로 삼고있는 괴뢰도당은 그것을 민족 결별과 영구분렬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반공》이 골수에 사무친 박정희괴뢰도당은 공산주의자들과는 같이 살수 없다고 하면서 북반부인민들과 민족적으로 결별할것을 남조선인민들에게 설교하고있다. 이것은 실로 《반공》광신자만이 할수 있는 망발이다.

한민족안에는 사상과 리념, 신앙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으며 더구나 리념과 신앙의 차이가 민족을 가르고 동족을 특징짓는 척도로는 될수 없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민족의 공통성을 말살하고 력사를 외곡하며 문화와 생활양식, 풍습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버림으로써 하나의 민족을 서로 다른 두개 민족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남조선에 홍수처럼 밀려들고있는 퇴페적인 부르죠아문화와 왜색, 왜풍, 《미국식생활양식》은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 풍습을 더럽히고 남조선인민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위험한 독소로 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기질과 정신도덕생활에서의 민족적공통성은 점차 사라지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대결체제, 영구분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동시가입》, 《불가침조약》과 같은 온갖 분렬방안을 들고나와 저들의 영구분렬책동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괴뢰도당이 떠드는 《불가침조약》은 남북이 현재의 분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겠다는것을 《담보》한다는것인데 이러한 주장자체가 분렬을 합법화하려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나라의 분렬을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분렬로 만들어놓고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두개 조선》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음흉한 술책이다.

이 모든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리익,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을 짓밟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는 가장 극악한 사대분렬주의자이며 매국배족의 원흉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것은 또한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조성된 인위적인 분렬상태를 고착시키고 그것을 영구화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준다.

* *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은 나라의 통일을 한결같이 바라는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지향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파렴치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행위이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우리 인민은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하며 분렬주의자들이 수치스러운 범죄행위를 걷어치울것을 단호히 주장한다.

조국의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인민은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키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민족도 하나이다.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를 두고 한강토우에서 한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며 우리 나라는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갈라놓을수 없는 하나의 강토이다.

미제는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그만두고 유엔의 결의와 이미 공약한대로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군대와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완전히 나가야 하며 조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일본반동지배층도 미국의 《두개 조선》각본에 춤추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괴뢰들의 분렬책동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외세에 매달려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분렬시키며 거기에서 살구멍을 찾고 장기집권의 길을 찾으려는 추악한 책동을 걷어치우고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대로 《정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일상전을 등에 업고 영구분렬과 매국배족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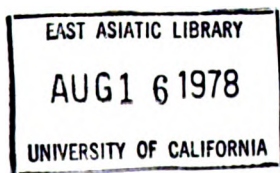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그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은 파난을 면치 못할것이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근로자 1978년 제5호(루계433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78년 5월 1일 발행 • 1978년 5월 5일

ㄱ—85101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근로자

제 6 호(43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되여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충성의 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를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하루빨리 완성하며 이 땅우에 더욱 륭성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불타는 지향과 강의한 의지, 불굴의 전투적기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휘하여 힘찬 로력투쟁을 벌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보람찬 첫전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흐뭇하게 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새 전망계획 수행의 첫전투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고한 신심과 투쟁의 불타는 열정을 안겨주고있으며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점령할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비상히 빨리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그들의 사상과 열의를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투쟁경험은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휘할 때 참으로 위대한 기적과 비약이 이룩되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대중의 사상과 열의를 힘있게 발동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빛나게 완수해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며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야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위대한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는 한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혁명적령도의 특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습니다. 군중

에 의거하며 광범한 군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바로 여기에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0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인민대중의 사상과 열의를 힘있게 발동함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왔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한다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과 열정을 심어주어 그들이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조성,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도록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준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임무의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일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사상과 열의를 발동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원칙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힘있게 움직이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다. 세상에서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물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물질적수단이 큰 영향을 미친다.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생활수단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한것이며 사람을 떠나서는 무의미한것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객관적조건을 마련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도 다 근로인민대중이다.

결국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다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어떻게 발동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혁명과 건설은 그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의식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에 의하여 수행된다.

사상의식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바로 사상의식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의식은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정한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주위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연과 사회를 목적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벌린다.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람은 자기 활동의 목표와 그 결과를 예견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에서 목적의식성, 열의와 투지를 가지게 된다.

사상의식은 또한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한다.

이처럼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창조적위력은 바로 사람에게 고유한 사상의식의 위력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전면적으로 발휘되며 혁명과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더욱더 커진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저애하는 어떠한 사회경제적지반도 없으며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져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사람들의 높은 자각성과 의식적활동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하는 사회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이 전례없이 커지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더욱더 높아진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은 결코 저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것도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혁명적인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그 발전법칙을 정확히 인식하고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적인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 사람들은 자주적힘과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휘하며 사회적존재로서의 가치와 품격,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게 된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신적불구자로밖에 될수 없다.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자각을 가지게 되며 자기 조국과 인민,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게 된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며 우리 인민이 사업과 생활에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튼튼히 견지할수 있으며 높은 자주정신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혁명적사상의식의 역할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속에 혁명사상을 심어주고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할 때 높이 발휘된다. 따라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리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 전망계획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하여나갈것을 요구하는 거창한 사업

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98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은 주체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에서 위대한 진보와 비약의 리정표이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비할바 없이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강령이다.

새 전망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계획이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경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립성을 강화하며 나라의 경제를 현대적인 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공정, 생산방법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잠재력과 내부원천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며 주체적립장에서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경제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더우기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남달리 첨예하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하에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애국적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단호히 물리치고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혁명적자각,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방대한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사상을 어떻게 발동하는가에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가는 무진장한 잠재력이 있으며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첫날부터 언제나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사상과 열의를 발동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독창적인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시고 그들의 사상의식과 열의를 발동하시여 혁명앞에 나선 난국을 타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세기적인 기적과 비약을 창조하여오신 자랑찬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6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그 어떤 간악한 적도 쳐물리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하였던 실로 인간의 상상을 뛰여넘는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전쟁이였다.

이 준엄한 투쟁에서 의거할것은 오직 인민대중뿐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엄혹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언제나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조국광복의 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정력적인 교양에 의하여 강철의 혁명대오로 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군중들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항일혁명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탁월한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혁명대오는 필승불패이며 그 어떤 간악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해방후 우리 나라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고 우리 인민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있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으며 국내의 온갖 반동세력들과 《애국자》, 《혁명가》로 자처하는 정치적투기분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또한 혼란을 조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혼란되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모든것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새 조국 건설을 위한 거창한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일제사상잔재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낡은 생활기풍을 청산하고 그들을 새로운 건국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몸소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이 힘있게 전개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민족적자각과 계급적각성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새 조국 건설에서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3년간의 준엄한 전쟁에서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대전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그 어떤 무기나 기술의 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하나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힘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전쟁의 전기간 인민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사업,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인민군군인들은 가렬처절한 전쟁에서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청춘의 심장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었으며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전후의 어려운 나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하여 그처럼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경제를 가장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복구하고 이 땅우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세기적인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밖으로는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안으로는 혁명의 배신자들이 당과 혁명을 반대하여 준동하던 어려운 시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난국을 뚫고나갈 힘과 지혜를 안겨주시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남김없이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리시였다.

우리 당은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세차게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사상과 열의를 힘있게 발동함으로써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오늘과 같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웠다.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대담하게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의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을 몸소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거대한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전인민적인 대자연개조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대중적인 혁신운동은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본때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방침이 얼마나 위대하며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혁명과 건설이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 우리앞에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을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을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투쟁에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으며 나라의 정세도 대단히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조직동원하며 지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신년사》 1978년 1월 1일, 단행본, 13페지)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힘있게 발동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바로 여기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중요한 예비가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힘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패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본질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당의 의도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며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조적지혜를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당

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다. 당조직들은 충실성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준비시켜야 하며 그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높은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혁명과업수행에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대담하게 뚫고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하게 하여야 하며 언제나 높은 혁명적안목과 계급적각오를 가지고 긴장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패기,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국광복의 불타는 일념과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맨주먹으로 《연길폭탄》과 무기를 만들어 일본침략자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운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지로, 전후 재더미속에서 불사조와 같이 일어나 낡은 기준과 공칭능력을 대담하게 마스고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앙양을 이룩한 천리마의 혁명정신과 기백으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승리적으로 진행한 속도전의 혁명정신과 패기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사상과 열의를 높이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행정식방법으로가 아니라 당적방법으로 대중속에 들어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참신하게 벌림으로써 그들이 높은 자각과 열정을 가지고 혁명임무수행에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벌려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온 나라에 혁명적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의 경험들을 깊이 체득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패기있게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을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혁명위업을 더 빨리 다그쳐나가자.

로동문제해결의 길을 밝혀준 위대한 법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친히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로동에 관한 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동정책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의 채택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고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사회주의로동법을 마련하여주심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로동생활분야에 구현하여 인간해방의 숭고한 리념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새형의 로동법전을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는 또하나의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인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이 제기하는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인민이 로동정책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로동생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첫 로동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지난 30여년동안 우리 인민의 사회경제적처지와 물질문화생활에서는 세기적인 변혁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람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는 강제로동과 노예로동, 고용로동의 흔적들을 영원히 쓸어버리고 사회주의로동제도를 확고히 세웠으며 사회주의로동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기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과업은 우리 인민이 로동생활분야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것을 더욱 확대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렇게 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에 관한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일어난 세기적변혁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새로운 사회주의로동법의 제정을 친히 발기하시였으며 몸소 그것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로동법은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로동의 원칙과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는 주체의 로동헌장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로동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의 본질적우월성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로동생활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을 공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규정하고 로동생활에서 공민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들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공산주의위업수행에서 지닌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도록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새 로동법은 또한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로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무궁무진한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과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공산주의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법적담보를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로동법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로동법전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력사발전의 주체이며 생산력발전의 결정적요인인 사람을 위주로 하여 로동생활, 로동활동의 전반적문제들을 완전히 새롭게 규제하고있으며 그 매 조문마다에 로동의 참된 주인으로 된 우리 근로자들에게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고있다.

철두철미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로동법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개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로력의 채용이나 로동보수와 같은 경제실무적문제들을 규제한 종래의 로동법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 사회주의로동법의 본질적특징이 있으며 그의 거대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강령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안전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으며 로동생활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새 사회주의로동법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힘든 일에서 영원히 해방되여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즐길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여나가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동헌장이다.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이처럼 혁명적

이고 인민적인 로동법전, 새로운 주체적인 로동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끝없는 로고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재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로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로동문제해결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적인 로동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그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노예로동의 폐지와 8시간로동제의 실시, 로동조건의 개선과 보험제의 실시, 민주주의적임금제도의 확립과 실업의 구제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집대성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로동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력사적뿌리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첫시기에 몸소 로동법령을 제정하심으로써 근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적 강제로동제도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새 조국 건설의 령도계급인 우리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보람찬 민주주의적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실로 로동법령의 실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로동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사변이였으며 로동계급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의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였으며 모두가 한결같이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마음껏 일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로동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였으며 로동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넓은 길이 열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경제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공산주의적원칙을 전면적으로 실시할수 있으리만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력발전수준이 높지 못하며 로동에서의 본질적차이도 남아있다. 그러므로 로동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하에서도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바로 적용하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사회적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을 사회주의로동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국가가 기술혁명을 다그쳐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과 휴식을 옳게 배합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로동에 관한 사상과 방침들은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의 합법칙성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가장 정당한 사상과 방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근로자들의 로동과 건강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그 언제나 잊으신적 없으신 만경대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도 강선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시여 그들에게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된 영예를 안겨주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크고작은 공장과 기업소, 농촌과 어촌들을 찾으시고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로동조건과 충분한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친어버이사랑과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오랜 력사를 두고 근로인민대중을 짓누르던 수난의 로동력사를 끝장낼수 있었으며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보람차고 즐거운 창조적로동과 문화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문제해결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을 집대성하고 법적으로 고착시킨 력사적인 로동헌장이며 로동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로동법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주체적인 사회주의로동법의 채택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로동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제도를 마련하여주시고 로동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살며 투쟁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주의로동에 더욱 성실히 참가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의 제정으로 현대로동운동이 리상으로 내세웠던 구호와 요구들을 현실적인 공산주의적시책으로 법화한 로동법전이 마련되였으며 사회주의로동이 공산주의적로동으로 발전완성되여나가는 합법칙성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였다.

주체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의 채택은 근로인민대중을 죽음의 고역장에 몰아넣고 그들의 피와 땀을 악착하게 짜내며 심각한 실업문제로 허우적거리는 자본주의로동제도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그것은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통치밑에서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나가는것은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로운 의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을 존중히 여기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7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생

활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과 규범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로동헌장이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되여있는 원칙과 규범들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켜야만 그의 생활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 제정된 로동법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원칙과 요구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깊이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 사회주의로동법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 그 내용과 요구들을 깊이 해설침투시키는 사업을 세밀하게 짜고들어야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로동법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규정과 세칙들을 만들고 법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낡은 관점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로동법을 어기는 현상들을 미리 막을수 있다.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워 모두가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키던 그 기세, 그 용맹으로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또한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힘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지어주어 480분로동시간을 남김없이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로동계획을 세우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절배치하며 기능공들을 고착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라의 로력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로동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며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사업을 하루빨리 끝내야 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보호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로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인간해방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두다 주체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자.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자력갱생의 숭고한 혁명정신

김　　기　　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9폐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며 새 전망계획을 앞당기는 위력한 담보이다.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새 전망계획의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참다운 길이 있다.

자력갱생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전통적인 구호이며 우리 인민이 발휘한 전투적인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걸음마다 생명의 위험이 뒤따르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자력갱생하여 끝까지 자기 힘으로 혁명임무를 수행한 숭고한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훌륭히 꽃피워나가는 크나큰 자랑과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자주적립장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자기자신의 힘과 지혜로 혁명투쟁을 해나가며 자기 나라의 혁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정신이다. 그것은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여 혁명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나가는 높은 창조적정신이며 혁명앞에 가로놓인 그 어떤 곤난과 시련도 뚫고 혁명임무를 끝까지 완수해내고야마는 불굴의 투쟁정신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서 자력갱생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마련해주기 위한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이다.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더 말할것도 없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 사회 건설 역시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한다. 이러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결코 남의 힘을 믿고 남에게 의존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승리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민족국가 단위로 진행되며 민족의 주체적혁명력량에 의하여 수행되는것만큼 매개 나라 혁명의 담당자는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에 있다.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모든것을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할수 있고 자기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에서 자력갱생하여 자기 힘으로 혁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 인민의 힘도 믿지 못하게 되고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풀어나갈수도 없게 된다.

오직 자력갱생의 길만이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은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력사적경험은 혁명투쟁의 모든 승리와 고귀한 전취물들은 다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일떠선 인민대중의 피어린 투쟁에 의해서만이 이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이야말로 간고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자체가 제기하는 필수적요구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옳은 립장과 태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로동계급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체현한 공산주의자들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보기 드문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을것이란 오직 근로인민대중밖에 없었으며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9페지)

항일무장투쟁은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수백만 침략군대를 가진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하여 조직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은 그 첫걸음부터 간고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어떤 국가적후방도 없고 외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루 말할수 없는 곤난과 엄혹한 시련을 다 뚫고나가야만 하였다. 무기와 피복,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원쑤와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또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로부터 구체적인 투쟁방법에 이르기까지도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립장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혁명력량이 저절로

꾸려지기를 기다리고있거나 팔짱을 끼고앉아서 모든 조건들이 다 마련되기를 바라고만 있는다면 도대체 혁명을 할수도 없고 나라의 광복을 이룩할수도 없었을것이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과연 어떤 힘에 의거하여야 하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어떠한 로선과 전략전술적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오직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해야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자주성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독창적인 전략전술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고 가렬한 무장투쟁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며 남의 경험을 통채로 삼켜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온갖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배격하시고 자주적립장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성스러운 혁명투쟁에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수령님께서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신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가장 빛나게 구현된 위대한 혁명전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과정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이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은 립장과 태도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9폐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선혁명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으며 오직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자신의 투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갔다.

현대적인 군사기술로 무장한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혁명대오안에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항일유격대는 나라가 이미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여 주권도 민족군대도 가지고있지 못한 조건에서 그 어데서도 방조받을수 없었다. 오직 무장대오도 자체의 힘으로 꾸려야 하였고 무장장비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은 끝없는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동지 한사람, 한사람을 유격대오에 묶어세웠으며 그 누가 무기를 가져다주기를 기다린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였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동지를 묶어세우기 위하여, 한자루의 총, 한알의 탄알을 얻어내기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으며 이러한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자신을 무장하였다.

이리하여 맨주먹으로 투쟁에 나선 항일유격대원들은 보총과 기관총은 물론 박격포와 대포와 같은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일제와 맞서 싸울수 있게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도 혁명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창조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줄 아는 사람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없는곳에서도 혁명이 요구한다면 필요한 모든것을 제때에 만들줄 알아야 한다.

자력갱생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과 기풍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 전반에 일관하게 관통하고있는 확고한 원칙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무기와 식량, 피복과 의약품, 학습도구와 생활도구에 이르기까지 일체 투쟁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해결하였다.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원쑤들을 앞뒤에 달고 결사전을 벌리면서 단숨에 수백리씩 행군도 하고 때로는 령하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키를 넘는 눈길속에서 며칠씩 굶으면서 원쑤와 싸워야 하는 정황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한다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의 요구라면 아무리 어려운것이라 하더라도 기어이 뚫고 자체로 풀어나갔으며 남의 도움을 바라거나 조건을 탓하지 않았다. 유격대원들은 일단 혁명임무가 제기되면 언제나 기술이나 능력, 조건을 생각한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하며 또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냈으며 온갖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심장속에 불타고있는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께서 몸소 만들어내신 모범을 본받아 천고의 밀림속에서 풀무와 마치, 집게와 같은 보잘것 없는 야장도구를 가지고도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연길폭탄》을 만들어냈으며 별의별 무기도 다 수리해냈다. 하나밖에 없는 재봉기바늘이 부러졌을 때 천신만고하여 돗바늘로 재봉기바늘을 만들어 썼다는 이야기, 원쑤들과 끊임없는 전투를 계속하면서도 자체로 농사를 지어 어려운 식량문제를 풀어나갔으며 한두해도 아닌 15성상을 싸워왔다는 이야기는 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높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수행해내고야마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끊임없는 전투와 행군으로 계속되는 항일무장투쟁에서는 제기되는 모든 임무들이 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투쟁이였다. 투쟁과정에는 예상치 않았던 곤난이 앞에 놓이기도 하고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만약 그때에 난관을 두려워하거나 필승의 신념이 없고 혁명의 굳은 절개가 없었더라면 투쟁을 계속할수도 없었을것이고 조선혁명은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도 없었을것이다.

오직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심, 자기들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말겠다는 그 불같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제기된 혁명임무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무조건 끝까지 어김없이 수행해내고야 말았던것이다. 불과 몇명 안되는 대원

들로써 세주일도 되나마나한 짧은 기간에 600여벌의 군복과 물자를 마련한 기적같은 이야기며 옥수수 한포대를 놓고 적과의 피어린 격전을 벌려야 하는 정황에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어이 800섬의 식량을 장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영예롭게 수행해낸 이야기는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발양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숭고한 높이를 그대로 말하여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물리치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키며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기적을 창조해내며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다. 이것은 물과 풀이 있는데라면 그 어떤곳에서라도 살며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자력갱생의 생동한 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력갱생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에 자리잡고 있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가장 고귀한 사상적 재부이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높이 추켜드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는 언제나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안겨주었고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자력갱생의 전통적인 혁명정신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인민은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자기 힘으로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아름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도 이겨내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전후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빈터우에서 모든것을 새로 일떠세워야 하였던 어려운 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더욱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경제적락후성을 가시고 현대적인 주체공업과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자랑차게 떨치고있다.

실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전통적인 혁명정신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에게 높은 혁명적자각과 불타는 애국적열정,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위력을 불러일으키고 끊임없는 변혁과 기적을 이룩할수 있게 한 위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이루다 말할수 없이 험난한 길을 헤치고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은 영명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인민앞에는 그 어떤 극복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자력갱생의 길만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가장 빨리 완성해나갈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길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은 혁명의 길에서 멀리 전진하여왔다.

조선혁명의 참다운 시원이 열리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개시되던 그 성

스러운 나날에 백두밀림에서 시작되고 조선혁명의 전로정에 차고넘치였던 자력갱생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가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9페지)

제2차7개년계획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며 자체의 힘과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수행해야 할 웅대한 계획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이는 새 전망계획의 어느 한 목표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투쟁해온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다. 우리 혁명은 처음부터 남을 믿고 시작한것이 아니며 또 남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이 아무리 방대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의 불타는 열정을 안고 굴함없이 싸워나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창조할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백두밀림에서 창조되고 천리마와 속도전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빛나게 이어진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정신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수

김 창 원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우리 시대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사상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영원불멸할 세계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전체계와 내용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다.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혁명성, 불패의 생활력의 근본원천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인 주체사상을 깊이 파악하여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체득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듦으로써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4페지)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룬다는것은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핵을 이루는 근본사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사상과 리론, 방법의 출발점을 이루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관통되여있는 근본사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사상은 그의 전반체계와 내용을 규정하는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그의 진수를 이루는 근본사상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바로 이 새롭고 독창적인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며 심오한 모든 사상리론적내용들은 주체의 사상, 주체의 리론, 주체의 방법에 정연하게 집대성되여있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

견된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구별되는 근본특징이 있다.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세계관적기초를 이루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방법을 주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사람들에게 옳은 세계관을 주며 그들이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는것이다.

세계에서 사람은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놀고있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가 날로 더욱 확대강화되고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세계는 한층 더 사람을 위한것으로 되여가고있다. 따라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있으며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밝히자면 마땅히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하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야 한다.

사람은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해나간다. 따라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파악해야 옳은 세계관을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참다운 길을 가르쳐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에는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가르쳐준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담당자라는것을 가르쳐준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의 근본요인과 합법칙적방향을 새롭게 밝혀준다.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창조적힘이 사회발전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며 인민대중이 지향하고 념원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리해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줄뿐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론을 밝혀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세워진 세계의 인식과 개조의 방법이다. 사람은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자연

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와의 관계에서 보고 풀어나가야 하며 모든것이 사람, 근로인민대중에게 리익이 되게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이와 같이 사람을 위주로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방법을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에 대한 옳은 견해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방법을 주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임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바로 주체사상, 주체의 세계관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 주체의 세계관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참다운 혁명적 학설로 전환시킬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수로 되는 근거가 있다.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또한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는 혁명리론의 근본원리를 주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68페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누구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것은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옳게 밝혀져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작성하는데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밝힘으로써 모든 혁명리론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옳게 풀어나가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작성할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그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의 본질과 근원, 혁명의 성격과 목적을 밝히고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해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가르쳐주며 이에 기초하여 사회혁명의 근원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이와 함께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기본임무와 사회계급적관계에 따라 혁명의 성격과 류형을 밝히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일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우고 그들을 발동시키는것을 기본방법으로 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혁명단계 즉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에 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리론은 이처럼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혁명리론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수로 되는 또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있다.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또한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는 혁명의 령도방법의 근본원리를 주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주체사상의 기본내용의 하나를 이루고있는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다.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기때문에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방법은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어떻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것인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어떤 방법으로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것인가 하는 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주고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세워진 혁명과 건설의 근본립장, 근본방법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것만큼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켜나가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사람의 생명인 자주성을 구현하는 립장으로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의사와 요구를 관철하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옹호할수 있고 자기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은 또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동력인것만큼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방법을 가져야 한다. 창조적립장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창조성을 구현하는 립장으로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근본방법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창조적립장에 의거하여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으며 모든것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령도체계와 령도원칙,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주체의 령도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혁명적군중로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가장 완성된 령도방법으로 되였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전체계와 내용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를 이루며 그에 관통되여있는 근본사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모든 사상리론적 내용과 방법들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그것으로 관통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진수로 함으로 하여 가장 완성된 구성체계와 사상리론적내용을 체현하게 되였으며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사회발전을 비상히 다그치기 위한 우리 시대의 근본요구를 구현하여나온 위대하고 독창적인 사상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가 더욱더 공고히 되고 모든것을 결정하는 그들의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우리 시대의 객관적현실과 전진운동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고있으며 근로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리게 될 공산주의미래를 반영하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구현한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와 명제들은 주체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그 진리성이 더욱더 확증되며 그의 생활력이 더한층 높이 발양된다.

그러므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우리 혁명의 승리적로정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인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혁명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찬란한 성과들, 이 땅우에 창조된 천지개벽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이 낳은 빛나는 열매이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였으며 확고한 주체의 세계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드놀지 않는 주체의 신념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의 심각한 혁명적전환이며 사상혁명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주체의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모든 인민들이 주체의 신념과 의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또한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이리하여 지난날 세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사람,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과학적으로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세계 수억만 인민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고 그것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서 투쟁의 진로를 찾고 자주성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날이 갈수룩 인류해방을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더욱더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 *

우리 인민은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기치 높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참으로 긍지높은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혁명사상을 전개하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만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 진군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백전백승의 전투적기치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위대한 사랑, 끝없는 충실성에 대한 빛나는 화폭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에 대하여—

최 영 화

최근 백두산창작단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1, 2부)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는 항일유격대가 조직된 첫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통일전선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를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인공의 끝없는 충성심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담고있다.

영화는 주인공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반일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과 위대한 승리를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영화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1930년대초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광범한 애국력량을 반일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당시 일제침략자들은 만주침공을 감행하면서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말그대로 일제의 살기띤 감옥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더욱더 참담한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자 이에 당황한 일제는 갓 창건된 항일유격대를 조선국내의 《치안유지》와 만주강점의 《암》으로 보고 그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중국 동만지방에 수많은 병력을 끌어들이였으며 한편으로는 악랄한 민족리간책동을 꾀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혁명대렬안에 기여든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종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모한 5.30폭동을 일으켰으며 혁명에 막대한 후과를 미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혁명의 성숙된 요구를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민족주의세력을 포함한 광범한 애국력량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계각층의 반일력량을 쟁취하고 조직적으로 결속할데 대한 문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첫시기부터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44페지)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반일통일전선로선은 혁명의 길우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국을 뚫고 모든 반일력량을 총동원하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길을 승리적으로 열어나갈수 있게 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였다.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는 실지에 있은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파견하신 항일유격대의 한 지휘성원이 민족주의자들과 독립군부대안에 들어가 반일통일전선로선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눈부시게 벌려나가는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통일

전선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불멸의 화폭으로 노래한 특출한 성과작이며 기념비적대작이다.

1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강반석어머님을 비롯한 혁명일가의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첫 전위투사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핵심적골간이 튼튼히 자라났다는것을 넓고도 깊은 예술적일반화를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준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 조직을 통하여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함으로써 혁명무력을 꾸릴수 있는 골간을 준비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혁명의 핵심적골간을 키우는것을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로 보시고 새형의 공산주의핵심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친히 타도제국주의동맹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무으시고 새세대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을 수많이 키워내시였다. 바로 영화의 주인공인 왕청유격대장 리광천이와 그리고 신철이, 진옥이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새세대의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난 존엄있고 긍지높은 수령님의 친위전사들이다.

영화는 이 친위전사 한사람한사람이 그처럼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교양되고 육성되였기에 그들의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 뿌리내려진 충성심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할수 없으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도 동요할줄 모르는 신념화된 충성심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천이에게 크나큰 육친적인 믿음을 베푸시여 앞으로 항일유격대가 의거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진지의 하나인 왕청유격대의 지휘관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그를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천이가 반일통일전선의 길에 가로놓인 난관을 헤쳐나갈 방도를 찾지 못하여 안타까이 모대길 때에도 그의 가슴에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며 벗과 원쑤를 똑똑히 가려보고 일제의 악랄한 모략책동을 경각성있게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투쟁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다.

멀리 앞을 환히 내다보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왕청유격대에 숨어들어 악랄하게 해독행위를 감행하고있는 혁명의 변절자 안하권의 정체를 꿰뚫어보시고 명철하신 가르치심을 주심으로써 광천이가 반일통일전선형성과정에 부닥친 엄중한 난관을 승리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이끌어주신다.

영화는 또한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니지 못한 그렇듯 위대하고도 숭고한 혁명적 사랑과 의리를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가슴뜨겁게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투쟁의 한길에서 기쁨도 슬픔도 같이하시는 혁명전사들을 육친적인 사랑과 뜨거운 혁명적의리로 돌봐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은 특히 신철이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믿음에서 가장 뜨겁게 형상되고있다.

한때 길을 잘못든탓으로 5.30폭동의 좌경모험주의적인 길로 떨어졌던 신철이가 친구인 광천이에게서까지 혁명의 배신자로 버림을 받아 가슴아픈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될 때에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며 그가 혁명대오에

다시 들어서도록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철이를 두고 리광천에게 다음과 같은 감회깊은 말씀을 하신다.

《우리는 처음 혁명을 시작할 때 동지한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백리 밤길을 걸어왔소. 때로는 밀정이 뒤를 따르는 위험한 길두 싫다 안하구 찾아갔드랬소. 신철이두 그때 공청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얻은 동무지…

신철이와 같은 사람을 다시 혁명대오에 돌려세우는 문제가 통일전선로선과 관계없는 일이겠는가, 아니요.… 신철이 같은 사람을 다시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민족이 다르구 계급적립장과 주의, 사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손잡구 싸워나갈수 있겠소.…》

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뜻깊은 말씀이신가!

이처럼 위대한 사랑을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전사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반일통일전선로선을 지켜 싸우다가 희생되였을 때 그리도 슬프시고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갈리시고 젖으신 음성으로 광천동무는 누구보다도 혁명에 충직한 조선인민의 아들이였소, 훌륭한 혁명가였소라고 말씀하시며 오래도록 눈내리는 전사의 무덤가를 떠나시지 못하신다.

눈물 없이는, 심장의 격동 없이는 볼수도 받아안을수도 없는 이 위대한 사랑의 화폭들을 통하여 영화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통일전선로선의 승리의 근본요인과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관철해내고야마는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신념화된 충성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심오하게 밝혀내고있다.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는 또한 광천이, 신철이, 진옥이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들로 자라나기까지에는 강반석어머님을 비롯한 혁명일가분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긍정인물들의 호상관계는 서로 잊을수도 없고 떼여낼수도 없는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인간적인것으로 엮혀져야 한다는 주체적문예사상을 깊이있게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와 우리 나라 새세대공산주의혁명가들과의 호상관계를 사상의지적으로뿐아니라 의리적으로 굳게 맺어진 가장 뜨거운 인간적인것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참으로 영화의 그 잊을수 없는 소중한 화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일가분들의 따뜻한 혈육의 사랑이 뜨겁게 넘쳐흐르고있으며 생활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첫무장대오 친위전사들의 충성심의 그 억센 뿌리를 이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서 찾고 이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격적특질을 밝힌 바로 여기에 영화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새롭게 개척한 귀중한 성과가 있는것이다.

광천이와 그 전우들에 대한 강반석어머님의 사랑은 친어머니의 사랑 그대로였다. 어머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살뜰하게 부어주신 위대한 사랑에는 동무복을 타고났다고 하시면서 동지들을 극진히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그대로 받들어나가시는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어머님의 이러한 심정은 특히 광천이가 신철이를 배신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신철이가 그 훌륭한 동무들의 사랑을 저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 집안엔 아버지때부터 물려오는 말이 있네. 쇠보다 강한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나라도 찾을수 있으며 산도 허물구 바다도 메울수 있다구…

따라오는 사람들을 데리구가기야 쉽지, 입에 칼을 물고 엇서는 사람까지 데리구가자니 오죽하겠나.》라고 말씀하

시는데서 더욱 감명깊게 이야기되고 있다.

영화는 또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투사들이신 김형권동지와 김철주동지께서 광천이, 신철이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서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신철이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을 간직하시고 수백리 먼길에 의사를 데려다가 사경에 처한 신철이의 생명을 구원하여주시고 그를 다시 혁명의 길로 떠밀어주시는 김철주동지의 존귀하신 모습과 감옥안에서 신철이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을 똑바로 잘 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안하권의 반혁명적정체를 일깨워주시는 김형권동지의 존귀하신 모습은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여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일가분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떠나서는 광천이의 그렇듯 값높은 생애도, 신철이의 재생도, 진옥이의 보람찬 삶도 결코 말할수 없는것이다.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는 이 모든 빛나는 형상들을 통하여 조선의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일가분들의 품속에서 새롭게 태여나고 억세게 자라났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혀주고있다.

영화는 바로 이 심오한 진리로 하여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일편단심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에 한몸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우리 당원들과 모든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2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가 이룩한 또하나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통일전선로선을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해나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의 산 모범을 훌륭히 보여준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주인공 리광천의 성격에서 기본핵을 이루는것은 그의 온몸에 차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였다.

영화는 문학예술작품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전면적으로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주인공의 이러한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고있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통일전선로선을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하며 또 그것을 실현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원쑤들의 온갖 암해책동을 짓부시며 혁명임무를 끝까지 무조건 관철해나가는 주인공의 불굴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충실성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안팎의 원쑤들이 꾸며낸 꿈꾼사건, 말과리사건 등으로 통일전선형성에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였을 때 그것을 한목숨바쳐 헤쳐나가며 꿈꾼사건으로 민족주의자 고산이와의 담판이 깨여지게 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모대기는 주인공의 형상은 우리들에게 참다운 충성심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뜨겁게 가르치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인공의 무조건적인 충실성은 특히 수령님의 반일통일전선로선을 파탄시키려는 원쑤들과 추호의 동요도 없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는 감히 통일전선로선을 환상이니, 뭐니 하고 떠벌이는 혁명의 배신자 안하권에게 《나는 동무와 같이 사령관동지의 로선을 의심하거나 정상이 어렵

다고 마음대로 외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해주신 로선과 방침들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중한 신념이며 신조요.》라고 정면으로 타격을 가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반일통일전선로선을 끝까지 고수하여 싸울것을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이러한 광천이기에 그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말해두겠소.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전사요!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사상을 위해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나의 한목숨은 죽지만 김일성장군님의 통일전선사상은 살아있을것이요!》

사형장에 높이 울린 리광천의 이 순결하고 피타는 충성의 목소리는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통일전선의 한길로 힘있게 돌려세웠다.

주인공은 비록 원쑤의 흉탄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사상을 목숨으로 지켜낸 그의 불같은 목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세차게 메아리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주인공 리광천이의 충성심은 그가 말파리에 누워 병원으로 가는 눈길에서 절정에 이른다. 생명이 마지막순간에 이르렀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광천이는 젖은 눈길로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사랑하는 애인 진옥이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파리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라자구로 돌리라고 말한다.

《라자구로 가야 하오. 장군님 계신곳으로 말을 모오. 혁명임무를 수행했다고 장군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오.…

진옥이, 무슨 힘이 그 사나운 마음들을 돌려세웠겠소? 장군님의 통일전선사상이요.

장군님곁에서 그이의 뜻을 받들고 오래오래 살구십소. 아, 장군님이 뵙고싶소!》

순간 잠자듯이 고이 눈을 감는 그의 얼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한 혁명전사만이 지을수 있는 행복한 미소가 흰눈송이처럼 순결하게 피여오른다.

광천이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간절한 소원대로 말파리를 라자구쪽으로 돌리라고 오빠를 부르는 진옥이도, 말없이 머리만 끄떡이는 신철이도, 슬픔에 잠겨 말파리를 뒤따르는 대원들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모든 관중들도 비록 심장은 고동을 멈추지만 영생하는 혁명가의 삶을 받아안은 그의 한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격동되여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는것이다.

영화는 바로 이 뜨거운 눈물로 우리 모두를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준다.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는 이렇듯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모습을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이 밝혀준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산 인간으로 빛나게 전형화하고 있다.

문학에 산 인간이 없으면 형상이 있을수 없으며 형상이 없으면 문학의 본성도 살려내지 못한다.

영화는 주인공을 현실에서와 같이 살아서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산 인간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혁명가로 그리였다.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면서 진옥이와의 약혼을 끊으려고 하던 열혈청년 광천이와 절망속에서 모대기던 진옥이,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강반석어머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참다운 투사로 자라나 서로 혁명동지로 가장 열렬히 사랑하게 되며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가게 된다.

이 생활적인 세부들을 통하여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란 혁명을 한다고 해서 사랑도 모르는 메마른 인간인것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가장 열렬히 사랑할줄 아는 참다운 인간들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투쟁속에서 사랑을 찾은 그들이였기에 죽음의 고비에서는 서로 몸으로 앞을 막아나서며 혁명의 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는 그 모진 슬픔을 투쟁으로 이겨나가는것이다.

문학예술이 산 인간을 그리려면 성격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것과 함께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그려야 한다.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형상은 개성적일수록 생동해진다.

장작을 패서 가려놓고 방 한가운데 누워 잠을 늘어지게 자는 광천이, 어머님께 물 한사발을 청하여 단숨에 들이마시고 어머님속탈에 특효가 있는 약을 지어왔다고 하면서 약처방을 엮어대는 그의 성격은 참으로 호탕하고도 소탈한 생동한 개성으로 친근하게 안겨온다.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는 그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첫 친위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대기념비적화폭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의 새로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서사시로 되고있다.

영화는 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일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혁명이 쓰라린 진통을 겪고있던 그 준엄한 시기에 주체적인 반일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위대한 기치밑에 모든 애국력량을 굳게 묶어세우심으로써 혁명의 난국을 헤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예술적대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반제통일전선사상은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오늘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그 불멸의 혁명적기치는 반제반미투쟁의 진두에 힘있게 휘날리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나아가서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영원히 쓸어버리고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감명깊게 형상한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면서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당사업의 성과는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태 종 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심장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며 우리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희망과 위대한 포부를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거창한 경제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오늘 당조직들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낯을 돌리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웅대한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야 한다.

* *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게 하는것은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고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경제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경제건설에 당적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할수 있다.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게 할데 대한 요구는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자기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경제과업수행에 복종시키는것이다.

당이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는것은 당사업의 목적자체로부터 흘러나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8페지)

당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은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다. 경제건설은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정권을 잡기 이전시기에 있어서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은 정권을 전취하는것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주로 근로인민대중

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낡은 통치기구를 혁명적으로 짓부시고 선진적인 사회제도, 새로운 국가정권을 세우는것이 력사적과제로 나선다.

그러나 정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중심과업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한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적변혁과 함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또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다. 경제건설을 떠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당의 령도하에서만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당내부사업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보장하고 힘있게 떠밀어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대렬을 꾸리고 광범한 근로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당내부사업도 구경은 당앞에 나서는 혁명임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보장하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당내부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경제사업의 결과에서 나타나는것이다. 경제사업이 잘되여야 당내부사업이 잘된다고 말할수 있다. 혁명과업과 동떨어진 당사업, 당활동은 사실상 아무런 의의도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자기의 총적임무로, 력사적과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혁명임무이다. 우리 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이 땅우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이다.

그런것만큼 우리 당의 사업과 활동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하는데 돌려져야 하며 그에 복종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야 한다.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 경제를 건설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은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앞에 나선 정치적과업이다. 그러므로 당이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경제를 훌륭히 개조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특히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며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신년사》 1978년 1월 1일, 단행본, 1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은 우리 조국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륭성과 번영의 휘황한 설계도이며 위대한 진보와 비약의 리정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제2차7개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영예로운 사업이며 그것은 당조직들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거창하고도 아름찬 사업이다.

특히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새로운 전망계획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들에서 당조직들이 대중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발동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사회의 심장인 당이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를 힘있게 뿜어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발동할 때 극복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최대의 예비는 당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사람들의 사상을 적극 발동하는데 있다.

참으로 모든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패기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새로운 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 모든것은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고 당이 경제건설을 자기의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이 당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결정적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모를 박고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당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과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8페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사회주의건설 특히 우리앞에 나선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적지도가 옳게 보장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제2차7개년계획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현시기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바로세워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선진적인 경제관리체계와 강한 사회주의적질서는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이 빛나게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당위원회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집체적지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경제사업에서 법질서와 규범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계획작성과 생산지도, 기술지도와 보장사업 등 경제관리사업을 철저히 대안사업체계의 요구대로 해나가게 하여야 한다.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의 지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어디까지나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의 지도이다.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경제정책집행정형을 늘 장악하고 행정경제기관들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옳게 보장하고 경제과업수행에로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사업방법대로 행정경제기관들의 경제과업수행정형을 일별, 순별, 월별로 정확히 장악하고 옳게 총화하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당적지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사업에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91~92페지)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라는것은 당이 경제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언제나 당정책을 틀어쥐고 당원들과 당조직을 움직이며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을 말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철저히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매개 당조직들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튼튼히 의거하여 경제사업을 해나가도록 옳은 방도를 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할수 있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아무런 편향이 없이 정확히 관철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정치적지도는 특히 행정식방법, 행정대행을 결정적으로 극복할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한다.

행정식방법, 행정대행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낡은 사업방법이며 특히 집권당의 활동에서 엄격히 경계하여야 할 매우 유해로운 사업방법이다.

당일군들이 행정식으로 사업하고 행정을 대행하게 되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을 옳게 장악할수 없고 그 집행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없다.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게 되면 또한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 자립성을 발휘할수 없게 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을 능동적으로 해나갈수 없게 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대행, 행정식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경제사업을 지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경제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이와 함께 아래를 도와주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아래를 도와주는 체계에 따라 늘 현지에 내려가서 생산자대중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면서 아래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해결해주며 행정경제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본신임무수행에 전심전력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아래일군들을 대하며 그들의 요구와 애로를 제때에 알아보고 자기 일처럼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업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신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고무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은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당의 중요한 조직정치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당의 경제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제2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드팀없이 관철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여 왔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전후 페허속에서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나 위대한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인민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충성의 전투를 벌림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점령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은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낳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것을 심

장으로 받아들이며 순간의 지체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당정책관철에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내부사업자체도 어디까지나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경제과업수행에서 일군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적극성이 높아지고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와 그에 대한 평가를 혁명과업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총을 잘 쏘고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유격대원들이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되였던것처럼 오늘에는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투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자기의 본신혁명과업수행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생활을 지도하며 그들의 당생활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관점을 옳게 가지며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되고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하는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자면 우선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관점을 옳게 가져야 한다.

당일군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당일군자신이 경제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져야 경제건설에 낯을 돌리고 발벗고나서게 된다. 그래야 또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게 되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자면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는것과 함께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일군들의 열성하나만 가지고서는 실속있게 지도할수 없으며 거기에 반드시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더우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도입하여야 하며 경제관리에 대한 높은 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알아야 한다.

당일군들이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체득할수 있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실태를 경제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전당,전민,전군이 학습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경제관리리론과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깊이 체득하며 공업경영학, 농업경영학을 비롯한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공장당일군들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알고 공업을 알아야 하며 농촌의 당일군들은 주체농법을 알고 농업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일군들은 누구나 다 정치실무에 밝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아는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생산자대중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

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잘 실현하는 가장 혁명적인 운동이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대중적인 진군운동이다.

3대혁명의 세찬 불길속에서 이미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평양시 만경대협동농장과 대안시 청산협동농장, 평양화력발전소 청년열생산직장과 룡양광산 금산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의 경험은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사람들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며 경제문화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고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새 전망계획에 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생산자대중속에서 사상혁명,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제문화건설에서 대중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과 비약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벌리고있는 오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앞에 맡겨진 책임은 대단히 크며 임무는 매우 무겁다.

각급 당조직들은 경제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사업을 더욱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전당, 전민이 끓어넘치는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을 안고 새로운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은 당의 높은 신임에 과학기술의 성과로 보답하여야 한다

최 태 복

오늘 우리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 발표 1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력사적로작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나라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져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었던 시기에 우리 인테리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인테리정책과 인테리문제해결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을 일반화하시였으며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과 과업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고전적로작은 우리 인테리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쳐 당과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인테리로 키우며 온 사회의 혁명적개조를 다그치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문헌이다. 로작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와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앞으로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밝혀주시였으며 인테리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임무들을 명시하여주시였다.

인테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의 하나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의 인테리부대가 없이 그리고 그 대렬을 튼튼히 꾸리지 않고서는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특히 인테리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제국주의식민지멍에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 나라들에서는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인테리를 못가지고있거나 있다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인테리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의 장래번영도 기대할수 없다.

인테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고있으며 사회주의의 견인력이 비상히 증대되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더욱더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 인

테리들의 특성과 사회경제적처지, 정치적동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인테리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테리가 가지고있는 이러한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해방직후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포옹하고 당에도 받아들였으며 그들과 손잡고 새 사회, 새생활을 건설하는 위대한 혁명사업을 같이하여나가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08페지)

인테리들을 믿는가 안믿는가 하는것은 인테리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오랜 인테리들을 그 출신과 지나온 생활경위에는 관계없이 대담하게 믿는것은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오랜 인테리들은 지난날 일제의 민족공업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계급구성에서 큰자산계급출신은 비교적 적고 대부분이 소자산계급출신이며 그들은 일제의 민족적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아왔기때문에 반제혁명의식과 민주주의혁명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믿고 혁명의 편에 끌어들이며 그들과 손잡고나가는 옳바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지난날 낡은 사회에 복무하여온 오랜 인테리들을 자주적인 인간으로 만들며 그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 넓은 길을 펼쳐주는 혁명적방침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인테리들이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주었으며 그들에게 끝없는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당의 옳바른 인테리정책에 고무된 우리 인테리들은 해방후 첫날부터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테리들은 나라의 공업건설과 농업건설 그리고 과학, 문화, 보건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참으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인테리정책의 정당성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있어서의 인테리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의 본질과 필연성, 그 실현방도들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낡은 자본주의사상잔재를 가지고서는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테리들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낡은 사상잔재들을 하루빨리 없애고 모든 인테리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사회주의건설의 참된 역군으로 교양육성하기 위하여 혁명화의 구호를 중요하게 내세우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0페지)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대한 방침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된 력사적조건에 맞게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낡은 사상이 새로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근원이 없어진 다음에도 인테리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잔재가 아직 남아있게 된다.

인테리들이 낡은 자본주의사상잔재를 가지고서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훌륭히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

명적인테리로 철저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어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이 사회주의건설시기 인테리정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인테리혁명화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온 사회의 혁명화에서 인테리혁명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테리들에게 낡은 사상잔재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한편 인테리들은 걸어온 생활경위의 복잡성, 실천활동상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된 기회가 적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인테리혁명화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인테리혁명화의 필연성과 중요성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중심적과업으로 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옳게 수행할수 없으며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와서 인테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인테리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옳바른 방도들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테리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비판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 등은 인테리 혁명화의 성과적수행을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테리 혁명화의 방침은 실로 인테리의 특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며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에 인테리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길을 밝혀주는 독창적인 방침으로 된다.

이 방침은 인테리들을 낡은 사상잔재와 인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혁명가의 높은 영예와 보람찬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신임의 표시로 된다.

우리 당은 지난날 착취사회에 복무하여온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믿고 끊임없이 교양개조하면서 민주주의혁명시기뿐만아니라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도 그들과 함께 손잡고 투쟁하여왔으며 그들에게 끝없는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보살피심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해방후 새로 자라난 인테리들과 더불어 오랜 인테리들이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초소를 담당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벅찬 실천속에서 과학기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면서 열렬한 혁명가, 주체형의 혁명적인테리로 자라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테리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실천활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인 인테리로 교양육성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테리들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것인가 하는 드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사업하며 생활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 앞날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테리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나라의 100만의 인테리대부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로작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는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나라들에서 주권을 잡고 새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인테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를 과학적으로 밝힌 불후의 고전적로작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에서 우리 인테리들앞에 나서는 혁명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인테리들앞에 제시하신 혁명임무는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이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 전망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은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인테리들앞에 매우 중대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인테리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테리들이 당의 붉은 전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24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인테리들로 하여금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적인테리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할수 있으며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인테리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며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은 또한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자신을 참다운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철저히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람들의 사상을 단련하는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든지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게 된다. 더우기 우리 인테리들에게 있어서 사업조건과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험은 인테리들이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게 되며 나아가서 변질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테리들은 자기의 사상을 꾸준히 단련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에 더 훌륭히 복무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第2차 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오늘 나라의 과학기술전선을 담당한 우리의 혁명적인테리들앞에는 매우 보람찬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전망계획, 이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기술혁명의 계획, 과학혁명의 계획이다. 새 전망계획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는 우리 인테리들이 과학기술발전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지만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해내지 못할 일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에게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이미 나라의 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과학연구기지들과 100만의 인테리대부대를 가지고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전체 인민이 높은 사상적각오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과학연구사업에 달라붙는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학기술의 요새도 능히 점령할수 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만들어낸 그 투지, 그 기백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맡겨진 과학기술적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서는 선차적과업은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할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15페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과학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당면하게는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나서는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과학연구기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연구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정확히 세우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되는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공업의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더 많이 찾아내고 효과있게 리용하며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가지고 공업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주체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엇보다 우리 나라 연료에 기초한 제철공업의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벼, 강냉이를 비롯한 중요알곡작물과 공예작물의 새로운 좋은 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랭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널리 받아들이며 기초과학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의 개척과 최신과학기술의 도입이 없이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전자 및 자동화 공학, 반도체공학 등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새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를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며 기초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전반적으로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새로운 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은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되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할 때 더욱 발전한다. 따라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현장에 침투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의논하고 그들의 창발적의견들을 허심하게 받아들이며 그들과 힘을 합쳐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군중의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과학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과학과 기술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이바지하는 일군들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리론수준이 높고 실천적경험이 풍부하며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밝은 일군으로 준비되여야 현실이 제기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기초과학과 기술공학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학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알며 자기 전공분야의 과학과 기술에 정통하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 지도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그들이 실제적인 과학기술적성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실속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오늘 우리 과학기술인테리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 당의 과학전사들은 지난날 과학기술의 아무러한 토대도 없던 빈터우에서 우리의 주체과학을 새롭게 창조하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여온 그 기백, 그 열정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는데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야 하며 우리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과학기술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과학기술의 성과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리 봉 학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경제건설강령이며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투쟁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사상과 원대한 구상이 깃들어있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방침의 본질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 관철에 힘차게 떨쳐나서는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경제를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인 경제건설방침이며 새 전망계획 기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8페지)

우리 조국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륭성과 비약의 설계도인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계획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와 함께 현대화, 과학화는 새 전망계획의 기본과업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 점령의 새로운 리정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6개년계획기간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반적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한계단 높이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종합적으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일떠서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훌륭한 본보기가 마련되여있으며 근로자들의 로동조건도 훨씬 개선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공업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완성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고 전반적인민경제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인민경제부문들사이, 부문내부에서의 기술장비수준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

화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두배이상 높일데 대한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집행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실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성숙된 요구이며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절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기술혁명을 심화발전시켜 종합적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으며 과학화는 주로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인민경제를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현대적생산은 언제나 일정한 기술수단들의 참가밑에 진행되며 기술수단들의 발전정도는 나라의 생산력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바로 기술수단들을 자동화, 현대화, 고속도화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로동을 더욱 헐하고 흥겹게 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이다.

현대적생산은 또한 높은 숙련과 발전된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기계설비들과 기술수단들을 움직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공정으로 되고있다. 공업생산은 두말할것 없고 농업생산도 기술공정으로 되여있으며 모든 생산물이 다 기술공정을 거쳐서야 생산된다. 그러므로 기술공정을 어떻게 개선하며 생산방법과 경영활동을 얼마나 합리화하는가 하는것은 생산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바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의 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공업생산도 과학적으로 하고 농사도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생산에서 나서는 온갖 기술적문제들을 현대과학의 리치와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고 과학화하는 목적은 다같이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기술적기초를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자는데 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선진기술공정과 생산 및 경영 방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게 되며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현대화된 기술수단들의 방조밑에 진행되게 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이러한 밀접한 련관은 그것들을 통일적인 과업으로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것을 요구하며 오직 그러한 조건에서만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새 전망계획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힘있게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오늘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서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사회주

의경제건설의 총적방향으로 되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는 경제를 건설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도 실현할수 없다. 우리가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중요하게 내세우는것도 바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는데 있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경제를 현대화, 과학화하는 기초우에서 그리고 그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의 강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를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자체의 원료기지를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빨리 늘어나는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그래야 최신과학의 성과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부문들을 끊임없이 창설하여 경제발전의 종합성과 다면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이렇듯 경제발전의 종합성과 다면성의 보장, 자체의 원료기지축성 등 인민경제의 주체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전제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야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또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함으로써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우와 같은 문헌, 503페지)

사회주의하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 기본방법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있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이다.

로동생산능률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보다 능률적이며 현대적인 로동도구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개선할 때 빠른 속도로 장성하게 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종합적으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체계로 전변시키고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면 단위제품생산에 필요한 로력을 훨씬 줄이고 기계설비의 리용률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원료, 자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없거나 모자라는것을 새로 만들거나 대용할수 있다. 또한 생산 및 로동 조직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다. 이리하여 보다 적은 로력과 자재로써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되며 전반적인민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된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방침이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경제건설방침이며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할 전략적인 투쟁로선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

이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상교양에 의하여 높아진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보다 확고한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근로자들에게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물질적으로 튼튼히 보장하는것이 필요하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면 로동조건에서의 온갖 차이가 점차 없어지게 되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도 줄어들게 된다. 이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자기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천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관점과 립장을 더욱 튼튼히 가지게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에 관한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와 투쟁목표를 밝혀준 혁명적인 경제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깃들어있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방침이 실현될 때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더욱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전진이 이룩될것이다. 또한 실천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이 더욱 힘있게 과시될것이며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게 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전망계획 기간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도달하여야 할 목표와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전반적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우고 과학발전에 큰 힘을 넣어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우와 같은 문헌, 50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에서 도달하여야 할 목표는 우리의 사회주의자립경제를 기술장비에서나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서나 그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기 위한 웅대한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기계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공작기계생산기지와 대형기계설비생산기지를 확대강화하고 기계제품생산에서 프레스화와 형단조화의 비중을 더욱 높이며 전자관과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동화요소들과 자동화기구 및 계기의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채취공업부문에서 과학적인 탐사방법과 채굴방법, 선광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세멘트생산에서 부유예열식소성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 집약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업생산을 해마다

평균 12.1%의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데 대한 새 전망계획의 요구를 실현하고 전례없이 웅대한 경제건설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가깝게 바라보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설수 있다.

실로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에서 도달하여야 할 목표에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혁명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최대한으로 앞당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새 전망계획 기간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다같이 수행하여야 할 전례없이 거창한 사업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한 기술혁명의 과업에 비할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생산의 주인, 기술의 주인인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시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만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다.

대중적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 경험주의를 철저히 짓부셔버리는것이다.

우리는 기술을 혁신하는데서 장애로 되는 온갖 잡귀신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개조에서 새 기준, 새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 농민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모두가 기술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쓰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성능이 높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창안제작하며 과학연구의 성과들과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는 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대담한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며 발전된 나라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따라앞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34페지)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여야 현실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최신과학의 요새를 점령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며 새로운 과학분야들을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조직사업과 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속에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고 그들이 맡겨진 과

업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여러가지 현대적인 실험설비들과 과학기술도서들을 충분히 대주고 중간시험공장들을 더 잘 갖추어주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맡은 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들을 훌륭히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책임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데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은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그것을 맞받아뚫고나아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이며 우리 조국땅우에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안아온 전투적인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 강도 일본제국주의와 싸워이길수 있었으며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힘차게 전진하여 이 땅우에 천리마의 나라,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경험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극복못할 애로와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에 서야 하며 당의 요구라면 무엇이나 다 만들어내는 높은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다그쳐야 하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창안도입하며 경영활동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지금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조선인민의 슬기와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여야 하며 이 땅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

허　　　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와 최근에 하신 여러차례의 강령적교시들에서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경공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1페지)

주체적인 립장에서 현대적인 경공업을 건설하고 소비품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업이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경공업을 옳게 발전시켜야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오늘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공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무엇보다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생활이 더욱 높아감에 따라 근로자들은 질좋고 값싼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경공업발전의 구체적실태와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새 전망계획 기간에 소비품생산을 지금보다 2배이상 늘여 8억메터의 직물, 국내원료에 의한 30만톤의 사탕생산, 1억켤레의 신발생산을 비롯한 모든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여러가지 생활필수품과 식료가공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백방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 모든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자면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공업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그것

을 더욱 확대하여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소비품생산에서 주체성을 더욱 튼튼히 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며 경공업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생산방법, 생산공정을 높은 과학의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경공업부문에서 달성하여야 할 높은 목표와 빠른 발전속도, 방대한 과업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킬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다.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 모든 과업들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비품생산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대중적투쟁으로 경공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할 때 우리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고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을 다같이 잘살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4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를 건설한 보람은 인민들의 유족한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생활이 유족하고 문명해질수록 근로자들은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되고 자신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사랑하며 그것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경공업부문에서 질좋고 값싼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게 할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할수록 근로자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온갖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전변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 인민들이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나갈 때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 큰 고무적힘을 주게 될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게 될것이다.

이 모든것은 경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며 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일뿐아니라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정치적과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는것은 실로 영예롭고도 무거운 투쟁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며 경공업발전을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들과 방도들이 제시되여있는 한 경공업부문앞에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회의 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시키신 그때로부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와 사회주의건설시기 그 언제나 경공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생산보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다같이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일데 대한 방침, 식료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여 경공업발전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들은 주체적립장에서 현대적인 경공업을 건설하고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소비품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꾸리고 기술을 혁신하며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공장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 등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에로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더 잘입히고 더 잘먹이고 더 잘살게 하시려는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지니시고 전국의 크고작은 경공업공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였으며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돌려주시였다.

실로 우리 나라의 그 어느 지방, 그 어느 경공업공장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닿지 않은곳이 없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가 돌려지지 않은데가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공업건설을 위한 주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 경공업은 지난날 극히 락후하고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띤 공업부문으로부터 오늘은 소비품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도록 다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되였으며 자체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공고한 원료기지를 가진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으로 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현대적인 대규모중앙경공업공장들과 함께 군마다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됨으로써 경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총직물 생산능력은 6억메터이상에 이르렀으며 피복류와 신발류, 식료가공품, 일용잡화와 문화용품의 생산량과 가지수는 비할바없이 늘어났다.

참으로 우리의 경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의 원료와 자기의 기술,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낸 여러가지 소비품을 쓰면서 남부럽지 않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경공업발전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거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끊임없이 향상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요구에 맞게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수입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높아가고있으며 인민들은 질좋고 다양한 소비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 근로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생활이 향상되는데 맞게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만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경제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우리 나라에 일떠선 경공업공장들의 위력과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크며 그것을 완전히 리용한다면 짧은 기간에 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줄수 있는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튼튼한 중공업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 어떤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아가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있으며 전후재더미를 헤치고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을 일떠세운 풍부한 기술과 투쟁경험이 있다.

소비품생산을 높여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 문제는 결국 경공업을 직접 맡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데 달려있는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9페지)

오늘 소비품생산을 급속히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경공업부문에 이미 마련되여있는 경제적밑천과 잠재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쌓아올린 경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크다. 우리가 가지고있는 경제적밑천과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한다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소비품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당적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여야 한다.

오늘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며 원가를 낮출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방직공업에 힘을 넣어 제품의 량과 가지수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그 질을 한계단 높여야 한다.

지금 있는 방직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새로운 방직공장을 꾸려 짧은 기간에 직물생산량을 훨씬 높이며 여러가지 뜨개옷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우리는 피복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잘 운영하여 여러가지 옷을 더 많이 생산하며 기성복과 반기성복 생산을 배합하고 주문가공을 널리 조직하여 누구나 다 몸매에 맞고 기호에 맞는 옷을 해입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일용품공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이 요구하는 질좋고 다양한 여러가지 일용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공급하며 갖가지 가구와 가정용 세탁기, 랭동고, 텔레비죤수상기, 손목시계를 비롯한 가정용품과 문화용품 생산을 더 빨리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발공업과 제지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여러가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며 고급종이, 포장종이, 특수종이를 비롯한 갖가지 종이생산을 늘여야 한다.

현시기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식료가공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식료혁명을 일으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료가공공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먹는기름과 사탕 문제를 푸는데 1차적인 힘을 넣어 그것을 우리 나라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공업적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강냉이에서 눈을 갈라내여 기름을 짤데 대한 주체적인 기름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곡산공장, 옥쌀공장, 배합먹이공장을 일떠세워 튼튼한 옥쌀기름생산기지를 꾸려주시였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시, 군 옥쌀공장들과 배합먹이공장들에 강냉이눈가르는 공정을 잘 꾸리고 강냉이눈을 모두 회수하여 기름을 짜며 각 도 곡산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여 그 생산능력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강냉이를 가공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냉이를 원료로 하는 주체적인 사탕생산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곡산공장들에 옥당생산설비를 잘 갖추는것을 비롯하여 옥당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늘여 짧은 기간에 사탕문제를 자체로 넉넉히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식료가공에서는 어린이영양식료품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려 어린이들의 월령별, 년령별에 따르는 여러가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주식물가공과 부식물생산을 늘이고 여러가지 청량음료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여러가지 일용품과 식료가공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 전망계획 기간에 지방공업생산액을 2.4배로 늘여나가야 한다.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이다.

원래 지방공업은 지방의 풍부한 원료와 유휴로력을 널리 리용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생활필수품과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그런것만큼 지방공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자연원료들을 적극 리용하는 한편 농부산물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동원하여 갖가지 소비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방공업부문일군들속에서 중앙원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지방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도들에서는 탄산소다공장, 가성소다공장을 비롯한 중소화학공장들과 유리병공장, 포장재공장, 철제소재기지를 잘 꾸려 원료와 소재를 충분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업적방법에 의한 원료기지조성과 함께 산과 바다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수매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담배를 비롯한 농산물과 큰 공장들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 쓸수 있는 모든것을 제때에 수매가공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원자재생산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자재생산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제때에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방직공업과 피복공업에 큰 힘을 넣으며 특히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1페지)

현시기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경공업을 더욱 현대화하는것이다.

자체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의 경공업을 현대화하여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운다면 짧은 기간에 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

특히 우리가 수행하고있는 제2차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예견한 기술혁명의 계획, 과학혁명의 계획인것만큼 경공업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고도로 현대화하여야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며 원가를 낮출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늘어나는 수요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우리는 경공업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개조를 힘있게 다그쳐 모든 기계설비들을 더욱 쓰기 간편하고 성능이 좋은것으로 끊임없이 갱신하고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며 새로운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이미 꾸려져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밀하고 성능이 높은것으로 일용품생산설비와 식료가공설비들을 개조하며 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모든 기계설비들을 만가동하여야 한다.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기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연구기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기술수단들과 앞선 생산공정,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 때 우리는 경공업발전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경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기술혁명수행에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며 모두가 다 한가지이상의 연구과제를 맡아서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문제는 이 부문에 대한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힘있는 지원이 있어야만 더욱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소비품을 생산한다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인민소비품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경공업부문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이 중요하다.

경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우는데서 절실히 필요한것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공업생산원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경공업부문에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공급하며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뚝 떼여 보장해줄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기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철강재 그리고 화학섬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재들을 제때에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자재공급에서 혁명적규률을 세우고 자재공급계획에 예견된대로 지표별, 품종별로 어김없이 보장하여주는것은 물론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는데 필요한 새로운 원자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있는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오늘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경공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경공업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문제는 결국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경공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경공업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공업발전을 저애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모두가 다 높은 혁명적열의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자면 지도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과 잠재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경공업공장들에 원료, 연료, 자재를 떨구지 않고 제때에 공급하며 도시와 로동자구를 비롯한 곳곳에 가내작업반을 많이 조직하고 그들을 잘 운영하여 도처에서 소비품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또한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대로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어주며 생산자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특히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생산현장에까지 자재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날라다주고 생산지도,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모두가 다 계획규률과 재산관리에 대한 규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극복하며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제때에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힘있게 이끌어줌으로써 모두가 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재산, 인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알뜰히 거두며 원료와 자재를 조금도 허실함이 없이 생산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공업발전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경공업부문일군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높이 받들고 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임으로써 인민생활을 한계단 높이고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자.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

전 금 진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가 발표된지 다섯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연설에서 분렬주의자들의 로골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영구분렬의 위협이 짙게 드리웠던 엄중한 시기에 력사적인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우리 인민을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그 심오한 진리를 나라의 통일문제에 빛나게 구현하여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밝혀준 투쟁의 기치로 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싸워왔으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힘찬 전진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5대방침은 오늘도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함께 조국통일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이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앞에 영구분렬의 위험이 닥쳐왔던 엄중한 시기에 발표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70년대초에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의 길이 열리였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도당은 대화에 끌려나오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딴꿈을 꾸고있었으며 대화를 저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실현하는데 리용하려고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키겠다고 온 민족앞에 엄숙히 맹세하고는 돌아서자마자 그것을 배반하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게 행동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29페지)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에서 시종일관 량면전술에 매달려 대화에 장애를 조성하고 그것을 질질 끌면서 그 막뒤에서는 쌍방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을 짓밟고 외세의존과 새 전쟁 도발책동, 《반공》파쑈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대화의 막뒤에서 민족분렬을 각방으로 꾀하여오던 박정희괴뢰도당은 드디

여 1973년 6월 23일 《특별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하는데까지 나아갔다. 이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파렴치한 배신행위였으며 대화일방인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였다. 그리하여 밝아오던 통일의 려명은 흐려지고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는 민족분렬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우게 되였다.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일대 구국대책을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48페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 정전상태에 있으며 평화가 철저히 담보되지 못하고있다.

지금처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팽배히 맞서있는 조건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수 없고 민족적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할수 없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없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되여있는것은 그자체가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통일과 관련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다.

사실 속에 칼을 품고있으면서 서로 믿고 친선을 하려고 한들 그 믿음과 친선이 진정한것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제기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이 제의는 나라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평화를 념원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현실성있는 방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는 끊어졌던 민족의 뉴대를 다시 잇고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0여년간 남북이 갈라져있는 사이에 북과 남의 차이가 커진 현실을 무시하고 당장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남북의 장벽을 허물수 있고 끊어졌던 민족적뉴대를 다시 이을수 있으며 각 방면에서 남북의 통일적발전을 도모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사적대치상태를 가시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할수 있다.

남북교류와 합작에 대한 우리의 기본립장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자는것이다. 이렇게 되여야만 북과 남사이에 진행될 교류가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위한 현실성있는 교류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대민족회의소집에 관한 방침은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조국통일은 전민족의 공동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전민족의 힘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이 북과 남의 당국자들사이의 범위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적인 애국사업에 광범히 참가할수 있도록 조건과 기회가 마련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대민족회의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으로서 이것은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고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의 하나로 된다.

대민족회의방침은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방침의 직접적구현으로서 그 본질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결속하여 남조선의 소수 매국세력, 분렬세력을 압도하게 하며 나라의 통일을 전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성취해나가기 위한 전략사상이라는데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결국 이것은 북의 사회주의력량을 일방으로 하고 남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둘사이의 정치합작으로 되며 여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민족주의자들사이에 련합하는것이다.

이 련합은 한민족국가의 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적형태의 정치적련합으로 된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분렬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통일전선형태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은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현실적으로 북과 남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가 있고 서로 대치되여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조건에서 지금 당장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는 어려울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먼저 과도적조치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여 끊어졌던 민족적뉴대를 다시 잇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의 모든 방면에서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면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남북련방제는 조국의 완전통일을 이룩하기에 앞서 우선 민족적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프랑스신문 〈몽드〉 주필과 한 담화》, 8페지)

민족적통일을 이룩한다는것은 제도와 사상의 통일에 앞서 정치, 경제, 군사

의 각 방면에서 광범한 합작과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고 남북이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는것을 말한다.

남북련방제는 북과 남의 정치합작의 중요한 한 형태로서 련방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대표들로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구성되며 그 임무는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결정하며 조정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대외관계분야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갈데 대한 방침은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분렬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되며 만일 통일이 이루어지기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주체적인 통일강령으로서 그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조국통일 5대방침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체화한것으로서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강령으로 된다.

조국통일 5대방침은 량단된 국토와 민족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념원에 부합되며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누구에게도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강령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력사적인 조국통일 5대방침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도 역시 안팎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민족의 대강령》으로, 《구국의 횃불》로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침으로 한결같이 인정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은 온 민족앞에 통일의 확고한 전망과 뚜렷한 방도를 밝힌 가장 정당한 구국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이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였더라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구국방침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분렬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직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조국통일 5대방침의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속에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른바 《반공》의 구호밑에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강화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적세력들을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짓밟히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 무고한 주민들이 무참히 처형당하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분렬을 일삼는 박정희괴뢰도당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덮어놓고 반대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기 위한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에서 제놈의 살구멍을 찾아보려 하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들고나온 《두개 조선》조작음모는 하나의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미제의 철저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자는데 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 북과 남사이에 장벽을 쌓고 《유신체제》를 철저한 대결체제, 영구분렬체제로 꾸릴뿐아니라 《불가침조약》이니, 《유엔동시가입》이니 하는 따위의 분렬방안을 들고나와 저들의 영구분렬책동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놈들이 말하는 《불가침조약》이란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도 없이 다만 서면상으로 《호상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놓는다는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평화를 위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수 없는 무의미한것이라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이미 여러차례 확증되였다. 《불가침조약의 체결》이란 《평화》의 너울로 분칠한 분렬책동의 한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떠드는 《유엔동시가입론》도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공인》된것으로 합법화하여 민족분렬을 고착시키려는 음흉한 모략책동이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저들의 《유엔동시가입론》을 어떻게 하나 합리화해보려고 유엔에 쌍방이 들어가는것이 마치도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수 있는듯이 떠벌이고있다.

만일 신뢰에 대하여 그처럼 관심이 있다면 나라밖에 나가지 않고도 우선 제나라 제땅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것이며 더우기 북과 남의 대화마당에서 얼마든지 보여줄수 있을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엔동시가입론》은 철두철미 저들의 범죄적인 민족분렬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현재와 같은 분렬된 상태에서 북과 남이 제각기 유엔에 들어간다면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시키는것밖에 달리는 될수 없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이와 같은 교활한 책동으로 한민족으로서의 통일된 조선의 존재를 영영 말살하며 조국통일문제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정치적으로뿐아니라 군사, 경제 분야에서도 영구분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날뛰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실력배양》이니, 《총력안보》니 하는 구호밑에 괴뢰군병력을 늘이고 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깡그리 동원하고있다. 놈들은 또한 빈소리에 지나지 않는 《미지상군의 철수》를 구실삼아 더 많은 미제의 군사《원조》를 구걸해나서고있으며 새로운 무기와 현대적작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한편 놈들은 일본반동지배층과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막뒤흥정을 벌리고있으며 《한미일안보협력기구》라는것까지 꾸며내려고 책동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무모한 불장난소동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륙무기들이 차넘치는 전쟁의 화약고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극히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남조선반동들은 민족끼리 합작하는것은 한사코 반대하면서도 외세와 결탁하고 외래독점자본을 끌어들이는데는 피눈이 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리권을 넘겨주고 외국독점자본을 마구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경제를 철저한 식민지예속경제로 전락시켰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인 외세의존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은 140여억딸라에 달하는 빚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채무의 왕국》으로 되였으

며 경제의 명맥은 모조리 외래독점체들의 손아귀에 장악되고 민족경제는 전면적으로 파산몰락되고있다. 심지어 남조선에는 외국에서 《오물단지》로 배척당하고있는 공해산업까지 밀려들어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있다.

이것은 동족사이의 합작을 거부하면서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결탁하고 그에 아부굴종하는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가 가져온 범죄적후과이다.

모든 사실은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은 안중에도 없고 외세에 빌붙어 제놈의 장기집권만을 꾀하고있는 극악한 민족반역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나라의 영구분렬위험을 막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력사적인 조국통일 5대방침을 관철하여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투쟁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73페지)

우리 나라의 통일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하며 이것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확고히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조국통일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이 구국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야 한다.

제도와 사상, 리념과 신앙의 차이는 결코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지 못할 근거로 될수 없다.

민족공동의 리익과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모든 주의주장, 개인의 영리를 뒤로 미루어야 하며 서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그 어떤 사상도 민족의 리익을 떠난것은 허황하고 반동적인것이며 민족을 떠난 사상을 주장하여서는 나라의 통일위업에 이바지할수 없다.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자기의 리해관계, 자기의 사상과 리념을 먼저 생각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야 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조국통일 5대방침을 관철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반공》에서 벗어나 련공의 길에 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애국자와 매국자와의 투쟁이며 외래침략세력과 조선민족간의 투쟁이다.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일찍부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피흘려 싸워온 가장 철저한 애국자들이다.

오늘 북반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인민들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공산주의야말로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인류의 리상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지금에 와서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있다.

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통일》

과 《민족적단결》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반공》을 하는것은 결국 통일도 단결도 하지 않겠다는것이며 사실상 그것은 사대매국노들이나 할수 있는 무분별한 범죄행위이다.

조국통일 5대방침을 받들고 온 민족이 단합하여 민족의 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버리고 련공합작하는 길로 결연히 나서야 할것이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남조선의 파쑈통치이다.

남조선에서 지금처럼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가 잔인하게 짓밟히고있고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억압당하고있는 조건에서는 민족적단결은 고사하고 북과 남의 민족적련계조차 가질수 없다.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유신》파쑈통치를 뒤집어엎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 5대방침은 온 민족의 의사가 광범히 반영된것으로서 민족주체적인 애국력량의 거족적인 참가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처럼 통일을 위한 사소한 정치활동도 철저히 탄압당하고있는 형편에서는 5대방침은 물론 조국통일을 위한 그 어떤 애국운동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에 관심을 가진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유신》파쑈통치를 짓부시고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야망을 파탄시키기 위한 반파쑈민주화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되는 장애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이며 그의 식민지통치이다. 미국의 카터행정부는 《인권》이니, 《철군》이니 하는 따위의 허울좋은 구호를 내걸고 마치도 남조선에서 그 어떤 《정책전환》이라도 가져올것처럼 떠들어댔으나 실지로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경제군사적으로 적극 부추겨주고있으며 남조선에서 파쑈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놈들을 우리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정책에로 계속 떠밀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기만적인 《철군》과 《인권》구호에 속지 말고 미제침략군을 우리 강토에서 내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남북조선인민들의 거족적인 투쟁에 의하여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은 짓부셔지고야말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78년 제6호(루계 43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1978년 6월 1일 발 행•1978년 6월 5일

ㄱ—85137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 호(435)

차 례

모든 일군들은 세밀하고 깐지게 일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자

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 전망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30돐을 영광으로 빛내이기 위한 《100일전투》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빛나게 넘쳐수행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빨리 진척되고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세밀하고 깐지게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을 세밀하고 깐지게 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참다운 일본새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자기 조국과 인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헌신적인 복무의 정신을 지닌 참다운 투사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한다.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고 실속있게 해나가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옳게 지도할줄 알며 자기가 맡은 사업을 연구하려고 노력하며 사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책임성과 열성을 다하는 새로운 형의 일군들이 요구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122폐지)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생산과 건설을 조직하고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 임무가 우리 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을 굳게 믿으시고 현대적인 공장과 협동농장들을 비롯하여 국가의 중요한 기관,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할 무거운 임무를 맡겨주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야 한다.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도를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발현이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표현이다.

일을 세밀하고 깐지게 하여야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에 충실할수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사업을 세밀하게, 깐지고 실속있게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가지야 국가, 경제 관리도 잘할수 있고 나라의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꾸려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과 건설을 빨리 다그칠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짜고들어 끝까지 완성하지 않고 중간에 쥐

버리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실속없이 해서는 성과를 바랄수 없다. 누가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자기 맡은 초소에서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는 일군만이 참말로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당원이며 진정한 애국자이다.

경험은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는데서는 모든 사업이 잘되여나가며 제기된 혁명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이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된 립장에서 생산조직과 경제관리를 실속있게 하며 국가와 사회의 귀중한 재부를 극력 아껴쓰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할 때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모든 사업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빨리 진척되고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 나라의 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업의 성과는 조직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김일성군사선집》 제2권, 278페지)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그 규모가 전례없이 커졌고 인민경제부문들간, 지역들간의 생산적련계도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였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많은 원료와 자재, 설비, 자금과 로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조직사업을 세밀하고 깐지게 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간다면 지금 있는 경제적밑천을 가지고서도 생산과 건설을 몇배나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경제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고도로 조직화된 조건에서 일군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않으며 경제관리를 알뜰하게 하지 않는다면 숱한 밑천을 들여 건설해놓은것들이 제대로 은을 내지 못하게 되며 도처에서 설비가 사장되고 원료와 자재, 로력의 랑비를 면할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되고 생산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게 된다.

또한 일군들이 큰것만 보고 작은것에는 낯을 돌리지 않으며 하면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사업을 기칠게 되는대로 한다면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되며 인민소비품생산이 늘어날수 없고 결국 인민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게 된다.

모든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물감장사가 미리그람을 따지듯이 생산조직과 경제관리를 세밀하게 따져가며 깐지게 하여야만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요구되는것은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생산지휘와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다. 일군들이 자기의 초소에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세밀하게 타산하고 구체적으로 짜고들 때 우리는 이미 마련되여있는 생산잠재력을 가지고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낼수 있으며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세밀하게 따지보시도 않고 실속없이 되는대로 해나간다면 묻혀있는 생산예비를 찾아낼수 없으며 경제적잠재력을 옳

게 조직동원할수 없고 따라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경제조직사업과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는 여기에 바로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군대에서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따져가며 작전을 세우는것처럼 현실에 맞는 산계획, 쓸모있는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무게적으로 따지고 세밀하게 짜고들으로써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여야 하며 나라살림살이를 늘여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세밀하고 깐진 일본새를 가지고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과업과 조성된 정세로하여 더욱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빛나게 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 전망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우리는 이 거창한 건설전투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거듭되는 무모한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우리자체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총진군운동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하며 모든 일을 세밀하게 짜고들어 깐지게 하여야 한다.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고 생산잠재력이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의 조건에서 일군들이 경제관리를 보다 깐지고 실속있게 하여야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웅대한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며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혁명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가장 옳바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힘이 있고 강유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어떻게 능숙하게 하며 모든 사업을 얼마나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세밀하게 타산하고 깐지게 해나가는 혁명적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모든 일을 세밀하게 따지며 깐지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01페지)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오직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 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들, 혁명하는 사람들

의 일본새로 맡은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사업을 자주적으로, 주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내여 필요한 모든것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무슨 일이든지 주인다운 립장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달라붙어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본질과 요구, 그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지도원칙들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만들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생각하고 일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배워 그것을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깐지고 실속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모든 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세밀히 따지고 깐지게 해나가시는 혁명적사업기풍의 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지휘관들에게 혁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타산을 잘하고 계획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후방물자를 마련해들일 때에는 어떠어떠한 물자가 얼마나 필요하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구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장해야 하며 소비를 하는것도 따져가면서 분한있게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신천적모범을 보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조하신 사업방법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일군들을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과 실천적모범을 그대로 본받아 자기 사업에 구현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도를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생산과 건설 투쟁의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생산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설비, 자재의 리용정형으로부터 그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며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실태와 경제기술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로동생산능률제고와 원가저하 방도들을 찾아내며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관리, 자재공급, 로동행정, 재정관리 등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모든 측면을 튼튼히 틀어쥐고 관리운영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예비가 나오고 온갖 생산잠재력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아래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 다음에는 과학적인 대책과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군들이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계획을 가지고 일해야 어렵고 복잡한 모든 사업을 옳게 장악하고 전반적인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고 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아래일군들도 실속있게 일해나갈수 있다.

옳은 집행대책과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우자면 일군들이 절대로 주관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독단과 주관에 의거해서는 옳바른 대책과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문제가 제기되면 주관주의적으로 처리할것이 아니라 많

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집행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단 포치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하나하나 따지면서 분석적으로 총화하며 미진된 문제는 다시 작전하고 재포치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끝장볼 때까지 기어이 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을 세밀하게 짜고들어 실속있게 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앞에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되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높은 정치적연의에 다방면적인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있어야 그 어떤 문제가 제기되여도 옳게 분석판단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현실성있는 산 지도를 할수 있다.

경험은 정치적연의가 높고 자기 사업에 정통한 일군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세밀하게 따지고 깐지게 해나가며 따라서 이런 단위에서는 맡기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모든 일에서 능수가 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특히 자기 부문의 당정책을 환히 꿰뚫고있어야 하며 다방면적인 지식과 자기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풍부한 체험을 쌓아나가야 한다.

일을 거칠게 하는것은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되는대로 일하고 살아가던 때의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다. 이런 낡은 사상잔재는 하루이틀에 뿌리뽑을수 없으며 한두번 강조하는것으로 완전히 고쳐질수 없다. 그것은 꾸준하고 참을성있는 사상교양과 함께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성과적으로 극복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이 일을 되는대로 거칠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나 실속없이 발라맞추는 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온갖 그릇된 사업 태도와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속에서 일을 거칠게 되는대로 하며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형식주의, 요령주의적으로 하는것과 같은 온갖 그릇된 일본새의 조그마한 표현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일군들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진행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장을 내는 혁명적기풍으로 모든 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게 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 세밀하고 깐진 일본새를 가지고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때로부터 스물다섯해가 된다.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여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고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년대기에 영생불멸할 업적을 아로새긴 세계사적사변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여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100여년의 침략력사를 가지고있고 《무적》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바로 조선전쟁에서의 패배에 의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가 꺾어지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가 산산이 깨여졌으며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가 열리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에게 미제가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떠한 원쑤와도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지도 벌써 25년이 되였다.

이 기간 우리는 전쟁의 흔적을 가시고 나라의 면모를 몰라보게 전변시켰다.

전후 재더미우에서 우리 인민은 짧은 시일안에 경제를 완전히 복구하였을뿐아니라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락후와 빈궁을 영원히 청산하고 도시와 농촌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하여놓았다.

나라의 가는곳마다에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섰으며 우리 조국의 위용은 웅장하게 변모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지졌으며 인민생활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공화국북반부와는 달리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는 남조선은 더욱더 황폐화되여 불모의 땅으로 변하였다. 남조선경제는 완전히 미국독점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였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있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의 차이는 더욱더

커가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이 급속히 발전하고 남북간의 차이가 더욱더 커가는 과정에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져 해방후 자라난 새세대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혁명은 의연히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있으며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은 북반부에서만 승리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은 아직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63페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해방된지 30여년, 우리 인민이 전쟁에서 승리한지 25년이 되도록 우리 조국은 여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둘로 갈라져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놈들의 승냥이본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은 카터가 대통령으로 된 다음에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그것은 보다 교활성과 악랄성을 띠면서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더욱 악랄하고 교활하게 감행하고있으며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이에 발맞추어 민족분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교차승인론》이요, 《유엔동시가입론》이요 하면서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합리화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는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남조선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려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남조선을 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는것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철군》의 간판밑에 남조선괴뢰군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을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에로 더욱 부추기고있다.

미제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못이겨 남조선으로부터의 이른바 《미지상군》의 철수를 발표하였으나 당초의 《공약》을 어기고 《철군》의 막뒤에서 오히려 무력을 증강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에게 군사《원조》를 들이밀면서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다.

남조선은 하나의 거대한 화약고로 전변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도발적인 군사연습소동이 남조선에서 그칠새 없이 벌어지고있다.

조선전쟁이래 가장 큰 규모에서 벌린 《한미련합작전훈련》은 날로 더욱 강화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미제가 떠드는 《철군》이란 조선에서 제놈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구름은 더욱 짙어가고있으며 정세는 의연히 긴장한 상태에 놓여있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이룩되지 못하고 분렬의 장벽이 더욱 두터워지고있는것은 바로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식민지, 군사기지로 계속 틀어쥐고있으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때문인것이다.

미제의 민족분렬책동과 남조선에서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세대가 자라도록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으며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공통성은 점차 사라지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져다준 장본인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우리 혁명의 투쟁대상은 변하지 않았다. 철천지원쑤 미제를 몰아내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잠시도 멈출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절반땅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고 하여 만족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들어야 하며 남반부인민들도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반부인민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326폐지)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첫째가는 투쟁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이 계속되고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여있는 한 우리 인민은 잠시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우리는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형제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처지를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분렬된 조국을 결코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받고있는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갈라진 조국을 통일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세력을 내쫓고 조국을 통일해야 하며 온 삼천리금수강산에 살기좋은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다.

우리는 미제와 대치한 긴장된 정세하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가야 한다.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략탈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변할수 없는 본성이다.

미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놈들과의 투쟁은 더욱 치렬해지고 있다.

미제침략자들과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하며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더 견결히 벌려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다.

* *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혁명과업이다.

이 과업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없이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성취될수

없다.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다. 놈들은 해방전에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그 식민지통치를 부추겨주었으며 해방후에는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 전지역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속에 몰아넣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3년간의 전쟁을 겪었으며 전후 25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전쟁의 위험이 가셔진 날이란 없었다.

우리는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높은 계급의식, 혁명적자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굳게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이 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27폐지)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혁명은 전체 인민이 높은 계급적각오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이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강의한 의지로 뚫고나갈 때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만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이 계급적각오와 혁명적자각이 높지 못하다면 계급적원쑤, 민족적원쑤를 잊어버릴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견결히 벌려나갈수 없으며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있는것만큼 특히 혁명의 계승자들인 새세대들을 높은 계급의식,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혁명위업을 이어나가야 할 새세대들은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좋은 행복하게만 자라났다.

우리는 새세대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야 한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적원쑤들이 있는 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속에서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조금도 멈출수 없으며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우리 혁명의 철저한 옹호자,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세계관이 선 사람은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으며 지주, 자본가 계급과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03～504폐지)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

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높은 계급적 자각과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착취제도를 미워하는 확고한 사상관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적립장에서 풀어나가는 혁명적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동요하지 않고 순결한 계급적량심과 강의한 혁명적지조를 지키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감으로써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선 사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연렬한 혁명가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어버이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모든것을 다 바쳐 굴함없이 싸워나가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다련하여주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도덕적풍모가 전면적으로 담겨져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매우 커다란 작용을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강도 일제와 싸워 승리한것처럼 오늘 미제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타승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사상으로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73페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죄행을 날날이 발가놓고 그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간악성, 놈들의 피비린내나는 침략력사를 똑똑히 알려주며 놈들이 우리 조국 남녘땅에서 감행하고있는 온갖 죄행을

전면적으로 받가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미제와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되여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이 천추에 용서못할 매국노인 박정희괴뢰도당을 끝없이 증오하고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놈들의 썩어빠진 반인민적통치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교양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수정주의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사람들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마비시킨다. 수정주의가 들어간곳에서는 례외없이 사람들이 개인의 향락만 추구하면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나중에는 혁명을 말아먹게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철저히 알려줌으로써 그 사소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언제나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이 조성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국주의와 평화에 대한 환상에 절대로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고 놈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또한 생활이 좋아지고 유족해지는데 따라 나타날수 있는 안일과 해이, 사치와 허례허식을 반대하고 모든 사업과 생활을 긴박하게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새로운 7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초소에 튼튼히 서서 분초를 아껴가면서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일할 때 우리 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밀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우리는 멀리 전진하였으나 우리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혈전의 준엄한 나날 조국광복의 불타는 일념과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천신만고하면서 맨주먹으로 《연길폭탄》과 여러가지 무기를 만들어 적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운 백두의 그 혁명정신을 본받아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강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과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당일군은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

리 범 철

지금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 전망계획의 첫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모든 초소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운동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에서 지휘관은 〈앞으로 갓!〉 하고 구령만 치면 됩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일군들은 구령을 부를것이 아니라 목표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어야 하며 목표에 다닫으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사업을 조직해주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08페지)

당일군들은 구령을 치는 지휘관이 아니라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

군대에서 정치위원이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투쟁목표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그들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조직사상생활을 보살펴주고 부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꾸려나가듯이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알려주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떠밀어주며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모든 당일군은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런것만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교양하여 그들이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정열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는것은 당일군들의 혁명적본분이다. 따라서 당일군들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당원대중이 모인 정치적조직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이다. 당조직은 행정경제기관과는 달리 혁명과 건설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떠밀어주는 조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당의 사명과 당적령도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은 당일군들의 본신임무이며 근본활동방식으로 된다.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 동원하는 문제는 절대로 행정적방법으로는 해결될수 없다. 그것은 오직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이는 방법, 정치사업의 방법에 의거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인민대중을 교

양하여 그들을 적극 발동시킬수 있으며 또한 대중이 의식적으로 발동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일군들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며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도를 꾸준히 해설하고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있는 현실은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세를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사업에서나 건설사업에서 승리와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결정적요인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복무하려는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오와 자각적열성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77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여부는 어떻게 인민대중의 사상과 열의를 높이 발동하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있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수행된다. 인민대중의 사상과 열의를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그 어떤 사업에서도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해나가야 하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서는 새 전망계획의 어느 한 목표도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없다.

전당, 전국, 전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 전투과업을 앞당기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혁명적대진군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지금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사상과 열의를 힘있게 발동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갈것을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가장 큰 예비는 사상에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전투적강령을 빛나게 실현하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굳게 가지도록 한다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초소들에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시키고 그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불러일으키는것을 첫째가는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정치사업, 사상교양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여기에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발동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나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이 갖추어야 할 풍모와 사업방법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몸소 그 신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보살피심 속에서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은 바로 대원들을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으로 눈을 띄워주고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떠밀어주는 교양자들인 동시에 교무자, 조직자들이였다.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은 틀과 격식이 없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간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으로 가득찬 항일무장투쟁의 그 준엄한 나날에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승리에로 고무하고 동원한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의 모범은 오늘도 우리 당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된다.

우리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힘있게 떠밀어주어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앞당겨수행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대중의 교양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사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을 이룬다.

사람과의 사업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떠나서는 당일군들의 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일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의 사업대상은 광범한 군중이며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현실이다. 그런것만큼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할수 없고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군중이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게 될 때 그들이 당정책관철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면서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주어야 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힘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 당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기대옆과 논밭머리에서 틀과 격식이 없이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하고 대중과 사업도 진지하게 의논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북돋아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자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며 그들의 애로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3페지)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어머니다운 품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나게 유지하도록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적으로 늘 보살펴주는 고상한 공산주의적품성이다.

당일군들은 어머니가 아들딸을 교양하고 돌보듯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보살펴주며 그들의 오늘의 생활뿐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며 도와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게 되면 그들은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를 대하듯이 당일군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일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을 옳게 교양하고 이끌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상 문제뿐아니라 개체생활에서 문제

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발벗고나서서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는것은 결코 그들을 무원칙하게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는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비판하면서도 가슴아파하고 고쳐주기 위하여 진심으로 애써야 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보살펴주고 풀어주어야 사람들을 감화시킬수 있으며 그들이 결함과 과오를 더 빨리 고치게 할수 있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은 항상 사업의 성과는 동지들과 군중에게 돌리고 결함과 부족점은 자기자신에게서 찾아 그것을 스스로 고쳐나가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성실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품성은 이신작칙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면서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나아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70페지)

모든 일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며 모범을 보이는것은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인 품성의 하나이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투쟁의 기수이다.

당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대중을 이끌어나가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따라서 틀을 차리거나 남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되며 언제나 당원대중의 앞장에 서서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경험은 당일군들이 모든 일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며 실천적모범을 보일 때 대중을 감화시켜 스스로 발동되게 할수 있으며 그래야 당의 혁명적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일군들이 사업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지 않고 남에게 지시나 하고 내려먹이며 관료주의를 부리면 대중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그러므로 이신작칙은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당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인 사업기풍이다.

당일군들은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어려운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자기가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앞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새벽공기도 남먼저 마시고 공장길과 농장벌도 남먼저 걸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어깨를 들이밀어야 한다.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은 결코 순탄치 않으며 이 과정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바로 대오의 앞장에 서서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것이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며 자신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줄수 있으며 대중의 참된 기수가 될수 있다.

당일군들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에서 제시된 과업을 기어이 집행하고야말겠다는 드높은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로력적위훈에로 고무하고 돌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조직선전자가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자신이 지닌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는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0페지)

당사업은 사람들과의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사업이다. 당사업을 잘하자면 당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수준을 가져야 한다.

당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이 낮으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대중속에 정확히 해설침투하며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정치실무수준이 낮으면 당일군들이 낡은 경험주의에 매달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할수밖에 없으며 당사업을 생기발랄하게 벌려나갈수 없다.

당일군들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능숙하게 적용해나갈수 있으며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일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자기가 선 초소에서 당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준비정도에 달려있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높은 기대에 비추어 자신이 맡고있는 임무와 능력간에는 거리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자기의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특히 오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있는 현실은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보장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이 있고 기술을 알아야 당사업을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떠밀어줄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와 직접 잇닿아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높은 정치적열의에 경제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군으로, 자기 사업에 정통한 당일군으로 되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우리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끼니는 건늘지언정 학습은 중단하지 않았던 혁명적학습기풍을 본받아 경제지식과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지식있고 능력있는 당일군으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당일군들은 대중의 교양자, 조직자로서의 임무를 명심하고 언제나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2차 7개년계획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요구하는대로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주체형의 당의 당일군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당생활지도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방 기 문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적인 당건설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독창적인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나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방침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오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당앞에 나선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조직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 *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은 당생활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것으로 되게 하며 혁명과업수행을 당생활에 의하여 확고히 안받침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당생활과 혁명과업수행을 통일적과정으로 틀어쥐고 당원들의 당생활, 당조직사상생활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철저히 복종시킨다는것이며 당원들이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당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한다는것이다.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는것은 당이 지닌 임무와 당생활의 본질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원칙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부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07페지)

당은 그 본성에 있어서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혁명투쟁의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을 자기의 투쟁목적으로 하고있다. 이 위대한 투쟁목적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건설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해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훌륭히 개조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모든 활동과 당사업은 마땅히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돌려져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떠난 당사업,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사업의 성과는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사업, 당생활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을 잘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우리 당이 지닌 혁명임무로부터 제기되는 원칙적인 요구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당생활자체의 본질적요구와도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조직생활이란 당원들이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92페지)

당원들의 당생활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조직이 주는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사람들이 당에 들어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그것을 실현하며 자신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기 위해서이다.

당원들은 누구나 당조직으로부터 혁명임무를 맡고있다. 당원들이 당조직으로부터 맡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과정이 곧 그들의 정치생활과정이며 혁명활동과정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서있는 혁명초소는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맡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은 다 혁명투쟁이며 중요한 정치생활, 당조직생활이다. 그렇기때문에 당원들이 혁명임무를 옳게 수행해나가는것은 그들의 당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원들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투쟁과정은 곧 실천행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으로 보답하는 과정이며 본신혁명임무를 잘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매 당원들의 충실성이 평가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이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때 그들은 당원으로서,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때문에 본신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은 당생활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물론 회의와 학습을 하거나 당조직의 분공을 수행하는 활동도 당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회의와 학습도 결코 혁명과업수행과 동떨어진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당회의나 당생활총화도 어디까지나 당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당조직에서 맡겨준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당생활을 떠난 당원이란 있을수 없으며 혁명임무수행과 동떨어진 당원들의 당생활이란 사실상 아무런 의의도 없다. 따라서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임무수행에 철저히 복종시켜 진행하도록 하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언제나 철칙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당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또한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총진군운동에서 모든

당원들이 또다시 빛나는 위훈을 세워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당원된 영예와 자랑을 힘있게 떨칠것을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오늘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는것은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고 영예이며 자랑이다.

당원들이 이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어떻게 결부시켜 진행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침으로써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열정과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잘해나가도록 하는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그러므로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조직진행함으로써만 당원들이 오늘의 충진군운동에서 선봉투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전통적인 당생활지도원칙의 하나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생활과 당사업이 진행되였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이 원칙을 당건설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성스러운 길에서 근위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칠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임무와 당생활의 본질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이다. 또한 그것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임으로써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 *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본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철저히 복종시켜 조직하고 지도하는것이다.

본신혁명과업수행을 중심에 놓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여야만 당생활과 혁명과업수행이 밀접히 결부될수 있으며 당생활이 철저히 본신혁명과업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그에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될수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충성심을 높이 발휘시켜 당앞에 나선 본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임무수행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원들의 당생활이 조직진행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원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것을 맹세하고 자원하여 당에 들어온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가장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므로 당원들이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생활을 진행함으로써만 당생활과 혁명과업수행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부시킬수 있다.

당원들이 본신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는것은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개 당단체들은 당원들의 성격, 능력, 체질에 맞게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며 그 실행을 늘 도와주고 제때에 검열총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언제나 당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며 당정책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건설에 대하여》 제2권, 643～644페지)

모든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주고 그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당조직생활의 기본형식이다.

당원들이 당조직에서 당적분공을 받고 그 실행정형을 보고하며 다시 새 과업을 받아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이 곧 조직생활과정이며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활동과정이다.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당적분공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당원들이 맡은 본신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당적분공을 조직하며 그 수행과정을 잘 지도할 때 그들의 당생활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고 당생활과정이 곧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될수 있다.

당원들이 맡은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당적분공을 조직한다는것은 당원들에게 주는 모든 분공들이 다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한뿐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된 높은 책임성과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본신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한다는것이다. 또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비당원군중을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당원들이 빠짐없이 당조직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 움직이게 될 때 당은 혁명을 하는 산 전투적인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당원들에게 본신혁명과업을 잘 수행할수 있도록 분공을 옳게 준 다음에는 그 실행과정을 늘 알아보고 당원들이 분공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주기 위한 지도를 따라세워야 한다. 그래야 모든 당원들이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으며 당생활수준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특히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당이 준 임무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여기에 당의 전투력을 높여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담보가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총화를 옳게 조직진행하는것은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의 당조직사상생활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집행하는 혁명적실천투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것만큼 당의 당조직사상생활총화는 마땅히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여야 한다.

당생활총화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된 사상생활총화로 되게 하여야 당원들이 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생활총화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된 사상생활총화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이 본신혁명과업수행정형을 중심에 놓고 자기의 조직사상생활전반을 정치사상적으로 깊이 분석총화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들을 반대하여 사상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그래야만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본신혁명과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할수 있다.

당원들의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동무들은 학습과 생산이 서로 대립되는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학습을 잘해야 생산이 잘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511페지)

당원들이 학습을 하는것은 그 어떤 순수한 지식을 얻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훌륭히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학습을 강화해야 당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일수 있으며 정치실무적자질이 높아야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할수 있다.

학습은 당원들의 당생활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것만큼 학습을 어떻게 조직진행하는가 하는것은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학습은 당원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실지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여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없다.

모든 당원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혁명과업도 훌륭히 담당수행하게 된 때 당생활도 혁명과업수행과 더 밀접히 결부시킬수 있다.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당생활지도를 잘하며 특히 당세포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며 전투단위이다.

그러므로 당세포들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면 당원들의 당생활이 혁명과업수행과 더 잘 결부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개 초소에서 당원들과 군중이 잘 움직이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이 성과적으로 집행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당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탁월한 당건설사상의 하나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모든 당원들이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김 억 탁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일찌기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을 새롭게 밝히시면서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과학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사상과 리론에는 법무생활의 본질과 그 특징, 법무생활과 혁명적준법기풍과의 호상관계,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 등이 제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국가와 법에 관한 로동계급의 리론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되게 되였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토지법을 비롯하여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을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를 마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사람들속에서 혁명적준법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우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를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법무생활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해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법규범과 규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7페지)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생활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지키고 그에 의하여 통제되면서 질서있게 일하며 생활하는것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특수한 생활분야,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준법의식에 의하여 실현되는 정치법률생활이며 사회주의사회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규범생활이다.

사회주의법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의사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여 있는것만큼 사회주의하에서 법무생활은 높은 준법의식에 기초하여 자각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억제함으로써 법생활이 그들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구속하게 된다.

사회주의법을 높은 준법의식에 기초하여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법규범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근로인민대중의 고유한 혁명적생활기풍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직접 실현하는 정치적권력기관인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에 따라 모든 사회성원들이 활동하도록 하는것만큼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사회생활전반에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그 혁명적본질과 역할로부터 사회주의준법성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에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지켜야 하고 또 통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와 규정, 법질서가 없이는 사회주의사회를 유지해나갈수 없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31페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통제를 받을수 있도록 혁명적인 제도와 법질서를 세우는것이며 사회생활전반이 정규화, 규범화되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살며 일해나가는 조직화된 사회이다.

집단주의생활원칙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사회를 정확히 관리운영해나갈수 없다. 사람들속에서 집단주의생활원칙을 구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전사회적인 범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가는것이다.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사회생활전반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하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는 중요하게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수립되고 유지된다. 사회주의법의 규제적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사회생활전반이 정규화, 규범화될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일정한 제도와 질서 밑에 통제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 속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만 그들이 사회주의사회의 생활원칙에 맞게 살며 일해나가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는것을 생활화, 습관화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준법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게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

이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는것을 생활화, 습관화할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옳게 관철될 때 사회주의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세워나갈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법을 지키는것을 생활적인 요구로 내세워야 사람들속에서 참다운 법생활이 진행될수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이 가장 철저히 세워질수 있다. 전사회적인 범위에서 이러한 생활기풍이 세워져야 근로자들은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사회를 가장 정확히 관리운영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준법성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활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철저히 진행하게 하며 준법생활이 일상적인 생활과정으로 되게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사람들속에서 법생활을 생활화, 습관화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생활기풍을 세워나가게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튼튼히 세워 온갖 적대적요소의 침습을 철저히 막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혁명과 건설은 안팎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된다.

계급적원쑤들과 반혁명분자들은 제도와 질서가 없는 틈을 노리고있으며 이 틈을 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려고 책동한다.

특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우리 내부에 사소한 적대적요소도 침습할수 없게 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할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고 그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법을 잘 지킬 때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관료주의가 없어지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더욱 원만히 보장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6~497페지)

인민정권기관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삼는 인민의 충복이며 여기에서 일하는 일군들은 누구나 다 인민의 심부름군이다.

모든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는 중요하게 국가의 법질서를 어기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따라서 지도일군들속에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튼튼히 세우는데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지도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침범하는 온갖 관료주의적현상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모든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법을 잘 지킴으로써만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으며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이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옳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울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전례없이 거창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새로운 전망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것을 요구하는 방대한 과업이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시키는 동시에 그들속에서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 생활기풍을 세워야 하며 인민경제 부문간, 생산공정간에도 강한 혁명적규률을 확립해야 한다. 계획규률, 로동규률과 같은 모든 국가규률이 확고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새로운 전망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사회주의경제법칙과 당의 정책적요구에 기초하여 경제문화기관과 기업소들이 계획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으며 경제업무, 생산조직 등 모든 경제관리사업을 옳게 조직운영해나갈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은 사회주의사회의 혁명적준법기풍이 법무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워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조직된 힘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또한 사회주의사회가 요구하는 법무생활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국가와 법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준법생활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법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2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앞에 나서는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요구와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 혁명적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방도와 과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9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법규범과 규정이다. 법규범과 규정은 사람들

의 활동준칙이며 생활규범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여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제정하는것이 선결조건으로 나선다. 여러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은 반드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대법전으로서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지며 사회주의로동법, 토지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규범과 규정의 기초를 이루고있는 기본법이다.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분야의 부문법을 제정하여야 유일적이면서도 매개 부문에 알맞는 활동준칙과 생활규범을 옳게 규정할수 있다.

특히 혁명과 건설의 심화발전은 그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끊임없이 완성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를 반영한 법규범과 규정이라야 사회생활에서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작용을 놀수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로운 요구에 맞게 개선완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롭게 만들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관리법과 규정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지도일군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모범적으로 지키는것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97페지)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이다.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근로자들속에서 법무생활을 직접 조직운영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법준수에서 모범을 보여야 우리 사회의 법무생활을 강화해나갈수 있다.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 실천적모범은 광범한 대중속에 커다란 감화력을 주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된다.

지도일군들속에서 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도 된다.

지도일군들속에서 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그들이 모든 일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규범과 규정들을 지키는데서 그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차지하는 지위를 새롭게 밝히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97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

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중앙을 비롯한 도들과 군들에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마련되여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중요한 체계로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법무생활을 직접 조직지도한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권력을 람용하는 행동이나 위법행위가 없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따라서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우선 사회의 모든 성원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전체 인민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알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법생활을 강화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지키도록 하려는데 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 우선 법규범과 규정들을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지킬수 있다.

법에 대한 해석선전사업은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에서도 하여야 하지만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여야 한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토지법을 비롯하여 국가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을 널리 해석선전함으로써 그들이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정권기관 일군들은 법무생활지도에서 절대로 처벌주의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일부 사람들속에서 법을 위반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들을 무턱대고 처벌하여서는 안된다. 처벌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처벌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들로 하여금 법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 재산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도록 교양개조하려는데 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정권기관 일군들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함부로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고 그 경중에 따라 옳게 처리하여야 한다.

법무생활을 잘하는데서 인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옳게 처리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옳게 처리하는것은 법질서를 위반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들로부터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게 되면 그 문제를 즉흥적으로 처리할것이 아니라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대하며 제기된 문제가 가장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소한 위법행위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며 그들모두가 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것을 생활화, 습관화하게 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이 철저히 서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과 생활을 옳게 조직진행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할것이다.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

로 태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고있다.

온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새 전망계획의 첫해인 올해의 인민경제계획은 년초부터 월별, 분기별로 넘쳐수행되고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가 확고히 견지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이러한 빛나는 성과와 자랑찬 결실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새 전망계획의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을 능히 앞당겨수행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승리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근에 하신 여러차례의 강령적교시들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현시기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경제사업에서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여기에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대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이하는 영광의 올해에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 *

경제사업에서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특히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0페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균형경제이다.

전사회적규모에서 밀접히 련결되여 하나의 통일적인 유기체를 이루는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와 통일적인 지휘밑에 움직일수 있는 정연한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에 의해서만 옳게 관리운영될수 있다.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생산과 건설이 높은 속도로 진행됨에 따

타 더욱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경제토대와 생산규모가 확대되고 인민경제부문간, 지역들간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더욱 복잡해지며 전반적으로 생산속도가 비상히 빨라지게 된다. 뿐만아니라 경제사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며 생산자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제고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이룩되는 이러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옳게 실현하며 내부원천을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도록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가장 우월한 체계와 질서를 튼튼히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에 벌써 계획화사업과 생산조직, 로력조직과 재정관리를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사회주의적 질서와 제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여 경제관리운영경험과 관리기술간부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나라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이 촉진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주체적인 경제관리 체계와 질서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새 환경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구현하시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으며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적기업관리체계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시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시였으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여 계획화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창조는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낡은 질서와 관습에 뿌리박은 낡은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세워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경제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처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해방직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일제가 파괴한 공장, 기업소들을 인차 복구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킬수 있은것도, 매우 짧은 기간에 공업화를 실현하고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수 있은것도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과학적인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정연하게 세워주시고 인민경제를 옳게 지도관리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주체적인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그 거대한 우월성이 더욱더 높이 발양되고 있다.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대중적진

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더욱더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규모가 비할바없이 방대할뿐아니라 그 물질기술적장비가 비상히 강화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생산자대중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주의를 더 잘,더 빨리 건설하려는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우리앞에는 또한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관철하여 경제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자립성을 강화하며 공업의 모든 부문을 고도로 현대화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기술공정, 생산방법을 새로운 과학의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현대적인 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방대한 규모의 자립적민족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여 우리앞에 나선 어려운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경제사업에서 체계와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생산지휘와 자재공급,로동행정,후방공급 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기업관리와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만 인민경제의 숨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그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간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서고 불리한 조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의 요구대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를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441페지)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고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하여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공산주의적 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대안체계를 관철할 때 우리는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갈수 있다.

대안체계를 관철하여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은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 발전하며 계획화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를 한걸음도 움직여나갈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기때문에 어느 한 부문에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하거나 어느 한 제품이라도 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계획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계획기관들은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경제작전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군대의 작전국에서 작전계획을 잘 세우는가 못세우는가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는것처럼 계획기관들이 인민경제계획을 옳게 세우는가 못세우는가에 따라 경제건설의 성과가 많이 좌우된다.

계획기관일군들은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계획작성사업에서 주관주의를 없애고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설비능력, 원료, 자재보장조건,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그들의 사상의식상태,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보장조건, 자금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을 바로세움으로써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과 함께 자재공급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자재공급에서 기본은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것이다.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우에서 아래에 책임지고 내려다주자면 그것을 직접 맡은 자재공급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자재공급기관들에서는 생산을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제때에 생산현장에까지 책임적으로 내리공급하며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보장함으로써 계획대로 생산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자재공급기관들에서는 생산행정에 깊이 파고들어 계획수행정형을 료해하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도록 자극할뿐아니라 온갖 랑비를 없애고 생산기간을 줄이며 품종별, 지표별로 계획을 수행하게끔 적극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지도방법을 개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경제일군들이 지도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우리는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아래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언제나 생산자대중과 협의하여야 한다. 생산을 직접 맡은 작업반장, 로력혁신자들, 기대공들과 만나 협의하면 그들의 창발적의견을 들을수 있고 아래실정을 환히 꿰뚫수 있으며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을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여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언제나 실속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책임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자주적으로, 주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맡은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임일군일수록 꾸준히 학습하여 자체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기 맡은 사업에 밝히 정통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책임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야 넓은 정치적안

목과 현대적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 공장, 기업소들을 지도관리하며 언제나 구체적실정을 정확히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학습을 심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경제관리 사상과 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모든 요소들을 옳게 타산하여 생산을 조직하며 랑비를 없애고 원료와 자재, 로력을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더 좋게, 더 쓸모있게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경제기관들로부터 공장, 기업소에 이르는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는것은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규률이 째인곳에서는 생산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곳에서는 생산이 떨어진다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경험이 보여주고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체계가 세워져있고 옳은 규범과 규정들이 만들어져있다 하더라도 경제사업에서 강한 규률이 서있지 못하면 그것들이 제대로 은을 나타낼수 없다.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고 제정된 규정과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경제사업에서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계획을 현물지표별로, 일별, 순별, 월별로 세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강한 계획규률을 세우며 자기 공장의 기본제품보다 협동생산품을 먼저 생산공급하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생산능률, 원가, 수익성 등과 같은 질적지표를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로동행정규률, 재정규률을 비롯하여 경제조직사업과 경영활동에서 제정된 모든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경영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경제관리,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한다는것은 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계획화, 생산지도, 설비관리, 자재공급, 로동행정, 재정관리, 후방사업 등 모든 활동을 엄격히 규정과 규범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관리운영사업을 조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영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과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경제관리,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경제관리의 규범과 규정들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관리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관리 규범과 규정을 잘 만드는것과 함께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관리능력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지배인, 직장장, 작업반장 등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기술실무적으로 능숙하여야만 경제관리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의 사소한 요소들까지 철저히 극복하고 경영활동을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히 벌려나갈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우고 전문기술지식과 관리운영지식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경제기술적사업을 능숙하게 처리하며 정규화된 경제를 훌륭히 관리운영하는 유능한 관리일군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문별로 모범공장을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기업소관리일군들에게 관리운영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자면 제정된 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어기는 현

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을 어기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 그것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여야만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경제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다.

우리는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사업에서 제정된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어기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 경제관리운영에서 사소한 무규률적인 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를 잘 보장하면 모든 당원들을 움직일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움직이면 모든 근로대중을 움직일수 있게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25페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할 때만이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집단의 책임성에 의하여 경제사업에서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위원회들에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 힘있게 내밀며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고 경제과업수행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당위원회들이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행정경제일군들을 그 어떤 애로와 난관에 부닥쳐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의 요구대로 맡겨진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준다면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특히 당조직들이 경제지도일군들로 하여금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적극 이끌어줌으로써 그들이 경제지도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 작풍과 방법을 없애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해나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경제관리 사상과 방침을 관철하여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혁신,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공산주의인간학의 기본요구

윤 종 성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참다운 인간학,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인간학은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야만 보장될수 있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공산주의인간학의 기본요구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벅찬 생활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의 인간학적특성에서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70페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이 다른 사회과학들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성은 그것이 인간과 그의 생활을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그린다는데 있다.

문학예술이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려면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야 한다. 형상적화폭이 없이는 문학예술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수 없으며 인간생활을 그려야 예술적형상이 창조될수 있다. 같은 인간을 다루면서도 인간과 그의 사회적관계를 추상화된 개념으로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생활에서와 같이 생동한 형상으로 그려내는데 문학예술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실생활을 생동하고 심도있게 그릴 때만이 문학예술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고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것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훌륭한 성과작들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가 예술영화 《첫 무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통일전선로선의 불패의 생활력을 그처럼 생동하고 실감있게 체득하게 되는것은 이 영화가 추상적인 론리로써가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에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였던 엄혹한 혁명정세와 실지생활을 구체적이고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었기때문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공산주의인간학이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데 이바지한다. 여기에 인간학의 근본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똑바로 밝히지 못한 종전의 인간학과 구별되는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공산주의인간학이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은 자기의 정치적자주성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빛

내이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밝힌다는것을 말한다. 새시대의 인간전형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인간들의 형상을 그리는데서 창조된다. 이것은 공산주의인간학이 생활에 더욱 깊이 파고들어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고유한 특성을 가장 완벽하게 살릴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인간학은 그 사상적높이에서만이 아니라 그 예술적형상성에 있어서도 최상의 높이에 이르러야 한다. 이로부터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는 공산주의인간학에서 더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이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야 하는것은 생활을 떠난 인간이란 존재할수 없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문학예술이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자면 산 인간을 그려야 하며 산 인간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의 생활을 그려야 한다. 인간은 생활밖에서는 존재할수 없다. 인간이 있으면 생활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 사고하고 활동하며 사회적관계를 맺는것은 곧 그가 살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그 모든것은 그의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것이다.

사람은 생활을 통해서만 리해될수 있으며 그의 존재는 생활속에서만 의의를 가진다. 인간과 그의 활동이란 의미에서 인간과 그의 생활을 갈라볼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그자체가 생활밖에 존재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사람은 생활속에 존재하기때문에 그의 예술적형상은 인물초상을 그리는것만으로는 안되며 그의 생활 즉 사회적활동을 그려야 창조될수 있다. 사람의 성격도, 그의 사회적관계도 생활속에서 표현되며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생활문제로 되는것이다. 생활을 떠나서는 인간문제가 제기될수도 해결될수도 없다.

이로부터 문학예술이 인간학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생활을 그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서게 된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이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야 하는것은 또한 현실생활을 떠나서 문학예술자체가 존재할수 없다는데 있다.

문학예술은 현실생활의 반영이다. 생활이 없으면 그 어떤 문학예술도 창조될수 없으며 생활을 생동하게 담지 못한 문학예술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모든 사회적의식은 생활에 토대하고 있으며 생활의 반영이다.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인 문학예술도 생활에 토대하고 있고 생활에서 생겨나는것만큼 생활을 떠나서 사상성, 정치성을 나타낼수 없다. 문학과 예술은 생활속에서 사상성도, 정치성도 스스로 우러나오게 그려야 참다운 인간학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산주의인간학은 철저하게 인간과 인간생활을 그려야 하며 거기에서 표현되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그 거대한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허구도 실생활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서만 의의를 가지는것이지 생활자체를 외곡하는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문학예술의 사상성, 예술성은 다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하는데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것들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혁명적문학예술이 창조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야 하는것은 또한 문학예술이 수행하여야 할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기본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진실을 쓰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89페지)

공산주의인간학은 사람들에게 주체의 요구대로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생활의 교

과서로 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주체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전형적인 인간, 그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며 투쟁경험과 교훈, 투쟁방법을 생동하게 가르쳐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의 진실을 그려야 공산주의인간학은 자기의 이 숭고한 혁명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문학과 예술은 생활을 진실하고 심오하게 그려내야 사람들에게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시킬수 있으며 그들에게 참답게 생활하는 길을 가르쳐줄수 있다. 또한 문학과 예술은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야 높은 형상속에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와 심오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린 문학예술작품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해나가는 사람들의 실천투쟁에 커다란 힘을 준다. 사람들은 문예작품에 그려진 의의있고 보람찬 생활을 통하여 현실을 더 잘 알게 되며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서게 된다.

공산주의인간학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참다운 생활의 길을 가르쳐주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기 위하여서는 생활을 형상적화폭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 바탕에 깔려있는 생활의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생활의 진실을 드러내야만 력사발전의 합법칙성, 공산주의운동의 본질을 심오하게 밝힐수 있다.

생활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한다. 생활을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어차피 사건들을 라렬하고 본질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참다운 생활의 길을 가르쳐줄수 없다. 생활을 깊이 파고들지 않을 때 인간의 내면세계, 인간성격의 본질을 두드러지게 밝혀내지 못하고 인간자체를 잡다한 사건이나 생산기술적문제의 해결에 파묻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의있고 절실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풀수 없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간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생산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단순히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생산활동으로만 보는것이 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으로, 자신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으로 인정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혁명을 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며 몸바쳐투쟁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생활자체가 이렇기때문에 문학예술이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그 본질을 진실하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이와 같이 생활의 진리를 심오하고 생동하게 드러냄으로써만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요구를 내세우고 순간을 살아도 보람있게 살수 있는 참다운 삶의 길을 가르쳐줄수 있다.

공산주의인간학이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몸바쳐나서도록 교양하는 사상적무기로 되기 위하여서는 생활의 진리를 심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기본요구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는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혁명이 없이는 사회가 전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0～421페지)

사회의 발전은 새것이 낡은것을 이겨내는 끊임없는 혁명과정이며 사회생활은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생활이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이며 투쟁이다. 그러므로 투쟁속에 생활이 있으며 생활가운데 투쟁이 있다. 생활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며 투쟁한다는것은 생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아무 생활이나 다 긍정하고 묘사할수 없으며 의의있는 생활만을 그려야 한다.

참다운 생활은 새롭고 진보적이며 아름다운것을 창조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속에 있다.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고 진보적인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벌어지는 생활은 그 지향에 있어서 고상할뿐아니라 그 과정이 전투적이고 랑만적이며 아름다운것이다. 이러한 혁명적생활의 복판에 서있는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민족, 계급,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인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생활을 사랑할줄 아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진 아름답고 훌륭한 인간의 전형이다. 주체형의 인간은 언제나 새생활을 창조해나갈줄 아는 투사들이며 풍부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참다운 생활과 투쟁은 서로 갈라놓을수 없을뿐아니라 인간생활의 보람은 보다 아름다운 생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인간학은 마땅히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생활과 투쟁을 서로 떼수 없는 련관속에서 그릴뿐아니라 새것을 위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아름답고 참된 인간의 전형인 공산주의자를 그리기 위하여서는 정치성과 인간성을 밀접히 결합하여 투쟁하며 생활하는 산 인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를 그려야 한다.

생활은 자체의 론리, 법칙을 가지고 있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그 론리에 맞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인간생활은 현상적으로는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인간관계의 엄격한 론리에 의하여 법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며 원인없이 일어나는 생활현상이란 있을수 없다. 따라서 생활을 그 론리에 맞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생활현상을 우연한것으로 그릴것이 아니라 필연적인것으로 그려야 하며 창작가의 주관에 의하여 처리한것이 아니라 생활의 여러가지 조건과 원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합법칙적인 현상으로 그려야 한다. 또한 창작가는 독자나 관중의 감정과 정서를 억지로 불러일으키려고 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화폭을 보고 스스로 느끼고 깨닫으며 공감하도록 그려야 한다. 인간생활을 그 객관적론리에 맞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인물들의 호상관계, 그들의 행동과 언어가 생활적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비론리적이거나 현실에는 있을수 없는 사건을 꾸며내여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고 해서는 안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주인공이 반변을 일으켜 조선인민혁명군에 찾아가는것이 우리에게 실감있게 안겨오는것은 그가 겪은 모든 생활과정을 진실하게, 생활론리에 맞게 그렸기때문이다.

문학예술이 인간생활을 그 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또한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을 잘 그려야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까닭없이 웃거나 울어서는 안된다. 작품의 인물이 울거나 격분한다고 해서 독자나 관중이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 울거나 격분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의 진실성, 그에 대한 사람들의 공

감의 정도는 작품에서 감정조직을 어느 정도로 치밀하게 짜고 감정축적을 어느 수준에까지 생활의 법칙에 맞게 끌어올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에서 겹쌓이는 고생끝에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의 죽음장면은 문학예술에서 감정선의 진실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로 된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특성과 힘이 그의 형상성에 있는것만큼 작품에서 감정조직이 생활과 밀착되지 않고 실생활처럼 자연스럽고 진실한 묘사로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학예술을 죽음에로 이끌어가게 된다. 등장인물의 심리와 감정은 창작가의것이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자신의것으로 되여야 하며 심리, 감정에 대한 묘사는 설명으로 될것이 아니라 생활 그대로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여야 한다. 생활론리에 대한 진지한 탐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발견이 있어야만 문학예술은 생활과 밀착된 화폭을 창조할수 있다.

진실한 예술적형상은 또한 생활을 풍부하게 다방면적으로 그리는데서 이루어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투영화를 만든다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투만 보여줄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장면은 조금 넣고 될수 있는대로 오늘의 생활을 많이 보여주도록 하며 또 청년들의 감정에 맞게 풍부한 정서가 담긴 작품들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291페지)

인간생활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인간성격은 개성적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모두다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그 매개 사람들의 개성은 다 다르다. 그것은 그들모두가 서로 다른 인간관계와 구체적인 생활환경속에서 살며 일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같은 사회적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식수준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들의 개성은 얼굴이 서로 다른것처럼 각이하다.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에로 나가는 사람들의 앞길은 하나의 목표에 잇닿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다 자기에게 고유한 개성적특성을 가지고 깨달은것만큼, 준비된 힘만큼 이 길을 열어나간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모든 사회성원들을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있는 다양한 재능과 취미, 정서, 개성의 모든 긍정적요소들이 활짝 꽃필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모든 긍정적인 힘과 가능성이 완전히 발현될 때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 정신생활은 다양하고 풍부해질수 있으며 참으로 사람의 본성에 맞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인간학은 마땅히 생활을 막대기처럼 외곬으로가 아니라 풍부하게 다방면적으로 그려야 한다.

인간의 현실생활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사람은 사회생활, 사생활,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다양한 생활을 하고있다. 인간생활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을 보지 않고 어느 한 측면만을 절대화하는것은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는것으로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생활은 그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사상정신적면모, 계급적성격은 그의 정치생활에서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생활, 문화생활, 경제생활 등 모든 생활에서 나타난다. 그의 생활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것은 그의 세계관, 사상정치적견해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투쟁으로 일관된 인간생활에는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싸움도 있을것이고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생산활동도 있을것이며

과학, 문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도 있고 혁명적동지관계, 부모형제간의 육친적관계, 남녀간의 고상한 애정관계 등 도덕정서생활도 있을것이다. 혁명가를 그린다고 하여 그가 적과 싸우는 측면만을 그리고 그의 인간적풍모의 다양한 표현들을 생활적으로 그리지 않거나 로력혁신자를 그린다고 하여 그의 로력투쟁과정만을 그리고 그의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을 그리지 않는다면 참다운 혁명가의 전형을 그릴수 없다.

혁명가의 생활을 여러모로 그리지 않고 외곬으로 그린 예술적형상들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줄수 없으며 따라서 인식교양적역할도 할수 없다. 예술영화 《영원한 전사》, 《압연공들》이 심각한 투쟁을 반영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있으면서도 무겁지 않고 명랑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감흥을 주는것은 생활을 외곬으로가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린데 있다.

생활세부를 잘 그리는것은 문학예술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요구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작품에 표현된 애국심이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게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54～55페지)

문예작품이 사람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감동시키지 못하며 예술로서의 특색을 잃어버리게 된다.

인물의 개성이란 비반복적인것이므로 일반적인것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생활적인 세부를 통해서만 인물들의 개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물들의 겉만 보일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세계, 심리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하며 인간성격과 사물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세부를 그려야 한다.

생활세부가 없으면 형상이 이루어질수 없다. 매개의 세부는 작품전체의 형상성에, 매개 세부의 진실성은 작품전체의 진실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적후환경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우들을 위하여 식량을 구해다가 밥을 지어주고 자기도 한술 뜨다가 조는 장면은 성공적인 세부묘사의 좋은 실례로 된다. 수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있는 이 하나의 세부묘사는 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반영하고있으며 관중들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여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 구현을 위하여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함으로써 창작가들은 참다운 공산주의인간학을 창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또다시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대진군운동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

지방예비는 경제발전을 위한 거대한 잠재력

박 명 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지방경제발전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에 하신 여러차례의 강령적교시들에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함으로써 지방공업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지방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늘어나는 다양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는 여기에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와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이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더 큰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　　　*

지방의 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며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8년 1월 1일, 단행본, 1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 특히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중앙공업공장들과 함께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고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지방의 풍부한 원료원천과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우리의 지방공업은 인민소비품생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위력한 경제부문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는 비상히 확대되고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커졌다.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축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공업원

료기지가 꾸려지고 지방의 풍부한 자연원료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일떠세운 지방경제의 풍부한 예비와 가능성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방예비를 적극 동원하는것은 무엇보다 국가의 투자를 더 들이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촉진되고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자면 중앙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지방공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 풍부한 원료원천과 로력자원에 의거하여 소비품에 대한 전국적수요와 각 지방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갖가지 일용품과 식료가공품을 제때에 생산공급할수 있다. 또한 생산지와 원료원천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더욱 접근시킬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더 잘 구현하여 적은 자금과 로력으로 생산을 부쩍 늘일수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로동을 절약할수 있다.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면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더 들이지 않고도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순소득을 늘여 국가축적을 증대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생산건설을 널리 진행할수 있다.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는것은 또한 지방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모든 지방들에서 지방예산제를 옳게 실시하여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알뜰히 꾸려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지방의 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한다면 우리는 적은 지출로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여 지방예산수입의 원천을 확대할수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지방의 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갈수 있게 된다.

특히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국가의 자금을 절약하여 중공업건설에 돌릴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균형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뿐아니라 근로자들속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의 예비라 하여 그것이 결코 손쉽게 얻어지는것은 아니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만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할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 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재산,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나라살림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된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지방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투쟁할 대신에 중앙공업에 의존하면서 우에서 해결해주기만 바란다면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없다.

그러므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지방의 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람들의 사고와 실천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면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지방의 예비를 동원리용하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와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동시에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을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몫을 60%이상 높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지방예비를 적극 동원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지방의 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야만 우리는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빨리 늘어나는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에 대한 수요를 추가적인 투자없이 이미 마련된 지방경제의 튼튼한 밑천을 가지고 자체로 훌륭히 해결할수 있으며 지방공업생산을 빨리 높여 소비품에 대한 급속히 장성하는 지방과 전국적인 수요를 더 잘 보장할수 있다.

오늘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고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은 그 어디에나 다 있다.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무엇보다 지방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다 리용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비를 동원리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지금 있는 공장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내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3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현대적인 대규모의 중앙경공업공장들과 함께 수많은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웠다.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골고루 배치된 수많은 지방공장들의 생산능력은 대단히 크며 그것을 더 잘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지방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리용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원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것이다.

큰 공장들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유휴자재들을 널리 동원하고 쓸모있는 모든것을 수매가공한다면 원료를 멀구지 않고 생산을 보장할수 있다.

특히 대중적운동으로 자연원료를 채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초물제품과 가구, 식료품을 만들며 집짐승털로 갖가지 제품을 만든다면 인민생활에 더 큰 보탬을 줄수 있다.

지방산업공장들에 원료를 충분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기술개조를 힘있게 벌려 지방공장들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한다면 많은 로력과 자재의 예비를 얻을수 있다. 지방공장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여나갈 때 우리는 있는 로력과 자재로 생산을 부쩍 늘일수 있다.

도시와 로동자구를 비롯한 이르는곳마다에 가내작업반을 널리 조직하고 잘 운영하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서도 많은 예비를 얻어낼수 있다.

우리에게는 지방공업의 경제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예비가 대단히 많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지방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적극적인 방침이며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지방의 예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해방직후에 벌써 지방경제를 급

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1962년 8월에 있은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성과적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이끄시여 참으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지방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이 국가의 부담을 덜면서 생산을 늘이는 경제건설의 효과적인 방도이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내부원천을 힘있게 동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것을 보여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옳게 불러일으키고 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운영사업을 잘하면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1페지)

오늘 지방의 예비를 성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생산과 건설의 급속한 장성을 위한 예비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에 있으며 사상이 발동되고 근로대중이 동원될 때에는 그 어디에서나 많은 예비를 얻어낼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다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있는 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생산과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경험은 일군들이 직장과 작업반, 인민반에 깊이 들어가 지방의 예비를 동원리용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 지방예비의 형태와 동원방도를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모든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이끌어줄 때 많은 예비를 얻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은 한두번에 걸쳐서 간단히 끝마칠 일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꾸준한 사상동원사업과 조직사업이 안받침되여야 하며 일군들이 머리를 쓰고 묘술을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보수주의, 소극성 등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사업태도, 사업기풍을 철저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지방의 예비를 널리 동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기업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그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지 않는 현상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는 표현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지방의 예비를 최대한 동원할수 있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지방의 예비동원을 위한 로력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며 대중적운동으로 원료기지조성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들에 탄산소다공장, 가성소다공장을 비롯한 중소화학공장들과 유리병공장, 포장재공장, 철제소재기지를 널리 꾸려 원료와 소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산과 바다를 리용하여 원료를 채취리용할수 있도록 원료기지를 잘 꾸리며 농부산물과 큰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수매리용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 예비동원을 위한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수매사업을 잘 조직하여 쓸수 있는 모든것을 제때에 수매가공함으로써 인민생활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중앙공업의 위력을 충분히 리용하는 한편 지방의 창발성과 대중의 지혜를 적극 조직동원하여야만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72페지)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방의 창발성과 대중의 지혜를 높이 발양하는것이다.

지방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와 인민생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주겠는가에 대하여 아글타글 애쓰고 머리를 짜내여 더 많이 생산해낸다면 그만큼 지방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원료기지조성사업과 지방공장건설, 갖가지 부산물수매가공사업을 적극 내밀어야만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중앙공업공장들에서 나오는 원료와 자재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에서 해결해줄것만 바라거나 중앙공업원료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그 어떤 창발성도 나올수 없으며 손쉽게 동원리용할수 있는 예비도 제대로 찾을수 없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지방의 살림살이는 지방자체에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꾸려나간다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해내며 한푼의 자금이라도 더 벌어 국가에 바침으로써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자도일군들은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갖가지 일용잡화생산을 부쩍 늘이며 가내작업반과 편의협동조합을 많이 조직하고 잘 운영하여 도처에서 더 많은 식료가공품들과 세소상품들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방공장들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지방공장들의 기계설비의 능력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 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며 생산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등 주어진 조건으로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기 위한 가장 큰 예비는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기술을 혁신하는데 있다.

모든 지방공장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동원적인 기술발전계획을 세우고 로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간다면 우리는 지방공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새 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설비를 부단히 갱신하며 생산공정을 합리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기술혁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며 생산을 많이 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조그마한 기술적진보의 가능성도 소홀히 하지 말고 다 리용하여야 한다.

지방의 예비를 성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이 사업에 대한 지방당조직들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현시기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은 지난날과 같이 흩어진 자재나 유휴로력을 손쉽게 동원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진척되는데 따라 생기는 예비를 탐구동원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노력과 정력을 기울여야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그 어떤 편향이 나다나지 않도록 당조직들이 옳게 지도통제하고 행정경제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어줄 때만이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적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예비동원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지방공업에 낯을 돌리고 지방의 예비동원사업을 틀어쥐는것이다.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당이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만큼 당일군들은 응당 로동계급이 일하는 공장, 기업소에 낯을 돌리고 그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일군들은 그 누가 경제사업의 성과를 가져다줄것을 바랄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며 수확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지방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설계하며 구체적으로 작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 지방의 구체적 실정과 조건에 맞는 명확한 투쟁목표와 방도를 가지고 이 사업에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방법론을 세우며 대중을 반동하여 예비동원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지방의 예비동원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새롭게 포치하며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지방의 예비동원사업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움으로써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이 사업에로 계속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특히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에서 지도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는것이 중요하다.

지도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어주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예비동원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경험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지도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예비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실로 그 어디에서나 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다는것을 명확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사업을 조직할것이 아니라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반동하여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모든 일군들이 예비동원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도록 당적지도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지도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지방의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자.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확고한 담보

한 충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영농사업분야에 훌륭히 구현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인 주체농법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농법을 창시하심으로써 영농방법을 개조하여 과학적리치에 맞게 농사를 지으며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도 이겨내고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영농방법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를 구현하고있는 주체농법에는 영농원칙과 영농체계, 영농방법 등 농업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체계화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농법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농업발전력사에 빛나는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주체농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임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 *

영농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는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이 문제를 옳게 풀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 새로 조직된 사회주의협동경리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난날과 같은 뒤떨어진 방법으로는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도 없고 농업협동조합을 강화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개천군 당단체들의 과업》, 단행본, 31페지)

지난날 우리 나라는 오랜 기간 봉건관료배들의 부패한 통치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기술적락후와 침체, 중세기적인 수공업적재래식농법에 짓눌려있었다.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뒤떨어진 농법을 가지고서는 농업을 발전시킬수 없다.

농법을 새롭게 혁신하는 문제는 특히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가 서고 농촌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전면적인 기계농사, 화학농사의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펼쳐졌다.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문제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였다. 농사를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지어야만 땅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농업생산의 높은 장성을 보장하고 농업생산물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보장할수 있다.

과학적영농방법을 창조하는것은 농업생산에 미치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

내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도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최근년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농업생산을 위한 자연기후적조건들이 몹시 달라졌다. 한랭전선으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은 영농작업에 매우 변덕스러운 기상기후조건을 가져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난날의 경험만 가지고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으며 변덕스러운 기상기후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도 없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극복하고 농작물의 생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연개조와 함께 영농방법에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깊이 헤아려보시고 가장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농법, 주체농법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은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농사를 가장 과학적으로 지어나갈수 있는 독창적인 농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농업문제해결의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공산주의농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은 농업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그 지방의 자연적특성과 땅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며 어느 밭에 무슨 곡식이 잘되며 어떤 방법으로 심는것이 가장 좋은가를 하나하나 정확히 밝혀내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73페지)

농사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짓는것은 자연과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생산자체의 필수적요구이다.

주체농법은 무엇보다먼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 자연과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생산 그자체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토지와 자연기후적조건은 농작물생육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환경을 이룬다. 농작물은 자체의 고유한 생물학적법칙에 따라 자라고 열매를 맺는만큼 자기의 생육에 알맞는 여러가지 외부환경조건을 요구한다. 그런데 농작물생육에 영향을 주는 기본생활환경으로서의 기후풍토조건과 지형립지조건은 매개 나라마다 서로 다를뿐만아니라 지대마다 같지 않고 골짜기마다 서로 다르다. 이것은 매개 나라의 영농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다른 나라의 영농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어떤 한 지방에서의 영농방법이 좋다고 하여 해당 지방의 토양기후적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을 타산하지 않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농사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우리 땅에서 우리 식으로 농사를 지으며 매 지방의 땅의 성질과 기상기후조건을 알아내고 그에 맞게 과학적영농방법을 적용하여야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으며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높은 소출을 얻을수 있다.

주체농법은 현대적인 물질기술수단과 최신농업과학의 성과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선진적인 농법이다.

자본주의농업과는 달리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현대적인 기계기술도입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는다. 현대과학기술의 적용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수단을 요구한다. 물질기술수단에서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영농방법에서의 혁명이 일어날수 없다. 선진적사회주의생산관계에 기초하여 농업생산과정이 현대적인 물질기술수단으로 튼튼히 장비되여야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일수 있다. 또한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영농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농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다. 이처럼 주체농법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한것으로서 현

대적인 물질기술수단과 최신농업과학의 성과에 기초하고있다.

주체농법은 또한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위대한 농법이다.

우리가 농업을 공업화하고 영농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로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여 그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마련하여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체농법은 농민들을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공정을 완성하여 농업생산을 공업화하고 한사람당 관리면적을 늘이면서 더 많은 생산물을 얻어낼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은 이렇듯 자연과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생산의 특성과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농촌경리세도의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영농방법이다.

위대한 주체농법은 땅과 종자, 자연조건과 현대적인 영농수단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단위면적에 로력과 자재와 기술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집약화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집약화한다는것은 곧 포기농사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알곡수확고를 높이는가 높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매 작물의 생육조건에 따라 평당 포기수를 어떻게 정하며 그것을 얼마나 정확히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평당 포기수를 늘이고 포기를 대상으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포기마다 옹근 소출을 내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은 또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울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농민들은 또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량하고 우량품종과 종자를 육성하며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작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병충해를 없애는 등 과학적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였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04페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현시대 농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여기에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예비가 있다.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하여서는 토지와 종자를 개량하고 작물재배기술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토지의 비옥도와 종자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농작물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지어주어 한랭전선과 같은 불리한 날씨도 막아내고 농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을수 있다.

랭습지와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며 종자혁명에서 기본인 잡종화, 다배체화 방침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1대잡종체계를 세우고 모든 작물의 품종을 새로운 우량품종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을 지키고 발땡상모와 강냉이영양단지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모를 튼튼히 길러내야 한다.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은 과학적영농사업의 요구를 집약적으로 반영한것으로서 주체농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다.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을 지키고 발땡상모와 강냉이영양단지를 비롯한 선진적모심기농사법을 많이 받아들여야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농작물의 생육기일을

보장하며 성숙기일을 앞당겨 안전한 소출을 거둘수 있다.

이와 함께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우고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 등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토양기후조건과 농작물의 영양생리적특성에 맞게 여러번 쥐어주는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우고 선진적물관리방법을 받아들여야 농작물의 물질대사과정을 조절하고 그의 생육과정을 촉진시킬수 있다.

주체농법은 이처럼 우리 나라의 토양기후조건과 지형립지조건, 중요농작물의 생리적특성의 전면적분석에 기초한 과학적영농방법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 위대한 주체농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로고와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재부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농업문제해결에서 농법이 가지는 의의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농법을 창시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탐구의 나날을 이으시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저택의 정원에 시험포전을 만들어놓으시고 몸소 여러 종류의 작물과 품종을 가꾸시면서 농작물의 생물학적속성들을 하나하나 밝혀내시였으며 매 작물의 특성에 맞는 재배 기술과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방마다 기후풍토조건이 다르고 작물과 품종마다 서로 다른 환경조건을 요구하는 농작물의 특성에 맞는 농법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전국의 여러 지방의 시험포전들에 갖가지 시험사업을 포치하시고 몸소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국의 수많은 농촌을 찾으시여 농민들의 실천적영농경험을 들어도 보시고 과학자들과의 협의도 거듭하시였으며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농업실태와 심각한 교훈, 현대농업과학기술발전의 추세도 깊이 헤아려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끊임없는 사색과 정력적인 탐구에 기초하시여 새로운 과학적영농방법을 완성해나가시였으며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는 과정에 그 내용을 더욱더 심화시키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은 이렇듯 모든 영농사업을 과학적리치에 맞게 진행하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주체농법에는 우리 농민들을 하루빨리 힘든 농사일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정력과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 은정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농법이 우리 나라의 영농실천에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농사를 망치고 《농업위기》, 《식량위기》로 아우성치고 있는 때 우리 인민은 한랭전선과 같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 해마다 류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고있다.

우리는 혹심한 가물과 랭습이 계속된 지난해에도 주체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알곡 850만톤고지를 빛나게 점령하였다. 우리 나라는 벼 정보당 수확고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높은 수준을 릉가하였으며 농업발전속도에서 끊임없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주체농법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확증하여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 알곡 880만톤고지를 점령하고 새 전망계획 기간에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해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일군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122페지)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악하게 달라붙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절대성,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과학적인 영농지식을 깊이 습득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을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킬수 없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없다.

농업부문일군들과 농민들 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생물학에 대한 지식,토양,비료에 대한 지식, 물관리에 대한 지식, 뜨락또르에 관한 지식을 비롯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래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모든 영농공정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한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농업생산에 널리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논벼, 강냉이, 콩을 비롯한 농작물재배방법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올되고 소출이 높은 좋은 종자를 길러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금보다 연유를 적게 쓰면서도 속도가 빠르고 다루기 편리한 질좋은 뜨락또르를 생산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종합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련비료생산을 늘이고 병충해를 막기 위한 연구사업과 성장촉진제, 성장억제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농업을 현대적물질기술수단으로 장비하고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다.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고 영농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제때에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 화학화를 완성하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은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때에 하고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을 늘이고 모내는기계, 김매는기계,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또한 농촌에서 뜨락또르운전수의 역할을 높이고 련결농기계와 부속품을 제때에 공급하여주어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를 비롯하여 살초제와 농약, 미량원소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제때에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고 한사람당 관리면적을 늘일수 있으며 영농적기를 철저히 지킬수 있다.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연개조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농업생산을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지도하는것은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제는 낡은 경험이나 뒤떨어진 수공업적방법을 가지고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다. 현대적인 농기계와 농약,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조건에서는 반드시 농업생산을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년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기후변동이 매우 심하고 농업자체가 생물체를 다루는 일이기때문에 다른 부문의 사업보다 매우 복잡하고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세밀하게 짜고들어 농업계획을 세부화하고 농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한랭전선으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추위와 서리, 무메기비와 혹심한 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잘하는것은 농업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낼수 없다. 우물을 파고 줄짱도 박고 벼모와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적기에 다 내려면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농촌을 힘있게 지원해야 한다.

농촌로력지원사업을 강화하여야 모내기도 제철에 할수 있고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제철에 옮겨심을수 있으며 김도 제때에 매여 영농사업의 모든 공정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전망은 휘황찬란하며 위대한 주체농법이 영농사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 88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새 전망계획의 1,000만톤 알곡고지를 앞당겨점령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자.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남조선사회

석 연 택

오늘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더욱더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놈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남조선사회제도의 반동적인 본질과 부패상을 가리우며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아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은 그 어떤 허위와 궤변으로써도 민주주의의 흔적도 없는 남조선사회제도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울수 없으며 인민대중을 속일수 없다.

남조선사회제도는 인민대중의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그들의 초보적인 생활조건마저 박탈하며 사상문화적으로 인민대중을 기만하고 타락시키는 가장 반동적이며 썩어빠진 사회제도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7페지)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의 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뿐만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은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종시키는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여야만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진전하게 발전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 소수 특권계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

력사적으로 볼 때 노예소유자국가에서는 소수의 노예주들이 절대다수의 노예를 억압착취하는 정치를 하였으며 봉건국가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지주와 봉건통치배들이 농노를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정치를 하였다. 따라서 노예소유자국가에서나 봉건국가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을수 없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는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이른바 《민주주의》,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 역시 소수 자본가들이 로동자를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는 《민주주의》로서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세상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 하나뿐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가 안하

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제도는 진보적이며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며 그것을 유린말살하는 사회제도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이다.

남조선사회제도는 민주주의의 흔적도 찾아볼수 없는 반동적인 사회제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은 모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된 암흑의 천지로, 대중적 테로와 학살이 감행되고있는 인민의 도살장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38페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가 없는것은 남조선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결과이다.

남조선사회는 미제의 강점밑에 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이다.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과 중요생산수단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 독차지하고있다.

이른바 《정권》이라는것은 인민들을 억누르고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하는 도구로만 되고있으며 그의 《정책》이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매국, 안일과 향락을 보장하는데 돌려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밑에 있고 극소수의 반동들이 모든 권력과 중요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있는 남조선과 같은 착취사회에서는 모든 정책을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시할수 없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존엄있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줄수도 없다. 따라서 남조선사회에서는 민주주의란 결코 있을수 없다. 거기에는 오직 파쑈통치가 있을뿐이다. 파쑈통치는 오늘 제국주의나라들에서뿐아니라 식민지나라들에서도 반동통치의 기본특징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군사파쑈통치는 그 횡포성과 야만성에 있어서 히틀러와 도죠의 파쑈독재를 훨씬 릉가하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무더기로 조작하는 한편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송두리채 유린말살하고있으며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애국력량을 야수적으로 탄압함으로써 온 남녘땅을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변시키고있다.

특히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10월유신》놀음을 벌려 중세기의 암흑통치를 무색케 하는 1인영구집권체제인 《유신》파쑈체제를 조작한후 《계엄령》과 《위수령》, 《긴급조치》 등을 련발하면서 민주주의의 자그마한 흔적마저 모조리 유린말살하고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학생들, 민주인사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학살하고있다.

놈들의 파쑈적만행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사회는 남조선사람들자신이 말하고있는것처럼 《공기 없는 천지, 즙이 없는 땅, 빛이 없는 세상》으로, 《민주주의가 침식당한 폐허》로 전락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처럼 남조선을 《민주주의의 황량한 무덤》으로 만들어놓고는 파렴치하게도 그것을 가리워보려고 이른바 《한국식민주주의》를 들고나와 그 무슨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이른바 《한국식민주주의》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부르죠아민주주의가 위선적으로 표방하고있는 《3권분립에 기초한 의회제민주주의》의 사소한 요소마저 깡그리 말살하고 모든 권력을 박정희역적놈에게 집중시킨 가장 포악한 파쑈독재일뿐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벌이는 《자유》란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소수특권계층들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억압착취할수 있는 《자유》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

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헐벗고 굶주릴수 있는 《자유》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한줌도 못되는 소수 특권계층에게 무제한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박정희《1인독재정권》을 부지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말살하는것이 바로 놈들이 떠벌이는 《한국식 민주주의》인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민주주의의 흔적도 없는 남조선사회제도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사회제도는 무엇보다도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횡포하게 유린말살하고있는 반동적인 사회제도이다.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이 정치적자주성을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사회정치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는것은 자주성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권리이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은 언제나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의 민주주의를 사활적인 요구로,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왔다.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의 민주주의는 파쑈독재와 량립될수 없다. 때문에 남조선괴뢰도당은 이 분야에서의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송두리채 짓밟고 있다.

남조선의 근로인민대중은 우선 정치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빼앗기고있다.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년령,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정당소속 등 여러가지 제한조건으로 하여 사실상 선거받을 권리와 선거할 권리를 완전히 빼앗기고있다. 이른바 《기탁금제》를 놓고보더라도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립후보자가 되려면 300만원의 《기탁금》을 괴뢰당국에 물어야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내고 립후보로 될수 있는자는 오직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뿐이다. 300만원이라는 돈은 한달에 2만원을 받는 로동자의 12년반분의 명목임금과 맞먹는 막대한 금액이다. 기아임금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로동자들이나 일반농민들의 경우 그러한 막대한 돈을 내고 립후보할수 없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또한 초보적인 사회정치활동을 위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사회정치활동을 위하여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에만 인민들은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롭게 말할수 있고 또 자기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수 있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러한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여러가지 파쑈적악법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는 실질적인 담보가 없는 한 무의미하다.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교활하게도 《유신헌법》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있는것처럼 떠들고있으나 그것은 빈말뿐이며 사실상 수많은 악법을 통하여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모조리 말살하고있다.

현실적으로 놈들은 《결사의 자유》를 떠벌이고있으나 《정당등록법》, 《사회단체등록법》 등 파쑈적악법들에 의하여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조직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로동자, 농민 등 근로대중의 정당, 사회단체는 합법적으로 활동할수 없다.

남조선에서의 《언론, 출판의 자유》 역시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인민대중은 그것을 위한 물질적수단을 빼앗기고있을뿐아니라 온갖 박해와 탄압

을 받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신문, 통신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 《출판 및 인쇄등록에 관한 법률》, 《전파관리법》 등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놓고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언론, 출판 기관들을 닥치는대로 탄압, 페간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합법적인 언론출판기관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반동적인 어용언론출판기관들만이 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인민대중이 가져야 할 응당한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완전히 짓밟고있다. 놈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조작하여 근로자들과 민주세력들이 조직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를 모조리 탄압하고있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은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송두리채 유린말살되고있는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의 페허로, 질식지대로 전변되고있다.

경제생활은 정치생활과 함께 민주주의가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경제생활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제도는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며 그렇지 못한 사회제도는 반동적인 사회제도이다.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사람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담보이다. 사람이 사회적인간으로서 완전한 자주성과 창조성을 누리자면 참다운 경제생활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근로대중이 요구하는 참다운 경제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것은 경제생활분야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오직 근로대중이 요구하는 참다운 경제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때에만 경제생활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얼마 안되는 지주, 자본가놈들은 잘먹고 잘살지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판자집과 오막살이에서 술막히는 생활을 하고있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일자리와 먹을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남조선사람들은 남조선사회에 대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라고 하면서 비난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73페지)

소수특권층이 더욱더 부유해지는 반면에 광범한 근로대중의 빈궁화가 날로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인 남조선사회에서는 경제생활분야에서도 민주주의를 전혀 찾아볼수 없다.

오늘 남조선사회에서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중요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와 생산의 결과가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리용되는것이 아니라 놈들의 침략전쟁정책과 저들의 향락을 위하여 탕진되고있다.

남조선의 식민지반봉건적인 사회경제제도는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그와 결탁한 한줌도 못되는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이 광범한 근로대중을 무제한 착취하고 략탈하며 막대한 재부를 축적할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보장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소수특권층들은 생산과 류통을 비롯한 경제생활전반을 틀어쥐고 더 많은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피눈이 되고있으며 날을 따라 더욱더 부유해지고있다.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 더러운 부정부패를 일삼아 많은 재부를 거머쥐고있는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은 극도에 달한 사치와 랑비, 부화방탕을 일삼고있는 반면에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일하고 배우며 병치료를 받을 권리를 잃고 실업과 굶주림, 무지와 질병으로 신음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경제생활에서 초보적인 민주주의도 보장받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의 극도의 경제적무권리와 비참한 처지는 민족경제의 파괴에 의한 대중적실업과 식민지기아임금,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와 각종 료금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식민지나라에서보다 더욱 우심하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외래독점자본과 그 앞잡이들의 2중3중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말할수 없는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있는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은 초보적인 안전시설마저 갖추어지지 않은 가장 나쁜 로동조건에서 하루 12~18시간 지어는 20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차례지는 로동의 대가는 최저생계비의 4분의 1~5분의 1도 안된다. 게다가 인플레에 따르는 물가등귀와 여러가지 명목의 세금부담 그리고 각종 료금의 인상도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끊임없이 떨구고 그들을 극도의 생활고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1년내내 등뼈가 휘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조차 변변히 하지 못하고있다. 농민들은 지주, 부농들과 통치배들에 의하여 50~60%이상의 높은 소작료와 40~50%의 금리를 짜내는 고리부채까지 강요당하고있으며 이루다 헤아릴수 없는 가지각색의 가렴잡세,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에 의한 《량곡매상》 등으로 깡그리 수탈당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초가을부터 식량이 떨어져서 시래기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는 형편이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인 남조선에서는 외래독점자본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압박과 수탈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가들과 소자산계급도 끊임없이 파산몰락하고있으며 그들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경제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는 반동적인 남조선사회제도가 빚어내고있는 악독한 후과이다.

남조선사회제도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이 정신문화의 창조자로서 응당 가져야 할 온갖 권리를 빼앗기고있는 반동적인 사회제도이다.

정신문화생활령역도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인류문화의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건전한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신문화생활에 대한 근로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적극 옹호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것은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사람들은 사회적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갖추어야만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또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건전한 정신문화적요구를 짓누르고 부패한 생활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반동통치배들의 지배에 순종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있다.

남조선에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과 그 자녀들은 초보적인 교육의 권리마저 빼앗기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식민지적이며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을 통하여 소수특권층에게는 배움의 특전을 주고있지만 광범한 근로인민들에게는 배움의 길을 가로막고있다. 놈들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는 학교에 갈 나이에 있는 어린이들가운데서 근 300만에 달하는 소년소녀들이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구두닦기, 부자집아이보개 등 갖은 고역에 시달리고있으며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선진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빼앗기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말살하고 퇴폐적인 부르죠아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 및 왜색, 왜풍을 퍼뜨림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건전한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있다.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이른바 《정신근대화》의 간판밑에 퍼뜨리고있는 썩어빠진 부르죠아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 왜색과 왜풍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주의, 살인과 강탈, 사기와 협잡, 극도의 색정과 부화방탕, 인간증오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것으로서 사람들의 건전한 리성을 좀먹고있으며 온갖 사회악을 낳게 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세기적인 패륜패덕이 온 남녘땅을 휩쓸고있다.

건전한 리성과 미풍량속이 마구 짓밟히고 패륜과 패덕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는것은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분야에서의 민주주의를 혹독하게 유린하고있는 남조선사회제도가 가져다준 필연적결과이며 날로 심화되고있는 이 사회제도의 파멸적위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사회제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흔적도 찾아볼수 없는 반동적인 사회제도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 *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떤 기만선전으로써도 민주주의의 활제한 무덤으로 되고있는 남조선사회제도의 반동적본질과 그것이 빚어내고있는 남조선사회의 추악한 현실을 가리울수 없으며 날로 커가는 인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힐수 없다.

참다운 민주주의,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사활적요구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는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인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파쑈적폭압이 심할수록 더욱 완강해지기 마련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원쑤놈들의 총칼탄압이 그처럼 가혹한 조건에서도 굴함없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으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의하여 오늘 《유신》파쑈독재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은 안팎으로 얻어맞고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파쑈독재가 결코 오래가는 법이 없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죽어가는 《유신》파쑈독재에 결정적타격을 가함으로써 그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쟁취하고야말것이다.

미제침략군의 완전철거는 조선문제 해결의 선결조건

김 관 섭

오늘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종식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미제는 30년이상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민족분렬의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있는 장본인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영구분렬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원흉이다.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은 미제의 계속되는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것은 통일문제해결의 선결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87페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공고화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의 본질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는데 있다.

조선인민은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만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민족적위업이다. 조선의 분렬이 바로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의해 생겨난것만큼 외세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줄수는 없는것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우리 인민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내정문제에 간섭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성에 대한 횡포한 유린행위이며 조선문제의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는 범죄적책동이다.

지난 30여년간의 민족분렬의 력사는 미제를 나라안에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결코 평온할수 없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정책을 끝장내는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우에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본성으로부터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는것을 본업으로 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일관하게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뿐아니라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이 강도적인 군사전략적목적으로부터 미제는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저히 예속시켰으며 남조선과 그 군사적잠재력을 저들의 전쟁정책수행에 적극 동원리용하여왔다.

미제는 이미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반대하고 전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에서 야만적인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는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후에도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침략과 전쟁 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여왔다.

특히 미제는 저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이 전면적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침략의 예봉을 더욱더 조선에 집중시키고있으며 날이 감에 따라 그것은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대한방위공약의 준수》를 거듭 확인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준비에 미쳐날뛰고있다.

미제는 이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전시체제》로 재편성하고 그 무력을 대폭 늘이였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과 각종 탄약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미제호전광들은 무력증강에 기초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새 전쟁 계획을 어며 짜놓았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쟁연습소동을 하늘과 땅, 바다에서 련이어 벌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남조선 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를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각종 살인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괴뢰들에게 수많이 넘겨주고 있다. 미제의 전쟁정책의 요구에 따라 남조선도처에는 비행장, 항만, 고속도로, 로케트기지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신설확장되였다.

미제는 미일《한》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을 조선침략을 위한 발진기지, 병참기지, 후방기지로 리용하며 일본《자위대》무력까지 조선전선에 동원하려 하고있다.

미제의 침략전쟁정책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은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되고 모든것이 전쟁정책에 복종되는 일대 병영으로 변하였으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륙무기들이 차넘치고있는 위험한 전쟁의 화약고로 되였다.

이러한 정세는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더욱더 큰 난관을 조성하고있으며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그대로 눌러있는 한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수 없으며 조선의 통일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수 없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 있다.

미제는 저들의 식민지적지배와 전쟁정책을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를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조작해놓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정권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남조선의 《정권》이라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내고 미제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하여 지탱되고있으며 그들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철저한 괴뢰정권이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을 뒤받침하고있는 무장장비도, 괴뢰들이 인민탄압에 쓰고있는 현대적인 폭압수단들도 다 미제가 제공한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국을 등대고 그들이 대주는 총칼을 휘두르면서 통일을 부르짖는 인민들을 마구 탄압하고있으며 저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수행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극악한 파쑈폭압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는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이라는 말만 하여도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고문과 처형을 당하고있는 참을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에서의 파쑈통치와 그로부터 초래되고있는 모든 비극적사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산물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미제는 전조선을 침략하려던 저들의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만이라도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계속 틀어쥐고있으려는데로부터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이것은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침략수법으로서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기어코 이루어보려는 강도적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미제는 당치도 않는 《교차승인론》이요, 《유엔동시가입론》이요 하는것을 내들고 조선의 분렬을 어떻게 하나 국제적으로 《합법화》된 기정사실로 만들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이렇게 하여 한강토, 한민족안에 서로 적대되는 두개 국가를 만들어놓음으로써 민족적분렬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결국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켜 저들의 흉악한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분렬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지난 30여년동안 겪어온 분렬의 고통보다 더 큰 재난을 가져다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오랜 력사를 두고 한강토에서 한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없이 지속시키려는 미제의 흉악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조선인민의 사활적인 리해관계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 민족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분렬의 장벽은 두터워지고 통일의 길에는 의연히 어려운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은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 자주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근원으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가로막는 질곡으로 되고있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그대로 두고서는 예속과 분렬, 전쟁의 비극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해서도,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철거시키며 우리 나라에 대한 놈들의 침략과 간섭을 끝장내는것은 이렇듯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미룰수 없는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할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념원과 민족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것으로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지침으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에게 영원한 불행을 강요하는 《두개 조선》조작음모와 같은 범죄적인 책동을 그만두고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에 응하여야 하며 저들의 《공약》을 실천을 통하여 리행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기는 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박정희파쑈악당은 천추에 씻을수 없는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이미 남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쓰레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감싸고 그를 무력으로 뒤받침하고 부추기는 너절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요구대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자기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하고 조선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민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과 요구를 무시하고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지속시키며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한다면 놈들은 보다 수치스러운 패배를 면치 못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가는 우리 인민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78년 제7호(루계 43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8년 7월 1일 발 행 • 1978년 7월 5일

ㄱ—85172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제8호 (43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우리는 멀지 않아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창건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30년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자랑,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공화국이 걸어온 30년의 빛나는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몸소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이 땅우에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지위를 끝없이 높이 올려세우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실로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처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에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보는 번영의 최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9월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인민은 날로 륭성번영하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끝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으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공화국의 기치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충성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

⁂ ⁂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인민이며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이다.

사람들이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적자존심과 자신심은 매우 귀중한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민족은 망할수 있지마는 민족적긍지와 승리의 신심을 가진 민족은 불패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148페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가려는 민족자주정신의 발현이다.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더욱 빛내여나가게 하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다.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의 운명과 전도에 대하여 책임지는 열렬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갈수 있다. 그러나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우수성과 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민족허무주의자, 사대주의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나라별로 진행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금처럼 국경이 있고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조건에서 결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잊어버릴수 없는것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은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해나갈수 있으며 국제주의적의무에도 충실할수 있다.

이렇듯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삶을 누리는 긍지높은 인민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영광스러운 조국을 가지고있는 영예와 자랑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이다.

조국은 사람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이며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모든것, 그들의 자주성과 존엄, 보람찬 생활과 희망찬 미래는 조국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발전력사는 자기의 참다운 조국을 가지지 못한 인민은 노예적굴종을 강요당하고 수난자의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으며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며 조국의 독립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조국의 귀중함을 느끼지만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욱 절절한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오래동안 봉건의 쇠사슬에 묶이워 갖은 압제와 천대속에서 신음하였고 더우기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으로 하여 오랜 기간 피눈물나는 민족수난의 력사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상가집개만도 못한 처지에 굴러떨어진 우리 인민은 온갖 민족적 탄압과 멸시를 받아왔으며 자유와 권리를 참혹하게 유린당하였다. 《조선인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잔인무도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중한 모든것,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아름다운 민족문화 지어는 자기 말과 이름까지 빼앗기면서도 그 어디에 하소할곳이 없던 이것이 바로 나라를 잃고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철쇄에 얽매여있던 지난날의 우리 인민의 처지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민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참다운 조국,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을 가진 영예와 긍지가 얼마나 크고 값높은것인가를 심장으로 느끼고있는것이다.

자기의 참다운 조국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인민으로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게 되였다.

자기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행복이며 자랑이다.

매개 나라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참다운 영예와 자랑은 단순히 자기 조국을 가지고있는데서만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그들이 어떤 사회제도에서 살며 일하는가 하는데 있다.

국가사회제도는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과 경제생활을 규정짓는 기초로 되며 따라서 그 국가가 인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

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제도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만이 근로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가장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이 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50페지)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착취사회에서는 그 제도의 반인민적 성격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고있으며 온갖 인격적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의 인격도 돈에 의하여 평가되며 돈없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전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백방으로 옹호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불멸의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사회주의락원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삶을 누리는 영예와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의 구현인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부강하고 위력한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칭송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있게 내달리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10~111페지)

공화국의 기치아래 지난 3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지난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창건된후 3분의 1세기가 되나마나한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부강하고 위력한 나라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는 전쟁의 폐허속에서 남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 이르는곳마다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중공업공장과 경공업공장들이 숲을 이루고있으며 여기에서 우리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기술, 자체의 원료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만들어내고있다.

공업과 함께 농촌경리에서도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다.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질곡속에서 황폐화되였던 우리 나라 농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와 주체농법이 빛나게 관철되여 전야마다에 관개수가 흘러

넘치고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발전된 농촌으로, 그 어떤 이상기후현상의 영향하에서도 끄떡없이 만풍년의 로적가리를 높이 쌓아올리는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고있다.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며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걱정, 일자리걱정, 병치료할 걱정을 모르고 누구나 다 희망과 포부와 앞날에 대한 밝은 전망을 안고 혁명적 정열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모습이며 자랑찬 현실이다.

하기에 멀리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한 벗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인 변혁을 두고 조선에 와보지 않고서는 세계를 보았다고 말할수 없다고 감탄하였다.

참으로 지난 30년동안 우리 나라는 조상들이 한갖 꿈으로만 그려보던 그러한 리상사회가 현실로 전변된 사회주의락원으로 되였으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주체조선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시대의 앞장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지름길을 개척해나가는 긍지와 자랑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는것이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을 가진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최대의 영예와 행복과 잇닿아있다.

매개 나라 인민이 가지고있는 모든 우수한것, 조국과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영예와 자랑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의 모든 우수한것을 빛내일수 있으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다.

탁월한 수령을 모신 인민은 민족수난의 시기에도 오직 수령을 우러러 힘을 얻고 거창한 건설시기에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한다. 따라서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탁월한 수령을 모신 영예와 긍지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승리와 영광의 새시대를 빛내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인민이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자주적인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울수 있으며 민족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랜 세월 나라없는 설음을 안고 학대와 멸시 속에 모대기던 우리 인민은 유구한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모심으로써 조국의 광복과 민족재생의 새날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국을 광복하시였으며 해방후 중중첩첩으로 가로놓인 모든 난관과 시련을 한몸으로 헤치시고 공화국창건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치렬한 계급투쟁과 준엄한 전쟁, 장엄한 건설투쟁 속에서 우리 공화국을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공화국을 이끄시여 지난날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가장 빛나게 수행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창조하심으로써 나라와 민족

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칠수 있게 하시였다. 참으로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서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지난날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정치밖에서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오던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해발아래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났으며 새 세계를 앞장에서 창조해나가는 력사의 주인으로 되였다. 참으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예가 이처럼 빛나고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오늘처럼 높아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 땅우에 뿌리를 내리고있는 귀중하고 빛나는 모든것은 그 어느것이나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조국과 더불어 빛나는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만 련결시켜 부르고있으며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과 인류해방 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과 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시대의 앞길과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혁명의 영재》, 《인류해방의 구성》으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고 열렬히 흠모하는것은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되고있으며 하나의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계인사들과 외국의 벗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령님을 만나뵈옵기 위하여 대륙과 대양을 건너 우리 나라에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이것은 유구한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사변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 주체의 조국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과 더욱더 희망찬 래일이 있고 세계에 소리높이 자랑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공화국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가는 숭고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품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며 공화국공민의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조국과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길에서만이 더욱 깊이 간직되고 빛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몸소 창건하시고 이끄시여 이 땅우에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지니고 어버이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

며 일하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의리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혁명적신념으로 만들고 수령님의 교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가장 숭고한 충성심을 지니고 일하며 생활해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모진 바람이 휘몰아쳐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고 철저히 옹호보위하는것은 민족적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놓은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6페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마련된 공화국정권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끝없는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당면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높이 받들고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새로운 전망계획은 우리 조국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륭성과 번영의 설계도이며 위대한 진보와 비약의 리정표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려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과업 수행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공화국창건 30돐을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화국창건 30돐을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100일전투》를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지난 30년동안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이룩해놓은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알아야 생산을 더 잘 지도할수 있다

지금 온 나라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받들고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벅찬 투쟁으로 들끓고있다.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날에날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흐뭇하게 하고 흥분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빨리 추진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속에서 과학기술지식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킴으로써 그들의 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4페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것과 함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의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바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을 통하여 집행된다. 따라서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얼마나 깊이있게 철저히 관철되며 혁명과 건설이 얼마나 빨리 추진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의 운전대를 잡고있는 지도일군들이 어떻게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실무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의 실무적자질과 과학기술수준이 높아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심도있게 풀어나갈수 있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기술혁명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에 살고있다. 현대적과학기술은 물질적부를 끝없이 증대시킬수 있는 거대한 가능성과 무진장한 생산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그 거대한 힘을 옳게 리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비상히 빨리 다그치고 기적에 기적을 창조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더욱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전례없이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공업의 규모는 비상히 커지고 그 부문내부구조가 더욱 강화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공업은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발전된 자립적인 대공업으로 자라났다. 농촌경리도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우리의 농촌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이처럼 빨리 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

회주의경제는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에게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과 과학기술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생산공정이 기술공정으로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군들이 과학기술지식을 모르고서는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할수 없고 사회주의의 대생산을 정확히 지도할수 없다.

경험이나 열성 하나만 가지고도 일할수 있었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주관적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발전된 공업과 농업을 지도할수 없으며 모든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전개해나갈수 없다. 이제는 일군들이 현대적과학기술지식과 높은 실무적자질을 가지지 않고서는 더는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되였다.

우리 인민경제가 방대한 규모로 커졌고 모든 부문이 그 어느때 보다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여 있는 조건에서 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어떤 어렵고 복잡한 경제과업도 거침없이 능숙하게 해제낄수 있는 실무적자질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현대적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오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8페지)

우리가 수행하는 새 7개년계획은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체화의 계획이며 경제를 고도로 현대화하고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기술혁명의 계획, 과학혁명의 계획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국내자원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더욱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자립적체계를 더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술혁명을 심화발전시켜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원격조종화를 널리 받아들이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함으로써 전반적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 또한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우고 과학발전에 큰 힘을 넣어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현대적과학의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사회주의자립경제는 기술장비에서나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서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보다 헐하고 흥겹게 일하면서 더욱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방대한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자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더 많이 찾아내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보다 튼튼히 꾸리고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 경제를 주체성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더욱 완비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전반적인민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비상히 높은 목표와 빠른 발전속도를 예견하는 새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

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이 웅대한 사업을 앞장에서 조직하고 지휘하여야 할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과학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일군들이 자기의 정치실무적자질과 과학기술지식을 높이지 않고서는 자기들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로운 과업을 옳게 수행할수 없으며 새 전망계획의 어느 한 고지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처하여있고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총진군하고있는 지금 일군들이 자신의 실무적자질과 과학기술지식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가 높이지 않는가 하는것은 실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이다.

참으로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일군들이 놀아야 할 역할은 자못 크며 그들의 책임은 그 어느때보다도 무겁다.

모든 일군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실무적자질과 과학기술지식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당의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일군들이 깊은 과학기술지식과 자질을 소유하여야 경제사업을 심도있게 전개해나갈수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받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운전대를 잡은 지휘성원으로 된 영예와 책임을 깊이 간직하고 과학기술지식수준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높은 정치적열의와 함께 실무적자질을 가진 능력있는 일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과학기술지식 특히 자기 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공업부문일군들은 자기가 맡은 부문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옳게 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능력이 없고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현대적공업생산을 지도할수 없으며 사업에서 발언권이 서지 않고 당의 신임과 기대에 옳게 보답할수 없다.

공장지도일군들은 언제나 자기 공장의 설비와 능력, 모든 생산기술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에 밝아야 생산을 지도하여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잘 지도할수 있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정형을 분석하여도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옳바른 대책을 세워나갈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의 상태와 기술수준, 원료와 자재, 로력, 자금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생산을 빈틈없이 맞물리자고 해도 일군들이 과학기술을 잘 알아야 한다. 로동생산능률, 원가, 리윤 등 질적지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문제도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옳게 풀어나갈수 없다.

당일군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정책을 깊이 알뿐아니라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높은 정책적안목과 실무적자질을 가지고 맡겨진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갈수 있다. 전기와 석탄을 비롯한 동력과 원료, 자재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일군들이 일반적으로 강조하는것보다 과학기술을 알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때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을 모르면 기술신비주의와 보수주의, 경험주의에 사로잡혀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힘있게 밀고나가지 못할뿐아니라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대담하게 혁신하고 전진하려는 근로자들의 투쟁을 옳게 떠밀어줄수 없다.

농업부문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농법을 잘 알아야 한다. 농작물재배학, 농기계학, 비료학을 비롯한 농업기술지식을 알아야 하며 농작물의 생육조건과 생육기간, 자기 지방의 지대적특성과 기상기후적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일군들이 이렇게 농업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문제에 밝아야 오늘 한랭전선과 이상기후현상의 영향이 심한 조건에서도 그것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농업생산에서 계속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에 민감하여야 한다.

오늘 현대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가 개척되고 과학연구성과들이 널리 도입됨으로써 생산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밝아야 현대과학기술이 도달한 최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게 되며 자기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통보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시야와 지식을 넓혀나가며 선진기술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일군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혁명적학풍을 튼튼히 세우고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모든 간부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9페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학풍을 세우는것은 그들의 과학기술지식과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깊은 과학기술지식과 능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군들은 오직 정력적이며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만 자신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높은 자질을 쌓아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고 꾸준히 학습하지 않고서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갈수 없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시간을 짜내여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야 한다. 간부들에게는 학습할 시간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간부들은 시간을 조직할줄 알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리용할줄 아는 일군이 바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내달리는 오늘의 현실이 요구하는 지도일군이다. 일군들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겠는가에 대하여 항상 머리를 쓰며 짬만 있으면 인십히 학습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비상한 각오와 남다른 노력, 불타는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달라붙어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과학기술지식과 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엄혹한 난관과 시련이 무시로 앞을 막아나서는 그 간고한 조건에서도 비록 끼니는 건늘지언정 학습을 중단하는 일은 없었으며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학습하였다. 그

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군사기술지식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군사기술을 소유한 강의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였다.

우리 일군들은 지난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분초를 아껴가면서 진지하게 파고들어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과학기술지식과 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일군들은 그 어떤 어려운 혁명임무도 막히는데가 없이 척척 풀어나가는 훌륭한 자질을 소유한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될수 있다.

일군들은 자체학습을 실속있게 꾸준히 하는것과 함께 정규적인 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과학기술지식을 높이기 위한 실무학습과 기술학습, 과학기술강연과 기술협의회 등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배워야 한다. 일군들은 과학기술토론회를 자주 조직하고 실속있게 운영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과학기술지식을 넓히고 기술집단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며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더 잘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습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속에서 학습에 대한 관점을 똑똑히 세우며 그들이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조직운영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학습이 그들의 실지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 내용과 학습방법을 개선하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생산과 건설이 들끓는 현실은 일군들이 과학기술지식을 배우고 자질을 높여나갈수 있는 좋은 배움터이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생산현장에 침투하여 과학자, 기술자들, 생산자대중과 함께 일하면서 실천과정을 통하여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넓혀나가야 한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직접 기대옆에서 기대를 다루면서 하나하나 익히고 배우는것이 머리에도 잘 들어가고 더 생동한 지식으로 체득된다.

공장지도일군들은 직장과 작업반에 내려가야 로동자들의 창발적의견을 더 많이 들을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과학기술지식을 넓힐수 있으며 공장의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적문제들을 깊이 파악할수 있다.

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도서들과 과학기술자료들을 더 잘 출판하여 널리 보급하는것이 필요하다.

출판기관들은 사회주의건설에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도서들과 과학기술자료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알기 쉽게 만들어냄으로써 일군들의 과학기술학습에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과학기술학습을 근기있게 정력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을 능력있는 지휘관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매우 크며 그들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는 실로 무겁고도 영예롭다.

모든 일군들은 높은 정책적안목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100일전투》를 계속 줄기차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과 초소마다에서 맡겨진 생산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큰 비약과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주체의 기치밑에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발표 35돐에 즈음하여—

우 달 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발표 35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눈앞에 가까와오던 1943년 9월 15일,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 앞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력사적연설은 조선의 혁명가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실 당시 우리 나라의 정세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급변하고있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적밑에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한 독일, 일본, 이딸리아 등 파쑈국가들은 이 시기에 이르러 패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내리막길로 줄달음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발악적인 공세를 감행하고있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령활하게 활동하면서 일제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었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에 고무된 조선인민은 일제의 폭압이 최고절정에 이른 어려운 조건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식민지통치는 무너져가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은 눈앞에 다가오고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혁명군을 군사기술적으로뿐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강화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전민족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총동원할수 있도록 준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에서 조성된 정세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는 탁월한 사상과 전략전술을 천명하심으로써 당시 우리 혁명앞에 제기된 근본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눈앞에 둔 력사적시기에 발표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은 오늘도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조선혁명의 주체를 철저히 세

워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밝혀준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나라 혁명의 국제적환경이 유리하게 전변되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가까와오고있는 변천된 새로운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조선혁명가들에게 조선에 대한 학습을 잘하며 광복된 조국에서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유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 조국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박두하고있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알아야 애국자,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잘할수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63페지)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은 무엇보다 주체확립의 본질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조선을 잘 알아야 진정한 조선의 애국자로 될수 있고 조국을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할수 있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어떤 다른 나라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으며 조선혁명이야말로 조선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혁명임무이다. 국경이 있고 혁명이 나라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결코 자기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는 혁명이란 생각할수 없다. 매개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자기 조국과 민족,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을 옳게 수행하는것이 그들이 지닌 민족적의무인 동시에 국제적의무이다. 결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떠난 그 어떤 추상화된 혁명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직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알 때만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각오를 높일수 있으며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다.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알아야만 모든것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고 혁명투쟁에서 자주적인 립장과 독자적인 주견을 세울수 있다.

실로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조선혁명의 주체를 세우고 조선혁명가들로 하여금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은 또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민족적재부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가르치시였다.

약소민족을 침략하여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민족말살정책과 민족동화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첫날부터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적인것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말살하는것은 물론 《동조동근》이요, 《내선일체》요 하면서 민족동화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을뿐아니라 지어 조선사람의 이름까지 빼앗아갔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인 공산주의자들앞에는 생사존망

의 길에 놓여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의 우수한 모든것을 철저히 지켜내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나섰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을 짓부셔버리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민족적재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를 잘 알아야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말살하고 조선을 영영 없애버리려고 발광하고있는 당시에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은 이처럼 조선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로작에서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지리, 찬란한 문화전통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 최종목적은 조국을 부강하게 건설하고 인민들을 유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려는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은 누가 건설합니까? 그것도 우리들자신이 건설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72페지)

조선혁명가들이 혁명을 하는 목적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광복된 조국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는데 있다.

조국광복의 혁명적대사변이 가까와오고있는 당시의 정세는 조선혁명가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에 대한 학습과 함께 광복된 조국에서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유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광복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있는것만큼 새 조국 건설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없으며 조선혁명을 잘할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자연과 지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도덕과 풍습 등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가들이 조선에 대한 학습을 잘해야 한다고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에는 조선혁명의 주체를 철저히 세워 조국광복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장차 나라가 해방된 다음 우리 인민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남먼저 공산주의락원을 이 땅우에 훌륭히 일떠세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전인민적항전으로 조국광복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당면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자체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민족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총동원될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79페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강화하고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조직결속하는것은 민족해방의 최후결전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적극 벌려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을 통일전선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워 일제와의 최후결전에로 조직동원할수 있도록 그 준비를 다그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더 많이 국내에 파견하여 각지에 반일민족통일전선하부조직을 결성하고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종교인 등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국내에 강력한 조직적거점으로서의 혁명근거지를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확대강화하고 국내에 강력한 혁명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방침은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 각계각층의 동향과 처지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제시하신 가장 현명한 방침이며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리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이 방침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에 결속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앞으로 조국해방의 결정적시기가 도래할 때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과 이에 전인민적항전을 결합시켜 일제를 최종적으로 멸망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주동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전체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은 군사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그에 담겨져있는 내용의 심오성과 위대성으로 하여 우리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당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 위력한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를 깊이 학습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민족적긍지 그리고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더욱 배양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69페지)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는 자기 민족의 우월감으로부터 출발하는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이다.

자기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신심이 없고 자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다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란 있을수 없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이 없으면 가련하고 비굴한 민족허무주의자로, 사대주의자로 전락된다. 그러므로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 혁명적자부심을 높이 간직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며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따라서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 혁명적자부심은 혁명하는 인민들의 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그것을 가지고있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 창조의 력사를 잘 알게 하는것은 조선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로작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조선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와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잘 알게 됨으로써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온 겨레가 행복하게 살 그날을 그려보면서 광복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실로 로작은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에게 있어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또한 조국광복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며 해방후 새 조국 건설에서 중요한 한몫을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조선혁명가들을 튼튼히 준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투쟁강령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들을 심장에 새기고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었으며 해방후 당,국가 및 무력건설의 골간부대로 믿음직하게 준비될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로작에서 불패의 힘과 신심을 얻었으며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어떤 세찬 풍랑도 이겨내며 힘차게 싸워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들과 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대중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갔다. 또한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배합하고 공격 및 방어 전술을 비롯하여 상륙전술, 항공륙전대전술 등 현대적군사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전술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뿐만아니라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전체 조국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억센 투지,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안겨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을 강도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최후결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투쟁의 홰불로 되였다.

당시 국내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령활한 군사정치활동에 고무되면서 폭동준비와 함께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것은 주체적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기간의 혁명투쟁행정에서 예견성있게 튼튼히 꾸리신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조국의 광복이 이룩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무르익히신 새 조국 건설의 원대한 구상은 해방후 이 땅우에 빛나게 실현되였다.

지난날 강도 일제의 발굽밑에 짓밟혀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오늘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의 결정적승리와 조국의 해방, 이 땅우에 일어난 세기적인 변혁,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 조선을 잘 알아야 조선혁명을 할수 있다는 위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자기 조국을 해방하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준 투쟁의 교과서이다.

로작은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자기 조국을 알아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혁명가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을 자주적립장에서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혁명적대사변은 반드시 주동적으로 맞이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서는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민족해방투쟁의 결정적승리를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명시하여주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참다운 혁명가가 지녀야 할 옳은 립장과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정확한 원칙을 가르쳐줌으로써 자기것을 깔보고 남만 쳐다보는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 등 온갖 반혁명사상에 결정적타격을 준 혁명적문헌이다. 로작은 국제파시즘의 돌격대의 하나인 일본제국주의의 침략무력을 승리적으로 격멸할수 있는 전략전술을 밝혀주므로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세계혁명운동의 강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문헌이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로 조선혁명의 승리의 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투쟁의 기치이며 모든 나라 혁명가들에게 참다운 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준 혁명의 교과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오늘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 그리고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발표 35돐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정치사상적 및 물질적 준비를 더욱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힌 주체의 교육사상

김 일 대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공화국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100일전투》로 들끓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우리는 오래지 않아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한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이날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들과 교육부문일군들은 교육테제를 더 잘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을 더욱 빛내여나갈 굳은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켜오신 주체적인 교육사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력사적인 문헌이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총서이다.

력사적인 교육테제는 인간개조에 관한 위대하고 독창적인 사상과 심오하고 풍부한 리론이 집대성되여있는것으로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교육대강으로, 사람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교육테제 전반에 구현되여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교육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더욱 빛나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교육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밝혀주시였다.

교육사업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고 민족간부를 길러내는 책임적인 사업이며 혁명의 전도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09페지)

자라나는 후대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앞날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아무리 좋은 사회제도를 세워놓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받을 새세대들을 옳게 교육교양하지 않는다면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없는것은 물론 이미 이룩해놓은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릴수 있다. 또한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민족간부를 길러내지 않고서는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으며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나라의 륭성번영과 민족의 장래발전도,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건설도 결국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어떻게 길러내며 후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의

를 가지는 교육문제를 옳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교육사상과 과학적인 교육리론이 있어야 하며 교육사업이 이에 따라 진행되고 지도되여야 한다. 혁명적인 교육사상과 과학적인 교육리론에 의하여 진행되어야만 교육이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울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는것은 이미 로동계급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혁명투쟁에 나선 때로부터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로 되였다. 더우기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혁명의 계승자문제가 첨예하게 나선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과 건설을 떠메고나가야 할 미래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 혁명적교육리론, 사회주의교육리론을 창시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다.

시대와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이 절박한 문제는 오직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교육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사회발전과 인간개조에서 교육이 노는 역할을 심오하게 통찰하시고 어떠한 기존리론이나 경험에도 구애되심이 없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혁명이 심화되고 사회가 전진하는데 따라 그를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위대한 주체의 교육학설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구현하여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혁명인재육성의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이 이루어졌다.》(우와 같은 문헌, 43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후대교육사업을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꾸리는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하시고 카륜과 고유수, 오가자 등 이르는곳마다에서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적교육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는 아동단학교들을 세우시고 소년중대를 친히 무으시여 새세대들을 혁명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우시였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모든 교육과 구별되는 새로운 혁명적교육, 주체교육의 귀중한 경험이 창조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 사상과 리론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에 깊은 력사적뿌리를 두고있으며 여기에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혁명인재육성의 고귀한 경험과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등 각이한 혁명단계에서 교육문제를 빛나게 해결해나가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업적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인 교육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에 관한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인류교육사의 년대기우에는 주체교육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사회주의교육 사상과 리론의 창시, 이것은 로동계급의 교육리론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전환이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참답게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공산주의적교육의 새기원이 시작된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리론은 교육사업의 혁

명적본질로부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제도와 교육조건,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당의 령도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관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준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교육리론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완성된 주체의 인간개조학설이다.

주체의 교육사상에는 무엇보다먼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철학적해명에 토대하여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와 자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교육에 대한 관점의 기초로 되며 교육사상과 리론의 출발점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관이 나오게 되며 교육의 목적과 사명, 내용과 방법 등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종래의 낡은 교육관으로부터 사람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주체의 교육관을 세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 체계정연한 학설로 전환되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육사상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해답을 주는 완성된 주체의 인간개조학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우와 같은 문헌, 410~411폐지)

자주성과 창조성은 공산주의적혁명인재의 본질적징표이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담보해주는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워나간다. 따라서 교육은 사람들에게 주인의 지위를 지킬수 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주인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것으로 되여야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교육테제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요구와 혁명의 원리, 인간개조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밝혀진것으로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워나갈수 있게 하는 교육의 근본방향을 가르쳐준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할데 대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교육사업의 총적방향으로 확고히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그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있다.

교육리론을 혁명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결부시켜 전개하고 교육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복무시킨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리론의 독창성이 있으며 혁명성과 과학성이 있다.

공산주의혁명사상과 깊은 지식, 건장한 체력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의 필수적자질이다. 사람들은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되여야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

회의 개조변혁에서 무궁한 창조적능력을 발양해나갈수 있는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그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의 원칙에 대해서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해나가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자기 수령과 자기 당에 대한 태도에서 발현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교육이 참다운 주체적인 교육으로 되자면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살며 활동하는 산 인간을 키우는 창조적사업으로 되여야 하며 자기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인재를 길러내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에서는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근본원칙으로 제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교수교양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기 수령과 자기 당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게 한다.

또한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서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을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순수 리론을 위한 리론, 지식을 위한 지식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로 키울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체제에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의 원칙은 교수교양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게 하고 교육사업을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복무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담보를 마련해준 확고한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사상에는 사회주의교육의.내용에 관한 창조적해명이 주어져있다.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제는 교육을 통하여 키워내야 할 사람들의 풍모와 자질의 내용과 그것을 갖추기 위한 교육교양의 형태를 규정하고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문제인것만큼 교육내용을 옳게 구성하여야 혁명인재를 제대로 키워낼수 있으며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로부터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마땅히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밀고나간데 대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을 천명하시였다. 이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위력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인간의 창조적능력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이 안받침될 때 실천활동에서 옳게 발현될수 있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겸비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

따라서 정치사상교양에 선차성을 부여하면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옳게 배합하여야만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서의 높은 정치사상적풍모와 리론실천적자질을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목표인 사상적요새점령을 앞당기고 물질적요새점령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 사상과 리론은

주체의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 교육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가장 높은 단계에로 완성하였다.

공산주의적혁명인재가 가져야 할 사상과 지식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에 의해서만 옳게 전수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진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등 사회주의교육의 방법들은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키워주고 교육교양의 모든 문제를 인식의 주체인 사람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여 풀어나가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주체의 교육방법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교육방법이 가장 높은 단계에로 완성되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전환이 이룩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반적의무교육제도와 전반적무료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와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창설과 그 완성의 합법칙성,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관한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제도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 그것을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전망적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고등의무교육에 관한 사상이 밝혀지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이 제시됨으로써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의 새로운 내용이 해명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보다 뚜렷한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교육테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사업을 일정한 년령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주체적인 교육을 받을수 있는 전민교육, 지속교육의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방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교육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전사회적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비상히 다그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사상이야말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리와 방법들을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전혀 새롭게 해명한 독창적인 사상이라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교육의 원리와 원칙, 내용과 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그에 의하여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사상정신적풍모로, 리론실천적자질로 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가장 정확한 길을 명시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교육리론이 선행한 로동계급의 교육리론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이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집대성하신 교육사상은 교육에 관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는 주체의 인간개조학설이며 교육의 원리와 원칙, 내용과 방법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가장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완

성된 위대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다.

하기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한결같이 교육테제를 《참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사회주의교육강령》, 《인간육성, 인간개조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철학적해명을 준 백과전서적인 주체의 위대한 교육강령》으로 높이 찬양하면서 그것을 적극 따라배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힌 주체적인 교육 사상과 리론은 우리 나라 교육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 그 위대성과 정당성, 무궁무진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옳바른 교육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우와 같은 문헌, 41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옳은 교육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적밑천이 튼튼하고 생활이 넉넉해야 교육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꽃피울수 있다는 종래의 낡은 관념을 배격하시고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를 상정하시고 새 사회 건설을 문맹퇴치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였으며 모든것이 불타고 페허로 된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도 학교와 유치원을 먼저 일떠세우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는 해방직후의 어려운 때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을 세우고 자체의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터전을 튼튼히 마련해놓을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복구건설에 이바지할 기술인재들을 예견성있게 키워낼수 있었다.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의 실시에 뒤이어 짧은 기간에 보통교육단계의 의무화를 실현하였으며 아직 세계교육사가 알지 못하는 고등의무교육을 일정에 제기할수 있은것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 결과에 이룩된 자랑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교육사업을 언제나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으로 전환시키시고 여기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으시고 군중을 동원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시는것을 혁명적령도의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이름없는 한 농촌학교를 찾으시고 지덕체교육의 밝은 앞길을 가르치시면서 나라의 주인된 인민들의 힘을 합쳐 곳곳에 학교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와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시기에 시련된 령도로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여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종합적민족간부양성의 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교육사업에

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시여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휘황한 강령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 사상과 리론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업에 훌륭히 구현되여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나타내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마음껏 배우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워낼수 있게 하는 실제적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에 뒤이어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였으며 1972년부터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새세대들은 누구나 다 국가의 혜택에 의하여 어려서부터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고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가 세워짐으로써 해방전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던 이 땅우에 오늘은 150여개의 대학과 수많은 고등전문학교들이 일떠서고 이를 통하여 이미 100여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나 국가, 경제, 과학문화 기관들,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장과 기업소 및 협동농장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근로자들도 모두다 중학교졸업정도 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교육 사상과 리론의 거대한 생활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가 철저히 구현되여 우리 교육이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으로 되게 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교수교양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서게 되였으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개선되여 교육의 과학리론수준도 더욱 높아졌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국가의 혜택으로 전민이 학습하는《교육의 나라》,《배움의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의 교육은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억세게 키워나가는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교육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학설이 집대성되여있는 교육테제에서 밝혀진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혁명적인 방침들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이다

김 히 준

오늘 우리 음악예술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찬란히 꽃피여나고 있다. 음악예술중에서도 빨리 발전한 가요음악은 우리 인민들에게 끝없는 희망과 열정, 생기와 혁명적랑만을 안겨주며 인민대중을 투쟁과 승리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우리의 음악예술이 오늘처럼 근로자들속에서 열렬한 사랑을 받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예술로 개화발전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를 구현한 우리 당의 명곡창작방침이 가져온 자랑찬 열매이다.

우리 당은 주체적인 음악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요음악이 가지는 의의를 천명하고 당정책을 반영한 우수한 노래들을 많이 창작보급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명곡창작방침에는 명곡의 본질과 명곡창작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와 방도등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우리 당은 노래를 창작하는데 있어서 인민대중이 부르지 않는, 노래를 위한 노래를 《100곡집》, 《1000곡집》에 내는것과 같은 안일한 창작태도를 극복하고 한곡을 만들어도 인민대중이 즐겨부를 명곡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명곡창작방침은 명곡이란 당해시기에는 인민대중에게 잘 불리워지지 않고 접수되지 않지만 먼 후날에 가서야 그 가치가 규정된다는 반인민적문예리론에 타격을 주고 우리 창작가들로 하여금 우수한 명곡을 많이 창작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준 혁명적인 방침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명곡창작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우리 작곡가들이 당의 명곡창작방침을 높이 받들고 창작한 수많은 명곡들을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로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1

노래는 인민대중을 위해서 만드는것이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고 까다로와 부르기 힘든 노래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으며 따라서 오래 전해질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한곡의 노래를 지어도 우리 인민의 사상과 생활 감정에 맞게 지어야 하며 인민들이 부르기 쉽게 지어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고 부르기 좋아하는 조선식노래를 지어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405페지)

노래는 인민들에게 쉽게 리해되고 인민대중이 자기의 사상과 생활 감정으로 받아들여 언제나 즐겨부를수 있게 되여야 한다. 그러한 노래라야 고상한 사상이 아름답고 건전한 정서와 융합되여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시대의 목소리, 혁명의 노래로 될수 있다.

예술성이 높은 노래를 짓는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이 알아들을수 없게 선률을 꼬며 쓸데없이 올렸다내렸다 하거나 높이 지르게 하는것은 노래를 위한 노래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우리 인민은 원래 유순하고 은근한 노래를 좋아하며 번잡하고 까다롭거나 견치레를 하면서 멋부리는 노래는 좋아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고 부르기 좋아하는 조선식노래를 지을데 대한 사상은 우리 당이 제시한 명곡창작방침에 빛나게 구현되여 창작실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

내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이라고 밝히고있다.

명곡의 본질을 밝혀준 이 정식화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우며 총명한것은 인민대중이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아름답고 진보적인 정신문화적재부를 창조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음악예술도 마땅히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그들의 사상과 생활 감정에 맞아야 한다.

노래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감정에 맞아야 인민대중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며 그들의 기억속에 오래 남아있을수 있으며 명곡으로 될수 있다.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이라는 정식화는 이처럼 모든것을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 명곡의 본질에 관한 사상은 또한 음악예술의 본성적요구와 그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음악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의 주의를 끄는데서 매우 큰 힘을 가지고있다. 정서의 예술인 음악은 생동한 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감정세계에 깊이 파고드는 힘을 가지고있다. 음악예술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정서적감화력은 현실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그의 고유한 특성으로 된다.

음악과 노래는 사상이 깊고 감정이 강렬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을수 있고 그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줄수 있다. 아무리 아름답고 유순한 선률로 곡을 짓는다고 하여도 거기에 의의있는 사상이 담겨져있지 않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서적힘이 없다면 널리 불리워질수 없다. 음악형상의 가치는 거기에 담겨진 고상한 사상이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 뜨거운 열정과 융합되여있는데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수많은 혁명가요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투쟁의 노래로 불리워지고있다. 《혁명가》를 부르면 힘이 솟고 용기가 나며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의 원곡인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부르면 아름답고 고상한 지향으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우게 된다. 이러한 노래들은 들을수록 더 듣고싶고 부를수록 또 부르고싶어진다. 이것은 훌륭한 노래가 가지고있는 정서적감화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이라는 사상은 이렇듯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작용하는 음악예술의 특성에 대한 가장 올바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정당한 사상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히고있는 명곡의 본질에 관한 사상은 또한 혁명적음악예술의 사명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문학예술의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59페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그들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적음악예술이 지닌 숭고한 사명이며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의 노래들은 고상한 사상적내용으로 일관시키며 민족적특성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만드는것도 결국은 사회주의적음악예술이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노래는 인민들이 자기의 사상과 감정으로 받아들

이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즐겨부르며 거기에서 생활의 랑만과 기쁨을 찾고 투쟁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가도록 사람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래라야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는 명곡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명곡의 본질이 가장 정당하게 해명됨으로써 인민대중이야 알아듣건말건 전문가들이나 알수 있는 소위 고상한 노래를 추구하던 종래의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경향을 완전히 극복하고 우리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는 아름답고 고상한 음악예술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주체적 립장과 관점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또한 명곡의 본질이 밝혀짐으로써 음악창작가들이 노래창작에서 옳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 명곡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정력과 창조적재능을 다 바칠수 있는 확고한 사상리론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2

주체적문예리론은 명곡의 본질을 밝혔을뿐아니라 명곡창작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와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주고있다.

명곡을 지으려면 무엇보다먼저 가사를 잘 써야 한다. 가사는 곡의 사상예술적기초이다. 명가사가 나와야 명곡이 나올수 있다.

명가사의 특징은 내용이 풍부하고 뜻이 깊으면서도 간결하고 세련된 시로 되여있는데 있다. 그러므로 가사가 명가사로 되여야 노래의 사상적내용을 보장할수 있고 사상성과 예술성의 완벽한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명가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사가 시적이면서 사상적내용이 풍부하여야 한다. 한줄로 련결하여놓으면 산문문장과 같은 그러한 가사를 가지고서는 좋은 곡을 만들수 없다. 가사는 어디까지나 시적운률에 기초하여 시화되여야 하며 한두줄의 시행속에도 깊은 뜻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큰 사상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명가사가 되려면 사상적내용이 좋아야 할뿐아니라 예술성이 높아야 한다. 아무리 사상적내용이 훌륭하다 하여도 높은 예술성으로 안받침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수 없다. 그러므로 가사는 많은것을 생각할수 있도록 철학적깊이가 있고 정서적으로 되여야 한다.

명가사에 맞게 곡을 아름답고 유순하게 붙이는것은 명곡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사람들은 노래와 춤은 우아하고 점잖은것을 좋아하며 말투는 부드럽고 겸손한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예술을 창조하는데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민족적감정, 우리 인민의 우수한 재능이 잘 반영되여있는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530페지)

절가로 된 가사에 맞게 곡을 아름답고 유순하게 하는것은 가사와 곡의 사상정서적통일을 보장하며 민족적특성과 인민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민족음악의 고유한 특색은 우아하고 소박하며 아름답고 굴곡이 심하지 않는것이다. 우리 민족음악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야 우리 인민의 사상과 생활감정에 맞는 노래를 지을수 있다.

절가로 된 가사에 맞게 곡을 아름답고 유순하게 하자면 가사와 곡이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고 통일되여야 한다. 가사와 곡을 밀착시켜야만 시어들과 노래의 선률이 잘 조화될뿐아니라 노래전반을 통하여 가사와 곡의 사상정서적통일이 이루어져 훌륭한 명곡을 창작할수 있다.

가사와 곡을 밀착시키며 곡을 아름답고 유순하게 붙이기 위하여서는 선률에서 높이 지르거나 오르내림을 심하게

하면 안된다. 선률이 오르내림이 심하고 꼬부랑거리면 노래가 순하고 부드러운 맛이 없어지고 경박한 감을 준다. 이러한 노래는 인민들이 부르기 힘들어할뿐아니라 또 사실상 좋아하지도 않는다.

노래는 선률이 언제나 펴이고 순하게 되여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가사와 곡의 정서적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속성도 보장되여 인민들이 즐겨부를수 있다.

가사와 선률을 밀착시키고 곡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선률에 가사붙임을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의 노래를 부르기 쉽게 지으라고 하시면서 한 소리표에 글자를 두석자씩 붙여놓지 말라고 교시하시였다.

하나의 소리표에 두세개의 글자를 붙여놓으면 노래가 부르기 힘들뿐아니라 듣기도 어색하다.

노래는 듣는 사람이 여유있게 들으면서 곡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 충분한 정서적공감을 자아내게 하여야 한다. 하나의 소리표에 두석자를 붙여놓으면 선률흐름에 다급한 감을 주어 듣기도 어색하고 부르기도 힘들다.

명곡은 개성적이며 특색이 있어야 한다.

음악예술은 작품마다 개성적이고 특색이 있어야 사람들의 다양한 미학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인민들을 교양하는데서 정서적감화력을 더욱 높일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것이다. 하나의 가사를 가지고 백명의 작곡가가 노래를 짓는다면 응당 백가지의 서로 다른 특색있는 노래가 나와야 한다.

새롭고 특색있는 노래를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선률의 정서적색갈이 명백하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창작적개성이 뚜렷한 노래로 될수 있다.

정서적색갈을 명백히 하려면 노래의 상을 바로잡는 문제가 중요하다. 곡상이 비슷하면 아무리 음들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어도 선률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이 노래나 저 노래나 다 비슷하게 된다.

곡상을 옳게 잡으려면 작곡가가 현실생활에 깊이 파고들어가 생활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속에서 의의있고 특색있는 선률의 싹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선률의 싹을 찾는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작곡가가 특색있는 노래를 짓기 위해서는 현실속에서 찾은 싹을 새맛이 나게 새롭고 다양한 형상수단과 수법으로 가공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작곡가가 생활에 대한 개성적인 체험에 기초하여 특색있는 선률의 싹과 곡상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전개해나가지 못한다면 명곡을 창작할수 없게 된다.

명곡을 만드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명곡은 노력과 재능의 열매이며 창작적열정의 산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창작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 혁명적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끝없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으로 창작활동을 벌려야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리 시대의 명곡을 만들어낼수 있다.

예술은 심장으로 해야 하며 량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창작가자신이 심장의 격동없이 만들어낸 노래는 사람들속에서 사랑을 받을수 없으며 인상깊게 오래 남아있지도 않는다.

창작적 열정과 기백이 없이는 예술을 할수 없다. 작곡가들은 현실에 깊이 파고들어가 의의있고 아름다운 새로운 선률을 끊임없이 탐구하여야 하며 항일혁명음악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고 인민음악의 우수한 유산을 깊이 연구하여 음악적형상의 세계를 계속 넓혀나가며 새로운 표현수단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작곡가에게는 백곡을 지어 한곡을

완성하는 진지한 창작태도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명곡을 창조하기 위하여 백번 써서 한 음부를 얻고 백번 다듬어 한 소절을 얻어내는 그런 정력적인 탐구과정에 창조적지혜가 빛나게 되며 참신하고 감명깊은 선률이 흘러나오게 되는것이다. 불타는 창작적열정과 혁명적기백을 가지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뜨겁게 체험하며 생동한 음악언어의 발견을 위하여 정력적인 탐구를 쉬임없이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아름답고 부드러운 인민적선률을 찾아내는 참된 길이 있으며 명곡창작의 비결이 있다.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이라는 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명곡문제를 새롭게 해명하고 력사상 처음으로 명곡창작을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새롭게 체계화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음악창작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3

명곡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과 명곡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음악창작실천과 음악생활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명곡의 본질과 그 창작방도가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우리 나라의 음악예술 특히 가요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창작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그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피바다》에서 나오는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를 비롯한 영화음악들과 만수대예술단의 음악공연종목들, 《피바다》식 혁명가극들에서 그리고 작곡가들속에서 활발히 창작되고있는 수많은 당정책가요들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예술영화 《피바다》와 혁명가극 《피바다》의 주제가로 되고있는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는 우리 식 명곡창작의 새로운 리정표로 되며 우리 나라 서정가요양상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기념비적명곡의 하나이다.

노래가 담고있는 깊은 사상과 정서, 사람들을 깊은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음악적형상, 이것으로 하여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는 들으면 들을수록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준다. 이 노래는 선률이 아름답고 유순하여 우리 인민들의 감정에 맞게 민족적정서를 잘 살리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은 민요풍의 노래도 아니고 그에 가까운 노래도 아니며 서양노래식으로 높이 빼거나 굴곡이 심한것도 아니다. 노래는 민요의 양상적틀에서 벗어나고있으면서도 은근하고 연한 정서를 가진것으로 하여 민족적선률을 확고한 바탕으로 하고있으며 현대적미감을 풍부하게 반영한 우리 식 서정가요의 새로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음악예술분야에서는 수많은 명곡들이 끊임없이 창작되여 오늘 우리 나라는 그 어느 시기에도 있어보지 못한 명곡의 대풍을 맞이하고있다. 노래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였네》,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합니다》, 《수령님 모시고 사는 이 행복》, 《평양의 노래》, 《해바라기의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를 비롯한 수많은 명곡들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잘 맞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싶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부르고싶은 명곡들이다.

이 노래들은 그 깊은 음악적정서와 풍부한 형상의 힘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누리는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오시며 오직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우리 혁명의 지난날과 오늘에 대하여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오늘의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며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나갈 우리 혁명의 미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한다.

가요음악분야에서 명곡들이 수많이 창작된것은 기악음악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으며 인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좋아하는 통속적인 기악곡을 왕성하게 만들수 있는 풍부한 원천으로 되고있다.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명곡들을 가지고 기악곡을 창작할데 대한 당의 기악창작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기악음악분야에서는 교향곡 《피바다》, 바이올린독주곡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민족기악3중주곡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기악중주곡 《꽃피는 이 봄날에》, 《단오명절》,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를 비롯한 수많은 기악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기악작품들은 그 주제로 되고있는 원곡의 깊은 정서와 형상을 기악적수단으로 풍부히 살리고 음악적으로 전개하여 원곡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고있을뿐아니라 독자적인 기악작품으로서의 인식교양적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기악곡들은 주체적인 우리 식 기악음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명곡을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수많은 명곡들은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으며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를 비롯한 어버이수령님을 노래한 많은 명곡들은 우리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으로 가슴불타게 하고있으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님께 충성다할 철석같은 결심을 더욱 가다듬게 하고있다.

벅찬 현실을 반영한 수많은 명곡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키워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된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슴속깊이 심어주고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 민족적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충성의 《100일전투》장마다에서 로동당시대의 혁명적인 명곡들을 높이 부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명곡들은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우리 예술인들의 눈부신 대외공연활동을 통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명곡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는 힘있는 무기로,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음악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불리워질 명곡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의 화원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하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혁명적음악예술인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

리 만 조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새 전망계획의 첫해과업수행을 위한 충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황주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지도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 서서 전투지휘를 잘해나가는 여기에 오늘의 긴장한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지도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은 대중을 지도하는데서 반드시 지녀야 할 품성이며 혁명적사업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고 이신작칙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9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대중지도의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근로대중의 열의를 얼마나 높이며 그들의 적극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지도일군들이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발동시키기 위한 위력한 방법은 말보다도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이 실지 행동을 통하여 모범을 보일 때 대중은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되며 그와 같이 행동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대중은 당정책을 어떻게 관철하며 모든 일을 어떤 기풍으로 해내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며 힘과 용기를 얻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된다.

이신작칙의 혁명적사업기풍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전통적인 사업작풍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언제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투쟁과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위대한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직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일신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해나가시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을 굽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지휘원들은 언제나 돌격전에서는 대오의 맨 앞장에서 진격로를 개척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았으며 어려운 일에 먼저 뛰여들고 훈련과 학습을 비롯한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지휘관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투쟁과 실천적모범으로 하여 항일유격대오는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그 어떤 간고한 전투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 걸음마다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커다란 정치적신임을 표시하시고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으로 일하며 들끓는 생산현장에 뛰여들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획기적계기를 열어놓게 될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지도일군들이 선봉투사가 될데 대한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매개 초소를 책임진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비상한 정력과 투지를 가지고 군중의 앞장에서 싸워나가는것은 대중지도에서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면서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나아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70페지)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그들이 처한 위치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일군들은 해당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투쟁의 기수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지도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된다.

간부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고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김없이 집행할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이 군중의 앞장에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고 헌신적으로 투쟁한다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더우기 군당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은 군의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할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군당은 당정책관철에서 지도단위가 아니라 집행단위이다. 따라서 군당위원회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조직과 당원대중을 직접 조직동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군안의 전반사업을 책임진 군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앞장에 서고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며 군중을 이끌어나가야만이 군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현실은 대중을 지도하는 일군들이 궂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실천적모범으로써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커다란 성과를 가져온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자신이 지닌 무거운 임무와 높은 책임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당정책관철에서 기수가 되고 유능한 조직자가 되여 혁명과 건설을 앞장서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금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있다.

거창한 새 전망계획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매우 높은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의 새로운 리정표이다.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의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전체 인민의 힘과 지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것을 요구하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다.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작업복을 입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높이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한다.

우리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중요한 초소를 맡고있으며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전투의 운전대를 틀어잡고있는 지휘성원들이다.

전쟁마당에서의 승패가 지휘관들의 역할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것처럼 새 전망계획의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도 구경은 우리 일군들이 어떤 각오와 일본새를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긴장한 전투에서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앞장이다. 혁명의 시련을 앞장서 뚫고나가며 사선도 먼저 헤쳐나가는것이 바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지도일군들이 당의 전투명령을 기어이 집행하고야말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며 언제나 돌격전의 최선두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간다면 방대한 새 전망계획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올해 향주군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과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알곡생산에 력량을 집중하여 농호당 알곡 8톤이상 차례지게 하며 지방공업생산을 지난해 실적에 비해 2배로 장성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 군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혁명적 열의와 기백을 가지고 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기어이 해내고야말 굳은 결의로 불타고있으며 련일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당원대중의 비등된 연정과 전투적기세에 맞게 전투조직을 짜고들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데 있다.

지도일군들은 자기들이 서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명심하고 맡겨진 초소에서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쥔 지휘성원답게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빛나게 수행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당이 주는 전투임무를 수행하는데서 한치의 드팀이나 순간의 지체도 있을수 없다. 올해 전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벅찬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는데 지도일군들의 영예가 있고 보람이 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분기마다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 이신작칙의 숭고한 혁명가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연적인 사업의욕과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것은 지도일군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혁명적사업기풍을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할 때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지도일군들이 모든 일에서 늘 대중의 앞장에 서며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서 나타납니다.》(우와 같은 문헌, 269폐지)

일군들이 어떤 사업을 조직하거나 지도할 때에는 아래사람들에게 그저 하라고 지시만 할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실천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아래사람들에게 과업을 준 다음에 지시하고 강조만 해서는 안되며 직접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군중에게 문제해결의 옳은 방법을 가르쳐주며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옳바른 지도작풍이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지시나 하며 그저 돌아다니기만 좋아하는 일군은 대중의 참된 기수가 될수 없다.

지도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일하는 방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깨우쳐주어야만 대중은 그것을 따라배우게 되며 사업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일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실천투쟁을 통해서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대중을 가르치고 이끌어나갈 때 안되는 일이란 없으며 몇백마디의 말이나 일반적강조

에 비할바없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체득하였다.

당의 지하수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투쟁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군당위원회는 당의 지하수혁명방침을 관철하던 때 아래에 지시나 하고 포치하는데 머물지 않고 지구별로 지도력량을 편성하여 협동농장들에서 물을 줄 대상과 면적, 로력과 관수설비상태 등을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집행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단위에 나가 졸짱과 굴포의 본보기를 만들어놓고 방식상학을 통하여 일반화하였다.

룡천리와 천주리에 나간 군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한랭전선의 영향을 극복할데 대한 당의 지하수혁명방침을 해설침투하여 그들이 당이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형굴포공사가 벌어지고있는 현장에 뛰여들어 정치선동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앞장서 이끌어나갔다. 이에 고무된 룡천리농장원들은 짧은 기간에 도처에 우물과 굴포를 파서 많은 논밭에 관수를 할수 있게 되였다.

군당일군들은 이와 같은 사업방법과 일본새를 가지고 당의 지하수혁명방침을 관철하는 모든 투쟁을 앞장에서 조직지휘하였다.

군당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남보다 밥잠을 덜 자고 새벽공기도 남먼저 마시면서 농장원들을 이끌어나감으로써 군의 지대적조건과 필지별에 따라 여러곳에 졸짱을 박고 우물과 굴포를 파서 수백정보의 논밭을 적시게 하였다.

우리는 이 행정에서 군당이 지도단위가 아니라 집행단위로서 군당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만 모든 사업이 빈틈없이 잘되여 나가며 대중이 용기백배하여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똑똑히 체험하였다.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어렵고 힘든 일, 결린 모퉁이를 풀기 위하여 어깨를 먼저 들이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용기를 내고 충천하는 기세로 대중을 이끌고나아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72페지)

어렵고 힘든 일에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뛰여들어 일을 본때있게 해제끼는것은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지휘성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혁명앞에는 부단히 새로운 과업이 나서게 되며 어려운 난관과 애로를 뚫고나가야 할 전투임무가 제기된다.

새롭고 복잡하게 제기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지휘성원들이 일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군중은 어렵고 힘든 일에 부다칠 때마다 지휘성원들을 먼저 쳐다보게 된다. 이런 때에 지휘성원들이 어려운 고비에 뛰여들지 않고 난관을 뚫고나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군중은 우리 일군들을 믿지 않게 되며 따라서 대중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없게 된다.

지도일군들이 혁명대오의 앞장에 서서 어려운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밀고 몸을 적시며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장의한 맛을 보여야만 대중이 신심과 용기를 얻어 그 어떤 장벽도 먼어제끼며 동요없이 견결히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설사 진격의 앞길에 비탈이 있고 때로는 한목숨바쳐야 한 고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은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는 지휘성원답게 언제나 앞장에서 내달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전사들을 불

려야만 전투에서 승리할수 있다.

우리 군에서 올해 알곡생산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긴장된 시기였던 모내기철을 앞두고 수로공사가 제기되였을 때의 과정이 바로 그러하였다.

지난 봄, 우리 군앞에는 례년에 없는 혹심한 가물로 하여 삼전리에 새로 일군 50여정보에 달하는 간석지의 모내기가 당장 걸리게 되여 이를 보장해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였다.

모내기철을 앞둔 시기에 물을 확보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으며 따라서 양수장을 더 건설하지 않고서는 물을 보장하는것이 힘들었다.

그런데 양수장건설과 구조물공사에는 많은 자재들과 로력,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거기에 또한 3키로메터에 달하는 수로를 파내야 하였으며 이 과정에는 600메터 구간에 암반이 깔려있었다. 이렇게 되자 일부 사람들은 모내기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저하였다. 군당일군들자신부터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지 않고서는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었다. 군당일군들은 양수장건설과 수로공사에 필요한 수단들을 풀어주며 전투장에서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대여 농장원들을 고무추동하였다. 그리고 지도일군들이 가장 어려운 모퉁이인 암반까내는데 선참으로 달라붙어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홰불을 추켜들고 낮에 밤을 이어 치렬한 전투를 벌린 결과 부닥친 난관을 뚫고 모내기전으로 공사를 해제꼈다.

또한 룡천벌의 발관개공사를 다그치던 때 농기구공장의 주철관생산능력이 걸려 공사를 제기일에 진척시키지 못하게 되였다. 이때에도 지도일군들은 공사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풀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으며 기술자, 로동자들과 협의도 하고 용선로 회전속도를 높이는 방도를 찾아내여 주철관생산능력을 2배로 높임으로써 부닥친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어떤 사업에서나 그 첫째주인은 지휘관이며 지휘관의 전투지휘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앞장서는 혁명적기풍이라는것을 힘있게 말해주고있다.

참으로 지도일군들이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을 가리지 않고 조건을 탓하지 않으며 부닥친 난관을 용감하게 헤쳐나가면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끄는 바로 이것이 우리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이며 일본새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지휘관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이신작칙의 혁명적사업기풍을 그대로 따라배워 모든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이 제시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일을 되는대로 하거나 거칠게 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일본새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모든 일군들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

윤 빈

지금 온 나라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100일전투》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안고 일떠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르는곳마다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보다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로동에 대한 교양을 잘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 여기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근로자들을 혁명적인 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는것은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76폐지)

공산주의사회는 결코 구호나 불러서 실현되는것이 아니며 물질적재부는 하늘에서 스스로 떨어지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로동은 사회적부를 창조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원천이다. 로동과정에서만 물질적부가 창조되고 사회가 발전할수 있다.

로동은 또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단결시키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집단과 사회를 위한 로동과정에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정신 그리고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연을 개조하는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 지녀야 할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로동을 떠나서는 결코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할수 없고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사람들은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물론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그때에 가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일을 훨씬 헐하고 홍겹게 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사회라고 하여 일하지 않고 살수는 없는것이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로동은 의연히 사람들의 생활상 요구로 되며 신성한 의무로 된다.

이 모든것은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로동을 즐기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은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건설이 심

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이 보다 유족해지는 사정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낡은 사상에 물젖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을 계속 잘해나가도록 끊임없이 교양하여야 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311페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은 인민들을 다같이 잘살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국가가 로동자,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복무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할 임무를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옷을 공급받고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살림집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으며 농민들도 국가가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있다. 또한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배우고 발전하고있으며 병치료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생활이 보다 유족해지고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만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들속에서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여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상교양, 더우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양을 소홀히 하고 이 사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안일해이되여 날라리를 부리면서 허송세월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못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생활이 유족하고 문명해질수록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교양을 강화하는것을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로동에 대한 교양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것은 새로 자라난 세대들이 로력전선에 끊임없이 들어서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고 로동에서 단련되지도 못하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경험도 많지 못하다. 그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줄곧 행복하게만 살아온 세대들이다.

이로부터 자라나는 세대들을 로동을 즐기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정신으로 꾸준히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로동을 천시하고 로동을 싫어하는 나쁜 사상에 물젖을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 공산주의를 끝까지 건설할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로동의 열매와 혁명의 귀중한 전취물마저 고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이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는것은 특히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며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신년사》1978년 1월 1일, 단행본, 12페지)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웅대한 계획을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긴장한 투쟁을 통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무모한 침략책동으로 우리 나라의 정세를 더욱더 긴장시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남달리 무거운 군사적부담을 감당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 방대한 새 전망계획을 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의 힘과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과 안팎의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내여 보다 헌신적으로 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초소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고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기술을 혁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완강하게 이겨나갈 때 새 전망계획은 빛나게 완수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에 대한 교양을 공산주의교양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그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정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에 성실한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모습은 더욱더 웅장해지고있으며 이 땅우에 공산주의를 위한 터전이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주체의 사회주의로동법을 마련하여주심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다 자주적이며 보람찬것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영예로운 로동에서 온갖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높이 발양할수 있는 길을 펼쳐주시였다.

사회주의로동법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모든 원칙적문제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로동법을 높이 받들고 로동법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로력전선에서 보다 큰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영예감과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 그들로 하여금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는것을 착취계급의 사상으로 미워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공동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66페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에 자각적

으로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이 로동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업의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도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세울 때라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되여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가장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모두가 로동을 싫어하고 건달을 부리며 남의 덕에 놀고먹는것을 가장 수치스러운것으로 간주하게 하며 로동을 참말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로력투쟁에 온갖 재능과 정열을 다 바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하는것은 로동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세우는데서 특히 중요한 요구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때 누가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진심으로 일해나갈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고 이악하게 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때라야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예비를 깡그리 동원하여 맡겨진 과제를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해낼수 있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낡은 사상과 그릇된 태도를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낡은 자본주의사상과 새로운 공산주의사상간의 날카로운 사상투쟁과정이다.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없고 일을 되는대로 하거나 로동규률을 지키지 않고 제정된 로동시간을 옳게 리용하지 못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은 다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다. 이것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따라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는 로동을 싫어하고 될수록 편안히 지내면서 놀고먹으려는 사상잔재와의 심각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우리는 말만 하고 일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으며 조건타발만 하면서 맡은 과제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는 현상, 일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되는대로 거칠게 하며 책임이 두려워 이리밀고 저리밀고 하는 현상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또한 출퇴근으로부터 생산활동전반에서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지 않으며 480분 로동시간내에 최대한의 능률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속에 언제나 로동을 즐기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기 위해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은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로동규률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되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방도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실현하는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게 하며 사회적 로동에서 헌신성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로동정량을 옳게 정하는것이다.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로동정량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하여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이 로동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모범으로써 근로자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88페지)

간부들이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우리 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 서서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비할바없이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무슨 일에서나 지휘관이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될 때 대중은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되며 일에서 성수가 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지난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공격할 때에는 맨 앞장에 서서 돌격로를 헤쳤으며 후퇴할 때에는 제일 뒤에서 적들을 족치고 대오를 보위하였다. 이러한 헌신적인 투쟁과 실천적모범으로 하여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대오는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하였으며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원쑤들과의 격전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 걸음마다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전투장에서 전사들이 지휘관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무거운 임무가 나설때면 대중은 지도일군들의 얼굴을 쳐다보게 된다. 지도일군들자신부터 실천행동을 보이지 않고서는 대중을 어렵고 힘든 일에 불러일으킬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작업복을 입고 들끓는 생산현장에 뛰여들어 궂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말고 제일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맡아나서야 하며 남보다 험한 길도 더 걷고 분초를 아껴가면서 아득바득 애써 일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금요로동을 비롯한 사회적로동에 참가하는데서도 대중의 모범이 되며 로동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야 한다.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온 사회에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공화국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며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더욱 앞당겨점령해나가야 할것이다.

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

림 형 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시기에 하신 여러 교시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있으며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복리를 빨리 증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골고루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5페지)

인민생활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도 결국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말로 보람찬 생활,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성과도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의 복리가 끊임없이 증진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문제로, 로동계급의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생활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물질적부를 더 많이 생산해내는것과 함께 봉사사업을 개선해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하에서 봉사사업은 근로자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주는 사업이다.

봉사사업을 개선하여나가면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분야에 남아있는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들을 빨리 없앨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모든 생활상 봉사를 가장 편리하고 문화적인것으로 만들어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봉사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을 받들어 섬기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지주, 자본가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주인행세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봉사시설들이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놈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한 수단으로,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설사 봉사시설들

을 리용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착취만을 당하게 된다. 자본주의봉사업에서의 《친절성》이란 결국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많이 긁어내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봉사시설들이 인민의 소유로 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봉사사업은 그 목적자체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주는 것으로 되여있는 인민적인 사업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봉사사업개선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여기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다음 인민경제의 발전수준과 인민들의 생활수준에 맞게 봉사망을 늘이고 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년간에 봉사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구호를 내놓고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봉사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봉사사업이 적지 않게 개선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는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준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물질문화생활조건과 생활상 편의를 충분히 보장받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다.

봉사사업을 개선하면 근로자들의 복리를 빨리 증진시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여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느끼고 이 제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양할수록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은 더욱더 다그쳐지게 된다.

이와 함께 봉사망들을 늘이고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면 인민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수입을 빨리 늘일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보다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녀성들을 가정적부담에서 하루빨리 해방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봉사사업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에게 가공한 여러가지 주식물과 부식물들을 널리 공급하고 현대적인 부엌세간들을 넉넉히 대주며 옷수리, 빨래 같은것을 봉사망들에서 책임적으로 해주게 되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녀성들을 부엌일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빨리 해방시킬수 있다. 봉사망들을 늘이면 또한 녀성들을 사회적로동에 더욱

광범히 참가시킬수 있으며 집단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방침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현명한 방침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곳에 봉사시설이 갖추어져있고 인민생활이 향상되는데 맞게 그것이 빨리 늘어나고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상 봉사가 현저히 개선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유족한 생활과 문화적인 휴식을 즐길수 있는 조건들을 보장받고있으며 보다 휘황한 래일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어버이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더 빨리 가닿게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제2차7개년계획에 예견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일떠세움으로써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대량적으로 생산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살림집도 많이 건설하여놓았다. 또한 한랭전선의 혹심한 영향을 이겨내고 해마다 대풍을 이룩함으로써 식량에 대한 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충분한 예비를 가지게 되였으며 남새와 기름, 고기와 알, 물고기 생산도 획기적으로 늘이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면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봉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영예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업망에서 일하는 일군들이나 편의봉사망에서 일하는 일군들 그리고 수매부문일군들은 사회주의상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깨닫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4권, 173페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혁명투쟁이 다 그러하듯이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도 그 직접적담당자인 이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동원되는가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게 된다.

봉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똑똑히 깨닫게 하여야 하며 인민의 충복,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봉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을 잘

돌보는것을 임무로 하고있는 인민의 충복이며 인민의 심부름군들이다. 착취사회에서는 심부름을 하는것이 천한 일로, 수치스러운 일로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의 충복,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칭호가 가장 영예롭고 자랑스러운것이다.

우리는 봉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의 중요성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봉사일군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하고있으며 사람들의 서로 다른 봉사적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봉사일군들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존경하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봉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의 충복된 영예를 더욱 깊이 느끼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다.

여러가지 봉사망들을 더욱 늘이고 그것을 알뜰하고 문화적으로 꾸리는것은 날로 높아지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나가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급양시설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더 늘이고 현대화하며 그 위생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9페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의 봉사적수요도 더욱 늘어나고있다.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봉사망들을 빨리 늘여야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불편도 없이 문화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할수 있다.

봉사시설을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인구비례에 맞게 봉사망들을 합리적으로 포치하고 식당과 청량음료점, 밥공장, 편의시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봉사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군중적운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인민생활에 필요한 봉사시설들을 더 많이 꾸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대중을 이 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가내작업반을 널리 조직운영하는것은 봉사망을 늘이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가내작업반을 많이 조직하면 국가투자를 얼마 들이지 않고도 봉사망들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로력문제도 쉽게 풀수 있으며 세대당 수입을 늘여 근로자들의 생활도 더욱 향상시킬수 있다.

봉사부문에서는 가정부인로력으로 여러가지 가내작업반을 널리 조직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식료품과 일용품들을 많이 만들어 팔며 협동조합식당과 빨래, 옷수리, 가정용품수리 같은것을 전문으로 하는 편의가내작업반들을 많이 조직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업종의

가내작업반들에 필요한 원자재들을 원만히 대주고 기술지도사업을 세밀히 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나가야 한다.

여러가지 봉사망들을 더욱 늘이는 한편 그것들을 알뜰하고 문화적으로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봉사망들을 알뜰하고 문화적으로 꾸려야 사회주의적봉사의 참다운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다.

봉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봉사망을 알뜰하고 문명하게 꾸리는 사업이 하나의 중요한 혁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봉사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것으로, 알뜰하고 문화적인것으로 꾸려 근로자들이 유쾌한 기분으로 그것들을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높은 봉사성은 인민의 충복인 우리 봉사일군들의 고상한 풍모이다. 모든 봉사일군들은 인민의 충복답게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백번 물으면 백번 다 웃으며 대답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특히 주문제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상품을 제때에 원만히 공급하여야 하며 봉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여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는데서 기본은 근로자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조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봉사일군들은 식료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민족적 및 지방적 특색을 가진 주식물과 부식물, 청량음료들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식료상점들에 랭동시설을 잘 꾸리고 기름, 고기, 알, 물고기, 남새, 과일을 비롯한 영양가가 높고 신선한 식료품들을 사철 떨구지 않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모든 식료가공품을 구미가 당기게 만들고 알뜰하게 다루어 그 위생성과 문화성을 높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제때에 사먹을수 있도록 판매조직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의 식생활수준을 한층 높이고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식료혁명과 함께 입는 문제에서 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문화혁명이 전면적으로 수행되고있는 오늘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봉사부문일군들은 양복점, 옷수리소를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혁명하는 시대에 맞게 옷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옷차림을 문명하게 하는데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입는 문제에 대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나가야 한다.

여러가지 질좋은 공업상품들과 현대적인 가구들을 더 많이 공급하는것은 인민생활을 윤택하고 문명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가지 질좋고 쓸모있는 일용필수품들을 제때에 원만히 공급하여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텔레비죤수상기, 가정용 랭동고와 같은 현대적인 가구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인민생활을 윤택하고 문명하게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봉사부문에서는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우리 인민이 땀흘려 건설한 도시와 마

을들을 더욱 아름답고 문명하게 꾸리고 인민들에게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지도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봉사사업에 더 큰 관심을 돌려 봉사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4페지)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당의 방침과 그 수행방도들이 명백히 제시되여있고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오늘 봉사사업을 개선하여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어떻게 사업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특히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하며 조직사업을 깐지게 하여 필요한 설비,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며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봉사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생산된 상품을 잘 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공급하도록 조직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잘할 때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동원리용하여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적극 도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조직들은 봉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과 수행방도를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 모두가 한결같이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봉사부문에서 할수 있는 일은 다 자체의 힘으로 해내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일군들에게 분공을 구체적으로 주고 그 수행을 적극 도와주어 인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여나가는것은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할것이다.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경제관리 개선의 중요담보

김 경 련

오늘 온 나라 근로자들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받들고 《100일전투》에 떨쳐나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생산과 건설이 높은 속도로 추진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벅찬 현실과 현시기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은 모든 경제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독립채산제와 같은 경제적공간을 잘 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과 그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립채산제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기본요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함으로써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입니다. 독립채산제는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며 경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을 전제로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97페지)

독립채산제는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관리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직진행하고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며 경제관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부터 독립채산제와 같은 경제적공간을 필수적으로 리용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관리의 주인이다. 그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

는 근본문제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경제관리에 참가하도록 하는것이지만 결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물질적자극을 전혀 필요치 않은것으로 여기거나 경제운영에서 가격공간리용을 도외시하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사회는 낡은 사회의 유물과 흔적을 가지고있는 과도적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적분업이 있고 아직도 소유관계가 분화되여있는데로부터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영기업소들이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이지만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며 이들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적형태를 띠는만큼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국가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책임적으로 관리하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물론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여있지만 아직 그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처럼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는 되지 못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과도적성격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관리원칙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과 관련되는 원가, 가격, 리윤과 같은 경제적공간을 리용하며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킬것을 요구한다. 독립채산제는 바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해결할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독립채산제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실시되여야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체계이며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공산주의적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상품화폐관계와 물질적관심성을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리용하는 문제이며 대안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독립채산제의 경제적공간을 목적지향성있게 리용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대안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여야 하며 대안체계의 기본요구대로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실시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관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떠나서 독립채산제의 옳바른 실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때만이 그것이 참답게 은을 낼수 있다.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바르게 실시하는것은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대중적대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공장, 기업소들에서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계획적으로 짜고들기 위하여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경제부문들사이의 련계도 매우 밀접하고 복잡해졌다. 우리 당은 사

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확고히 의거하여 새 전망계획 기간에 공업생산을 2배이상 높이며 매해 평균 12.1%라는 높은 증가속도로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방대한 과업을 내세우고있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쌓아올린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경제관리를 개선할수 있도록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비롯한 경제적공간들을 적절히 리용하여야 한다.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고 그들을 기업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시킬수 있게 한다.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바르게 실시하면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잘 결합시킬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자대중의 열의와 생산의욕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되는대로 일하는 낡은 습성을 버리고 모두가 생산의 주인, 관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한다.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때만이 정치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물질적자극만 내세우거나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상품화폐관계의 경제적공간리용을 도외시하는 온갖 그릇된 편향들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옳바르게 실시하는것은 또한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갈수 있게 한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널리 리용할수 있으며 있는 경제적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도 더 잘 벌려나갈수 있게 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가치형태를 통하여 생산과 판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 책임성과 관심을 높일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국가재산을 애호하고 로력과 자재, 설비를 아껴쓰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는 등 경제적지표들을 개선하고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해나갈수 있다.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기업소의 관리운영을 정규화하는데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면 생산을 정상화하고 물자관리, 기술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기업관리에서 정연한 제도와 질서, 규률을 세울수 있으며 기업소의 매개 성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며 집단의 리익, 국가의 리익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게 한다. 그리하여 기업소의 관리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규률과 질서가 서고 기업소로부터 직장, 작업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의 사업이 더욱더 계획화되고 조직화됨으로써 기업관리를 정규화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경제관리를 개선할수 있게 함으로써 대안체계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경험은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가 옳바르게 실시되고있는곳에서는 계획규률과 생산질서가 서고 계획수행과 재산관리에 대한 대중적통제가 강화되여 생산과 건설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대안체

제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가장 옳바르게 실시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준 과학적방침이다. 이 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만이 독립채산제의 공간리용분야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들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기업소에 계획을 바로 주고 그 실행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정량과 자재소비기준을 정확히 정하고 설비능력을 옳게 타산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기업소들에 현실성있는 계획을 주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97페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기본단위는 기업소이다.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은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며 그 결과도 국가계획의 실행정도에 따라 평가된다. 국가계획은 매개 독립채산제기업소의 경영활동 방향과 목표를 규정해주며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된다. 따라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주는것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현실적인 계획을 주자면 해당 기업소의 구체적조건과 현실적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하고 그 시기에 도달하여야 할 수준을 정확히 고려하여야 한다. 계획을 현실성없이 주면 생산과 건설을 균형적으로 보장할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생산자들의 열의를 자극하지 못할뿐아니라 증산절약투쟁에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얻으려는 목적도 원만히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부문에 시달된 인민경제계획을 전개하고 구체화하여 세분된 현물지표별 생산계획을 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로동, 물자, 기술발전, 원가, 재정과 같은 계획항목과 계획지표들을 정확히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계획항목과 계획지표들은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제품의 생산계획이라 하더라도 결코 《도의적》인것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법적과제로 되여야 한다.

기업소에 계획을 정확히 주는것과 함께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업소들의 생산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금액지표로써가 아니라 현물지표로 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기업소들의 계획실행을 현물지표로 평가하여야 금액본위주의적경향을 없애고 국가계획을 현물지표별로 수행하도록 적극 추동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상, 기업소, 매개 직상, 작업반에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계획과제를 현물지표별로 주고 그 실행정도에 따라 실지 일한것만큼 계획실행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기업소경영활동결과를 평가하는데서 원가 및 리윤 계획실행정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의 하나는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도록 하는것이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무엇보다 원가를 낮추고 리윤을 늘여야 한다.

우리는 원가와 리윤을 기업소의 계획실행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 지표를 통하여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독립채산제기업소에서 생산이 선차적이라 하여 채산을 맞추고 리윤을 늘이는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상을 없애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도록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현물지표별 생산계획과 원가계획을 비롯한 모든 계획항목과 지표 실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여 기업소의 생활비자금, 상금 및 기업소기금의 적립규모를 정확히 규정하며 계획실행에 따라 직장, 작업반의 우대제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소의 경영활동과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평가와 함께 정치적평가를 정확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배려와 은덕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그들의 물질적관심성을 자극하는것은 사실상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적평가, 사회적평가를 옳게 하는것이다. 정치적평가는 결코 몇푼의 돈에 비길수 없다. 사람들이 당과 혁명에 충직한 혁명가라는 정치적평가, 사회적평가를 받는것보다 더 큰 영예, 더 큰 보람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바로 이것을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있으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것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고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물질적자극 한쪽에만 치우칠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옳게 평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재산관리와 그 리용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 온갖 랑비를 없애며 기계설비, 원료, 자재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살림살이에 더 큰 보탬을 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과도적특성에 맞게 국가재산에 대한 관리와 리용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동시에 상품화폐관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그것을 독립채산제를 통하여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설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생산계획을 바로 세우고 협동생산을 잘 맞물리며 기자재공급을 잘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생산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않고 놀릴 때에는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98페지)

기업소의 재산관리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고정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고정재산을 정확히 등록하고 장악하는것은 그의 합리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특히 기업소에서 가지고있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모든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장악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고정재산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고정재산을 잘 거두고 아껴쓰며 재산관리 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않거나 설비리용률지표를 떨구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어겨 설비사고를 일으키는 등 설비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미치도록 고정재산상환비, 원가 등 경제적공간을 적극 리용하여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것은 기업소들에서 설비자재를 무턱대고 많이 받아 랑비하거나 기계설비들을 제대로 리용하지 않고 놀리는 현상을 없애며 필요한 자재와 설

비만을 알맞춤하게 받아서 잘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원료, 자재를 비롯한 류동재산을 잘 관리하며 그를 아껴쓰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의 하나이다.

류동재산을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자재공급계획을 잘 세우는것과 함께 원료, 자재를 사고 팔고 하는데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이다.

자재를 공급하는데서는 기업소들에 자금이 있는 조건하에서만 원료, 자재를 사들일수 있게 하며 어떤 자재를 필요이상 많이 사들이면 필요한 다른 자재를 사들일수 없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자재의 값과 수송비를 따지며 자재를 귀중히 여기고 더 잘 보관하며 자재리용에서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애쓰게 하여야 한다.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재정관리와 재정통제를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정은 기업소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기업소재정을 떠나서 경영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없으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리익을 줄데 대한 독립채산제의 요구도 제대로 실현할수 없다.

기업소는 재정적공간을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고 분배하며 채산을 맞추어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적공간을 통하여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실시하며 계획수행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경제지도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맞물리며 대중을 계획수행에로 적극 조직동원해야 한다. 생산지도, 자재공급, 기술지도, 설비관리, 재정관리, 로동행정 등 경제관리의 모든 측면을 튼튼히 틀어쥐고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영활동에 대한 계산과 통계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경제리론수준과 경영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이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이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인것만큼 경제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리론과 경영방법을 알아야만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립채산제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화사업, 생산지도, 로력관리, 설비관리, 기술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과 관리규범, 원가, 가격, 리윤 등 경제적공간리용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을 받들고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실시하여 경제관리를 더욱 짜고듦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해나아가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공해는 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정책의 산물

최 선 규

오늘 남조선에서는 공해가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되고있다.

과학과 문명의 시대로 불리우는 20세기 50년대부터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포괄적이고 무서운 공해현상이 생겨나 자본주의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지만 지구상에서 공해가 가장 심한곳, 전형적인 공해지대는 남조선이다. 오늘의 남조선은 말 그대로 만성적인 공해지대로, 산천도 사람도 병들고 죽어가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끼리 합작하는것이 아니라 외세와 결탁하고 외래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로 전변시키고있으며 심지어 외국에서도 〈오물단지〉로 배척당하고있는 공해산업까지 끌어들여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더럽히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50페지)

남조선에서는 공해가 자연환경을 급속히 파괴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남조선의 전반적지역을 침식하고있는 공해는 악성적이며 지속적이며 파멸적인것이다.

남조선에서 공해를 일으키고있는 오염물질들은 크롬, 카드미움,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과 유기합성물질, 유독성가스와 유독성먼지 등 생명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것들이다. 이러한 유독성물질들은 자연계에서는 저절로 정화되지도 않으며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지나치게 들어가기만 하면 오래동안 무서운 피해작용을 한다.

남조선의 각양각색의 공해기업체들은 이러한 유독성물질들을 마구 뿜어냄으로써 대기와 땅, 강하천과 바다를 심히 오염시키고있으며 남조선의 생활환경을 《사멸의 환경》으로 전변시키고있다.

남조선의 대기는 독성가스로 들어차고있다.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1969년에 벌써 안전기준선을 넘어섰고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후에는 아류산가스와 일산화탄소의 함량이 안전기준의 2배, 먼지는 안전기준의 10배에 달하였으며 그것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다. 한 서방통신은 서울의 공해를 놓고 《누구도 이 도시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것 같으나 그것은 아세아의 오물, 매연 및 오염의 동의어로 되여있다.》고 썼다.

서울뿐아니라 부산과 마산을 비롯한 남해안일대 도시들의 오염도도 마찬가지이다. 부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기속에 인간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 최대허용농도의 32～83배나 되는 독성먼지가 섞여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공해기업체들에서 나오는 유독성물질들에 의하여 땅과 강하천들도 심히 오염되고있다.

대기중으로 마구 뿜어대는 유독성물질이 땅우에 쏟아져내리고 아무렇게나 내버리는 공장폐수가 땅속에 스며들고 강하천들에 흘러들어 땅과 물의 오염은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지금 서울지역의 토양에는 동이나 아연 성분 등이

안전기준치보다 100배에서 1,500배이상까지 함유되여있으며 한강물은 너무도 심하게 오염되여 검은 빛으로 변하였다. 지어 서울지역에서는 땅속에서 나오는 지하수까지도 오염되여 사람이 먹을수 없는 형편에 있다. 락동강을 비롯한 남조선의 이름있는 강하천들이 이미 유독성물질들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되였으며 이 강물들은 많은 농로들에 흘러들어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있다.

남조선괴뢰농수산부가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면적은 1968년에 비하여 1976년에는 20배, 공해산업에서 나오는 페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면적은 같은 기간에 5배로 늘어났다.

남조선의 공해는 공기와 물, 땅을 오염시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있을뿐아니라 농작물에 직접 침투됨으로써 그곳에서 생산된 쌀과 남새, 과일 같은것을 사람이 먹을수 없게 만들고있다.

날로 심해지는 공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바다의 오염은 더욱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외국에서 끌어들인 공해기업체들이 자리잡고있는 몇개 지구에서 페수상태로 바다에 흘러드는 공해물질만 보아도 그 엄중성을 잘 알수 있다. 맹독성물질이 섞인 진한 페수가 매일 마산지구에서는 10만톤, 그밖의 《공업단지》들에서는 각각 수만톤 지어는 수십만톤이나 연해로 흘러들고있다. 이 결과 남조선연해에서의 카드미움, 연, 아연, 수은, 크롬, 동 및 그 중금속유기화합물의 함량은 안전기준치보다 무려 3~40배가 넘는다. 남해와 서해 바다의 기름오염도도 수산자원보존을 위한 안전기준의 6~10배에 달하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해초류와 조개류들이 전멸되고있으며 기형어들이 생겨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있다. 남조선의 연해에서는 어장이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물고기들은 기름내가 나서 사람이 먹을수 없는 형편이다.

남조선은 이처럼 유독한 공해물질들에 의하여 대기와 강하천, 땅과 바다가 온통 심하게 오염되여 자연환경이 혹심하게 파괴되고있다.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생존의 기초물질을 독성화한 남조선의 공해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무서운 재난을 들씌우고있다.

남조선의 공해는 사회경제생활전반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지만 특히 사람들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는 무서운 고통을 주고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생존수단이 독성화되면 그 후과로 사람들이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신경계통의 질환에 걸릴수 있으며 특히 암, 심장병과 같은 불치의 병에 많이 걸릴수 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바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공기, 물, 음식물에 배인 유독성물질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축적된 결과 여러가지 질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유독성물질로 하여 시민 세사람당 한사람이상이 호흡기병, 심장병, 뇌빈혈증 및 기타의 공해병에 걸려있다는 한가지 사실만 놓고도 남조선인민들이 공해의 후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의 공해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뿐아니라 인간의 조직세포를 파괴하고 물질대사과정을 제약하여 유전인자에 치명적영향을 미침으로써 후대들에게도 비극적인 후과를 주게 된다.

공해가 심해지면서부터 남조선에서는 기형아가 자주 나타나며 발육부진으로 수많은 어린이불구자가 생겨나고있다. 또한 학령아동들속에서도 공해로 하여 키와 몸무게, 가슴너비 등 체위가 쇠퇴되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의 공해가 이미 후대들에게까지 악성적이며 파멸적인 후과를 미치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비할바없이 그 후과가 파멸적인 공해가 날로 극심해지고있는 남조선에서 장차 얼마나 참혹한 재난이 빚어질것인가 하는것은 불을 보기보다 명백한것이다.

이처럼 남조선의 공해는 민족의 보금자리인 조국산천을 황폐화하고 인간생존의 기초를 파괴함으로써 예로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리우는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죽음의 바다》로 전변시키고있다.

남조선이 오늘처럼 극심한 공해지대로 된것은 전적으로 박정희괴뢰도당이 매국배족정책을 일삼아온 결과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총칼로 정권의 자리를 가로챈후 한편으로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극악한 파쑈통치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반동들에게 더 많은 《원조》를 구걸하며 놈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매국배족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나섰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특히 일본반동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는데서 제놈들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야망밑에 《오물단지》로 규탄받는 일본의 공해기업체들을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는 범죄적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교활한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길잡이로 길러낸 박정희역도를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된 공해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한몫 하도록 부추겼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반동들과 함께 1970년 서울에서 《한일협력위원회 제2차총회》라는 쑥덕공론을 벌리고 일본의 공해산업을 남조선에 옮겨놓을것을 규정한 《한일장기경제협력시안》과 같은 매국배족문건을 조작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반동들에게 공해수출의 앞길을 열어주고 남조선에서 일본의 공해기업체들이 운영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공해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한편 공해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는 일본에서 치명적인 공해피해를 입힌탓으로 인민들의 압력을 받아 페업을 당한 전형적인 공해기업체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6가크롬, 유기수은화합물과 같은 극히 위험한 공해물질들을 아무런 제한없이 마구 쏟아냄으로써 아름답고 청신한 자연환경이 여지없이 침식당하게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떼젓이 남조선에 들어와 공해를 퍼뜨리고있는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은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들씌운 원쑤들이다.

남조선에 《울산무기화학》이라는 간판을 달고 침투한 일본독점자본가놈들만 놓고보아도 제2차세계대전때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을 수없이 희생시켜 치부한 흉악한 살인마들이다.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이 살인마들이 공해기업체를 남조선에 제멋대로 차려놓을수 있게 된 이 한가지 사실에서만도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지금은 공해를 론할 때가 아니다.》라느니, 《공해문제를 크게 떠들면 해외기업유치가 곤난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최근에도 또다시 그 어디에서도 배척당하고있는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의 공해기업체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제품은 일본반동들이 차지하고 공해부담은 남조선인민들이 걸머지도록 만들었다.

남조선에 급격히 퍼진 공해는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생활환경에 대한 아무런 보호대책도 세우지 않은 결과에 빚어진 후과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생명과 조국강산이야 어떻게 되든 가리지 않는 극악한 매국노들이다. 권세와 돈밖에 모르는 박정희역도는 도시에 인구를 밀집시키고 밀집된 주민지역에 외국독점자본가놈들의 공해기업체를 마구 배치하여 공해피해를 더욱 혹심하게 만들고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남조선인구의 20%

가 집중되여 매일 200만톤이상의 오수와 오물이 생겨나고있다. 여기에 또한 공해방지대책이 전혀 없는 각종 기업체들이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페수와 페가스를 마구 뿌려던지고있으며 자동차들이 시커먼 배기가스를 뿜어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은 오수와 오물을 정화하기 위한 초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으며 공해기업체들과 매연자동차들을 통제할 대책을 취하지 않고있다.

서울뿐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과 같이 외국독점자본가놈들의 공해기업체가 비교적 적게 자리잡고있다는 도시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제놈들의 부귀영화에만 눈이 뒤집힌 박정희괴뢰도당은 간단한 제진장치나 정화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고 오물을 그대로 쌓아두어 남조선의 모든 지역을 오염시키고 인민들에게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매국배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의 후과로 남조선 전지역이 세계 최악의 무서운 공해지대로 되여버린것을 다소라도 가리워보려고 어리석게 꾀하면서 남조선의 공해는 《근대화의 부득이한 산물》이라고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넉두리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 인민들이 후손만대에 이르기까지 길이 살아나갈 귀중한 생활터전인 조국의 산천을 파괴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오늘의 재난을 들씌운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에서의 공해는 결코 경제가 장성한 결과에 생긴 현상이 아니다.

본래 공해는 사람들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의하여 자연계에는 없거나 매우 적은 유독한 물질들이 정도이상 생겨남으로써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사람들과 동식물이 집단적피해를 받는 현상이다. 공해는 그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자신에 의하여 빚어지는 재난이다. 그것은 사회제도에 따라 생산활동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의하여 생길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수도 있는것이다. 생산활동이 인민대중의 리익에 기초하지 않고 자본가들의 리윤추구를 위하여 진행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공해는 불가피한것으로 된다. 공해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산물로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심화되여왔다.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공해를 결코 없앨수 없다. 그러기에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독점자본가놈들은 식민지나라들, 뒤떨어진 나라들에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공해피해를 다른 나라들에 넘겨씌우면서 기업유지를 꾀하고있다.

현시기 남조선의 공해는 남조선사회자체의 자본주의적발전에 따라 생겨난것도 아니며 《근대화》에 의하여 생긴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박정희괴뢰도당이 외국독점체들의 공해산업을 마구 끌어들인데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외국독점체들의 《오물단지》공업을 마구 끌어들여다가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해안과 강류역, 도시와 주민지역들에 편중배치하여놓았다.

죽음의 유령처럼 기여든 외국의 공해기업체들이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유독한 공해물질들을 쏟아놓음으로써 남조선은 식민지상태에 있으면서도 지구상 최악의 공해지대로, 《공해의 왕국》으로 전변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을 미일반동들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시켰을뿐아니라 남조선의 자연환경마저 황페화시키고 인민들에게 대를 두고도 가실수 없는 무서운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극악한 민족의 원쑤이다.

공해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능히 막을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전후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립적인 현대적중공업과 경공업을 창설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생산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지

만 우리 나라에는 생활환경이 깨끗이 보존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직후에도 그랬고 정전직후에 공업을 복구건설할 때에도 공장들이 인민들에게 유해롭지 않도록 하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생산력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공장들을 분산시켰으며 일정한 지대를 선택하여 공장들을 세웠기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공해가 없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8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나라의 생산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시였으며 공장을 건설하는데서나 지하자원을 개발리용하는데서나 나라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시고 인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의 흔적들을 말끔히 가셔버리고 진보와 문명에로의 력사적인 비약을 이룩하면서도 공해라는 말자체를 모르게 되였으며 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변혁과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생활은 경제를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 발전된 공업국가를 건설하면서도 공해를 능히 막을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자면 공해를 미리 막을수 있는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워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조상때로부터 물려받은 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 아름다운 산천과 생활터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짓부셔버리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움으로써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수 있을뿐아니라 공해와 같은 재난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다.

남조선을 《공해의 지옥》으로 전변시킨 장본인이며 《공해정권》의 우두머리인 박정희괴뢰도당은 력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는 지배와 예속의 기만적구호

리 재 도

오늘 미제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인민들을 우롱하며 남의 나라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안팎으로 궁지에 빠져 허덕이는 제국주의자들이 시대와 인민들의 지향을 악용하여 저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로부터의 그 어떤 출로를 찾아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다.

근로대중에 대한 억압과 략탈, 인간 증오와 살륙을 업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주의자》, 《인권옹호자》로 가장해나서는것은 철면피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의 허울좋은 구호를 들고 그 어떤 교활한 모략책동을 감행하여나서도 흉악한 침략자, 인권의 유린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는것이다.

* *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인권옹호》는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을 짓밟기 위한 기만적구호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은 인민대중의 인권이 아니라 인민을 억압착취하는 극소수 반동지배층의 인권이며 놈들이 부르짖는 《자유》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인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짓밟는 자유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리치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전혀 못가지며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2페지)

인권문제는 사람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기본권리를 보장받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문제이다. 사람은 이 기본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사람으로서 참답게 살아나갈수 있다. 그런데 어느 사회제도하에서나 인간의 기본권리가 다 보장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인권문제는 첨예한 계급적성격을 띠고있다. 사람이 자기의 응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여야 한다. 국가적담보가 없는 인간의 권리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이며 그것은 한갖 빈 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참다운 인권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행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국가주권을 쥐였는가 못쥐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사회주의국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해나감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이와는 달리 국가의 모든 권력과 생산수단이 소수자본가들의 손안에 틀어있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

자본주의국가는 철두철미 소수자본가계급의 지배의 도구이며 국가의 모든 정책은 그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자본가계급은 국가권력을 저들의 무제한한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을 노예화하는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할수 있는 정치적 및 물질적 힘을 완전히 빼앗기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고있으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한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사회제도자체의 반동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옹호되는것이 아니라 무참히 짓밟히는것이 필연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제도의 이러한 반인민적본질을 숨기고 저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인권옹호》와 같은 위선적인 구호를 표방해나섰다.

부르죠아지는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이래 한편으로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억압과 략탈,천대와 멸시, 학살만행을 가장 야수적으로 감행하면서 다른편으로는 《인권옹호》라는 허울좋은 구호를 들고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켜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여왔다.

부르죠아혁명의 첫시기에 벌써 기만적인 《인권옹호》의 구호가 나왔다. 당시 부르죠아지는 인간의 《자연적권리》에 대하여 주장하여나섰는데 그것은 진적으로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구속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치부하기 위한 저들의 무제한한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것이였다.

부르죠아지들이 그후에 내든 이른바 《기본적인권》이요, 《만민의 평등》이요 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저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부르죠아지는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을 헐값으로 고용하여 마음대로 착취하는것이나 맨주먹밖에 없는 로동자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내놓는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것을 다 각자들의 《자유》와 《권리》의 행사로 묘사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반동지배층은 바로 이러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기만적구호를 들고 저들의 가혹한 착취와 학대를 합법화하고 근로인민대중이 당하는 극도의 기아와 빈궁, 무권리에 대한 책임을 그들자신에게 들씌운다.

부르죠아적《인권옹호》는 결국 돈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착취계급에게는 무제한한 치부와 략탈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오직 굴욕만을 강요하기 위한것이다.

그러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를 그처럼 떠들고있으나 사실상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그 어느 하나의 권리도 제대로 가진것이 없다. 그들은 정치,경제,문화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당하는 처지에 있다. 자본주의사회에 《인권》이 있다면 그것은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권리가 있을따름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오는 과정에 체험을 통하여 부르죠아적《인권옹호》의 위선과 기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것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똑똑히 깨닫고 있다.

이렇듯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권옹호》는 철두철미 인민대중에 대한 저들의 착취와 압박,혹심한 인권유린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과 위선의 가장물이며 그밖의 다른것으로 될수 없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옹호》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제의 우두머리놈들은 《인권존중이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며 《인권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추를 이루는 문제》라고 지껄여대고있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소동은 그 어떤 새로운것이 아니다. 그것은 궁지에 빠진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반동지배층의 음흉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나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있다.

미제는 세계제패의 흉악한 야망밑에 국내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과 전쟁 책동, 내정간섭과 파괴암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미제는 세계이르는곳마다에서 고립배척당하고있으며 놈들의 흉악한 침략적정체와 그 취약성은 남김없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압제밑에서 천대와 멸시를 당하며 살아온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이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서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서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됨에 따라 미제의 반혁명적폭력정책은 어디에서나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돌려세워보려는 야망밑에 《인권옹호》의 구호를 들고나왔다. 미제는 《인권옹호》, 《인권외교》의 허울좋은 간판을 내듦으로써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체면을 추켜세우고 날로 높아가는 국내인민들의 반정부기세를 무마시키는 한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떤 교활한 《인권옹호》책동으로써도 세계인민들을 기만할수 없으며 저들의 흉악한 침략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미제의 기만적인 《인권옹호》의 반동성은 이미 세상에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미제는 《인권옹호》의 간판을 내들고 그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가장 횡포하게 유린말살하고있는 인권의 진짜 원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괴뢰국가들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91페지)

오늘 서방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어디에서나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혹심하게 유린되고있다. 특히 그것은 《인권옹호》를 가장 요란스럽게 떠드는 미국에서 더욱 극심하다. 미국은 지구상 최악의 인권유린지대이다.

오늘 미국에서 한줌도 못되는 억만장자들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억압착취하고 천대할 《권리》를 가지고있지만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사회정치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는것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권리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정치활동의 자유가 실제상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선거권 하나만 보아도 근로자들은 년령, 재산과 지식정도, 거주년한, 성별, 인종별 등 갖가지 제한조치에 의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빼앗기고있으며 설사 선거권을 얻는다 해도 협잡과 총칼이 판치는 선거마당에서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발표할수 없는것이다.

미국에서는 《맥카시법》, 《타프트-하틀리법》을 비롯하여 진보적인민들을 언제나 탄압할수 있는 수많은 파쑈악법들과 거미줄처럼 늘어놓은 폭압기구들이

온 사회를 결박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누르고있다. 미국의 수천만 근로자들은 악명높은 미중앙정보국과 련방수사국에 의하여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있으며 수시로 지문검사, 가택수색을 당한다. 미련방수사국은 최근 몇해동안에만도 미국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는 1억 8천 300만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삼엄한 감시와 억압체제하에서 미국근로자들의 자유와 권리는 심하게 억제당하고있으며 사람들은 철창없는 감옥에서 말과 행동과 생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기고 《죄수》아닌 죄수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정치적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경제문화적권리도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미국에서 돈많은 소수특권계층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지만 근로대중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기아와 빈궁,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헤매고있다. 미국근로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인 로동의 권리조차 못가지고있다. 미국 헌법에는 근로대중의 로동에 대한 권리의 조항조차 없다. 미국근로대중의 건강보호권리는 돈이 없다는 리유로 하여 유린되고있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은 교육에 대한 초보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반동지배층이 형식상으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떠들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박탈하는것, 이것이 바로 미제가 떠드는 《인권옹호》의 추악한 내막이다.

미국에서 유색인종들은 더욱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있다.

미국의 흑인들은 아무런 정치적권리가 없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거주의 자유도 없으며 학교, 려관, 병원, 식당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격리되고 극도의 차별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백인과 결혼할수도 없으며 같은 일을 하여도 백인로동자들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다.

미국에서 유색인종들은 모진 학대와 멸시를 받고있을뿐아니라 로골적인 살륙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반동지배층에 의하여 흑인들에 대한 테로와 학살을 감행하는 살인조직이 공공연히 허용되고있다. 지어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랜 세월 저들의 구두발밑에 짓밟혀 거의나 멸족되고 오늘에 와서는 얼마 남지 않은 원주민들을 모조리 멸살시키려고 《인디안의료봉사단》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인디안들을 강제로 단종시키는 비인간적만행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인권존중》이요, 《흑백인의 단합》이요 하는 간판뒤에서 미국근로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반동지배층에 의하여 근로대중에 대한 천대와 멸시, 인간증오사상이 끝없이 설교되고 살인과 폭행이 공공연히 장려되고있으며 강도를 비롯한 온갖 범죄행위가 백주에 버젓이 감행되고있는곳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 오히려 《범죄》로 인정되여 터무니없는 죄가 들씌워지고있으며 중형이 가해지고있다. 지금 미국의 주들과 련방의 감옥들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갇혀있는데 그들중에는 수천명의 인권옹호자들이 들어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인권옹호》의 막뒤에서 인민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을 인간이하의 처지에 몰아넣고있는 흉악한 범죄자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의 기만성은 놈들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외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미제는 《인권외교》를 부르짖으면서 인권이 공개적으로 유린되는 지역들에서 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것을 한두번만 떠벌이지 않았다.

그런데 음흉하고 교활한 미제는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 《인권

외교》의 구호와는 반대되게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내정간섭, 전쟁과 파괴 압해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가 칠레의 진보적인 정권을 폭력으로 뒤집어엎고 이 나라를 피에 잠근 군사파쑈도당을 적극 비호하고있으며 아랍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이스라엘반동들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계속 지원하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미제는 말로는 《인권옹호》에 대하여 떠들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군비를 확장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저들의 앞잡이들에게 살인무기를 대대적으로 대주어 진보적인민들을 탄압학살케 하는 범죄적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인권옹호》정책의 가면은 남조선괴뢰정권에 대한 태도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한 파쑈독재가 실시되고있는 남조선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깡그리 말살된 인간생지옥이며 《인권의 황량한 불모지》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립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1인파쑈독재를 세워놓고 전체 남조선인민들을 다 저들의 파쑈독재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놈들은 전례없는 폭압기구와 파쑈악법들을 조작하여 인민들의 손발을 얽어매놓고있으며 각종 허위사건들을 련이어 날조하여 남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각계층인민들을 살인재판에 넘겨 마구 처형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라는것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잔인한 인권유린책동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세계의 강력한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인권유린행위를 부인해보려 하고있을뿐아니라 박정희파쑈독재정권을 정치, 경제적으로 계속 뒤받침해주고있으며 적극 부추기고있다. 지난 31년동안 남조선괴뢰도당에게 무려 126억딸라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던져준 미제는 최근에는 《철군》에 따르는 《보완조치》라는 이름밑에 박정희괴뢰무리들에게 거액의 군사원조를 퍼붓고있으며 수많은 현대적무기들을 넘겨주고있다. 미제는 앞으로 수년동안에 수십억딸라의 군사원조를 들이밀어 각종 살인수단들과 군사장비를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특무기관들과 밀정들,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삼엄한 감옥으로 전변시키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도록 부추기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살인과 강도, 폭행과 부녀자릉욕 등 온갖 비인간적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인권외교》는 이처럼 안팎이 서로 다른것으로서 저들의 앞잡이들을 부추겨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유지하며 신흥세력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침략책동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반공》소동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을 헐뜯고 그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막아보려 하고있으나 이것 역시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책동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표방하는 《인권옹호》, 《인권외교》가 저들이 일관하게 추구하고있는 《힘의 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이며 《힘》으로 이룩할수 없는 세계제패의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구호를 요란스럽게 떠들고있으나 그 침략적본질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으며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할수도 없다.

오늘의 세계는 제국주의자들이 기만과 위선으로 세계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지배하던 그러한 세계가 아니다.

자주성의 기치밑에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새 력사를 창조하는 오늘의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감언리설과 량면술책으로도 세계인민들을 우롱할수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자주사상에 의하여 세계인민들은 사람의 참된 가치와 존엄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응당 차지해야 할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깨닫게 되였으며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인간의 응당한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데 대한 인민들의 지향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거센 흐름으로 되고있으며 그 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가고있다.

인민들은 《인권옹호》의 기만적구호밑에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자기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옹호해나갈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음흉한 침략책동을 감행하고있으나 놈들이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더 세계인민들로부터 고립될것이며 그것은 놈들의 멸망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근로자 1978년 제8호(루계 43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8년 8월 1일 발 행 • 1978년 8월 5일

ㄱ—85208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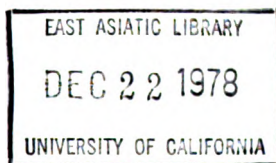
평 양 근로자사 1978

근로자

제9호(43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30년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민족의 크나큰 경사로 뜻깊게 맞이한다.

이 경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싸우는 남녘형제들과 해외동포들이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공화국의 력사적뿌리를 몸소 마련하시여 그 터전우에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공화국창건 30돐을 기념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예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9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전체 조선인민은 권위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의 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있으며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혁명정권, 참다운 공화국정권을 가짐으로써 영광에 찬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정권을 가지는것은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개척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주체의 혁명정권건설의 영광스러운 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면서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 첫 로동자, 농민의 국가를 세우시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공화국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정권이며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참다운 자주독립국가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 동방일각에 우리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가는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우리 인민은 자유와 독립의 기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지난 30년동안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우리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먼길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립후 오늘까지 우리의 인민정권은 줄기찬 투쟁과 영광에 찬 승리의 길

을 걸어왔으며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5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걸어온 30년의 로정, 그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온 자랑찬 투쟁과 승리의 력사이며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기적과 위훈으로 아로새겨온 창조와 변혁의 력사이다. 그것은 또한 시대와 인민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신이 끊임없이 높아진 영광의 력사이다.

지난 3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왔으며 정치,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실현,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30년의 투쟁로정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한 승리이며 자랑찬 총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우리 인민은 오래동안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좀먹고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정신적 해방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주체의 혈맥으로 이어져있으며 온 사회가 주체사상으로 꽉 들어찬 하나의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높이 우러러모시며 모든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힘차게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국가사회생활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 공화국이 승승장구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공화국의 기치아래 지난 기간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는 락후한 경제가 지배하던 이 땅우에 오늘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복잡한 현대적기계설비도 척척 만들어내는 힘있는 중공업 그리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경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제 발로 걸어나가는 강력한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올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자위로선이 빛나게 관철되여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위력한 방위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으며 당의 주체적인 문화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교육사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과학과 문학예술이 찬란히 꽃피여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기치는 어두운 남녘땅 형제들과 이국땅 해외동포들 속에서도 세차게 나붓겨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불패의 보루로 바라보면서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려왔으며 해외동포들은 공화국의 륭성발전에서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얻으면서 자주독립국가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떳떳이 빛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거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세기에 빛날 자랑찬 성과와 업적을 이룩함으로써 세계정치와 국제관계에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으며 나라의 국제적권위는 비상히 강화되였다.

세계의 관심은 더욱더 우리 공화국에로 쏠리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의 벗들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우리 나라의 권위와 위신이 오늘처럼 높아지고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가 지금처럼 넓어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참으로 지난 30년동안 우리 공화국은 투쟁과 전진, 창조와 변혁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옴으로써 지난날 락후와 빈궁,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던 이 땅우에 륭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힘있는 자립적민족경제, 자위적인 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빛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뒤떨어졌던탓으로 하여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하게 나서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쌓아올린 위대한 업적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공화국의 기치아래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과 불멸의 업적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열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공화국이 나아갈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끊임없는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 당은 부닥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우리 나라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수 있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0페지)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과 거대한 생활력은 바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고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공화국 정권으로 하여금 어떤 난관과 시련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며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힘있게 이겨내고 새 조국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다.

공화국이 걸어온 길은 실로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이였다.

장기간의 일제식민지예속화정책과 봉건적침체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기적인 락후속에 있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국토가 분렬되고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또한 매우 복잡하고 혼란되여있었다. 우리에게는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으며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내다보시면서 우리 인민정권을 필승불패의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정권앞에 나선 모든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나라와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데 뒤이어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이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사회경제적토대를 이룩해놓았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은 집요하

고 야랄했다.

미제가 도발한 전쟁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일찌기 볼수 없었던 가장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전쟁을 감행하였다.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참으로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독립을 고수하느냐 또다시 망국노의 운명에 빠지느냐 하는 생사존망의 판가리싸움이였다.

이 준엄한 시기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싸움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함으로써 미제를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군사전략사상과 전법,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의 뚜렷한 시위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꺼꾸러뜨린 영웅의 나라로 되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새로운 전환을 열어놓았다.

전후 우리에게는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으며 인민생활은 여지없이 령락되였다. 게다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반당종파분자들의 준동으로 하여 정세는 여전히 긴장하고 복잡하였다. 우리 인민이 해야 할 일은 산악같이 많았으나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고 당이 있고 정권이 있는 이상 아무리 형편이 곤난하여도 나라를 더 훌륭히 건설할수 있다는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공화국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짧은 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훌륭히 복구하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시고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게 하시였으며 천리마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혁명의 진두에서 몸소 난국을 헤치시면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여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 조선혁명의 년대기우에 찬연히 아로새겨진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30년동안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이 땅우에 창조와 혁신의 나래를 돋혀주시였으며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높은 뜻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영광의 길우에서 우리 인민정권이 불패의것으로 장성강화되고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면모를 더욱 빛내이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공화국의 기치아래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공화국이 지니고있는 모든 권위와 영예, 자랑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은 곧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이라고 자랑스

럽게 말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이름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만 련결시켜 부르고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지난날과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오늘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이 있다.

우리 인민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데 우리 혁명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욱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공화국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러모셔야 하며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이며 공화국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우리자신의 손으로 선거한 각급 주권기관일군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모든 법령, 결정, 지시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전투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앞당겨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보다 튼튼히 다지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하루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튼튼히 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더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다

김 일

우리 인민은 오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민족의 크나큰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오래동안 무권리와 천대 속에서 짓밟히고 버림받아온 우리 인민이 오늘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여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리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필승불패의 우리 공화국을 세우시고 이끌어주고계시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위하여, 근로인민의 진정한 주권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여오신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며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여 로동자, 농민의 자주적인 혁명주권을 창건하시고 그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아로새기진 자랑찬 행로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의 광복과 륭성번영, 공화국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과 영예,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찬연히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투쟁과 승리의 기치이며 무궁한 번영과 행복의 원천이다.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국가의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공화국창건 30돐을 민족의 크나큰 경사로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지금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져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에 가득차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혁명정권건설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의 새 력사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에 관한 문제를 근로인민의 해방과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혁명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농민의 자주적인 혁명정권건설의 길을 처음으로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

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2페지)

혁명에서 주권에 관한 문제는 기본문제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그들의 자주적인 정권에 의하여 실현된다. 주권을 쥔 인민이라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실현할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국가주권이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 바로 여기로부터 혁명에서 주권에 관한 문제가 가장 선차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로 나서게 된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인 혁명정권을 가지야만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권건설위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그를 구현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정권을 세우며 그것을 혁명의 무기로 하여 근로인민의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지난날 나라 없고 주권이 없었던탓으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고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짓밟혀온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심으로 하여 비로소 오랜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자기의 자주적인 주권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새 력사를 맞이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주권문제해결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의 자주적인 혁명정권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오랜 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이 창립된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이지만 그 력사적뿌리는 훨씬 오래전에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다련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48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인 동시에 근로인민의 자주적인 혁명주권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내놓으시면서 그때에 벌써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시였다.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개시와 인민정권건설로선의 제시, 이것은 근로인민의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고있던 포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혁명적으로 뒤집어엎고 로동자, 농민의 참다운 자주적인 정권을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정권건설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정권, 인민정권 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이였다.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유격구들에 우리 인민정권의 원형인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고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과 업적이 이룩

되였으며 수많은 혁명적골간들이 준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랜 기간의 피어린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자주적인 정권건설의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도 인민정권을 튼튼한 토대우에서 지체없이 세우고 그것을 오늘과 같은 강력한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올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도 영원히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불면불휴의 혁명실천으로 독창적인 혁명정권건설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새형의 정권형태, 인민정권형태를 발견하시고 그에 관한 정연한 리론을 확립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정권건설리론에서 중요하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새형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을 비롯한 소자산계급과 인테리, 민족자본가들까지도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반제자주의 길로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과 요구에 맞는 참다운 혁명정권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가장 인민적이고 생활력있는 정권형태이다.

이 새롭고 독창적인 정권형태의 발견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창조적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는 힘있는 정치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정권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확고한 령도를 보장하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키며 정권의 대중적지반을 넓힐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 새로운 정권형태의 발견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사회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합법칙성이 새로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휘황히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건설과 공고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심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정권기관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데 대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의 근본원칙,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로선과 그 실현방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과 매 혁명단계에 따르는 중요임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 혁명적변혁의 시기인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호상관계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상, 리론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완성된 정연한 리론들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수행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에 관한 사상, 리론들은 어느것이나 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반영하고있으며 근로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것으로 일관되고있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의거하여 관리운영해나가는 인민정권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 리론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거창한

실천투쟁속에서 창조되고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정권건설리론이다.

주권을 전취하는 때로부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 때까지의 전력사적단계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정권건설의 원칙으로부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히고 그것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정권건설리론의 위력과 특징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혁명위업의 발전에 이바지하신 불멸의 공적이 있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정권건설리론은 필승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혁명적진리로, 혁명정권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휘황한 등대로 되고있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가장 위력하고 존엄있는 자주적인 혁명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인민정권의 깊고 억센 뿌리에 토대하시여 짧은 기간에 력사적인 당창건위업과 함께 인민정권수립의 거창한 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시였다.

해방후 건국의 길우에는 참으로 복잡한 정세와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여있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온갖 반동세력을 그러모아 민족분렬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북반부에 대한 파괴암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우경기회주의자들은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나왔고 좌경기회주의자들은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인민이 어느 길로 나가며 주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실로 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이 난국은 오직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강철의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굴의 투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기본임무와 해방후 조성된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이 의연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띤다는것을 밝히시고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로 만들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면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새형의 인민적인 민주주의정권, 인민정권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의연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며 주권문제에 있어서는 현단계에서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됩니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단행본, 1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한 옳바른 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내외원쑤들의 온갖 책동이 분쇄되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진정한 인민정권, 로동자, 농민의 첫 혁명정권이 탄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탄생한 첫 혁명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여 해방후 매우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고 이 정권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정책을 세우고 관철해나가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혁명정권이였다. 우리 인민정권은 지도사상과 령도계급, 정치적기초와 대중적지반, 조직체계에 있어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성격과 형태를 띤 가장 생활력있는 정권인것으로 하여 그자체를 강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자기앞에 부과된 민주주의혁명의 과업뿐아니라 새롭게 나서는 사회주의혁명의 과업도 거침없이 수행할수 있었던것이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주권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공적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각성시켜 인민정권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시면서 전체 인민, 온 민족을 통일적인 부강한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비법적인 《단독선거》와 괴뢰정권조작으로 나라가 영구분렬의 갈림길우에 놓이게 되였던 그 엄숙한 시각에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지체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는 거족적사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인민정권을 전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이 땅우에 진정한 로동자, 농민의 나라,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찬연히 뿌리는 사회주의 새 조선이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고 우리 나라는 세계의 모든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다.

실로 공화국의 창건은 지난날 나라없는 망국노의 설음속에 묻혀있던 우리 인민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고 조국의 장래와 후손만대의 륭성과 번영의 길을 열어준 일대 민족적경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건된 공화국정권기관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만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37페지)

로동계급은 자기의 정권을 세운 다음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혁명정권으로 하여금 계급투쟁의 무기, 창조와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도록 하시는 한편 정권기관일군대렬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정권기관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혁명에 충실한 일군들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정권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가장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며 정권기관이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

히 수행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권기관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그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언제나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한다는 주체적인 정치의 근본원칙에 기초하시여 인민정권을 창립하신 첫날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는 관료주의를 중요한 투쟁대상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꾸준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관료주의를 철저히 뿌리빼게 하심으로써 인민정권사업에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며 정권기관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권기관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전략적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정권의 정치사상적지반과 물질적토대를 비할바없이 강화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는 한편 언민정권이 창조와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허 군중로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체계를 확립하시여 인민정권이 자기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경제관리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일원화계획체계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이다. 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세워짐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당의 모든 경제정책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생산과 건설을 더욱 전투적으로 패기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나라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지도와 보장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우월한 국가기관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모든 정권기관들의 전투력과 그 기능과 역할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자랑찬 업적의 갈피갈피에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기구를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과 현명한 령도가 깃들어있다. 또한 거기에는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들과 그 아들딸들을 국가기관의 어엿한 일군들로 키워주시고 그들이 옳바른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관철자, 인민의 참다운 충복답게 일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량없는 배려와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안팎의 원쑤들의 발악적인 공격과 배신자들의 파괴책동도, 력사가 물려준 락후성으로 하여 조성된 난관도

다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짧은 기간에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민족적 대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참으로 항일의 20여성상에 이어 새 사회 건설의 30여년에 이르는 반세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권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여 공화국정권의 억년 드놀지 않는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시고 건국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게 하신 영광찬란한 로정이며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으로 로동계급의 정권건설력사를 빛내이신 자랑찬 행로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정권은 불패의 생활력을 지니고있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혁명정권이다.

우리 공화국정권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구현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66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는것은 주체형의 혁명정권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정권의 근본징표이며 그 무궁무진한 힘과 불패의 생활력, 모든 영예와 존엄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탄생한 우리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행로를 걸어왔다. 우리의 혁명정권은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오직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는 철두철미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정권으로서의 자기의 특성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모든 투쟁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정권은 언제나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고있으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고있다.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비롯하여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 관철해온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그 어느것이나 독창적으로 세워지고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빛나게 실현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억세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하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사소한 편향이나 헛갈림도 없이 진공적으로 헤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정권은 간고하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하고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선진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놓았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적과동에도 끄떡함이 없이 힘있게 전진하는 위력한 자립경제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민족문화, 불패의 자위력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공화국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는 비상히 높아지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로 그 위용을 빛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의 관심은 우리 공화국에 쏠리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정치와 국제관계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력사는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그 전면적 승리를 이룩해온 력사이며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혁명적전취물들은 바로 공화국정부가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이다.

우리 공화국정권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모든 활동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근로인민대중을 위주로 하는 사회주의정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그것을 자기 활동의 기본방식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심으로써 공화국정권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정권은 창건첫날부터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다. 공화국정권은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울 때에도 인민의 리익과 지향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고있으며 공산주의적, 인민적 시책들을 련이어 실시하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천대와 무권리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우리의 근로자들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떳떳한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여 모든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해결해나가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참된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공화국정권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교육에 대한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고 행복하게 생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모든 사회정치적권리와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법적으로 보장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세워진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적민주주의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며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것을 깊이 체득하고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심장으로 깊이 느끼고있는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공화국정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두리에 굳게 뭉쳐있으며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사활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과 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토지법과 로동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등 사회주의법을 전면적으로 정연하게 밝혀주심으로써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법질서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대로 생활하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이 그 요람기에 벌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만 남은 폐허우에서 불과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오늘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의 대진군, 속도전의 기세로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은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여있는 공화국정권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증시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온 력사는 30년밖에 안되지만 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공화국정권은 수천년을 두고도 실현하지 못한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대와 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정권은 그 혁명성과 인민성, 위력과 업적, 권위와 영예에 있어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새형의 위대한 혁명정권이며 당의 령도밑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추호의 드팀도 없이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이다.

* *

오늘 우리 공화국정권이 지니고있는 모든 영예와 존엄, 불패의 위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 지니신 높은 권위와 직접 잇닿아있다.

공화국의 기발을 높이 들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오는 오랜 혁명투쟁과 실지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자신과 후대들의 모든 운명과 민족의 전도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받들어나갈 확고한 혁명적 신념과 투지에 넘쳐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히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위업 그리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밑에 필승불패의 공화국의 기치따라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예이고 행복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공화국정권을 튼튼히 다지고 받들어나가는 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기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공화국정권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 다 바쳐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공화국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

박 성 철

우리 인민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찬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30년이 지나갔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드높은 민족적긍지와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가장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지난 30년동안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투쟁과 창조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세기적으로 락후하였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우리 공화국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안팎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강화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혁명적인 정권으로 자라났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영웅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이바지한 커다란 공적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받고있다.

오늘 공화국창건 30돐을 맞는 전체 조선인민은 세기적인 변혁과 영웅적 사변들로 가득찬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공화국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공화국의 기치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01페지)

국가활동의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국가는 자기 활동의 참다운 지도적지침을 가지야 국가활동의 총적방향과 목표, 그 실현방도를 옳게 규정하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이 중대한 문제는 자주시대의 혁명투쟁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인 념원과 지향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인류해방의 전투적기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된 새형의 사회주의국가이며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백두의 밀림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의 혁명정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숭고한 사명과 그의 모든 활동은 오직 주체사상과만 잇닿아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여기에 우리 공화국의 모든 활동의 근본목적이 있으며 공화국이 영원토록 번영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주체위업수행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공화국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주의정권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우리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1페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정권을 건설하는것은 국가주권이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대표하는것도 국가주권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것도 국가주권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정권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고수할수 있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국가건설리론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시대, 자주시대에 맞는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정권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준다.

주체사상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정권의 사명이 명실공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 되어야 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민주주의가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 되여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국가주권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민주주의를 자기 활동의 기본방식으로 삼을 때에만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로 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여주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혁명적인 정권으로 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위주로 하여 국가정권의 사명과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정권건설의 독창적인 길이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보호하는 참다운 정권으로 되고있으며 공화국의 모든 정치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근로대중자신의 정치로 되고있는것은 바로 공화국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고 활동하는 첫 주체형의 국가이기때문이다. 경험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우리 공화국을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참다운 사회주의적정권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주기 위한 공화국의 모든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이끌어주는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60~261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공화국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국가는 자기 활동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여야 한다. 그러나 주권을 잡는다고 하여 국가활동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저절로 높아지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이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고 자기 활동을 옳게 벌려나갈 때에만 끊임없이 높아질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줌으로써 공화국이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립장과 방법이다.

로동계급의 국가는 자기 활동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 때에만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었다.

우리의 경험은 국가활동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여기에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치나갈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또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활동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40페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공화국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지 못하는 민족은 남에게 예속될수밖에 없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보장된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밝혀줌으로써 공화국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길을 명시하여준다.

자주, 자립, 자위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강화하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할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이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에는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정신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이 혁명적인 원칙을 관철하여야 자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높이 발양시키고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근로인민대중이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제 나라, 제땅우에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고 정치, 경제, 군사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공화국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이 원칙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과 결심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다그쳐나가는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었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부동한 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게 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기치이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창건첫날부터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공화국이 걸어온 30년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줄기찬 투쟁의 30년이며 주체사상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영광의 30년이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민주주의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이 땅우에 인민들이 세기를 두고 념원하였

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바라마지않던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여놓았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여나가는 전행정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내세우고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그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왔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활동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국가의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철저히 관철해나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창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7폐지)

국가의 모든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해나가는것은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정책을 자기자신의 결심에 의하여 오직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세우고 관철해나갈 때에만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참다운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창건첫날부터 정책 작성과 집행에서 독자성을 견지하는 문제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선결문제로 보고 자주로선을 관철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왔다.

공화국은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언제나 우리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정책을 규정하였다.

우리는 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현실에 맞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애되지 않고 대담하게 그것을 집행해나갔으며 다른 나라의 경험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비위에 맞지 않을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일관한 립장을 견지하여왔다.

우리는 대외활동방침도 독자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반제투쟁이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벌려왔다.

참으로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화국이 실시한 정책들은 모두 주체적립장에 서서 우리 나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세운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불리한 정세와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정책 작성과 집행에서 사소한 편향도 범하지 않고 원칙성과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46페지)

근로인민대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요인이다. 자연을 개조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사회를 변혁하고 새생활을 창조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창발성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중첩되는 시련속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공화국의 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우리 인민은 낡은 사회로부터 기형적이고 편파적이며 시대에 멀리 뒤떨어진 식민지경제를 물려받았으며 그것마저 3년간의 가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파괴되였다. 우리는 특히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동시에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였다.

일찌기 력사가 체험하지 못한 간고하고 힘난한 길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믿을것이란 오직 인민대중밖에 없었다. 근로인민대중의 힘은 우리 공화국이 겹쌓인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동요없이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였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이 창건 첫날부터 근로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창조적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고 자기 활동에서 일관하게 혁명적군중로선을 견지하여왔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의 활동에서 중요하게 나선 문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이였다.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정권기관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공간의 하나이다. 인민정권기관들과 대중의 련계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옳바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의기할 때에만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바로잡는것은 우리 정권기관의 많은 일군들이 지난날에 혁명투쟁과 군중공작의 경험을 거의 가지고있지 못하였던 조건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여기로부터 우리 공화국은 창건첫날부터 시종일관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공화국은 인민정권기관일군들로 하여금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변천되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왔으며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일반화는 정권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선 새로운 조건에 맞게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하고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의 활동력사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와 창조의 새 력사를 기록해나가는 숭고한 투쟁의 행로였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새형의 정권으로서 그자체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속에서 생기난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의 고귀한 전취물이였다.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주권을 가지게 된 시기에 와서도 의연히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연구하지 않았으며 남의것만 기계적으로 본따려고 하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 공화국이 새형의 정권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자주적정권으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여기로부터 우리 공화국은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한 첫날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그 투쟁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우리 공화국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짓부시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대두함에 따라 더욱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언제나 주체의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고 우리 혁명을 줄곧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

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6페지)

사상분야에 주체가 확립된 결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온 나라가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자주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로 불리우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되였으며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더욱 공고히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이 갈수록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다.

자립로선을 빛나게 관철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결과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나라의 경제를 안전한 기초우에서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국방에서의 자위로선도 위대한 열매를 맺었다. 자위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는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자도 능히 때려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철벽의 방위력을 가지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여온 공화국의 30년 력사의 자랑찬 총화이다.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로정과 오늘 우리앞에 펼쳐진 찬란한 현실은 오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력사가 물려준 온갖 락후성도, 제국주의침략도, 혁명의 배신자들의 책동도 다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으며 조국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공화국정권을 반석같이 다지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기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나가는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며 그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혁명정권

림 춘 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공화국창건 30돐을 크나큰 경사로, 영광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고있다.

오늘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과 번영, 그 승리와 영광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깊은 력사적뿌리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혁명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이지만 그 력사적뿌리는 훨씬 오래전에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공화국정권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 주체의 정권건설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혁명정권이다. 우리 공화국이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있는 여기에 공화국정권의 공고성과 무궁한 륭성번영, 필승불패의 위력의 담보가 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가장 뜻깊게 맞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그 뿌리로부터 키워오시고 이끌어오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정권을 굳게 받들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 한결같은 충성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1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국가의 혁명전통에 관한 문제는 정권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국가의 혁명전통은 국가건설의 력사적뿌리로, 그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로서 그 국가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정권의 력사적뿌리, 혁명전통은 국가정권의 계급적본질과 정권건설의 근본방향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며 국가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서 결정적작용을 한다.

로동계급의 국가는 착취계급국가기구가 철저히 청산된 기초우에서 새로 발생하므로 이미 주권전취투쟁단계에서 새로운 로동계급정권의 뿌리가 마련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거쳐 주권을 전취하게 되는 나라들에서 민족해방투쟁시기에 정권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닦고 민족해방이 이룩된 다음 주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

는것은 정권건설에서 하나의 합법칙기 과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은 혁명전통에 의하여 하나의 명맥으로 이어져야 자체의 깊은 뿌리에 기초하여 굽힘없이 강화발전할수 있으며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지켜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국가의 혁명전통은 그 나라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며 주권전취를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된다.

공화국정권이 이어받은 혁명전통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서 몸소 마련하신 빛나는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정권건설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투쟁에서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민정권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우리 인민이 벌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인 동시에 근로인민의 주권을 위한 투쟁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조국의 광복과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인민정권을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둔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새로운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에 기초하시여 주권문제의 해결을 민족해방투쟁의 기본문제로 내세우시였으며 항일혁명투쟁을 근로인민대중의 주권을 위한 투쟁으로 되게 하시였다.

선행한 모든 반일운동은 그것이 민족의 리익과 자주권을 옹호하는것이기는 하였으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주권을 위한 투쟁과는 인연이 없었다. 민족주의자들은 저마다 《독립》을 웨치고 《애국》을 부르짖었으나 그들은 옛 왕조를 몽상하였거나 부르죠아공화국과 같은것을 세우자고 하였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야욕에만 눈이 어두워 혁명도 인민대중도 눈안에 없었으며 근로인민의 정권에 대해서는 념두에 두지도 않았다.

국가주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집중적표현으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해방투쟁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주권전취문제에 복종시키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 주권전취의 참다운 길을 열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을 주권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방도로 규정하시였다.

혁명적폭력, 무장투쟁은 주권전취를 위한 결정적인 투쟁형태이며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게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된다. 더구나 지난날 조선에서의 일제식민지통치기구가 조선인민에 대한 형언할수 없이 가혹한 파쑈적폭압기구였던 조건에서 조선인민은 오직 무장투쟁에 의해서만 일제를 타승하고 주권을 전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상비적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통하여 정권을 전취할데 대한 혁명적방도를 제시하시고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밝히시였으며 조선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반혁명무력을 혁명무력으로 타승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인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킨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인 동시에 주권전취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킨 가장 높은 형태의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주권전취를 위한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시였으며 정권의 사회정치적지반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혁명력량을 마련하는것은 주권전취와 정권건설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인민정권을 수립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수립된 정권을 대중적지반우에서 공고발전시킬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권의 대중적지반을 꾸리는것을 주권문제해결에서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무장투쟁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광범한 반일대중을 결속하기 위한 혁명적인 여러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여 정권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반일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것으로서 주권전취를 위한 무장투쟁을 확대시킴에 있어서와 정권의 사회정치적지반을 준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심으로써 주권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옹호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투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공화국정권의 억센 력사적뿌리는 가장 날카로운 계급투쟁, 준엄한 항일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뚫고 이룩된것으로 하여 혁명정권건설의 만년초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그 어떤 기성리론과 경험도 없는 조건에서 주체적인 정권건설의 초행길을 헤쳐나가시였으며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풀어나가시고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들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정권건설전통, 그것은 바로 우리 인민정권이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며 어떠한 사나운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공화국정권의 억센 뿌리이다.

2

주권전취와 정권건설에서 선결문제로 나서는것은 정확한 정권건설로선을 밝히는것이다. 정권건설로선을 정확히 내세워야만 혁명승리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권전취와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 널리 인입할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내놓았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8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은 공화국정권이 계승하고있는 전통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심오한 창조적사색과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새형의 정권, 인민정권에 관한 사상과 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주체적인 정권문제해결의 새로운 길을 밝히시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건설로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력사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정권형태를 독창적으로 규정한것이다.

정권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정권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따라서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정권건설에 주인답게 참가시키고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며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기존경험이나 기성공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동한 현실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혁명정권의 형태문제를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규정하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기초한 인민정권은 가장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정권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을 정권건설에 널리 참가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전혀 새로운 정권형태이다.

력사가 알지 못하던 로동계급의 혁명정권, 인민정권은 선행한 력사적시대와는 달리 혁명의 사회정치적지반이 전례없이 확대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전적으로 맞는 유일하게 정당한 새 형태의 혁명정권이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로동계급의 정권형태로서는 콤뮨과 쏘베트밖에 알지 못하고있었으며 또 이것만이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로동계급이 전취해야 할 정권형태로 인정되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특히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진행하는 나라들의 혁명의 성격과 임무, 사회경제적조건과 계급관계에 맞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형태를 가지고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할수 없었다.

1920년대말 1930년대초에 이르러 파국적인 세계경제공황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게 된 제국주의는 파시즘과 전쟁의 길로 더욱더 줄달음쳐갔다. 이에 따라 식민지인민들과 자국내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략탈은 전례없이 강화되였으며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극도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자본주의나라 근로대중의 혁명투쟁은 광범한 반제반봉건력량과 반파쑈력량을 포괄하게 되였다. 변화된 이러한 력사적조건은 주권전취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였으며 정권형태를 새롭게 규정할것을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새 형태의 인민정권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요구와 력사적조건에 맞게 로동자와 농민은 물론 광범한 인민대중을 망라한 정권으로서 그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정권이다. 인민정권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그들을 혁명투쟁에 주인답게 나서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정권의 성격과 임무를 독창적으로 밝히신것이다.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권의 계급적기초에 관한 문

계이다.

인민정권은 그 계급적성격에 있어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이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부르죠아독재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권으로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이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당면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정권이라는 자기의 계급적본질로부터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자체를 강화발전시켜 곧바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을 가진 그러한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정권이다.

따라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필수적담보로 되는것은 인민정권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국가건설분야에 구현한 로선으로서 주체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로선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전세계적범위에서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할바없이 높아진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정권건설의 보편적원칙을 새롭게 밝힌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민정권건설로선은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요구를 빛나게 해결한것으로서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위업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주체의 정권건설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에 맞는 새형의 혁명정권이 발견되였으며 로동계급의 정권건설리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압박받고 천대받던 광범한 인민대중은 이때로부터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불패의 투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 로선에 따라 유격근거지들에서 독창적인 정권형태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영함으로써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483페지)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정권건설의 업적과 경험은 공화국정권이 이어받은 전통의 또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여기서 특히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인 유격구들에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혁명정권,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심으로써 인민정권수립의 실천적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자주적인 인민정권의 참다운 원형을 마련하신것이다.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 그것은 실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고수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였으며 안팎의 원쑤들의 파괴책동을 분쇄하는 준엄한 투쟁과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누가 정권을 세워줄것을 바라거나 남의것을 통채로 따다가 《쏘베트》정부를 세우려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망동을 철저히 배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정권수립의 거창한 위업을 한몸에 안으시고 독창적

인 인민정권형태, 인민혁명정부를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을 정권을 세우는 사업에 광범히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에 인민정권을 세울수 있는 사회정치적지반을 닦으시는 한편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하는 혁명적강령, 인민정권의 당면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과업을 규정한 인민혁명정부정강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의 독창적인 형태인 인민혁명정부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적립장과 제힘으로 일떠서는 혁명적원칙에서 세우신 자주적인 정권이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 섰으며 그것은 공화국정권의 원형으로 되였다.

인민혁명정부의 수립,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첫 주체형의 혁명정권의 탄생이였으며 주체적인 혁명정권건설의 새 력사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주권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참다운 자기의 주권을 가지려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이때로부터 공화국정권의 억센 력사적뿌리가 내리게 되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랑찬 력사는 실로 이것을 시원으로 하여 기록하기 시작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정권건설의 불멸의 업적과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유격구들에서 실시한 인민적인 제반 혁명적시책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활동의 산 본보기를 마련하신것이다.

인민혁명정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반봉건적인 민주주의개혁들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유격구에 새 제도, 새 질서, 새 생활을 마련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정치적개혁을 실시하여 유격구인민들에게 인간의 참된 존엄과 정권의 주인으로서의 정치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토지개혁과 8시간로동제의 실시, 일제와 그 주구들의 재산몰수 등 일련의 경제정책을 통하여 유격구인민들을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에 힘썼다.

이와 함께 인민혁명정부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제도의 수립을 비롯한 교육문화보건정책과 적의 내부와해책동을 분쇄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으며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유격구요새화체계를 세워 유격구방위를 철옹성같이 강화하였다.

인민혁명정부의 모든 시책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것으로서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에게 복무하는 민주주의적시책들이였다.

인민혁명정부가 실시한 민주주의적시책들은 인민정권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의 창조적활동을 남김없이 발양하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정치적담보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실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정권 조직과 활동, 그 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인민정권건설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여기에는 혁명적폭력에 의거하여 낡은 통치기구와 잔재세력을 완전히 짓부신 기초우에서 가장 혁명적방법으로 진허 새로운 혁명정권을 세운 경험을 비롯하여 정권의 조직과 활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와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확고히 보장한 경험, 계급적원쑤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고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 경험, 인민혁명정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강화한 경험, 정권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한 경험 등 실로 헤아릴수 없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정권건설경험들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민혁명정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에 철저히 의거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심으로써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의 산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얻은 경험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정권활동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으로 이 정부를 운영한것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정권을 건설한 이 창조적경험은 참으로 로동계급의 정권건설위업수행에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그대로 본받고 구현해야 할 정권활동의 산 모범이며 훌륭한 교과서이다.

포악한 적의 대병력에 의한 장기적인 포위와 봉쇄속에서 그것도 끊임없이 피어린 싸움을 벌리면서 혁명정권을 세우고 4~5년동안이나 고수발전시킨 고귀한 업적과 경험, 그것은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불굴의 힘을 과시하는것이였으며 그대로가 하나의 영웅서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조선인민혁명군과 혁명적조직을 통하여 특히 인민혁명정부수립과 그 정권운영과정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새세대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시였다. 이것은 인민정권을 세우고 떠메고나갈 혁명적 골간들을 마련한것으로서 우리 나라 정권건설의 귀중한 밑천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정권의 기초를 쌓는데서 이룩하신 또하나의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고 마련하신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과 유격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고 공고발전시키신 업적과 경험,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키우신 인민정권건설의 믿음직한 혁명적골간은 공화국정권의 깊고 억센 뿌리로, 만년초석으로 되였다.

이 력사적뿌리는 국가건설의 전과정에 영원한 생기를 넣어주는 주체의 활력소이며 공화국정권의 무궁한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3

공화국정권이 이어받은 전통은 그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업적, 경험의 다면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참으로 위대하고 혁명적인 정권건설전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공화국정권의 이 전통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주체의 정권건설전통이다.

주체의 정권건설전통은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주체사판의 원리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주체의 국가론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는것으로부터 정권의 수립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권건설의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그리고 근로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주체시대 정권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주체의 전통이다. 바로 여기에 공화국정권이 이어받은 전통의 본질적특성이 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의 정권건설전통은 정권건설의 근본문제로부터 실천적방도에 이르기까지 혁명정권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으로 완벽한 해답을 준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공화국정권이 이어받은 주체의 정권

건설전통에는 주체시대 정권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지도사상과 정권건설의 근본방향, 근본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여있다.

또한 거기에는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리론적으로 심오히 해명되여있을뿐아니라 정권건설의 실천적경험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공화국정권이 이어받은 전통은 이처럼 독창적인 정권건설사상으로부터 정권활동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이르는 정권건설의 모든 사상정신적재부를 포괄적으로 담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주권전취와 정권건설을 위한 전로정에 결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정권건설의 백과전서이다. 여기에 또한 이 전통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과 위대성이 있다.

주체의 정권건설전통의 창시, 이것은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의 첫 시원을 장식하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이며 로동계급의 정권건설력사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영원히 빛날 혁명적재부로 된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인민정권의 깊은 뿌리에서 솟아나고 자라난 혁명정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항일의 나날 몸소 인민정권의 터전을 마련하시였을뿐아니라 해방후 그에 기초하시여 인민정권을 수립하시였으며 그것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완성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신 첫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주체적정권건설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첫 주체형의 혁명정권이였던 인민혁명정부의 직접적계승이며 완성이였다.

공화국정권은 그 창건의 력사적과정으로 보나 그가 계승하고있는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보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정권이며 그 지도사상과 력사적사명으로 보아 철두철미 새형의 정권, 주체형의 정권이다.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빛나는 전통에 의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명맥, 주체의 명맥으로 련결된 정권이다. 공화국은 그 깊은 뿌리로부터 푸르싱싱 줄기와 잎이 자라나기까지 륭성번영하는 전성기에 이르는 온 력사적과정이 이 한줄기의 혈맥, 주체의 혈통으로 이어져있다.

이 빛나는 전통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때에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 민주개혁을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내고 공화국정권을 가장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사회주의정권으로 굳건히 다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가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거연히 솟아오른것도 바로 이 빛나는 전통을 뿌리로 삼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빛나는 전통, 주체의 명맥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공화국정권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필수적담보이다.

공화국정권의 뿌리를 마련하여주시고 주체조국의 영예를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이 세상 끝까지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하는것은 주체의 조국에서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적신념이며 혁명적의지이다.

우리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공화국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는 공화국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확고한 물질적담보

리 종 옥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는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커다란 자랑을 안고 공화국창건 30돐을 영광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고있다.

이 뜻깊은 경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몸소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시였으며 우리들에게 오늘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지난 30년동안 새 사회 건설과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이 자랑찬 위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민족적 번영과 융성의 튼튼한 물질적담보인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것이다.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 번영과 융성의 최성기에 들어설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빛나게 지키면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불과 3분의 1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공화국이 이처럼 위력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에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시여 민족적 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 진보와 문명에로의 일대 비약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다.

1

자립적민족경제는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물질적담보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민족적독립과 자주성을 지키고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하며 경제적자립을 보장하려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자립을 확고히 실현하여야 자기 민족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다른 나라의 정치적압력을 추종하게 되며 나아가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엄도 지킬수 없게 된다.

경제적자립은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은 경제적자립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여야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할수 있다.

또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봉쇄 정책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경제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립적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수 없고 건국도 할수 없고 또한 살아갈수도 없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124~12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에 벌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국가건설과 국가살동의 전기간에 걸쳐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경제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자기의 경제적힘을 강화하여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우리 시대 발전의 객관적요구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시대 발전의 이러한 요구에 맞게 자기 나라 경제건설을 중심에 놓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주로 자기 인민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의 내용과 구성, 그 실현방도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이리하여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애로와 난관들을 주동적으로 풀고 자체의 경제적힘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진여 새롭고 독창적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적요새와 함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민족경제가 되도록 쌓는것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며 과학기술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복리를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게 한다. 만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자립성과 종합성을 띠도록 쌓지 않고 《생산전통》이 있다고 보는 일정한 부문만 발전시키거나 대외시장을 위한 《전문화》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나라의 자연부원과 생산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되며 인민경제의 균형을 자립적으로 맞추지 못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와 인민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 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경제건설의 근본방향으로 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향이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적립장에서 자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동적으로 꾸려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 밝혀졌으며 과거사회가 남긴 유물인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근본방도가 뚜렷이 밝혀졌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경제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우리 시대 혁명적인민들의 투쟁과 로동계급의 경제리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경제건설강령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정권은 지난 30년동안 시종일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차게 투쟁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투쟁로정,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로정이였으며 위대한 비약과 승리로 빛나는 위훈의 력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정권은 창건첫날부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일제식민지통치가 남긴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없애며 자체의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시 중단되게 되였으며 우리는 전후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을 새로 시작하지 않을수 없었다.

전후 우리 나라의 형편은 이루다 말할수 없이 어려웠다. 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야수적만행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여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으며 인민생활도 극도로 령락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쉬임없이 감행하였다. 실로 나라에 조성된 형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형편과 앞날의 발전전망을 깊이 통찰하시고 독창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성된 난국을 뚫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

떠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과업을 다같이 풀어나갈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내놓았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08페지)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부문내부 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도록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옳게 규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중공업을 먼저 건설하고 다음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거나 반대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와 같이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자본을 축적한 다음 중공업을 건설하는 방법과는 달리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다같이 빨리 발전시키는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공화국정권은 중공업공장들의 복구와 개건 및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면서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튼튼한 중공업기지를 건설할수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다. 이리하여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의 축성과 인민생활의 당면한 요구를 옳게 결합시킬수 있었으며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적중공업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은 나라의 기술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체계의 확립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공업화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아직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따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체계를 일떠세울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기술혁명 특히 3대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빨리 해방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길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민족경제의 기술경제적자립성과 그 현대화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었으며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눈부신 발전속도를 창조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재더미를 헤치고 모든것을 새로 일떠세워야 하는 간고한 투쟁인 동시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반대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과의 심각한 투쟁과정이였다.

제힘을 믿지 못하고 큰 나라들만 쳐다보는데 습관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현실과 혁명발전의 요구는 보지 않고 남이 하는 소리만 기

계적으로 따라외우면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덮어놓고 반대하여나섰다. 완고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인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기계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는다.》고 떠벌이면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의 창설을 집요하게 반대하였으며 나중에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반혁명적인 음모활동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이러한 반당반혁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창설한 자체의 공작기계생산기지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뜨락또르와 자동차, 불도젤과 굴착기를 비롯한 현대적기계설비들이 련이어 생산되였으며 기술간부대렬이 끊임없이 자라나 나라의 경제를 제 손으로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공화국정권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들을 이겨내고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으며 가장 빠른 길을 따라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 일떠선 자립적민족경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인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열매이다.

원래 사회주의경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움직여나갈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국가가 사회주의경제를 중앙집권적으로 장악지도하지 않는다면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경제건설에 구현할수 없고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 더우기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모든 경제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루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실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창건첫날부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계획적인 지도관리에 커다란 힘을 넣어왔으며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공화국정권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모든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한고지를 점령한 다음에는 련이어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서는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계속 개편하며 완성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59페지)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은 국가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국가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고쳐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었으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

였다.

우리의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공화국정권은 일군들로 하여금 경제관리에서 개인의 독단을 배격하고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술지도와 생산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며 자재를 우가 책임지고 아래에 날라다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의 지도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는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민주주의가 강화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주관주의와 독단,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극복할수 있게 되였으며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또한 물질기술적인 보장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인민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되였으며 랑비현상을 반대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릴수 있게 되였다.

공화국정권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에 대한 국가적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며 관료주의는 이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이다.

관료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적지도관리도 개선할수 없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몸소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의 복잡한 시기에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우리 혁명이 처한 구체적실정과 나라의 긴장한 정세를 알려주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위한 불씨를 지펴주심으로써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발단을 열어놓으시였으며 비바람도,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국의 공장과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여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여주고계신다.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모든 일군들이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였으며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갔다.

이리하여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었으며 국가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었다. 국가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건설에서는 막혔던 고리가 성과적으로 풀려나갔으며 자립적민족경제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실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

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공화국정권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열매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지난 30년동안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참으로 빛나는 승리와 귀중한 경험들을 쌓아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주체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경제적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 강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4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한 결과 강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체계가 창설되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의 끝없는 융성과 번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지난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속에서 허덕이는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주체의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오랜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적 대번영과 륭성의 최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민족경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질적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면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인민경제 전반적부문들이 다같이 빨리 발전하고있지만 특히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공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우리의 공업은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된 1961～1970년 사이에 매해 평균 12.8%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6개년계획기간에는 16.3%라는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전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었으며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4년 8개월에 완수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공업생산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한 결과 해방전 1944년에 한해동안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지금은 단 5일동안에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제2차 7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 상반년공업생산계획도 훨씬 넘쳐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최근년간 수많은 나라들이 연료난, 동력난으로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경제발전의 이러한 높은 속도는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위력한 중공업을 건설하여놓은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중공업은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고있으며 모든 기간적부문들을 다 갖추고있다.

우리의 기계공업은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공작기계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해방직후 락후한

절삭기계조차 몇대 되지 않아 부속품도 제대로 깎지 못하고 간단한 농기구마저 생산하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100톤급자동차와 대형뜨락또르, 전기기관차를 생산해내고있으며 300마력불도젤과 10립방메터대형굴착기, 5,000메터시추기와 같은 현대적채굴설비들, 5만크바짜리 발전기와 20만크바짜리 대형변압기와 같은 대형동력설비들, 1만 5,000～2만톤짜리 대형선박들을 비롯한 대형기계설비들과 특수정밀기계설비들을 훌륭히 생산보장하고있다. 또한 야금공장설비, 세멘트공장설비, 경공업공장설비를 비롯한 현대적공장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해내고있으며 생산의 자동화와 원격조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동화 기구와 요소들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기계공업과 함께 전력공업,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기간적중공업부문들도 튼튼히 꾸려졌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곳곳에 크고작은 광산, 탄광들이 개발되고 대규모 화력발전소들과 수력발전소들이 수많이 건설되여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기둥인 금속공업이 또한 빨리 발전하여 해방전의 수십배에 달하는 400만톤이상의 강철을 생산해내고있으며 여러가지 규격의 2차금속가공제품과 유색금속, 희유금속, 유색압연제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우리의 화학공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경공업원료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으며 건재공업은 세멘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해내고있다.

중공업뿐아니라 경공업이 또한 빨리 발전하여 소비품의 거의 전부를 수입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여러가지 천과 일용품, 식료가공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완전히 충족시키는 현대화된 농촌경리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수리화체계가 세워지고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짓게 되였으며 주체농법의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여 해마다 만풍년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나라에 건설된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공화국의 경제적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였을뿐아니라 나라의 정치적자주성과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자주성과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484페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짐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정치적자주성을 더욱 튼튼히 견지할수 있게 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우리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 련계를 맺고있으며 국제적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면서 국제혁명위업에 더욱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위력한 자립경제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도 물리치고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서 생산한 쌀로 넉넉히 먹고 우리가 지은 집에서 살면서 우리의 천으로 옷을 해입고 자체로 만든 일용품을 쓰고있으며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고있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지고있음으로써 우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착취사회가 남긴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여 주체조선의 위용을 빛내일수 있었다.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체계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비상히 높이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결과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는 사회주의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고있으며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서 그 국제적위신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공화국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성과들은 나라의 독립과 자주성을 보강하고 민족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 특히 정치적독립을 이룩하고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참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간고한 시련과 투쟁 속에서 창조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시대의 찬란한 기념비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길을 따라 걸어온 30년의 로정은 실로 투쟁과 승리로 빛나는 자랑찬 나날이였으며 이 땅우에 후손만대의 륭성과 번영의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쌓아올린 영광의 행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력사의 새시대를 창조해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민으로 되였으며 공화국의 기치밑에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움으로써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확고한 물질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제2차 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인 경제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지름길을 밝혀주고있는 독창적인 경제건설방침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를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침으로써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점령하고 주체조선의 위력과 영예를 다시한번 빛내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정 준 기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주체의 조국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지난 30년은 안팎의 원쑤들과의 투쟁속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끊임없는 투쟁과 창조의 력사이며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주동적으로 뚫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온 자랑찬 투쟁의 력사이다.

우리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모진 파쑈적전횡과 류혈적탄압이 그칠새 없이 감행되는 그 엄혹한 환경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조국통일의 기치로 삼고 굴함없이 싸워왔다.

참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인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기치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이 민족적해방과 통일독립을 위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참다운 인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오랜 기간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으며 마침내 자기 손에 정권을 틀어쥐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37페지)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국가주권을 쥐지 못한 인민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못가지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된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손에 국가주권을 튼튼히 틀어쥐여야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것이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쓰라린 망국노의 생활을 강요당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주권을 쟁취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었다.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포악한 일제식민지통치기구를 청산하고 참다운 인민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주권문제해결의 귀중한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앞에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그러나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커다란 장애에 부닥치게 되였으며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유린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의사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군정》을 선포하고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을 영원히 분렬할 목적밑에 남조선에서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조선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제의 민족분렬정책과 신식민주의정책의 산물이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의 조작을 계기로 미제의 조선침략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 민족앞에는 분렬의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헤아리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국적범위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국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 투쟁은 전체 조선인민을 한편으로 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다른편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이였다.

이 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전체 조선인민의 참다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정권형태의 발견으로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이며 주체혁명위업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슬기로운 인민으로,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어깨겯고 나가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탄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단일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가지고있을뿐입니다. 조선민족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91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 민족의 절대적인 신임과 존경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전체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의 광복과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시여 참다운 인민의 국가를 세우시고 남북조선 전체 인민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그이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추대하고 그이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여왔으며 위대한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 민족의 피타는 갈망을 안고 탄생하시여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추대되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모시고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국가사업에 참가시키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적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참다운 인민의 국가이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오직 공화국정부만이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있다. 남조선《정권》은 결코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할수 없으며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에 불과하다.

공화국정권이 애국적이고 자주적인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면 남조선《정권》은 매국적이고 예속적인 반동《정권》이다.

공화국정권은 오랜 기간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외래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운 애국적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구성되고있다면 남조선괴뢰정권의 력대통치자들은 례외없이 미일반동들이 길러낸 앞잡이들이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이다.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세운 정권이며 인민들의 자각적인 열성과 투쟁에 의하여 공고발전되고 그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의사에 맞게 세워지며 철저히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고있다. 이와 반면에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에 의하여 음모적방법으로 조작되고 하나에서 열까지 미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있다.

공화국정권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면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다.

그러므로 전체 남북조선인민은 공화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있으며 공화국의 기치따라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고있다.

미제의 허수아비로 조작된 남조선괴뢰정권은 세상에 나타난 첫날부터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배격을 받아왔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한 첫날부터 미제와 그 동맹자들의 끈질긴 고립봉쇄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는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적인 지지를 받았다. 창건 30돐을 맞이하는 오늘 공화국은 세계 근 100개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맺고있으며 그 대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있다. 특히 지난날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남조선괴뢰들과만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던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조선괴뢰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무시하면서 공화국과의 국가관계를 맺는 길로 나오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에서 정식 성원국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 진보적인 모든 나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고있으며 세계절대다수 나라들과 국가적관계를 맺고있는 조선인민의 당당한 대표자로서 끊임없이 륭성발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전체 인민의 통일되고 단결된 력량에 의거하고있으며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인 민족경제토대에 기초하고있는 강력한 정권이다.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조선인민의 참다운 조국이며 유일한 합법적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의 기치이며 미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힘의 원천이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승리의 기치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30년간 우리 인민의 지상과업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첫날부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23페지)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공화국정권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최대의 당면과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처럼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생명과 같은것이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이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적자주권이 튼튼히 설 때라야만 비로소 구현된다. 외래침략세력에 의하여 예속된 민족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지난날 일제통치의 사슬에 묶이였던 우리 민족이 뼈에 사무치게 겪은 교훈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결코 그 민족국가의 어느 한 부분이나 일부 지역 인민들에게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다. 령토와 민족의 일부가 외래침략세력에 짓밟혀있는 한 온 민족의 자주권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외세를 몰아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진 조건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내쫓고 조국을 통일해야만 우리 인민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성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 민족의 리익을 대표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로서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

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통찰력으로 조국통일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을 분석하시고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방침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최대한 앞당겨실현할수 있는 현명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갈라진 첫날부터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여왔습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27페지)

자주적, 민주주의적 원칙과 평화적방법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으로서 통일문제해결에서 조선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온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침이다.

원래 조선인민은 미국이 생겨나기 훨씬 전인 아득한 옛날에 벌써 아세아의 문명을 자랑하던 인민이며 그 재능과 영웅성에서 세계의 이목을 끈 민족이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던 일본제국주의도, 세계제패를 망상하던 미제국주의도 때려눕힌 영웅적인민이며 세계사람들이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가진 영예로운 인민이다.

이렇듯 슬기롭고 영예로운 우리 인민이 다름아닌 자기 나라 문제를 절대로 외세에 맡길수는 없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다. 조선문제는 오직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서만 해결될수 있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방안들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창건첫날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조건에서 민주주의적인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사와 민족의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공화국정부는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통일문제해결의 이 기본방도를 당장 받아들일수 없다면 통일을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써 남북련방제라도 실시하자는것을 제기하였다.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남북련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조선《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북과 남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조절하자는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끊임없는 투쟁에 의하여 전반적정세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통일 념원과 지향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리하게 발전하는 안팎의 정세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남북의 동결상태를 깨뜨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1971년 8월 6일에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세상에 선포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

한 전체 조선인민의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유리한 정세를 통일위업실현에로 발전시켜나가시기 위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내놓으시여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기틀을 마련하시였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구현한것으로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과 남의 공동의 행동강령이며 온 민족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애국의 기치이다.

공화국정부는 남북공동성명에 규정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을 성실히 지키며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그러나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과 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고 북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던 저들의 망상이 파탄되자 온 민족앞에 서약한 원칙들을 공공연히 짓밟으면서 자주대신에 외세의존의 길로, 평화통일대신에 전쟁의 길로, 민족적대단결대신에 분렬의 길로 더욱더 나갔으며 《두개조선》을 정책화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시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층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5대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공화국정부는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가 지난 30년간 조국통일을 위하여 내놓은 방안은 무려 150여차에 달하며 이 방안들에는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적중앙정부의 수립으로부터 남북군대의 축소와 평화협정의 체결, 경제문화교류와 인사래왕, 서신거래에 이르기까지 실로 크고작은 모든 통일방안들이 다 들어있다.

공화국정부는 이처럼 조국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적극 투쟁하였을뿐아니라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동포애적인 제안들도 계속 내놓았다. 이 제안들에는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에게 10만석의 구호미와 막대한 구제물자를 보내주며 남조선의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많은 쌀과 천, 신발 등을 보내주며, 수십만의 류랑고아들을 모두 공화국정부가 넘겨받아 키우며, 학비난에 시달리는 남조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줄데 대한 문제 등 동포애적인 구원의 손길이 뜨겁게 미쳐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준엄한 시련도, 안팎의 원쑤들의 전쟁도발과 민족분렬영구화 책동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굽힘없이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왔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침과 그 관철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굽힘없는 투쟁에 무한히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은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전후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더욱 억세게 싸웠다.

1960년 4월에 일어난 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쌓이고쌓였던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이였다. 이 대중적인민봉기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부는 무너지고말았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큰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대중적투쟁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인민대중이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그 어떤 억압자들도 때려부실수 있다는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였다.

4월봉기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기세는 더욱 높아지고 이 투쟁은 《통일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밑에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에 큰 위험을 느낀 미제는 반동적인 군사깡패들을 내세워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로골적으로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막을수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대중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으며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투쟁과정에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실패도 여러번 겪었으나 그들이 당한 희생과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투쟁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창건을 가져왔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남조선인민들은 6.3봉기와 1965년 8월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반제반독재구국항전을 세차게 벌렸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이 최악의 절정에 이른 오늘에 와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있으며 투쟁속에서 여러가지 대중조직을 내오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속에 확대하면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그들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의 철폐, 체포구금된 민주인사, 청년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의 즉시석방, 로동3권과 근로자들의 생존권보장 등 여러가지 구호와 요구조건을 내놓고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지난 기간 그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의 혈로를 헤쳐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열렬히 흠모하고 신뢰하는 굳은 신념과 희망과 투쟁의 등대인 공화국의 광휘로운 기치가 있었기때문이다.

해빛을 쇠사슬로 묶을수 없고 강물을 총칼로 막을수 없듯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의 정을 막을수 없었다.

원쑤들의 탄압이 더욱 악랄해지고 불행과 고통이 심해갈수록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더욱 열렬히 흠모하고 신뢰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힘을 얻고 희망을 키우며 억세게 싸워왔다.

남조선인민들은 항쟁의 거리와 마을, 지하와 산중, 감옥과 교수대에서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준엄한 현선의 언덕을 넘고 넘어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마르며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인화같은 충성심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투지로, 필승의 신념으로 더욱더 굳어지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수령님의 조국통일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화국정권이 있음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으며 온 민족의 환호소리에 삼천리 온 강토가 들끓을 통일의 그날을 힘차게 앞당겨오고있는것이다.

3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한강토를 둘로 갈라놓았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들씌운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오늘에 와서는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꾸며내고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있으며 조선의 영구분렬을 추구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미쳐날뛰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23~124페지)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은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전조선과 나아가서 아세아에 대한 침략목적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미제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다.

미제는 제2차대전후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나 그것이 실패하게 되자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는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꾸미였다. 미제의 《두개 조선》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함으로써 놈들이 침략목적을 어떻게 하나 이루어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파쑈독재를 휘둘러 남조선에서 영구분렬체제를 강화하기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놈들은 《국민총화》의 간판밑에 영구분렬의 사회정치적지반을 꾸리며 《실력배양》의 구실밑에 군사적태세를 강화하고 《반공》의 구호밑에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며 남조선을 외세에 동화시켜 북과 남의 민족적공통성을 말살하는 《이방화》, 《이민족화》의 민족반역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면서 《미일한운명공동체》론까지 떠들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민족의 영구분렬을 위한 파쑈체제, 대결체제, 예속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 합법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을 《정책》으로 세상에 공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책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란폭한 유린일뿐아니라 갈라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게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위업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영구분렬책동을 막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셔야 하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원칙적립장은 우리 나라가 절대로 분렬되여서는 안되며 우리 민족이 결코 통일문제를 양보할수 없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의 표시이다.

오랜 력사를 두고 한강토우에서 한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오늘에 와서 둘로 영원히 갈라진다는것은 공산주의리념으로 보나 민족주의리념으로 보나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하며 절대로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서는 안된다.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통일하는것,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부동하고 일관한 립장이며 추호도 어길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통일의 문을 여는것이다.

민족의 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우리 나라에 대한 미일반동들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야 하며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차게 벌리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민족적념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타도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외세의 간섭이 없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실제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통치가 청산되고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이 정권을 세우게 되면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민주주의력량은 얼마든지 련합할수 있다.

통일의 기치아래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력량, 해외의 모든 애국력량이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반드시 파탄되고 통일의 문은 열리게 될것이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30년간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애로를 주동적으로 극복하면서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이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조국통일 로선과 방침을 밝히시고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결과이다.

온 민족의 통일념원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그이의 탁월한 조국통일방침과 세련된 령도가 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통일강령을 관철해나가고있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그러기에 지금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으며 자기들의 참다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우러러보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아래 갈라진 조국을 반드시 통일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안겨주는 영광스러운 조국

한 덕 수

모든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주체조국의 영광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민족적대경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끝없는 감격과 기쁨속에서 맞이하고있다.

9월의 민족적명절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기 위한 《100일전투》에 힘차게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에 발맞추어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70일애국운동》을 줄기차게 벌려 공화국공민의 드높은 애국적기개를 세상에 시위하고있다.

공화국창건 30돐 대축전장에로 한결같이 경축의 뜨거운 마음 줄곧 달리고있는 재일동포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사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감에 휩싸여있으며 자신들을 망국의 처지에서 해방하여주시고 주체조선의 떳떳한 해외공민된 자랑과 긍지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끓어넘치고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절절한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우리 민족사와 인류해방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주권은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여야만 나라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강도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긴탓으로 식민지노예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강요당하여왔다.

조선이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그 암담한 시기에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몸소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조국을 광복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하고 빠어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시여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마련하시였으며 이 빛나는 업적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에 이룩된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에 기초하시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속에서 1948년 9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주체형의 인민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자신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입니다. 세기적인 압박과 천대와 암흑과 고난 속에서 살아온 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강유력한 무기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195폐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권을 행사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우리 인민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떳떳한 자주독립국가의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이것은 근로인민을 중심에 놓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인민주권건설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인류리상사회에로의 력사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게 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학정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불굴의 투지를 안겨주었다.

또한 공화국의 창건은 착취와 빈궁이 지배하던 식민지아세아에 솟아오른 첫 사회주의국가의 탄생으로서 세계피압박인민과 민족들을 반제자주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한없이 고무하였다.

인민의 참다운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모든 해외동포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사회력사적지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지난날 재일동포들은 바로 주권이 없는탓으로 하여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무참하게 짓밟혔을뿐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여지없이 빼앗겼다.

일제는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 시기 전시로력부족을 타개할 목적밑에 조선의 청장년들과 부녀자들까지도 야수적방법으로 일본에 끌어다 그들을 례외없이 탄광과 광산, 토목공사장과 군사시설건설장 등 가장 위험하고 고된 로동부문에 투입하여 마소와 같이 혹사하였다.

일제는 우리 동포들이 조선말을 하고 조선옷을 입으며 조선 성과 이름을 쓰고 조선사람답게 사는것조차 《죄》로 몰았으며 야수의 본성 그대로 동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치떨리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1923년 9월 간또대지진때에 1만여명, 1940~1944년간에 일본 전국탄광에서 6만여명, 꾸릴렬도에서 5천여명을 비롯하여 일제가 재일 조선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수는 이루다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일제시기 재일동포들이 겪은 수난의 력사는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의 보호를 바랄길 없는 해외교포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는 피의 교훈으로 아로새겨져있다.

나라 잃은 망국노의 비참한 처지에서 모대기던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념원은 조국의 독립이였으며 해외동포들도 그 따사로운 품에 포근히 안아보살펴줄 진정한 인민정권의 수립이였다.

이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강도 일제를 쓸어눕히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해방된 조국강우에 주체형의 사회주의국가인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지난날 망국노로서 갖은 멸시와 천대속에 피눈물의 력사를 엮어오던 재일동포들도 공화국의 창건으로 인민정권의 보호밑에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공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공화국의 창건은 해외동포들에게 이국땅에서 오랜 세월 강요당한 《상가집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처지에 종지부를 찍고 온 세상에 선진국가공민된 자랑을 떨치며 희망찬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력사의 새 출발을 알리는 긍지높은 선포였다.

하기에 조국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웨침소리가 메아리치고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질 때 한피줄을 이어받은 재일동포들도 흥분과 감격으로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높이 추켜들고 일본땅 거리거리를 누비며 공화국창건을 열광적으로 축하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내인민들과 함께 해외동포들에게도 나라의 주인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고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따뜻이 보살펴주는 모든 조선공민들의 진정한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모든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이며 해외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80폐지)

나라의 자주독립은 해외교포들에게도 주권국가공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여준다. 그러나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이라고 하여 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누릴수 있는것은 아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이주민들이 주권국가를 조국으로 가지고있으면서도 정치적권리를 고수하지 못하고 민족적 모욕과 멸시, 차별과 학대를 받으며 거주지사회에 동화되여 민족성까지 잃어버리고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주권국가의 해외공민들이 정치적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가 못받는가 하는것은 그 정권이 어떤 시책을 실시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해외교포들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실시하는가 하는것은 해외교포문제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해외교포들의 운명과 관련된 이 중대한 문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주체적인 해외교포문제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나라 인민정권의 정책과 시책들에 구현하시여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조선동포문제가 본질상 제국주의침략자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라는것을 밝히시였으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해외교포문제를 언제나 조국의 광복과 융성발전을 위한 위업과 결부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해외동포들이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비록 이국땅에 살아도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입

무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사상에 기초하시여 해외교포운동의 애국애족적인 성격과 기본과업, 그를 위한 투쟁방침과 수행방도 등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해외교포문제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여 재일동포들에게 동포애적인 국가시책들을 실시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무엇보다도 재일동포들에게 인민주권의 주인으로서의 존엄있는 지위와 권리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비롯하여 매 시기마다 제시되는 국가 정책과 정령,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하신 강령적교시들과 외국인사들과 하신 수많은 담화들에는 재일동포들에게 공화국공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여줄데 대한 립장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반영되여있다.

해외동포들도 국내인민들과 같이 주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는 공화국의 혜택에 의하여 각계층 재일동포대표들이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높은 영예를 지니고 나라의 정사에 직접 참가하게 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을 해치려는 그 어떤 책동에 대해서도 그것을 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인정하고 제때에 단호한 국가적조치를 취하여 반동들에게 철추를 내리고있다.

내외반동들이 범죄적인 《한일조약》조작놀음을 벌려놓고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를 정치적흥정의 미끼로 삼으려고 날뛰던 시기인 1963년 10월 9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을 제정, 공포케 하시여 재일동포들의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공화국이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옹호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원쑤들의 탄압과 박해 책동이 감행될 때마다 정부성명을 비롯한 공화국 해당기관의 성명을 발표하고 신문, 통신, 방송 등을 통하여 세계인민들의 면전에 그 반동성을 낱낱이 폭로규탄함으로써 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어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해외교포들이 자주독립국가공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애국위업의 주인으로 떳떳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자기 조국의 지도사상을 받들고 그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해외공민조직을 가져야 한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바로 해외교포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리익을 옹호하는 강위력한 공민조직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자기 나라 혁명위업,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지난 시기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재일 조선공민들은 비록 일본땅에 살고있지만 자기 조직을 따로 가지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공화국의 진정한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무어주시였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정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고 단합된 력량으로 민족적권리를 지키며 조국의 통일과 공화국의 융성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주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한 획기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국땅에서 자라는 청소년학생들, 지난날 사회적으로 온갖 수모와 천대를 받아온 동포녀성들,

상공인들, 교육자, 과학자, 언론인, 작가예술인, 종교인 등 각계층 재일동포들도 자기의 단체를 무어 총련산하에 하나의 애국력량으로 뭉쳐나가도록 보살펴주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가지가지의 국가적영예를 베풀어주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수많은 활동가들과 동포들에게 나라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자랑높은 국가수훈과 명예칭호를 수여해주고있다. 이것은 재일동포들이 비록 해외에 살고있지만 공화국의 참된 주인으로서 조국인민들과 함께 모든 국가적영예를 지니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배려의 뚜렷한 표시이다.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교육사업은 해외교포들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다.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욱 그러하다.

재일동포들은 병들대로 병들고 썩을대로 썩은 반동적사상문화가 판을 치는 어지러운 자본주의이국땅에 살고있으며 그 구성에서도 일본에서 태여나 그리운 조국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채 진창속에서 자라는 새세대가 세월이 흐를수록 많아지고있다.

엎친데 덮치는격으로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이 《재일조선인은 장차 일본인으로 동화될 운명에 있다.》고 떠벌이면서 악랄한 민족동화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

실로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교육사업은 조선사람의 얼을 지키느냐 아니면 잃느냐, 민족의 대를 잇느냐 영영 끊기우느냐 하는 애국운동의 사활적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이 민족을 도로 찾고 민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민족적애국사업이라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으며 동포자녀교육문제를 공화국정부의 해외교포정책의 중요한 자리에 놓고 그것을 빛나게 해결하여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국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 복구건설을 다그치던 어려운 시기였던 1957년 1월 몸소 공화국의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항목을 내오게 하신 때로부터 오늘까지 20여년동안 68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무려 248억 6천 282만 7천 33원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세계최고봉의 주체예술을 보고싶어하는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세계만방에 그 이름 떨치는 만수대예술단과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을 일본에 보내주시여 우리 동포들에게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더없는 행복감과 민족적긍지감을 가슴뿌듯이 안겨주시였다. 그뿐아니라 재일 조선예술인들을 조국에 거듭 부르시여 주체예술을 배우게 하여주시고 친히 그들로 《금강산가극단》을 무으시여 60만 재일동포들에게 귀중한 사랑의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재일동포들의 안정된 생활과 기업활동을 위하여 크나큰 배려와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다.

공화국정권은 조국땅에 일떠선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여 재일동포들이 기업권과 생활권을 굳건히 옹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 경제활동무대를 넓혀나가도록 필요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조국은 재일동포들이 태풍과 지진 등으로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를 입을 때마다 하루빨리 그 피해를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막대한 원호금과 위문전보까지 보내주는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뻗쳐주고있다.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사업은 어제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일동포들의 쓰라린 이국살이를 끝장내기 위한 공화국정권의 동포애적 시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1959년 12월 14일, 첫 귀국선이 니이가다항을 떠난 때로부터 20년, 90%이상이 남조선에 고향을 둔 10만명에 달하는 재일동포들이 피눈물나는 이국살이를 끝장내고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 《세기의 인도주의사업》으로 세계를 경탄시킨 이 력사적인 사변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주체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해외동포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마련해주는 공화국정권의 인민적시책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이다.

공화국정부는 재일 조선공민들이 오래동안 강요당하던 일본섬안에서의 감금상태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벗어나 국교관계가 없는 조건에서도 국제법에 공인된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다.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 조선공민들은 사회주의조국에 수없이 다녀오고있으며 공화국대표단성원으로, 위신있는 총련대표단으로 가슴펴고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마음껏 활약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정부의 주체적인 해외교포정책과 육친적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살아서 설곳 없고 죽어서 묻힐곳 없던 재일동포들이 오늘은 그 어느 나라 해외교포들도 지닐수 없는 주체위업의 주인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리며 떳떳이 살아나가고있다.

정녕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60만 재일동포들의 참된 행복의 보금자리이고 희망의 등대이며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안겨주는 유일한 어머니조국이다.

3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은 지난 기간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애국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안팎의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이 걸음마다 뒤따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재일조선인운동방침을 옳게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동포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 조국과 민족 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김일성주의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총련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결정적고리이다.

총련은 시종일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였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였으며 모든 애국과업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벌려나가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그리하여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참다운 공화국해외공민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총련은 조직안에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차넘치

는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해외교포조직으로 튼튼히 꾸려져 그 어떤 모진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지난 기간 공화국의 기치밑에 총련이 이룩한 성과들가운데서 가장 자랑차고 빛나는 성과이다.

사회주의조국은 모든 해외동포들의 참된 삶과 행복의 터전이다. 공화국해외공민들이 목숨보다 더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적극 옹호하는 것은 신성한 임무이며 영예이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한편 공화국에 대한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비방중상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그리하여 지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융성발전에서 자기들의 행복을 찾고 희망을 꽃피우며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옹호해나가고있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는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리이다. 특히 재일동포문제로 말하면 지난날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생겨난것만큼 재일동포들에게는 응당 민주주의적민족권리가 완전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여야 한다.

총련은 모든 재일동포들이 공화국해외공민된 영예와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빛내이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에 대한 원쑤들의 온갖 박해유린행위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면서 이미 쟁취한 성과를 확대공고화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왔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의 품속에서 떼여내려는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치고 공화국국적을 굳건히 지키며 공화국공민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하는 한편 일본반동들의 민족차별정책을 반대하는 동포들의 조직된 힘으로 생활권과 기업권을 옹호해왔다. 특히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조국에 의거한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 결과 동포상공인들이 일본경제의 그 어떤 파동에도 말려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기업활동을 안전하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해외교포교육사상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 구현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큰 힘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총련은 일본땅 곳곳에 초급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세워놓고 동포자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참다운 공화국해외공민, 연련한 김일성주의자로 키워내고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총련앞에 나선 애국과업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분렬된 조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재일동포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없다.

총련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마련하여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공명정대한 조국통일 방침과 방안들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는 한편 민족의 영구분렬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단체소속에 관계없이 그들을 통일구국의 기치밑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특히 총련은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적극 벌려 일본땅에. 통일애국력량을 마련해놓았다.

총련은 동포대중의 조직된 힘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

돌아주었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총련은 지난 기간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데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을 비롯하여 정기간행물들을 영국말, 프랑스말, 에스빠냐말, 아랍말, 일본말로 출판하여 세계 140여개 나라들에 보급함으로써 일본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주의와 사회주의조국의 눈부신 발전모습,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널리 알리고 그들속에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동정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지난 30여년동안 간악한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의 파쑈악당들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변절자들,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앞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리의 투쟁은 참으로 간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며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할수 있은것은 오로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 공화국정부의 동포애적시책이 있었기때문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 해외교포들의 재생의 은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따르며 수령님께서 이끄시고 빛내이시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것이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 드높이 총련조직을 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로, 그 어떤 시련도 뚫고나갈 강위력한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으로 반석같이 꾸리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견결히 고수하여 굴함없이 전진할것이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대로 동포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대중을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조선사람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들과 그 자녀들이 공화국공민답게, 조선의 참된 아들딸답게 떳떳이 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보람차게 이바지하도록 할것이다.

조국의 통일은 모든 해외동포들을 포함한 5천만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대의 과업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통일조국의 기치밑에 민족적단합을 강화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을 배방으로 지지성원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거부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안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힘찬 전진은 그 어떤 세력도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

조국통일이 이룩되고 그를 가로막으려는 원쑤들이 멸망하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력사의 진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조선의 번영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전민족적투쟁의 한길우에 계속 충성의 붉은 꽃을 피우며 영광스러운 조국과 더불어 대를 이어 영생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다

허 담

오늘 우리 인민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축원속에서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필승불패의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이하게 된것을 더없는 행복과 자랑으로 여기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세우심으로써 식민지동방에 첫 로동자, 농민의 나라, 사회주의 새 조선이 찬란히 솟아오르게 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의 크고작은 모든 나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나설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30년간 우리 인민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년을 걸려서도 이루어놓을수 없었고 상상할수 없었던 세기적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고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리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서 그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오늘 세상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선을 찾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매일과 같이 5대륙에서 오는 수많은 외국의 벗들로 흥성거리고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보내는 지지와 련대성의 힘찬 목소리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오늘처럼 조선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 인민이 조국의 명성과 영예를 떨치고있으며 전반적 국제정세와 세계혁명발전에 무게있는 영향력을 미친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국제적권위로 하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주체사상을 대내외정책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여 이룩한 자랑찬 성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되였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경사스러운 9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공화국의 기치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불같은 혁명적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우리 공화국이 지닌 높은 국제적 권위와 영예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30년간의 자랑찬 투쟁로정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전취물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심오한 혁명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면서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력사적로정은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끊임없이 강화되여온 영광스러운 행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지니고있는 높은 권위와 영예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권위와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운동 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66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온갖 형태의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이룩할수 있는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류해방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하고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위대한 학설이 마련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참다운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반제민족해방투쟁,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독창적이며 현명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마련하신 탁월한 혁명리론과 방침 그리고 거창한 혁명실천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들은 민족해방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에서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대발전을 향도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은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날이 갈수록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나라들에 널리 파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사상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조선혁명과 인류해방 위업에 바치신 헤아릴수 없이 큰 로고와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으로 하여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사상리론가》, 《인류해방의 구성》, 《혁명과 건설의 영재》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지도적지침》, 《인류해방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성은 세계 만천하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높은 권위를 가지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은 우리 공화국의 위대성의 상징이며 모든 영광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세기적으로 뒤떨어

겼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심으로써 실천적모범으로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끊임없이 높이시였다.

새로 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이 새 사회 건설을 어떻게 수행하여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흥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한후 국가건설의 옳바른 길을 선택하여야 룡성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수 있다. 이것은 특히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우리 시대에 와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그 어느 나라도 걸어보지 못한 독창적인 길을 아무러한 우여곡절과 편향없이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옴으로써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이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거치지 않고 민족적번영의 길,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옳바른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나라는 조국이 분렬되고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락후한 경제도대마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로선에 따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철저히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뒤떨어진 처지로부터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를 부강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일떠세움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비방중상을 짓부셔버렸으며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그것은 또한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들과 피착취인민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적 및 사회적 예속에서 벗어나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지금 세계인민들은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부르고있으며 날을 따라 더욱더 많은 세계의 벗들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사회활동가들, 진보적인사들은 룡성번영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진정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바로 조선에서와 같이 건설해야 한다고 일치하게 말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존엄을 끊임없이 높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세계혁명발전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세계혁명의 승리적 진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가의 대외정책은 나라의 지위와 권위에 직접적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외정책이 옳게 세워지고 그를 정확히 관철하여나갈 때 매개 나라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국가와 민족의 높은 존엄과 권위를 보장할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국가는 옳바른 대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자주성의 시대인 오늘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바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의 온갖

간섭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세계혁명위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시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마련하여주신 대외정책의 력사적뿌리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관계는 매우 넓어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대외정책에서 자주적립상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필수적전제로 된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 완전한 평등과 호혜,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대외정책분야에서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은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인민들이 자주성을 지향하여나서고있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국제관계발전과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지지성원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오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계급적뉴대를 강화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가의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전반적국제정세는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와 혁명의 편에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에는 불리하게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전반적발전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수정주의에 의하여 세계정세와 국제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착잡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정당한 로선과 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국제정치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언제나 원칙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의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세계혁명력량의 전투적단결을 공고발전시켜올수 있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발생한 의견상이를 극복하고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발전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계속 건설하며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공동투쟁을 벌리며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은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분렬을 가져올수 있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유지하는데 적극 기여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정치생활에서 초미의 문제인 반제반미투쟁의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혁명적원칙성을 가지고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절박한 요구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가장 정확한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혁명의 주되는 대상에 투쟁의 예봉을 집중하게 되였으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착취와 략탈을 끝장내고 진정한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월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시여 세계혁명에 크게 기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시여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미제를 타승함으로써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세계적범위에서의 반제반미투쟁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미투쟁의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미제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극히 모험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감행하여나섰을 때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단호한 반격으로 놈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철저히 고수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제국주의의 온갖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 불평등을 반대하는 모든 형태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견결한 반제반미투쟁로선과 원칙적인 립장은 세계인민들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반제자주를 위한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 제국주의자들, 신식민주의자들이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리간, 분렬,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의 분렬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개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전통과 특성을 확고히 수호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호상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에서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온갖 외래 지배세력의 분렬, 와해, 쟁탈 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진보적인 나라이니 비진보적인 나라이니 하는것을 론하지 말고 호상 자주성을 견지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은 제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와해, 쟁탈 책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의 본래의 사명과 리념에 맞게 이 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단결과 반제력량의 통일전선을 강화하여 세계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며 정당한 방침이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조성된 난국을 극복하고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세계인민들 속에서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단결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며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영광에 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로 더욱더 쏠리고있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맺고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날 남조선괴뢰들과 관계를 가지고있던 일련의 나라들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과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지어 우리를 적대시하던 자본주의나라들도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점차 발전시키는 길로 나가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초기부터 악랄하게 감행하여온 미제의 봉쇄고립화정책이 여지없이 분쇄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거의 매해 《조선문제》를 상정시키고 우리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여온 유엔에서까지도 형세를 역전시켜 유엔무대를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고발단죄하는 심판장으로 전변시켰다.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새로운 력사무대에 등장한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침략과 략탈,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이고 평등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속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세계 어디서나 《미제는 남조선에서 손을 떼라!》, 《조선은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통일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것은 하나의 강력한 국제적 조류로,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조선에서 미

세를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반면에 남조선괴뢰도당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고립배척당하고있으며 국제고아의 처지에 굴러떨어졌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인정》받아보려고 책동하여왔으나 남조선괴뢰정권은 세계인민들로부터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허수아비정권으로 락인받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쁠럭불가담운동대렬에 끼여들려다가 문전거절당하였으며 여러 국제기구, 국제회의들에서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오늘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보는 위력한 사회주의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비상히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으며 전반적국제정세와 세계혁명발전에 커대한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 ⁘

세계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를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함으로써 실천적모범으로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과 사회주의의 영예를 고수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우리 나라를 좋게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5개원칙에서 우호관계를 가질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에 따라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심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위대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있게 싸워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더욱 륭성발전할것이다.

근로자 1978년 제9호(루계 43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8년 8월 28일　　발 행 • 1978년 9월 1일

ㄱ—85230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10호(438)

차 례

김 일 성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78년 9월 9일)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온 세계에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0년동안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혁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커다란 민족적자부심과 승리자의 높은 영예를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뜻깊게 기념합니다.

나는 이 력사적인 명절을 맞이하여 공화국의 부강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온 우리의 영웅적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청년학생들, 애국적민주인사들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이국땅에서 공화국의 공민된 높은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조국의 독립과 공화국을 위한 간고하고 보람찬 투쟁에서 수많은 혁명투사들과 애국자들이 희생되였습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우리의 잊을수 없는 혁명선렬들과 애국렬사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항일의 혁명선렬들과 애국렬사들이 남긴 공적은 공화국과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 당과 정부의 대표단들과 외국의 벗들이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나는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의 민족적명절을 축하하러 온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자기의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벌렸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으며 인민정권건설의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였습니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마침내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혁명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주독립국가의 기발을 높이 들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자주적인민의 새로운 출현이였으며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이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후 지난 30년동안 간고한 투쟁과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공화국이 걸어온 30년은 승리와 영광의 30년이며 창조와 번영의 30년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일대 전성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날을 따라 공고발전되고있으며 공화국의 위력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벗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고있습니다.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우리 조국이 륭성하고 온 누리에 위용을 떨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공화국은 30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얻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공화국을 끝없이 사랑하고있으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절대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공화국만이 자기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있으며 공화국의 강화발전에서 보다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의 공민으로 살며 혁명하는것을 끝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1. 국가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자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입니다. 자주성을 가진 정권만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창건 첫날부터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주견에 따라 풀어나갔으며 기성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받아들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모든 국제문제들을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풀어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의 장단에 춤추지 않으며 우리 나라 내부문제에 외부사람이 간섭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의 권위와 우리 인민의 존엄은 바로 공화국정부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입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자체의 자원, 자체의 기술, 자체의 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있으며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자위적국방력이 없이는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없습니다. 자위력이 없는 국가는 사실상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때에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짐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년동안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였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도 철저히 짓부실수 있는 필승불패의 국방력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된후 지난 3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위대한 변혁과 빛나는 성과들은 자주, 자립, 자위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것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

물을 청산하여야 하며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도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지난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나라들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밑에 있던 나라들은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으므로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여기에 더 많은 힘과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국가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해야 할 과업은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야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일관하게 관철하였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공화국정부는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3대혁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혁명입니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입니다.

공화국정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사상혁명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찼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간직하고있으며 혁명의 요구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모두다 일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인민으로 되였습니다.

사상혁명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는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으며 밖으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자본주의사상이 침습해들어올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혁명을 계속하지 않으면 생활이 높아져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이 없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점차 떨어질수 있습니다.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앙양시킬수 있습니다.

현시기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의연히 혁명의 길우에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은 3대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입니다.

기술혁명을 하여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기술혁명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것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은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완전히 없앴으며 나아가서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된 다음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섰으며 그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생산력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에 공업생산은 1946년에 비하여 196배로 늘어났으며 1946년부터 1977년사이에 공업총생산액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5.1%로부터 33.7%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기계설비수요의 98%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에서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섰습니다.

근로자들이 힘든 로동에서 많이 해방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채취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주요공업부문들에서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시되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근로자들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 힘든 로동에서 많이 벗어났으며 식료가공공업이 발전하여 녀성들의 가정일이 훨씬 헐해졌습니다. 로동이 헐해지고 물질적부의 생산이 늘어남으로써 인민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더욱 녀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요에 의한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할것입니다.

기술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이며 앞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방침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술수단들을 개선하며 경제를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여있습니다.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더 많은 매장량을 확보하며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모조리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자체원

료에 의거하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곧 기술수단의 현대화이며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입니다.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치고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이며 모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송을 현대화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입니다. 최근에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은 빨리 발전하였으나 수송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수송의 현대화를 다그쳐 수송능력을 훨씬 높여야 합니다. 철도전기화를 빨리 완성하고 철도를 더욱 자동화하며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적극 기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고 강하천이 많은 조건에서 큰 짐배를 많이 무어내고 운하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수상운수를 널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대적인 큰 짐배들을 많이 무어내여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대외무역을 다각화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보다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데 필요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과학화수준을 가까운 앞날에 한계단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농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더욱더 과학화, 집약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적인 기술수단들과 과학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간석지개간사업을 다그치며 더 많은 토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은 로동계급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3대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문화혁명을 하여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할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였으며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향유자로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사업이 매우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단계별로 의무교육이 실시되였으며 오늘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넘는 860만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국가의 부담으로 무료교육을 받으며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자라나고있습니다. 성인교육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

지식을 가지였으며 오늘은 고중졸업정도의 일반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해방전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158개의 대학이 일떠서고 지방마다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100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나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자체의 민족간부가 부족하여 그처럼 곤난을 겪던 우리 나라에서 이제는 민족간부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습니다.

문학과 예술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 늘어나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키고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해방후 문맹퇴치사업으로부터 시작된 문화혁명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멀리 앞으로 전진하여 오늘은 고등의무교육을 과업으로 내세우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업적의 하나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오늘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치는것입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 전체 인민의 문화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로동의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고 성인교육사업과 고등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모두다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고 빠른 기일안에 모든 근로자들이 고중졸업정도의 일반지식수준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가지도록 하며 민족간부를 더 잘 키워내야 합니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야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인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과 모든 근로자들은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고 문화적으로 관리하며 제품의 질과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국가사업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온 사회에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더욱 건전한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옳게 구현하며 자본주의, 봉건주의 요소와 양풍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대

혁명소조를 무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현대적인 혁명지도방법입니다. 다시말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더 조직화되고 적극화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생활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떠미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의 전위들이며 투쟁의 기수들입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혁명성을 계속 견지하며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며 우리 혁명을 보다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기본혁명과업입니다. 공화국정부는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2.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지 30년이 지나도록 우리 민족은 아직 분렬된 상태에 있으며 조국통일은 의연히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남

아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엄중한 장애에 부닥치고있으며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은 더욱더 커가고있습니다.

미제는 《두개 조선》 정책을 현시기 대조선전략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 꾸미고있습니다. 일본반동들도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여러모로 방해하고있습니다.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 민족분렬음모를 공공연히 정책화하고 《유엔동시가입》이요, 《교차승인》이요 하면서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강점과 지배를 계속하려 하고있으며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자의 옛지위를 되찾아보려 하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북분렬의 현상태를 고정화함으로써 일신의 안일과 장기집권의 야욕을 실현해보려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렬주의자들의 그 어떤 음모책동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으며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조선민족은 력사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며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통일을 바라고있습니다.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외부세력이며 내부세력으로서는 오직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한줌도 못되는 매국자들뿐입니다.

조선문제는 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가 패전한 결과 분렬된 나라의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나라는 침략전쟁에 참가한 나라도 아니고 패전국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예속밑에서 압박받던 민족이며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싸워서 해방을 쟁취한 민족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가 통일된다고 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들에 위협을 주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반대로 조선이 계속 분렬된채로 있으면 그것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상시적인 근원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근본리익을 위해서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서도 조선은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고 남조선의 당국자들, 각 정당들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습니다.

조선의 통일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통일문제해결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려면 회담쌍방이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옳은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서로 리해하고 협력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대화의 막뒤에서 딴 목적을 추구하거나 대화를 《두개 조선》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 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러한 대화는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분렬을 위한 대화를 할수 없으며 오직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로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비렬한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파탄되였으며 오늘까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남북간의 《대화》니, 《합작》이니 하고 떠들지만 실지행동에서는 대결과 분렬에로 계속 나가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공산주의기치밑에 통일을 하려 한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서 반공의식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으며 《승공통일》을 부르짖고있습니다. 《반공》과 《승공》의 구호를 들고 어떻게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하고 합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간경제협력안》이라는것을 내놓았는데 《승공》을 부르짖으면서 공산주의자들과 《경제협력》을 하겠다는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것이며 그것은 분렬주의자의 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서툰 위장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합작을 하려고 한다면 민족분렬정책을 통일정책으로 바꾸고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는 민족의 대단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민족대단결의 리념과 원칙을 떠나서는 결코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결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투쟁이 아니며 그것은 침략과 반침략과의 투쟁, 애국과 매국과의 투쟁입니다. 다시말하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민족적자주권을 위한 해방투쟁이며 민족적단합을 위한 애국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각각 공산주의리념과 자본주의리념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워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사상을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현제도와 남조선사람들이 신봉하는 사상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고 민족대단결의 리념에 기초하여 남조선의 어떠한 정당과도 단결을 도모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남조선의 어떤 정당이 공화국북반부에 와서 활동할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하여 환영할것입니다. 남조선의 당국자들과 각 정당들도 역시 북반부에 있는 여러 정당들과 단결할 용의를 가져야 하며 북반부의 어떤 정당이 남조선에 가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이와같이 북과 남이 다 민족대단결의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여야 조국통일위업을 빨리 앞당길수 있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파쑈악법과 방대한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인민대중의 기본권리를 여지없이 짓밟고있으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무권리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을뿐아니라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방도를 모색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긴급조치》와 파쑈악법에 의하여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게 들씌워진 부당한 형벌들을 취소하여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통일혁명당을 비롯하여 지하에 있는 정당들도 합법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단체들과 애국인사들도 자기의 의사대로 남조선에 돌아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입니다. 지금 공화국북반부에서는 각이한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두 합법적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하고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으며 지어는 제국주의나라에서도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도 마땅히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은 그처럼 가혹한 파쑈적탄압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일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도 숭고한 민족적사명감을 지니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불문하고 해내외의 모든 민주주의적력량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파쑈독재세력과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을 비롯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고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우리 민족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고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 때가 되였습니다.

미국은 남조선괴뢰정권이 민주주의를 교살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것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이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미국이 종전의 그릇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팎으로 여지없이 고립되여있는 남조선의 파쑈분자들을 계속 비호한다면 인권탄압의 공모자로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계속하며 나아가서 전조선을 먹어보려는 침략적야망을 버려야 하며 유엔의 결의와 자기의 《공약》대로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하루빨리 완전히 철거하여야 합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바란다면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접촉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제의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와 진심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가 안하려고 하는가,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조선을 위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두개 조선》을 위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는 그릇된 립장을 버리고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옳바른 자세로 나온다면 어느때든지 미국과 회담을 열고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기의 체면을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수 있을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미국인민의 리익에도 부합될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더욱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드시 짓부셔버릴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3. 신흥세력나라들은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자

동지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세계혁명력량이 날로 장성하는데 겁을 먹은 신구지배주의자들은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변함없는 야망을 추구하면서 《평화》의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습니다.

그들은 《군비축소》의 간판밑에 군비확장을 계속하고있으며 《핵무기제한》의 간판밑에 핵시험을 계속하고있으며 《긴장완화》의 간판밑에 군사적간섭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자기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을 침략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이 의거하고있는 주요한 수법은 이 나라들을 분렬, 리간시켜 각개격파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통치의 후과인 국경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불화를 조성하며 분쟁과 충돌을 야기시켜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정치경제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위협공갈과 회유기만, 전복파괴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신생독립국가들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있으며 이른바 《원조》와 《후진국공동개발》의 미명으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 하고있습니다.

세력권확장에 열을 올리고있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제3세계나라들을 자기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쟁탈전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지원》과 《보호》를 구실로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분쟁에 경쟁적으로 뛰여들어 로골적으로 간섭하고있으며 제가끔 이 나라들을 자기의 통제밑에 넣으려고 각축전을 벌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착잡합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조종과 음모에 의하여 매일같이 전복, 파괴, 암살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분쟁문제들이 생겨나고있으며 심지어 형제나라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며 싸우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제3세계나라들앞에는 많은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은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현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지배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혁명적조류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입니다. 지배주의의 본질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다른 민족과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것입니다. 지배주의에는 공공연히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로골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형태도 있으며 여러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의 올가미를 씌워 지배하고 통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지배주의는 큰 나라에도 있고 비교적 작은 나라에도 있으며 자본주의나라에도 있고 그밖의 나라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라의 크기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를 통제하려는 나라는 다 지배주의세력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든지, 은페된 방법으로든지 남을 지배하는것은 다 지배주의입니다.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인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는 새세계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특히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지배주의자들이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하여 분렬, 리간, 쟁탈 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쟁탈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은 광범한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온갖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쟁탈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공동의 적을 반대하기 위하여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하며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공통점은 차이점보다 크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단합시키고있는 힘은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힘보다 강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진보적나라이니, 비진보적나라이니 하는것을 론하지 말고 서로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이편저편으로 갈라놓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본성과 리념에 어긋나는것이며 이것은 결국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새로운 쁠럭을 형성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나라의 진보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진보의 표징은 자주성에 있으며 자주성을 견지하는 나라가 바로 진보적인 나라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모두다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고있는것만큼 자주성을 지향하는 이 공통점에 기초하여 단결할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개별적나라들사이에 발생하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도 단결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은 그것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형제들사이의 내부문제이며 서로 싸우거나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적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지배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빠져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면 리익볼것은 지배주의자들이고 손해볼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자신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은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그 하수인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은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지배주의세력도 쁠럭불가담운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고 그 어떤 나라의 지위봉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은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을것입니다.

나라의 자주성은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합니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없이는 자주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하고싶은 일도 하지 못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한편 다른 신흥세력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광활한 령토와 풍부한 자연부원, 새생활창조과정에 이룩한 여러가지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원료와 기술을 교류하여야 하며 특히 민족기술간부를 교류하여 서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배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경제기술적락후성에서 벗어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통제, 착취와 략탈의 공간입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빈궁을 면할수 없으며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주는 불합리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버리고 신흥세력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공정한 새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제국주의,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입니다.

신흥세력인민들은 제국주의의 교활한 침략과 전쟁 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타격을 주어야 합니다. 신흥세력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되고 있는 군비경쟁을 중지시키고 전반적인 군비철폐를 실현하며 다른나라 령토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침략군대와 군사기지를 완전히 철거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구우에는 아직도 여러 대륙에 식민지가 남아있으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또다시 저들의 지배와 통제 밑에 넣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 피압박인민들은 세계 모든 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신식민주의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서 식민주의가 청산되고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가 없어질 때 비로소 민족들의 해방은 완전하고 종국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삼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 * *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참다운 조국입니다. 공화국을 강화발전시키는 여기에 우리 인민의 행복의 원천이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화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공화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공화국의 기치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돐 만세!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길을 밝힌 위대한 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경험의 자랑찬 총화이며 주체사상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힌 전투적강령이다. 보고에는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력사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져있다. 또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들이 제시되여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완전하고 종국적인 해방의 길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그 내용의 심오성과 과학성, 독창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불패의 전투적기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거기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과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자랑찬 업적에 기초하시여 전면적으로 뚜렷이 확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5페지)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이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확고한 담보이다.

로동계급의 국가는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강력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30년동안 공화국정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왔다.

공화국정부는 정치적자주성을 자주독

립국가의 제일생명으로 삼고 창건 첫날부터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경제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았다.

또한 공화국정부는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였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자주, 자립, 자위 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공화국의 위력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장성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힘이 없었던 탓으로 하여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였고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힘있는 자립적민족경제, 찬란한 민족문화와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 창조와 번영의 력사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민족의 영예와 행복이 있으며 끝없는 륭성과 번영이 있다는것을 현실로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주체사상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7~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규정하신것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정식화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펼쳐질 앞날의 자랑찬 현실을 더욱 뚜렷이 내다볼수 있게 되였으며 휘황한 전망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주체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에 관한 사상에 의하여 공산주의사회의 면모가 더욱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공산주의사회를 지난날의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생동한 화폭으로 선명하게 그려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아무런 편향이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는 확고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혁명적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

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이다.

우리 혁명의 종국적목적이 명시되여있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 그들을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여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도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8페지)

로동계급이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위대한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써 혁명이 끝나는것은 아니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도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여야 하며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 혁명의 과업으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최종목적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정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기본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론증하시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으로 계속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상혁명의 모든 과업들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기술혁명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를 다시금 뚜렷이 하시고 3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을 현시기 우리 인민이 수행해야 할 기술혁명의 과업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기술혁

명과업들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증진시키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더욱 헐하고 홍겨운것으로 만들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문화혁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밝혀주시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문화혁명앞에 나선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치는것을 주요과업으로 하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모든 과업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문화를 건설하고 개조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계속 힘있게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보고에서 밝히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만이 주체사상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은 전투적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의 반동적본질을 전면적으로 폭로비판하시고 조선문제의 성격과 본질을 다시금 뚜렷이 밝히시였으며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원칙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우와 같은 문헌, 23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는 시대의 추세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합작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현실적으로 둘로 갈라져있는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쳐야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대화를 하고 그를 통하여 통일문제해결의 방도와 대책을 진지하게 세워야 실현될수 있다.

북과 남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인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리해를 증진시키며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합작을 실현한다면 끊어진 민족적뉴대를 회복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할수 있

으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은 북과 남이 오래 지속되여온 분렬로 말미암아 생긴 불신과 오해를 풀고 겨레의 화목과 단합을 이룩하며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을 다시금 론증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앞에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그렇기때문에 공화국정부는 언제나 이 방침을 견지하여왔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다른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민족적대단결의 리념과 원칙을 떠나서는 결코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서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제도를 남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반목과 대결만을 조장시키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리념과 자본주의리념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워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북과 남이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빨리 앞당길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사회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전면적으로 통찰하시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본요구로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할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방도를 모색할수 없다.

또한 미제가 남조선에 계속 눌러있는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수 없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합작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미국은 유엔의 결의대로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자기 군대를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고 조선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공화국정부는 미국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는 그릇된 립장을 버리고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옳바른 자세로 나온다면 어느때든지 미국과 회담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모든 방도들에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실태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향이 가장 정확히 반영되여있으며 조국통일 3대원칙의 숭고한 리념이 훌륭히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고에서 제시하신 방침들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의 기치밑에 단결을 강화하고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사이의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악랄한 분렬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현국제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길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보고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지배주의의 반동적본질을 명철하게 밝히고 온갖 지배주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세계혁명발전의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배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혁명적조류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입니다. 지배주의의 본질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다른 민족과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배주의의 본질과 그 표현형태들을 밝히시고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오늘 신흥세력나라들과 피압박인민들의 주되는 투쟁대상이 무엇이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것이 명백하게 되였다.

보고에는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신흥세력나라들앞에 나서는 투쟁과업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킬데 대한 방침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 새 세계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옳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사상은 제국주의와 함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때 모든 민족들이 완전하고 종국적인 승리를 이룩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보고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밝히신 모든 사상과 리론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진리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한 고전적문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전투적 기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깊이 학습하여 그 심오한 내용에 완전히 정통하며 그것을 혁명투쟁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연설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

정 성 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고 세계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보고는 주체의 심원한 원리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킨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국가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밝히시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규정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투쟁의 계속이며 그 종국적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행로는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예속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빛을 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밝혀준 길을 따라 공화국정부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온 빛나는 결과이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공화국이 걸어온 30년의 자랑찬 력사에서 이룩된 모든 세기적인 변혁과 조국청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위대한 승리와 성과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1

국가정권의 목적을 바로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정권의 목적에 의하여 국가활동의 총적방향과 활동방식이 규정되며 혁명과 건설을 옳바르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인 로선과 방침들이 결정된다. 국가정권의 목적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데 따라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보장하는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좌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규정하여주심으로써 공화국정부가 자기의 숭고한 사명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7~8페지)

공화국정권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권을 대표하고 자주성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혁명적인 정권이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데 공화국정권의 근본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공화국정권은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실현해나가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혁명적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공화국정부가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는 여기에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데 있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주인이며 그 창조자이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기본은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이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수 없으며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의 인간들이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인간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에서 기본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의 가장 올바른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가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의 사상적원천으로, 유일하게 정확한 지침으로 된다.

공산주의적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단합된 사회이며 이 사회에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이루어진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의 세계관과 기본적인 품성을 새롭게 명시한데 기초하여 그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가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국가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가장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되는것은 또한 주체사상이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목표를 과학적으로 밝혀주는데 있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자체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뿐아니라 사회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것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나가야 사람들에게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확고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하여 어렵고 힘든 로동과 온갖 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도록 사회의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풍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관계는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으며 온갖 계급적차이가 없고 사람들사이의 가장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공산주의적사회관계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명시하여주고있다.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완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새로운 문화의 확립과 그 높은 발전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사회에 사는 로동계급의 문화의 전일적인 지배가 확립되며 교육, 과학, 문학예술 등 문화의 모든 부문이 고도로 발전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여주고있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과학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넓은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인류의 리상이며 우리 시대의 미래인 공산주의사회는 바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건설되고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이다. 그러므로 공화국정부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자기의 최종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규정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과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더욱 확신성있게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의 제시, 이것은 영원히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지향과 불굴의 의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장엄한 력사적선언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놓은 위대한 사변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인민들을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그들의 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사상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나가는 길이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에로 가는 가장 정확하고 곧바른 길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증시하여주고있다.

이것은 세계 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의 견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운동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의 제시로 하여 우리 인민들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설계도를 받아안게 되였으며 인류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기 위

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강령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사상은 인류사상발전과 로동계급의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인류는 수천년을 두고 착취와 억압, 예속과 불평등이 없고 모두가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리상으로 그려왔지만 그러한 사회의 주인은 어떤 풍모를 가진 인간이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마련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의 면모를 환히 밝혀주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펼쳐주심으로써 인류의 리상을 실현하는 넓은 길을 과학적으로 명시하시였다. 그리하여 과학적공산주의학설은 새로운 사상리론적내용으로 발전풍부화되고 더욱 완성되게 되였으며 인류는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실현할수 있는 휘황한 설계도를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주체의 심원한 원리로 맥박치고있는 그 독창적인 사상리론적내용으로 하여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의 강유력한 무기로 되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본질을 새롭게 해명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전략적 로선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8페지)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향도되여야 하며 그 요구를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인 념원과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데 대한 숭고한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토대와 상부구조를 포괄하는 사회의 모든 령역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가장 폭넓고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며 따라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바로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인류력사상 가장 폭넓고 심각한 사회적변혁으로 되는 근거가 있으며 종래의 모든 혁명투쟁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그 근본특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국가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사상,기술, 문화 분야에서도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8페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력사적과업이다.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자본주의제도가 전복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짐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은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의 자주성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국가앞에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숭고한 목적으로 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혁명을 계속해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혁명을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는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줄데 대한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이다.

오직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가야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으며 따라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상혁명의 본질을 다시금 새롭게 해명하시고 그 수행에서 나서는 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근로대중의 사상해방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고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9페지)

사상혁명을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으로,참다운 정치사업으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근로자들의 사상해방을 완전히 실현하고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사상생활은 인간생활의 기본령역의 하나이다.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여야 그들의 사상생활을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참다운 사회적존재로 만들수 있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과 관념, 낡은 사고방식이 남아있게 되면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킬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참다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상해방을 실현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사상해방을 실현하는것은 또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이며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는것만큼 사람들의 사상을 적극 발동하여야 경제와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이다. 따라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빨리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정신을 키워주어야 그들이 혁명적열정과 투지와 신심에 넘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억세게 싸워나가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독자적인 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심으로써 계급사회의 력사와 더불어 오랜 기간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사고력을 좀먹던 온갖 사상적악페와 오물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사상해방,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로동계급의 국가의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을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제기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근본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사회의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로동활동,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물질생활의 가장 중요한 령역의 하나이다. 로동생활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을 자연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해방이 실현되여도 로동의 본질적차이가 있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들의 자주성은 완전히 실현될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기술혁명을 정치적과업으로 보는가 아니면 단순한 기술실무적과업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기술혁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사업으로 되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력사상 처음으로 기술혁명을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규정하여주심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의 대립과 사회적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되던 기술혁명이 근로자들을 온갖 사회적불평등과 구속에서 해방하는 인간해방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에 기초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는 현실세계에 대한 과학적인식에 토대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문화적락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지배할수 없으며 참다운 사회적존재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근로자들을 낡은 사회가 물려준 문화적락후성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길을 환히 밝혀준 탁월한 사상과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보고에서 새롭게 심화발전시키시고 정연한 체계로 집대성하신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로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완성한 탁월한 사상이며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세기적념원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밝힌 불멸의 사상이다.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에서는 사회제도의 교체만이 혁명인것이 아니라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변혁과 창조도 하나의 혁명이라는 심오한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고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문제가 완전무결하게 해명되였으며 공산주의혁명리론에서는 새로운 경지가 빛나게 개척되게 되였다.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계속혁명에 관한 사상은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이행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뿐아니라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계속 이행하기 위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포괄하는 전일적인 사상으로 집대성되게 되였다.

공산주의혁명리론의 완성으로 인류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세기적인 념원과 지향을 종국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국가는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숭고한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할 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인간해방의 위업이 종국적으로 완성될것이며 인류가 세기를 두고 바라고바라던 공산주의가 생동한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3대혁명의 기치따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앞에는 더 큰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북과 남의 대화와 합작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

경 통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진면모를 낱낱이 폭로하시고 통일문제의 성격과 본질을 명백히 밝혀주시였으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보고에서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제시하시면서 대화와 합작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획기적인 구국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3페지)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과정이다.

나라의 평화적통일은 온 민족의 단합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해야 남북을 가로막는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끊어진 민족적뉴대를 다시 이을수 있으며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합작, 이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거족적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결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투쟁이 아니며 그것은 침략과 피침략과의 투쟁, 애국과 매국과의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우리 나라 령토의 절반과 민족의 한 부분을 도로 찾고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북과 남으로 헤여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이다.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할수 없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다. 민족내부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자신에게 속하는 문제이며 또 그 나라 인민자신의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합작을 할데 대한 방침은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자는것이다.

더우기 조국통일문제는 그 어떤 당파나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에만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렬로 하여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온 민족의 사활적요구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문제는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그것은 오직 그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북과 남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그들을 통일위업실현에로 떨쳐나서게 하는 기본방도는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하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합작을 실현해야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하도록 할수 있으며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민족적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합작은 또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해서는 북과 남사이에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북과 남의 경제, 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외세의 침략책동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인민생활을 통일적으로 개선향상시키며 북과 남으로 흩어진 겨레들사이의 편지거래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크고작은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합작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북과 남의 두 애국력량이 서로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토의해야 통일도상에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또 북과 남이 합작을 하여 민족의 힘을 합치고 민족의 단합된 힘을 조직동원해야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하는것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현시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숙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그러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앞에는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렬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고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미제는 현시기 《두개 조선》 조작을 대조선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우리 나라의 현 분렬상태를 고정화, 영구화하기 위하여 온갖 교활한 음모와 술책을 다 꾸미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또한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자의 옛지위를 되찾아보려고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 두 상전의 비호밑에 민족분렬을 영구화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내맡기고 그 대가로 얻은 딸라와 엔으로 일신의 안일을 누리며 장기집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온 민족이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합작은 바로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난국타개의 방도를 모색하며 온 민족이 합작하고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합작을 할데 대한 방침은 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요구

와 념원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예로부터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은 나라와 민족의 분렬이 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인민은 동족끼리 싸우기를 원치 않으며 또 싸울 필요도 없다. 자주성과 애국심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우리 민족은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의 운명, 자신의 운명을 평화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은 우리 인민의 요구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념원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문제는 제2차대전시기 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가 패전한 결과 분렬된 나라의 문제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나라는 남을 침략하고 예속하기 위한 범죄적인 전쟁에 참가한 나라도 아니며 이 전쟁에서 패전한 나라도 아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갖은 압박과 착취를 강요당하며 망국노의 설음을 겪던 민족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높이 추켜드신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벌려 해방을 쟁취한 민족이다.

조선의 분렬은 전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며 오늘 조선문제가 그처럼 복잡하게 된것도 바로 외세의 간섭과 침략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데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인민들은 외세강점에 의한 조선의 분렬이 철두철미 비법적이라는것을 규탄하고있으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이룩될것을 적극 념원하고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보고에서 제시하신 대화와 합작방침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통일문제해결에 빛나게 구현한 주체적인 방침이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현명한 방침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합작을 할데 대한 방침은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나라의 통일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할것을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시기부터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합작을 할데 대한 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시된 폭넓은 남북협상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인내성있는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였다. 이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였다.

나라의 통일을 열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적극 지지하며 그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안팎의 압력에 못이겨 하는수없이 대화마당에 끌려나온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의 원칙을 란폭하게 유

련하는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놈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파쑈폭압체제인 《유신》파쑈독재체제를 꾸며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외세의존, 분렬, 전쟁의 길로 줄달음쳤으며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1년도 못되여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두개 조선》음모를 정책화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로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파탄되고 오늘까지 중단상태에 빠져있다.

공화국정부는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파탄상태에 놓이게 된 조건에서도 어떻게하나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어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려는 애국애족의 념원으로부터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층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대방침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온 민족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구국강령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공산주의기치밑에 《적화통일》을 하려 한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남조선에서 반공의식을 고취하고 전쟁열을 올리며 《승공》, 《멸북》을 부르짖고있다. 그러면서도 제놈들이 마치 통일에 그 무슨 관심이나 있는듯이 《대화》니, 《합작》이니 하고 줴치고있다. 지어 최근에는 또다시 《남북간 경제협력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놈들이 분렬, 파쑈폭압, 전쟁책동으로 하여 안팎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있는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나보려는 하나의 기만술책이며 분렬주의적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서툰 위장술에 불과하다.

《반공》과 《승공》을 부르짖다 못해 《멸북》을 부르짖으면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하고 합작을 하겠다는것은 리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이며 가소로운 수작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통일문제해결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려면 회담쌍방이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옳은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요구인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이다. 서로 리해하고 협력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대화의 막뒤에서 딴 목적을 추구하거나 또 대화를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 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대화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는 목적은 종국적으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는것만큼 그것이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지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대화로는 결코 될수 없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이룩하려는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을 위한 대화를 주장하고있으며 또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있다. 우리는 미국과도 조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고 남조선의 당국자들, 각 정당들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다.

공화국정부의 이 일관한 립장과 방침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지금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진심으로 대

화를 하고 합작을 하려고 한다면 민족분렬정책을 통일정책으로 바꾸고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확고한 지도력량으로 되고있으며 전체 인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단결하고 합작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나라의 평화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반공은 외세와 결탁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예속과 매국의 길이며 련공은 동족과 합작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 자주와 애국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북과 남의 대화와 합작을 실현하는것과 함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민족대단결의 리념과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각각 공산주의리념과 자본주의리념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워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4페지)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북의 공산주의사상과 남의 자본주의사상이 존재하고있고 제도상의 견지에서도 북에는 사회주의제도와 남에는 자본주의를 동경하고 지향한다고 볼수 있는 식민지사회제도가 존재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북과 남이 민족적대단결의 리념과 원칙을 떠나 자기의 리념과 제도를 앞에 내세우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결국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은 이루어질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그러므로 북과 남사이에 단결과 합작을 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이 각각 공산주의리념과 자본주의리념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이라는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워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사상을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남조선의 현제도와 남조선사람들이 신봉하는 사상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고 민족대단결의 리념에 기초하여 남조선의 어떠한 정당과도 단결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남조선의 어떤 정당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활동할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환영할것이라는것을 언급하시면서 남조선의 당국자들과 각 정당들도 북반부에 있는 여러 정당들이 남조선에 나가 활동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북과 남이 서로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

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5페지)

오늘 남조선에서는 그 어느 나라,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포악하고 가장 파렴치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고 있다. 정치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는 군사깡패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독재를 휘둘러 남조선을 민주주의의 《무덤》으로 전변시키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학살하고 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그 어떤 통일론의도 자유롭게 할수 없으며 따라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수 없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신헌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를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들을 페지하고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게 부당하게 들씌워진 형벌을 취소하며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인 언론의 자유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해내외의 모든 민주주의적력량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파쑈독재세력을 반대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미제를 비롯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된다.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게 된것도, 분렬된지 3분의 1세기가 되도록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는것도 외세의 침략과 간섭 책동때문이다.

미제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지 않는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우리 나라에 대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우리 민족은 통일문제해결에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

미제는 조선문제에서 손을 떼야 하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하루빨리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진심으로 평화와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접촉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보고에서 제시하신 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지배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혁명적조류

류 호 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오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투쟁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히신 탁월한 투쟁전략과 방침들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세력을 반대하고 반제자주의 혁명위업, 세계혁명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강령적지침이며 혁명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제, 반지배주의 투쟁전략과 방침들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면서 그들의 숭고한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보고에서 오늘 국제무대에서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반제, 반지배주의투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현국제정세의 특징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8페지)

시대평가를 정확히 하는것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대평가를 옳게 하여야 투쟁대상을 규정하고 혁명력량을 편성하는것과 같은 혁명의 투쟁전략과 방침들을 옳게 세울수 있고 혁명의 승리를 담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 국제정세의 특징을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사이의 치렬한 투쟁으로 정식화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투쟁해야 할 대상과 련합해야 할 대상을 옳게 가려보고 반제자주위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우리 시대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이 자주성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국제무대에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등장한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혁명과 인류력사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자주의 세찬 조류가 세계를 휩쓸고 세계 혁명력량이 빨리 자라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그것을 가로막으며 인민들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

들은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침략과 전쟁정책에 매달리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강화하고있으며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신흥세력나라들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이 나라들을 분렬, 리간시켜 각개격파하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통치의 후과인 국경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리용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사이에 불화를 조성하고 분쟁과 충돌을 야기시킴으로써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정치경제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미쳐날뛰고있다.

세력권확장에 눈이 뒤집힌 지배주의자들은 《지원》과 《보호》의 구실밑에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분쟁에 경쟁적으로 뛰여들어 이 나라들을 자기들의 통제밑에 넣으려고 각축전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며 착잡하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조종과 음모에 의하여 매일같이 전복, 파괴, 암살사건들이 일어나고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분쟁문제들이 일어나고있다.

모든 사실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세력과 자주성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지배주의세력사이에 그 어느때보다도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의 정세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현 국제정세의 특징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지배주의의 반혁명적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지배주의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배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혁명적조류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0페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자주사상은 우리 시대의 확고한 지도리념으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현실은 자주성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구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배주의는 바로 자주성을 지향하는 이러한 시대적추세에 역행하는 반혁명적조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배주의의 본질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다른 민족과 인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것이라고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지배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거세찬 흐름을 가로막으며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살려는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권리를 짓밟고 그들을 지배하려는 가장 반동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견지하고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침해하는가 하는것은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배주의에는 공공연히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로골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형태도 있으며 여러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의 올가미를 씌워 지배하고 통제하는 형태도 있다. 나라의 크기와 사회제도에 관

계없이 다른 나라를 통제하려는 나라는 다 지배주의세력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든지, 은페된 방법으로든지 남을 지배하는것은 다 지배주의이다.

이 모든것은 지배주의가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혁명발전을 가로막으며 인민들의 자주적발전을 억제하는 가장 위험한 반혁명적조류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주성의 시대의 가장 위험한 조류인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인민들의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지배주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 그 표현형태를 명철하게 해명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 승리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현 국제정세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예리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할데 대한 투쟁전략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할데 대한 전략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혁명투쟁대상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전략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탁월한 전략사상은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을 조직동원하여 반혁명력량을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류해방 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며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 숭고한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된 힘으로 진출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신흥세력나라들의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분렬, 리간, 쟁탈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탁월한 전략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통일전선방침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력사적경험과 오랜 기간에 걸치는 반제반미투쟁과 반기회주의투쟁 과정에서 쌓으신 고귀한 경험 그리고 현시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의 근본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자체의 요구이며 그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그 투쟁대상으로 하고 있는만큼 단합된 력량으로 진출할 때만

이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단결은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각개격파당하게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특히 오늘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와해, 쟁탈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은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단결의 전략으로 맞설 때만이 결정적으로 우세한 력량으로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세력을 압도하고 그들의 분렬와해책동과 예속화정책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신흥세력나라들은 공동의 적을 반대하기 위하여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하며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신흥세력인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결된 력량으로 나아갈수 있으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서로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조건에서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사회경제제도와 민족적전통, 신앙 등에서 차이가 있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차이는 결코 그들이 서로 반목질시하며 분렬되여야 할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는 차이점보다도 공통점이 더 많으며 그들을 단결시키는 힘은 그들을 갈라놓는 힘보다 강하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단결할수 있는 실제적가능성과 기초를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억압과 착취, 온갖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 오늘 그들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과거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목적의 공통성은 신흥세력나라들을 련대성의 뉴대로 련결시키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굳게 단결하여왔으며 또 일치한 행동으로 나가고있다.

특히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우리 시대의 향도적기치인 자주성을 지향하고있으며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통제를 받는것을 원하지 않고있으며 남에게 예속되여 살아가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며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가지는 진보성이 있으며 그들이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손잡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있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진보적나라이니 비진보적나라이니 하는것을 론하지 말고 서로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진보적이니 비진보적이니 하면서 이편저편으로 갈라놓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본성과 리념에 맞지 않으며 통일과 단결에 리롭지 못하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이편저편으로 갈라놓는것은 결국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새로운 쁠럭을 만들어내고 이 운동을 분렬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진보성의 표징은 자주성에 있으며 자주성을 견지하는 나라가 바로 진보적인 나라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모두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만큼 자주성을 지향하는 이 공통성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

의리념을 존중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정신을 발휘한다면 그들사이에 발생한 어떠한 의견상이나 분쟁문제도 다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나 분쟁문제들은 그것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형제들사이의 내부문제이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그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서로 마주앉아 진지하게 협의하면 어떤 복잡한 문제들도 다 민족적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만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발생한 분쟁문제들을 자기에게 리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세력을 끌어들인다면 쁠럭불가담운동안에 끊임없이 복잡한 사태를 야기시킬것이며 나아가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에게 완전히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복잡한 사태들을 수습하고 단결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빛나는 사상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3페지)

자주성을 단결의 기초로 삼을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지향을 심오히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통일과 단결을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는 불멸의 사상이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를 수습하고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는 구경은 매개 나라들이 자주성을 어떻게 철저히 견지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결된다.

자주성은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가장 공고한 토대우에서 강화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가장 귀중한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자주성이다. 자주성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아무런 존엄과 영예도 누릴수 없으며 노예적처지를 면할수 없다. 따라서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자기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고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자기 운명을 남에게 내맡기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주성을 견지하며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만 나라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진정한것으로 될수 있다.

자주성의 원칙은 그자체가 모든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평등과 호상존중을 요구한다. 자주성은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반대할뿐아니라 남을 예속시키는것도 반대한다.

자주성의 원칙이 무시되고 침해될 때 나라와 민족들사이에는 불평등과 예속이 초래되게 되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그들사이에 자원적이고 공고한 단결이 이루어질수 없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무시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서로 자주성을 견지하고 존중하는것과 함께 외부세력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 원칙적립장을 취한다면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그 하수인노릇을 하는것과 같은 일이 없을것이며 지배주의세력이 쁠럭불가담운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 어떤 나라의 지휘봉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고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을 지키며 외부세력에 추종하지 않고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할 때 그들사이에는 자원적인 기초우에서 진정한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나라의 자주성은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는 정치적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없이는 자주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하고싶은 일도 하지 못한다.

오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면서 신흥세력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신세를 지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튼튼히 닦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현시기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는 의연히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침략과 간섭, 략탈을 감행하고있으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새 전쟁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침략과 전쟁 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며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타격을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군비경쟁을 중지시키고 전반적인 군비철폐를 실현하며 그들이 발붙이고있는 모든곳에서 침략군대와 군사기지들을 완전히 철거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지구상에서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가 없어질 때 비로소 민족들의 해방은 완전히 종국적인것으로 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제, 반지배주의 투쟁 전략과 방침은 오늘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치로 되며 그들이 반제자주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여야 할 지침으로 된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고 협조하여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결정적으로 앞당겨나갈것이며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자주성의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신흥세력나라,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 힘은 없으며 그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온갖 간섭과 분렬, 파괴 책동은 파탄되고야 말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계속 힘있게 전진할것이며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그들의 숭고한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학습기풍을 세우고 조직관념을 높여 혁명가의 본분을 다하자

지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빨리 전진하여 새로운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조직관념을 높임으로써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학습을 꾸준히 하고 높은 조직관념을 가질데 대한 당의 요구에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을 정치실무적자질이 높고 강의한 혁명적조직성을 소유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 그들이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하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과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꾸준히 학습하고 혁명적조직관념을 더욱 높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사명이며 혁명임무이다.

이 숭고한 혁명임무를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전략전술적방침을 훌륭히 구현할줄 알아야 한다. 또한 당조직에 적극 의거하고 사업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대담하게 시정하면서 창조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학습을 꾸준히 하고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며 강한 조직규률속에서 사업해야 한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주체의 영광스러운 혈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며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우리 당이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1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사상의지적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또한 강철같은 조직규률에 의해서만 당이 하나의 단합된 대오로 나갈수 있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학습을 성실히 하고 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강철같은 조직규률과 혁명적기풍이 전당을 지배하

도록 함으로써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학습과 조직관념은 또한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정통할것을 요구한다.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가지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옳게 지도할수 없으며 제기되는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의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은 일군들과 당원들의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특히 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일할 때에만 사람과의 사업, 경제조직사업, 생산지휘를 비롯한 모든 사업을 잘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학습과 조직관념은 바로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능숙하게 수행할수 있는 정치실무적자질을 담보해주며 그들에게 조직생활에 대한 자각성을 높여줌으로써 자기 사업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한다. 이처럼 학습과 조직관념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유능한 혁명가로 준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높은 자각과 책임성,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힘있게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학습과 조직관념은 또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혁명가의 영원한 생명인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직정치생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

정치적생명은 사회정치활동, 혁명을 하는 사람이 지니게 되는 생명으로서 사람들에게 한생을 혁명의 길을 곧곧이 걸어나가는 힘과 생기를 넣어주는 원천으로 된다.

학습과 조직관념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는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을 부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가의 중요한 품성인 조직성을 키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해나가게 함으로써 혁명가로서 한생을 빛내여나갈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당원들은 꾸준히 학습하고 높은 조직관념을 가져야 참다운 혁명가의 고상한 품성을 갖추어나갈수 있다.

언제나 학습하는 기풍과 혁명적조직관념을 가지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품성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학습과 조직생활,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사업에 대한 높은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 참다운 혁명가로 끊임없이 준비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지니고 언제나 수령님의 혁명전사답게 살며 일하려는 혁명가적 품성과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은 다 그들의 혁명적조직생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학습과 조직관념은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직정치생활이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가의 영생하는 생명을 지니고 끝까지 혁명의 길을 걸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완성해나가게 하는 위력한 힘의 원천이다.

2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학습은 혁명가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구호의 하나는 학습입니다. 꾸준히 학습하고 열심히 배우지 않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발전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29~230페지)

혁명이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창조적인 투쟁이다. 혁명가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혁명가의 이러한 자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실천투쟁과 함께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 아는것이 적고 머리가 비게 되면 혁명의 진리를 똑똑히 인식할수 없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능숙하게 벌려나갈수 없다.

혁명이 심화발전되고 정세가 변하는데 따라 당의 투쟁방침과 전략전술도 새롭게 제시되며 과학과 기술도 부단히 발전되게 된다. 혁명의 매 시기마다 화력을 집중해야 할 돌파구가 어데 있고 그 수행을 위한 전술과 방도가 어떤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당의 로선과 정책이 새롭게 제시된다. 일생을 혁명위업수행에 몸바쳐 싸워야 할 혁명가들이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학습을 해야 한다.

특히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영양소로 하여 살며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이야말로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영원히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게 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학습은 누구나 다 해야 하지만 지도일군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자기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지 않는다면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없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학습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본분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살며 싸우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죽는 순간까지 주체의 혁명위업에 충실해야 하며 그러자면 죽는 순간까지 학습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정책학습, 정세학습, 기술학습을 꾸준히 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기술실무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정책학습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첫째가는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간부들은 당정책학습을 강화하여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자로 하여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3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며 여기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다 밝혀져있다.

당정책학습을 깊이하여 우리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일해나갈수 있으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당정책학습을 소홀히 하면 정책적안목이 무디여지고 똑똑한 자막대기를 가지고 사업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을 제때에 깊이 학습하여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있어야 하며 특히 자기 부문의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정세학습을 잘하는것은 모든 일군들이 변천하는 정세에 맞게 자기 사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금 우리는 나라가 분렬되고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환경도 매우 복잡하며 국제정세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정세학습을 잘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없으며 시시로 급변하는 정세를 제때에 옳게 분석판단할수 없다. 정세를 잘 모르면 당의 정책과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임무를 수행해나갈수 없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언제나 정세의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당보를 비롯한 신문과 정세자료를 일상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정세강연에도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또한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술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생산과 건설의 규모는 비할바 없이 커졌고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오늘의 현실은 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잘 모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관적욕망이 높다 하더라도 당의 요구대로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공업화된 농촌경리를 제대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없다. 오늘에 와서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현실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능력있는 사람들을 요구하며 또 이런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주체적인 경제관리운영지식을 학습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본질과 요구들을 잘 알아야 하며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 독립채산제에 관한 지식, 생산계획, 원단위소비기준, 설비리용률, 로동생산능률, 로력관리, 원가 및 재정관리 등에 대한 경제지식들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 사업에 정통해야 한다.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또한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에 밝아야 한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더욱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요구되는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와 선진경험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공업부문일군들은 기계와 기술에 정통해야 하며 농업부문일군들은 주체농법은 물론 자동차와 뜨락또르, 농기계를 다룰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고 주체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지휘성원의 자격이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언제 어떠한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각적으로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과업을 다하고 시간이 있으면 학습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것과 같은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어렵고 복잡한 때를 가리지 말고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사소한 조건타발과 구실도 없이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언제 어디서나 분초를 아껴가면서 학습하는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학습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토요학습과 수요강연회와 같은 정규학습에 참가하는것에 만족하지 말고 자체학습을 많이 해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현실에 들어가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학습해야 하며 하나를 알아도 실지 써먹을수

있도록 깊이 알아야 한다. 학습에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없이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하며 내용을 파악함이 없이 외우는 식으로 학습하는것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 혁명적학습방법과는 인연이 없다.

오늘 학습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당의 의도에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기술실무적으로 밝은 유능한 지도일군으로, 참다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시려는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기대가 깃들어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학습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3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념을 높여야 한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한평생을 오로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자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강한 조직생활을 통하여 단련되고 준비되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 나간다.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는것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상한 품성이며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과 혁명에 대한 우리 일군들의 충실성은 높은 조직관념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높은 조직관념을 가진 사람만이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에 성실히 대하며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높은 조직관념은 우리 당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다. 당과 혁명의 전위투사들인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지녀야 당의 통일단결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조직된 력량으로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렇듯 높은 조직관념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중요한 표징으로 되며 조직관념을 높이는 여기에 일군들과 당원들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조직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옳바로 가지는것이다.

자기 조직을 존중하고 사랑하는것은 조직관념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신을 생각하기전에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을 사랑하며 존엄있게 대하여야 한다.

일생을 당과 혁명을 위해 바칠것을 결심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있어서 조직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조직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개인의 리익은 희생시킬지언정 조직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높은 조직관념을 지닌 당원의 자세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조직관념은 당조직생활에서 나타나며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과정에 더욱더 높아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됩니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입니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68~469페지)

누구나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처음부터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는것이 아니며

정치조직에 들었다고 하여 저절로 조직관념이 높아지는것도 아니다. 혁명가의 높은 조직관념은 강한 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게 되며 끊임없이 공고화되게 된다.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지 않고 조직생활의 용광로속에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하며 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혁명적조직성, 높은 조직관념을 지닐수 없으며 당과 함께 영원히 혁명의 한길을 따라 싸워나갈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수양해야 하며 그러자면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당조직은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주며 빛내여주는 어머니이다.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늘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을 때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단련되고 수양되게 되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한다는것은 곧 자기의 모든 정치생활, 경제생활 지어는 속에 품고있는 사소한 생각과 사생활문제까지도 스스로 당조직에 보고하여 조직의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하지 않고 조직관념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져서 당도 몰라보게 되고 나중에는 사상적으로 변질되며 혁명의 길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이 잘 말해주고있다.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적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되면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결함과 부족점들도 제때에 고치고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여나갈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조직적관념도 높아지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에 속을 주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당회의와 당학습에 적극 참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회의와 당학습은 조직생활의 중요한 내용이며 당원들의 사상을 단련하고 조직관념을 높이는 혁명적학교이다.

당회의와 당학습을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은 정치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해나간다.

당회의와 당학습을 시끄러운 일로 여기거나 시간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직관념이 없고 당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회의와 당학습에 적극 참가하여 문제토의에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내놓아야 하며 일단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이 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곧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과정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성실하게 대하여야 하며 그것을 제때에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당원들은 언제나 자신을 조직과 련결시켜 생각하고 자신의 사업과 생활을 일상적으로 총화해보아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매일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정확히 수행하였는가를 스스로 총화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조직관념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할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이다.

우리 당의 규률은 당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것인 동시에 누구나 다

똑같이 지켜야 할 의무적인것이다. 사업에서는 상하가 있고 지휘관이 있지만 당생활에서는 높고낮은 당원이 따로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다같이 당의 규률을 지키도록 하여야 조직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옳바로 가지게 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특히 지도일군들속에서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며 당생활에서 특권을 부리려는 조그마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이렇게 할 때 당안에 2중규률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성실하게 받을수 있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은 강한 비판과 자기비판 속에서 진행될 때 참말로 건전하고 전투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부족점을 고치고 좋은 점을 더욱 살려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여 참다운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해나갈수 있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여 온갖 낡은것을 뿌리뽑아 버리고 새것을 적극 조장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당을 힘있고 생기발랄한 전투조직으로 강화하며 일군들과 당원들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있다.

비판은 같은 사상,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혁명대오에서 서로 굳게 손잡고 싸워나가는 혁명동지들사이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의리의 발현이다.

일군들은 일하는 과정에 결함이 나타날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나타난 결함을 어떻게 고치는가에 달려있다. 비판을 꺼려하면서 자기 결함을 허심하게 털어놓기를 두려워하거나 비판을 받았다고 하여 우울해지고 맥을 놓는다면 자신을 훌륭한 혁명가로 단련해나갈수 없으며 혁명사업을 계속해나갈수 없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사소한 결함에 대해서도 조직과 집단 앞에 솔직히 내놓고 동지들의 방조를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교훈을 찾고 결불에 맞아 그런 결함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동지들이 주는 비판이 비록 일시적으로는 쓰고 아프다 하더라도 그것을 혁명전우들의 믿음의 표시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자는 뜨거운 동지적사랑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비판된 문제를 대담하게 고쳐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다 당회의에 준비있게 참가하여 비판과 자기비판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회의가 언제나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당원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판사업은 회의때만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동지들의 결함에 대하여 제때에 일깨워주고 고쳐주는것을 철저히 생활화, 습성화해야 한다.

이렇듯 학습과 조직관념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있어서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학습을 잘하고 조직관념을 높이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담보

최 상 순

1966년 10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가 있은 때로부터 열두해가 지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시련을 겪고 그 발전도상에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던 시기에 우리 당 대표자회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당의 대내외활동방침을 새롭게 규정하시였으며 자주성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로 다시금 심오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의 원칙과 그를 옹호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우리 당이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해온 자주로선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자주성의 기치밑에 국제혁명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전반적세계혁명을 추동하는데서 거대한 기여를 한 력사적회의였다.

실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자주성을 지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더욱더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과 시대의 요구, 매개 나라와 민족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반향과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을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향도적기치로, 세계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오늘 세계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 세계혁명의 발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견지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함으로써 세계혁명도 잘하도록 하는 혁명적인 사상이다.

자주성의 원칙은 온갖 예속과 지배를 반대하며 자주적으로 살것을 바라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

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매개 나라와 민족이 오직 자기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하여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대내외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자주성에 관한 사상에서 기본은 정치적자주성이다.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는것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첫째가는 요구이며 매개 나라 혁명의 성과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86페지)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생명으로 된다.

자주성을 잃은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삶의 참다운 가치를 가질수 없는것처럼 민족도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자주적인 민족으로서의 생명을 못가지며 자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켜낼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매개 나라와 인민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참다운 민족적독립의 필수적요구이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자체의 본성적요구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본래 자주성을 위한 운동이며 자주적인 운동이다. 로동계급은 온갖 예속과 억압을 없애고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무대에 나섰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며 자주성을 옹호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결심에 기초하여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관철하지 못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할수 없다. 정치적자주성을 떠나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없고 자위적인 국방력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으며 따라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자주성에 관한 사상이 무엇보다 먼저 정치적자주성으로 구현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고 혁명과업이 다르며 그들이 처한 력사적 및 지리적 조건이 같지 않은만큼 주체적립장에서 자주적으로 모든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기 나라 실정과 자기 혁명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전략전술을 세우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내놓을수 있으며 그것을 드팀없이 밀고나갈수 있다.

만일 정치적자주성이 없이 남의 풍에 놀거나 다른 나라만 쳐다보아서는 결코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할수 없다.

다른 당의 사상, 다른 나라의 경험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것이라 하여도 통채로 삼켜서는 안된다. 다른 당의 사상과 경험을 그대로 삼켜가지고서는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자주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자기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체로 세워나가야 한다.

매개 나라 당이 자기의 대내외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관철해나가는것은 혁명투쟁자체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따라서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어떻게 수행할것인가 하는것은 마땅히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자체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은 곧바른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들이 인민들의 자주적발전을 각방으로 저애하고있는 조건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는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 책동이 우심해지고있는 정세하에서 매개 나라와 당이 자주성과 독자성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따라간다면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없을뿐아니라 구경에는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 사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혁명전반에도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적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존중하여야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 것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들 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도모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44페지)

정치에서의 자주성의 원칙은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당들간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요구함으로써 온갖 예속과 압박, 불평등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며 국제적 협조와 단결이 진실로 자원적이며 동지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신이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뿐아니라 그 누가 남을 예속시키는것도 반대한다. 자주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나라와 당의 신성한 권리이며 매개 나라와 당은 다른 나라와 당의 자주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주적이다. 큰 민족이건 작은 민족이건 다 자기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만일 그 누가 나라들과 당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한다면 나라들과 당들사이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은 파괴되여 단결과 협조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에는 수많은 독자적인 민족부대들이 활동하고있다. 그들은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을 다같이 밀고나가고있다.

개별적인 나라들의 혁명운동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은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있으며 세계혁명의 승리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계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국제혁명력량의 매개 민족부대들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이 부대들사이의 공고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자주성에 기초하여 국제혁명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그를 더욱 강화한다.

매개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이 떼수 없

이 련결되여있는것과 같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옹호하면서 동시에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서로 결합되여있는 문제로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전반적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된다.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매개 나라와 당이 모든 사고와 실천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자주성을 호상존중하면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세계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을 요구한다.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매개 나라와 당이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그 기초우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해나감으로써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온갖 형태의 예속관계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매개 나라의 자주독립을 공고히 하며 모든 민족들이 참말로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향도적기치이며 혁명하는 인민들과 나라들의 대내외정책의 기초와 세계혁명의 력량편성에 관한 전략적인 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세계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과 인류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자주성에 관한 사상과 자주로선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인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 조선혁명의 승리적로정이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근본원리와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당과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 호상관계를 맺고있으며 대외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조선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왔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당은 수시로 급변하는 정세하에서도 아무런 편향없이 대외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관계는 매우 넓어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세계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대내외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자주성이 확고히 견지되고 자주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되였다.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

범의 나라》로 불리우고있으며 국제관계분야에서 그 영향력과 발언권이 비상히 높아졌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력사적인 투쟁에서, 복잡한 내외정세하에서 언제나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세계혁명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으며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부대로 되였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남에게 의존할것이 아니라 오직 자주의 길을 걸어야만 독립을 고수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혁명의 경험은 자주성에 관한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생동한 현실로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오늘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그 불멸의 진리성과 혁명성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더욱더 많은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을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용감히 일떠서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5페지)

오늘 세계인민들은 모두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고있다. 특히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을 쟁취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온갖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략탈, 간섭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자주권과 경제적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수세기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제국주의의 생명선으로 되여있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생활창조에 과감히 떨쳐나섰으며 정치적자주권과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조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제멋대로 분할하고 닥치는대로 착취하며 인민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롱락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전에 몇몇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전횡적으로 취급되고 결정되였던 국제문제들이 오늘에는 새로 독립한 수많은 민족적독립국가들의 참여없이는 더는 해결될수 없게 되였다. 자주의 거세찬 흐름에 의하여 지난날 세계의 지배자로 자처하던 제국주의자들이 더욱더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어제날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인민들이 세계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다.

민족해방투쟁이 승승장구하는 과정에 자주의 힘찬 조류를 반영하여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였다.

반제자주를 위한 신흥세력나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국제관계분야와 국제무대에서도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날로 커가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줄기찬 공동투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전반적위기를 더한층 격화시키고있으며 세계혁명과 인류력사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

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식민주의잔재를 청산하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화되고있다.

오늘 자주성을 요구하는 기운이 신흥세력나라들에서뿐아니라 자본주의나라 인민들속에서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 누구도 더는 큰 나라에 매워살지 않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오늘처럼 광범하게, 세계정치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줄기차게 벌어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과 인민들은 자기 체험을 통하여 자주성은 인간에게 있어서나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것이라는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함이 없이는 자주성을 찾을수 없다는것을 깨닫고있다.

세계의 변화된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은 다름아닌 자주성에 관한 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가져온 열매이다.

오늘 국제정세의 발전은 매개 나라와 당들이 자주성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국제적인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여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44페지)

자주성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국제혁명력량을 묶어세우며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현시기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요구로 되며 국제혁명력량을 새로운 기초우에서 단결시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전제로 된다.

모든 나라, 모든 당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존중하며 그를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고서는 매개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나서는 그 어떤 크고작은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정치적자주성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고수될수 없다. 지배주의자들은 언제나 민족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짓밟고 다른 민족의 정치적자주성을 유린하기 위하여 침략과 간섭을 일삼는다.

오늘 지배주의세력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을 되돌려세우려고 무모하게 책동하면서 세력권확장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 리간, 쟁탈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들은 구식민주의가 남겨놓은 유산들인 국경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분쟁문제들과 기타 제도, 신앙, 종교적 차이들을 리용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불화의 씨를 뿌리며 반목과 대립을 고취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들이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분렬리간시켜 자기들의 세력권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쟁탈전을 치렬하게 벌리면서 반혁명적진출을 전례없이 로골화하고있는 정세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

고 그들의 분렬, 와해, 쟁탈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대처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조성된 사태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이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자주성을 엄중히 침해한 결과 생겨나게 되였으며 따라서 조성된 사태를 수습하고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는 구경 매개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결되여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고수해야만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분쇄할수 있다. 또 매개 나라들이 자기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분쟁문제를 해결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최대한으로 도모할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또한 신흥세력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려 정치적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며 정치적자주성의 물질적담보로 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나라의 자연부원과 령해권을 지키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

마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옛진지를 도로 찾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지만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는것을 대외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지난 7월에 베오그라드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의 전과정은 쁠럭불가담운동이 단결의 전략으로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에 맞서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온갖 예속과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게 할것이다.

우리 시대 연극혁명의 새로운 리정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에 대하여—

최근 국립연극단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인 1928년에 처음으로 공연의 막을 올렸던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다시 형상하여 무대우에 올렸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이 창조된 때로부터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돐을 영광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고있는 때에 이 혁명연극이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된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다.

오늘 이 혁명연극이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크나큰 감동을 자아내고있는것은 작품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체현한 원작을 재현하면서 연극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였기때문이다.

연극혁명을 일으켜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연극예술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오늘 연극예술은 마땅히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의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정서에 맞는 공산주의적인 예술로 되여야 한다.

그 어느 예술종류보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연극의 형식과 형상방법은 현대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시기에 주로 가정륜리나 인정세태적인 생활을 그리면서 착취계급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이루어졌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연극을 개혁하려는 이러저러한 시도들이 있었고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오늘까지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극 형식과 형상방법을 창조하는것과 같은 근본적인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게다가 여러 나라들에서 연극을 순수 취미본위주의, 흥미본위주의의 길로 이끌어감으로써 연극예술의 쇠퇴과정은 더욱 촉진되였다.

연극예술의 이러한 실태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넓고 깊이있게 예술적으로 재현할수 있는 영화와 같은 예술형식들의 급속한 발전은 연극혁명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시대적요구와 연극발전의 실태로부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다시 무대에 올려 새로운 혁명연극의 본보기를 창조함으로써 기울어져가는 연극예술의 운명을 구원하고 연극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작품의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에 있어서나 극 형식과 형상방법에 있어서 종래의 모든 연극들과 구별되는 우리 시대 연극혁명의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기념비적작품이다.

1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과 감정에 맞는 새로운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탄생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그림으로써 생활과 투쟁의 심오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사람은 《하느님》이나 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심각

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종자로 하고있는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69페지)

혁명연극 《성황당》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이 체현되여있는 종자를 통하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깊이있게 해명하고있으며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연극의 중심에는 농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놓은 성황터 앞밭을 지주놈과 구장놈이 서로 자기의것으로 만들려는 사건, 지주놈과 구장놈이 서로 면장이 되기 위해 며칠후이면 결혼식을 하게 될 복순이를 군수놈의 셋째첩으로 보내려는 사건이 놓여있다. 이 사건들은 성황터 앞밭자리에 례배당을 지으려는 전도부인과 수십만평의 땅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농민들의 자그마한 땅마저 빼앗아내려는 중놈이 얽혀돌고 나중에는 지주놈과 구장놈이 복순이를 기어코 군수놈에게 보내려고 큰무당까지 끌어들이게 되는것으로 해서 더욱 복잡해진다.

성황터 앞밭문제와 복순이를 끌어가려는것을 두고 착잡하게 얽힌 극적관계는 극의 중심에 서서 놈들간에 싸움을 붙여놓고 놈들의 간악하고 교활한 책동을 앞질러가서 파탄시키는 돌쇠로 해서 더욱 첨예하고 날카롭게 발전해나간다.

연극은 이러한 사건속에 복잡하게 얽혀들어가고있는 각이한 인간의 성격들을 통하여 생활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있으며 주제사상의 심오성을 보장하고있다.

연극은 야학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이 세상에 미신이란 없다는것을 깨닫고 그것을 반대하여 싸우는 주인공 돌쇠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참된 삶과 행복을 위해서 종교나 미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연극은 또한 겹쌓이는 생활의 고통과 비극을 신의 힘을 빌어 가셔보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지주나 구장놈을 비롯한 착취계급들에게 더욱 얽매이는 길이라는것을 깨닫게 되는 박씨나 복순이를 통하여 종교나 미신은 아편과 같은것이며 그것을 믿어서는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고있다. 작품은 입으로는 항상 《하느님》이나 교리를 부르짖으면서도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자신의 향락과 출세를 위하여서는 미제와 일제까지 등에 업고 추잡한 개싸움을 벌리는 지주와 그의 처, 구장과 그의 처, 전도부인, 중, 큰무당을 통하여 종교와 미신의 허위성과 기만성, 반동성을 날카롭게 폭로하고있다.

이와 같이 연극은 단순히 낡고 반동적인것을 폭로하고 비판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밝혀주는데까지 형상을 심화발전시켜 주제사상의 전투성과 혁명성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풍자극으로서의 이 작품의 새로운 혁신적측면이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심오한 주제사상은 명백하고 열렬하고 예리한 정서를 통하여 관중들의 가슴속에 깊이있게 파고든다.

높은 사상이 고상한 정서로 안받침되는것은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예술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예술적감화력의 원천으로 된다.

연극에는 우매하면서도 포악하기도 하고 간교한 착취계급들의 생활을 규탄하는 예리한 풍자적웃음이 있는가 하면 지혜와 슬기를 가진 돌쇠의 성격속에서 흘러나오는 해학도 있고 헤여날수 없는 가난과 고통에 눌리워 누구에게나 차례질수 있는 결혼이라는 하나의 계기를 두고도 기약할수 없는 생활의 고통을 체험하며 모대기는 복순이와 만춘 그리고 박씨의 생활로부터 흘러나오는 고민과 슬픔, 눈물도 있다.

연극은 다양한 성격과 각이한 운명을

가진 인간들로 복잡하게 얽혀지는 심각한 이야기를 생활의 론리에 맞게 끌고가면서 폭소가 터지는 장면을 펼쳐보이기도 하고 행복의 미소가 있는 대목을 보여주는가 하면 눈물이 고여흐르는 장면도 펼쳐보이면서 산 인간들의 모습들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형상조직으로 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풍자적웃음으로 일관되여있던 종래의 풍자극과는 달리 풍자적웃음을 위주로 하면서 정극적요소도 있는 독특한 양상을 가진 작품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연극이 극적형상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수 있은것은 부정인물만 등장하거나 긍정인물이 나오는 경우에도 극히 부차적인 역할밖에 놀지 못하던 지금까지의 풍자극들과는 달리 긍정인물을 기본주인공으로 하면서 그의 성격을 작품의 종자와 양상적특성에 맞게 옳게 규정하고 생활의 론리를 따라 극을 끌고나간데 있다.

그것은 또한 혁명연극 《성황당》이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지 않게 극을 엮어나가거나 사건을 첨예화시키는 방법으로 인위적인 《극성》을 노리면서 극을 조직하던 종래 연극의 낡은 극조직과 극작술을 마스고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실생활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여주는 새로운 극조직과 극작술원칙에 의거하였기때문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혁명성과 전투성, 철학성을 가진 주체사상적내용과 새롭고 독특한 극조직과 극작술로 엮어진 예술적형상의 완벽성, 생활반영의 진실성으로 하여 창작된지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없이 커다란 감동과 흥분 속에 사람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힘있게 깨우쳐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루어진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우리 인민과 인류의 고귀한 사상문화적재부로 되며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뿌리로 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2

연극예술을 참말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하자면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혁신하는것과 함께 주체시대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극형식을 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의 낡은 형식들을 새로운 현대예술의 립장에서 비판적으로 섭취하여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였으며 인민들의 처지와 그들의 생활풍습과 도덕적풍모도 변하였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65페지)

낡은 연극의 틀을 마스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무대형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실생활그대로 실감있게 립체적으로 볼수 있는 새로운 무대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눈으로 가려볼수 있는 현실 그대로의 화폭, 귀로 들을수 있는 미세한 소리와 음향까지를 현실처럼 느낄수 있는 립체적무대형상을 창조한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 거둔 가장 중요한 혁신적성과로 된다.

립체적인 무대형상, 이것은 《성황당》식혁명연극의 특성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 립체적인 무대형상을 창조할수 있은것은 연출, 배우연기, 무대미술, 음악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 새로운 형상수단과 형상방법들을 찾아내고 극형식을 혁신하였기때문이다.

새로운 《성황당》식혁명연극의 립체적인 무대형상은 무엇보다먼저 종합예술의 여러 형상수단들을 하나의 전일적인 생활화폭에로 조화시키고 통일시키는 연출예술이 연극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관중의 심리를 틀어잡을수 있도록 극의 형상수단과 형상방법

을 대담하게 혁신함으로써 이루어질수 있었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연극의 정서와 감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음악의 적극적인 리용, 장치, 조명, 소도구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들의 적극적인 활용, 앞무대와 옆무대 그리고 뒤무대의 립체적인 리용 등 현대과학기술이 이룩한 일련의 기술적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실내극의 테두리에 머물러있던 낡은 극형식의 제약성과 형상방법을 마스고 장엄한 현실을 그대로 폭넓고 깊이있게 담을수 있는 새로운 극형식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낡은 연극의 이른바 《무대적제약성》이 완전히 극복되고 실내극적인 무대리용범위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형상의 나래를 펼치고 등장인물들의 생활환경을 여러모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보일수 있는 새로운 극형식이 이루어질수 있게 되였다.

연출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신은 또한 극조직에서 사건본위로 나가던 연출체계로부터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에로의 전환이다.

사건본위의 연출방법에서는 감정조직이 생각밖에 있었다. 이로 하여 종래의 연출방법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지 못하였다.

우리 당은 연출예술의 이러한 실태를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극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이라는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 불행한 운명을 가시자면 《성황님》에게 비는수밖에 없다고 옹고집을 부리던 박씨가 미신의 허황한 내막을 깨닫자 자신의 손으로 성황당을 까부시는 절정대목이 그렇듯 커다란 감동을 주는것은 전적으로 충분한 생활적전제를 깔아주면서 감정이 축적되고 폭발되는 과정을 진실하게 잘 그린 결과이다.

이처럼 혁명연극 《성황당》에서 감정조직의 본보기가 창조됨으로써 사건의 뒤꼬리를 좇아가던 낡은 연출수법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의 운명과 생활의 철학을 파고드는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무대형상창조에 맞는 새로운 연출방법이 확립되게 되였다.

이밖에도 연출에서는 화술지도를 위주로 하는 연기지도방법,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는 다양한 생활을 진실하게 그대로 펼쳐보이면서도 작품의 독특한 양상을 조화롭고 특색있게 하나로 통일시키는 원칙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독창적으로 해결되였다.

배우예술은 연극혁명을 위한 돌파구이다. 그것은 배우가 인간성격의 직접적인 창조자이며 특히 연극의 립체성을 보장하는데서 그가 노는 역할이 매우 크기때문이다.

관객들이 연극을 통하여 현실을 립체적으로 보게 하려면 배우들이 무대에서 움직이는것을 보는것이 아니라 실제 산 인간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게 되여야 한다.

지난날 배우예술은 낡은 연극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하게 숨쉬며 움직이는 산 인간을 진실하게 그려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극적인 틀, 신파와 과장이 제일 심하게 나타난것은 화술분야였다. 목을 누르며 소리를 크게 치고 멋부리는것은 연극배우화술의 고질적인 버릇이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에 나오는 배우들의 화술은 아름답고 유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적인 말투로 역인물의 심리와 감정의 세세한 색갈을 잘 나타냄으로써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 그들을 극의 세계에 깊이 끌어들어가게 하였다. 또한 배우들이 현실생활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것처럼 진실하게 연기함으로써 고질적으로 내려오던 신파와 과장을 철저히 극복한것은 배우연기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배우연기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혁은 형식주의연기의 마지막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사실주의연기가 완성되였으며 연극무대에서 산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줄수 있는 본보기가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한다.

음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극의 형

상수단을 더욱 풍부히 한것은 《성황당》 식혁명연극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된다.

연극에 음악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 또 음악을 쓰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은 음악을 연극예술의 중요한 형상수단의 하나로 만드는가 못만드는가, 극적형상을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는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된다.

새로운 혁명연극에서는 음악을 생활분위기를 돋구어주는 음향효과로나 리용하던 지난 시기의 낡은 틀을 마스고 음악을 인간성격들의 감정심리세계를 밝혀주고 극의 생활적정서를 돋구어주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게 함으로써 연극에서 음악이 대사와 같이 연극의 기본형상수단의 하나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연극혁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인민음악의 기본형식인 절가를 극음악으로 많이 리용하면서 방창을 새롭게 도입하고 극적정황과 밀착시켜 잘 씀으로써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연극의 물레방아간장면에서 리별을 앞둔 복순이의 착잡한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음악과 1장 마지막에서 박씨의 감정상태를 표현해주는 음악 등은 그 좋은 실례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음악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주제가를 극발전에 따르는 정황에 맞게 반복하여 쓴것이다. 명작의 주제가는 지주놈과 구장놈의 흉계를 통쾌하게 짓부시는 돌쇠의 성격과 작품의 종자를 집약적으로 부각시켜주기도 하며 장면과 장면을 련결해주는 다리의 역할도 하고 정황의 정서적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기도 한다.

이밖에도 대사를 성격형상의 기본수단으로 하는 연극의 특성을 살리여 독창형식의 방창을 위주로 쓰는 원칙, 긍정인물들의 슬프고 애절한 감정을 대변한 음악과 놈들을 야유하는 풍자음악을 주선률에 의하여 통일시키는 방법, 련결음악으로 연극의 장면들을 정서적으로 지속시키는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연극음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 이룩한 가장 큰 혁신적성과는 립체적무대미술을 창조함으로써 단답하고 어둡침침하고 평면적인 낡은 무대미술의 틀을 완전히 마사버린것이다.

혁명연극은 등장인물의 생활환경과 행동조건을 고착된 상태에서 만들어주던 연극의 낡은 틀을 없애고 배경을 시원하게 틔워주고 무대중심과 앞무대까지 확대하여 무대공간을 립체적으로 쓸수 있게 하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이 무대미술에서 세계적기준을 창조한것은 새로운 무대전환법의 도입이다.

수세기를 흘러온 무대력사는 한 장면을 끝내면 다음 장면의 무대전환을 위해 조명을 끄는것을 철칙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혁명연극 《성황당》은 무대전환의 이러한 낡은 틀을 마스고 조명을 끄지 않고 밝은 상태에서 무대장면을 흐름식으로 바꾸는 새로운 무대전환법을 창조하였다.

등장인물의 행동선과 유착된 이러한 무대전환은 장면을 지속적으로 변결시키게 하였으며 영화를 보는것처럼 생활을 흐름 그대로 생동하게 펼쳐보일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무대전환법은 극전환을 매우 빠르게 해주며 극이 진행되는 과정에 무대가 바뀌여도 극의 감정조직에 아무런 손색을 주지 않고 감정축적을 그대로 고조시키면서 주제사상을 시종일관 천명하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 어떠한 소음도 없이 무대가 감쪽같이 바뀌여지고 아무런 거침도 없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흐름식무대전환은 등장인물들의 생활을 여러모로 폭넓게 보여주며 지속되는 감정선을 타고 극세계에로 관객을 줄기차게 끌어들일수 있게 하였다.

특히 선돌마을풍경을 그린 간막이 앞

무대를 통하여 서서히 흐르면서 다음 장면을 펼쳐보인것은 무대전환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하나의 생동한 실례이다.

간막에 주인공들이 활동하는 생활환경을 비쳐주면서 무대가 계속 흐르게 한것은 무대미술사상 처음으로 발견된 입체적인 전환수법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무대미술이 이룩한 혁신적성과의 하나는 또한 무대미술의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형식을 더욱 완성시킨것이다.

명작의 무대미술에서는 조선화의 기법을 도입하여 배경회화에서 종전의 거치른 화법과 어두운 색조를 철저히 극복하고 부드럽고 연하며 시원한 색채와 섬세하고 힘있는 필치로써 대상을 선명하고 치밀하게 묘사하고있다.

이밖에도 조선화의 특징을 잘 살리고 조명의 다양한 처리로써 무대를 밝고 선명하게 형상한것은 이 명작의 무대미술의 특징이며 커다란 성과로 된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피바다》식가극무대미술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새로운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무대미술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성황당》식혁명연극창조에서 연출을 비롯한 배우, 음악, 무대미술 등 연극예술의 여러 부문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혁은 인류연극사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인 사변이며 주체적연극혁명의 빛나는 승리이다.

* *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와 가극으로 옮긴데 뒤이어 혁명연극 《성황당》이 오늘의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된것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오늘의 연극무대에 올림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였으며 이 혁명연극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의 연극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밝은 앞길을 열어놓게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창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연극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연극혁명의 승리를 선포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연극혁명의 빛나는 승리로 하여 지난 시기 낡은 연극에 종지부가 찍혀지고 연극발전에서는 새로운 력사적시원이 열려지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혁명가극에서뿐아니라 혁명연극에서도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이 세상에 종교와 미신이 널리 류포되여 그것이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타락시키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들과 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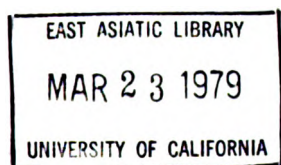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탄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혁명적문예전통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이다.

(연극인동맹중앙위원회)

근 로 자 1978년 제10호(루계 438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8년 10월 1일 발 행 • 1978년 10월 5일

ㄱ—85255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제11호(43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김 일 성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0월 1일)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전국교육일군대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 당의 령도밑에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공산주의후비대를 키우며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꾸준히 투쟁하여온 직업적교육혁명가들인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교육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는 물론, 해방후에도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과학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인테리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새 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인테리들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마크에도 표시되여있는바와 같이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자기의 구성성분으로 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테리는 정신로동을 하는 로동자입니다. 특히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의 인테리는 민족적혁명성이 있으며 애국심이 높습니다. 물론 인테리는 하나의 계급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인테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의 한 성원입니다. 인테리가 없이는 사회도 발전시킬수 없고 자주독립국가도 건설할수 없습니다.

인테리들이 그저 보기에는 헐한 일을 하는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테리들은 남보다 못지않게 수고를 하고있으며 정신로동으로 혁명과 건설에 크

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의 교육정책과 인테리정책을 높이 받들고 해방직후부터 교육사업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온 우리의 교육일군들과 인테리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해방후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맨으로부터 교육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방전에 우리 나라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방전에는 기껏하여 도에 중학교가 한두개씩 있었을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는 백수십개의 대학이 있고 리마다 고등중학교가 있으며 전체 인민이 다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육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학생수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보다도 많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보다도 많습니다. 총련을 비롯하여 해외교포들이 운영하는 우리 학교들까지 계산하면 학생수가 이보다 더 많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해외에까지 자기의 학교를 많이 가지고있는 나라도 없거니와 학생비률이 우리 나라와 같이 높은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교육을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교육사업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증명하여 주고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우리 민족의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로동당시대에만 있을수 있는 가장 영예롭고 찬란하고 위대한 공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을 공부시키며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은 결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그리 풍부하지 못하며 해야 할 일도 많고 다른 부담도 많습니다. 우리는 경제토대도 더 튼튼히 닦아야 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도 많은 힘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들을 국가의 부담으로 공부시킨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는 학생만 하여도 500만명이 넘으며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860만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철따라 옷을 해주어야 하고 교과서를 만들어주어야 하며 대학생들에게는 기숙사생활조건까지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돈 한푼 받지 않고 먹여살리며 공부시키자니 국가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모든 곤난을 무릅쓰고 교육사업에 신차적힘을 넣고있습니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교육사업이 이처럼 중요하기때문에 우리는 해방직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부터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한쪽으로는 싸움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교육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전쟁시기에 우리는 전선에 나간 대학생들을 불러다 산속에 풍막을 치고 공부시켰습니다.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전후시기에도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학교부터 짓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사업에 많은 자금을 돌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자니 고생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생을 하며 교육사업을 한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 국가경제기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지난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입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인민들이 일하기 좋아하고 씩씩하고 명랑하고 전도양양하게 생활하며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여 있는것을 보고 몹시 부러워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이처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민으로 된것도 교육사업을 잘한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기간 모든 곤난을 무릅쓰면서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지 않았더라면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내지 못했을것이며 우리 인민을 근면하고 생기발랄한 인민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통일단결도 이룩하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우리 당의 교육정책과 인테리정책이 처음부터 얼마나 위대하고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교육사업을 강화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이 잘입고 잘먹고 잘사는 사회일뿐아니라 모두가 다같이 헐하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힘든 로동이 많으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가 남아있습니다. 로동의 온갖 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이 일을 헐하게 하도록 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생산을 고도로 자동화하는 한편 모든 사람의 기술지식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결국 로동의 온갖 차이를 없애는 사업이며 로동의 차이가 종국적으로 없어지면 곧 공산주의가 실현되는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사업을 잘하여 모든 학생들과 전체 인민들의 기술지식수준을 높여 우리 나라를 인테리의 나라로, 로동계급의 나라로 만든다면 공산주의가 실현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민족의 행복과 장래를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모든 사람을 다같이 잘사는 공산주의사회에까지 데리고 가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입니다.

교육테제를 관철하여 교육사업을 잘하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입니다.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

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교육테제를 관철하는 사업과 3대혁명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는가 못쌓는가 하는 문제가 주요하게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쳐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테제를 완전히 관철하면 3대혁명을 완성할수 있으며 3대혁명을 완성하면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어제 토론한 동무들이 교육테제를 자신만만하게 관철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동무들이 자신만만하다고 하니 나도 자신만만합니다. 우리의 교육일군들이 만만한 자신심과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것만큼 교육테제를 실현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 교육사업을 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과 같이 높은 수준에 올라섰는데 오늘의 조건에서 교육테제를 관철하는것은 그리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이제 교육테제를 관철하는것은 해방직후 령으로부터 교육사업을 추켜세우던것보다 훨씬 헐할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밑천도 없는데서 교육테제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힘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는 교육사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와 밑천이 마련되여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일군들이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일군들이 용감하게 달라붙어 투쟁한다면 능히 교육테제를 관철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의 량적수준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지만 거기에 비하여 질적수준은 그리 높지 못합니다. 특히 대학교육의 질이 낮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인민군대의 무장도 다 현대화된 조건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과 정치일군들을 많이 키워내야 사회주의경제건설도 잘할수 있고 국방력도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대학자체에서 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고등중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고등중학교에서 바탕을 튼튼히 다져야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등중학교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학생들을 최우등생으로 만들며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

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아래로부터 차례로 올리 풀어야 합니다.

학생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입니다.

지금 보통교육부문교원들의 자질이 높지 못합니다. 교원들의 자질이 높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지난날 우리 나라 교육이 빈터에서 출발하여 급속히 발전한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에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련이어 9년제기술의무교육과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수가 갑자기 불어나고 교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지 못한채 중학교와 인민학교 교원을 하게 되고 유치원교양원을 하게 되였습니다.

최근년간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린 결과 교원들의 수준이 그전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실발전의 요구에 비하여볼 때 아직 교원들의 자질이 전반적으로 높지 못하며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교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잘 꾸리고 사범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은 학생을 가르칠 교원을 키워내는 《원종장》입니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잘 꾸리고 사범교육을 강화하여야 유치원교양원과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원들을 훌륭하게 키워낼수 있으며 보통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서 대학교육의 질도 높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과 교육부문지도일군들은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잘 꾸리며 사범교육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둘째로, 지금 있는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교원대렬을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완전히 꾸리려면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교원들가운데서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통신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재교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신교육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학습에 대한 요구를 엄격하게 하여 대학통신학부졸업생들의 실력이 주간대학졸업생들보다 못하지 않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수강습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강습도 널리 조직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여야 학생들이 책에서 배운 리론을 실천을 통하여 공고히 하고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만들수 있으며 실천활동에서 창조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습니다.

자연과학교육에서 실험과 실습을 강화하는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회과학교육에서도 실습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사회과학교육에서는 웅변대회, 토론회 같

은것은 정상적으로 하며 당정책선전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널리 씨며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이 부속학교에 나가 강의도 해보고 필요한 교육학적 과정을 제대로 다 거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학생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학생들이 자만하지 말고 선진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하여서는 외국어를 알아야 합니다. 외국어를 알아야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서적들을 마음대로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진과학기술을 배울수 있습니다. 대학들에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대학기간에 영어, 프랑스어, 로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외국어가운데서 한가지이상의 외국어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현대과학기술을 배운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것을 통채로 삼켜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씹어보고 속에서 받으면 넘기고 받지 않으면 뱉아버리는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서 기준은 그것이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필요한것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기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비날론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적발명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테리들이 조국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자기 나라 원료에 기초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자기 나라 원료에 기초한 주체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동력공업을 건설한 경험이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지난 시기 일부 학자들은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원유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수력발전소나 다른 발전소를 건설하는것보다 빠르다고 하면서 원유발전소를 건설하자고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유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물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것보다 좀 빠를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원유를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원유발전소를 건설하였다가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제대로 들여오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우리 나라에 많은 수력과 석탄을 리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해주고 원유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후 몇해 지나서 세계적으로 연료위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자체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여 동력공업을 발전시킨 우리 당의 방침이 매우 정당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체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지 않고 원유발전소를 건설하였더라면 우리 나라도 세계 연료위기에 말려들어갔을것이며 경제발전에서 큰 지장을 받았을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으로서 인민경제를 자기의 힘과 자체의 원료,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체화를 실현하여야 인민경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서 주체화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원, 학생들 속에서 학풍을 세우며 학습제일주의를 내세워야 합니다.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학생이나 교원이나 할것없이 모두다 열심히 공부하며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학교들에서 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교육규률을 강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교육강령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할 법적과제이며 영예로운 혁명과업입니다. 교원들은 교육강령대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은 교육강령에 있는 학과목과 그 내용을 다 배워야 합니다. 교육강령을 집행하지 못하면 교원, 학생들이 자기 혁명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교원들은 교육강령대로 교수교양사업을 진행하여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모든 학생들을 훌륭하게 교육교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교육강령을 완전히 소화하기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 정권기관 일군들은 학교에서 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할수 있도록 조건을 잘 보장하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일부 지방들에서는 학생들을 사회적로동에 무질서하게 동원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과외시간에 사회적로동에 일정하게 참가시키는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사회적로동에 지나치게 많이 동원하여 학과학습에 지장을 주거나 교육강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물질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원과 학생이 있으면 다 되는것이 아닙니다. 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교육에 필요한 조건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학교들에 교육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소유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있습니다.

학교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학생들이 공부할수 있는 조건을 잘 마련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기간 학교를 많이 건설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갑자기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오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조건에서 더 많은 학교를

짓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 일부 학교들에서는 2부제수업을 하고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당, 정권기관들 그리고 전체 인민이 지원사업과 보장사업을 잘하여 학교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학교들에서 1부제수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1부제수업을 하여야 교원들이 교수를 끝마친 다음 자체학습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여 교수를 더 질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농촌학교들에서부터 1부제수업을 하기 위한 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도시에서도 학교를 많이 지어 모든 학교들에서 1부제수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를 많이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에서 배정한 학교건설용 자재와 자금을 다른데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교사가 모자라는것은 국가에서 학교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적게 주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학교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계획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권기관일군들이 학교건설용 자재와 자금으로 국수집과 려관, 사무실 같은것을 짓고 학교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국수집이나 려관, 사무실 같은것은 학교를 건설한 다음에 지어도 일없습니다. 국수집이나 려관, 사무실 같은것은 천천히 짓더라도 어린이들을 공부시킬 학교부터 지어야 합니다. 학교건설용 자재와 자금을 다른데 돌려쓰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학교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들에 실험실습설비를 더 많이 생산하여주어야 합니다.

실험실습설비가 갖추어져있지 않는 학교에서는 교육을 질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학교들에 실험실습설비를 보장해주는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일군들이 관심만 돌리면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로동자들에게 하루 10분씩만 더 일하여 학교들에 실험실습설비를 만들어 보내자고 호소하면 로동자들은 많은 실험실습설비를 만들어 보내줄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수많은 공장이 있는데 로동계급을 발동하여 한 공장에서 실험실습설비를 몇개씩만 만들어도 모든 학교들에 실험실습설비를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습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실험실습설비를 만들어 학교에 보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전기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무전기를 만들어 학교에 보내주고 선반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선반을 만들어 학교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실험실습설비를 많이 만들어 학교에 보내주어야 모든 학생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할수 있습니다.

학교들에 실험실습설비를 만들어 보내주는 사업을 전당적, 전인민적, 전국가적 운동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학교들에 실습공장을 많이 건설하며 공장, 기업소들에 학생들을 위한 실습장을 꾸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과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하려고 하여도 학교들에는 실

습공장이 적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서 실습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않기때문에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경제건설에서 현시대는 용접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나 건설부문에서나 용접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계공업부문과 건설부문 일군들의 용접기술이 높지 못하여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책공업대학과 평양기계대학, 건설건재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용접기술을 어떻게 가르쳐주는가 하는것을 검열하여보았습니다. 검열해본데 의하면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용접에 대한 리론은 알고있지만 실지 용접을 할줄은 모르고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학교에서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들에 실습공장들을 많이 짓고 공장, 기업소들에 실습장들을 꾸려주어 학생들이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을 통하여 공고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 시, 군 당위원회 일군들과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 일군들은 공장의 로동계급에게 호소하여 모든 공장에 학생들을 위한 실습직장이나 실습작업반을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에 꾸리는 실습장은 건물을 새로 짓지 말고 이미 있는 공장건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꾸려야 합니다. 기계공장에 실습작업반을 꾸린다고 하면 지금 있는 건물 한 모퉁이에 선반과 볼반을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몇대 갖추어놓으면 될것입니다.

협동농장들에서도 농업대학과 고등농업전문학교에 실습포전을 떼주어 학생들이 비료도 쳐보고 농기계도 다루면서 농사를 지어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학교들에 실습공장을 건설하고 공장, 기업소들에 실습장을 꾸려주어 학생들이 마음대로 실습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유능한 기술인재가 나올수 있으며 대학졸업생들과 고등전문학교졸업생들이 공장, 기업소에 배치된 첫날부터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고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수 있습니다.

종이혁명을 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참고서적을 출판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종이가 모자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술서적과 당정책해설도서, 소설 같은 여러가지 책들을 많이 출판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참고서적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고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참고서적을 많이 출판해주기 위하여서는 종이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종이문제를 푸는 주요한 방도는 지방에 있는 종이공장들을 다 돌리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거의 모든 군들에 종이공장이 꾸려져있으며 잡관목과 강냉이대, 버짚, 갈을 비롯한 종이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종이공장들을 제대로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1962년에 창성련석회의가 있은 다음 한동안은 모든 군들에서 종이공장을 꾸리고 종이를 생산한다고 벅적 고았는데 지금은 잠잠합니다. 우리 일군들이 모든 일을 꾸준하게 밀고나가지 않는것이 큰 결함입니다. 당일군들도 그렇고 행정일군들도 그렇고 경제일군들도 그렇고 사업에서 꾸준한 맛이 없습니다.

만일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이미 꾸려놓은 종이공장들을 잘 돌려 매

개 군에서 필요한 종이를 자체로 해결한다면 중앙공업에서 생산하는 종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참고서, 기술서적, 당정책해설도서,소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책을 더 많이 출판하여줄수 있습니다. 모든 군들에서 다시한번 종이생산운동을 벌려 더 많은 종이를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도서실을 잘 꾸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학습하는 조건에서 도서관을 잘 꾸리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출판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 다 차례지게 할수는 없습니다.

학생들과 인민들이 더 많은 책을 읽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소재지에는 도서관을 꾸리고 학교들에는 도서실을 꾸려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양에는 인민대학습당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인민대학습당에는 여러가지 책을 다 갖추어놓고 지방도서관에 없는 책들은 사본하여 보내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당의 구호는 매우 좋은 구호입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야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이 일을 헐하게 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테리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가져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는 놀고먹는 사람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과 다름없는 근로자입니다. 로동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고 농민은 논밭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며 인테리는 책상머리에서 연구를 하고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를 근로인테리라고 하는것입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근로하는 사람들, 로동계급화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지식수준을 인테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입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입니다. 농촌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이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것이라고 하면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로 만드는것입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테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복무하고있으며 거기에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간대학을 더 내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주간대학에서 공부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로동할 사람이 적어지고 나라의 로력사정이 긴장하게 될것입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장대학, 농장대학,어장대학과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을 많이 내오고 그것을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공장대학을 늘이고 운영하는것은 별로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장대학을 내오고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공장대학의 물질적토대도 닦아놓았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공업지대에 공장대학을 더 내오고 운영하는 사업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어려운 문제는 농장대학을 내오고 운영하는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청년들이 농사철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청년들을 어떻게 대학에 받아들여 공부시키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완성되고 농민들도 로동자들과 같이 8시간 로동을 하게 된다면 농장대학을 운영하는 문제도 쉽게 풀리게 될것입니다.

당면하여서는 기계화가 잘된 협동농장과 인테리들이 많은 공장가까이에 있는 협동농장을 몇곳 선택하여 시험적으로 농장대학을 내오고 겨울철에 운영하여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경험을 쌓은 다음 그것을 점차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일군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을 잘 꾸리고 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공부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테제에는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여있습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건설을 위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틀어쥐고 지도하는것만큼 마땅히 교육사업도 잘 지도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교육테제의 요구대로 교육사업을 잘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지만 도, 시, 군 당위원회들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하지 않고있습니다. 일부 지방당일군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학교들에 물질적조건이나 보장해주는것으로 대치하고 학교들에서 교수교양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기본은 교원들과 학생들을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교원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당정책을 얼마나 알고있는가, 학교교육의 질이 어떠한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교수교양사업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도, 시, 군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학교에 자주 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이 학교에 자주 나가서 강연도 하고 교수교양사업에서 걸린 문제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일군들이 학교들에 나가서 강연사업을 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 시, 군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교원들과 학생들 앞에서 우리 당 정책과 국내외정세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면 교원들과 학생들을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고 그들이 국내외정세를 환히 알게 만들수 있을뿐아니라 자신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는데도 좋을것입니다. 일군들이 강연을 하러 학교에 자주 나가면 교수교양사업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도 제때에 알고 풀어줄수 있습니다. 도, 시, 군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강연을 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주 나가면 결국 당적지도를 학교에 접근시킬수 있습니다.

도, 시, 군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다 공산대학이나 고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을 나온것만큼 강연제강을 얼마든지 자체로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자체로 우리 당의 공업정책, 농업정책을 비롯한 부문별 정책과 국내외정세에 대한 제강을 만들어가지고 교원들과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잘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도당책임일군들은 대학에 나가 강연을 하고 시, 군 당책임일군들은 고등중학교와 전문학교에 나가 강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무원을 비롯한 행정기관일군들도 교원들과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학교 소년단, 사로청 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 소년단, 사로청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조직생활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 교양을 받고 조직적으로 단련됩니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여도 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들을 옳게 교양할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비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비판이 학생교양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것은 교육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 우리가 직접 체험한것입니다.

1972년 9월에 내가 평양시 대동문인민학교에 나갔을 때 소년단에 갓 들어간 9살 나는 학생들에게 소년단모임에서 비판받은 일이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 연필을 깎아오지 않아 선생님이 불러주는것을 잘 받아쓰지 못하여 소년단모임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하기에 비판을 받을 때 감정이 어떠했는가고 물으니 가슴이 왈랑왈랑하고 막 떨리더라고 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비판을 받은 다음부터는 꼭꼭 연필을 여러자루 깎아가지고 와서 썼기때문에 그런 결함을 되풀이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숙제를 잘해오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는데 비판을 받은 다음부터는 숙제를 꼭꼭 해온다고 하였습니다. 천진란만한 어린 학생들의 대답을 통하여서도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비판이 학생교양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에서는 소년단원들과 사로청원들 속에서 비판을 강화하며 비판을 통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켜야 하겠습니다.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과 소년단지도원, 사로청지도원들은 학생들의 과외생활

은 책임지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생활에 대하여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학부형들이 다 직장에 다니기때문에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잘 지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조직과 사로청조직밖에는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할데가 없습니다.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과 소년단지도원, 사로청지도원들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하는것은 학생들을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잘 조직하면 집단생활속에서 그들을 훌륭하게 교양할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문제는 보통교육부문에서뿐아니라 고등교육부문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옳게 조직지도하기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씩씩하고 명랑하게 자라고있으며 집단적으로 좋은일하기운동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소년단림, 사로청림도 많이 조성하여놓았고 록화근위대, 위생근위대 활동도 잘하고있으며 학교와 교구비품을 알뜰히 거두기 위한 운동도 널리 벌리고있습니다.

학교와 교구비품을 알뜰히 거두는데서 창성군 약수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모범을 보이고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기자가 취재하러 약수고등중학교에 가서 교실을 구경하다가 글을 좀 쓰려고 연필을 깎았는데 그것을 본 한 학생이 달려가 두손바닥으로 떨어지는 연필밥을 받았습니다. 무심히 연필을 깎던 기자는 그 학생의 행동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창성군 약수고등중학교의 모범이 전국에 일반화되여 지금 모든 학교 학생들이 자기 학교와 자기가 쓰고있는 교구비품을 알뜰히 거두기 위한 운동을 널리 벌리고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학생들이 과외시간에 소년단생활과 사로청생활을 하며 다양한 정서생활을 하는 교양제도, 과외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는 교양제도는 널리 자랑할만한 우월한 교양제도입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조직생활과 과외생활을 잘 조직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이 대회에 참가한 소년단, 사로청 지도원들과 전국의 모든 소년단, 사로청 지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년단지도원들과 사로청지도원들은 학생들이 과외시간에 집체적으로 복습도 하고 유희도 하며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할수 있도록 과외생활을 더 잘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지도원들과 사로청지도원들은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잘하여 학생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는 전체 교육일군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것을 바랍니다.

지도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밀고나가자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창발적으로, 책임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고유한 풍모이며 그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바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을 통하여 집행된다. 따라서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혁명과업수행에서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천대받고 억압받던 로동자, 농민들과 그 자녀들인 우리 일군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고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하여 국가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겨주시였으며 그것을 잘 관리운영하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데 대한 크나큰 신임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도일군들에게 돌려주시는 신임과 배려는 헤아릴수 없이 크며 우리 일군들이 지닌 임무는 참으로 책임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조직하고 집행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을 가져야 합니다.》(《신년사》, 1978년 1월 1일, 단행본, 13페지)

일군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숭고하고도 책임적인 임무를 옳게 수행하자면 마땅히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창발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만약 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으며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물어물 지내보낸다면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맡은 혁명과업을 창반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는것은 그 어떤 실무적사업에 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충성심에 관한 문제이다. 자기 사업을 환히 꿰들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는 참된 길이 있으며 우리 일군들의 참다운 삶의 보람과 크나큰 영예가 있는것이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혁명임무수행에서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려운 혁명과업과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거창한 경제건설투쟁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운동이다.

비상히 높은 목표와 빠른 발전속도를 예견한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참으로 방대하고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치사상적힘이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무궁무진한 생산잠재력이 있다. 이 위력한 힘에 의거한다면 우리에게 못해낼 일이란 없다. 문제는 모든 초소의 운전대를 든든히 틀어쥔 지도일군들이 얼마나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맡은 일을 창발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지도일군들이 자기 부문 사업을 환히 꿰들고 경제관리와 생산지휘를 잘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써 일할 때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끊임없이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혁명의 폭과 심도가 비상히 커졌고 우리의 인민경제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그 규모가 전례없이 방대해졌다.

빨리 발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의 능수가 되여 맡겨진 일을 더욱 창발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가 더욱 늘어난 실정에서 지도일군들이 경제관리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모르며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책임적으로 짜고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없다.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심화발전되고있다. 일군들이 높은 열성에 경제관리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안받침하지 않고서는 발언권을 가질수 없고 모든 사업을 원만히 지도할수 없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구실을 훌륭히 할수 없다. 따라서 일군들이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지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맡은 일에서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 국가, 경제 기관 모든 일군들은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만 잘 알면 자신있게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처리할수 있으며 군중을 옳게 이끌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3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며 여기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까지 다 밝혀져있다.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높은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정확히 보고 분석할수 있고 당의 요구와 의도에 맞게 사업을 해나갈수 있으며 모든 일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어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든지 우선 그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본질과

진수를 깊이 파악하여야 하며 한가지 사업을 설계하고 조치하여도 다 당의 의도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당정책을 유일한 자로 하여 모든것을 분석판단하고 재여보며 처리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는것은 혁명임무를 창발적으로, 주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금 우리의 공업과 농업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기술장비가 훨씬 강화되고 생산이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진행되는 오늘 지도일군들이 경제지식에 밝지 못하고 과학기술수준이 낮으면 생산정형과 기업관리실태를 똑똑히 알수 없고 옳바른 대책을 세울수 없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에 와서 지도일군들이 자질이 높지 못하고 머리가 빈곤하면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낼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을 실속있게 지도해나갈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학습은 혁명가의 본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정열적으로 꾸준히 학습하여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지식에 정통함으로써 당에서 맡겨주는 그 어떤 혁명과업도 창발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해나가는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자기 맡은 부문의 과학기술의 기초원리로부터 시작하여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위한 전자공학과 자동화공학, 최신과학기술의 추세에 대하여 제때에 알아야 하며 특히 새 전망계획 기간에 자기 부문에서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고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이 진행되고있는 구체적실태와 로력, 자재, 기술설비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며 로동생산능률, 원가, 독립채산제 등 공업경영학에 밝아야 한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농법에 정통해야 하며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농작물의 생육조건과 생육기간, 풍토와 기상기후적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있어야 하며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를 다루는 방법도 잘 알아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과학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일군들은 누구나 다 책읽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하며 한가지를 배워도 실지 써먹을수 있도록 똑똑하고 실속있게 배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지난날 피어린 전투와 행군이 계속되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끼니는 건늘지언정 학습은 중단하지 않았던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혁명적학습기풍과 방법대로 당의 경제정책과 경제지식, 과학과 기술을 이악하게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자기의 피타는 노력으로 정치사상수준과 함께 기술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창발적으로,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유능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의 사업대상은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전투장이다. 일군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맴돌이처서는 결코 생산실태를 똑똑히 알수 없고 창발성을 낼수도 없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며 발전한다. 지도일군들이 현실을 잘 모르면 사업을 창조적으로, 주동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할수 없으며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진장한 창조력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일군들은 직접 생산이 진행되는 기대옆이나 지하

막장, 용광로와 건설장, 논밭머리에 나가 로동자와 농민들과 같이 땀흘려 일하면서 서로 함께 어울려야 생산에서 걸린 고리를 알수 있고 전반실태를 장악하고 기전을 괴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을수 있다.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과학과 기술을 허심하게 배우며 제기되는 생산합리화안과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함께 토론하고 도와주어 적극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생산현장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몇몇 아래일군들과 만나 사업을 료해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계소리가 요란한 기대옆과 두엄냄새 풍기는 논밭머리에 나가 생산자대중과 마주앉아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현실에 내려가지 않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지 않는다면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관료주의를 범할수 있다. 관료주의는 사업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것이 아니며 또 책임지려는 립장도 아니다. 관료주의는 일군들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마비시키며 생산자대중의 전투적기세를 억제하는 매우 유해로운것이다.

관료주의는 주로는 일군들이 현실을 모르고 자기 사업을 연구하지 않으며 실무능력이 어린데서 나온다. 일군들이 사업수준이 낮고 과학과 기술을 모르면 생산과 건설을 구체적으로 지도할수 없을뿐아니라 직권을 람용하여 내리먹이게 되며 호령하는 식으로 사업을 대치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대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생산을 의논하며 과학과 기술을 배워 자기 사업에 정통함으로써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들을 당의 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편향없이 풀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일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혁명가들은 일감이 찾아올것을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고 일감을 찾아서 일하는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5페지)

왕성한 투지와 정열적인 사업의욕을 가지고 자기 맡은 과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창발적으로 실속있게 해나가는것은 혁명하는 시대의 일군들이 지녀야 할 전투적인 일본새이다.

사업에서 패기와 정열이 없고 늘크데하여가지고서는 결코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빨리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 권태를 모르고 언제나 정열과 전투적기백으로 줄기차게 싸워나가야 하며 모든 문제를 혁신적안목으로 보고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자기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제기되는 일이나 처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물어물 지내보내는것은 창발적이며 책임적인 사업태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일군들이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를 아래우에 되받아넘기는 식으로 한다면 지휘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출수 없으며 당과 혁명 앞에서 맡은 무거운 책임을 훌륭히 감당해낼수 없다.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책임성과 창발성이 높은 지도일군들은 조건을 탓하지 않으며 난관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 일군들은 비록 남보다 더 자고 덜 쉰다 하더라도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겠는가를 늘 연구하고 구체

적인 묘술과 방법론을 찾아내여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지도일군들은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포치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정력적인 노력가, 참다운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자기의 피타는 노력으로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당정책관철의 방도를 기발하게 착상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사업기풍, 제기된 혁명과업이 방대하면 할수록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혁명적일본새,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일군들의 사업태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끊임없이 향상되고있다.

나날이 생활이 좋아지고 근심걱정을 모르고 잘살게 되였다고 하여 더 빨리 전진하는데 관심이 없거나 투쟁하기를 싫어한다면 결코 사업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없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은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참으로 할 일이 많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조그마한 안일해이한 현상도 용화묵과하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보다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혁명과업수행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의 능수가 되고 맡은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의 조직생활을 혁명임무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자기 사업을 연구하고 실속있게 전개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군들속에서 제기되는 창발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조장반진시켜줌으로써 그들에게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영예감을 깊이 간직하고 모든 사업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제때에 무조건 집행하여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자기 사업에 정통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더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오늘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뜨겁게 받아안고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의와 각오는 비상히 높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어떻게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앞에 무거운 전투과업이 나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돌격선의 맨 앞장이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것은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이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혁명임무에 대한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당의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과업

백 재 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총화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규정하시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기본혁명과업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보고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로작이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지도적지침이다.

우리는 심오한 사상리론적재부들로 주체학설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깊이 연구학습하며 보고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하고 독창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여야 하며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도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근본조건과 거기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것은 그들을 사회의 온갖 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여 자연과 사회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리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모든 혁명투쟁은 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고 창조적능력을 키우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제도를 세우고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게 되며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그를 위한 투쟁의 본질적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력사적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낡은 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계급적착취와 압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가장 큰 사회적요인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반동적착취계급의 정치적압박과 경제적착취로부터 해방되여야 자기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회적지위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는가 못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사회의 기본생활령역인 정치생활과 경제생활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할수 있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세워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이 경제생활의 주인으로 되려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생활의 주인으로 되려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을 장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려면 착취사회의 낡고 반동적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때려부시고 근로인민대중자신이 주인으로 되는 새로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세워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야 정치생활과 경제생활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의 리해관계를 옹호하며 경제생활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적관계의 총체인 경제제도는 사회의 토대로 되며 국가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제도와 사상의식은 토대와 통일되여있는 상부구조로 된다.

경제제도가 토대라고 하는것은 결코 경제제도가 반드시 먼저 서거나 경제적관계에 의하여 정치적관계가 규정되며 정치적관계는 다만 경제적관계의 파생물에 불과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국가주권이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정치적지배권을 가진 계급은 전사회적범위에서 사람들을 지휘관리할 권한을 행사하기때문에 결국 경제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으로 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정권을 무기로 낡은 사회제도를 변혁하고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는 선진적인 사회제도,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정치적상부구조와 경제적토대를 창설하고 그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착취계급에게 복무하던 낡은 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는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구조가 서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확립된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구조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구조를 공산주의적인것으로 발전시키고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에는 낡은 사회의 잔재와 요소들이 일정하게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잔재와 요소들은 국가경제기관의 사업체계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에 남아있게 되며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구조를 공산주의적인것으로 발전시키고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단일한 전인민적소유에 기초하는 공산주의적생산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경제기관의 관리구조와 사업체계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는것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완성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공산주의적인것으로 개조되고 완성될수 있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혁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적 토대와 상부구조를 세울뿐아니라 확립된 토대와 상부구조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과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은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통일적과정으로 수행되여나간다.

력사적과정으로 볼 때 사회주의제도가 서기전에는 낡은 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새로운 선진적인 토대와 상부구조를 세우는것이 전면에 나서지만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확립된 토대와 상부구조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철저히 청산되여야 토대와 상부구조를 공고발전시키고 완성해나갈수 있으며 또 토대와 상부구조를 공고발전시켜나가야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도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청산되고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이 혁명적으로 개조되여나가는 통일적과정속에서 완전히 실현되여나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청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해야 할 과업은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야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9페지)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질의 중요한 두 측면이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이 아무리 발전되였다고 하더라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에는 자주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주인의 지위를 제대로 지킬수 없고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마비시키는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반동사상과 사대주의, 교조주의, 관료주의와 같은 온갖 낡은 사상과의 투쟁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구실을 제대로 할수 없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다는것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와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자기자신의 리익에 맞는 사상, 제정신을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야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되며 사상정신생활에서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착취계급의 반동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청산하여야 하며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옳게 반영하는 혁명적인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는 사상,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될때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참다운 자주적인간으로 되며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사람의 생활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진행되며 사람이 자연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사람이 자기의 경제적인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은 결국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과정이며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이 자연의 구속에서 얼마나 벗어나오는가, 자연을 얼마나 자기의 요구대로 지배할수 있게 되는가 하는것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할수 있는 창조적힘이 얼마나 큰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문제와 사회적예속에서 해방되는 문제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는 사회제도에 의해서뿐아니라 물질적수단에 의해서도 안받침되여야 한다. 생산력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생활수단을 가져야 하며 그들에게 다 일자리를 주고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며 정치생활에 참가하고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며 물질문화생활에서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도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수 있을 정도의 높은 생산력발전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할수 있는 물질적전제가 준비되였다고 하여 낡은 사회

제도가 저절로 개조되지는 않으며 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것도 아니다. 물질적부가 아무리 많이 창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착취계급에게 독점되여있는 사회제도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생활수단을 얻을수 없으므로 사회적예속에서뿐아니라 자연의 구속에서도 해방될수 없게 된다. 또한 사회적인 착취와 압박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물질적부의 생산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근로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정치적자주성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려면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과 함께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울뿐아니라 기술혁명을 하여 사회주의물질적토대를 쌓음으로써만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자기의 해방을 완전히 실현하고 사회와 자연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사회정치적으로, 물질경제적으로 확고히 보장받을수 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다음에도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야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근본요구들에 과학리론적해답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 독창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며 공산주의사회가 바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는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철저히 청산된 사회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생산력과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이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만 실현될수 있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벌려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3대혁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혁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9페지)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실현하도록 활동하게 하는 혁명적인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세계를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할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창발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몸바쳐나설수 있다.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키울수 없고 그것을 옳은 방향에서 높이 발양시킬수도 없으며 새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과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없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이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게 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 사업은 저절로는 수행되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목적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사상개조사업,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새로운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된다.

사람의 사회생활이 발전하고 자연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에 대한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게 되며 따라서 자연과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사상의식도 더욱 발전하게 된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지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을때에는 창조적능력의 발전과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비하여 사상의식이 뒤떨어지게 된다.

더우기 생활이 높아져 간고분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제국주의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계속 높일수 없고 제국주의의 사상적공세도 성과적으로 막아낼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사상혁명을 언제나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제시하시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으로 밝혀주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려는 혁명적립장과 관점을 가질수 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륭성발전을 위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의연히 혁명의 길우에 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때까지 계속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기술혁명을 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그들을 힘든 로동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킬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사람이 물질생활상 수요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로동생활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도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없게 된다.

기술혁명은 수요에 의한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을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3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을 현시기 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계속 해결해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증진시킬수 있으며 자연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기술수단의 현대화와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수요에 의한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3대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을 하여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할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문화혁명을 하여야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주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할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고 그들에게 문화적인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다.

문화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전면적으로 갖추게 할수 없으며 사상혁명과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자연과 사회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발전시킬수 있는 창조적힘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문화기술수준에 의하여 담보된다.

문화혁명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보장할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문화생활령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성과적으로 완수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의 내용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놓으시였으며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과 함께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으로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방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그들을 인테리화하는 과정이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과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다같이 수행하여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다.

문화혁명의 최종목표인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며 전민고등교육화를 실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이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야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인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으며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고 문화적으로 관리하며 제품의 질과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사업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갖 낡고 반동적인 문화를 배격하고 로동계급과 자기나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린데 대한 방침과 그 수행방도를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과정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공산주의사회건설의 근본요구와 그 본질적내용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추상적이고 륜곽적인 막연한것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현실적인것으로 뚜렷하게 바라보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은 명백한 목표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 *

우리 당과 인민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이며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과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혁명위업,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교육테제 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리 영 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위대한 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자랑찬 면모와 거대한 업적을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인테리정책과 교육방침의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론증하시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교육테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수행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우리 당과 인민이 이미 쌓아올린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교육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며 주체의 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지름길을 밝혀준 휘황한 등대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교육일군들은 위대한 교육테제를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위훈떨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의 량적수준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지만 거기에 비하여 질적수준은 그리 높지 못합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8페지)

오늘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위대한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우리 사회주의교육의 급속한 발전과 매우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교육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시기 주체적인 교육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적교육전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것을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으로 내세우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를 드팀없이 관철해나가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 재더미우에서 첫 초등의무교육이 선포되던 때로부터 1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중등의무교육과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거쳐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오늘 우리의 모든 새세대들은 국가부담에 의하여 누구나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는 크나큰 혜택을 누리고있다.

지난날 자체의 민족간부가 부족하여 그처럼 곤난을 겪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고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해나가고있으며 우리의 교육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휘황한 목표로 내세우고 고등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백수십개의 대학이 있고 리마다 고등중학교가 있으며 전체 인민이 다 교육을 받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인구 1,000명당 학생수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말그대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육의 나라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교육분야에서 이룩한 이 빛나는 승리는 우리 민족의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세기적인 업적이며 이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에만 있을수 있는 가장 영예롭고 찬란하고 위대한 공적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교육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으며 우리 교육의 량적수준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은 급속한 발전속도와 량적수준에 맞게 그의 질적수준을 더한층 높여야 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우리에게는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주는 참으로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마련되여있으며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과 귀중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사업을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마련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거대한 잠재력을 어떻게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이에 의거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어떻게 더 잘 키워주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것은 결국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것을 통하여 해결된다.

보통교육이나 고등교육, 일반교육이나 기술교육 할것없이 모든 부문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우리 당과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을 들여 마련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더 잘 키워낼수 있으며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의 교육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다.

현시기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특히 우리 나라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민족간부를 량적으로 많이 키워내는것보다 질적으로 키워낼것을 더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와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발전수준은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간부들이 있어야 합니다.》(《민족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5페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실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사회주의교육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교육을 나라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그 질적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울수 없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토대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최종목적으로 하는 보다 높은 단계의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섰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과업이다. 그것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여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끊임없이 심화되여 우리 나라가 매우 높은 발전수준에 이르게 되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적자질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유능한 일군들을 수많이 요구하고있다.

참으로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사회주의적인테리, 공산주의적인테리를 더 많이 키워내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급속한 발전으로 보나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혁명의 견지로 보아도 매우 절박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자면 고등중학교에서부터 교육의 질을 높여 문제를 아래로부터 차례로 올리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매개 나라 교육의 질은 결국 그 나라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과 특히는 민족간부의 질적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정규교육체계의 마지막단계인 대학교육의 질문제는 민족간부의 질을 규정하여주는것으로서 나라의 혁명발전에서 언제나 전면에 나서는 첨예한 문제로, 교육의 전반적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은 아무러한 기초도 없이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그에 상응하게 나라의 경제적밑천과 과학기술력량이 마련되여있어야 할뿐아니라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을 안받침하여주는 중등일반교육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중등일반지식은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필수적지식이며 대학교육을 성과적으로 받을수 있게 하는 기초지식이다. 사람들은 일반지식을 충분히 가져야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능동적으로 참가할수 있을뿐아니라 전문분야의 현대 과학과 기술을 체득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을수 있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고등중학교에서부터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에 토대하여 진행하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나갈수 없다. 이것은 마치 기초

가 든든하지 못하면 높고 훌륭한 집을 지을수 없는것과 같은 리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교육사업에서서로 련쇄된 고리들가운데서 그 기초를 닦아주는 고등중학교에서부터 교육의 질을 높여 문제를 차례차례 풀어나가도록 하심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훨씬 높이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교육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전반적으로 한계단 높일수 있게 하는 곧바른 지름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교원의 자질을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입니다.》(《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8페지)

교원들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직업적혁명가, 과학과 기술로써 당과 혁명에 복무하는 우리 당의 인테리부대이다.

교원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후대들에게 그대로 정치사상적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원들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학생들에게 깊고 산 지식을 넘겨줄수 있다. 후대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우려면 무엇보다먼저 교원들자신이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하며 하나를 가르치려면 인을 알아야 한다.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교원에게서 훌륭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가 자라날수 없으며 과학리론적자질이 낮은 교원이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를 키워낼수 없다. 이와 같이 교원의 정치사상적, 과학리론적 자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부시키는 전민교육으로 전환된 사정은 그에 맞게 교원의 자질을 높이는 문제를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새세대들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거쳐 사회에 나가게 되며 근로자들도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고있는 조건에서 교원의 자질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가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과 과학기술인재의 질이 결정되게 되며 나아가서는 경제문화건설의 질적상태도 이와 관련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사업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우리 나라 교육발전의 현실태로부터 출발하시여 교원의 자질문제에 크나큰 관심을 돌리시면서 이 문제는 두가지 방법 즉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잘 꾸리고 사범교육을 강화하며 지금 있는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는것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 사범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에서 교육을 잘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교원을 양성해내여야 고등중학교 교육이 잘되며 학생들이 고등중학교에서 바탕을 잘 다져야 이에 토대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범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을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의 참뜻을 깊이 명심하고 교원을 키워내는 대학들의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여기에 좋은 학생들을 골라넣으며 이 대학들의 교수교양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범대학, 교원대학 자체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사범교육기관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와 새롭게 개편되는 보통교육부문의 교육내용에 맞게 교육수준을 한계단 높이며

교수교양방법으로부터 학교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요구에 맞게 정규화, 규범화함으로써 《원종장》에서 배운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대학에서 보고 배운대로 학교를 꾸리고 교수교양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원양성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대렬을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완전히 꾸리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860만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을 맡아보는 믿음직한 교원대렬이 꾸려져있다. 지금 있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여기에 빠른 시일안에 교육의 전반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얼마든지 대학과정을 마칠수 있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세워져있다.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교원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통신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자신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교수강습을 비롯한 여러가지 강습에도 널리 참가하여 가까운 기간안에 능력있는 자격교원으로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교원들은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해당 분야의 과학지식을 깊고 넓게 소유하며 모두가 학위학직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제시하시였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오늘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게는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과 직접 관련되여있다.

자연과학은 실험과학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자연과학교육을 잘하자면 실천적체험을 많이 쌓게 하여야 한다. 책에서만 배운 지식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될수 없으며 실천적체험을 쌓지 못한 사람은 실천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창조성과 실천적능력을 발휘할수 없다.

그러므로 과학기술교육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학교들에서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과 풍부한 실천적체험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과학교육에서도 웅변대회, 토론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하며 선전대활동도 활발히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우리 당 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줄 아는 능력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중요한것은 주체를 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서 기준은 그것이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필요한것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현대과학기술을 우리의 주체공업에 어떻게 적용시키겠는가 하는것을 자로, 기준으로 할데 대한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종일관 견지하고계시는 주체의 원칙을 오늘의 발전된 현실과 과학기술교육의 특성에 맞게 더욱 전개하고 풍부화시키신것으로서 과학, 교육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 시기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의 자원, 우리의 로력, 우리의 기술로 사회주의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할수 있었으며 세계의 연료위기, 원료위기, 경제위기에도 말려들지 않고 경제를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올수 있은것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주체가 선 과학기술자들을 양성해냈기때문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교육방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당하며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가를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 교육일군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의 원칙을 계속 철저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교육일군들은 하나의 공식, 한가지의 기술공학적원리를 가르쳐도 그것이 우리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경제를 고도로 현대화하고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 필요한것을 가르치며 선진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적으로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학교들에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과정에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하게 하며 모든 학생들이 자만하지 말고 현대과학기술을 꾸준하고 깊이있게 배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학생들 속에서 학풍을 세우며 학습제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원, 학생들 속에서 학풍을 세우며 학습제일주의를 내세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3페지)

인식의 주체는 사람들자신이며 배우려는 사람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탐구심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학습하지 않고서는 과학의 요새를 점령할수 없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박식을 자랑하기 위해서나 공명출세를 위한것이 아니며 높은 정치리론적, 과학실무적 자질을 갖추고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기 위한것이다.

학생들은 말그대로 배우는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시기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라는 구호를 내세우시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학습을 강화하여 유격대원들을 견결한 혁명투사로,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로 교양육성하시였으며 오늘에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누구나 다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오늘 교육의 질을 한계단 더 높이는 데서 중요한것은 학습의 당사자들인 학생들과 교육사업을 책임진 교원들이 학습제일주의의 구호를 힘있게 내세우고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체 교원, 학생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학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분초를 다투어가며 정력적으로 학습하도록 꾸준히 교양하며 강하게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각급 학교들에서는 국가의 법적과제인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교육규률을 강하게 세우고 과정안에 예견된 모든 형태의 교수를 정확히 실속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 교원들은 자기가 담당한 학급에 락후한 학생을 하나만 가지고있어도 그것을 수치로 여

기며 혁명의 전도에 후과를 미치게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일군들은 새세대들을 한사람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여기에 직업적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기대에 충성다하며 교원혁명가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빛내이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피타는 노력과 정력을 교수교양사업에 깡그리 바쳐야 한다.

각급 당, 정권기관 일군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인구의 절반이상이나 되는 후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를 똑똑히 알고 학교건설과 실험실습토대를 꾸려주는것으로부터 참고서출판과 도서실운영에 이르기까지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며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최대한 잘 지어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교원들과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교원들이 학생들을 혁명적으로 더 잘 교육교양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적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책임일군들은 학교에 자주 나가 교원들에게 우리 당 정책도 알려주고 강연도 하며 학교교육의 질이 어떤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교수교양사업이 보다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유능한 인재로 키움으로써 이 땅우에 공산주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꽃피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우리 나라 교육사업을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 빨리 완성하기 위한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을 높이 받들고 교육의 질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교육테제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과 근로자들속에서의 계급교양사업

김 기 봉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발표 20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던 력사적시기에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우리 인민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데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힌 강령적 문헌이며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전면적으로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공산주의교양의 내용과 방도 등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공산주의교양방침은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새 인간 육성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현명한 방침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산주의교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나서는 인간개조사업을 훌륭히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훌륭히 점령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공산주의 교양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여 인간개조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있다.

공산주의교양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졌으며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공산주의교양방침의 정당성과 위대성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 문헌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에서와 그 후에 발표하신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공산주의교양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고 체계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시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따라서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5페지)

공산주의교양의 목적은 근로자들을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울뿐아니라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있다.

근로자들이 참다운 혁명가로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의 근본바탕을 이루며 공산주의사상의 모든 내용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고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떠나서 공산주의사상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다.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사회와 집단,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나설수 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로동계급적 관점을 높여줄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건설되는 사회이다.

로동계급은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의 계급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개조해나감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온 사회에 공산주의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통하여 건설된다.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혁명위업은 필연적으로 반동적인 착취계급의 반항에 부닥치게 되며 따라서 그것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의연히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혁명의 전진을 방해한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은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된다. 밖으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혁명세력의 파괴적영향이 있게 되며 내부에서 전복

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이 계속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급교양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으며 밖으로부터 자본주의사상이 침습해들어올수 있다.

계급교양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지 않으면 생활이 높아져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이 없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떨어질수 있으며 로동계급적자각이 무디여져 안일해이될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계급교양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이 사업을 약화시킨다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내외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할 때만이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위업을 완당겨나갈것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7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투쟁의 계속이며 그 종국적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이 위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해나가는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철저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떠나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혁명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만 그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사람들의 사상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고 비로동계급적인것을 없애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속에서 진행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의 혁명적변혁과정이 촉진되는데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적대적인 사상요소에 물들지 않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꿋꿋이 싸워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

를 이어 수행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대를 이어 혁명을 해나가야만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이땅우에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새세대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혁명의 직접적담당자로 등장하고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이 계승되고있다.

혁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새세대들은 지난날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이땅우에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철저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틀어쥐고 나가야 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　　　*

오늘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 관점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5페지)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처리하는 혁명적관점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무장시켜야 그들이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서 모든것을 보고 판단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계급적안목으로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본질과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반혁명적음모를 날날이 꿰뚫어볼수 있으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로동계급적관점을 가지는것은 특히 지도일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도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서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지도일군들이 로동계급적관점으로 무장할 때에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고수하고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키며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을 해나갈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확고한 계급적관점을 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위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삼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언제나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

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며 훼손시키는 조그마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언제나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물건을 하나 만들고 집을 한채 지어도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쓸모있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며 오직 인민에게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에게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본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원리적으로뿐아니라 생동한 사실을 가지고 계급적원쑤들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않도록 하며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혁명적지조를 굿굿이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미제와 일본반동들, 박정희괴뢰도당을 미워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울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100여년의 피맺힌 원쑤이다.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다. 미제는 《두개 조선》 정책을 현시기 대조선전략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술책을 다 꾸미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강점과 지배를 계속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도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여러모로 방해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자의 옛지위를 되찾아보려고 망상하면서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책동을 날날이 발가놓아야 하며 그들의 음흉하고 교활한 침략책동에 항상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계급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85페지)

로동계급적관점과 함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원쑤를 증오할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계급과 인민을 사랑할수 없듯이 자기 계급과 인민, 자기 제도를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적을 증오할수 없으며 착취제도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없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혁명적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꽃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책동으

로부터 피로써 지켜낸 고귀한 혁명적전취물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철저히 옹호보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원쑤들의 책동은 그치지 않고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그마한 안일과 해이, 권태를 반대하고 언제나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단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될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성실히 실행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생활하고 끊임없이 혁명적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교양개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벅찬 실천투쟁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계급적으로, 혁명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킴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영광의 로정, 거룩한 자욱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작가동맹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에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세상에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운데서 1936년 3월초부터 5월초에 이르는 간고하고도 빛나는 혁명활동로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널리 읽히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소집하신 남호두회의는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전반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당시의 국내외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주체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전국적판도에서 혁명을 앙양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몸소 장설이 뒤덮이고 걸음마다 적들이 달려드는 백두산기슭에로의 행군길에 오르시여 소부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사단으로 키우시고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거족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이리하여 조선혁명은 주체의 기치밑에 일대 앙양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바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남호두를 떠나시여 미혼진과 마안산을 거쳐 동강에 이르시는 단 두달동안에 조선혁명을 주체위 기치밑에 전국적판도에서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령도력과 한없이 숭고한 인간애를 생활적으로 심오하게 밝히는것을 사상주제적과제로 하고있다. 이 영예롭고도 무거운 사상주제적과제를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감동성으로 충만된 생활적화폭으로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아로새긴 특출한 기념비적인 혁명대작으로 되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내용이 명백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준데 있다.

력사적사실에 충실히 의거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일반적요구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력사가 곧 로동계급의 당의 력사이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공동의 재부이며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생활의 교과서이기때문이다.

특히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데서 이 요구는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적문제로 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우는것이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지향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는것은 우리 시대 진보적인류의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된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무송지구에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에서 의의깊은 력사적사실들에 철저히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킨데 대한 남호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선을 일관성있게 보여주고있다.

남호두를 떠나시여 동강에 이르시기까지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에는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많았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혼진에 이르시여 항일무장대오를 재편성하시고 연병환자들을 몸소 돌보아주신 이야기, 마안산아동단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구원해주신 이야기, 간고한 행군길에서 력사적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신 이야기,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태우시고 《민생단》혐의자들의 짓밟힌 정치적생명을 구원해주신 이야기와 조국광복회창건을 위하여 무송지구에 지하공작원을 파견하신 이야기 등 세상에 널리 알려진 력사적사실들을 생활적으로 전개시키는 방법으로 력사적로정을 예술적으로 재현하였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주선으로 하고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전형화한 흠모선들인 《대통령감》선, 리경준일행선,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선, 무송의 박문필의 선이 그에 어울리게 하여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엮어가면서 유명한 력사적 이야기들을 생활적으로 전개하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이처럼 특출한 철학적심오성과 감동성, 진실성을 가지게 된것은 력사적사실에 의거하는 것이 진실성을 담보하며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룩된 불멸의 업적을 그대로 반영하는것이 철학적심오성을 담보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에 깃들어있는 숭고한 사랑을 그대로 반영하는것이 예술적감동성을 담보하기때문이다. 실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한 가장 숭고한 인간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에 찬 혁명력사에 충실하였기때문에 작품은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정서적으로 감동깊으며 생활적으로 진실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그에 깃든 숭고한 인간애의 극치를 재현한 예술적기념비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려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 인민들의 절절한 요구에 훌륭한 해답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모심에 있어서 작품이 거둔 특기할 성과는 불과 두달동안에 조선혁명을 일대고조에로 이끌어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려을 빛나게 그린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대오를 확대하는데서 우리앞에 나선 선결적인 과업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려야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을 계속 많이 육성하여 다른 부대들에 파견할수 있으며 항일무장대오를 전반적으로 강화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1권, 28~29페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미혼진에 이르시여 항일무장대오를 재편성하시고 무송지구에 나오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사단을 꾸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소부대의 인원과 한문의 기관총으로 걸음마다 맞서는 일제의 《토벌대》를 물리치고 마안산으로 나오셨으나 장군님앞에는 너무도 엄혹한 난국이 가로놓여있었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좌경적인 망동에 추종한 그곳 밀영책임자가 위대한 장군님앞에 내놓은것은 100여명의 대원들에 대한 《민생단》문서보따리뿐이였다.

작품은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추악한 해독행위에 대한 분노와 억울하게 정치적생명을 유린당한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으로 하여 참을길 없이 괴로우신 마음으로 《진술서》요, 《조사서》요 하는 《민

생단》련루자들의 문건을 하나하나 검토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려가 얼마나 큰것이였는가를 피우시지도 않으시는 담배를 찾으시는 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통나무책상우에 가득 쌓인 《민생단》문건을 한장한장 빈저가시는 장군님의 영상이 모닥불에 비치여 한쪽 벽면을 덮는 커다란 그림자를 던지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전사들의 처참한 모습이 가슴아프시여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그립고그립던 어버이장군님께서 부르신다는 련락을 받고 그 밤으로 달려온 100여명의 《민생단》혐의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적풍모를 박력있게 부각한 감동적인 화폭이다.

도저히 《민생단》이라고 믿을수 없는 대원들이 스스로 《민생단》이라고 자처해나설 때 장군님께서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는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전사들을 굳게 믿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생단》이 아니면서도 《민생단》이라고 대답하는 대원들의 극적인 내면세계를 꿰뚫어보시였다. 100여명의 대원들은 어버이장군님을 기다릴 때까지는 억울한 자기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더없이 절박한것으로 생각되였지만 정작 그립고그립던 장군님을 만나뵙는 순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험한 싸움의 길을 몸소 진두에서 헤치시며 겪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에 비길 때 자기들의 아픔이 너무도 하잘것 없는것으로 생각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원들을 끝까지 믿고 아끼시며 그들의 운명을 철저히 책임지시는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하시여 짓밟혔던 대원들에게 소생의 힘을 안겨주시고 문서보따리보다 혁명의 길에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앞에서 《민생단》문서보따리를 손수 불태워버리시였다.

《민생단》문서보따리에 불을 지르신 이 력사적인 조치는 그 어떤 혁명가도 할수 없는, 그 어떤 대용단을 가지고도 할수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한 가장 숭고한 인간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취하실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사람이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고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되는것은 높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 높은 사상의식과 그 조직된 힘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 주는것이다. 《민생단》혐의자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사랑은 그들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가장 충직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짓밟히고 억눌리던 《민생단》혐의자들의 인간적존엄을 소생시키고 주눅이 든 그들에게 활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데리시고 하루의 즐거운 사냥을 하시며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즐거운 오락회를 조직해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영광스럽게도 새로 편성하는 주력사단에 받아주시기까지 하시였다.

인간의 재생, 정치적생명의 소생이 발휘하는 힘은 위력한것이다. 리경준의 영웅적인 지하공작과 최후가 그것을 확증하고있으며 지칠줄 모르는 투지로 충성의 한길을 끝없이 달려가는 장기령의 발랄한 형상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력을 아주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을 믿고 근로인민대중을 묶어세운다면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혁명의 참된 교과서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모심에 있어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과 인

민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감동깊게 재현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에는 언제나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이 지배하고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였으나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동지애의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10페지)

력사발전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애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그에 의하여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 헌신성과 책임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야말로 가장 혁명적인것이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것이다. 이 주체의 인간애는 최고형태의 인간애이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혁명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참다운 인간애이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주체의 인간애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만이 지니실수 있는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라는것을 실재한 이야기를 통하여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가시덤불길을 헤쳐가시는 그 어려운 행군길에서 열여섯살 난 어린 대원 봉길의 생일을 알아두셨다가 뜻깊게 쇠게 하여주시는 장군님의 형상은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풍모를 뚜렷이 부각하고있다. 그 많은 전사들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그들의 생일까지 일일이 쇠게 하여주시며 매 대원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은정이야말로 민족과 계급,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지니실수 있는 숭고한 풍모인것이다.

착취받고 학대받는 민족과 인민의 비극적인 운명을 구원할 책임을 스스로 맡으시고 귀중한 한몸의 안녕도 돌보지 않으시며 헌신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은 미혼진의 열병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더욱 심각하고 감명깊게 그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과 계급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 주체위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계신다. 그러므로 부자간이나 부부간도 격리시키는 장질부사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을 앓고있는 50여명의 대원들을 찾아가시는 장군님의 앞길을 막아나서며 이 일만은 그만두시라고 애원하는 대원들의 간청은 천만번 옳은것이다.

그러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대원들의 한결같은 만류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으시였으며 《대통령감》 권학식의 손을 잡으시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저안에 앓아누워서 고통을 받고있는 동무들과 생사를 같이하기로 약속하고 싸움에 나선 사람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대원들이 앓아누워있는데 내가 이마도 짚어보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프고 괴로울 때면 사람이 더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나는 동무들의 생사를 책임진 사람이 아닙니까! 동무들이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나만은 들어가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어버이장군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 위대한 사랑앞에서, 그 숭고한 의리와 한없이 높은 책임감앞에서, 그 고매하고 뜨거운 동지애앞에서 대원들 모두가 울며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애로 수놓아진 이 예술적화폭은 친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친다 해도 대원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에 비길수 없다는것을 간결하고 박력있게 보여주고있으며 보는 사람마다 숭고한 사랑의 극치를 감격적인 눈물로 체험하게 한다.

혁명전사들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굶주릴대로 굶주리고 헐벗을대로 헐벗은 마안산아동단원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의 대를 굿굿이 이을 후계자로 키워주시는 장면을 통하여 더한층 격조높이 울려나온다.

아버지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릴가보아 헐벗은 알몸뚱이를 가리우려고 애쓰며 모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겪은 눈물의 사연을 감추며 오직 기쁨만을 드리려고 종이꽃을 올리는 아이들의 정상앞에서 눈물을 참아낼수 없으신 장군님이시였다. 이제야 찾아온 자신을 용서해달라시며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줄도 모르고 이제야 찾아왔는데 오히려 꽃다발을 준다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은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함께 싸우다 먼저 간 전사들앞에서, 혁명의 미래를 맡을 후대들앞에서, 피바다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2천만 겨레앞에서 가장 숭고한 인간애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숭고한 인간애를 주체위업의 성스러운 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영원히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감격적으로 그려보이고 있다.

모래알같이 면면하고 차거운 싸락눈이 내리는 한지에서 온밤을 주무시지도 않고 새시며 깊은 심려에 잠기셨던 장군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께서 남기신 단 하나의 귀중한 유물인 돈 20원을 군복안주머니에서 꺼내시여 천을 사다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게 하시였다. 그 돈은 편치않으신 어머님께서 삯빨래와 삯바느질을 하시여 한푼두푼 모으시였다가 언제다시 만나실지 기약할수 없는 머나먼 남만원정의 길을 떠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혁명하는 사람의 손에는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시며 주신것이였으며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어려운 고비를 한두번만 넘기지 않으시면서도 쓰지 않으시고 고이 간직해오신것이였다. 그 돈은 앓으시는 어머님을 위해서도, 어머님마저 잃은 의지가지 없는 동생들을 위해서도 쓸수 없으셨던 돈이였으며 북만원정의 길에서 축한을 만나시여 위기를 겪으시던 때에도 장군님께 고이 간직되였던 어머님의 사랑이였다. 이처럼 귀중하고 그처럼 눈물의 사연이 깃든 돈을 자신과 혁명가정을 위해서는 단 한푼도 쓰지 않으시고 마안산아동단원들에게 고스란히 돌리시는 장군님의 사랑이야말로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인것이다. 이 사랑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끝없는것이며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사랑에 잇닿아있어 더욱 웅심깊은것이다.

이 고매한 사랑의 숭고성은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사랑이 장군님께 약간이나마 미치게 하려고 그 귀중한 돈 20원에서 얼마를 내여 군복을 마련해 올린것을 권학식에게 돌리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더욱 큰 여운을 남기고있다.

대원들과 후대들과 인민들에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세계의 주인, 력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시는 위대한 사랑이였다. 바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이러한 력사적사실을 생활 그대로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그 준엄하고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고 조선혁명의 일대 고조기를 마련한 위대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소설은 이밖에도 원쑤들의 불의의 포위전을 역포위전으로 물리친 유명한 푸르허전투와 유인전으로 악명높은 《토벌

대》놈들을 전멸시킨 남강마을전투에 대한 극적인 화폭을 통하여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간결하고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달성한 특출한 성과의 다른 하나는 주체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따르며 끝없이 흠모하는 조선인민의 충성심을 감동적으로 전형화한데 있다. 이리하여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실성의 모범과 당대 조선인민의 열렬한 충성심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교양하는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난 강세호련대장과 리북철경위중대장의 형상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관의 핵을 이루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간결하면서도 깊이있고 감동이 크게 일반화하고있는 생동한 개성들이다. 주체의 혁명위업과 2천만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말아안으시고 끝없이 헌신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보위하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무조건 받들어나가는것이 삶의 목적으로 되여야 함을 심장으로 체득한 강세호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은 몸으로 공작지를 급히 떠나며 먼길을 앞질러나가 장군님을 마중한다. 그는 리북철중대장에게 어버이장군님을 보위하고 모시는데 있어서는 크고작은 일이 따로 없으며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깨우쳐주면서 자신을 포함한 혁명전사들의 미흡함을 심장의 아픔으로 통감한다. 실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관의 진수를 숭고한 높이에서 보여주는 심오한 형상이다.

억울하게 《민생단》의 누명을 쓰고 추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일편단심 장군님께로 달리는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끝내 장군님의 품을 찾아온 오랜 유격대원 리경준 부부와 유명한 기관총수 장기령, 작식대원 운칠녀의 형상은 주체형의 맑은 피를 간직한 인간의 정신적미의 핵이 무엇인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근거지가 해산된후에도 적구에 가지 않고 어버이장군님을 찾아 어른들도 가기 어려운 길을 한걸음한걸음 헤쳐나가는 아동단지도원 한남실이 이끄는 아동단원일행의 흠모선과 무송지구의 지하공작원 박문필의 흠모선에 대한 형상은 당대 조선인민의 사상정신적 조류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예술적전형들이다.

애국계몽운동도 해보았고 3.1만세를 불러 감옥살이도 지냈으며 1920년대 초기공산주의운동에도 가담하여 종파군들의 추악하기 그지없는 정체도 체험해보고 그 모든것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은둔생활을 하고있었으나 애국의 량심은 남아있어 마지막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돌아가려던 《대통령감》 권학식의 인간적인 재생은 실로 심각하고 깊이가 있다. 한없이 소박하고 너그러우신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대통령감》은 대원 한사람한사람을 일일이 돌보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에서 2천만 겨레의 운명을 말아안으신 비범한 천품을 발견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된 행복과 기쁨을 체험한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을 사소한것까지 기록해두어야 할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잃어버렸던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은 그대로 그의 정신적갱생과정이였다. 장군님을 만나뵈온지 며칠 안되는 사이에 인민들속에서 널리 알려진 전설적인 이야기에는 비할수조차 없는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느낀 그를 특별히 흥분시킨것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신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였으며 복잡한 국내외정세에 대한 그이의 뛰여난 통찰

력과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립장이였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인만큼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시는 장군님께서 필승의 신념을 받아안은 권학식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삶의 의의와 가치가 없다는것을 깊이 느낀다.

력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에서 그 회장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추대하는 권학식의 형상은 그대로 2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의 표현이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장군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우러르는 그의 내면토로는 남다른 우여곡절에 찬 길을 걸어온 그의 생활의 총화로부터 울려나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의 표현이였다. 그것은 또한 전체 조선인민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흠모의 송가였으며 장편소설의 전체 형상들에서 울려나오는 사상적결속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주체의 기치드높이 모든 시련과 난관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시고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가져오게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로고,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서사시적으로 재현한 혁명소설의 빛나는 걸작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달성한 성과는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자체가 전례없는 위대성과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당이 혁명소설창작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기에 이룩될수 있었다.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반영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였기때문에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따라배우려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지향을 충족시켜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될수 있었다. 장편소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기록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을 그처럼 감명깊게 그려낼수 있은것은 종자를 튼튼히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대가 서게 일관성있게 그리며 정치성일면에 흐르지 말고 숭고한 인간적풍모를 생활적으로 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였기때문이다. 이리하여 작품은 내용이 명백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예술적감동성이 뛰여나게 큰 혁명적대작으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본보기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그의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우리의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작품으로 된다. 작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며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성의 모범을 본받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으며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작가동맹중앙위원회)

로동규률규정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를 구현한 혁명적인 로동준칙

문 정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구체적인 가르치심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회주의로동규률규정이 제정되였다.

새로 제정된 로동규률규정은 사회주의 로동질서와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로동조직과 로력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으며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로동규률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또하나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로 나온 로동규률규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자각적으로 지킴으로써 사회주의로동규률을 세우는데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하며 생산과 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 *

로동규률규정은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사회의 현실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로동준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79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의 성격과 대규모사회주의적생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자각적이며 의무적인 로동규률이 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모아 서로 돕고 이끌면서 성실하게 일하며 근로자들의 자각적인 집단로동에 의하여 경제문화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가 보장된다. 이것은 사회주의로동의 본질적특징이며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치차와 같이 맞물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자각성을 발휘할뿐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로동생활을 할것을 요구한다.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전사회적인 공동로동의 유기적인 한 부분들을 담당하고있는 근로자들의 조직화된 활동을 떠나서는 대규모사회주의적생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는 한편 집단적인 공동로동에서 사회주의적인 규률과 질서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해야 하며 그러자면 그에 필요한 유일적인 행동규범과 준칙이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로동규률을 세우는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엄격히 지켜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사회적인 공동로동에서 근로자들의 행동통일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의 련계가 복잡해지는 조건에서도 사회적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로동규률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로동이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 되지 못하고있으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옳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남아있다. 또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자들이 반동적부르조아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생활이 높아지고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이 없어짐에 따라 일하기 싫어하고 안일해이하게 살려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려면 로동생활에서 사회주의적인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로동규률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는 사상을 없앨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계속 높일수 있다.

우리의 로동규률규정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과도적성격에 기초하고있는 동시에 우리 근로자들의 고상한 풍모와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로동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제도가 확고히 섰으며 주체적인 사회주의로동법이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산며 투쟁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고있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답게 로동생활에서 사회주의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로동조직을 개선하여 있는 로력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일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고상한 풍모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려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우리의 로동규률규정은 로동생활분야에서 이룩된 이러한 자랑찬 성과들과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몸바쳐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상한 풍모를 반영하여 제정되였다. 그러므로 새로 나온 로동규률규정은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회주의로동생활준칙으로 된다.

혁명적인 로동규률규정의 제정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공장안에 규률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그런 공장은 사회주의적인 공장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70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 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

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규률을 강화하는것이며 로동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은 로동규률규정에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로동규률규정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행동규범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이리하여 로동규률규정은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경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로동규률규정은 또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모든 생산단위들과 고리들을 유기적으로 맞물리고 경제관리를 정규화하며 근로자들이 자기의 힘을 다 발휘하여 일할수 있게 하기 위한 규범들을 명확히 밝히고있다. 이것은 새로 제정된 로동규률규정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법규범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 제정된 로동규률규정은 나라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전반적인민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는데도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실업자가 없고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있으며 긴장한 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더우기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로력의 긴장성을 원만히 푸는 문제는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되고있다.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은 더 많이 지으며 새로 조업하는 공장들을 제대로 돌리자해도 요구되는것은 로력이다.

나라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랑비를 없애고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로동규률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로동규률규정을 어김없이 지켜 모든 근로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게 하고 분초를 다투어 더 많이 일하게 하며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로동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소한 로력랑비도 없애고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문화휴식을 보장해주면서도 긴장한 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새로 제정된 로동규률규정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다그치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제때에 분쇄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로력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집단적인 공동로동을 통하여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며 의지적으로 단련된다.

로동규률규정은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로동준칙이다. 그러므로 로동규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면 집단과 사회를 위한 조직적인 공동로동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더욱 튼튼히 가지게 할수 있으며 온 사회에 로동을 사랑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적들과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오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로동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도와 질서가 없는곳에는 꼭 《귀신》이 있고 어둠컴컴한곳에는 《도깨비》가 나오는 법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악의를 품고있는 온갖 계급적원쑤들은 로동 규률과 질서가 철저히 서지 못한곳을 노리고있으며 틈만 있으면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 나온 로동규률규정을 엄격히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면 온갖 계급적원쑤들이 책동할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놈들의 준동을 제때에 분쇄해버릴수 있다.

실로 새로 제정된 로동규률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로동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며 로동생활분야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혁명적인 행동규범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새로 나온 로동규률규정을 철저히 집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로동규률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을 존중히 여기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97페지)

새로 제정된 로동규률규정은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것이며 그들의 높은 자각성을 전제로 한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만 새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나갈수 있으며 자각적인 사회주의로동규률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이 새로 제정된 로동규률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환히 깨들게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의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은 로동규률규정을 실생활과 결부하여 조항별로 따져가면서 꾸준히 학습하여 그 본질과 우월성, 내용과 요구들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정권기관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강연, 해설담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로동규률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과 그 관철방도들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집행하게 하여야 하며 로동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동규률규정을 집행하는데서도 그 성과여부는 지도일군들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지키며 조직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새 규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이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게 할수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로동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다. 지도일군들자신이 새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기는것을 보고도 투쟁할수 없으며 아래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요구성을 높일수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국가의 법과 규정을 지키는데는 높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으며 지도일군들이라고 하여 례외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아침출근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루일의 전과정에 걸쳐 로동규률규정의 요구를 어김없이 지키야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사업과 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로동규률규정을 지키는데서 모범을 보여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조직사업을 세밀히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규정과 법을 제정하여도 그 생활력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없는것이다.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새 로동규률규정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하며 이 사업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로동조직과 자재보장, 후방공급을 잘 하는것은 새로 제정된 로동규률규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도일군들은 새 규정의 요구대로 로동조직과 자재보장, 후방공급을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근로자들에게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모두가 다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단위시간안에 최대의 수확을 낼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보수가 차례지도록 사회주의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하며 출퇴근규률, 작업교대규률, 로동시간리용규률을 엄격히 세우고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새로 제정된 로동규률규정을 엄격히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그것을 어기는 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하는것을 사상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9페지)

자각적이며 의무적인 사회주의로동규률을 어기는 현상들은 모두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그러나 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사회주의로동규률을 어기는 현상들을 없앨수 없으며 로동조직과 로력관리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극복할수 없다. 실천적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사상투쟁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들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킬수 있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로동규률규정을 어기는 사소한 현상도 스쳐지나지 말고 제때에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상투쟁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해당기관들에서는 출퇴근정형과 로동시간리용정형을 비롯한 새 규정의 집행정형을 철저히 장악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며 제정된 로동시간을 어기였을 때에는 누구를 물론하고 강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사회주의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지키게 할수 있다.

로동규률규정을 정확히 집행하여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동정책과 주체적인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과업이며 사회주의로동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준법의식을 더욱 높여 로동규률규정의 요구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커다란 예비가 있다

전 익 형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 교시와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설계도인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우리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도 온 나라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마찬가지로 상반년기간과 《100일전투》기간에 맡겨진 모든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오늘은 올해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끝내기 위한 마지막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첫전투에서 우리 련합기업소가 이룩한 성과와 여기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자체의 힘과 기술과 내부예비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친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 힘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조업이래 최고의 생산성과를 올리였으며 기술발전의 새로운 고지들을 점령하고 기업소의 전반적면모를 일신시켰다.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예비의 하나가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백년대계와 관련되는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는 사업이나 당면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경제사업이나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다 과학기술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23 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장성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열어주는 넓은 길을 따라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지고 새 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빨리 바뀌여지게 되며 기술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장성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합법칙적과정에 맞게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은 당면하게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제2차7개년계획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서 생산을 2배이상 높인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전례없이 거창한 경제건설강령이며 기술혁명의 시대, 과학혁명의 시

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처럼 쉽게 찾아쓸수 있는 유휴설비, 유휴자재, 유휴로력이 많지 못한 조건에서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는 여기에 생산과 기술발전의 커다란 예비가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과학자, 기술자들을 키워내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다.

우리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경우에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문제는 매우 절실하게 나서고있다. 생산의 전공정이 복잡한 화학기술공정으로 되여있는 우리 기업소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서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이는 문제를 풀수 없으며 기업소의 현대화, 과학화 수준도 높일수 없다.

우리 2.8비날론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서 중요한것은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넣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된것이다.

우리는 원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전기와 증기를 절약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방도를 찾도록 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인민경제의 귀중한 동력인 전력을 수천만키로와트시나 절약하고 지난해에 비하여 전력키로와트시당 생산액을 123%로 높이였으며 시간당 30톤이상의 증기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수천톤의 비날론을 더 증산할수 있는 예비를 마련하였으며 염화비닐과 농약 생산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었다.

당위원회와 3대혁명소조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생산현장에서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로 여겨오던 방사기개조사업을 국가의 추가적인 투자 없이 짧은 기간에 해제끼도록 함으로써 수백톤의 강재와 많은 로력을 절약할수 있었으며 생산능력을 더 늘이면서도 찌끼함유량을 훨씬 낮추어 비날론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기업소의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높인것이다.

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제2차7개년계획의 요구에 맞게 모든 과학기술력량을 기업소의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시켜 올해 상반년기간에만 하여도 자체의 힘과 기술과 내부예비로 수백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살초제생산공정은 원래 원자재소비기준이 높고 유해로동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공정이였다.

당위원회와 3대혁명소조의 지도방조밑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초제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증류탑의 조작을 자동화하고 기본생산공정전반을 새로운 공정으로 바꿈으로써 유해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원자재소비기준을 대폭 낮추었으며 많은 유휴설비들을 얻어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긴 유휴설비로 새로운 식물성장억제제생산공정을 국가투자 없이 꾸릴수 있었으며 다른 기술혁신대상들을 해제끼는데 필요한 설비문제도 풀수 있었다.

이밖에도 우리는 후민산알탄점결제, 전기로내부온도자동측정기와 같은 수많은 과학연구과제들을 자체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발동시켜 성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기업소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현행생산과 기술혁신운동을 다같이 틀어쥐고 나간 결과 우리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생산을 134%이상 높일수 있었으며 원자재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떨구어 상반년기간에만도 생산물의 원가를 6%이상 낮출수 있었다. 이 과정에 우리는 힘든 로동과 유해로동도 많이 없애여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근로자들의 로동을 더욱 흥겹게 만들었으며 기업소의 전반적면모도 일신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련합기업소에서 이룩된 이러한 자그마한 성과도 일일이 헤아려보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시였으며 생산과 기술발전의 새로운 예비를 찾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 과정에 우리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과학자, 기술자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실제적인 과학기술성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도록 이끌어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당에서 맡은 사업이며 당을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사업을 충실히 하는것이 곧 당에 충실한것입니다.》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맡고있는 기본혁명과업이다. 우리 당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를 키워냈으며 그들을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의 전초선에 세워주었다. 지금 과학기술인테리들에 대한 우리 당의 신임과 기대는 대단히 크며 그들의 임무는 매우 무겁고도 책임적인것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우리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속에 실제적인 과학기술성과로써 당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는 혁명적자각과 책임성을 높여주면 그들모두가 맡겨진 혁명임무의 수행에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게 되며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뚫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우리는 기업소안에 있는 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발동시키면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예비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들과의 사업을 응당한 수준에서 잘하지 못하였다. 특히 지도일군들이 적지 않은 경우에 사무실에서만 맴돌면서 아래에 침투하지 않다나니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의 의도와 요구를 똑똑히 알려주지 못하였고 생산에서 걸린 과학기술적

인 문제들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가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받아안고 우리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와 3대혁명소조에서는 지난 기간에 나타난 이러한 결함들을 고치고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실제적인 과학기술성과로써 당에 충성하도록 과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차적으로 주의를 돌린것은 과학자, 기술자들로 하여금 맡은바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도록 하는것이였다.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영예감을 높여주지 않고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당위원회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신임과 기대를 깊이 인식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형편과 기업소의 구체적실정,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알려주고 사업과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었다.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특성에 맞게 학습을 조직하고 학습과제도 따로 설정하여주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연구토론회와 과학토론회에도 적극 참가시키도록 대책을 세웠다.

이리하여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는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영예감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그들모두가 실제적인 과학기술성과로써 당에 충성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게 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 과정에 우리가 얻은 또하나의 경험은 정치사업에 치밀한 조직사업을 안받침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빈틈이 있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하지 않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조직사업만 잘하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많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05페지)

과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자각을 높여주는것과 함께 그들의 힘과 지혜를 옳게 동원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생산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 사업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고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만 해서는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당위원회는 올해에 들어와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구체적인 실태를 료해하는 사업부터 다시 진행하고 그들과의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빠짐없이 기술혁신과제를 주고 그 집행정형을 당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리고 주별, 월별로 꼭꼭 총화하는 기풍을 세웠다. 이것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가 풀어야 할 당면한 과학기술적문제들과 전망적인 목표들을 똑똑히 알고 맡겨진 과학연구과제와 기술혁신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하였으며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을 제때에 찾고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자면 그들이 제기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잘하여야 기술혁신안을 내놓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줄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기술혁신운동에로 적극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다.

당위원회는 새로운 기술혁신안이 제기되면 그것을 집체토론과 기술합의에 붙여 가치있고 파악이 있는것은 지체없이 전투계획에 물려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선후차를

잘 가리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 로력을 온 기업소가 달라붙어 풀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안받침하였다. 이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집단의 힘을 깊이 인식시켰으며 기업소전체가 기술혁신운동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과학기술연구사업에 필요한 시간과 조건을 잘 보장해야 복잡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또하나의 중요한 경험이다.

과학기술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과 시간을 잘 보장하여주지 않고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사업에 전심전력하게 할수 없으며 맡겨진 과학연구과제와 기술혁신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게 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위원회와 3대혁명소조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하였으며 그들을 다른 사업에 마음대로 동원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연구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로력과 시약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으며 국내외의 여러가지 최신과학기술도서들과 잡지들을 소개하는 사업과 열람대출시키는 사업을 잘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되였으며 맡겨진 과학연구과제와 기술혁신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실제적인 과학기술성과로써 당에 충성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에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을 빠짐없이 참가시켜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잘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업소 《전투속보》와 기동선전대, 영예게시판과 가두선전, 통보강연과 과학강연을 통하여 기술혁신에서 모범을 보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소개선전하고 내세워주었다. 또한 기술혁신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사회적평가를 받도록 조직하여주었으며 기사급수도 한등급 높여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자, 기술자들이 창발성을 낼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물질적조건과 시간을 잘 보장하여주면서 평가사업을 정확히 한 결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의와 책임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수행해야 할 기술혁신의 총건수를 계획화할수 있었으며 올해에 받아들일 수백건의 기술혁신안을 빨리 완성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줄수 있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잘 알아야 대중을 옳게 지도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배우는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며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기술을 배워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0페지)

오늘 과학과 기술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 실례들도 대단히 많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술개조사업을 조직지도해나가는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신운동을 조직할수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당일군들이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깨닫고 과학기술을 배우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는 당일군들이 기업소의 생산기술공정을 잘

알고 최신과학기술에 민감하도록 분공을 주었으며 그 집행정형을 엄격히 총화하였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대중과 함께 대담하게 착상하고 제기된 기술혁신안들을 제때에 완성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좋은 방도로 되였다.

당일군들자신부터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기술혁신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풀어줄수 있게 되였으며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사이에 호흡을 맞춰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일군들이 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는것과 함께 우리는 행정경제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기술학습반들을 따로 내오고 과학강연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새 전망계획 기간에 풀어야할 과학기술적문제들과 최신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제때에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그들속에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놓고 토론과 론쟁을 널리 벌리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이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창발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도록 계발시켜주었으며 그들의 학습열의와 과학기술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과 조직사업, 보장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당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기술혁신의 새로운 고지들을 점령할수 있었으며 더 큰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귀중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성과와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와 당의 기대에 비하여볼 때 극히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지금 우리 련합기업소 과학자, 기술자들의 기세는 충천하며 로동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군들이 대중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기술력량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경험을 옳게 살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고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들을 앞당겨점령하며 당면하게는 올해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끝내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

김 건 환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 접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지금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으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할 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화국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반동적본질과 그 진면모를 낱낱이 폭로하시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 민족대단결방침,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방침과 미제를 비롯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할데 대한 방침 등 조국통일방안들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시킴으로써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꾀하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놓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는것은 민족의 영구분렬을 추구하고있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철저히 고립약화시키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기본담보를 마련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는 민족의 대단결에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4페지)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결정적요인도 바로 우리 인민이라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을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방침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현난국을 타개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분렬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원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피줄을 이어받았으며 한강토에서 하나의 말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성, 우리 민족의 단일성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것으로서 그 누구도 이것을 침해할수 없다.

수천년을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하나의 조선이 둘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수립되여 판이한 길을 걷게 되였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져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지만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락되여 민족의 자주권을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이와 같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당장 제도상의 통일, 사상과 신앙의 통일을 실현하기는 어려운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한나라, 한민족이 재통일을 위한 길을 모색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나 통일을 실현할수 없을것이다. 우리 인민은 외세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분렬되여 서로 다른 제도하에서 살고있지만 한결같이 통일을 념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의 본질과 그 거족적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결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투쟁이 아니며 그것은 침략과 피침략과의 투쟁, 애국과 매국과의 투쟁입니다. 다시말하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민족적자주권을 위한 해방투쟁이며 민족적단합을 위한 애국투쟁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누가 먹고 먹히우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만 실현할수 있는 거족적사업이다. 통일문제는 어느 계급과 계층에 한한것이 아니며 또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각각 공산주의리념과 자본주의리념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워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방침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조국통일문제에서 조선인민의 주인된 자각과 역할을 높이고 민족주체적력량을 비상히 확대강화할수 있게 한다.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힌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거창한 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도 구경은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비한 통일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자는데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의 광범한 력량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의 력량으로 굳게 단합되여야만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만 력량관계를 통일위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이는 여러가지 장애들과 시련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또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의하여 영구분렬의 위험이 더욱 커가고있다. 나라에 조성된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민족분렬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때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분산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데 모든 애국력량을 집중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대단결방침은 그 실현의 실제적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에서의 차이는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북과 남사이에 있는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한민족내부문제로서 결코 민족을 갈라놓는 장벽으로 될수 없으며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더우기 오늘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고있는데 하물며 한강토우에서 한피줄을 이어 살아온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업을 앞에 놓고 단결하지 못할 조건이란 있을수 없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위한 립장에 선다면 그가 어느 지역에서 살건, 어느 계층에 속하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다같이 민족대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굳게 단합하여야 한다.

조선인민은 자주성과 애국심이 높고 단결력과 투쟁력이 강하며 자기 민족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수 있는 슬기로운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통일전선을 이룩한 빛나는 전통과 고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하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싸움으로써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우리 인민은 해방직후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더욱 엄중한 민족분렬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모여앉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일대 구국대책을 토의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려나갔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사상의 빛나는 승리로서 오늘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합작을 실현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으로, 본보기로 된다.

지난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반일투쟁에서 함께 싸운것처럼 오늘도 역시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론인, 종교인,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립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각각 공산주의리념과 자본주의리념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워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4페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통된 하나의 리념을 내세우는것은 민족자주권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묶어세우기 위한 전제로 된다.

어떤 사상이나 리념은 다 계급적립장과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다. 각이한 계급,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각당, 각파, 각계층인사들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리념을 정면에 내세운다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없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각당, 각파, 각계층인사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리해관계를 침범하지 않는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내세워야 한다.

민족적리념은 나라와 민족의 근본리익을 반영하고있으며 외세에 의하여 짓밟히고있는 민족적자주권을 되찾을것을 요구하고있다.

북의 공산주의자들이 신봉하는 리념과 남의 민족주의자들이 가지고있는 리념은 물론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은 다같이 나라와 민족에 바탕을 둔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떠난 사상과 리념이란 한갖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당, 각파의 리해관계는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에 앞설수 없으며 그것은 우선 민족적리익에 복종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오늘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자기의 리해관계, 자기의 사상과 리념을 먼저 생각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한데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야 제도와 사상,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다.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북과 남이 민족대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이 다 민족대단결의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여야 조국통일위업을 빨리 앞당길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페지)

북과 남이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호상 리해를 더욱 촉진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민족적대단결의 전제는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푸는데 있다. 북과 남이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고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위한 공통점을 찾을수 있다.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반목, 대결이 지속되고 장벽이 막혀있는 조건에서는 민족대단결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수 없다.

북과 남이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여야만 북과 남사이에 오래동안 쌓인 불신과 랭랭한 감정을 가시고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게 될것이며 이 과정에 민족대단결의 분위기가 조성될것이다.

북과 남의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대단결의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과 리념을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사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여러차례 천명하였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는것과 같이 모든 선진사상과 사회제도는 밖으로부터 강요될수 없다.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남조선인민들이 어느 사상, 어느 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다.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다면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의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공통된 하나의 리념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현제도와 남조선사람들이 신봉하는 사상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고 민족대단결의 리념에 기초하여 남조선의 어떠한 정당과도 단결을 도모하며 남조선의 어떠한 정당도 공화국북반부에 와서 활동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기어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애국애족의 립장과 한없이 넓은 민족적아량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북과 남의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남조선에 있는 각 정당들이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여러 정당들과 단결할 용의를 가지며 공화국북반부의 어떠한 정당도 남조선에 가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것이다. 이와 같이 북과 남이 다 민족대단결의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여야만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고 조국통일위업을 빨리 앞당길수 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것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5페지)

민족적대단결은 어느 특정한 세력과의 단결이 아니라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의 단결인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 이에 필요한 환경과 조건이 시급히 마련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파쑈악법과 방대한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인민대중의 기본권리를 여지없이 짓밟고있으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지금과 같이 남조선에서 가혹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조건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있을수 없으며 그들이 대화와 합작, 민족대단결의 길로 자유롭게 나올수 없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북과 남의 대화를 실속있게 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민족적단합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파쑈적인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폐지하여야 한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파쑈폭압기구들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유지하며 남조선의 모든 애국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위한 파쑈적수단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포악하고 악랄한 《긴급조치》와 파쑈악법에 의하여 검거, 투옥, 학살되고있으며 통일혁명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가 억제당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민주화를 실현하고 민족대단결의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쑈악법들부터 폐지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력사는 파쑈독재가 스스로 물러난 례를 모르며 오직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야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해내외의 모든 민주주의적력량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야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방침은 민족내부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나가려는 철저한 주체적립장,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인 구국방안이며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수행에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을 떨쳐나서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방침은 다른 모든 통일방안과 함께 그 정당성으로 하여 북과 남의 전체인민들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민족대단결방침이 다시금 명백히 천명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근로자 1978년 제11호(루계 439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78년 11월 1일 발행 • 1978년 11월 5일

ㄱ—85286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7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440)

차 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선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탁월한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력사적보고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1페지)

사람들의 혁명관은 로동계급의 혁명의식으로 무장하고 혁명의 근본원리를 옳게 체득하며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확고한 혁명적 립장과 관점,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튼튼히 세워진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운다는것은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투쟁과 생활의 신념으로 삼고 주체적 립장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자신을 준비하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워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하고 주체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숭고한 풍모를 지닐수 있으며 혁명가의 참다운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이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되는것은 바로 그것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정신적바탕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며 모든 사고와 실천에서 철저히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의 근본원리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그리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참다운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새롭게 밝혀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게 하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조국과 인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게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적 관점과 계급적안목을 가지게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립장을 튼튼히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혁명관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 립

장과 관점으로,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신념으로 삼고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바른 혁명관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관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면서 한생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보람찬 투쟁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투쟁의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가 되여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것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폐지)

정치적생명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간직하는 가장 귀중한 생명이다.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수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간직할 때만이 삶의 참다운 보람과 영예, 인간의 존엄을 누릴수 있다. 이러한 귀중한 정치적생명은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몸바쳐나섬으로써 비로소 간직되고 더욱 빛나게 된다.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은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그처럼 간고하고 시련에 찬 어려운 환경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꿋꿋이 지켰으며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쳤다. 그들은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웠으며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빛내이였다.

이처럼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가의 높은 사상정신적특질을 지니고 혁명투쟁의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빛내여나가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또한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이란 어렵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시말하여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53폐지)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겹쌓인 간고한 투쟁과정이다.

착취계급과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투쟁은 더 말할것도 없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도 그에 못지않게 간고하고 복잡하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폭력으로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제도를 수립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상히 거창한 사업이며 그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동반되지 않을수 없다.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담당자인 로동계급과 혁명가들, 인민대중이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을 하여야 삶의 보람이 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는 높은 자각과 그 어떤 험난한 길도 용감히 헤쳐나가는 강의한 의지가 없이는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없다.

더우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주체위업은 참으로 거창하고 보람찬 사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업이며 그것은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오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를 점령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더욱 발전되고 부강한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을 안팎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를 더욱 현대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며 우리 인민에게 더욱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이며 보람찬 혁명투쟁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이 땅우에 공산주의미래를 하루빨리 안아오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이 거창한 혁명임무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때 우리앞에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주체의 혁명관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간고한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또한 주체의 혈맥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필승불패의 전투대오로 꾸려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끝없는 충실성이다.

로동계급의 수령과 그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은 사람들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룬다.

공산주의자들의 참다운 혁명관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을 높이 받들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려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에서 표현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가들이 지침으로 삼고 구현하여야 할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전략전술을 밝혀주며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또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혁명투쟁의 길에 들어서며 혁명가로 자라난다.

그러므로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

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그대로 받아안고 끝없이 신봉하며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혁명적본분이며 주체의 혁명관의 초석을 이룬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혁명의 수령이 내놓은 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드팀수 없는 신조로 삼고 수령의 위업에 충실할 때만이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으며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한세기가 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그의 위업에 절대적으로 충실할 때에는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혁명에서 우여곡절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고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장기간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며 찬란한 승리를 이룩하여온 우리 인민의 빛나는 투쟁로정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전체 인민이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영광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혁명의 최고뇌수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이끄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싸워옴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력사의 후진대렬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나라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더없는 영예와 행복으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이며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변함없이 싸워나가려는것, 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적립장이며 의지이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고 우리앞에 비상히 방대하고 어려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는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높은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

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3~364페지)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사람을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참다운 혁명적풍모를 갖출수 있고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지닌 혁명가로 될수 있다.

당조직과 일군들은 주체사상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기원을 열어놓고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 이 땅우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펼쳐놓은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깊이 체득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그 원리교양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사상창시의 력사적필연성과 본질, 그 기초와 기본요구, 주체사상의 구현원칙을 비롯한 제반 원리들을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

주체사상의 원리를 깊이 파악하여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심오한 내용과 위대성을 옳게 체득할수 있으며 언제나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주체적안목에서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주체의 신념을 굳게 가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여야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의 길을 걷고 완성된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화된 충실성을 튼튼히 지니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안겨주고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고 혁명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게 한다.

계급교양, 혁명교양은 사람들을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교양사업의 하나이다.

계급교양, 혁명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높은 계급적자각과 혁명적각오 그리고 확고한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 혁명을 끝까지 하여야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하여야 사람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들을 극도로 미워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싸우려는 높은 혁명의식과 각오를 가지고 보람찬 투쟁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나가게 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데서 혁명적 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과 실천투쟁 속에서만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며 주체의 혁명관을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람들의 참다운 혁명관은 사상교양과 함께 강한 조직생활과 혁명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지며 참다운 혁명관을 가진 강의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옳바른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난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옳고그른것을 정확히 가려볼줄 알게 되며 이 과정에 자기의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며 공산주의혁명가의 특질인 혁명적의지를 키우고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시켜나간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높은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불꽃튀는 투쟁속에서 자신을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성스러운 의무이며 크나큰 영예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가장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대를 이어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이에로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수할것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으며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혁명적조직관념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적풍모

리 오 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찬란한 로정에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이 자랑스럽게 깃들어있다.

혁명적조직관념을 지니고 조직규률에 끝없이 성실한것은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빛나는 정신적풍모의 하나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강한 조직관념을 지니고 강철같은 규률속에서 자과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였고 항일혁명대오를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다지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조직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조직의 위임분공에 충실하였으며 조직의 비밀을 목숨바쳐 지켜낸 불멸의 영웅서사시들은 우리 인민을 무한히 감동시키고있다. 가장 엄혹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높이 발양되였던 혁명선렬들의 조직관념의 생동한 모범은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오늘도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새 승리에로 더욱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　　　*

높은 조직관념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정신적특질이며 혁명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한 중요한 힘의 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생활에 참가하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는 없으며 그 보다 더 큰 의무는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5페지)

자기의 한생을 혁명을 위하여 바칠것을 굳게 결심하고 혁명조직의 성원이 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혁명조직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조직은 혁명가들을 련련한 투사로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며 혁명가들이 일생동안 의탁하고 혁명해나가야 할 사업과 생활의 믿음직한 거점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혁명가는 혁명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고 투쟁할수도 없다. 때문에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에 충실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응당한 본분으로 된다.

혁명가가 조직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것은 그가 조직에 대한 립장과 관점, 조직관념을 어떻게 지니였는가에 달려있다. 혁명가들이 혁명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조직관념을 지녀야 한다. 높은 조직관념을 가진 사람만이 조직이 주는 위임분공에 성실히 대하며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높은 조직관념을 소유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킨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첫시기부터 간고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조건에서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지원도 없이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 등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면서 강도 일제와 싸웠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최신 군사기술과 현대적무장으로 장비된 일제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해서 한두해도 아닌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계속되

는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적공세를 물리쳤으며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놈들의 온갖 책동을 이겨내야만 하는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강철같은 조직규률속에서 하나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강도 일제와 싸워이길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매일과 같이 전투와 행군이 련속되고 적들속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은 환경에서 매개 성원들이 참말로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지 않고서는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없었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은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고 강한 조직규률속에서 생활하지 않고서는 간악한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었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어떤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지어 적의 포위속에 있거나 천고의 밀림속에 홀로 남는 경우에도 혁명의 길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동요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비발치는 탄우도 박달나무 얼어터지는 강추위와 참기 어려운 굶주림도 잔인하고 야수적인 적들의 고문도 초인간적인 힘으로 이겨내면서 혁명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냈고 조직에서 준 어려운 혁명과업을 정확히 수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혁명적인 조직관념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조직규률에 충실함으로써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신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니였던 혁명적조직관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심어주시고 키워주신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으며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독창적인 혁명조직건설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젊고 패기있는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로 혁명조직을 무으심으로써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을 수많이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안에 당 및 공청 조직을 체계정연하게 내오시고 그처럼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도 대원들을 언제나 조직관념을 높이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실천적모범으로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친히 중대당지부회의를 비롯한 혁명조직들의 회의에 참가하시여 항일유격대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구체적지도를 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당세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신변을 념려하여 수령님께 알려드리지 않고 당원협의회를 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회의에 모인 당원들을 찾아가시여 당원이 리유없이 자기가 속한 당조직의 생활이나 회의에서 제외될수 없다고 엄하게 타이르시면서 사령관이라고 하여 당조직생활에 빠질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조직이 산활동을 하자면 조직의 매개 성원들이 위인분공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당조직에 몸소 찾아가시여 자진하여 분공을 요구하시였다. 1940년 겨울 사령부당세포에서는 소속된 당원들의 대부분이 중요한 직책에 있는 간부들로서 구분대의 지도사업에 파견되였기때문에 벽보를 만드는 분공만은 계획하고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째서 분공을 준 사람이 없겠소, 우선 나도 사령부당단체에 속한 당원의 한사람이요, 나에게도 분공을 줄수 있

지 않소라고 하시면서 벽보를 만드는 일을 자진하여 맡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친히 보여주신 위대한 모범은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적 조직관념을 높이고 조직생활을 해나가는데서 빛나는 구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보살피심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모두가 조직관념이 높고 정치군사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났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무엇보다도 혁명조직을 열렬히 사랑하고 가장 존엄있게 대하였으며 혁명적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는것을 잊지 말며 조직의 위임에 성실하여야 한다. 조직이 주는 임무에 성실하지 않고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한다면 혁명대오를 좀먹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모든 혁명조직들은 대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체득시키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참된 혁명전사로 단련시켜나가는 혁명의 학교였다.

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의 한 성원이 된것을 더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여겼으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끊임없이 세워나갔던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혁명조직을 가장 정중히 대하였고 조직생활에 참가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생활의 철칙으로 여기였다. 그들은 혁명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그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자신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의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조직을 끝없이 믿고 따르는 항일유격대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속에 품고있는 생각에 이르기까지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조직에 허심하게 보고하였다. 그렇게 하여 조직으로부터 옳바른 교양과 따뜻한 방조를 받으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해나갔다.

혁명조직을 끝없이 사랑하는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의 비밀을 생명으로 지켜냈다. 그들은 자신은 비록 죽는다 해도 혁명조직은 살아있어야 하며 혁명은 계속되여야 한다는 철석같은 신조로 놈들의 그 어떤 야수적만행에도 굴함없이 끝까지 혁명적지조를 지켜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조직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였는가 하는것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혁명투쟁에서 그 빛나는 모범을 찾아보게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주신 정치공작임무를 받으시고 적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중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시여 갖은 악형과 고문을 당하였으나 끝내 조직의 비밀을 지켜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최후를 각오하시고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조직에 보내시였다.

혁명조직의 비밀을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실 생명의 마지막순간을 각오하시고도 오직 한마음 혁명조직을 사랑하시고 심려하시는 이 고결한 품성은 사람들의 가슴을 한없이 뜨겁게 하여준다. 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이 몇마디의 짧은 말씀속에는 육체적생명은 비록 버릴지언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은 더럽히지 않으시려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고결한 혁명정신이 력력히 깃들어있으며 혁명조직에 대한 가장 숭고한 관점과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이것은 혁명조직속에서 살고 조직에 의거해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 더없이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자각적인 조직규률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니였던 혁명적조직관념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떤 곳에서나 또한 홀로 남을지라도 원쑤들과 싸울줄 알고 혁명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낼줄 알아야 하오.

혁명적조직규률은 혁명조직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다. 강한 조직규률이 없이는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없으며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 혁명가들은 조직규률을 어김없이 지켜야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할수 있으며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다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자각적인 태도로부터 출발하여 그 언제 어느곳에서든지 하나의 조직규률과 질서에 따라 강철같은 규률속에서 살며 싸웠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치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지정된 장소와 제날자에 꼭꼭 찾아와 당회의와 생활총화회의, 학습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당회의와 공청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실 하나를 놓고도 항일유격대오속에서 조직규률이 얼마나 강했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의 조직관념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전투가 계속되여 때는 한자리에 모여앉을수 없는 환경에서는 스스로 자기 생활을 총화하고 새 결의를 다지였으며 적후에 홀로 남아있을 때에도 언제나 조직은 자기와 함께 있는것으로 간주하고 혁명가의 솔직한 량심으로 자기 생활을 자신이 통제하였다.

항일유격대안의 혁명조직들에는 2중 규률이 없었으며 조직의 모든 성원들이 또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로동계급의 혁명조직안에는 오직 하나의 규률만이 있으며 조직의 모든 성원들이 이 하나의 규률속에서 생활하여야만 조직된 부대로서의 자기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다.

조직규률은 모든 성원들에게 의무적이며 그것은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할 철칙이다. 조직관념이 높지 못하면 이러한 조직규률의 초보적인 요구도 제대로 지킬수 없게 된다. 특히 혁명조직을 책임진 지휘성원일수록 조직관념을 옳게 가지고 규률을 지키는데서 모범을 보여야 대원들에게 요구성을 높일수 있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은 결코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며 조직의 통제와 비판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특권을 부리는것과 같은 현상이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은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빛나는 모범을 따라 누구보다 조직생활 규범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였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언제나 대원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다가도 일단 사업에서는 엄격한 규률을 요구하였다.

항일유격대는 이처럼 모든 대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하나의 규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강철같은 규률로 전대오가 행동함으로써 무적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될수 있었으며 조국의 광복을 위한 간고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상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는 사업에서도 높은 조직관념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시였다.

결함이 나타났을 때에는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묵과하지 말고 개별적인 충

고와 집체적인 방조를 통하여 하루속히 시정시키도록 힘써야 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판과 호상방조는 당원들의 일상적인 품성으로 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온갖 낡은 사상경향과 강하게 투쟁하여야만 혁명조직이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가일층 촉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양육성하신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비판사업을 자신들의 사상을 단련하며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로 삼고 사소한 그릇된 사상경향과도 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진행된 비판은 상하부의 구별이 없이 건전하고 건설적이였으며 원칙적인것이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혁명동지를 고쳐주고 단결을 강화하려는 숭고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기 위한것이 아니였다. 그러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동지들이 범한 결함에 대하여 서로 자기 결함처럼 아파하고 고칠 방도를 찾았으며 절대로 묵여두지 않고 제때에 비판하고 깨우쳐주었다. 참으로 항일혁명대오안에서의 비판은 조국광복을 위한 하나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전우들사이의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비판이였다.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총화하면서 결함을 대담하게 고쳐나가는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니였던 숭고한 품성의 하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결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으며 결함을 숨기는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조직과 동지들 앞에 자기 결함을 스스로 솔직히 비판하고 고쳐나가는것을 생활화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자기 결함에 대하여 얼마나 랭정하게 대하고 솔직하게 비판하였는가 하는것은 항일유격대 한 소부대의 당세포회의 진행과정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이 회의에서 한 지휘관은 부대의 학습용으로 잉크를 사려다가 주인이 끝내 돈을 받지 않기때문에 그대로 가져온 사실을 누구도 모르고있었으나 그것을 회의에서 자기비판하면서 이것은 인민의 재산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라고 하신 사령관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는것을 심각하게 분석하였다. 그러자 다른 대원들도 제가끔 일어나서 옷을 제때에 기워 입지 않은 사실, 꿰매려고 실 한 토리를 얻은 사실 등 사소한 문제들도 빼놓지 않고 그 결함의 본질과 사상적근원들에 대하여 예리하게 검토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 발휘된 조직생활에서의 강한 규률성과 혁명적원칙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이룩하는 힘있는 원천이였으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광복된 새 조선을 떠메고나갈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을 키워내는 강력한 무기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성실히 집행하는데서도 혁명적 조직관념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혁명가는 누구나 혁명조직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에 대한 충실성,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검열받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안의 당 및 공청 조직을 지도하시면서 언제나 모든 대원들에게 분공을 빠짐없이 고르롭게 주도록 가르치시였으며 몸소 분공 실행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빛나는 모범에 무한히 고무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언제나 혁명조직의 분공을 가장 철저히 집행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에 대하여 결코 경중을 따지거나 때와 장소를 가린적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혁명의 요구라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무조건 끝까지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혁명가의 어길수 없는 의무로, 혁명적 조직생활의 움직일수 없는 철칙으로 간주하였다. 분공이 차례지기만 기다리고 분공을 주면 하고 안주면 가만히 앉아 있는것과 같은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품성과는 인연이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였으며 조직에 찾아가서 분공을 자진하여 받고 그것을 다 수행하면 다시 새로운 과업을 받아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정황이 허락하지 않아 조직에 찾아갈수 없을 때에는 자체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주신 혁명임무를 받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해내고야말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것이 곧 조국광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어려운것과 쉬운것,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심장으로 받아들이였으며 그것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철저히 끝까지 관철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한 소부대는 원쑤들의 삼엄한 경비진을 뚫고 부대의 식량과 후방물자를 보장해야 할 과업을 받고 무서운 열병과 굶주림 속에서 형언할수 없는 곤난을 겪으면서도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앞에 두고 물러설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하면서 부닥치는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끝까지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항일유격대의 한 지휘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고 용감하게 활동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더는 합법적인 활동을 할수 없게된 시각, 그는 사령관동지께서 받은 임무중에서 수행한것과 못한것을 총화하고 이제 철창속의 며칠간이라도 못다한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감옥안에서 혁명조직을 뭇고 대중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의 깨끗한 량심으로 최후를 마쳤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혁명조직의 위임분공을 그 어떤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무조건 집행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경험은 조직관념이 똑바로 서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해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나게 유지해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한길에서 사소한 동요도 모르고 불타는 열정과 승리의 신심에 넘쳐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가의 삶은 자기 개인의 향락과 안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혁명조직의 한성원으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혁명의 길에서만이 빛난다. 사람은 정치적생명을 가져야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고 존엄있게 살수 있으며 조직생활을 해야 자신의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꿋꿋이 혁명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다.

참으로 조직관념을 높이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것,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영원히 참다운 혁명가로 살며 일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굽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으며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조직관념을 높이고 조직생활에 더욱 충실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혁명적조직관념과 조직생활기풍을 따라배워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김 철 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한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로작에서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에서 나서는 중대하고 절실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리론적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끝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들로 사회주의정치리론과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주체학설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불멸의 창조적문헌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영웅적인 투쟁과 빛나는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 담겨져있는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적재부가운데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관한 리론은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적세력과 반동세력 사이에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정치사상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세상에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생겨난 때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그 리론적대변자들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인민들의 동경을 말살해보려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다. 부르죠아민주주의의 반인민성과 허위성을 가리우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에 《반민주주의》, 《인권유린》이라는 딱지를 붙이는것은 현대반공선전에서도 의연히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민주주의에 관한 심오하고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민주주의에 관한 주체적인 리론은 혁명적인민들을 성스러운 자주위업수행에로 고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소동을 짓부시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국가활동분야에 구현하시여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식화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7페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 정식화의 독창성, 근본특징은 바로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는데 있다.

력사적으로 착취계급과 그 리론적대변자들은 이른바 《민주주의》에 대하여 론의하였으며 이러저러한 견해와 해석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 해석들은 례외없이 소수 착취계급의 계급적지배를 정당화하며 반인민적인 통치제도의 본질을 가리우는데 복무하였다. 이리하여 민주주의의 본질과 성격이 소수 착취계급에게 유리하게 외곡되였으며 민주주의의 개념에 담겨있는 중요한 사상들인 민권, 평등, 자유, 인권의 존중 등이 착취계급의 독재와 착취제도의 반인민성을 가리우는 위장물로 리용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하심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온갖 외곡된 해석과 견해에 종지부를 찍으시였으며 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명확히 밝히시고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식화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계급적성격을 띠였으며 또 띠고있다. 인류력사에서 계급을 떠난 국가가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성을 떠난 민주주의도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나 민주주의는 주권을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였으며 적대되는 계급에 대한 독재가 그와 결합되여있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생발전의 전과정에 의하여 확증되고있는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다.

력사에는 성격과 사회적본질에서 서로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었다. 일련의 고대노예소유자국가들에 존재하였던 민주주의는 철두철미 노예소유주들을 위하여 복무한 민주주의로서 노예들에게는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 부르죠아민주주의 역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자본가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소수 착취계급의 계급적지배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발생한 결과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착취계급의 독점이 끝장나게 되였으며 성격과 내용에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서 전혀 새로운 정치형태, 가장 인민적이고 진보적인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 나타나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계급성을 떠난 그 어떤 《순수한》 민주주의란 있어본 일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착취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따로 있고 더구나 이 량자가 성격과 내용에서 근본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조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하여서는 어느 계급의 립장에 서서 민주주의를 고찰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나선다. 오직 근로인민대중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민주주의문제를 고찰할 때에만 그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혀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밝힌 새로운 정식화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된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할뿐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 소수특권계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

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로 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8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이 진행되며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

근로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는 사회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로 되여야 하고 또한 그러한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뿐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사회제도의 민주주의적성격, 민주주의의 발전정도는 결국 사회에서 주민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얼마만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는가, 그들이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에 얼마나 참가하고 있는가,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얼마나 철저히 옹호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모든 착취사회는 반민주주의적인 사회이며 이 사회에서의 이른바 《민주주의》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착취사회는 소수에 의하여 다수가 지배되는 사회이며 이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이다. 소수 특권계층에게는 권리만을 주고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다수의 리익을 침해하고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로 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를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 정식화하심으로써 민주주의의 성격과 본질을 완벽하게 밝혀주시였으며 참다운 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를 정확히 가려낼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르조아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헐뜯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비렬한 책동에 파산의 선고를 내리시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 이것은 선행한 모든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87페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라는데 있다.

부르조아민주주의가 자본가계급을 비롯한 소수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인것과는 달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이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부르조아민주주의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그 우월성이 있다.

현실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모

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또한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지난날 예속과 무권리 속에서 살아오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이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고있으며 정당, 사회단체조직들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훼손하기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고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사회에는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실시되고있기때문에 《민주정치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을수 없으며 《자유》와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는 거짓을 퍼뜨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민주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야말로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는 증거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부르죠아국가의 본질인 부르죠아독재가 다수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착취계급의 독재라면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한 다수 근로인민대중의 독재이기때문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의 준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줄수 없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탄압을 받고있다고 떠벌이는 이른바 《인권》이란 다름아닌 인민의 원쑤들의 인권이며 그들이 바라는 《자유》란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는 계급적원쑤들의 파괴활동의 자유이다. 사회주의국가가 민주주의적질서를 유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것은 민주주의의 원쑤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은 또한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데 있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선포하는데 그치고 인민들이 그것을 행사할수 있는 사회적조건에 대하여서는 외면한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선포할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적조건을 담보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이러한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생활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여있고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로동생활에서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

가가 책임지고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물질적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으며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다.

국가의 이러한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고있으며 의식주에 대한 걱정, 교육과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모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은 또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성실히 투쟁하고있다는데 있다.

자본가계급에 의한 국가주권의 독점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에 기초하고있는 부르조아민주주의는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로 일관되여있다. 《각자는 자신을 위하여, 하느님만이 전체를 위하여》라는 원칙은 부르조아민주주의의 사상적기초를 이루고있는 근본원칙이며 리념이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결코 달리는 될수 없다. 부르조아민주주의가 실시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사람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공명과 출세,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서는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실시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은 자본주의사회와 판이한 대조를 이룬다.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가 청산된 결과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처지와 사회적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도 심각한 전변이 이룩되였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사회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여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경험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더욱 철저히,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할수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람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강화발전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동지적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사회를 튼튼히 다지는 힘있는 무기이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력사에서 전혀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최고형태의 민주주의이며 부르조아민주주의와는 대비할수 없이 우월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라는것을 명확히 실증해주고있다.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반인민성과 허위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떠드는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반인민성과 허위성, 형식성을 전면적으로 까밝히심으로써 다름아닌 제국주의가 민주주의의 원쑤라는것을 명백히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88페지)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반인민성과 허위

성은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의하여 규정되고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쥐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이니,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것들은 한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나라들과 피뢰국가들의 부르죠아헌법에 규정되여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달콤한 선언과 자본주의사회의 구체적인 현실, 근로인민대중의 처지 사이에는 넘을수 없는 심연이 놓여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저들의 반인민적립장으로 하여, 피착취대중에 대한 공포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허용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이른바 《인민성》을 선전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주권을 《행사》하고있다는 허황한 신화를 꾸며내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공민들의 정치적권리, 《제한없는 참정권》이란 다만 법적으로만 선포되고있을뿐이며 근로인민대중이 권리를 누릴수 있는 사회적조건은 전혀 마련되여있지 않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돈이 없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없는 근로자들의 정치활동이란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나라들과 피뢰국가들 그리고 남조선에서 정상배들과 착취계급의 일종의 투기적인 기업으로 되고있는 《선거》놀음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의 결과들은 례외없이 돈과 권력에 의하여 결정되고있으며 돈을 가지지 못한 로동자나 농민이 주권기관의 대표로 선거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할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드는 서방제국주의나라들에서 력대로 국회의석의 압도적다수가 자본가계급이나 그 앞잡이들에게 차례지고있으며 대통령자리나 정부요직에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진보적인사가 있어본적이 없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들고나오는 이른바 《자유》는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을 가리우는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이른바 《자유세계》에는 착취계급이 근로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탈탈하며 억압할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돈만 가지면 치떨리는 죄행도 포함하여 임의의 전횡과 반사회적인 행위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

사람의 인격마저 돈에 의하여 평가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없이는 그 어떤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그 대신 돈을 가진 억만장자들은 온갖 《자유》, 심지어는 악을 《선》으로, 부정의를 《정의》로 만들수 있는 《자유》를 누릴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 이것은 결국 돈있는자의 《자유》이다. 국가주권과 돈을 가지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착취계급에게 억압받고 천대받는 자유, 헐벗고 굶어죽을 자유, 집이 없으면 다리밑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얼어죽을 자유가 있을뿐이다.

《자유세계》에서는 자본의 독재, 자본에 의한 예속의 온갖 형태가 《자유》로 불리워지고있다.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억만장자들의 착취가 《기업의 자유》로 불리워지고있으며 출판기관을 독점하고 기자들을 매수하여 억만장자들에게 유리한 사회여론을 제멋대로 날조할수 있는 《자유》가 《출판의 자유》로 선포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평등》의 구호도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는 그 본성자체로부터 《평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것은 이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기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 《평등》

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려는 온갖 시도는 자본주의현실자체에 의하여 파탄되지 않을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국에서 억만장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의 재산상 차이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극심한 정도에 이르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록펠러, 듀폰, 멜론과 같은 몇몇 재벌들과 그 가족들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은 미국의 전체 로동자들 또는 전체 흑인주민들의 재산보다도 더 많다.

이러한 재산상 차이는 두말할것없이 생활수준에서의 거대한 차이를 낳고있다. 주택조건 하나만을 놓고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수천만 근로자들 특히 흑인들은 빈민굴에서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있으나 억만장자들은 도시교외에 100여간의 호화로운 방과 수십개의 목욕탕, 온갖 오락시설이 구비되여있는 별장들을 가지고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자본가들은 재산을 상속받은자들이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층에 속하는 사람들중 대부분은 무위도식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있는 기생충이다. 그들은 아무런 로동지출이 없이도 거대한 규모의 리익배당금을 받고있으며 막대한 반사회적인 랑비를 일삼고있다.

한편에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가지지 못하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 자녀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으로 기를 펴지 못하고 생활난에 허덕이는 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이 있는가 하면 다른편에는 막대한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탕진할것인가 하는 문제로 머리를 앓는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이 있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판이한 두 현실은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결정적우월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착취와 억압의 멍에로부터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참다운 민주주의이며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고 감싸주는데 복무하는 가짜민주주의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민주주의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은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주의에 관한 과학적정식화를 주시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는 옳바른 방도가 제시되게 되였으며 국가건설과 정치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학설은 끝없이 귀중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적재부로써 더욱 발전되고 풍부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고 부르죠아민주주의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워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세계사적승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인민들을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이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으며 빛나는 열매를 맺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구현된 결과 근로자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어떠한 착취제도에서도 알지 못하였던 실질적이고 완전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을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당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다

김 원 전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전망계획의 첫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짓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일층 높여야 한다.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포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으로서 이것을 강화하여야만 전당을 강화할수 있고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230페지)

사람이 건강하려면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건전하고 자기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하는것처럼 당이 튼튼하려면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과 당세포들이 건전하고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당세포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지 않고서는 전당에 왕성한 전투적기백과 패기가 넘쳐날수 없으며 나아가서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없다. 당세포가 튼튼히 꾸려지고 활발히 움직이는 전투적조직으로 되여야만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 따라서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것은 당을 공고히 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세우신 첫날부터 당세포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몸소 공장과 농촌의 당세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세포사업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면서 당원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 개천군 조양면 양참당세포와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포화속에서 락원기계공장 당세포에 대한 지도, 사회주의건설시기 강서군 청산리와 대안전기공장 당세포를 지도하신것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중앙과 지방의 수많은 당세포사업에 대한 지도는 우리 당세포를 쇠소리가 쟁쟁나는 당의 기층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떠밀어나가는 패기와 정열에 넘친 기본전투단위로 키워주신 빛나는 모범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당의 세포들은 당원들과 군중 속에 튼튼히 뿌리박은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여기에 바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그 전투적위력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당은 오늘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더욱 높일것을 중요하게 제기하고있다.

지금 우리 당앞에는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전투적강령을 철저히 실현하며 거창한 새 전망계획수행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성스러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당과 혁명 발전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전환과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은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

을 더욱 높여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당생활의 거점이며 군중속에 뿌리를 박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직접 조직동원하는 기본전투단위인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의 관철여부는 그것을 군중속에 침투시키며 직접 실천하는 세포들의 사업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세포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을 강화할수 없으며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83폐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세포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당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이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당세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당원들과 군중 속에 침투시키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 조직동원하는 기본전투단위이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며 관철된다.

공업부문의 당세포들이 잘 움직이고 전투력이 강하여야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당의 공업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으며 농업부문의 당세포가 제대로 활동하여야 농장원들의 열성이 높아지고 당의 농업정책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

따라서 당세포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통이 크고 패기있게 벌려야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그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현실은 당세포사업이 잘되는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례외없이 대중의 투쟁기세가 높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결국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끊임없이 높여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대중과의 일상적인 련계를 맺고 활동하는 당세포들의 역할에 따라 그 성과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당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또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관건적고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이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는 우리 당의 말단조직이다. 당원은 당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당세포에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게 되며 당생활을 통하여 당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간다.

세포조직은 당원들의 정치생활, 조직생활의 거점이며 혁명화의 학교이다. 세포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며 조직생활의 용광로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되게 된다.

당원들은 세포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고 당생활규범대로 행동할뿐아니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결속되게 된다. 이것은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당을 불패의 전투적조직으로 강화하여나가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인 당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이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며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당세포는 광범한 군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는 기본단위이다.

당세포가 늘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만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당을 믿고 따르며 백두밀림에서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당세포의 모든 당원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 혼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혁명대오에 묶어세웠던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유격대원들처럼 대중속에 주체형의 피와 영양소를 끊임없이 넣어준다면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당의 전투적강령은 더 힘있게 실현되여나갈것이며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은 더욱 굳건히 다져져 당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될것이다.

이렇듯 당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 *

당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당사업발전을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관건적고리이며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업이다. 이것은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향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현시기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포를 활발히 움직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당세포들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당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묶어세우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6페지)

당세포는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직접 교양개조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당세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 주체사상교양, 당정책교양을 깊이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 잘 키워야 한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자면 사람들을 잘 알아야 한다. 사람들을 모르고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깊이있게 벌려나갈수 없으며 그들을 내심있게 교양개조할수 없다.

당세포비서는 당원들을 손금보듯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있어야 하며 당원들과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일하며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매 사람의 성격과 수준, 그가 처한 위치와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을 짜고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로와 요구를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그들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성수가 나서 일을 본때있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부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제 3권, 제2판, 307페지)

경제과업수행과 동떨어진 세포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사업은 항상 경제과업수행과 결부되여야 한다.

당세포사업이 얼마나 잘되고있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경제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당세포들은 당의 경제정책과 자기 단위앞에 나선 전투과업을 당원들속에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 수행방도를 충분히 토론하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늘 자기의 기본혁명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도록 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당세포총회와 당생활총화회의를 비롯한 당회의들에서 당원들앞에 나선 기본혁명과업수행정형과 대책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토의하고 총화하며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여 본신혁명임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높은 책임성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고 적극 움직이게 될 때 세포가 산 전투적인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바로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당이 준 임무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여기에 당의 전투력을 높여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담보가 있다.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고 당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을 당생활규범에 따라 전개해나가는것은 당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그 역할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이다.

당세포가 힘있고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조직으로 되자면 세포의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세포생활을 강화함이 없이는 당원들의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수 없으며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갈수 없다.

오직 당생활을 강화하여야만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키워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된 공산주의적집단으로 만들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생활, 사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힘있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요구이며 당원들이 늘 움직이고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는 기본방도이다.

당세포는 모든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어 그들이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늘 움직이도록 하며 당생활총화, 당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여 당원들이 언제나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올바른 립장과 관점, 원칙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기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단련되게 해야 한다.

당원에게 있어서 당조직생활은 정치적생명이며 이것은 자기가 속한 당세포생활을 잘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당조직생활을 떠난 당원은 로쇠한 당원이며 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린 당원이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자기의 사상정치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생활규범에 따라 조직생활, 사상생활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해나가는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세포는 모든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세포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잘하여야 하며 조직생활, 사상생활이 정규화, 습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혁명적조직관념은 당원에게서 떼여낼수 없는 근본표징의 하나이다.

당조직생활에서 조직관념을 높이며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높이 추켜드는것은 당원들로 하여금 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빛내이고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며 당을 생기발랄하고 혁명적인것으로 다져나가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며 당원들의 영예로운 과업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활발히 벌려 자신들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데서 시, 군당위원회와 초급당조직들이 당세포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커다란 작용을 한다.

시, 군당 및 초급당조직들은 세포안의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이 경제과업은 어떻게 수행하고 정치사업은 어떻게 조직하고있는가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편향없이 일해나가도록 계획적으로 지도해주어야 한다.

우리 당에 있어서 당세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세포비서들은 이 기층조직을 책임진 당의 핵심력량이다.

세포사업이 얼마나 잘되는가 하는것은 세포를 책임진 세포비서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조직능력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시, 군당위원회와 초급당위원회들은 세포비서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사업능력을 높여주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획적으로 꾸준히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세포비서들을 위한 강습, 방식상학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을 잘 배워주고 도와주어야 하며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면 반드시 세포비서들을 만나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회의와 학습을 지도하는 방법, 당원들과 군중을 만나 담화하는 방법 등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방법을 일일이 가르쳐주어야 한다. 특히 세포비서들이 사업에서 틀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구체적실정과 조성된 정황에 맞게 사업을 능숙하게 전개해나가며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밀고나가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어야 한다.

세포비서들의 실천적모범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모든 세포비서들은 대중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로력적위훈에로 이끌어나가는 전위적기수가 되고 조직자, 선전자가 되여야 한다.

세포비서들은 누구보다도 조직사상생활에서 모범이 되며 언제나 궂고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사업에 투신하며 어려운 모퉁이를 남먼저 맡아나서는 투쟁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관리와 기술혁신, 나라살림살이와 학습의 모든 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본보기가 되고 참다운 거울이 되여야 한다.

세포비서들은 유급일군이 아니고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세포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것만큼 누구보다도 혁명가로서의 립장과 풍모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야 세포앞에 나선 과업들을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당세포비서들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은 참으로 무겁고도 중요하다.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은 당세포비서들이 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벅찬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주체농법관철과 군당위원회의 지도

김 억 만

지금 온 나라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보람찬 한해농사를 결속지은 기쁨을 안고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우리 어랑군안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세로 들끓고있다.

오늘 전국의 농촌들과 함께 우리 군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전례없이 심하게 미친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있게 이겨내고 어랑군의 농사에서 처음보는 대풍을 이룩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농장원들의 정치적 열의와 자각이 비상히 높아졌다.

올해에 우리는 매우 불리한 이상기후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농법을 관철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지난해보다 논벼는 정당 평균 1톤이상을 더 생산하게 되였고 강냉이는 정당 평균 2톤이상을 더 내게 되였다.

함경산맥의 험준한 계곡 칠향리로부터 어랑천기슭의 지방리와 이염리에 이르는 많은 농장들에서는 농장적으로 논벼정당 7톤이라는 동해안 북부지대 농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올해 농사에서 거둔 성과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최고수확년도였던 1976년에 비하여 거의 1만톤이나 장성한것으로 된다.

알곡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축산업과 과수업이 현저히 장성함에 따라 농장원들의 분배몫이 늘어나고 현금수입이 더욱 높아졌다.

올해에 우리 군의 농장들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알곡은 호당 평균 2.3톤, 현금은 지난해보다 호당 평균 1,000원이상 더 받게 되였다.

참으로 어랑군의 알곡생산에서 올해처럼 이렇듯 풍만한 열매를 맺은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군의 농사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해방후 첫시기에 어랑군의 농업발전전망을 깊이 헤아리시고 어랑관개망을 펼쳐주시였으며 조, 피, 수수가 주작으로 되여있던 이 고장을 튼튼한 논벼생산기지로 꾸려주시였다.

함북도 농사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 또다시 도안의 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이 지대에서도 미리 준비를 잘하였다가 서해안지대에서와 같이 모판씨뿌리기와 모내기를 일찌기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농법을 관철하는 실천행정에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만 한다면 동해안지대농사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으며 실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

우리 군이 올해 농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풍만한 수확을 거두는 과정에 얻은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폐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양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기풍이며 혁명투쟁에서 어길수 없는 철칙이다.

당정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고 객관적조건을 앞세우면서 당정책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며 이래가지고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이악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은 전진도상의 어떤 애로와 난관도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내게 된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주는 임무에 대해서는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는 확고한 혁명적립장을 가져야 한다.

주체농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영농방법이며 농사에서 하나의 혁명으로서 그것은 오직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일해나갈때 당의 요구대로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한때 우리의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대적특성을 운운하면서 경험주의, 보수주의에 매달리고 소극성에 사로잡혀 주체농법을 당이 요구하는대로 훌륭히 관철하는데서 적지 않은 부족점을 나타내였다.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영농사업의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무엇보다도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함북도 농사와 관련하여 주신 수령님의 교시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과 농장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농촌경리부문에 주신 교시를 자체실정과 결부하여 깊이 침투시키는데 모를 박고 진지하게 사업하였다. 그리고 군안의 일군들을 동원하여 랭상모판씨뿌리기를 일찌기 하는것이 주체농법의 요구일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주신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이라는 것을 깊이 해설침투함으로써 그들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한편 군당위원회가 지난 기간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서 지대적 조건과 특성을 앞세우면서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지 못한 현상들과 그 후과들을 가지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벌린것은 일군들과 농장원들로 하여금 지난 기간의 사업을 비판적으로 돌이켜보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온갖 낡고 보수적인것과의 투쟁을 동반하게 되며 이것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해서만이 극복되여나갈수 있다.

우리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 주체농법의 과학기술적요구들을 지키는 문제는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재는 사상적문제로 된다는것을 해설해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근기있게 벌려나갔다. 그리고 일부 일군들속에서 발로되고있는 주먹치기로 농사를 지도하는 그릇된 경향들과의 사상투쟁도 꾸준히 벌려나갔다. 이러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단 한치도 어겨서는 안된다는 립장과 관점이 점차 서가게 되였다.

그러나 주체농법의 요구를 인식하는것과 그것을 실천하는것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일부 일군들과 농장원들 속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알고있기는 하였으나 실천단계에서는 이러저러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적지 않게 나타내고있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는데서 자연지리적조건을 앞세우면서 그를 극복하는 방도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고있는데서 나타났다.

올해 우리 군에는 벼모판씨뿌리기때에 진눈까비가 내려 산과 들에 무둑히 쌓였고 게다가 세찬 해풍까지 몰아쳤다. 이렇게 되자 일부 농장관리일군들속에서는 랭상모판씨뿌리기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것을 불가피한것으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주먹구구식농사에 매달려 살아온 이고장 사람들의 낡은 근성의 표현이였다. 어랑지대의 농민들은 해방전에 조, 피, 수수 농사를 위주로 하면서 하늘의 조화나 날씨를 보아가며 밭을 갈고 씨를 뿌려왔다. 불리한 기후조건을 이겨내고 주체농법대로 영농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낡은 관습을 극복하는것이 중요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상기후현상으로 영농사업에서 일시 애로와 난관이 조성될수 있으며 주체농법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사람만이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는것을 철저히 인식시키는데 모를 박고 사업하였다.

동시에 주체농법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로만 선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과정에서 시범단위를 창조하여 그것으로 농장원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리하여 한 단위의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체농법의 정당성을 귀로 듣게만 한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여 대중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실천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전투단위인 작업반, 분조들에 들어간 군당일군들은 눈무지를 헤치며 얼어붙은 땅을 파제끼고 벼겨에 불을 지펴 언 땅을 녹이는 벅찬 전투를 벌리였다. 지도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니탄을 캐고 두엄무지를 뜨지여 부식토를 장만했으며 수십리 떨어진 산속에서 후리채를 만들어왔다. 이것자체가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조직동원하는데서 힘있는 정치선동으로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상기후현상으로부터 오는 때아닌 추위를 충성의 열정으로 이겨내며 모든 사람들이 높은 혁명적정열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토록 심려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실현하기 위한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교시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모든 힘을 다 바쳐 한사람같이 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은 실로 큰 힘을 낳았으며 자연을 정복하는 벅찬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

투쟁과 충성으로 들끓는 나날속에서 군안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모든 논판의 배수암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고 부식토를 넉넉히 내였으며 랭

대한 랭상모판씨뿌리기 과업을 례년보다 훨씬 앞당겨 해제꼈다.

군당위원회는 다른 영농작업도 이런 방법으로 함으로써 올해 농사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었다.

우리는 올해 영농사업의 첫공정을 통하여 동해안지대에서는 자주 안개가 끼고 랭해가 심하여 농사를 잘할수 없다고 하던 종래의 낡은 관념을 짓부시고 농사를 잘하는 비결은 결코 하늘이나 날씨의 조화에 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체농법을 정확히 관철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깊이 확신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주체농법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경험의 하나는 또한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할 때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업이 잘되고 못되는것은 결국 군중을 잘 발동시키는가 못시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방법을 계속 관철하여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요구를 듣고 해결하며 군중과 의논하고 그들을 이끌고나아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71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수행된다. 인민대중의 사상과 열의를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그 어떤 사업에서도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조직동원하는것은 대중에 의거하여 혁명하는 우리 당의 근본사업방법이다.

바로 농사와 같이 때를 놓쳐서는 안되는 매우 긴장하고 복잡한 전투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한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시켜 시간을 다투는 모내기전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기 위한 옳은 집행계획과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시기 모내기전투는 매해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따라세우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 함북도 농사에서 모를 일찍 내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모내기준비를 잘하였다가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모를 제철에 빨리 내는것은 주체농법의 요구이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제한된 로력으로 모내기를 일찍 끝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군당위원회는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지도일군들부터 발동되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대중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알려주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대중을 투쟁에로 이끄는 사업을 다름아닌 지도일군들이 수행하기때문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일군들속에 빠짐없이 해설침투시켜 그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군의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도 휴식도 같이하면서 대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해설침투시키고 정치사업, 선전선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하는데서 커다란 은을 내였다.

한편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당 및 근로단체 조직별 회의 준비를 짜고들어 진행한것은 대중을 발동시키기 위하여 군당위원회가 진행한 조직사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실무적인 회의로서가 아니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였다.

당회의준비를 잘하여 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있어서나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로 그들을 적극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면과업수행을 위한 목적과 의의를 똑바로 알게 되였고 특히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농장원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여 나서게 되였으며 모내기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우리는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현장에서 다양한 정치선전, 경제선동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모범들을 방송과 기동선전대, 속보와 벽보를 통하여 제때에 소개선전하여 농장원들의 사기를 한층 높이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는 군안의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모내는기계운전공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었으며 지도일군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이러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데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 커다란 예비가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였다.

우리는 주체농법관철을 위한 전투과정을 통하여 지도일군들이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는것이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체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내기를 할 때에는 관리위원장이 논판에 먼저 들어가서 모를 뽑을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아야 하며 자신이 직접 벼모를 꽂아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모내기에 적당하니 모두 나가서 모를 꽂자.〉고 말해야 대중이 잘 동원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70페지)

혁명과 건설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열의를 얼마나 높이며 그들의 적극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진행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는것이다.

일군들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도 실천행동에서는 모범을 보이지 못하거나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내려먹이기만 한다면 대중의 존경과 신임을 받을수 없을뿐아니라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일군들이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발동시키기 위한 위력한 방법은 말보다도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일군들이 실지 행동을 통하여 모범을 보일 때 대중은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되며 그와 같이 행동하게 된다.

우리는 군안의 전반사업을 책임진 군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대오의 앞장에서 군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아래단위에서 걸린 고리를 제때에 알수 있었으며 옳게 풀어나갈수 있었다.

모내기전투를 벌리던 때의 군당위원회의 투쟁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올해 가장 긴장한 시기인 모내기가 한창이던 때에 논판고루기가 밀리여 모내기를 빨리 다그치는데 커다란 애로가

조성되였다.

이때에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써레치는 일의 앞장에 섰으며 모내는기계의 운전공이 된것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군중의 심금을 더 울릴수 있었으며 모내기전투에 나선 그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줄수 있었다.

전쟁마당에서 지휘관이 앞장서야 승리할수 있는것과 같이 일군들이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앞장서며 대중과 합심하여 모내기의 모든 공정마다에서 몸을 적실 때 보다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것이다.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대중속에서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내였으며 무서운 힘을 낳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해마다 수많은 지원로력을 받아가지고도 오래 걸리던 모내기를 군안의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단 보름동안에 와닥닥 해제낄수 있었다.

실로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열의가 발동될 때 발휘되는 힘은 한정이 없다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는 그후에 벌어진 농작물비배관리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내밀으로써 올해 영농작업의 모든 공정들을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갈수 있었다.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당사업도 잘되고 행정경제사업도 잘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대중의 힘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기만 하면 그 어떤 과업도 능히 해낼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가 달성한 성과와 경험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새로운 높은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근에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지으며 명년도 농사를 더 잘 짓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는 농업생산에서 계속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며 새 전망계획의 알곡고지를 앞당겨 점령하는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지금 어랑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함북도지대의 알곡생산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풍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새해에 더 큰 풍작을 이룩할 충성의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주체농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단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특히 군안의 당조직들이 농사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짜고들게 하여 명년도 농사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의 위대한 생활력

한 기 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인테리정책과 교육정책 관철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교육사업발전과 3대혁명수행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인테리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다.

지난날 무지와 몽매만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튼튼히 세워졌으며 사회주의문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해방후 령으로부터 출발하여 처음으로 대학을 세우고 민족간부를 양성한 우리 나라는 지금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가지고있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높은 요구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인테리들의 정치사상적풍모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뼈와 살로 만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은 우리 인테리들의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되고있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확고한 의지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되고있다.

오늘 모든 인테리들은 나라의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빛나게 관철해나가고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100만의 인테리대군의 형성, 이것은 참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길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이며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다.

지난 기간 인테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열매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가 노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인테리대군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을 밝히시였으며 인테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며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며 모든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을 인테리정책의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하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 만드는것은 우리 당이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견지하여온 일관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의 혁명성을 믿고 그들을 새 사회의 건설에 적극 인입하여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인테리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71페지)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할데 대한 방침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가 노는 역할과 식민지나라 인테리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것으로서 인테리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다음 새 사회건설에서 중요하게 풀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인테리문제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인테리문제를 옳게 해결함이 없이는 사회적진보도 나라의 자주적발전도 이룩할수 없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인테리문제해결에서 우선 제기되는것은 오랜 인테리문제이다. 로동계급은 낡은 사회에서 자기에게 복무할 인테리부대를 마련할수 없으며 주권을 잡은 다음 오랜 인테리들을 인입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혁명에 적극 인입하여야만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특히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오랜 인테리를 옳게 평가하고 그들을 혁명에 적극 인입하며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교양개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의 인테리는 제국주의의 민족적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았기때문에 민족적혁명성이 있으며 애국심이 높다. 그들은 또한 공부를 하고 진리를 파악하고있기때문에 시대적추세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혁명의 동력으로 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의 인테리의 이러한 특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우리 나라에서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며 교양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빛나게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의 혁명성을 믿지 않으며 그들을 덮어놓고 의심하고 배척하는것은 하나의 종파주의적경향이며 그리고 인테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것은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는 해독적인 경향이라고 비판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물론 오랜 인테리들은 그들의 계급적출신과 과거의 사회정치생활경위로 하여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오랜 인테리들의 혁명성을 보지 않고 그들을 의심하고 배척해서는 안된다. 만일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오랜 인테리의 민족적혁명성과 애국심을 보지 않고 그들을 의심하고 배척한다면 자체의 민족기술간부대렬을 마련할수 없으며 자주독립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단호히 배격하시고 그들을 굳게 믿고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오랜 인테리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옳바른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옳바른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아무런 편향없이 순조롭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오랜 인테리들에게 남아있던 이중성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오랜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인테리로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할데 대한 방침은 그들을 로동계급에게 충실

히 복무하는 혁명적인테리로 만들어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가는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준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를 대대적으로 키울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개조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키우는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렸다.》(우와 같은 문헌, 217페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것은 자기의 참다운 로동계급적인테리부대를 꾸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리용하여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을 많이 길러내야 민족간부대렬의 계급적구성을 개선할수 있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인테리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다. 그리하여 민족간부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과업을 빛나게 해결할수 있다.

새로운 인테리를 빨리 키워내는 문제는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더욱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지난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민족인테리부대를 가질수 없었으며 이 나라들은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제기된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민족간부양성사업과 인민교육사업을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인정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가야만 자체의 인테리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혁명발전의 요구와 나라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뒤떨어진 처지에서 말리 벗어나며 자체의 민족간부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이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며 모든 지방에 종합적인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키울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절박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인테리들을 가장 짧은 기간에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민족간부의 계급적구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 탁월한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식민지예속하에 있던 나라들이 자체의 힘으로 공고한 인테리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민족간부에 대한 수요를 훌륭히 해결해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방향과 방도를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새 인테리나 오랜 인테리나

할것없이 전체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할것이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과 언제나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7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이 해방후 첫날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인테리를 교양개조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의 심화발전으로서 로동계급의 참다운 공산주의적인테리육성의 힘있는 무기이다.

인테리는 자체의 직업적특성으로 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될 기회가 적다. 그런것만큼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로동계급의 혁명성, 조직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 인테리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만 그들을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만들수 있다.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그들을 공산주의적인테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새 사회 건설에서 그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테리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비판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인테리들이 부단히 현실과 접촉하고 군중속에 들어가서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단련하며 로동자, 농민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 문제들을 인테리혁명화의 중요한 방도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모든 인테리들을 공산주의적인테리로 만들며 사회주의하에서 인테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인테리정책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인테리문제의 빛나는 해결을 위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는 물론, 해방후에도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과학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인테리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테리를 혁명의 동력으로, 당의 구성성분으로 규정하시고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을 넓은 품에 안으시여 혁명의 길에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전국각지에 흩어져있던 인테리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시여 혁명대오에 세워주시고 대학의 교단과 연구실, 공장과 광산을 비롯한 중요한 혁명초소를 맡겨주시였으며 그들이 혁명의 길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표식에 마치와 낫과 함께 새겨져있는 붓은 우리 인테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의 표시이며 인테리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보시고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나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는 빛나는 상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곤난하고 해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선차적으로 해나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회의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하시였으며 전선에 나간 대학생들을 부르시여 공부하도록 취하신 모든 혁명적조치들에는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돌

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도록 간곡히 가르쳐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풀지 못하여 모대기는 리론적문제들과 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한 해명을 주시며 과학연구를 위한 온갖 조건과 배려를 다 돌리시고계신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분야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 이것은 결코 그 어떤 개별적과학자들의 노력이나 재능에 의하여 창조된것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우리 과학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신 현명한 령도와 과학자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 배려와 사랑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의 인테리문제의 빛나는 해결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찬란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민족간부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기울이신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의 고귀한 열매이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와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수행에서 큰 전진을 이룩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7~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으로 선포하시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직한 우리의 인테리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최대한 높이 발휘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모든 인테리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칠 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인테리들, 교육일군들 앞에 교육테제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육테제를 관철하는 사업과 3대혁명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가 못쌓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교육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교육테제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을 앞당겨야 한다.

교육테제를 관철하는데서 인테리들, 교육일군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은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을 실현하는것으로 되며 이것은 중요하게 인테리들이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사업이다.

모든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보람찬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

현시기 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특히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인테리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새로운 과학분야들을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이는데서 창조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짓부시고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여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연구분야를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오늘 인테리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그들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인테리들은 무엇보다도먼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관을 철저히 세워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간고한 투쟁의 길을 용감히 헤쳐나갈수 있으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당의 참다운 인테리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은 또한 누구보다도 혁명적조직관념을 높이고 혁명적조직생활과 실천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강한 조직관념을 가지고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할 때 자신을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단련하고 수양하게 되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경험은 누구를 막론하고 조직관념이 부족하고 조직생활을 게을리하며 조직의 통제를 받기 싫어할 때에는 안일해이해지고 교만해지며 혁명의 길에서 떨어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인테리들이 과학기술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인테리들은 주로 기술과 지식으로써 사회에 복무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자기의 전공분야에 정통하며 과학기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모든 인테리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당정책학습과 전공학습을 강화하고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오늘 인테리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크며 인테리들앞에 나선 과업은 실로 무겁고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적자질을 소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

주 화 종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칠데 대한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기술혁명에 관한 사상과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기술혁명에 관한 사상과 방침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이며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리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술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기술혁명을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이라고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기술혁명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것을 힘있게 벌렸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2페지)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그들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완성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잔재와 자연의 온갖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이며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하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줄수 있게 한다.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로동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은 인간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들을 창조하며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인간자체도 개조한다. 또한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해나갈수록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며 자주성을 높여나갈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리게 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착취와 압박을 청산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온갖 사회적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한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기술과 생산력의 락후성으로 하여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어렵고 힘든 로동이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이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지 못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착취와 압박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려면 기술혁명을 다그쳐야 한다.

기술혁명을 다그쳐 낡은 사회의 유물인 손로동을 없애고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여야 어렵고 힘든 로동을 없애고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보장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일을 헐하고 흥겹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정치적인 과업으로 된다.

기술혁명은 또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높일수 있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물질적담보는 자립적민족경제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할수 있으며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이나 자연기후조건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근로자들에게 안정하고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근로자들의 자주성은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최신기술로 장비할수 있게 하며 새로운 부문들을 창설하여 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기술혁명은 또한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를 강화하여 경제를 안전하게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일수도 없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높이는데도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그것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개변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68페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여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시키는것은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그것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기술혁명을 다그쳐야 사상의식을 개변하기 위한 물질적조건을 튼튼히 마련하여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수준과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면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더욱 튼튼히 가지게 된다. 또한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해나가는 복잡한 기술혁명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자신의 힘을 굳게 믿게 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력갱생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된다.

기술혁명은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간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리용하여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근로자들은 현대과학기술을 빨리 체득해나가게 되며 자주적인간이 지녀야 할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며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의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확고히 가지게 하여 자주성을 높여나가는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기술혁명이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무엇보다도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더욱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이다. 공화국정부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야 한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을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이라고 규정하심으로써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기술혁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명백히 해명되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밝혀졌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곧바른 길을 따라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기술혁명을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이라고 규정하심으로써 기술혁명을 단순히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물질적부를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인 과업으로 보아오던 일면적인 견해에 종지부를 찍으시였으며 기술혁명에 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근본립장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의 총적목표가 더욱 뚜렷이 밝혀지고 주체의 기술혁명리론은 가일층 발전풍부화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기술혁명이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이라는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세기에 길이 빛날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은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완전히 없앴으며 나아가서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된 다음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2페지)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은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첫시기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민족경제는 완전히 파산되였으며 인민들은 현대적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 기계라는 말조차 모르고있었다. 현실은 나라의 경제를 새롭게 건설하고 기술적락후성을 빨리 극복하는것을 새 사회 건설의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사회경제제도를 개조하여 근로자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투쟁과 함께 기술혁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사회발전의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기술혁명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혁명과업들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뒤이어 기술혁명을 다그칠수 있는 물질기술적전제를 마련하시였으며 기술혁명의 단계와 매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중심과업을 뚜렷이 밝히시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술혁명을 위한 준비단계, 전면적기술개건단계, 3대기술혁명단계를 거쳐 기술혁명을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의 첫

단계인 준비단계에서 공업의 심장이며 기술혁명의 기초인 기계제작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중공업의 기간적부문들을 먼저 새 기술로 장비하며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를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기술혁명의 준비단계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시여 전면적기술개건단계에서 중공업과 경공업, 기본건설과 운수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개조하며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밀고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남들이 한 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전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될수 있었으며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근로자들이 한결 흥겹고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로동조건에서의 차이가 남아있고 어렵고 힘든 로동도 없어지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깊이 분석하시고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된 다음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이 제시되고 빛나게 수행되여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강도와 로동조건에서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경제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자체의 민족기술간부를 키워내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이다.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무장한 자체의 민족기술간부가 있어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야 최신기계와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자체의 민족간부를 키우는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수많은 대학들을 창설하시고 주체사상과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며 일하면서 공부하는 투쟁을 강화하도록 이끄시여 그들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체의 힘으로 기술혁명에서 나서는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었다.

다른 모든 혁명사업이 다 그러하듯이 기술혁명도 그것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을 전인민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잔재들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시였다.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잔재들이 극복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됨에 따라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는 기풍이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

써 지난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서 진보와 문명에로의 일대 비약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우리 나라의 경제는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섰으며 그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지난해에 우리의 공업생산은 1946년에 비하여 196배로 늘어났으며 1946년부터 1977년사이에 공업총생산액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5.1%로부터 33.7%로 높아졌다. 우리는 대형기계와 현대적설비들을 훌륭히 만들어내고있으며 기계설비수요의 98%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에서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섰다.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와 기술혁명의 승리적전진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힘든 로동에서 많이 해방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채취공업과 금속공업을 비롯한 주요 공업부문들에서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시되여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많이 없어지고 로동자들은 밝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하고있으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넓은 길을 따라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힘든 로동에서 많이 벗어났으며 뜨락또르와 모내는기계,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는기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가지고 흥겹게 일하고있다.

또한 여러가지 식료가공품과 가정용랭동고, 세탁기 등 현대적인 부엌세간들이 많이 생산공급됨으로써 녀성들의 가정일도 훨씬 헐해졌다.

고열로동과 유해로동, 힘든 로동에서 많이 벗어나고 물질적부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인민들은 먹고 입고 쓰고살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면서 더욱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3

오늘 우리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높이 받들고 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4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데 대한 방침은 근로자들을 하루빨리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강령적지침이다. 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전진이 이룩된 오늘 3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줄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으며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여 생산력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3대기술혁명을 계속 밀고나가면서 인

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 밝혀져있는 기술혁명에 관한 사상과 방침을 깊이 학습하여 그 본질과 정당성, 수행방도를 체득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3대기술혁명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것이다.

기술개조의 보다 높은 목표들을 내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의 요구에 맞게 이미 있는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일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을 짓부시고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목표들을 높이 세워야 하며 생산의 주인, 기술의 주인된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지니고 그것을 기어이 달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모두가 다 기술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쓰고 힘과 지혜를 합쳐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성능높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창안제작하며 과학연구의 성과와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치려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이는 기술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쓸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기술혁신목표를 세웠다 해도 그것을 달성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3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과학기술성과로써 보답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신의 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일군들은 과학기술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이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술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빛내여야 할것이다.

인민경제계획사업과 생산의 중요요소들에 대한 과학적타산

안 봉 기

오늘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밑에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진군운동을 다그치기 위하여 현시기 경제지도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에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설비능력, 나라의 자원과 자재, 자금, 로력과 같은 모든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70페지)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것은 생산의 모든 요소들의 실태와 그 변화과정을 옳게 장악하고 서로 잘 맞물려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경제의 계획화사업에서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할 생산의 중요요소들은 설비능력과 기술, 나라의 자원과 자재, 자금과 로력과 같은것들이다.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 로력, 자금과 같은 생산의 모든 요소들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의 기본대상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타산하는가에 따라 계획의 현실성과 동원성을 보장하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좌우된다.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경영활동의 여러 고리들을 잘 맞물릴 때만이 경제의 계획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옳게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필수적요구로,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사업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 부문내부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지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됨에 따라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특히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구체적실태로부터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 절실한 요구로 된다.

제2차7개년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일찌기 없었던 방대한 규모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으로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술수단들을 개선하며 경제를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것을 예견하고있다. 새 전망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우리의 경제는 지금보다 비할바없이 량적으로 많은 제품을 생산할뿐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된다.

우리는 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

튼히 장비하는 방법으로 담성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오늘 우리나라에는 주체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건설되였으며 우리의 경제는 거대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가지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든다면 우리 경제의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있는 경제적밑천을 가지고 생산을 훨씬 높이며 기술수단들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정황을 옳게 판단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잘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전하고 싸움을 벌려야 전투에서 승리할수 있듯이 경제사업에서도 기계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과 같은 모든 요소들을 옳게 타산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생산기술공정,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간다면 우리는 이미 마련해놓은 생산능력, 우리 인민이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쌓아올린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지금 있는 기술력량, 기계설비들의 능력을 옳게 평가하고 그 발전전망을 잘 타산한데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과학적으로 안받침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타산하면서 일할 대신에 되는대로 일해나간다면 인민경제의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적극동원리용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기술혁명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것은 인민경제부문사이, 부문내부사이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공업생산을 해마다 12.1%라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지금보다 생산을 2배이상 높일것을 예견하고있다. 새 전망계획의 높은 목표와 빠른 발전속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부문사이, 부문내부사이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실현할수 있도록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는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빈틈없이 조사하고 검증한 자료에 기초하여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을 정확히 타산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인민경제부문사이, 부문내부사이의 옳은 균형을 보장할수 있으며 국가적,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력량을 잘 편성하고 주도적부문에 힘을 넣어 전반적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생산의 중요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이 없는 자료와 수자에 기초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그러한 계획은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으로 될수 없을뿐아니라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과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과 혼란을 가져다주게 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계획을 세울 때만이 옳은 경제균형을 보장할수 있으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하는것은 또한 타산이 없이 일을 되는대로

하는것과 같은 낡은 사업태도, 사업기풍을 없애고 모두가 다 깐지고 알뜰하게 일할수 있게 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기계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따져가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일을 되는대로 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모두가 다 주인다운 립장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갈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형식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와 같은 낡은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을 없애고 당적, 국가적 립장에서 모든 경제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된다.

이것은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사업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인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사업은 경제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공장 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전반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조직하며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어느 한 고리라도 놓치지 말고 경제활동의 모든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타산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객관적현실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포괄되며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자고 하면 여러가지 조건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19페지)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모든 고리들이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맞물리게 된다. 사회주의국가가 기계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 등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공업과 농업, 생산과 운수,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사이 그리고 축적과 소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균형을 보장하여야만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경제균형으로 될수 있다.

여기에서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타산한 수자와 자료들은 언제나 경영활동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맞물린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는 기초로, 전반적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모든 고리들과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타산함으로써 옳은 경제균형에 기초하여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의 중요요소들과 함께 나라의 자원상태,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 생산력의 지리적배치와 투자의 경제적효과성 등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빠짐없이 타산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타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또한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원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타산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생산장성의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도록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타산하여야만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발전법칙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경험통계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과학기술적타산에 기초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실현에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킨다면 경제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것이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는것을 의미한다.

*　　*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기계설비와 자재, 자금과 로력을 잘 타산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관적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빈틈없이 조사되고 검토된 객관적자료에 기초하여 자재, 설비, 로력, 자금과 같은 것을 옳게 타산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2폐지)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기계설비와 기술수준, 기술력량을 옳게 타산하며 기술발전계획을 세우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기계설비 등 로동수단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적극적인 요소를 이룬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계설비는 근로자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면서도 생산을 빨리 증대시키는데 적극 리용된다. 그러므로 기계설비, 기술상태를 구체적으로 타산하는것은 계획의 현실성과 동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우리는 기술과 생산 그리고 기술과 로력, 자재, 자금을 잘 타산하여 생산은 얼마나 늘이고 로동생산능률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며 자재와 자금은 얼마나 절약할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잘 맞물려야 한다.

특히 기술개건을 위한 타산을 바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공장, 기업소들을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서 개조하여야 생산능력을 훨씬 더 높일수 있으며 그것을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는 사업을 어떻게 다그치며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이고 모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사업을 어떻게 밀고나가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타산이 있어야 한다.

특히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맞게 수송을 더욱 추켜세워야 할 절실한 요구로부터 수송의 현대화를 다그쳐 수송능력을 훨씬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계획이며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보다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데 필요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과학화수준을 가까운 앞날에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원료와 자재는 생산의 기본요소의 하나로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계설비와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 우리의 공업은 그 규모가 비상히 커졌으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요구하는 원료, 자재는 날을 따라 더욱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그러므로 원료자재가 실지 얼마 있으며 얼마나 보장받을수 있고 그 질은 어떠한가 하는 등 자재의 보장정형과 질적상태를 정확히 다지는 것은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타산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원료와 연료, 자재에 대한 타산을 바로하자면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더 많은 매장량을 확보하

며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모조리 찾아내야만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원료, 자재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지질탐사사업을 더욱 추켜세우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로 이 부문을 잘 장비하며 탐사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원료, 연료 생산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지질탐사사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대량채굴, 대량처리하기 위한 타산을 바로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품위가 높고 매장량이 많은것만 캘것이 아니라 대량채굴, 대량처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 더 많은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원료, 연료 보장대책과 함께 원자재소비기준을 계통적으로 낮추기 위한 타산을 바로하여야 한다.

원자재소비기준을 낮추는 문제는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로써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원자재소비기준을 언제까지 얼마나 낮추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타산되여야 해결된다.

기계설비, 원료와 함께 로력, 자금 타산이 중요하다. 생산에서 가장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요소는 사람이다.

우리는 공업부문로력과 농업부문로력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며 로력의 절대적인 증가로써가 아니라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여 늘어나는 생산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석탄, 광업, 지질탐사 등 생산의 첫공정을 담당한 부문들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로력균형을 정확히 보장하여 원료, 연료 생산을 가공공업에 부단히 앞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자금을 타산하는데서는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재정수입원천을 늘여 국가재정수입을 끊임없이 늘이며 자금회전을 촉진하여 그 리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타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방법론을 부단히 개선하며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그 보장조건을 잘 타산하는것이다.

계획지표에는 국가계획과제들이 반영될뿐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계획과제의 량적규모와 질적내용이 타산되고 모든 경제기관들의 사업범위와 사업한계가 규정되며 경제활동의 모든 고리들이 서로 맞물리게 된다. 그러므로 계획지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것은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계획을 정확히 세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요구에 맞게 계획지표를 세분화대하여 유일국가계획지표로 설정하고 개별적경제단위들에 그것을 분담하여 국가적립장에서 책임적으로 계획화할데 대한 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모든 계획지표들이 유일국가계획지표로 되고 그것이 정확히 분담된 조건에서 경제지도일군들은 해당단위에 맡겨진 계획지표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책임적으로 맞물리고 경제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국가계획지표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국가계획과제로 규정된 계획지표들 고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계획지표체계를 옳게 설정하는것과 함께 생산과 수요를 세부적으로 맞물리는 계획작성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생산과 수요를 세부적으로 맞물리는 조건에서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에 맞게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조직진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생산물의 수요를 정확히 규정하는것과 함께 수요에 대한 보장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것은 계획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생산계획의 중요한 근거로는 되지만 그것은 아직 한

측면에 불과하다. 인민경제계획은 생산물의 수요와 함께 그것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에 확고히 기초하여야 한다.

과학적타산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영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계획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빈틈없이 갖추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 경제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경제 형편과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실정을 철저히 조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설비, 원료, 자재, 자금, 로력 등에 대한 세밀한 수자적 타산이 있어야 합니다.》(《김일성선집》 제1권, 226페지)

경영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기초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경제활동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할수 있으며 생산장성속도를 옳게 규정할수 있다.

우리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경제적분석에 기초하여 경제발전 규모와 수준, 기종별 기계대수와 그 성능, 생산면적의 리용률 등을 환히 꿰뚫고있어야 하며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 로동력의 리용정도와 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 생산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의 보장정형, 여러가지 기술경제적기준과 생산준비 및 계획실행정형 등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경영실태의 장악과 함께 여러가지 기술경제적기준제정사업을 잘하는것은 과학적타산의 중요한 요구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준화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생산자대중이 창조한 새로운 성과들이 기준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며 현대과학과 기술이 도달한 성과에 기초하여 기준을 항상 선진적인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사업은 여기에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생산자대중은 일상적인 생산활동을 통하여 기업소의 설비상태와 원료, 자재의 보장정형, 로력형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있으며 설비리용률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 기술혁신과 새 기술도입의 가능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경제활동의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계획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계획화사업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방침을 구현하여 이 사업에 생산자대중을 광범히 참가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경제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는데 있다.

경제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를 비롯한 로작들과 계획화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들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높은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여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은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 전망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달려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절박한 요구

독 고 원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침들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보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와 그로 말미암아 남조선사회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전면적으로 통찰하시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서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함으로써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실제적조건을 마련하는 가장 정당한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5페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현시기 우리 인민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령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이 정당한 방침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현군사파쑈독재가 분쇄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이룩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한 파쑈폭압통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강요하고있을뿐아니라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

애를 조성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파쑈악법과 방대한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인민대중의 기본권리를 여지없이 짓밟고있으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페지)

미제의 비호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총칼로 괴뢰정권의 자리를 가로챈후 인민탄압의 무제한한 권한을 거머쥐고 파쑈와 전쟁, 매국과 분렬을 일삼고있는 민족의 극악한 원쑤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가장 반동적인 《유신체제》를 꾸며낸후 그것을 공간으로 하여 수많은 파쑈악법들을 조작하고 테로와 살륙을 업으로 하는 폭압력량을 대대적으로 늘이였으며 그것을 휘둘러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깡그리 유린말살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 기관들이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이 무참히 처형당하고있다. 남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혹심한 인권유린지대로, 《민주주의의 폐허》로 전락되였다.

모든 사태발전은 현군사파쑈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무권리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도 앞당겨나갈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강화하여 파쑈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남조선인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찾을수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숙원인 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만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우선 온 민족이 통일문제를 자유롭게 론의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통치로 말미암아 통일의 주체적세력으로 되고있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통일운동에 자유롭게 참가하지 못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이 나라의 평화적통일에 대한 말만 하여도 《반공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에 걸어 그들을 극형에 처하고있다. 놈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지향을 총칼로 억누르고 남북대결과 민족의 영구분렬로 제놈의 잔명을 유지해보려 하고있다.

남조선에서처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이 가혹하게 탄압당하고있는 조건에서는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없다.

남조선에서 포악한 《유신》독재체제를 뒤집어엎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유롭게 론의하고 통일위업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며 온 민족의 념원에 맞게 통일운동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또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민족적대단결의 리념과 원칙을 떠나서는 결코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남조선에서 사회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정치적바탕이 마련되여야 한다. 민족적대단결은 결코 파쑈와 량립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지금처럼 인민들의 초보적인 요구이며 권리인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억제되고 《반공》이 악랄하게 고취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적단결의 유리한 환경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릴수 있고 민족적리념에 따라 자주적평화통일을 원하는 광범한 인민들이 한데 뭉칠수 있다. 그렇게 되여야 또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과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합하고 민족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안팎으로 더욱 고립되여 궁지에 빠진 박정희괴뢰도당은 민족의 영구분렬과 새 전쟁 도발에서 제놈들의 출로를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통일보다 분렬이 낫다.》고 하면서 《분렬유익》설과 《통일불가능》론을 설교하고있으며 《유엔동시가입》이니 《교차승인》이니 하는 따위의 민족영구분렬안들을 성사시켜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미제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며 미일상전들에게 구걸하여 군사장비와 작전물자들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여 군사력을 늘이고 군사기지를 신설확장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전역에 《진시상태》를 선포하고 가혹한 전시악법들을 무데기로 조작하며 괴뢰군의 《현대화》, 《향토예비군》의 《진력화》를 다그치고 《학도호국단》, 《민방위대》 등을 꾸며내여 청년학생들과 주민들을 전쟁연습에 내몰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러한 《반공》소동과 전쟁소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내외여론을 기만함으로써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억누르고 뒤흔들리는 저들의 통치지반을 부지해보려 하고있다.

안으로는 민주화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말살하는 파쑈독재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미일반동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여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엄중한 장애를 받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책동과 영구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킬수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파쑈독재가 꺼꾸러지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될 때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성과적으로 이룩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인민들이 짓밟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찾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운동에 적극 참가하게 함으로써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인민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폐지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5폐지)

박정희괴뢰도당이 꾸며낸 《유신헌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들은 놈들의 가혹한 파쑈폭압통치를 유지하며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남조선에서 《유신헌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들을 페지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찾을수 없으며 사회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뒤받침해주고있는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페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긴급조치》와 파쑈악법들에 의하여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게 들씌워진 부당한 형벌들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당,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려야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으며 각이한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모두 합법적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고있다.

또한 오늘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으며 지어는 제국주의나라들에서도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구속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가 금지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통일혁명당을 비롯하여 지하에 있는 정당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원래 정당, 사회단체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사회정치생활에 반영하자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정당과 사회단체들에 의해서만 정확히 반영될수 있다.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로 투쟁하고있는 통일혁명당과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에 의해서만 참답게 반영될수 있다.

남조선에서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해외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 단체들과 애국적인사들이 남조선에 돌아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벌리도록 하는것이다.

해외에 있는 조선인단체성원들과 애국적인사들로 말하면 그 대부분이 남조선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며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벌리다가 놈들의 가혹한 탄압에 못이겨 피해간 사람들이거나 혹은 괴뢰통치기관에 있다가 인간쓰레기 박정희매국역적놈과 운명을 같이하기를 원치 않고 해외로 망명해간 사람들인것이다. 이들은 비록 해외에 거처를 두고있으나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 함께 사회

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해외교포단체와 애국적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쳐놓고서는 남조선에서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사와 요구대로 남조선에 돌아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수 있도록 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남조선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박정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기세는 매우 높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파쑈폭압이 심한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쌓이고쌓인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찾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애국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계속 완강하게 벌림으로써만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그 주되는 예봉을 박정희괴뢰도당의 포악한 파쑈독재를 타도하는데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련대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불문하고 해내외의 모든 민주주의적력량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파쑈독재세력과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26페지)

단결은 침략자와 억압자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서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남조선에서 박정희파쑈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결코 어느 한 당파나 계급의 리해관계만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의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살인적인 《유신》파쑈독재밑에서 가혹하게 탄압당하고있으며 학살당하고 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능히 하나의 력량으로 굳게 단합되여 투쟁할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들이 하나로 굳게 단결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떤 악독한 원쑤도 능히 때려부시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해내외의 모든 민주주의적력량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파쑈독재세력을 반대하여 더욱 과감히 싸워나감으로써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파쑈독재가 오래 간 례는 력사에 없었으며 구경은 다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투쟁에 의하여 멸망하고말았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구국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유신》독재체제를 짓부시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고야말것이며 남북조선·전체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견지하고 통일단결을 고수해야 한다

현 명 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가 발표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력사적로작에서 세계혁명발전과 국제생활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와 역할을 명철하게 천명하시였으며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들과 방침들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인류해방위업을 위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로작에서 밝혀진 사상과 방침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발전행정에서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앞에는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통일단결을 고수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분렬과괴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여야 할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합된 력량으로 진출할 때에만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기의 숭고한 목적과 리념을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전반적세계혁명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서 이 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수행에서 언제나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 *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과 사명을 지니고 력사무대에 등장한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운동이다.

이 운동은 그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온갖 형태의 민족적 압박과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참다운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며 새로운 국제관계질서를 수립하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투쟁목적으로 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정책은 제국주의가 파산몰락되고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71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목적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공통된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혁명투쟁의 시대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반제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세계의 그 어떤 인민, 그 어떤 민족

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으며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고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있다.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이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반제자주를 지향하여나가는 우리 시대의 이 기본추세를 반영하고있다.

이 운동은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현시대발전의 요구를 가장 폭넓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수많은 나라들을 단합시키고있으며 전반적국제정세발전과 세계혁명위업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출현함으로써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진출하게 되였으며 반제자주를 위한 그들의 정당한 투쟁은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그자체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으로 하여 성원국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그것은 이 운동의 투쟁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되였다.

베오그라드로부터 시작되여 이미 다섯차례에 걸쳐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들과 그리고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과정들은 단결과 협조의 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그 모든 회의들은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회의들에서 채택된 문건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데 대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의 그들의 련대성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이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포괄적인 정치적강령들과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자기의 뚜렷한 특성과 원칙들을 고수하고 채택된 결정들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일관하게 실시하여왔다.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쁠럭불가담운동이 취하고있는 모든 정책들과 원칙들 그리고 이 운동이 벌리고있는 적극적인 공동투쟁은 세계혁명위업과 국제정세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세계무대에서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력량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인민들의 자결및 독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세계의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크게 추동하였다.

최근년간 유엔총회와 기타 국제기구들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일치하게 제국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 및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강력히 폭로규탄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민족해방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투쟁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과정은 힘있게 촉진되였으며 제국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분야에서뿐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침략과 략탈에 기초한 낡은 국제질서를 짓부시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냈다.

국제경제관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투쟁

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침투와 략탈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원을 지키고 그것을 적극 개발하여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쁠럭불가담운동은 인류에게 그처럼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멸망과정을 촉진시키고 민족적독립과 자유, 사회적진보와 평화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정의로운 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추동하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장성발전과정은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세력을 비롯한 온갖 반동들과의 복잡하고 첨예한 투쟁과정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이 력사적진군을 시작한 첫순간부터 이 운동의 영향력을 막으며 그것을 약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의 급격한 발전과 증대되는 영향력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이 운동을 분렬과괴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니 《친선》이니 하는 따위의 간판을 요란스럽게 내흔들면서 신흥세력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에 침투하여 그들을 서로 반대하는데로 부추기고있으며 다시 예속시키려 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들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령토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분쟁문제들과 사상, 제도, 종교 등의 차이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불화의 씨를 뿌리며 반목과 대립을 고취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분렬와해하며 쁠럭불가담운동자체를 말살해보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새 사회 건설에서 겪고있는 일시적인 난관을 리용하여 병주고 약주는 식의 《원조》로써 이 나라들을 반제자주의 길에서 떼여내여 우경에로 돌려세우려 하고있다.

특히 최근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세력들은 세계의 곳곳에서 쟁탈전을 치렬히 벌리면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분렬리간시켜 저들의 지배와 통제 밑에 끌어넣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온갖 지배주의세력의 분렬리간책동으로 하여 지금 일부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는 서로 반목질시하며 무장충돌까지 일으키는 극히 엄중한 사태들이 빚어지고있다. 이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반제자주위업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만약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쁠럭불가담운동은 더욱 큰 시련을 겪게 되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를 받게 될것이다.

이것은 벗들에게는 슬픔을 주고 원쑤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실로 가슴아픈 일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수습하고 힘을 합쳐 이 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정세는 쁠럭불가담나라들로 하여금 쁠럭불가담운동의 분렬을 저지하고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전통과 특성을 확고히 수호하면서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그들의 분렬, 와해, 쟁탈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는것은 이 운동자체발전을 위해서나 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을 위해서 실로 사활적문제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의 분렬, 와해, 쟁탈 책동을 짓부셔버리는 바로 여기에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며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다그치는 튼튼한 담보가 있다.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단결해야 승리할수 있고 흩어지면 각개격파당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첫 력사적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처럼 위력한 력량으로 장성강화될수 있은것도 이 운동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통일과 단결을 이룩해온데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수 있는 실제적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 다같이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오늘은 반제자주의 숭고한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있으며 다같이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자주성을 견지하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리념으로 삼고있다.

이처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있으며 여기에 그들이 단결할수 있고 공동으로 손잡고나갈수 있는 기초가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공통점은 차이점보다 크며 그들을 단결시키는 힘은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힘보다 강하다.

지난 7월 베오그라드회의 전과정은 바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단결의 정신이 분렬의 기운을 초월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회의에서 쁠럭불가담성원국들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배주의세력의 분렬, 와해, 쟁탈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대처할데 대한 방침을 튼튼히 견지하였던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이 운동의 특성을 고수함으로써 모든 분쟁문제들과 의견상이들을 통일과 단결의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 진보적인 나라이니 비진보적인 나라이니 하는것을 론하지 말며 성원국들을 이편저편으로 가르지 말고 전통적인 쁠럭불가담정책에 기초하여 단결해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에 기초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정신을 발휘하여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 이 운동안에서 발생한 분쟁문제들과 의견상이들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끼리 민족적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협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국경분쟁을 비롯한 분쟁문제들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지금 이른바 분쟁문제의 《조종자》로 자처하면서 돌아치고있지만 실은 그들때문에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분쟁이 날로 격화되고있으며 문제의 해결이 끝없이 지연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공격의 화살을 형제들을 반대하는데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모든 문제를 공동의 목적과 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한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조성된 사태를 수습하고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쁠럭불

가담나라들이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는 구경은 매개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평등하고 공고한 기초우에서 발전시킬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1페지)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가장 귀중한것처럼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자주성이다. 자주성이 없는 민족은 아무런 영예도 존엄도 지닐수 없다. 그러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없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며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의 근본담보이다. 그것은 또한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원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존중하여야 국제적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나라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관계를 도모할수 있다.

원래 모든 나라와 민족은 평등하며 자주적이다.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모든 나라는 그것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자주성의 원칙은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반대할뿐아니라 남을 예속시키고 지배하는것을 반대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존중함으로써만 자기의 권리와 존엄을 튼튼히 지키고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조성된 비정상적인 사태들을 성과적으로 수습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과 협조를 옳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의 온갖 형태의 간섭과 쟁탈 책동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한다면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은 쁠럭불가담운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것이며 그 어떤 지휘봉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남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는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수 없으며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할수 없다.

신흥세력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고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지배주의세력의 교활한 분렬와해책동에 경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그들의 세력권쟁탈의 희생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독립과 민족적자결권을 수호하며 온갖 지배세력의 간섭과 침략을 반대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자체의 본성이며 그 숭고한 리념이다.

만약 이 숭고한 리념에서 벗어나 자주성이 없이 외부의 간섭과 지배를 허용한다면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는 끝임없이 복잡한 사태들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이 운동자체가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롱락물로 전락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수 있다.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는것은 민족적재난과 불화의 화근으로 된다. 이것은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감으로써 조성된 오늘의 복잡한 사태들을 수습하고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것이며 단합된 력량으로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민족적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며 통일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오늘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간섭, 폭압과 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군축》이라는 막뒤에서 군비경쟁을 다그치고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 없으며 인민들의 자주적발전과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없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매개 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실현하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특히 제국주의의 착취와 략탈, 지배와 통제의 공간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사버리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해나간다면 강대국들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 어떤 외세의 정치, 경제적 압력과 간섭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자체의 힘으로 번영하는 새 사회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으며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위업에 더 큰 기여를 할수 있다.

참으로 반제자주의 기치를 튼튼히 고수하고 굳게 단결하는것은 신흥세력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온갖 지배주의세력의 간섭과 통제를 끝장내고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정치세력인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에 의하여 빚어진 오늘의 일시적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단결된 힘으로 전진할것이며 자기의 숭고한 목적과 리념, 반제자주의 리념을 실현하고 인류해방위업을 위하여 더욱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자주성의 기치, 반제투쟁의 기치, 통일과 단결의 기치는 필승불패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책동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 어떤 힘도 쁠럭불가담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단결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을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계속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그의 반제자주의 공동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근 로 자 1978년 제12호(루계 440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8년 12월 1일 발 행•1978년 12월 5일

ㄱ—85255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illegible]1동 [illegible] 50선

1978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호 페지

편집국론설

혁명전통론설

당건설론설

정치사상론설

경제건설론설

남조선 및 국제 론설

(정기간행물 번호
第13206號)